

原刊本『捷解新語』の朝鮮語KWIC索引

—— 正 順 ——

村 田 寛

凡例

1. 本索引は、原刊本『捷解新語』一卷から九巻までに現れる朝鮮語の文脈付索引(KWIC 索引)である。
2. 本索引の底本は、弘文閣(1990)に拠った。この影印本のもとになった原本は、韓国ソウル大学校奎章閣所蔵の図書番号 貴 1638 である。
3. 本索引の字母の順序は次の通りである。

子音 Ø (子音無) ㄱ ㅋ ㆁ ㄷ ㅌ ㄴ ㄹ ㄷ ㄴ ㄹ ㅁ ㅂ ㅅ ㅈ ㅊ ㅌ ㅍ ㅎ
(複子音などもこの順序で組み合わせる)

母音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ㅚ ㅜ ㅡ ㅣ
(二重母音などもこの順序で組み合わせる)

4. 朝鮮語部分の索引の取り方は、基本的に趙義成(2005)の基準に従った。誤植と思われる語形もそのまま索引としているので注意が必要である。索引中、誤植と思われる文字の後には[]をつけ、[]内に正しい文字を入れてある。例：자녀[네]
5. 索引に現れる漢字の中には、底本通りの漢字がフォントの関係で出せなかったものがある。
6. 文字がよく見えないところには、☒を入れてある。
7. 李太永譯註(1997)を参考にして朝鮮語にピリオドや疑問符などをつけた。
8. 索引の各行は、次のようになっている。

| 出典 | 前文脈 | KW | 後文脈 |
|----------|---------|---------------|-----|
| (0125b5) | 내 친히 東萊 | 가 극진이 슬오려니와 | |

このとき、前文脈の一番左の文字、および、後文脈の一番右の文字の一部が欠けているものがあるが、それは技術的問題によってそのようになっている。

9. 索引の出典表示は、次の通り。

(0709a4) { 07 : 巻数
 09 : 張数
 a : 裏表 (a : 表, b : 裏)
 4 : 行数

↓

原刊本『捷解新語』第7巻の9張表の4行目を表す。

●参考文献

- 李太永譯註(1997) “譯註 捷解新語,” ソウル: 太學社
趙義成(2005) 『初刊本『釋譜詳節』統合 KWIC 索引』, 東京: 三鈴印刷
弘文閣(1990) 『原刊活字本 捷解新語』, ソウル: 弘文閣
辻星児(1997) 『朝鮮語史における『捷解新語』』, 岡山: 岡山大学文学部
辻星児(2003) 「ソウル大学校奎章閣所蔵の「朝鮮資料」について」『岡大 国文論稿』
31, 岡山: 岡山大学文学部言語国語国文学会
村田寛(2008) 「原刊本『捷解新語』の朝鮮語 KWIC 索引ー逆順ー」『福岡大学研究
部論集 A:人文科学編』8・3, 福岡: 福岡大学

<付記>

村田寛(2008)「原刊本『捷解新語』の朝鮮語 KWIC 索引ー逆順ー」『福岡大学研究部論集 A:
人文科学編』8・3 においても, 誤植と思われる語形もそのまま索引としているので注意が必要
である. また, 同索引中, 次の誤植があった。

(0514b5) 니르읍쇠 (誤) → 니르읍노쇠 (正)

【謝辞】

文献の電子テキスト化に際しては, 九州大学文学部国語国文学科 4 年生(協力当時)の藤山
沙織氏および福岡大学人文学部東アジア地域言語学科 3 年生の藤田花衣氏に協力して頂いた。
この場を借りて感謝申し上げる。

| | | | |
|----------|----------------------|---|--------------------|
| (0424a6) | 기 어려이 폐로이 굴모로 東萊 | 入 | 百姓도 견디디 못 홀 일은 五 |
| (0217a2) | 음의 걸리옵니. 심심이나 茶禮 | 入 | 날 종용히 뵈옵고 니즌 스이 업 |
| (0208a2) | 하옵더니 今度는 膳敷器皿 以下 | 入 | 조출하고 과줄과 건물과 머글 |
| (0315a3) | 하. 長老와 島主는 이 나라 臣下 | 入 | 되엿스오니 므릇 일을 엇디 알 |
| (0704b2) | 조브니 바든 이과 혼 가지니 使 | 入 | 아라 御禮를 술오시소. 짓습거 |
| (0519b3) | 하. 安堵하영이다. 對馬島主의 使 | 入 | 즉시 와서 太守 翁는 바는 보오 |
| (0712a1) | 하시미 도홀까 시프외. 쏘 더 使 | 入 | 信使를 위-하야 冠帶를 홀 작 |
| (0713a1) | 을 닐러 들리소. 江戶로셔 御使 | 入 | 예-스지 왔넉이다. 여긔 드옵 |
| (0601b3) | 를 서르 던-하여 이제 쏘 三使 | 入 | 멀리 渡海하셔 내-게 請하여 |
| (0720b5) | 하 알피 가져 버려 셴 후에 信使 | 入 | 가시게 하면 도홀까 시프다 하 |
| (0709a6) | 건마는 行下를 존녕이다. 信使 | 入 | 吉田에 留홀 제 島主과 昭長老 |
| (0512b6) | 하 일덩 그러하온가? 天氣 樣子 | 入 | 일덩 順風이 이실 듯 하다 하니 |
| (0506b3) | 하히 註進하여시니 쉽사리 返事 | 入 | 올 써시니 그리 아옵소.” 하 |
| (0508a3) | 하여 하옵니. 며칠만의나 返事 | 入 | 올고 짐작이 계실 써시니 니르 |
| (0509b6) | 아라 기드리옵소. 그 장계 返事 | 入 | 왔습니. 구-하시는 대로 나 |
| (0614b3) | 하 날을 만나시니 이 앓흔 萬事 | 入 | 만 편-홀까 祝願하영이다. 長 |
| (0312b4) | 하 島主도 나흔 저므셔도 萬事 | 入 | 長老의 떠디디 아녀 奇特하 |
| (0518a2) | 하 問安하시덩이다. 예-스지 使者 | 入 | 감격키 너기농이다. 우리는 마 |
| (0701b2) | 시게 하야 차반을 가지고 使者 | 入 | 왔스오니 어렵습거니와 使者 |
| (0132a4) | 아려 보시소. 客人이 와야 亭主 | 入 | 보디 아니 하옵는가? 그러커니 |
| (0320a5) | 목디 말고 수이 도라 오라 島主 | 入 | 마장 분부-하엿스오니 아 |
| (0622b6) | 곳으란 스양 아니 하셔도 島主 | 入 | 아라셔 案内 술오령이다. 니르 |
| (0812b1) | 게 맞디오리. 藍島 宿所에 太守 | 入 | 보오라 와서 信使의 술오른 어 |
| (0831a5) | 씩셔 구딕여 말리는 故로 太守 | 入 | 빅을 저어 나아 서르 장방 우회 |
| (0832b3) | 서르 하딕 아롭다왕이다. 太守 | 入 | 今度 슈고-하신 양은 朝廷의도 |
| (0322b1) | 려 가야 京으로써 返禮의 返書 | 入 | 올 거시니 自然 더딜까 너기 |
| (0608a1) | 을 아니 하넉이다. 接待의 馳走 | 入 | 심상티 아니시니 굿봄도 계 |
| (0814b5) | 우리 일란 더디고 太守의 果報 | 入 | 셴 일인가? 이러로셔 內內 御禮 |
| (0412a6) | 겨시리. 즈믄 各官으로써 東萊 | 入 | 時分도 헤아리디 아니코 公木 |
| (0709b2) | 吉田에 留홀 제 島主과 昭長老 | 入 | 뵈오며셔 信使의 술오른 江戶 |
| (0323a3) | 대로 하오려니와 公木은 束數 | 入 | 잇스오니 쇼인-네 수이 도라 |
| (0324a1) | 하각-하넉이다. 우리 나라는 禮 | 入 | 든든 하여 혼 번 덩-하 후는 고 |
| (0903b1) | 하 쏘 아니라 즈믄 큰 술에 正體 | 入 | 업서 내려섬도 싱각 아니코 |
| (0327a6) | 하 山浦로셔 正官과 都船네 樣體 | 入 | 심상티 아녀 奇特하 相指를 다 |
| (0903a3) | 아옵소. 어제는 불의예 혼 振舞 | 入 | 니르시니 고디 드렸습더니 싱 |
| (0717b4) | 로 보오완마는 兩國 誠信之道 | 入 | 心中의 친-하야 아롭다왕이다. |
| (0321a6) | 하로 하옵소. 이리 감격-하 御意 | 入 | 다시 술을 양이 업서이다. 그러 |
| (0716a1) | 하 닉일도 보오련마는 먼 딛 使 | 入 | 尋常히 못 홀 일이니 吉日을 골 |
| (0118b1) | 하셔. 對馬島셔도 자넉는 上口 | 入 | 줄 聞及하엿스오니 斟酌 마옵 |
| (0507a1) | 하기는 “맛당히 수이 봄이 本意 | 入 | 朝廷으로써 返事 온 후에 보와 |
| (0310b1) | 하 남기시믈 아란마는 나는 下口 | 入 | 客人을 위-하야 고디시기 잔 |
| (0118a4) | 하 아직 御酒 하나 자옵소. 下口 | 入 | 마르쇼셔. 對馬島셔도 자넉 |
| (0507a4) | 하으로써 返事 온 후에 보와야 禮 | 入 | 아직 기드리옵니. 不自由하 |
| (0609b6) | 하 로송이다. 드문 信使의 御馳走 | 入 | 心中의는 비-홀 딛 업건마는 |
| (0520a6) | 하 問安 알외녕이다. 녀너-하신 使 | 入 | 하. 인는 디도 녀너-하시모로 |
| (0102a2) | 하.” 니르고 오라. 御念比하 御使 | 入 | 하. 어와 아롭다이 오옵시도 |
| (0409b5) | 하. 公木 五十 束 드련스오니 나 | 入 | 하 보와 잡습소. 이 公木이 엇디 |
| (0314b3) | 하 심상히 너기디 말고 千 年이나 | 入 | 하 -도록 오래 불 양으로 하 |
| (0407a2) | 하 하 드려 주옵소. 닉일 東萊 올라 | 入 | 하 모되-쓰음 드리려니와 |
| (0120b1) | 하 하진고 닉일 아춤은 東萊 올라 | 入 | 하 送使의 樣子를 翁고 올 거 |
| (0204b1) | 하 극진-하시믈 듯좁고 언제 건너 | 入 | 하 말슴-하올고 너기옵더니 |
| (0415a3) | 하 하? 그를 마다 곳 너기시면 내여 | 入 | 하 마라 드리실까? 早速 못디 |
| (0213a3) | 하 니와 더론 날의 東萊 釜山浦에 | 入 | 하 돈너 와서 代官房의셔 談 |
| (0820a2) | 하 거시니 그리 아르쇼셔. 어제도 | 入 | 하 뵈올 거슬 굿바 하옵실가 |
| (0829b4) | 하 하 이제야 비예 트오니 선창 | 入 | 하 하딕 술음새 하고 보낸대 |
| (0101a4) | 하 하프가히 이러 오라. 네 代官의 | 入 | 하 내 말로 “그적과 여긔 |
| (0714b5) | 하 무로시미 感激하영이다. 수이 | 入 | 하 브를 써시니 그 저긔 御禮 |
| (0718b2) | 하 하오니 信使의 뵈올 양을 친히 | 入 | 하 하 기별을 술오라.” 하 |
| (0126b2) | 하 하 수이 홀 양으로 하옵소. 東萊 | 入 | 하 하 요스이 편티 아녀 |
| (0205a2) | 하 하 오늘은 이러트시 딛 | 入 | 하 하 正官의 니르오면 뵈 |

| | | | |
|----------|--------------------|-------|--------------------|
| (0125b5) | 들 일은 아니오니 내 친히 東萊 | 가 | 극진이 술오려니와 자넨도 單 |
| (0321b4) | 러커니와 홀리라도 수이 도라 | 가게 | 흥쇼셔. 글란 그리 흥려니와 당 |
| (0516a1) | 고 小通事의-게 니르셔 거느려 | 가게 | 흥읍소. 오늘은 구름 가기도 도 |
| (0608a4) | 시니 굿봄도 계실가 녀겨 도라 | 가고저 | 너기옵더니마는 하 극진-흥시 |
| (0829a2) | 들도 불셔 취-흥야스오니 도라 | 가고저 | 흥녕이다. 비예 트노라 흥야辰 |
| (0814a4) | 지로 갖거 흥논되 쏘 너일 구름 | 가기 | 도타 니르시니 一定 그러면 다 |
| (0319a4) | 마장 취-흥엿스오니 방의 도라 | 가기도 | 잘 못 흥가 너기느이다. 이러트 |
| (0108b2) | 와시니 오늘은 건넌죽-흥 구름 | 가기도 | 잇고 브름도 도히 부러시니 多 |
| (0516a3) | 느려 가게 흥읍소. 오늘은 구름 | 가기도 | 도코 브름도 도히 부러시니 수 |
| (0813b1) | 너머습논되 쏘 너일 날세 구름 | 가기도 | 도타 니르오니 아르 일-도곤 |
| (0313b5) | 間음을 위-흥여 히-마다 올라 | 가느니이다 | . 어와 즈로 우다히 오로느리기 |
| (0325a4) | 직 公木을 드려 주읍시면 묻져 | 가느 | 비예 보내올까 너기느이다. 글 |
| (0423a3) | . 니르-도록 니르-도록 뒤호로 | 가느 | 듯 흥 뜻 가지미 어와 어와 어 |
| (0406b3) | 마장 잘 출히읍소. 요스이 빅 | 가느 | 되 보내려 생각-흥오니 公木 |
| (0416a4) | 公木을 半分도 아니 잡고 나여 | 가라 | 흥논고? 흥갓 내히만 생각-흥 |
| (0605b5) | 롭다이 너기녕이다. 흥마 도라 | 가상이다 | . 희온 것도 업스온되 머므로읍 |
| (0606a6) | 의 다락 小園을 두엿습더니 게 | 가셔 | 茶를 자읍시고 흥 때 수여 가읍 |
| (0105a5) | 걸리오니 자네-네 送使의 드려 | 가셔 | 萬事를 주션-흥야 나의 싱소를 |
| (0811b3) | . 록 니르는가 너기녕이다. 우리 | 가셔 | 식원이 구경-흥고 도라 오문 |
| (0513b5) | 寅時에 비예 트셔 勘蠻夷-스지 | 가셔 | 브름을 기드리려 흥신다 흥읍 |
| (0526b2) | 니실가 근심-흥읍느이다. 아직 | 가셔 | 太守 니르시는 道理 극진히 엿 |
| (0707b6) | 소. 자네 극진-흥신 바는 서울 | 가셔 | 筑前殿의 接待 흥 일과 이 차반 |
| (0324a6) | 되-네 十日二十日 무거 도라 | 가셔도 | 約條의 덩-흥 限-스지는 엿 |
| (0107a3) | 는 못 흥 일이어니와 자네 혼자 | 가셔도 | 인스당의 낮븐 되 업스니 送使 |
| (0605a2) | 두로 보시고 느죽-흥여 도라 | 가시게 | 브라녕이다. 今日은 御慰勸 |
| (0720b5) | 알피 가져 버려 쉰 후에 信使 | 가시게 | 흥면 도홀까 시프다 흥니 그리 |
| (0830b5) | 정은 흥 가지니 그져 예셔 도라 | 가시미 | 도췌왕이다. 니르니 太守 술오 |
| (0321a3) | 들도 다 못고 종용히 거시다가 | 가실 | 양으로 흥읍소. 이리 감격-흥 |
| (0710a3) | 도르다 흥오니 來日은 三島의 | 가실 | 써시니 즉제 아니 보디 못 흥 |
| (0907a6) | 을 디내 먹고 아르리 흥여 도라 | 가심도 | 즈세 몰라 內內 이러로서 술을 |
| (0303b4) | 덕분의 먹습고 글로 브터 알튼 | 가슴과 | 빅 저기 그쳐 점점 흥리는 듯 |
| (0322a4) | 못 흥엿고 封進 雜物들도 올려 | 가야 | 京으로서 返禮의 返書 올 거 |
| (0123a3) | 흥여 흥읍느. 이제 正官 보오라 | 가오니 | 다시 보읍새. 正官의 나도 사름 |
| (0325a1) | 쇼인-네는 출혀 주시는 양으로 | 가오려니와 | 아직 公木을 드려 주읍시면 묻 |
| (0826a2) | 니르시매 밋디 아냐 다 더브려 | 가오리 | . 오늘은 마름 天氣 도하 진실 |
| (0216a3) | 들은 아랫습거니와 다시 니르고 | 가오리 | . 釜山浦 니르시든 요스이 도히 |
| (0124a2) | 문져 가읍소. 나도 미쳐 그리 | 가오리 | . 자넨 보시드시 방새 파락-흥 |
| (0323a5) | 잇스오니 쇼인-네 수이 도라 | 가오면 | 五日 雜物은 묵는 스이만 주실 |
| (0504a1) | 人 中에 一人이 飛船으로 도라 | 가울 | 거시니 그리 아읍소. 이리 호문 |
| (0407a6) | 드리려니와 므슴 빅 몇 척이나 | 가읍논고 | ? 一特送 中歸船 一隻 第一 船 |
| (0411a4) | 잡디 못 흥 거시니 수이 내여 | 가읍소 | . 어와 어와 어히 업시 니르심 |
| (0124a1) | 르더라 흥읍느. 그러커든 묻져 | 가읍소 | . 나도 미쳐 그리 가오리. 자넨 |
| (0123b3) | 도 小通事를 묻져 보내여 보고 | 가읍소 | . 앓가 사름을 보내오니 브르더 |
| (0215b5) | 와 자넨-네도 나실 제 니르고 | 가읍소 | . 代官들은 아랫습거니와 다시 |
| (0606b2) | 가셔 茶를 자읍시고 흥 때 수여 | 가읍시면 | 나 드린 저문 것-돌흥 띄놀려 |
| (0806a3) | 셜-흥 썬으로는 아르리 흥여도 | 가져 | 도라 같 일은 업스올 써시니 원 |
| (0720b3) | 進物도 城에 오르시는 날 알피 | 가져 | 버려 쉰 후에 信使 가시게 흥 |
| (0703a6) | 또 目錄을 보니 어와 어와 여러 | 가지 | 珍味 이걸 더걸 慰勸히 흥신 양 |
| (0403b3) | 는. 니르시는 바 判事-씩로서 | 가지 | 가지 다스림으로 우리도 열현 |
| (0618b5) | 른 되 되기는 눈에 알피라 흥여 | 가지 | 가지 니르오니 비록 오르시기 |
| (0418a4) | 려도 흥 테 업스오니 代官들도 | 가지 | 가지 생각-흥건마는 별로 흥염 |
| (0209b4) | 과즐도 늦게 괴왔고 건물도 두 | 가지 | 업고 雞子도 흥나히 업고 덩시 |
| (0801b4) | 셔 격기에 나른 雜物 두실 적의 | 가지 | 가지 스양-흥오완마는 굿-흥 |
| (0618b5) | 되기는 눈에 알피라 흥여 가지 | 가지 | 니르오니 비록 오르시기 슈고 |
| (0403b3) | 르시는 바 判事-씩로서 가지 | 가지 | 다스림으로 우리도 열현이는 |
| (0801b4) | 기에 나른 雜物 두실 적의 가지 | 가지 | 스양-흥오완마는 굿-흥야 두 |
| (0418a4) | 흥 테 업스오니 代官들도 가지 | 가지 | 생각-흥건마는 별로 흥염-흥 |
| (0526a4) | -흥논 규귀오니 엿줍기는 가지 | 가지 | 주션-흥여도 맛당히 너기시 |
| (0526a4) | 웃듬-흥논 규귀오니 엿줍기는 | 가지 | 가지 주션-흥여도 맛당히 너기 |
| (0701b2) | 로 下人을 주시게 흥야 차반을 | 가지고 | 使者 왔스오니 어럽습거니와 |

| | | | |
|----------|-------------------|-------|----------------------|
| (0208b4) | 디 아니 듯줍늬. 日本이먼 이룰 | 가지고 | ㅁ장 머검즉이 잘 달호련마는 |
| (0830b3) | 아프리 멀리 보내여도 정은 혼 | 가지니 | ㅁ 그저 예셔 도라 가시미 도썩왕 |
| (0704a6) | 카도 빅도 조브니 바든 이과 혼 | 가지니 | ㅁ 使ㅣ 아라 御禮를 술오시소. 깃 |
| (0814a1) | 붓조오니 對馬島에 브툼과 혼 | 가지로 | ㅁ 깃거 흥늬딕 쏘 닉일 구름 가기 |
| (0316a6) | 장 일궤르시느니라. 술을 혼 | 가지로 | ㅁ 자션마는 御手前 面上의는 酒氣 |
| (0423a3) | 르-도록 뒤호로 가는 듯 혼 빗 | 가지미 | ㅁ 어와 어와 어히 업시 아라 계시 |
| (0510b3) | 를 내올 써시니 그 返書를 수이 | 가지여 | ㅁ 오옵소. 싱각 밧긔 수이 오니 ㅁ |
| (0905a3) | 련고 업스시거든 서어-흔 거슬 | 가지여 | ㅁ 오옵새. 모드신 덕도 알외여 주 |
| (0616b5) | 빅에서도 밧조오면 오름과 혼 | 가지오니 | ㅁ 자네 잘 아르셔 接待하는 분-데 |
| (0816a6) | 긔브를 헤아리매 아프 디도 혼 | 가지오면 | ㅁ 손을 디접-ㅎ시미 도로켜 어렵 |
| (0405a4) | 리도 公木을 곁히여 자브면 혼 | 가지옵도쇠 | ㅁ .오늘은 싱각 밧긔 술술이 믱 |
| (0429a6) | 디 못 흥는 바는 게나 예나 혼 | 가지옵도쇠 | ㅁ .우리도 그런 줄은 모로든 아 |
| (0603a1) | 특시 아릅다운 일 아프 디도 혼 | 가지옵도쇠 | ㅁ .우리의 슈고를 니르시거니와 |
| (0806a3) | 로는 아프리 흥여도 가져 도라 | 갈 | ㅁ 일은 업스올 써시니 윈컨대 바 |
| (0508b4) | 장 세춘 사름 둘홀 밤-낫 올라 | 갈 | ㅁ 양으로 흥라코 돈돈이 닐러 겨 |
| (0527b5) | 키 드리려 흥올고? 信使를 모셔 | 갈 | ㅁ 작시면 사름-마다 기려야 우리 |
| (0409a5) | 그리 흥옵소. 註進홀 거시니 빅 | 갈 | ㅁ 때에 아프 빅라 흥여 즈세 더거 |
| (0820b5) | 로셔 온 거슬 주노라 흥시는 배 | 감격 | ㅁ -흥옵기는 받고져 흥옵건마는 |
| (0518a2) | 安흥시덩이다. 예-식지 使者ㅣ | 감격 | ㅁ 키 너기놓이다. 우리는 마쭈 順 |
| (0122b6) | 극진이 軍官을 보내여 무르시니 | 감격 | ㅁ -흥여 흥옵늬. 이제 正官 보오 |
| (0902a6) | 아름다왕이다. 그리 니르시니 | 감격 | ㅁ -흥거니와 아프리커나 우리 술 |
| (0917b4) | 흥여 니기옵소. 그리 니르시니 | 감격 | ㅁ -흥영이다. 나도 日本말을 사 |
| (0321a6) | 다가 가실 양으로 흥옵소. 이리 | 감격 | ㅁ -흔 御意ㅣ시니 다시 술을 양 |
| (0915b6) | 극진이 권-흥심 아프 일-도곤 | 감격 | ㅁ -흥여 御禮 몸애 나쁜 일이옵 |
| (0206b3) | 쇼인-네는 본딕 못 먹습건마는 | 감격 | ㅁ -흥오매 먹기를 과히 흥옌스오 |
| (0201b3) | 니 아릅답다 니르시옵늬. 御意 | 감격 | ㅁ -흥여이다. 우리는 덕분을 뼈 |
| (0308a3) | 다셔 중용히 말슴-흥옵새. 御意 | 감격 | ㅁ -흥여이다. 立酌을 흥실 작시 |
| (0317b5) | 다 그러흥가 너기느이다. 御意 | 감격 | ㅁ -흥여이다. 우리-들도 술을 |
| (0827b6) | 일로써 兩國 安泰흔 陰德인가 | 감격이 | ㅁ 너기옵닝이다. 어와 어와 慰懃 |
| (0301b6) | 저 술을 써술 이리 御意흥시니 | 감격히 | ㅁ 너기옵늬이다. 이전의도 뵈올 |
| (0413a3) | 커니와 자늬-네도 時分과 公木 | 감시 | ㅁ 상히로셔 언머 더흥연논고 혜 |
| (0417a3) | 니티 몬 흥실 일은 서르 時分과 | 감식 | ㅁ 양도 見슴도 계실 일인디 이대 |
| (0516a1) | 픽 엿죽고 小通事의-게 니르셔 | 거느려 | ㅁ 가게 흥옵소. 오늘은 구름 가 |
| (0316b5) | 의는 酒氣 一切 업스오니 술과 | 거동이 | ㅁ 긔조와이다. 잘 못 먹건마는 상 |
| (0914b2) | 보드랍고 쏘 인스당 흥시는 말 | 거동이 | ㅁ 진실로 日本 토포니 다곰다곰 |
| (0921a2) | 니와 그러나 노흥여도 몬 흥고 | 거르기 | ㅁ 우소은 일이옵도쇠. 자네 日本 |
| (0827b2) | 더 귀-흔 풍뉴-들도 어미 듯고 | 거르기 | ㅁ 귀히 너겨 깃썰라 흥오니 일로 |
| (0133a2) | 오려니와 東萊 釜山浦 오셔도 | 거르기 | ㅁ 섭섭이 너기실 거시니 아프리 |
| (0721b6) | 되 일궤를 쏘이 아니라 大君도 | 거르기 | ㅁ 喜悅이 ㅁ이 업습고 우리 늦 |
| (0810b3) | 중용히 흥쇼셔. 쏘 大坂의 城도 | 거르기 | ㅁ 장만-흥옌스오니 이도 구경-흥 |
| (0110b4) | 二番 特送이옵도쇠. 어와 어와 | 거르기 | ㅁ 머흔딕 아프 일 업시 건너시 |
| (0702a5) | 가? 筑前殿 地界 두 참이-도록 | 거르기 | ㅁ 격기-흥신딕 흥물며 이러툃 흥 |
| (0713b4) | 上 먼 길히 無事히 오신 귀별을 | 거르기 | ㅁ 깃비 너기샤 우리 二人을 예 |
| (0412b2) | 時分도 헤아리디 아니코 公木을 | 거르기 | ㅁ 세치 곁힌다 흥고 공스 오로 홀 |
| (0605b2) | 아름다운 御雜談 듯죽고 즈믄 | 거룩 | ㅁ -흔 술을 흥고 나그내 시름을 |
| (0910a3) | 가 더 若衆들의-게 밤-새-도록 | 거룩이 | ㅁ 부소를 회이치더라 드러시니 |
| (0106b3) | 이오니 샤-흥옵소. 이대-도록 | 거르기 | ㅁ 니르디 아니셔도 자네 처엄 일 |
| (0805b1) | 들의 스설-흥옵끼는 信使의셔 | 거스려 | ㅁ 니르셔도 다시곰 다시곰 아니 |
| (0802b3) | 百枚를 밧고와 보내오니 브딕 | 거스리디 | ㅁ 말고 아래 사름-들의-게나 주 |
| (0820b2) | 니르신 양 즈믄 奉行의로셔 온 | 거슬 | ㅁ 주노라 흥시는 배 감격-흥옵 |
| (0808b1) | 무거 슈고-흥던 下人의-게 준 | 거슬 | ㅁ 더러로셔 아프리 닐러도 바들 |
| (0208a4) | 조출흥고 파즐과 건물과 머글 | 거슬 | ㅁ 다 머검즉이 장만-흥옌스오니 |
| (0112b2) | 되. 올스외. 날이 노파셔 브툼 | 거슬 | ㅁ 브툼의 이치여 이제야 왔습 |
| (0125a5) | 옵소. 덩-흥여 주는 거슬 술은 | 거시 | ㅁ 아니라 別로 술와 주실가 흥여 |
| (0803b4) | -흔 일도 업서 마쭈 雜物 나쁜 | 거시 | ㅁ 이시니 출하리 이나 정으로 두 |
| (0913b5) | 대로 못 흥고 붓그림을 모로는 | 거시 | ㅁ 되얏스오니 아프려나 모다 내 |
| (0208a1) | 다 먹습늬이다. 전의는 격기엿 | 거시 | ㅁ 이러티 못 흥옵더니 今度는 膳 |
| (0106b5) | 디 아니셔도 자네 처엄 일이신 | 거시니 | ㅁ 代官들히 모시디 아냐는 못 홀 |
| (0530b4) | 信使의 對面흥여 쏘도 술와 불 | 거시니 | ㅁ 그리 아르시소. 捷解新語 第五 |
| (0120b3) | 올라 가 送使의 樣子를 숭고 올 | 거시니 | ㅁ 중용히 쉬옵소. 닉일 나죄란 入 |

| | | | | |
|----------|--------------------|-------|--|---------------------|
| (0108b5) | 도 도히 부러시니 多分 比가 올 | 거시니 | | 遠見의 무려 보옵소. 어와 그리 |
| (0322b1) | 야 京으로서 返禮의 返書 올 | 거시니 | | 自然 더될까 너기옵닌. 그러커 |
| (0504a1) | 게 一人이 飛船으로 도라 가올 | 거시니 | | 그리 아옵소. 이리 호문 上方의 |
| (0123b1) | 새. 正官씨 나도 사름을 보내올 | 거시니 | | 자넨도 小通事를 묻져 보내여. |
| (0218a3) | 는 도화습닌이다. 이제 쏘 보올 | 거시니 | | 종용티 못 헐외. 看品은 無事히 |
| (0104a6) | 이러로서 미들 일은 뵈 긋즈올 | 거시니 | | 막음 브티시믈 미더습닌. 아직 |
| (0114b2) | 浦에 술와 方方 彼此의 긋즈올 | 거시니 | | 근심 마옵소. 열현이 마르시고 |
| (0115a3) | 넋일 早早 츠즈쇼셔. 그리 헐올 | 거시니 | | 막음 편히 너기옵소. 正官은 뉘 |
| (0819b4) | 겍서 이 二三 日 內에 出船헐 | 거시니 | | 그리 아르쇼셔. 어재도 가 뵈올 |
| (0109a5) | 山浦로서 우리-게 긋별을 니를 | 거시니 | | 그는 油斷홀 일은 업스오리. 代 |
| (0623a5) | 헐면 路次의 일란 자네-게 맞딜 | 거시니 | | 보슬퍼 아르 디도 꽤 아니케 아 |
| (0421b4) | 근 念을 드려 넋일이라도 드릴 | 거시니 | | 엇더-헐올고? 자넨의 여러 말 |
| (0325b4) | 친히 보와 ㅁ장 吟味헐여 드릴 | 거시니 | | 代官네-의 하 굴히디 말라 니 |
| (0133a2) | 오셔도 거르기 섭섭이 너기실 | 거시니 | | 아무리커나 밤의도 養性헐여 |
| (0131a6) | 양병이라는 너기디 아니 헐실 | 거시니 | | 자넨 그르다는 아니 헐실 듯 헐 |
| (0612b5) | 天氣에도 붓디 아녀 出船헐실 | 거시니 | | 그리 아르쇼셔. 넋일은 구름 브 |
| (0129a6) | 니면 우리의 그르믈 발명 못 홀 | 거시니 | | 비록 正官이 병 드르실 떠라도 |
| (0411a4) | 는 아모만 드려도 잘 잡디 못 홀 | 거시니 | | 수이 내여 가옵소. 어와 어와 |
| (0427a5) | 여 아못 도로나 도홀 양으로 홀 | 거시니 | | 아직 大廳의 드려 두옵소. 전의 |
| (0427a2) | 우리도 헐나 둘히셔 되디 못 홀 | 거시니 | | 送使의 談合헐여 아못 도로나 |
| (0117a1) | 을 아라 釜山浦에 술와 注進홀 | 거시니 | | 書契를 내옵소. 우리 일홈은 아 |
| (0409a4) | 키 주옵소. 그리 헐옵소. 註進홀 | 거시니 | | 빅 갈 빼에 아르 빅라 헐여 츠 |
| (0904a1) | 셋긋 뉘웃좁닌. 언머 모다 우은 | 거시라 | | 너기셔냐? 이도 日本 놀래예 호 |
| (0913a6) | 키기농이다. 모다 언머 서의-헐 | 거시라 | | 홍 보심을 싱각-헐면 츠-헐건 |
| (0527b2) | 는 小小헐면 ㅁ스 일로 불관-헐 | 거시라도 | | 장만-헐여 드리려 헐올고? 信 |
| (0817a6) | 덧닝이다. 쏘 이거슨 귀티 아닌 | 거시언마는 | | 보내놓이다. 니르시드시 上下 |
| (0611b5) | 아녀 우리도 수이 헐고져 헐는 | 거시언마는 | | 路次 處處의 일 출힐 덧도 헤이 |
| (0706a1) | 키기시울쇠. 쏘 이거슨 불관-헐 | 거시언마는 | | 下人을 위-헐야 德談엿 일이라 |
| (0103a4) | 니와 처음이옵고 쏘는 싱소-헐 | 거시오니 | | 各各 답답이 너기실가 氣遣헐 |
| (0125a5) | 히 더거 두옵소. 덩-헐여 주는 | 거슬 | | 술은 거시 아니라 別로 술와 주 |
| (0428b1) | 리. 判事네는 代官의 손에 인는 | 거슬 | | 오늘 뭇디 아닌는가 너기시거 |
| (0905a3) | 라도 연고 업스시거든 서어-헐 | 거슬 | | 가지여 오옵새. 모드신 디도 알 |
| (0101a6) | 과 여귀 ㄴ려 와 어재라도 오올 | 거슬 | | 路次의 긋브매 이제야 門-ㅁ지 |
| (0820a2) | 그리 아르쇼셔. 어재도 가 뵈올 | 거슬 | | 긋바 헐옵실가 問安만 술왓습 |
| (0309a1) | 헐 디 日本 사름은 肉食 테윳 | 거슬 | | 먹디 아니 헐오니 그러헐은 디 |
| (0113a6) | 고 빅 슈중을 너머셔 떠디온가? | 거의 | | 다 와셔 惡風을 만나 큰 빅에 |
| (0133b4) | 너탄 말이라. 의지 업단 말이라. | 거의란 | | 말이라. 텃득단 말이라. 捷解新 |
| (0710b3) | 아옵거이다. 헐면 불 작시면 그 | 거조는 | | 엇디 홀고? 잔이나 내는 일이 |
| (0204b1) | 東萊 극진-헐시믈 듯좁고 언제 | 건너 | | 가 말습-헐올고 너기옵더니 도 |
| (0506a4) | 헐외. 東萊 니르시믈 “슈고로이 | 건너 | | 오시도쇠. 자넨-네 口上 道理 |
| (0821b3) | 니 그리 못 헐올 일은 헐-헐 디 | 건너 | | 온 빅를 몬과 밥도 고티노라 헐 |
| (0110b5) | 와 거르기 머흔디 아르 일 업시 | 건너시니 | | 아름다와 헐닝이다. 우리는 御 |
| (0518b4) | 년-헐여 도홀 天氣에 예-ㅁ지 | 건너시니 | | 아르 일-도곤 아름다와 헐옵닝 |
| (0122a2) | 긋과 사오나온디 언머 슈고로이 | 건너시도다 | | .” 넘너-헐시고 問安헐옵시데 |
| (0112a6) | 긋이 사오납더니 일덩 슈고로이 | 건너시도쇠 | | .” 올스외. 날이 노파셔 브를 거 |
| (0822a3) | 는 멀리 뵈셔 예-ㅁ지 아름다이 | 건너신 | | 祝願 振舞도 밋디 아니시고 御 |
| (0201a4) | 捷解新語 第二 東萊 니르심은 | 건너신 | | 날은 마즘 사오나온 브람의 다 |
| (0502b6) | 對馬島主 니르시는 바는 信使 | 건너실 | | 양으로논 드릿거니와 여넋 들 |
| (0108b2) | ㅣ드리더라 닐려 와시니 오늘은 | 건넌즉 | | -헐 구름 가기도 잇고 브롬도 |
| (0503a6) | 헐야 우리 兩 人을 불의예 막켜 | 건넌여 | | 거시니 자넨-네 이 뵈을 東萊 |
| (0404a4) | 습헐여 隨分 念入헐여 잘 드라 | 건넌 | | 양으로 닐릿습닌. 나라 일이란 |
| (0208a4) | 器皿 以下 조출헐고 과즐과 | 건물과 | | 머글 거슬 다 머검즉이 장만-헐 |
| (0209b4) | 드르시소. 과즐도 ㄴ게 괴왔고 | 건물도 | | 두 가지 업고 雞子도 헐나히 업 |
| (0822b2) | 리신 일이나 인는 양으로 家中 | 건 | | -들도 너길 작시면 옛-ㅁ지 극 |
| (0304b1) | 카즘 다 브고 적게 보내고 뵈에 | 걸려 | | 헐옵닌. 都船主도 요스이 도히 |
| (0909a5) | 날 일은 업스오리. 다만 ㅁ음의 | 걸리기는 | | 若衆들의 연고를 웃듬으로 니 |
| (0822a6) | 海헐실 작시면 아르란 御意에 | 걸리신 | | 일이나 인는 양으로 家中 건-들 |
| (0620a3) | -헐실 작시면 엇디 슈고로오매 | 걸리끼올고 | | ? 이제 오로 올 썸시니 ㅁ음 편 |
| (0105a3) | 다히셔는 엇디 너길 디 ㅁ음의 | 걸리오니 | | 자네-네 送使의 드려 가서 萬 |
| (0216b6) | 긋은 양으로 너기시는가 ㅁ음의 | 걸리옵닌 | | . 싱심이나 茶禮入 날 종용히 |

| | | | |
|----------|--------------------|-------|--------------------|
| (0414a6) | 아 아프려도 不審호외. 자넹-네 | 결터 | 니르심과 우리 심각과 그 어과 |
| (0425b2) | 르심도 겨시리. 오로 어려오믄 | 결터 | 니르니 나라토 부디터 몬 홀 일 |
| (0526b6) | 보오리. 자넹-네 덕답이 불셔 | 겹 | -호는 양이로직 엇디 호 편판 |
| (0606b5) | 때 수여 가옵시면 나 득린 저믄 | 것 | -들홀 띄놀려 뵈옵고져 호닝이 |
| (0210a5) | 어이 즈세 아올고? 일 모로는 | 것 | -들이 일덩 너트 그리 호 일이 |
| (0623b5) | 괴 일덩 下人 中 東西도 모로는 | 것 | -들이 못히 느려 振舞 적이나 |
| (0908b5) | 床를 심각-호매 인스당도 아프 | 것도 | 숯디 아니 호오니 이리 술은 우 |
| (0606a1) | 이다. 호마 도라 가상이다. 희온 | 것도 | 업스온덕 머므로옵기도 젓습건 |
| (0604b5) | 오니 終日 노르시고 내 집 지은 | 것도 | 두로 보시고 느죽-호여 도라 |
| (0606a6) | 석의 다락 小園을 두엿습더니 | 게 | 가져 茶를 자옵시고 호 빼 수여 |
| (0219b5) | 옵닉. 우리는 이제 나을 써시니 | 게 | 일을 수이 출히옵소. 捷解新語 |
| (0829a6) | 야 辰時에 判使네를 對馬島主 | 게 | 보내야 이제야 비에 토포니 셴 |
| (0910b4) | 후의 드림죽디 아니 호니 내- | 게 | 맛디쇼셔. 다만 슬호여 호시게 |
| (0601b5) | 또 三使ㅣ 멀리 渡海호셔 내- | 게 | 請호여 對坐호는 일 곰곰 심각 |
| (0620b5) | -호올고? 이러나 더러다 자넹- | 게 | 맛디오니 홀 시 도케 호쇼셔. 倭 |
| (0623a5) | 홀 듯 호면 路次의 일란 자넹- | 게 | 맛딜 거시니 보슬퍼 아프 덕도 |
| (0429b4) | 돈 아니컨마는 민망-호믄 뉘- | 게 | 니르올고? 그리 호오리. 닉일은 |
| (0515b6) | 道理 信使의 엿줍고 小通事의- | 게 | 니르셔 거느려 가게 호옵소. 오 |
| (0808b1) | 이나 무거 슈고-호던 下人의- | 게 | 준 거슬 더러로서 아프리 닐러 |
| (0910a1) | 다 못 호거니와 더 若衆들의- | 게 | 밤-새-도록 거룩이 부소를 희 |
| (0712b6) | 도 호옵새. 술 낼 일도 소임의- | 게 | 그 스정을 닐러 들리소. 江戶로 |
| (0818b5) | 넌 金子를 자넹 피신 사름의- | 게 | 네믄을 호오니 모로미 스양 마 |
| (0109a4) | 비면 즉시 釜山浦로서 우리- | 게 | 괴별을 니를 거시니 그는 油斷 |
| (0104a3) | 말습-겹치 들엄죽-호외. 우리- | 게 | 미드시는 일은 바늘 굿티오 이 |
| (0130b3) | 晩 브터 병 드렸스오니 자넹- | 게 | 다시 술을 스이도 업스매 그러 |
| (0812a4) | 앗가 니르시는 양이면 자넹- | 게 | 맛디오리. 藍島 宿所에 太守ㅣ |
| (0806a6) | 써시니 원컨대 바드셔 下人의- | 게나 | 주시미 엇더-호올고 앓가 스설 |
| (0802b5) | 스리디 말고 아래 사름-들의- | 게나 | 주실 양으로 호옵쇼셔. 委細之 |
| (0809a3) | 슈고-호던 對馬島 사름-들희- | 게나 | 주시소. 信使 大坂의 브트시매 |
| (0429a5) | 못 호여 되츰디 못 호는 바는 | 게나 | 예나 호 가지옵도쇠. 우리도 그 |
| (0404a1) | 호옵닉. 在前 브터 代官들의- | 게도 | 申숨호여 隨分 念入호여 잘 드 |
| (0419a3) | 닉-네 하 다스리시고 또 우리- | 게도 | 밧비 빨 덕도 이셔 이리 슬오니 |
| (0615b5) | 깃줍닝이다. 격기-호는 분-네- | 게로서도 | 극진-호 일이옵도쇠. 船 中에도 |
| (0132a6) | 디 아니 호옵는가? 그러커니와 | 게셔 | 힘 빼 이런 道理를 東萊의 엿 |
| (0514b4) | 일이라 다 祝願호옵닉. 그러면 | 게셔도 | 日吉利 이실 듯 호다 니르옵노 |
| (0907b5) | 타스로 떠덧습더니 또 친히 와 | 겨셔 | 너모 慇懃호신 御禮 도로켜 붓 |
| (0610a6) | 아프란 귀-호 일도 업시 終日 | 겨셔 | 도로켜 서의-호운가는 너기옵 |
| (0121b6) | 萊로서 앓가 도라 왓습닉. 東萊 | 겨셔도 | “어제는 일기 사오나온덕 언머 |
| (0825a3) | 니마는 자넹도 멀리 슈고-호야 | 겨시니 | 祝願 아니튼 못 홀 양으로 전 |
| (0508b6) | 갈 양으로 호라코 돈돈이 닐러 | 겨시니 | 그러호면 往來 九日 十日이니 |
| (0126b4) | 편티 아냐 호시더니 잠깐 호려 | 겨시니 | 二三日 內에 홀 양으로 호오리 |
| (0503a6) | 리 兩 人을 불의에 막켜 건네여 | 겨시니 | 자넹-네 이 뜻을 東萊의 엿 |
| (0303a1) | !? 늦출 보오니 이제도 병 빳치 | 겨시니 | 모로매 도리-호옵소. 니젓따소 |
| (0127a3) | 茶禮는 明日 호오니 미리 출혀 | 겨시다가 | 나실 양으로 호쇼셔. 아옵게 그 |
| (0321a2) | -호 연향-들도 다 못고 종용히 | 겨시다가 | 가실 양으로 호옵소. 이리 감격 |
| (0304b3) | 호옵닉. 都船主도 요스이 도히 | 겨시던가 | ? 전의는 처음으로 보옵고 그 |
| (0425b1) | 결디올고? 자넹-네도 아르심도 | 겨시리 | . 오로 어려오믄 결터 니르니 |
| (0412a4) | 히 되야시믄 자넹-네도 아르심 | 겨시리 | . 즈믄 各官으로서 東萊ㅣ 時分 |
| (0115b3) | 는 封進이옵도쇠. 正官은 어덕 | 겨시온고 | ? 正官은 비-멀미-호여 인스 |
| (0501b3) | 킵옵도쇠. 그러면 使者는 뉘 와 | 겨신고 | ? 아직 비에 토포소. 御使는 아 |
| (0618a1) | 분-네 니르기는 江戶로서 信使 | 겨실 | 덕도 극진이 호고 참참이 못히 |
| (0905b6) | 리 술오믄 식새와 너기실 덕도 | 겨실까 | 그장 젓습거니와 다만 우리는 |
| (0706a5) | 이라 호셔 우리를 부려 보내여 | 겨옵시더니 | 이를 받디 아니시면 우리의 그 |
| (0424b4) | 雜物 드리기에 스나히는 지고 | 겨집은 | 이고 날-마다 드리는 公木들도 |
| (0113b3) | 다 와셔 惡風을 만나 큰 비에 | 격군도 | 적고 비에 연장을 브딜-호여 |
| (0615b5) | 트시키고 오옵심을 밋줍닝이다. | 격기 | -호는 분-네-게로서도 극진 |
| (0801a6) | 第 八 信使 떠나셔 사흘 길 곳에 | 격기 | 奉行의로서 부려 사름을 보내 |
| (0704a3) | 을로서 두 참이-도록 多人 中의 | 격기 | 남분 덕 업고 이 밧기는 바다도 |
| (0702a5) | 殿 地界 두 참이-도록 거르기 | 격기 | -호신덕 호믄며 이러툃 호 배 |
| (0617b5) | 전의 色色이 스양-호여도 이 | 격기 | -호는 분-네 니르기는 江戶로 |

| | | | |
|----------|---------------------|-------|--------------------|
| (0803a5) | 다. 對馬島主의 니르시는 바는 | 격기 | 奉行들 드리고 오래 슈고-헌던 |
| (0801b2) | 나름을 보내야 술오른 信使의셔 | 격기에 | 나름 雜物 두실 적의 가지 가지 |
| (0208a1) | 기으와 다 먹습는다. 전의는 | 격기엿 | 거시 이러티 못 헌옵더니 今度 |
| (0129b6) | 는 卒度之 間이오니 나셔 과연 | 견디디 | 못 헌거든 묻져 니르실 디라도 |
| (0424b1) | 페로이 굴모로 東萊入 百姓도 | 견디디 | 못 홀 일은 五日 雜物 드리기로 |
| (0131a2) | 이 양병은 아니오. 正官 氣色이 | 견디엄죽 | -헌면 나고져 녀기오되 東萊 드 |
| (0425a5) | 니-헌니 사름이나 므쇼나 엇디 | 견디올고 | ? 자닉-네도 아르심도 겨시리. |
| (0614b6) | 편-홀까 祝願헌닝이다. 接待예 | 겻기 | -헌는 낭반-돌히 방샤를 부러 |
| (0621b2) | 고마하고 느리디 아니 헌시면 | 겻기 | 사름-돌히 민만-흠은 그지 못 |
| (0914a5) | 이를 미더습는다. 자네 말씀- | 겻치 | 마장 보드랍고 또 인스당 헌시 |
| (0104a1) | 인스당의 말씀이어나와 말씀- | 겻치 | 들엄죽-헌외. 우리-게 미드시 |
| (0610b5) | 나-헌옵더니 御慰勸헌신 말씀- | 겻티 | 도로혀 붓그럽스왕이다. 爰元 |
| (0608b2) | 헌시매 멈쳐 쏘 귀-헌 집-괴지 | 정의 | 도흠이 뜻을 펴고 쏘는 어리로. |
| (0823a1) | 아프리카나 出船 日란 亭主의- | 계 | 맞드시고 아직 아직 종용히 쉬 |
| (0218b3) | 아름답스외. 춘 날의 오래 안자 | 계셔 | 언머 슈고-헌옵셔뇨? 看品 後 |
| (0301a2) | 語 第二 終 捷解新語 第三 東萊 | 계셔 | 니르시든 御渡海헌선 디 오래 |
| (0705a4) | 헌올 양으로 돈돈이 분부-헌여 | 계시건만는 | 식골 일이란디 아프란 貴한 일 |
| (0917a3) | 자네-네 마트신 분 五六人만 | 계시과다 | 다 원-헌몬 兩國의 헌옴이라 |
| (0216a6) | 釜山浦 니르시든 요스이 도히 | 계시던가 | ? 엇디 헌 디 일이 만하 問安도 |
| (0101b3) | 이제야 門-갓지 왓습니. 안히 | 계시면 | 오려 헌여 案内 술오시드라.” |
| (0708b4) | 헌닉. 장쉬 돈돈이 분부-헌야 | 계시오니 | 젓쏘오나 범남을 슬왓더니 다 |
| (0423a5) | 지미 어와 어와 어히 업시 아라 | 계시외 | . 서르 니르거니 뒤답거니 날을 |
| (0520a1) | 구 읍는 바는 보오를 술올 써술 | 계신 | 뒤도 서의-헌고 궂 브트셔 궂 |
| (0517a5) | 다와 헌농이다. 빅예 궂브심도 | 계실 | 써시니 서의-헌오니 무턱 오르 |
| (0615a5) | 야 니르오니 船 中에 궂브심도 | 계실 | 써시니 이제 座船을 투시고 오 |
| (0417a4) | 서르 時分과 갑식 양도 見습도 | 계실 | 일인디 이대-도록 바회에 묻 |
| (0508a5) | 출만의나 返事 올고 짐작이 | 계실 | 써시니 니르옵소. 듯습새. 어제 |
| (0608a3) | 走 심상티 아니시니 궂름도 | 계실가 | 녀겨 도라 가고져 녀기옵더니 |
| (0921a6) | . 자네 日本말 비화 시작-호미 | 계오 | 五六年도 못 헌디 그대-도록 |
| (0318a6) | 온 디 마장 취-헌오되 正根을 | 계요 | 출혀 안갓습는다. 日本 도헌 |
| (0124b1) | 과락-헌야 누추-헌니 一夜를 | 계유 | 堪忍헌엿스오니 큰 대 열과 공 |
| (0102b3) | 同道헌야 오쇼셔. 代官들도 헌 | 고대 | 잇습니. 아릅답스외. 여괴 오 |
| (0119a6) | 말을 기리시니 깃브옵거니와 | 고디 | 들든 아니 헌외. 저기 아라 듯 |
| (0903a4) | 블의예 헌 振舞 라 니르시니 | 고디 | 드렸습더니 생각 밧의 御馳走 |
| (0912a3) | 름을 삼스올쇼? 모로미 모로미 | 고디 | 듯디 마옵소. 이전의도 내 여괴 |
| (0918a1) | -마다 니기기 쉬오니라 니르를 | 고디 | 들렸더니 아프리 헌여도 어두 |
| (0208b2) | 거 헌옵는다. 그리 니르시를 | 고디 | 아니 듯습니. 日本이면 이를 가 |
| (0310b3) | 下口 언마는 客人을 위-헌야 | 고디시기 | 잔-마다 다 먹고 묻져 취-헌엿 |
| (0507b1) | 매 아직 기드리옵니. 不自由헌 | 고디 | 아프란 쓰실 써시나 잇거든 과 |
| (0908b2) | 홀 듯 헌 일이언마는 朝鮮 썩과 | 고물저은 | 안주의 珍味를 생각-헌매 인스 |
| (0704a1) | 를 밧디 아님도 무식-헌거니와 | 고을로셔 | 두 참이-도록 多人 中의 격기 |
| (0821b3) | -헌 디 건너 온 비를 묻과 밥도 | 고티노라 | 헌면 이도 二三日은 헌올 써시 |
| (0324a3) | 돈돈헌여 헌 번 덩-헌 후는 | 고티디 | 아니 헌니 五日 雜物은 자닉- |
| (0424a2) | 官들도 他國 일이라 생각 말고 | 곰곰 | 싱각-헌여 보옵소. 送使는 텃 |
| (0601b6) | 셔 내-게 請헌여 對坐헌는 일 | 곰곰 | 싱각-헌면 둥간티 아니케 잇기 |
| (0415a1) | 나을 端端이 곱힐까? 그를 마다 | 곳 | 녀기시면 내여 가 마라 드리실 |
| (0801a3) | 新語 第八 信使 떠나셔 사흘 길 | 곳에 | 격기 奉行의로셔 부러 사름을 |
| (0622b2) | 셔. 이 얹히 바르 디나 섬죽-헌 | 곳으란 | 스양 아니 헌셔도 島主 아라 |
| (0828b1) | 드시 兩國 誠信之 故로 귀-헌 | 곳을 | 구경-홀 분 아니라 이런 接待의 |
| (0124b3) | 유 堪忍헌엿스오니 큰 대 열과 | 공석 | 五六枚만 묻져 드려 주옵소. 들 |
| (0412b3) | 木을 거르기 세치 곱힌다 헌고 | 공스 | 오로 홀 제 안가-터로 니르시고 |
| (0327a6) | 깃브외. 東萊 釜山浦로셔 正官 | 과 | 都船내 樣體 심상티 아나 奇 |
| (0709b2) | 나. 信使 吉田에 留홀 제 島主 | 과 | 昭長老 뵈오며셔 信使의 술 |
| (0417a3) | 아니티 묻 헌실 일은 서르 時分 | 과 | 갑식 양도 見습도 계실 일인디 |
| (0413a2) | 든 아니커니와 자닉-네도 時分 | 과 | 公木 갑시 상히로셔 언머 더 |
| (0129b5) | 茶禮는 卒度之 間이오니 나셔 | 과연 | 견디디 못 헌거든 묻져 니르실 |
| (0208a4) | 는 膳敷器皿 以下 조출헌고 | 과즐과 | 건물과 머글 거슬 다 머검즉이 |
| (0209b3) | 는 일이니 判事네 잘 드르시쇼. | 과즐도 | 늦게 괴왔고 건물도 두 가지 업 |
| (0206b5) | 습건마는 감격-헌오매 먹기를 | 과히 | 헌엿스오니 그만 헌야 마르쇼 |
| (0426a3) | 의 업슨 일이니 내 죄예 만나몬 | 관겨 | 티 아니커니와 견두의 홀 시 |

| | | | |
|----------|---------------------|-------|--------------------|
| (0420b5) | 여 批判 이실 적은 소임의 죄는 | 관계 | 티 아니나 代官네 이러특시 모 |
| (0716a5) | 引호을 써시니 그 안희 路次의 | 괴로오미나 | 從容히 쉬과다 호야 숲는 일이. |
| (0209b3) | 事네 잘 드르시소. 과줄도 늦게 | 괴왔고 | 건물도 두 가지 업고 雞子도 호 |
| (0510a2) | 나옴소. 그 장계 返事 왔습니. | 구 | -호시는 대로 나쁜 되 업시 불 |
| (0523a6) | 나실 제 이틀 사흘 길호로서도 | 구경 | -호실 사름-돌 모다셔 朝鮮 풍속 |
| (0810b4) | 거르기 장만-호엿스오니 이도 | 구경 | -호실 양으로 앓가 두 분-씩셔 |
| (0811b3) | 너기닝이다. 우리 가서 석환이 | 구경 | -호고 도라 오든 쉽씨니와 드려 |
| (0828b1) | 兩國 誠信之 故로 귀-호 곳을 | 구름 | -호 분 아니라 이런 接待의 만 |
| (0108b2) | 닐러 와시니 오늘은 건넌죽-호 | 구름 | 가기도 잇고 브름도 도히 부러 |
| (0813b1) | 禮의 너머습는되 또 너일 날세 | 구름 | 가기도 도타 니르오니 아르 일 |
| (0613a2) | 거시니 그리 아라쇼셔. 너일은 | 구름 | 브트미 도싸오니 鑑島-식지는 |
| (0516a3) | 셔 거느려 가게 호옵소. 오늘은 | 구름 | 가기도 도쿄 브름도 도히 부러 |
| (0814a4) | 호 가지로 깃거 호는되 또 너일 | 구름 | 가기 도타 니르시니 一定 그러 |
| (0112a1) | 사오나와 떠들습니. 오늘 아침 | 구름이 | 머호더니 낮 디나며 브터 비 뻐 |
| (0606a5) | 머므로옵기도 짓습건마는 이 | 구석의 | 다락 小園을 두엇습더니 게 가 |
| (0422a4) | 고져 호건마는 우리도 代官의 | 구실이면 | 아므려도 그옵알기 어려울 양 |
| (0528a5) | 면 슈괴 허일이 될가 이러특시 | 구옵니 | . 太守 니르시는 道理 前後 樣 |
| (0417b3) | 번은 브되 時分을 헤아려 도호 | 구즘을 | 군말 업시 잡습소. 아므리 니르 |
| (0831a4) | 半程이나 모실 씨슬 信使씩셔 | 구턱여 | 말리는 故로 太守 빅를 저어 |
| (0417b4) | 되 時分을 헤아려 도호 구즘을 | 군말 | 업시 잡습소. 아므리 니르셔도 |
| (0424a5) | 이러특시 되기 어려워 폐로이 | 굴모로 | 東萊入 百姓도 건디디 못 호 일 |
| (0615a3) | 히 방샤를 부러 출혀 오르시게 | 굿 | -호야 니르오니 船 中에 굿브스 |
| (0621b3) | 그지 못 호 일이오니 이 알프란 | 굿 | -호여 숲거든 조츠시미 웃듬이 |
| (0801b6) | 의 가지 가지 스양-호오완마는 | 굿 | -호야 두시니 마디 못 호여 두 |
| (0810b6) | -호실 양으로 앓가 두 분-씩셔 | 권 | -호야 니르오니 이도 일덩 大 |
| (0317a5) | 네로 호여 主人의 도리를 출혀 | 권 | -호 양으로 왓스오니 그러호 |
| (0306a5) | 느이다. 술이 도토 아니 호오니 | 권 | 키 어렵습것마는 잔 잡는 양을 |
| (0915b5) | 오물 휴지 삼디 마옵소. 극진이 | 권 | -호심 아므 일-도곤 감격-호 |
| (0827a5) | -용히 노르셔 祝願호시과다. 더 | 귀 | -호 풍뉴-돌도 어미 듯고 거르 |
| (0608b1) | 마는 하 극진-호시매 멈쳐 또 | 귀 | -호 집-괴지 경의 도홈이 뺏을 |
| (0828b1) | 닐르시디시 兩國 誠信之 故로 | 귀 | -호 곳을 구경-호 분 아니라 |
| (0303b1) | 호옵소. 니것따소이다. 病 中의 | 귀 | -호 약을 만히 주시매 덕분의 |
| (0301b2) | 니 섭섭호습더니 이리 보오니 | 귀 | -호외. 쇼인이 몬져 술을 씨슬 |
| (0911a4) | 돌흔 유여-호를 웃듬으로 호니 | 귀 | -호 禮物를 그춤이 웃듬으로 |
| (0610a5) | 디 心中의 밋디 못 호여 아므란 | 귀 | -호 일도 업시 終日 겨셔 도로 |
| (0817a6) | 호을가 미덧닝이다. 또 이거슨 | 귀 | 티 아닌 거시언마는 보내놓디 |
| (0827b2) | 호 풍뉴-돌도 어미 듯고 거르기 | 귀히 | 너겨 깃세라 호오니 일로써 兩 |
| (0526a2) | 져티고 상시 行儀를 웃듬-호는 | 귀귀오니 | 엿줍기는 가지 가지 쥬션-호여 |
| (0611a6) | 日이라 호니 일덩 그러호온가? | 그 | 안혜는吉日이 업스온가? 홀릴 |
| (0205b6) | 씨시니 그 저괴 아니 보올까? | 그 | 픽는 병이 도호 일도 잇스올 씨 |
| (0304a5) | 오니 이제라도 넘너-호느이다. | 그 | 약은 마즘 다 쓰고 적게 보내고 |
| (0503b4) | 東萊의 엿즈와 무무 註進호야 | 그 | 返事 대로 우리 兩人 中에 |
| (0712b6) | 호옴새. 술 낼 일도 소임의-게 | 그 | 스정을 닐러 들리소. 江戶로셔 |
| (0719b2) | 보시는 날 호씨 도싸올 디 자네 | 그 | 좁을 드저오려 싱각 도호 양 |
| (0826a2) | 장해 불러 들이디 아니 호신고? | 그 | 날란 니르시매 밋디 아냐 다 더 |
| (0113a5) | 드러시니 너일 듯보와 보옵소. | 그 | 빅 슈종을 너머셔 떠디온가? 그 |
| (0509b6) | 리옵데. 그리 아라 기드리옵소. | 그 | 장계 返事 왔습니. 구-호시는 |
| (0414b2) | 네 걸터 니르심과 우리 싱각과 | 그 | 어귀미 天地 굿거니와 이리 호 |
| (0529b4) | 티 아니케 장만-호이오려니와 | 그 | 모단은 너모 굿디 아닌 일이오 |
| (0802a5) | 그름이 되올까 하 민망-호와 | 그 | 雜物에 小判 金子 百 枚를 밧고 |
| (0410b2) | 옵소. 예셔 잠깐 보와도 아올쇠. | 그 | 안해도 一 束에 자불 公木이 |
| (0612b4) | 由히 그옵아디 못 호을 써시니 | 그 | 날은 天氣에도 붓디 아녀 出船 |
| (0716a5) | 을 곱히노라 廻引호을 써시니 | 그 | 안희 路次의 괴로오미나 從容 |
| (0205b3) | 다. 封進宴을 수이 호을 써시니 | 그 | 저괴 아니 보올까? 그 픽는 병 |
| (0715a1) | 호영이다. 수이 가 브틀 써시니 | 그 | 저괴 御禮 술을 줄을 잘 아라셔 |
| (0510b3) | 옵도쇠. 今日 빅를 내올 써시니 | 그 | 返書를 수이 가지여 오옵소. 싱 |
| (0403a1) | 특시 出入이 잇디 아날 듯 호되 | 그 | 호 시를 그장 未審히 너기옵니. |
| (0515b2) | 二 船 三 船-식지는 三人-식 | 그 | 나쁜 빅에는 二人-식 틱을 써 |
| (0523b6) | 아회-들의 衣裳이 사오나오면 | 그 | 불쑥 사오나오니 마즘 모단을 |
| (0527a5) | 는고? 他國에 불골 사오나오면 | 그 | 作法은 모로고 내 나라 편잔은 |

| | | | | |
|----------|--------------------|---------|--|--------------------|
| (0421b3) | 東으로 굴히여 반만 자브시면 | 그 | | 맛근 술을 드러 닉일이라도 드 |
| (0710b3) | 세 아옵거이다. 흥면 불 작시면 | 그 | | 거조는 엇디 홀고? 잔이나 내는 |
| (0116b3) | 흥 일도 업스오니 닉일 보옵소. | 그는 | | 그러커니와 書契를 내 친히 보 |
| (0408a4) | 隻이옵도쇠. 미리 술와 두옵소. | 그는 | | 술오려니와 흥씩 三隻-도록 9 |
| (0326a2) | -씩 하 굴히디 말라 니르옵소. | 그는 | | 判事네과 代官들히 열현이 아니 |
| (0328a5) | 오니 아프리 흥 줄도 모로울쇠. | 그는 | | 그러커니와 二三 日 디나거든 |
| (0109b1) | ㄱ 우리-게 괴별을 니를 거시니 | 그는 | | 油斷흥 일은 업스오리. 代官네 |
| (0620a1) | 주쇼셔. 흥면 그러곰 흥올가? | 그대 | | -도록 생각-흥실 작시면 엇디 |
| (0530a2) | ㄱ 주쇼셔. 미리 이러-흥가 너겨 | 그대 | | -도록 슬왔더니마는 이리 니르 |
| (0921b1) | -호미 계오 五六年도 못 흥디 | 그대 | | -도록 막음 덜리 생각디 마소. |
| (0211b6) | 聽地衣도 놀가 다 하야-더시니 | 그도 | | 굴 양으로 흥옵소. 니르시는 대 |
| (0619b6) | 민망-호를 프러 주쇼셔. 흥면 | 그러곰 | | 흥올가? 그대-도록 생각-흥실 |
| (0920b6) | 흥-흥는 양으로 생각-흥거니와 | 그러나 | | 노흥여도 못 흥고 거르기 우소. |
| (0530a5) | 시니 흥 일도 업기는 업거니와 | 그러나 | | 닉일은 祝願의 연향이오니 信傳 |
| (0130b4) | ㄱ-게 다시 술올 스이도 업스매 | 그러는 | | 흥거니와 이 양병은 아니오. 正 |
| (0623a2) | 內 술오링이다. 니르시는 양이 | 그러도 | | 홀 듯 흥면 路次의 일란 자네- |
| (0718b3) | !을 술오라.” 흥 일이로소이다. | 그러면 | | 上下 대되 잔채-흥 일로 갖티나 |
| (0721a2) | 흥을 判事네-씩도 니르닝이다. | 그러면 | | 이러나 더러나 니르시는 대로 |
| (0719a4) | ㄱ시오니 이런 줄을 숭녕이다. | 그러면 | | 進物을 來日이라도 출홀 디 보 |
| (0504b5) | ㄱ-흥이니 심상히 아디 마옵소. | 그러면 | | 이런 줄은 모로고 맛조이면 너. |
| (0329a2) | 代官네-씩 출히라 닐러 두옵소. | 그러면 | | 모되 雨天 브터 시작-흥 썬시니 |
| (0501b2) | 言使 마즈라 온 御使 비옵도쇠. | 그러면 | | 使者는 뉘 와 겨신고? 아직 비 |
| (0128b2) | 흥가 녀기오니 우리 썬 나올쇠. | 그러면 | | 엇디 브디 닉일 흥실 양으로 니 |
| (0712b3) | 관 冠帶 흥시미 도홀가 시프외. | 그러면 | | 冠帶도 흥웁새. 술 낼 일도 소 |
| (0514b1) | 은 日吉利 이실 듯 흥다 니르니 | 그러면 | | 出行의 아름다운 일이라 다 祝 |
| (0514b4) | 롭다운 일이라 다 祝願흥옵닉. | 그러면 | | 게셔도 日吉利 이실 듯 흥다 니 |
| (0814a5) | 구름 가기 도타 니르시니 一定 | 그러면 | | 더욱 더욱 아름답스외. 진실로 |
| (0132a6) | 야 亭主 보디 아니 흥옵는가? | 그러커니와 | | 게셔 힘 뼈 이런 道理를 東萊 |
| (0321b2) | 시니 다시 술올 양이 업서이다. | 그러커니와 | | 홀리라도 수이 도라 가게 흥쇼. |
| (0529a2) | 진히 녀며-흥심 滿足흥여이다. | 그러커니와 | | 朝鮮 作法은 굿긋티 그리 몬 흥 |
| (0206b6) | 옛스오니 그만 흥야 마르쇼셔. | 그러커니와 | | 나의 스스스 정잇 잔이오니 이 |
| (0826b4) | 양 아롭다오미 나쁜 디 업스되 | 그러커니와 | | 오늘에 다드라는 섭섭흥옵기 |
| (0322b4) | 거시니 自然 더릴까 녀기옵닉. | 그러커니와 | | 催促흥오리. 封進 返禮는 셔울 |
| (0116b3) | 도 업스오니 닉일 보옵소. 그는 | 그러커니와 | | 書契를 내 친히 보고 잔-네 |
| (0328a5) | 아프리 흥 줄도 모로울쇠. 그는 | 그러커니와 | | 二三 日 디나거든 銅 鑑 看品 |
| (0123b6) | 을 보내오니 브르더라 흥옵닉. | 그러커든 | | 몬져 가옵소. 나도 미쳐 그리 |
| (0514b6) | 듯 흥다 니르옵노쇠. 아프려나 | 그러과다 | | . 그러흥면 日本 船頭 ㄱ장 니 |
| (0318b6) | 이 술의 취-흥실가? 싱심이나 | 그러튼 | | 아녀이다. ㄱ장 취-흥옛스오니 |
| (0405b4) | ㅁ츠니 大慶이옵도쇠. 전의는 | 그러티 | | 아니트니마는 이러나 더러나 |
| (0307b2) | 디 못 흥올가 옛줍습닉. 前例는 | 그러티 | | 아니커니와 今度 안자도 禮 |
| (0514b6) | 르옵노쇠. 아프려나 그러과다. | 그러흥면 | | 日本 船頭 ㄱ장 니근 사름 十五 |
| (0508b6) | 로 흥라코 돈돈이 닐러 거시니 | 그러흥면 | | 往來 九 日 十 日이나 되려니와 |
| (0125b4) | 로 술와 주실가 흥여 술왔습닉. | 그러흥면 | | 스스로이 어들 일은 아니오니 |
| (0315a6) | 큰 일을 엇디 열현이 흥리잇가? | 그러흥므로 | | 長老의 덜의 朝鮮 御牌를 두고 |
| (0202b5) | ㅁ이옵더니 비예 이치여 오오니 | 그러흥온 | | 디 밥도 일절 먹디 못 흥고 누 |
| (0309a2) | 食 테윗 거술 먹디 아니 흥오니 | 그러흥온 | | 디 본딧 오래 서기 잘 못 흥오 |
| (0318a3) | ㅁ옵건마는 하 먹과다 니르시니 | 그러흥온 | | 디 ㄱ장 취-흥오되 正根을 계 |
| (0108b6) | 시니 遠見의 무려 보옵소. 어와 | 그러흥온가 | | ? 遠見의는 못디 아니 흥여도 |
| (0702a1) | 답이나 흥시게 숭녕이다. 흥면 | 그러흥온가 | | ? 筑前殿 地界 두 참이-도록 |
| (0611a4) | ㅁ이 들 十五 日이라 흥니 일딩 | 그러흥온가 | | ? 그 안헤는 吉日이 업스온가? |
| (0512b4) | 비 트실 吉日이라 니르니 일딩 | 그러흥온가 | | ? 天氣 樣子 일딩 順風이 이 |
| (0214b4) | 는가? 예는 흥 번이나 비와시니 | 그러흥외 | | . 닉일이나 모되나 연고 업스신 |
| (0204a2) | 도용히 말슴-흥니 갖거 흥옵닉. | 그러흥외 | | . 正官은 섬으로서 올 적 브터 |
| (0130a5) | 惑을 프르시과다. 니르시는 배 | 그러흥옵거니와 | | 正官 昨晚 브터 병 드렸스오니 |
| (0317a6) | ㅁ 출혀 권-흥 양으로 왓스오니 | 그러흥 | | 디 술도 내 ㅁ음을 바다 그러흥 |
| (0317b3) | 그러흥 디 술도 내 ㅁ음을 바다 | 그러흥가 | | 너기니이다. 御意 감격-흥여이 |
| (0413b4) | 듬이옵도쇠. 니르시는 배 오로 | 그러흥 | | 씨라도 이 公木는 넷 公木의 |
| (0429b2) | 가 예나 흥 가지옵도쇠. 우리도 | 그런 | | 줄은 모로든 아니컨마는 민망- |
| (0131b3) | 녀기디 아니 흥실 거시니 잔 | 그르다는 | | 아니 흥실 듯 흥오리. 이는 내 |
| (0213a1) | 여 노옵스와 흥옵닉. 니르시미 | 그르든 | | 아니 흥거니와 더룬 날의 東萊 |

| | | | | | |
|----------|--------------------|--|-------|--|---------------------|
| (0129a6) | 니 正官이 나디 아니면 우리의 | | 그르든 | | 발명 못 홀 거시니 비록 正官이 |
| (0618b4) | 시다 亨면 江戸에 들러도 우리 | | 그른 | | 되 되기는 눈에 알피라 亨여 가 |
| (0802a3) | 두엇더니 大君 드르시면 우리 | | 그름이 | | 되올까 하 민망-亨와 그 雜物이 |
| (0706b2) | 니 이를 받디 아니시면 우리의 | | 그름이라도 | | 亨고 장췌 面目 업시 너길 꺼시 |
| (0121a3) | 나죄란 入館 亨여 보옵새이다. | | 그리 | | 亨옵소. 슈고-亨옵시니. 앓가 |
| (0208b2) | -亨엿스오니 깃거 亨옵느이다. | | 그리 | | 니르시믈 고디 아니 듯줍니. 日 |
| (0902a6) | 던-亨인가 더욱 아름다왕이다. | | 그리 | | 니르시니 감격-亨거니와 아쁘 |
| (0315b6) | 旬 日마다 拜禮를 亨느닝이다. | | 그리 | | 흠을 島中 왕년에 보고 사름-모 |
| (0116a3) | 어습니. 書契를 내셔든 보옵새. | | 그리 | | 亨오려니와 김피 드럿스오니 另 |
| (0426b6) | 피오니 잘 헤아려 ㅁ츠시과다. | | 그리 | | 니르시미 그르든 아니커니와 ㅁ |
| (0124a2) | 러커든 묻져 가옵소. 나도 미쳐 | | 그리 | | 가오리. 자넛 보시드시 방새 파 |
| (0127b1) | 가 나실 양으로 亨쇼셔. 아옵게 | | 그리 | | 亨오리. 다만 正官이 본디 병든 |
| (0509b4) | 日만의는 올가 다 헤아리옵데. | | 그리 | | 아라 기드리옵소. 그 장계 返事 |
| (0115a2) | 마르시고 ㅁ일 무루 츠즈쇼셔. | | 그리 | | 亨올 거시니 ㅁ옵 편히 녀기옵. |
| (0429b5) | ㅁ 민망-호믈 ㅁ-게 니르울고? | | 그리 | | 亨오리. ㅁ일은 ㅁ츠마 니르시 |
| (0210a5) | 일 모로는 것-들이 일덩 ㅁ고 | | 그리 | | 亨 일이옵도쇠. 무려 보와 이제 |
| (0902b6) | ㅁ 우리 亨올 썬시니 자네-네도 | | 그리 | | 아옵소. 어제는 불의예 亨 振舞 |
| (0313a4) | 이다. 올스와이다. 島中의셔도 | | 그리 | | 니르옵느니이다. 時節이 네과 |
| (0516b2) | 췌 양으로 亨옵소. 여긔 船頭도 | | 그리 | | 보와시니 信使의셔도 최촉-亨 |
| (0117b6) | 도티 아니 亨오니 브딧 내옵소. | | 그리 | | 亨옵새. 밤이 드러시니 아직 御 |
| (0409b2) | 리라 亨여 츠세 더거 보내옵소. | | 그리 | | 亨오리. 公木 五十 束 드련스오 |
| (0133b1) | 亨여 나실 양으로 亨여 보옵소. | | 그리 | | 亨오리. 案內는 先通之 意 서어 |
| (0409a3) | 그리. 아직 公木을 드러 주옵소. | | 그리 | | 亨옵소. 註進홀 거시니 ㅁ 같 |
| (0917b4) | ㅁ나 ㅁ옵을 다-亨여 니기옵소. | | 그리 | | 니르시니 감격-亨영이다. 나도 |
| (0617a6) | ㅁ시는 道理 맛당은 亨옵거니와 | | 그리 | | 니르실 듯 亨 일을 알고 信使- |
| (0117a6) | 옵소. 우리 일흠은 아피옵도쇠. | | 그리 | | 亨여 묻 亨오리. 書契의 亨 지리 |
| (0810a6) | 振舞홀 양도 잇는가 시브오니 | | 그리 | | 아르셔 종용히 亨쇼셔. ㅁ 大坂 |
| (0911b1) | ㅁ을 ㅁ츄미 웃듬으로 녀기오니 | | 그리 | | 아옵소. 이리 술움이 내 편을 토크 |
| (0819a4) | 시 우리는 ㅁ 바들 즘음이오니 | | 그리 | | 아옵소. ㅁ 海上 遠路에 두로 스 |
| (0622a6) | 니 업시 請코져 亨여 니르오니 | | 그리 | | 아르쇼셔. 이 ㅁ희 바르 디나 ㅁ |
| (0310a1) | 를 禮를 삼습새. ㅁ장 도췌오니 | | 그리 | | 亨옵싸이다. 앓가는 서르 멀리 |
| (0524a6) | 의 웃 웃슬 亨여 니피려 亨오니 | | 그리 | | 아르시게 잘 주선-亨시소. 자느 |
| (0612b6) | 도 붓디 아녀 出船 亨실 거시니 | | 그리 | | 아르쇼셔. ㅁ일은 구름 브트미 |
| (0819b6) | 二三日 內에 出船 亨올 거시니 | | 그리 | | 아르쇼셔. 어재도 가 ㅁ을 거슬 |
| (0530b5) | 對面 亨여 ㅁ도 술와 볼 거시니 | | 그리 | | 아르시소. 捷解新語 第五 終 捷 |
| (0504a2) | 이 飛船으로 도라 가올 거시니 | | 그리 | | 아옵소. 이리 호믈 上方의 註進 |
| (0215a3) | 스신 날의 封進 看品홀 썬시니 | | 그리 | | 아르셔 나옵소. 우리는 연고 ㅁ |
| (0506b4) | 시니 ㅁ사리 返事 ㅁ 올 썬시니 | | 그리 | | 아옵소.” 亨시고 ㅁ 니르시기는 |
| (0821a6) | 二三日 內 出船이라 니르시니 | | 그리 | | 못 亨올 일은 ㅁ-亨 되 건너 온 |
| (0522b6) | 자넛-네-ㅁ 쇠아기를 조지니 | | 그리 | | 아르셔 信使의 ㅁ ㅁ기란 對馬島 |
| (0721a1) | 시게 亨면 도홀까 시프다 亨니 | | 그리 | | ㅁ을 判事네-ㅁ도 니르닝이다. |
| (0529a4) | ㅁ러커니와 朝鮮 ㅁ法은 ㅁ긔티 | | 그리 | | ㅁ 亨염즉-亨건마는 니르시는 |
| (0321b6) | ㅁ 수이 도라 가게 亨쇼셔. ㅁ란 | | 그리 | | 亨려니와 당시 公貿易 銅 鑛 看 |
| (0126a3) | ㅁ도 單字를 썬 보내옵소. ㅁ란 | | 그리 | | 亨오리. 茶禮는 어니 ㅁ 亨올고 |
| (0325a6) | 예 보내올까 녀기느이다. ㅁ란 | | 그리 | | 亨옵소. 木綿은 내 친히 보와 |
| (0416a6) | ? 亨갓 내히만 ㅁ각-亨고 일을 | | 그리 | | 亨는가? ㅁ 公木이라 ㅁ러도 ㅁ |
| (0319b5) | 이다. 이도 술이 ㅁ는 일이오니 | | 그리 ㅁ | | 녀기디 마르쇼셔. 쇼인 ㅁ으로 |
| (0426b6) | 려 ㅁ츠시과다. 그리 니르시미 | | 그르든 | | 아니커니와 우리도 亨나 둘히 |
| (0415a1) | ㅁ니 이 公木을 端端이 ㅁ홀까? | | 그를 | | ㅁ다 ㅁ 녀기시면 내여 가 ㅁ라 |
| (0206b5) | ㅁ오매 먹기를 ㅁ히 亨엿스오니 | | 그만 | | 亨야 마르쇼셔. 그러커니와 나 |
| (0422b5) | ㅁ 이대-도록 ㅁ로이 ㅁ스올가? | | 그저 | | 그저 우리 ㅁ는 양으로 亨시면 |
| (0422b5) | ㅁ-도록 ㅁ로이 ㅁ스올가? 그저 | | 그저 | | 우리 ㅁ는 양으로 亨시면 ㅁ기 |
| (0711b2) | ㅁ 맛당-亨여이다. 回答 니르고 | | 그저 | | 니러 나미 ㅁ장 ㅁㅁ홀 ㅁ 亨오 |
| (0426b3) | ㅁ 엿디 부디-홀가 녀기시는고? | | 그저 | | 헤아리실 ㅁ피오니 잘 헤아려 |
| (0830b5) | ㅁ 멀리 보내여도 ㅁ는 亨 가지니 | | 그저 | | 예셔 도라 가시미 도췌왕이다. |
| (0101a5) | ㅁ 오라. 네 代官의 가 내 말로 | | 그적 ㅁ | | 여긔 ㅁ려 와 어제라도 ㅁ을 거 |
| (0304b6) | 던가? 전의는 처음으로 보옵고 | | 그지 | | 업서 亨옵데. 御意 ㅁ티 처음 |
| (0707a5) | ㅁ설-亨는 배 ㅁㅁ지 筑前殿의 | | 그지 | | 업스신 道理로쇼이다. 묻져 ㅁ |
| (0430a2) | 오리. ㅁ일은 ㅁ츠마 니르시니 | | 그지 | | 업스매 내 친히 ㅁ을 홀 디라도 |
| (0621b2) | ㅁ면 ㅁ기 사름-돌히 민만-ㅁ믈 | | 그지 | | ㅁ 못 홀 일이오니 이 ㅁㅁ란 ㅁ- |

| | | | | | |
|----------|--------------------|--|------|--|--------------------|
| (0303b5) | 글로 브터 알튼 가슴과 빅 저기 | | 그쳐 | | 점점 흐리는 듯 흐읍건마는 채 |
| (0608a6) | 이라 가고져 너기옵더니마는 하 | | 극진 | | -흐시매 멈쳐 쏘 귀-흐 집-극 |
| (0707b6) | 커나 나 흐는 대로 흐소. 자네 | | 극진 | | -흐신 마는 셔울 가서 筑前殿 |
| (0616b3) | 船도 더될 써시니 온갖 接待예 | | 극진 | | -흐심은 빅에서도 밋조오면 오 |
| (0615b5) | 가. 격기-흐는 분-네-게로서도 | | 극진 | | -흐 일이옵도쇠. 船 中에도 별 |
| (0105b5) | 습닉. 진실로 오늘은 처음으로 | | 극진 | | -흐시물 미더 내 생각-흐 일을 |
| (0822b4) | 견-들도 너길 작시면 옛-마지 | | 극진 | | -흠이 헤일 되올가 너기오니 |
| (0204a6) | 함은 섬으로서 올 적 브터 東萊 | | 극진 | | -흐시물 듯좁고 언제 건너 가 |
| (0125b6) | 일은 아니오니 내 친히 東萊 가 | | 극진이 | | 솔오려니와 자넬도 單字를 써 |
| (0618a1) | 기는 江戸로서 信使 겨실 디도 | | 극진이 | | 하고 참참이 못히 請히여 振舞 |
| (0915b5) | 이리 술오를 휴지 삼디 마옵소. | | 극진이 | | 권-흐심 아르 일-도곤 감격-흐 |
| (0122b5) | 왔습던가? 앓가 만났습닉. 먼디 | | 극진이 | | 軍官을 보내여 부르시니 감격- |
| (0104b5) | 미더습닉. 아직 자넬-네 앓흔 | | 극진이 | | 니르시니 뜻을 퍼거니와 쏘 送 |
| (0507b6) | 흐시는 일이옵데. 어와 註進을 | | 극진이 | | 흐시다 니르시니 安堵히여 흐 |
| (0602b2) | 직 아직 아릅답스와 흐닝이다. | | 극진히 | | 니르심이로송이다. 진실로 兩 |
| (0305a4) | 御意 마티 처음으로 뵈오디 하 | | 극진히 | | 디접-흐읍시니 술을 양도 업서 |
| (0804b2) | 는 差別을 잘 아라셔 奉行네-찌 | | 극진히 | | 닐러 도로 보내시물 미덧습닉. |
| (0705b3) | 란 貴히 일도 업슨디 이러트시 | | 극진히 | | 行下히시니 太守 드르셔도 過 |
| (0714b2) | 일이로소이다. 두 분을 예-썻지 | | 극진히 | | 무로시미 感激히영이다. 수이 |
| (0528b6) | 三使찌 열조오니 三使 니르시믄 | | 극진히 | | 넘너-흐심 滿足히여이다. 그러 |
| (0528b3) | 守 니르시는 道理 前後 樣子를 | | 극진히 | | 三使찌 열조오니 三使 니르시 |
| (0709a2) | 남을 술왔더니 다시곰 다시곰 | | 극진히 | | 行下히시니 민망-흐읍건마는 |
| (0526b3) | 아직 가서 太守 니르시는 道理 | | 극진히 | | 옛조와 보오리. 자넬-네 디답 |
| (0526a6) | 도 맛당히 너기시디 아니실가 | | 근심 | | -흐읍는이다. 아직 가서 太守 |
| (0111a6) | 흐 척이 떠뎡스오니 글로 흐여 | | 근심 | | -흐읍닉. 브슴 빅 어이 흐여 떠 |
| (0113b6) | 덜-흐여 떠뎡스오니 글로 흐여 | | 근심 | | -흐읍닉. 이제 오는 법도 잇간 |
| (0520b6) | 조출-흐야 므옵 편히 쉬오니 | | 근심 | | 마르시고 一二 日이나 디나 종 |
| (0114b3) | 와 方方 彼此의 좃조을 거시니 | | 근심 | | 마옵소. 열현이 마르시고 닉일 |
| (0406a2) | 히 못조오니 아릅답스와. 버거 | | 근심은 | | 公木 善惡의 브터 判事네과 싸 |
| (0312a4) | 의 넘고 술도 잘 홀 쏘 아니라 | | 글 | | 잘 흐매 朝廷으로서도 書契마 |
| (0325a6) | 는 빅예 보내올까 너기노이다. | | 글란 | | 그리 흐읍소. 木綿은 내 친히 |
| (0321b6) | 리라도 수이 도라 가게 흐쇼셔. | | 글란 | | 그리 흐려니와 당시 公貿易 銅 |
| (0126a3) | 와 자넬도 單字를 써 보내옵소. | | 글란 | | 그리 흐오리. 茶禮는 어니 띄 |
| (0124b6) | 五六 枚만 문져 드려 주옵소. | | 글란 | | 이제 東萊 술와 보내야 드릴 양 |
| (0529b5) | 단은 너모 굿디 아닌 일이오니 | | 글란 | | 마르쇼셔. 미리 이러-홀가 너 |
| (0823b6) | 를 흐오니 御案内 아뢰닝이다. | | 글로 | | 흐야 늘근 어미를 더브렀습디 |
| (0609a4) | 어우러-더 즐거오미 마 업서 | | 글로 | | 흐여 齣을 즐겨 어즐-흐여 正體 |
| (0303b4) | 을 만히 주시매 덕분의 먹습고 | | 글로 | | 브터 알튼 가슴과 빅 저기 그쳐 |
| (0111a6) | 거니와 빅 흐 척이 떠뎡스오니 | | 글로 | | 흐여 근심-흐읍닉. 브슴 빅 어 |
| (0113b6) | 연장도 브덜-흐여 떠뎡스오니 | | 글로 | | 흐여 근심-흐읍닉. 이제 오는 |
| (0529a4) | 이다. 그러커니와 朝鮮 作法은 | | 굿굿티 | | 그리 몬 흐염죽-흐건마는 니르 |
| (0603a4) | 커니와 이는 物에 비-흐면 바늘 | | 굿티오 | | 자네 슈고와 패는 비-흐기 어 |
| (0104a3) | . 우리-게 미드시는 일은 바늘 | | 굿티오 | | 이러로서 미들 일은 뵈 조조을 |
| (0719b4) | 을 드저오려 생각 도홀 양으로 | | 괴걸 | | -흐시소. 쏘 드린 사름-돌토 |
| (0504b1) | 進도 흐고 路次 各官의 接待의 | | 괴걸 | | -호를 위-흠이니 심상히 아디 |
| (0919b4) | 리는 사름이옵썻쇠. 엇디 이리 | | 괴룡 | | -흐시는고? 진실로 나도 日本 |
| (0920b5) | 디 업슨 양으로 기리시니 일덩 | | 괴룡 | | -흐는 양으로 생각-흐거니와 |
| (0613b2) | 전의 出船히실 양으로 흐쇼셔. | | 괴별 | | -흐심 마티 닉일은 天氣 도홀 |
| (0507b3) | 디 아프란 쓰실 써시니 잇거든 | | 괴별 | | -흐읍소.” 흐시는 일이옵데. 어 |
| (0718b2) | 오니 信使찌 뵈올 양을 친히 가 | | 괴별을 | | 솔오라.” 흐 일이로소이다. 그러 |
| (0109a5) | 뵈면 즉시 釜山浦로서 우리-게 | | 괴별을 | | 니를 거시니 그는 油斷홀 일은 |
| (0604a5) | 셔. 여긔 떠나실 吉日은 郡郡에 | | 괴별을 | | 뎡고 定홀 써시오니 열현티 아 |
| (0409a1) | 습닉. 보낼 짐을 출혀 보와 다시 | | 괴별을 | | 숄스오리. 아직 公木을 드려 주 |
| (0713b4) | 까는 海上 먼 길히 無事히 오신 | | 괴별을 | | 거르기 깃비 너기샤 우리 二 |
| (0608b1) | 진-흐시매 멈쳐 쏘 귀-흐 집- | | 괴지 | | 경의 도흠이 뜻을 펴고 쏘는 어 |
| (0914b4) | 진실로 日本 토크오니 다곰다곰 | | 괴특다 | | 코 일코좁는디 쏘 말습-흐시는 |
| (0430a5) | 친히 番을 홀 디라도 밤-새를 | | 괴도로울 | | 써시니 닉일 힘 쓰시기는 오로 |
| (0710a1) | 문의 官員 二 人이 三島썻지 와 | | 괴도르다 | | 흐오니 來日은 三島의 가실 써 |
| (0905b1) | 해. 모든신 디도 알외여 주옵소. | | 괴둑의도 | | 놀래 브르든 若衆들회 연고 업 |
| (0524b5) | 아라시는 이리오니 내 술오매 | | 괴드로디 | | 말고 잘 주션-흐야 써림 업게 |

| | | | |
|----------|---------------------|--------|----------------------|
| (0108a6) | 二番 特送이 豊崎서 日吉利를 | 기다리더라 | 닐러 와서니 오늘은 건넌죽-흔 |
| (0514a1) | 특서 勘蠻夷-식지 가서 ㅂ름을 | 기다리려 | 흥신다 흥읍넌. 니르시드시 朝鮮 |
| (0507a5) | 온 후에 보와야 禮 오매 아직 | 기다리읍넌 | . 不自由한 고되 아프란 ㅂ실 ㄸ |
| (0509b4) | 올가 다 헤아리읍데. 그리 아라 | 기다리읍소 | . 그 장계 返事 왔습넌. 구-ㅎ |
| (0513a5) | ㅂ읍논고? 우리는 오늘 타 ㅂ워 | 기드릴 | 즘음이읍도쇠. 올스외. 넌일은 |
| (0527b6) | ㅂ를 모셔 갈 작시면 사름-마다 | 기려야 | 우리의 面目도 이실디 ㅎ혀 批 |
| (0903b3) | 업서 니러섬도 싱각 아니코 | 기리 | 안자시니 무식히도 ㅎ가-ㅎ여 |
| (0312b1) | ㅂ로셔도 書契마다 보시고 ㅂ장 | 기리시고 | ㅂ鳥主도 나흔 ㅂ르셔도 萬事 |
| (0327b4) | ㅂ 奇特한 相指를 다 잘 ㅎ더라 | 기리시니 | 우리 듯기도 더욱 ㅂ트읍데. 어 |
| (0920b3) | ㅂ本말을 비-ㅎ ㅂ 업슨 양으로 | 기리시니 | 일딩 괴롱-ㅎ는 양으로 싱각- |
| (0119a4) | 通히시니 아릅답스외. 내 말을 | 기리시니 | ㅂ트읍거니와 고디 ㄸ튼 아니 |
| (0824b1) | ㅂ ㅂ라오니 풍뉴-ㅎ는 사름을 | 기터디 | 말고 더 ㅂ르시게 ㅂ트넌이다. |
| (0918a3) | 더니 아프리 ㅎ여도 어두운 ㅂ | 길 | 네니 ㅂ-ㅎ여 니기-도록 ㅂ |
| (0801a3) | 解新語 第八 信使 ㅂ나서 사흙 | 길 | ㅂ에 격기 奉行의로셔 ㅂ러 사 |
| (0523a6) | ㅂ 우다히 ㅂ나실 제 이틀 사흙 | 길호로셔도 | 구경-ㅎ 사름-ㄸ 모다셔 朝鮮 |
| (0713b2) | 호로셔 니르시는 바는 海上 ㅂ | 길히 | 無事히 오신 괴별을 ㅂ르기 ㅂ |
| (0116a5) | 셔든 보읍새. 그리 ㅎ오려니와 | ㅂ피 | 드렛스오니 ㅂ흔 일도 업스오니 |
| (0326b6) | ㅂ ㅂ코 서르 종용-ㅎ여 우리도 | ㅂ거 | ㅎ는이다. 어제는 無事히 연향- |
| (0814a2) | 니 對馬島에 ㅂ툼과 ㅎ 가지로 | ㅂ거 | ㅎ는디 ㅂ 넌일 구름 가기 도타 |
| (0208a6) | 다 ㅂ검죽이 장만-ㅎ엿스오니 | ㅂ거 | ㅎ읍넌이다. 그리 니르시를 고 |
| (0518a5) | 마즘 順風의 無事히 ㅂ트오니 | ㅂ거 | ㅎ읍넌이다. 對馬島主 ㅂ트외 |
| (0204a1) | 天氣도 ㅂ하 ㅂ용히 말슴-ㅎ니 | ㅂ거 | ㅎ읍넌. 그러ㅎ외. 正官은 ㅂ |
| (0510a4) | 나쁜 ㅂ 업시 ㅂ괴도 왔스오니 | ㅂ트외 | . 大慶의 일이읍도쇠. 今日 ㅂ |
| (0327a3) | 어제는 無事히 연향을 ㅎ시니 | ㅂ트외 | . 東萊 釜山浦로셔 正官과 都船 |
| (0119a5) | 아릅답스외. 내 말을 기리시니 | ㅂ트읍거니와 | 고디 ㄸ튼 아니 ㅎ외. ㅂ기 아 |
| (0327b5) | 라 기리시니 우리 듯기도 더욱 | ㅂ트읍데 | . 어제는 술을 ㅂ장 먹고 正根 |
| (0817b6) | ㅂ트니 아릅다오미 서르 同前히 | ㅂ튼 | ㅂ로송이다. 진실로 太守 路次 |
| (0907a2) | 용히 말슴 달란-ㅎ시니 亭主의 | ㅂ툼이 | 노외야 업서 亭主의 도리의 술- |
| (0219b1) | 看品을 無事히 ㅎ오니 우리도 | ㅂ비 | 너기읍넌. 우리는 이제 나을 ㅂ |
| (0713b4) | 히 無事히 오신 괴별을 ㅂ르기 | ㅂ비 | 너기샤 우리 二人을 예-ㅂ지 |
| (0511a1) | 각 ㅂ트기 수이 오니 大守도 일딩 | ㅂ비 | 너기시올쇠. ㅂ괴에도 이시려 |
| (0827b2) | 도 어미 ㅂ트기 ㅂ르기 ㅂ히 너겨 | ㅂ췌라 | ㅎ오니 일로써 兩國 安泰한 |
| (0719a1) | ㅂ르면 ㅂ하 대되 잔채-ㅎ 일로 | ㅂ터니 | 업시 모시게 ㅎ라 ㅎ야 니르시. |
| (0609a3) | 와 풍뉴과 어우러-더 즐거오미 | ㅂ | 업서 ㅂ로 ㅎ여 ㅂ를 즐겨 어즐 |
| (0415a3) | 그를 마다 ㅂ트기시면 내여 가 | ㅂ라 | 드리실까? 早速 못디 못 ㅎ면 |
| (0919a4) | ㅂ리도 이실 ㅂ시니 아프려나 | ㅂ르치시과샤 | . 여와 자네는 우은 사름이로쇠 |
| (0910b3) | 境의 소임을 ㅎ는 사름이 너비 | ㅂ읍아디 | 못 ㅎ면 후의 드림죽디 아니 ㅎ |
| (0612b2) | ㅂ으로 ㅂ르시니 이제는 自由히 | ㅂ읍아디 | 못 ㅎ을 ㅂ시니 그 날은 天氣에 |
| (0721b6) | 아니라 大君도 ㅂ르기 喜悅이 | ㅂ이 | 업습고 우리 ㅂ트 비-ㅎ ㅂ 업 |
| (0807b2) | . ㅂ 내 힘으로 더 ㅂ를 自由히 | ㅂ읍아디 | 못 ㅎ 일리오니 이러ㅂ시 ㅂ트 |
| (0422a6) | ㅂ도 代官의 ㅂ실이면 아프려도 | ㅂ읍알기 | 어려울 양이오니 束의셔 ㅂ |
| (0119b4) | ㅎ외. ㅂ기 아라 ㅂ트으론가? | ㅂ장 | ㅂ히 通히읍시니. 술란 ㅎ마 ㅂ |
| (0522a5) | 이오면 엇디 열현이 ㅎ렁잇가? | ㅂ장 | 쉬은 일이언마는 朝鮮 家風이 |
| (0906a1) | ㅂ ㅂ새와 너기실 ㅂ도 ㅂ실까 | ㅂ장 | ㅂ트거니와 다만 우리는 어리 |
| (0319a1) | ㅂ? 싱심이나 그러튼 아녀이다. | ㅂ장 | ㅂ-ㅎ엿스오니 ㅂ의 도라 가기 |
| (0310a1) | ㅂ로 잔 ㅂ 들기를 禮를 삼습새. | ㅂ장 | ㅂ트오니 그리 ㅎ읍싸이다. ㅂ |
| (0312b1) | 朝廷으로셔도 書契마다 보시고 | ㅂ장 | 기리시고 ㅂ鳥主도 나흔 ㅂ르 |
| (0816b6) | ㅂ와 ㅂ리히오니 ㅎ를 ㅂ르시고 | ㅂ장 | ㅂ읍 ㅂ히 쉬신 후의 祝願의 ㅂ |
| (0208b6) | ㅂ트넌. 日本이면 이틀 가지고 | ㅂ장 | ㅂ검죽이 잘 달호련마는 엇디 |
| (0313a2) | ㅂ간이라 니르니 우리도 ㅂ트고 | ㅂ장 | 아릅다와 ㅎ넌이다. 올스와이 |
| (0316a4) | 사름-마다 ㅂ름을 ㅂ트고 朝廷도 | ㅂ장 | 일ㅂ르시느니라. 술을 ㅎ 가 |
| (0520b2) | ㅂ쇠. 인는 ㅂ도 ㅂ너-ㅎ시므로 | ㅂ장 | ㅂ출-ㅎ야 ㅂ읍 ㅂ히 쉬오니 |
| (0325b4) | ㅎ읍소. 木綿은 내 친히 보와 | ㅂ장 | 吟味히여 드릴 거시니 代官네- |
| (0320a5) | ㅂ 말고 수이 도라 오라 鳥主 | ㅂ장 | ㅂ부-ㅎ엿스오니 아프려나 ㅂ |
| (0605b4) | 술을 ㅎ고 나그네 ㅂ름을 ㅂ러 | ㅂ장 | 아릅다이 너기넌이다. ㅎ마 도 |
| (0406b1) | ㅂ터 判事네과 ㅂ홀가 너기오니 | ㅂ장 | 잘 ㅂ히읍소. ㅂ스이 ㅂ 가는 |
| (0212b3) | ㅂ 일절 예는 오디 아니 ㅎ시니 | ㅂ장 | ㅂ히히여 노흙스와 ㅎ읍넌. 니 |
| (0202a5) | ㅂ트넌니 ㅂ트 드려 ㅂ트 난다 ㅎ니 | ㅂ장 | ㅂ트히외. 御意 ㅂ트당-ㅎ여이다 |
| (0318a5) | ㅂ트과다 니르시니 그러ㅎ은 ㅂ | ㅂ장 | ㅂ-ㅎ외되 正根을 ㅂ요 ㅂ히 |
| (0711b3) | ㅂ. 回答 니르고 그져 니러 나미 | ㅂ장 | ㅂ트히 ㅂ트 ㅎ오니 ㅂ트 안주 |

| | | | |
|----------|--------------------|-------|--------------------|
| (0721b3) | 스당이며 萬事 되답-흔는 양이 | ㅁ장 | 올히 흥신 바늘 대되 일궈를 켜 |
| (0914a5) | 미더습니이다. 자네 말슴-겻치 | ㅁ장 | 보드랍고 쏘 인스당 흥시는 말 |
| (0508b2) | 듯줍새. 어제 東萊 니르시기는 | ㅁ장 | 세춘 사름 돌홀 밤-낫 올라 갈 |
| (0205a4) | 官씩 니르오면 뵈옵디 몬 호믈 | ㅁ장 | 설이 너겨 病이 더 重홀까 너기 |
| (0328a1) | 도 더욱 깃브옵데. 어제는 술을 | ㅁ장 | 먹고 正根 업서 도라 오니 아므 |
| (0403a1) | 엇디 아닐 듯 흥디 그 홀 시를 | ㅁ장 | 未審히 너기옵니. 어와 오늘은 |
| (0515a2) | 그러과다. 그러하면 日本 船頭 | ㅁ장 | 니근 사름 十五 人을 差定하야 |
| (0901b3) | 오니 엇더-흥올고? 어와 어와 | ㅁ장 | 도착외. 이러로서 몬져 술오려 |
| (0822b4) | 家中 견-들도 너길 작시면 옛- | ㅁ지 | 극진-흥이 헤일 되올가 너기오 |
| (0911a4) | 를 웃듬으로 흥니 귀-흥 禮物을 | ㅁ춤이 | 웃듬으로 너기오니 그리 아옵소 |
| (0311a2) | 력스오니 자넌-네도 이제란 이 | ㅁ티 | 다 자옵소. 싱심이나 어이 남기 |
| (0613b2) | 흥실 양으로 흥쇼셔. 기별-흥심 | ㅁ티 | 넉일은 天氣 豆홀가 시브다 여 |
| (0311b5) | 體 업습건마는 이 齣으란 御意 | ㅁ티 | 다 먹소리이다. 長老는 樣體 |
| (0305a1) | 보옵고 그지 업서 흥옵데. 御意 | ㅁ티 | 처음으로 뵈오디 하 극진히 디 |
| (0913a3) | 首히 된 仕合 붓쓰러오미 海山 | ㅁ티 | 너기농이다. 모다 언머 서의-흥 |
| (0414a1) | 이 公木은 넷 公木의 一 束도 | ㅁ특니 | 업스물 자넌-네 눈에도 보실디 |
| (0917a3) | 뵈고 말견도 도착오니 자네-네 | ㅁ특신 | 분 五六 人만 계시과다 다 원- |
| (0211b6) | 도 놀가 다 하야-더시니 그도 | 굴 | 양으로 흥옵소. 니르시는 대로 |
| (0425b6) | 디터 몬 홀 일은 公木을 端端이 | 굴희자 | 니르시미 前後의 업슨 일이니 |
| (0412b2) | 디 아니코 公木을 거르기 세치 | 굴현다 | 흥고 공스 오로 홀 제 안가-터 |
| (0422b1) | 알기 어려울 양이오니 束의셔 | 굴혈 | 작시면 이대-도록 폐로이 솟스 |
| (0414b6) | 못 홀 써시니 이 公木을 端端이 | 굴혈짜 | ? 그를 마다 곳 너기시면 내여 |
| (0716a3) | 니 尋常히 못 홀 일이니 吉日을 | 굴히노라 | 廻引하올 써시니 그 안히 路次 |
| (0325b6) | 흥여 드릴 거시니 代官네-씩 하 | 굴히디 | 말라 니르옵소. 그는 判事네과 |
| (0420a3) | 흥시논고? 네 브터 束을 풀고 | 굴히여 | 넌 일이 업스디 즈못 앓가 솟드 |
| (0421a6) | 싱각-흥은 五十 束을 束으로 | 굴히여 | 반만 자브시면 그 맞근 念을 드 |
| (0405a3) | 되 同前이오니 우리도 公木을 | 굴히여 | 자브면 흥 가지옵도쇠. 오늘은 |
| (0418b3) | 이 五十 束을 一 束에 十 端-式 | 굴히여 | 내면 十 束을 자블 써시니 判事 |
| (0520a3) | 을 써슬 계신 디도 서의-흥고 | 궂 | 브트셔 궂바도 흥옵시는가 아 |
| (0918a3) | 리 흥여도 어두온 디 길 네느니 | 궂 | -흥여 니기-도록 뒤호로 모느 |
| (0414b3) | 과 우리 싱각과 그 어기미 天地 | 궂거니와 | 이리 홀 쏘으로는 못디 못 홀 |
| (0911b2) | 나옵소. 이리 슬움이 내 편을 텨 | 궂건마는 | 館中도 심심하매 이러툃 흥 우 |
| (0529b4) | -흥이오려니와 그 모단은 너모 | 궂디 | 아닌 일이오니 클란 마르쇼셔. |
| (0820a5) | 아르쇼셔. 어재도 가 뵈올 거슬 | 궂바 | 흥옵실가 問安만 슬왔습더니 |
| (0520a3) | 신 디도 서의-흥고 궂 브트셔 | 궂바도 | 흥옵시는가 아직 問安 알외옵 |
| (0101b2) | 와 어제라도 오올 거슬 路次의 | 궂브매 | 이제야 門-까지 왔습니. 안히 |
| (0816a4) | 問安호미 本意옵건마는 나의 | 궂브믈 | 헤아리매 아므 디도 흥 가지오 |
| (0615a5) | 이게 궂-흥야 니르오니 船 中에 | 궂브심도 | 계실 써시니 이제 座船을 텨시. |
| (0517a5) | 시니 아름다와 흥농이다. 비예 | 궂브심도 | 계실 써시니 서의-흥오니 무티 |
| (0608a3) | 接待의 馳走 심상티 아니시니 | 궂브도 | 계실가 너겨 도라 가고져 너기 |
| (0616a2) | 흥 일이옵도쇠. 船 中에도 별히 | 궂브도 | 업고 넉일도 天氣 조홀까 시브 |
| (0104a6) | 궂티오 이러로서 미들 일은 뵈 | 궂즈올 | 거시니 막옵 브티시를 미더습 |
| (0316b5) | 氣 一切 업스오니 술과 거동이 | 궂즈와이다 | . 잘 못 먹건마는 상히 못 흥고 |
| (0706b4) | 과도 흥고 장쉬 面目 업시 너길 | 꺼시니 | 아므려나 바드시과다 흥야 알 |
| (0707b4) | 셔 홀 테도 업스니 아프리커나 | 나 | 흥는 대로 흥소. 자네 극진-흥 |
| (0409b5) | 오리. 公木 五十 束 드련스오니 | 나 | 가 보와 잡옵소. 이 公木이 엇 |
| (0606b5) | 자옵시고 흥 빼 수여 가옵시면 | 나 | 드린 저른 것-돌홀 띄놀려 뵈 |
| (0604a1) | 기도 엇더-흥니 아프려나 수이 | 나계 | 흥쇼셔. 여긔 떠나실 吉日은 郡 |
| (0131a3) | 正官 氣色이 건디염즉-흥면 | 나고져 | 너기오되 東萊 드르셔도 양병 |
| (0605b3) | 듯줍고 즈못 거룩-흥 술을 흥고 | 나그내 | 시름을 퍼니 ㅁ장 아름다이 너 |
| (0115b1) | 히 너기옵소. 正官은 뉘시온고? | 나는 | 都船 이는 二 船 더는 封進이옵 |
| (0103a2) | 나 오르옵소. 아직 편히 안줍소. | 나는 | 소임으로 왔습거니와 처음이옵 |
| (0310b1) | 나시니 술을 남기시를 아란마는 | 나는 | 下口 언마는 客人을 위-흥야 |
| (0917b5) | 그리 니르시니 감격-흥영이다. | 나도 | 日本말을 사름-마다 니기기 쉬 |
| (0919b6) | 이리 괴롱-흥시논고? 진실로 | 나도 | 日本말을 너겨 시작-흥여 이제 |
| (0124a2) | 흥옵니. 그러커든 몬져 가옵소. | 나도 | 미쳐 그리 가오리. 자넌 보시 |
| (0215b3) | 明日이라도 홀 양으로 흥옵소. | 나도 | 代官의 사름을 보내거니와 자 |
| (0525a6) | 道理 一一 맛당-흥 일이옵도쇠. | 나도 | 日本 풍속을 아오니 이대-도록 |
| (0123b1) | 과 가오니 다시 보옵새. 正官씩 | 나도 | 사름을 보내올 거시니 자넌도 |
| (0128a4) | 글 썼도 잘 못 먹고 누엇스오니 | 나디 | 몬 홀가 너기오니 우리 쏘 나올 |

| | | | | |
|----------|--------------------|------|--|---------------------|
| (0129a4) | 三官의 병이라 니르시니 正官이 | 나디 | | 아니면 우리의 그르든 발명 못 |
| (0404b6) | 못즈오니 아롭다와 흥느이다. | 나라 | | 일을 힘 쓰기논 대되 同前이오 |
| (0527a5) | 오나오면 그 作法은 모로고 내 | 나라 | | 핀잔은 아니온가? 우리도 小小 |
| (0826b1) | 마즘 天氣 도하 진실로 遠路에 | 나라 | | 일을 못고 三使을 청-흥야 하디 |
| (0323b4) | 묵는 스이만 주실 써시오니 이 | 나라 | | 흔 폐나 더올가 생각-흥느이다 |
| (0315a3) | 롬답스오리. 長老와 島主는 이 | 나라 | | 臣下 되엿스오니 므릇 일을 |
| (0404a5) | 잘 드라 건넬 양으로 닐릿습닉. | 나라 | | 일이란디 마디 못 흥여 보채엿 |
| (0324a1) | 나 더올가 생각-흥느이다. 우리 | 나라는 | | 禮 돈돈 흥여 흥 번 덩-흥 후 |
| (0425b4) | 리. 오로 어려오믈 걸터 니르니 | 나라토 | | 부디티 몬 홀 일은 公木을 端端 |
| (0831b4) | 니르-도록 아롭다온 御禮 몸애 | 나마 | | 心底 대로는 퍼디 못 홀송이다. |
| (0920a2) | 겨 시작-흥여 이제 불셔 十年 | 나마 | | 되야시되 진실로 이만 흥면 홀 |
| (0830a4) | 타 뵙워 信使 비에 묻져 저어 | 나마 | | 信使의로써 웨여 니르든 아므리 |
| (0622a4) | 신 대로 스설-흥여도 一人도 | 나므니 | | 업시 請코져 흥여 니르오니 그 |
| (0410b6) | 불 公木이 十 端 남죽이 드렸고 | 나므니는 | | 一端도 자불 公木이 업스외. 오 |
| (0411b2) | 남이야. 五十 束 드린 公木을 다 | 나므라고 | | 엇디 흥려 아르시논고? 흥몰며 |
| (0916a2) | 일-도곤 감격-흥여 御禮 몸애 | 나믄 | | 일이옵쇼셔. 이 우희는 붓그림 |
| (0801b2) | 내야 슬오믈 信使의로써 격기에 | 나믄 | | 雜物 두실 적의 가지 가지 스양 |
| (0510a2) | 事 왓습닉. 구-흥시는 대로 | 나믄 | | 되 업시 불기도 왓스오니 깃브 |
| (0515b2) | 船 三 船-식지는 三 人-식 그 | 나믄 | | 빅예는 二 人-식 틈을 써시니 |
| (0826b4) | 흥야 하디-흥는 양 아롭다오미 | 나믄 | | 되 업스되 그러커니와 오늘에 |
| (0819b2) | 그러 예-식지 無事히 온 우희는 | 나믄 | | 일도 업서 이 二三日 內에 出船 |
| (0803b4) | 로 포-홀 일도 업서 마즘 雜物 | 나믄 | | 거시 이시니 출하리 이나 정으 |
| (0711b2) | 여이다. 回答 니르고 그저 니러 | 나미 | | 마장 섭섭홀 뜻 흥오니 헛튼 안 |
| (0129b5) | 라도 茶禮는 卒度之 間이오니 | 나셔 | | 과연 견디디 못 흥거든 묻져 니 |
| (0219a3) | 디 날도 저믈 써시니 수이 출혀 | 나쇼셔 | | . 덕분의 看品을 無事히 흥오니 |
| (0618b1) | 흥엿논디 비 우호로써 바르디 | 나시다 | | 흥면 江戶에 들려도 우리 그른 |
| (0127a5) | 日 흥오니 미리 출혀 겨시다가 | 나실 | | 양으로 흥쇼셔. 아옵게 그리 흥 |
| (0133a6) | 아마리커나 밤의도 養性흥여 | 나실 | | 양으로 흥여 보옵소. 그리 흥오 |
| (0215b5) | 사름을 보내거니와 자넌-네도 | 나실 | | 제 니르고 가옵소. 代官들은 아 |
| (0831a5) | 말리는 故로 太守 빅를 저어 | 나아 | | 서르 장방 우희셔 손을 드러 이 |
| (0416a4) | 드린 公木을 半分도 아니 잡고 | 나여 | | 가라 흥논고? 흥갓 내희만 싱크 |
| (0609b1) | 업스와 상을 서디 아니코 니러 | 나오니 | | 무디히 너기디 마르쇼셔. 이도 |
| (0219b2) | 도 깃비 너기습닉. 우리는 이제 | 나올 | | 써시니 게 일을 수이 출히옵소. |
| (0128a5) | 나디 몬 홀가 녀기오니 우리 쉰 | 나올쇠 | | . 그러면 엇디 부디 닐일 흥실 |
| (0105b2) | 나 드려 가서 萬事를 주선-흥야 | 나의 | | 싱소를 나타나디 아닐 양으로 |
| (0207a2) | 만 흥야 마르쇼셔. 그러커니와 | 나의 | | 스스스 정윳 잔이오니 이 一杯 |
| (0816a4) | 일 와 問安호미 本意옵건마는 | 나의 | | 굿브를 헤아리매 아므 되도 흥 |
| (0215a3) | 進 看品홀 써시니 그리 아르셔 | 나옵소 | | . 우리는 연고 업스오니 明日이 |
| (0120b5) | 올 거시니 종용히 쉬옵소. 닐일 | 나죄란 | | 入館흥여 보옵새이다. 그리 흥 |
| (0105b2) | 萬事를 주선-흥야 나의 싱소를 | 나타나디 | | 아닐 양으로 미덧습닉. 진실로 |
| (0202b3) | 섭섭흥외. 御意 맛당-흥여이다. | 나토 | | 늑고 본디 병 인는 사름이옵디 |
| (0916b6) | 시물 一入 미덧습닉이다. 자네 | 나토 | | 저므셔 뵈고 말겐도 도쑈오니 |
| (0312b3) | 시고 마장 기리시고 쏘 島主도 | 나흔 | | 저므셔도 萬事 長老의 떠디 |
| (0202a3) | 보올가 녀겐습더니 병 드러 몬 | 난다 | | 흥니 마장 섭섭흥외. 御意 맛당 |
| (0707a5) | 날외닉이다. 자네 스설-흥는 배 | 난난치 | | 筑前殿의 그지 업스신 道理로 |
| (0704a3) | 두 참이-도록 多人 中의 격기 | 난분 | | 되 업고 이 밧기는 바다도 비도 |
| (0424b5) | 예 스나히는 지고 겨집은 이고 | 날 | | -마다 드리는 公木들도 마쇼계 |
| (0916a4) | 쇠. 이 우희는 붓그림을 저티고 | 날 | | -마다 와서 우음 바탕으로도 |
| (0915a5) | 와 붓그림으란 모로논 테-흥고 | 날 | | -마다 여긔 와서 말습이나 흥 |
| (0511b6) | 나셔 釜山浦의는 아므 둘 아므 | 날 | | 브트셔 묵기는 二十四五 日만 |
| (0511b4) | 스옵논고? 서울은 아므 둘 아므 | 날 | | 써나셔 釜山浦의는 아므 둘 아 |
| (0503a2) | 로논 드렛거니와 어닉 둘 어닉 | 날 | | 서울을 떠나셔 어닉 띄 出船 吉 |
| (0719a6) | 을 來日이라도 출홀 디 보시는 | 날 | | 힘의 도쑈올 디 자네 그 쑈을 |
| (0720b1) | 오니 御進物도 城에 오르시는 | 날 | | 알피 가져 버려 쉰 후에 信使 |
| (0217a2) | 의 걸리습닉. 싱심이나 茶禮스 | 날 | | 종용히 뵈옵고 니즌 스이 업시 |
| (0219a1) | 옵셔뇨? 看品 後 연향-흥실디 | 날도 | | 저믈 써시니 수이 출혀 나쇼셔. |
| (0326b4) | -흥느이다. 니르시디시 오늘은 | 날도 | | 도코 서르 종용-흥여 우리도 |
| (0826a2) | 불려 들이디 아니 흥신고? 그 | 날란 | | 니르시매 밧디 아냐 다 더브러 |
| (0813b1) | 미 御禮의 너머습논디 쏘 닐일 | 날세 | | 구름 가기도 도타 니르오니 아 |
| (0612b4) | 히 마음아디 못 흥을 써시니 그 | 날은 | | 天氣에도 붓디 아녀 出船흥실 |

| | | | | |
|----------|---------|------------------|-------|-----------------------|
| (0201a4) | 語 第二 東萊 | 니르심은 건너신 | 날은 | 마즘 사오나온 브람의 다 無事 |
| (0423b2) | 시외, 서르 | 니르거니 되답거니 | 날을 | 저르를 뿐으로논 公儀는 되디 |
| (0920a6) | 업서 常常 | 이를 뉘오출 만하느 | 날을 | 자네 니르시는 바는 日本말을 |
| (0614b1) | 다, 아직 | 출형의 이리터시 도하 | 날을 | 만나시니 이 앓흔 萬事 ㅁ음 |
| (0214b6) | 넉일이나 | 모되나 연고 업스신 | 날의 | 封進 看品홀 써시니 그리 아려 |
| (0213a2) | 미 그르든 | 아니 하거니와 더론 | 날의 | 東萊 釜山浦에 가 둔너 와서 代 |
| (0218b2) | 無事히 | 하오니 아롬답스외, 춘 | 날의 | 오래 안자 게서 언머 슈고-하 |
| (0112b2) | 슈고로이 | 건너시도쇠, 올스외, | 날이 | 노파서 브틀 거슬 브름의 이치 |
| (0311a4) | ㄴ터 다 | 자옵소, 싱심이나 어이 | 남기고 | 머그리잇가? 늦출 보쇼셔, 머 |
| (0305b2) | 양도 업서 | 이다, 예서 보매 잔을 | 남기는가 | 시버 뵈니 이 잔으란 브되 다 |
| (0305b6) | ㅁ 잔으란 | 브되 다 자옵소, 엇디 | 남기령잇가 | ? 분되 먹디 못 하옵것마는 다 |
| (0310a5) | 가는 서르 | 멀리 안자시니 술을 | 남기시를 | 아란마는 나는 下口 ㅁ언마는 |
| (0410b4) | ㄴ도 一 束 | 에 자블 公木이 十 端 | 남죽이 | 드렸고 나쁘니는 一 端도 자블 |
| (0112a2) | 넉, 오늘 | 아춤 구름이 머하더니 | 낫 | 디나며 브터 비 뿌리고 브름이 |
| (0508b4) | 기는 ㄴ장 | 세춘 사름 둘홀 밤- | 낫 | 올라 갈 양으로 하라코 돈돈이 |
| (0107a5) | 와 자네 | 혼자 가셔도 인스당의 | 낫븐 | 되 업스니 送使의 對面하면 奇 |
| (0101a4) | ㅁ가히 | 이러 오라, 네 代官의 가 | 내 | 말로 “그적과 여긔 느려 와 어 |
| (0914a1) | ㅁ시 되얏 | 스오니 아쁘려나 모다 | 내 | 樣子를 思分하셔 萬事를 두로 |
| (0430a3) | ㅁ츠마 | 니르시니 그지 업스매 | 내 | 친히 番을 홀 디라도 밤-새물 |
| (0120a5) | 하 마다 | 니르시니 아직 앓줍새, | 내 | 이제 釜山浦의 술와 注進하코 |
| (0106a1) | 은 처음 | 으로 극진-하시를 미더 | 내 | 싱각-하 일을 점치디 아니코 |
| (0601b5) | 이제 쯔 | 三使 ㅁ 멀리 渡海하셔 | 내 | -게 請하여 對坐하느 일 곱곰 |
| (0527a5) | 사오나 | 오면 그 作法은 모로고 | 내 | 나라 편잔은 아니온가? 우리도 |
| (0604b5) | ㄴ願의 | 일이오니 終日 노력시고 | 내 | 집 지은 것도 두로 보시고 느죽 |
| (0130a2) | 못 하거 | 든 묻져 니르실 디라도 | 내 | 迷惑을 프르시과다, 니르시는 |
| (0916b2) | 싱각-하 | 울 써시니 자네-네도 | 내 | 망발-홀 디라도 샤-하시를 一 |
| (0912a5) | 미 고디 | 듯디 마옵소, 이전의도 | 내 | 여긔 와서 자네-네 指南을 어 </td |
| (0317b1) | 으로 | 왓스오니 그러흔 디 술도 | 내 | ㅁ음을 바다 그러하가 너기느 |
| (0807b2) | 하시미 | 도홀가도 너기옵넉, 쯔 | 내 | 힘으로 더 使를 自由히 ㅁ음아 |
| (0119a4) | 드시 잘 | 通하셔니 아롬답스외, | 내 | 말을 기리시니 깃브옵거니와 |
| (0125b5) | 스스로 | 이 어들 일은 아니오니 | 내 | 친히 東萊 가 극진이 술오려나 |
| (0524b5) | ㅁ속을 | 미리 아라시는 이리오니 | 내 | 술오매 기드르디 말고 잘 주션 |
| (0807a4) | 信使 | 스설의 디디 아니 하오니 | 내 | 싱각은 亭主하느 대로 하시미 |
| (0426a2) | ㅁ니르 | 시미 前後의 업슨 일이니 | 내 | 죄에 만나믄 관겨터 아니커니 |
| (0910b4) | 하면 후 | 의 드림죽디 아니 하니 | 내 | -게 맞디쇼셔, 다만 슬하여 |
| (0911b2) | 오니 | 그리 아옵소, 이리 슬웬이 | 내 | 편을 텅 ㅁ건마는 館中도 심심 |
| (0806a1) | 부러 | 사홀 쥘홀 홀릭 왓습넉 | 내 | 스설-홀 뿐으로논 아쁘리 하 |
| (0325b2) | 이다, | 글란 그리 하옵소, 木綿은 | 내 | 친히 보와 ㄴ장 吟味하여 드릴 |
| (0131b5) | ㅁ는 | 아니 하실 듯 하오리, 이는 | 내 | 스스로 읊는 말이어니와 자네- |
| (0116b4) | ㅁ옵소, | 그는 그러커니와 書契를 | 내 | 친히 보고 자네-네 姓名을 아 </td |
| (0619b4) | 망-하 | 오니 폐롭스오나 오르셔 | 내나 | 눔이나 민망-호믈 프러 주쇼셔 |
| (0909a2) | ㅁ란 | 자네 홀 대로 하쇼셔, 비록 | 내나 | 눔이나 연고 이실 씨라도 振舞 |
| (0710b6) | ㅁ 그 | 거조는 엇디 홀고? 잔이나 | 내는 | 일이나 이셔야 도홀 디 자네 |
| (0830a1) | ㅁ主 | 블셔 보내믈 위-하야 비를 | 내다 | 하옵넉, 비를 타 띄워 信使 |
| (0418b3) | 束을 一 束 | 에 十 端-式 곱히여 | 내면 | 十 束을 자블 써시니 判事네 |
| (0116a2) | 스 | 몰라 아터 누어습넉, 書契를 | 내셔든 | 보옵새, 그리 하오려니와 집피 |
| (0411a4) | ㅁ도 | 잘 잡디 못 홀 거시니 수이 | 내여 | 가옵소, 여와 여와 어히 업시 |
| (0415a3) | ㅁ월 | 까? 그를 마다 ㅁ트 너기시면 | 내여 | 가 ㄴ라 드리실까? 早速 못디 |
| (0510b1) | 大慶 | 의 일이옵도쇠, 今日 비를 | 내울 | 써시니 그 返書를 수이 가지 |
| (0516b5) | 使의 | 셔도 최촉-하셔 이제 비를 | 내옵넉 | 對馬島主의로셔 술오믄 도하 |
| (0117b4) | 의 | 히도 도터 아니 하오니 브되 | 내옵소 | 그리 하옵새, 밤이 드러시니 |
| (0505b4) | 셀 | 양으로 하옵새, 수이 書契를 | 내옵소 | 어제는 東萊로셔 밤 들게야 |
| (0117a2) | 예 | 술와 注進홀 거시니 書契를 | 내옵소 | 우리 일홈은 아피옵도쇠, 그 |
| (0416a5) | ㅁ | 잡고 나여 가라 하느고? 하 | 내히만 | 싱각-하코 일을 그리 하느가? |
| (0420a3) | 고? 네 | 브터 束을 풀고 곱히여 | 넬 | 일이 업스디 ㅁ뭇 앓가 습디 |
| (0712b4) | ㅁ외, | 그러면 冠帶도 하옵새, 술 | 넬 | 일도 소임의-게 ㅁ 스정을 |
| (0516a6) | ㅁ도 | 도히 부러시니 수이 비를 | 넬 | 양으로 하옵소, 여긔 船頭도 |
| (0614b6) | 願하 | 넉이다, 接待에 ㅁ기-하느 | 냥반 | -들히 망샤를 부러 출혀 오르 |
| (0313b3) | ㅁ의 | 셔 아쁘란 雜說이나 이실가 | 너겨 | 聞습을 위-하여 히-마다 올라 |
| (0530a1) | ㅁ란 | 마르쇼셔, 미리 이러-홀가 | 너겨 | 그대-도록 슬왓더니마는 이 |

| | | | |
|----------|--------------------|---------|-------------------|
| (0828b5) | 시름도 퍼매 더욱 써 아름다이 | 너겨 | 술-들도 불셔 취-하야스오니 |
| (0205a4) | 오면 뵈옵디 묻 호믈 마장 설이 | 너겨 | 病이 더 重홀까 너기옵녕이다. |
| (0827b2) | 하-들도 어미 듯고 거르기 귀히 | 너겨 | 깃썰라 하오니 일로써 兩國 安 |
| (0505a1) | 마로고 맛조이면 너모 일오신가 | 너겟더니 | 니르시는 말을 드르니 수이 아 |
| (0825a1) | 振舞홀 바는 되-도록 스양코져 | 너겟드니마는 | 자네도 멀리 슈고-하야 겨시니 |
| (0421a4) | 만다 하면 誠信의 회이침으로 | 너기거니와 | 우리 생각-홈은 五十 束을 束으 |
| (0602a3) | 타 아니케 잇기 어려운 일인가 | 너기건마는 | 三使는 엇디 너기실 디 아직 아 |
| (0518a2) | 것이다. 예-사지 使者ㅣ 감격키 | 너기놓이다 | 우리는 마즘 順風의 無事히 |
| (0913a3) | 린 仕合 북쓰러오미 海山 마티 | 너기놓이다 | 모다 언머 서의-흔 거시라 흥 |
| (0522b2) | 롭다 아닌 일을 폐로울 양으로 | 너기니 | 이러모로 미리 자넌-네-썩 쇠 |
| (0319b2) | 고 첫스온 말슴을 만히 하온가 | 너기느이다 | 이도 술이 솟는 일이오니 그리 |
| (0317b3) | 술도 내 맛음을 바다 그러흔가 | 너기느이다 | 御意 감격-하여이다. 우리-들 |
| (0319a4) | 방의 도라 가기도 잘 못 홀가 | 너기느이다 | 이러트시 술을 너모 먹습고 |
| (0325a5) | 시면 묻져 가는 비예 보내올까 | 너기느이다 | 글란 그리 하옵소. 木綿은 내 |
| (0811b1) | 이실 식야 이대-도록 니르는가 | 너기녕이다 | 우리 가서 식환이 구경-하고 |
| (0605b4) | 내 시름을 퍼니 마장 아름다이 | 너기녕이다 | 하마 도라 가상이다. 희운 것 |
| (0722a3) | 늦치 비-홀 뒤 업시 아름다이 | 너기녕이다 | 三奉行이 어제 御禮라 하야 |
| (0609b2) | 타 아니코 니러 나오니 무디히 | 너기디 | 마르쇼셔. 이도 술의 타시로송 |
| (0314b1) | 시니 아프 일에 브터도 심상히 | 너기디 | 말고 千 年이나 가-도록 오래 |
| (0319b5) | 도 술이 솟는 일이오니 그리곰 | 너기디 | 마르쇼셔. 쇼인 섬으로써 올 적 |
| (0107b2) | 스니 送使의 對面하면 奇特이 | 너기든 | 아는 앓피니 우리의 뜻으로 보 |
| (0713b4) | 事히 오신 기별을 거르기 깃비 | 너기샤 | 우리 二人을 예-사지 問安하 |
| (0404b3) | 못 하여 보채엿습더니 맛당이 | 너기셔 | 도히 못즈오니 아름다와 하느 |
| (0428b3) | 인는 거슬 오늘 못디 아닌는가 | 너기시거니와 | 이 樣子도 送使의 支세히 니르 |
| (0415b6) | 도 아라시건마는 중시 올히만 | 너기시는 | 일은 어딿셔 五十 束 드린 公木 |
| (0216b6) | 못 하니 일당 정 업슨 양으로 | 너기시는가 | 맛음의 걸리옵디. 심심이나 茶 |
| (0426b1) | 二年은 아니오 엇디 부디-홀가 | 너기시는고 | ? 그저 해아리실 앓피오니 잘 |
| (0418b6) | 을 자בל 써시니 判事네 엇더케 | 너기시는고 | ? 代官들흔 자넌-네 하 다스리 |
| (0526a6) | 가지 가지 주선-하여도 맛당히 | 너기시디 | 아니실가 근심-하옵느이다. 아 |
| (0415a1) | 端端이 곱힐까? 그를 마다 곱 | 너기시면 | 내여 가 마라 드리실까? 早速 |
| (0511a1) | 괴 수이 오니 大守도 일당 깃비 | 너기시올쇠 | 불기에도 이시려니와 아직 수 |
| (0806b5) | 길을 일당 힘 아니 쓰는 양으로 | 너기실 | 듯 하거니와 奉行들의 술설도 |
| (0905b6) | 습디. 형혀 이리 술오믈 석새와 | 너기실 | 되도 겨실까 마장 첫습거니와 |
| (0602a4) | 일인가 너기건마는 三使는 엇디 | 너기실 | 디 아직 아직 아릅답스와 하닝 |
| (0103a6) | 침소-흔 거시오니各有各 | 너기실가 | 氣遣하오니 萬事의 두로 쓰리 |
| (0822b5) | -마지 극진-홈이 헤일 되올가 | 너기오니 | 아프리카나 出船 日란 亭主의- |
| (0406a6) | 善惡의 브터 判事네과 싸홀가 | 너기오니 | 마장 잘 출히옵소. 요스이 빅 |
| (0911a6) | 귀-흔 禮物를 마춤이 웃듬으로 | 너기오니 | 그리 아옵소. 이리 술움이 내 |
| (0207b4) | 다. 이 蠶을 보쇼셔. 하 첫소이 | 너기으와 | 다 먹습느이다. 전의는 격기엿 |
| (0610b2) | 日 겨셔 도로켜 서의-하온가는 | 너기옵거니와 | 祝願의 일이라 생각-하옵더니 |
| (0217b4) | 이 도화따 하니 오늘은 보올가 | 너기옵디 | 약도 먹고 뽕도 하여 이제는 |
| (0408b4) | 船으란 미쳐 보내여도 도홀가 | 너기옵디 | 보낼 짐을 출혀 보와 다시 기 |
| (0422b6) | 는 양으로 하시면 못기 쉬올까 | 너기옵디 | 니르-도록 니르-도록 뒤호로 |
| (0322b3) | 返書ㅣ 올 거시니 自然 더될까 | 너기옵디 | 그러커니와 催促하오리. 封進 |
| (0807a5) | 主하는 대로 하시미 도홀가도 | 너기옵디 | 또 내 힘으로 더 使를 自由히 |
| (0219b1) | 을 無事히 하오니 우리도 깃비 | 너기옵디 | 우리는 이제 나을 써시니 게 |
| (0403a1) | 흔디 그 홀 시를 마장 未審히 | 너기옵디 | 어와 오늘은 右之 道理를 正 |
| (0918b4) | 권 드러 아든 묻 하여도 神妙히 | 너기옵디 | 이리 부러-호믈 비-홀 뒤 업 |
| (0302a6) | 디 묻 하오와 本意를 背하도다 | 너기옵디이다 | 전 브터 드르니 병 드르시다 |
| (0302a1) | 썩술 이리 御意하시니 감격히 | 너기옵디이다 | 이전의도 뵈올 썩술 병 드오 |
| (0205a6) | 마장 설이 너겨 病이 더 重홀까 | 너기옵녕이다 | 封進宴을 수이 하올 써시니 |
| (0308a5) | 하실 작시면 일당 禮를 背홀가 | 너기옵더니 | 안즈라 니르시니 술을 양이 업 |
| (0204b2) | 고 언제 건너 가 말슴-하올고 | 너기옵더니 | 도흔 일은 多魔라 니르미 진실 |
| (0608a4) | 봄도 계실가 너겨 도라 가고져 | 너기옵더니마는 | 하 극진-하시매 멈쳐 또 귀-흔 |
| (0326b2) | 렇 이렇 솟스오니 언머 지리히 | 너기옵시는고 | 생각-하느이다. 니르시드시 |
| (0309b1) | 못 하와 슬왓습써니 自由히 | 너기옵신가 | 민망-하여이다. 안자셔 禮 |
| (0822b2) | 나 인는 양으로 家中 건-들도 | 너길 | 작시면 옛-마지 극진-홈이 |
| (0706b4) | 름이라도 하고 장쉬 面目 업시 | 너길 | 꺼시니 아프려나 바드시과다 |
| (0113a5) | 들 듯보와 보옵소. 그 빅 슈중을 | 너머셔 | 떠디온가? 거의 다 와서 惡風 |
| (0813a5) | 브트시니 아름다오미 御禮의 | 너머습는디 | 또 너일 날세 구름 가기도 |

| | | | |
|----------|--------------------|------|--------------------|
| (0722b5) | 말슴-호오매 아릅다오미 禮예 | 너머이다 | . 捷解新語 第七 終 捷解新語 終 |
| (0907b5) | 로 떠덧습더니 또 친히 와 겨셔 | 너모 | 慇懃호신 御禮 도로켜 못그려온 |
| (0505a1) | 면 이런 줄은 모로고 맛조이면 | 너모 | 일오신가 너것더니 니르시는 말 |
| (0529b4) | 장만-호이오려니와 그 모단은 | 너모 | 굿디 아닌 일이오니 글란 마르 |
| (0319a5) | 가 너기느이다. 이러트시 술을 | 너모 | 먹습고 젓스온 말슴을 만히 호 |
| (0703b4) | 더견 慇懃히 호신 양이 御禮예 | 너믄 | 양이로소이다. 이를 밋디 아님 |
| (0910b3) | 兩 國境의 소임을 호는 사름이 | 너비 | 그음아디 못 호면 후의 드림즉 |
| (0312a1) | 오리이다. 長老는 樣體 사름의 | 넘고 | 술도 잘 홀 쏘 아니라 글 잘 |
| (0101a4) | 新語 第一 아쁘가히 이러 오라. | 네 | 代官의 가 내 말로 “그적과 여 |
| (0109b3) | 油斷홀 일은 업스오리. 代官 | 네 | -의 書簡을 써 니름은 앓가 遠 |
| (0325b6) | 장 吟味호여 드릴 거시니 代官 | 네 | -의 하 굴히디 말라 니르옵소. |
| (0328b3) | 鑑 看品 홀 써시니 몬져 代官 | 네 | -의 출히라 닐러 두옵소. 그러 |
| (0420b6) | 임의 죄는 관계티 아니나 代官 | 네 | 이러트시 그음 대로 혼다 만다 |
| (0804a6) | 거려온 差別을 잘 아르셔 奉行 | 네 | -의 극진히 닐러 도로 보내시들 |
| (0521a4) | 가 중용커든 보옵새이다. 判事 | 네 | -의 마디 못 홀 미드려 호는 일 |
| (0721a1) | 시프다 호니 그리 홀을 判事 | 네 | -의도 니르녕이다. 그러면 이러 |
| (0418b6) | 내면 十束을 자블 써시니 判事 | 네 | 엇더케 너기시는고? 代官들혼 |
| (0209b1) | 마는 前規에 잇는 일이니 判事 | 네 | 잘 드르시소. 과즐도 늦게 괴왔 |
| (0327a6) | 東萊 釜山浦로셔 正官과 都船 | 네 | 樣體 심상티 아냐 奇特호 相 |
| (0917a3) | 키 뵈고 말견도 도쑈오니 자네- | 네 | 마트신 분 五六人만 계시과다 |
| (0904b4) | 싱각거니와 朝鮮 料理면 자네- | 네 | 뜻에 드디 아닐까 의심-호거니 |
| (0912b1) | 이전의도 내 여긔 와셔 자네- | 네 | 指南을 어더 저기 말도 호더니 |
| (0105a5) | 키길 디 그음의 걸리오니 자네- | 네 | 送使의 드려 가서 萬事를 주선 |
| (0918b1) | 뒤호로 뜨는 듯 호여 자네- | 네 | 日本말 호시를 드르면 드러 아 |
| (0522b5) | 키 너기니 이러모로 미리 자넌- | 네 | -의 쇠아기를 조지니 그리 아 |
| (0414a6) | 바 아프려도 不審호외. 자넌- | 네 | 걸터 니르심과 우리 싱각과 그 |
| (0414a2) | 一束도 마트니 업스물 자넌- | 네 | 눈에도 보실티 어히 업다 마다 |
| (0526b6) | 극진히 엇즈와 보오리. 자넌- | 네 | 디답이 불셔 겁-호는 양이로지 |
| (0420a1) | 일은 다 슈지 사쁘시고 자넌- | 네 | 맛당-홀 쏘 몬져 호시는고? 네 |
| (0104b5) | 보티시물 미더습니. 아직 자넌- | 네 | 얇흔 극진이 니르시니 뜻을 퍼 |
| (0503b2) | 이에 막켜 건네여 겨시니 자넌- | 네 | 이 뜻을 東萊의 엇즈와 무무 註 |
| (0419a2) | 너기시는고? 代官들혼 자넌- | 네 | 하 다스리시고 또 우리-게도 보 |
| (0419b2) | 이는 다른 묘리도 업스니 자넌- | 네 | 호실 대로 호옵소. 엇디 호야 |
| (0506a5) | 고로이 건너 오시도쇼. 자넌- | 네 | 口上 道理 次서히 註進호여시 |
| (0408b1) | 隻-도록 엇더-호올고? 자넌- | 네 | 借船으란 미쳐 보내여도 도홀 |
| (0324a6) | 아니 호니 五日 雜物은 자넌- | 네 | 十日 二十日 무거 도라 가서 |
| (0116b5) | 와 書契를 내 친히 보고 자넌- | 네 | 姓名을 아라 釜山浦에 술와 注 |
| (0615b5) | 을 밋줍녕이다. 격기-호는 분- | 네 | -게로셔도 극진-호 일이옵도 |
| (0617a2) | 자네 잘 아르셔 接待호는 분- | 네 | -의 禮를 술와 주쇼셔. 니르시 |
| (0617b5) | 양-호여도 이 격기-호는 분- | 네 | 니르기는 江戶로셔 信使 겨실 |
| (0323a4) | 公木은 束數 잇스오니 쇼인- | 네 | 수이 도라 가오면 五日 雜物은 |
| (0406a4) | 근심은 公木 善惡의 브터 判事 | 네과 | 싸홀가 너기오니 그장 잘 출히 |
| (0326a2) | 히디 말라 니르옵소. 그는 判事 | 네과 | 代官들히 열현이 아니 호오리. |
| (0428b1) | 이시면 니일란 못즈오리. 判事 | 네는 | 代官의 손에 인는 거슬 오늘 못 |
| (0524b2) | 르시게 잘 주선-호시소. 자넌- | 네는 | 日本 풍속을 미리 아르시는 이 |
| (0206b2) | 오니 또 혼 차례 호옵새. 쇼인- | 네는 | 본디 못 먹습건마는 감격-호오 |
| (0324b5) | 엇디 열현이 출히올가? 쇼인- | 네는 | 출혀 주시는 양으로 가오려니와 |
| (0829a6) | 빅예 트노라 호야 辰時예 判使 | 네늘 | 對馬島主게 보내야 이제야 빅 |
| (0415b4) | 결의 樣子를 스설-호여도 代官 | 네도 | 아르시건마는 중시 올히만 너 |
| (0102b1) | 옵시도쇼. 안히 잇스오니 判事 | 네도 | 同道호야 오쇼셔. 代官들도 혼 |
| (0902b6) | 브터 우리 호을 써시니 자네- | 네도 | 그리 아옵소. 어제는 불의예 혼 |
| (0916b2) | 로도 싱각-호을 써시니 자네- | 네도 | 내 망발-홀 디라도 샤-호시물 |
| (0110a4) | 特送이 오는가 시브니 자네- | 네도 | 아옵소. 이 빅는 무슨 빈고? 當 |
| (0215b5) | 官의 사름을 보내거니와 자넌- | 네도 | 나실 제 니르고 가옵소. 代官들 |
| (0425b1) | 무쇼나 엇디 견디올고? 자넌- | 네도 | 아릅심도 겨시리. 오로 어려오 |
| (0402a6) | 대되 過怠에 밋는 바는 자넌- | 네도 | 아릅실 쏘 아니라 兩國 誠信으 |
| (0412a3) | 公木의 大切히 되야시믄 자넌- | 네도 | 아릅실 겨시리. 죽듯 各官으로 |
| (0311a1) | 만는 이도 또 먹스오니 자넌- | 네도 | 이제란 이 그티 다 자옵소. 싱 |
| (0717b2) | 대로 호시게 알외쇼셔. 자넌- | 네도 | 처음으로 보오완마는 兩國 誠 |
| (0132a1) | 스스로 읊는 말이어니와 자넌- | 네도 | 해아려 보시소. 客人이 와야 亭 |

| | | | |
|----------|--------------------|--------|--------------------|
| (0413a2) | 이러타 솟든 아니커니와 자넌 | 네도 | 時分과 公木 감시 상히로써 언 |
| (0317a2) | 는 상히 못 하고 오늘은 자넌 | 네로 | 하여 主人의 도리를 출혀 권-할 |
| (0210a4) | ! 이러-흔가? 우리를 모로논가 | 너겨 | 부러 이리 흥엿습는가? 우리도 |
| (0608a3) | 상히 아니시니 궂름도 게실가 | 너겨 | 도라 가고져 너기옵더니마는 |
| (0202a2) | 넋이다. 正官을 반가이 보올가 | 너겟습더니 | 병 드리 몬 난다 하니 마장 섭 |
| (0131a6) | 되 東萊 드르셔도 양병이라는 | 너기디 | 아니 흥실 거시니 자넌 그르다 |
| (0904a1) | 웃좁넌. 언머 모다 우은 거시라 | 너기셔나 | ? 이도 日本 놀래예 훌흔 일이 |
| (0106a4) | 코 이리 슬오니 언머 無調法이 | 너기시물 | 알컨마는 하 無斗方하여 솟는 |
| (0705b6) | 드르셔도 過分타 흥셔 感激히 | 너기시울쇠 | . 또 이거슨 불관-흔 거시언마 |
| (0133a2) | 釜山浦 오셔도 거르기 섭섭이 | 너기실 | 거시니 아쁘리커나 밤의도 養性 |
| (0128a4) | 먹고 누엿스오니 나디 몬 할가 | 너기오니 | 우리 썬 나울쇠. 그러면 엇디 |
| (0131a3) | 氣色이 건넌염죽-험면 나고져 | 너기오되 | 東萊 드르셔도 양병이라는 너기 |
| (0816b2) | 딛접-흥시미 도로켜 어럽소이 | 너기오와 | 廻引하오니 허물 마르시고 마 |
| (0827b6) | 兩國 安泰흔 陰德인가 감격이 | 너기옵닝이다 | . 어와 어와 慇懃흔 宴席이옵도 |
| (0115a3) | 키. 그리 흥울 거시니 막음 편히 | 너기옵소 | . 正官은 뒤시온고? 나는 都船 |
| (0105a2) | 키거니와 또 送使다히셔는 엇디 | 너길 | 디 막음의 걸리오니 자네-네 |
| (0518b3) | 馬島主 맛조이로 왓습넌. 마즘 | 넌 | -하여 도흔 天氣에 예-식지 건 |
| (0411b6) | 아르시논고? 흥믈며 近年 以來 | 넌 | -하여 木花 사오나와 公木의 |
| (0122a2) | 키 언머 슈고로이 건너시도다.” | 넌너 | -흥시고 問安하옵시테. 또 軍 |
| (0520a6) | 시논가 아직 問安 알외닝이다. | 넌너 | -흥신 使ㅣ옵도쇠. 인는 디도 |
| (0302b3) | 브터 드르니 병 드르시다 듯고 | 넌너 | -하옵더니 어딴을 알파 흥시던 |
| (0304a3) | 는 도티 아니 흥오니 이제라도 | 넌너 | -하느이다. 그 약은 마즘 다 쓰 |
| (0520b2) | 키-흥신 使ㅣ옵도쇠. 인는 디도 | 넌너 | -흥시모로 마장 조출-하야 |
| (0528b6) | 키즈오니 三使 니르시몬 극진히 | 넌너 | -흥심 滿足하여이다. 그러커니 |
| (0703a4) | 내소. 使를 불러 니르시는 바는 | 넌너 | -흥셔 예-식지 부리실 썬이 아 |
| (0420a2) | 네 맛당-홀 썬 묻져 흥시논고? | 네 | 브터 束을 풀고 굴히여 낸 일이 |
| (0313a6) | . 그리 니르옵느니이다. 時節이 | 네과 | 달라 上方의셔 아쁘란 雜說이 |
| (0918a3) | 니 아쁘리 하여도 어두온 디 길 | 네느니 | 궂-하여 니기-도록 뒤호로 |
| (0818b5) | 金子를 자네 피신 사롬의-게 | 네믈을 | 흥오니 모로미 스양 마옵소. 전 |
| (0416b2) | 싱각-하고 일을 그리 흥는가? | 넛 | 公木이라 닐러도 여긔셔 영종 |
| (0413b5) | 오로 그러홀 씨라도 이 公木은 | 넛 | 公木의 一 束도 마튼니 업스물 |
| (0827a3) | 양도 업스오니 오늘란 종용히 | 노르셔 | 祝願하셔과다. 더 귀-흔 풍류- |
| (0811a5) | 도 일덩 大君의셔 信使의 피고 | 노르실 | 양으로 敎令이 이실 식야 이대 |
| (0904b6) | 디 아닐까 의심-흥거니와 다만 | 노름 | 히로나 흥려 흥오니 넋일이 |
| (0912a1) | 바탕을 니르디 아니면 뜰어술 | 노름을 | 삼스울쇠? 모로미 모로미 고디 |
| (0604b3) | 오늘은 祝願의 일이오니 終日 | 노르시고 | 내 집 지은 것도 두로 보시고 |
| (0907a2) | 습 달란-흥시니 亭主의 깃뵈이 | 노외야 | 업서 亭主의 도리의 술을 디내 |
| (0112b2) | 로이 건너시도쇠. 울스와. 날이 | 노파셔 | 브틀 거슬 브름의 이치여 이제 |
| (0212b4) | 디 아니 흥시니 마장 밋야하여 | 노흠스와 | 흥옵넌. 니르시미 그르든 아니 |
| (0213b4) | 는 오라 더러셔는 아니 온다 다 | 노하여 | 흥시니 흥 몸으로셔는 논호디 |
| (0920b6) | 양으로 싱각-흥거니와 그러나 | 노하여도 | 몬 하고 거르기 우소온 일이옵 |
| (0905b1) | 디도 알외여 주옵소. 기둥의도 | 놀래 | 브르든 若衆들희 연고 업기를 |
| (0608b6) | 리로온 아희-들의 씨노는 양과 | 놀래 | 뽏은 모로거니와 풍류과 어우러 |
| (0906a3) | 다만 우리는 어리로온 얼굴과 | 놀래를 | 듯고 축슈만 위-홀 썬름이오니 |
| (0904a4) | 는 거시라 너기셔나? 이도 日本 | 놀래예 | 훌흔 일어로송이다. 우리로셔도 |
| (0203a3) | 은 디 밥도 일절 먹디 몬 하고 | 누어 | 잇스오니 민망-하여이다. 書契 |
| (0115b6) | 빅-떨피-하여 인스 몰라 아릭 | 누어습넌 | . 書契를 내셔든 보옵새. 그리 |
| (0128a2) | 병 드리 머글 씻도 잘 못 먹고 | 누엿스오니 | 나디 몬 할가 너기오니 우리 썬 |
| (0124a5) | 자넌 보시드시 방새 파락-하야 | 누추 | -하니 一夜를 계유 堪忍하엿스 |
| (0618b4) | 케 들러도 우리 그른 디 되기는 | 눈에 | 알피라 하여 가지 가지 니르오 |
| (0414a2) | 一 束도 마튼니 업스물 자넌-네 | 눈에도 | 보실디 어히 엽다 마다 니르시 |
| (0214a4) | 送使를 보셔도 차례로 보시면 | 누 | 雜言하올고? 우리는 一番 特 |
| (0501b3) | 御使 빅옵도쇠. 그러면 使者는 | 누 | 와 겨신고? 아직 빅예 텃옵소. |
| (0429b4) | 모로든 아니컨마는 민망-호믈 | 누 | -게 니르올고? 그리 흥오리. 넋 |
| (0115a4) | 니 막음 편히 너기옵소. 正官은 | 뒤시온고 | ? 나는 都船 이는 二 船 더는 |
| (0920a6) | 흔 일 조금도 업서 常常 이를 | 뒤오출 | 만흔는 날을 자네 니르시는 바 |
| (0903b5) | 무식히도 흥가-하여 밤-쌔긔 | 뒤웃좁넌 | . 언머 모다 우은 거시라 너기 |
| (0605a2) | 내 집 지은 것도 두로 보시고 | 느죽 | -하여 도라 가시게 브라닝이다 |
| (0515a6) | 十五 人을 差定하야 두어시니 | 느죽 | -하야 一 船 二 船 三 船-식지 |
| (0823b6) | 御案内 아뢰닝이다. 글로 하야 | 늘근 | 어미를 더브릿습더니 朝鮮 풍 |

| | | | |
|----------|--------------------|--------|--------------------|
| (0202b3) | 외. 御意 맛당-호여이다. 나토 | 늘고 | 본디 병 인는 사름이 읍더니 비 |
| (0919b6) | 시논고? 진실로 나도 日本말을 | 니겨 | 시작-호여 이제 불셔 十年나 |
| (0515a2) | 과다. 그러 하면 日本 船頭 마장 | 니근 | 사름 十五 人을 差定 호야 두어 |
| (0918a5) | 어두운 디 길 네느니 곳-호여 | 니기 | -도록 뒤호로 므느는 듯 호여 |
| (0918a1) | 이다. 나도 日本말을 사름-마다 | 니기기 | 쉬오니라 니르물 고디 들렀더니 |
| (0919a2) | 러-호물 비-홀 디 업스니 일텅 | 니기시는 | 비밀-홀 묘리도 이실 썸시니 |
| (0917b2) | 되. 아프려나 므음을 다-호여 | 니기읍소 | . 그리 니르시니 감격-호영이다 |
| (0711b2) | 창-호여이다. 回答 니르고 그저 | 니러 | 나미 마장 썸썸홀 썸 호오니 헛 |
| (0609b1) | 正體 업스와 상을 서디 아니코 | 니러 | 나오니 무디히 너기디 마르쇼 |
| (0903b3) | 니라 즈못 큰 술에 正體 업서 | 니러섬도 | 싱각 아니코 기리 안자시니 무 |
| (0423a2) | 호시면 못기 쉬올까 너기읍닉. | 니르 | -도록 니르-도록 뒤호로 가는 |
| (0423a3) | 쉬올까 너기읍닉. 니르-도록 | 니르 | -도록 뒤호로 가는 듯 홀 썸 가 |
| (0423a6) | 어히 업시 아라 계시와. 서르 | 니르거니 | 디답거니 날을 저므를 썸으로 |
| (0215b5) | 보내거니와 자닉-네도 나실 제 | 니르고 | 가읍소. 代官들은 아랏습거니와 |
| (0217a5) | 고 니즌 스이 업시 僉官들-씩 | 니르고 | 잇습닉이다. 드르니 正官이 도 |
| (0216a2) | .. 代官들은 아랏습거니와 다시 | 니르고 | 가오리. 釜山浦 니르시믄 요스 |
| (0514a5) | 도 來日은 日吉利 이실 듯 호다 | 니르니 | 그러면 出行의 아랏다운 일이라 |
| (0109b6) | 으로서 안 싸다히 日本 비 뵈다 | 니르니 | 일텅 二番 特送이 오는가 시브 |
| (0312b6) | 떠디디 아녀 奇特호 직간이라 | 니르니 | 우리도 듯고 마장 아랏다와 호 |
| (0425b3) | 도 겨시리. 오로 어려오믄 걸터 | 니르니 | 나라토 부디티 몬 홀 일은 公木 |
| (0428b6) | 니와 이 樣子도 送使의 즈세히 | 니르디 | 아니티 몬 홀 썸시모로 今夜란 |
| (0911b5) | 심호매 이러툃 호 우음 바탕을 | 니르디 | 아니면 므어술 노름을 삼스울스 |
| (0830a6) | 저 저어 나매 信使으로써 웨여 | 니르믄 | 아무리 멀리 보내여도 정은 홀 |
| (0918a1) | 을 사름-마다 니기기 쉬오니라 | 니르믄 | 고디 들렀더니 아프리 호여도 |
| (0619b1) | 差別도 읍디 아니 호는 양으로 | 니르미 | 민망-호오니 께릅스오나 오르 |
| (0805b1) | 셜-호읍끼는 信使으로써 거스려 | 니르셔도 | 다시곰 다시곰 아니 밋디 못 호 |
| (0417b5) | 좁을 군말 업시 잡읍소. 아프리 | 니르셔도 | 이 公木을 바다 아프려도 홀 테 |
| (0808a1) | 守 니르시는 바는 브디 밋과다 | 니르시거니와 | 문제 브터 읍던 道理를 잘 싱각 |
| (0603a3) | 호 가지읍도되. 우리의 슈고를 | 니르시거니와 | 이는 物에 비-호면 바늘 굿티 |
| (0120a2) | 닉. 술란 호마 마읍소. 하 마다 | 니르시니 | 아직 앓읍새. 내 이제 釜山浦의 |
| (0507b6) | 테. 어와 註進을 극진이 호시다 | 니르시니 | 安堵 호여 호읍닉. 며출만의나 |
| (0903a3) | 소. 어제는 불의에 호 振舞이라 | 니르시니 | 고디 들렀습더니 싱각 밋의 御 |
| (0430a1) | !? 그리 호오리. 닥일은 므츠마 | 니르시니 | 그지 업스매 내 친히 番을 홀 |
| (0118b4) | 及 호엿스오니 斟酌 마읍소. 하 | 니르시니 | 하나 먹스오리. 자닉 말이 對馬 |
| (0318a3) | 一切 못 호읍건마는 하 먹과다 | 니르시니 | 그러호온 디 마장 취-호오되 |
| (0902a6) | 인가 더욱 아랏다왕이다. 그리 | 니르시니 | 감격-호거니와 아프리커나 우 |
| (0917b4) | 므음을 다-호여 니기읍소. 그리 | 니르시니 | 감격-호영이다. 나도 日本말을 |
| (0902a2) | 말습-호노라 떠뎃습더니 이리 | 니르시니 | 우리 心中이 서르 던-호인가 |
| (0530a3) | 그대-도록 술왔더니마는 이리 | 니르시니 | 홀 일도 업기는 업거니와 그러 |
| (0812a3) | 도 도홀 듯 호건마는 다만 앓가 | 니르시는 | 양이면 자닉-게 밋디오리. 藍島 |
| (0414a4) | 눈에도 보실디 어히 업다 마다 | 니르시는 | 바 아프려도 不審호외. 자닉- |
| (0623a2) | 主 아래서 案内 솔오령이다. | 니르시는 | 양이 그러도 홀 듯 호면 路次의 |
| (0130a5) | 디라도 내 迷惑을 프르시과다. | 니르시는 | 배 그러호읍거니와 正官 昨晚 |
| (0920b1) | 이를 뉘오출 만호는 날을 자네 | 니르시는 | 바는 日本말을 비-홀 디 업스 |
| (0403b1) | 두셔 氣味 도케 직간-호읍소. | 니르시는 | 바 判事닉-으로써 가지 가지 |
| (0915a1) | 썸 말습-호시는 전척라 이리 | 니르시는 | 일이로다. 推量호거니와 붓그 |
| (0529a5) | 굿티 그리 몬 호엿죽-호건마는 | 니르시는 | 일이오니 옷 옷술 보디 슬터 아 |
| (0807b6) | 니 이러트시 엿줍농이다. 太守 | 니르시는 | 바는 브디 밋과다 니르시거니와 |
| (0528b1) | 이 될가 이러트시 구읍닉. 太守 | 니르시는 | 道理 前後 樣子를 극진히 三使 |
| (0525b2) | 늘 아오니 이대-도록 세치 아니 | 니르시다 | 엇디 열현히 호령잇가? 다만 朝 |
| (0804b5) | . 對馬島主 엿즈오른 信使으로써 | 니르시다 | 아닌 전의 奉行으로써 이 樣子를 |
| (0401a6) | 로 보읍고 아랏다와 호느이다. | 니르시드시 | 처음으로 御對面호오니 아랏다 |
| (0514a3) | 름을 기드려려 호신다 호읍닉. | 니르시드시 | 朝鮮 船頭들도 來日은 日吉利 |
| (0808b6) | 으로도 도로 보낼 일이 못 될다 | 니르시면 | 출하리 자네 바다셔 슈고-호던 |
| (0301a3) | 二 終 捷解新語 第三 東萊에서 | 니르시믄 | 御渡海호션 디 오래되 서르 보 |
| (0216a5) | 와 다시 니르고 가오리. 釜山浦 | 니르시믄 | 요스이 도히 계시던가? 엿디 호 |
| (0528b4) | 극진히 三使의 엿즈오니 三使 | 니르시믄 | 극진히 넘너-호심 滿足호여이 |
| (0208b2) | 스오니 깃거 호읍느이다. 그리 | 니르시믄 | 고디 아니 듯줍닉. 日本이면 이 |
| (0425b6) | 홀 일은 公木을 端端이 굴회자 | 니르시미 | 前後의 업슨 일이니 내 죄예 민 |
| (0213a1) | 장 먹야호여 노홉스와 호읍닉. | 니르시미 | 그르든 아니 호거니와 더룬 날 |

| | | | |
|----------|--------------------|----------|--------------------|
| (0222a2) | 쑤 中官 以下 올리디 말 일을 | 니르신 | 대로 스설-헝여도 一人도 나 |
| (0130a1) | 쑤 과연 건디디 못 헝거든 몬져 | 니르실 | 디라도 내 迷惑을 프르시과다. |
| (0617a6) | 道理 맛당은 헝옵거니와 그리 | 니르실 | 듯 헝 일을 알고 信使-쑤 읍디 |
| (0825a6) | 眞 아니튼 못 흘 양으로 전 브터 | 니르심으로 | 이러나 더러나 맛당-헝실 대로 |
| (0201a2) | 解新語 終 捷解新語 第二 東萊 | 니르심은 | 건너신 날은 마즘 사오나온 브 |
| (0602b2) | 아름답스와 헝닝이다. 극진히 | 니르심이로송이다 | 진실로 兩國 靜謐히 誠信을 |
| (0613b5) | 氣 道홀가 시브다 여기 사름도 | 니르오니 | 부루 出船헝옵새. 마즘 도흔 順 |
| (0618b5) | 논 눈에 알피라 헝여 가지 가지 | 니르오니 | 비록 오르시기 슈고롭스을 디르 |
| (0429b4) | 아니컨만는 민망-호믈 뉘-게 | 니르올고 | ? 그리 헝오리. 닉일은 믹츠마 |
| (0514b5) | 권 게셔도 日吉利 이실 듯 헝다 | 니르옵노쇠 | 아프려나 그러과다. 그러헝면 |
| (0313a4) | 울스와이다. 島中의셔도 그리 | 니르옵누니이다 | 時節이 네과 달라 上方의셔 |
| (0410a5) | 즈세 보시고 도홈 사오나옴을 | 니르옵소 | 예셔 잠깐 보와도 아올쇠. 그 |
| (0128b2) | 권 엇디 브디 닉일 헝실 양으로 | 니르옵시던고 | ? 正官의 氣相도 아디 몬 헝고 |
| (0109a5) | 시 釜山浦로셔 우리-게 古別을 | 니를 | 거시니 그는 油斷할 일은 업스 |
| (0109b4) | 글스오리. 代官네-쑤 書簡을 써 | 니름은 | 앗가 遠見으로서 안 싸다히 日 |
| (0316a2) | 을 島中 왕덕예 보고 사름-마다 | 니름을 | 듯고 朝廷도 王장 일커르시니 |
| (0831b3) | 을 드려 이 번 일은 니르-도록 | 니르 | -도록 아롭다운 御禮 몸애 나 |
| (0831b2) | 우회셔 손을 드려 이 번 일은 | 니르 | -도록 니르-도록 아롭다운 御 |
| (0101b6) | 오려 헝여 案内 술오시드라.” | 니르고 | 오라. 御念比헝 御使 1 읍도쇠. |
| (0711b2) | 니르시미 맛당-헝여이다. 回答 | 니르고 | 그저 니르 나미 王장 섭섭홀 쑤 |
| (0617b5) | 쑤-헝여도 이 격기-헝논 분-네 | 니르기논 | 江戶로셔 信使 겨실 디도 극진 |
| (0830b6) | 예셔 도라 가시미 도쑤왕이다. | 니르니 | 太守 술오른 출하리 半程이나 |
| (0512b3) | 닉일은 信使 빅 특실 吉日이라 | 니르니 | 일덩 그러헝온가? 天氣 樣子 |
| (0917a6) | 다 원-헝몬 兩國의 헝옴이라 | 니르논 | 이리읍도쇠. 아프려나 믹옴을 |
| (0811a6) | 교습이 이실 식야 이대-도록 | 니르논가 | 너기닝이다. 우리 가서 석환이 |
| (0721a1) | 나 헝니 그리 흠을 判事네-쑤도 | 니르닝이다 | 그러면 이러나 더러나 니르시 |
| (0106b3) | 샤-헝옵소. 이대-도록 거르기 | 니르디 | 아니셔도 차네 처엄 일이신 거 |
| (0204b4) | 너기옵더니 도흔 일은 多魔라 | 니르미 | 진실로이로소이다. 오늘은 이 |
| (0515b6) | 哩 信使쑤 엇좁고 小通事의-게 | 니르셔 | 거느려 가게 헝옵소. 오늘은 구 |
| (0121b2) | 나入헝셔 肝煎헝옵소. 쑤 아니 | 니르셔도 | 얼현이 아니 헝오리. 東萊로셔 |
| (0412b4) | 고 공스 오로 흘 제 안가-터로 | 니르시고 | 쉽디 못 호믈 어히 업서 더러타 |
| (0506b5) | 시니 그리 아옵소.” 헝시고 쑤 | 니르시기논 | “맛당히 수이 봄이 本意 1 언마 |
| (0508b1) | 니르옵소. 듯좁새. 어제 東萊 | 니르시기논 | 王장 세흔 사름 둘홀 밤-낫 올 |
| (0129a3) | -헝디 이제야셔 正官의 병이라 | 니르시니 | 正官이 나디 아니면 우리의 |
| (0821a5) | 이다. 쑤 二三日 內 出船이라 | 니르시니 | 그리 못 헝올 일은 헝-한 디 건 |
| (0308b1) | 를 背홀가 너기옵니 내 안즈라 | 니르시니 | 술올 양이 업서이다. 우리 이를 |
| (0814a4) | 헝논디 쑤 닉일 구름 가기 도타 | 니르시니 | 一定 그러면 더욱 더욱 아롭답 |
| (0909b1) | 논 若衆들의 연고를 웃듬으로 | 니르시니 | 이 一段 되기 어려운 所望이옴 |
| (0805a4) | 오라코 닐러 왔던디 몬져 이리 | 니르시니 | 쉽기도 어렵습쑤니와 奉行들의 |
| (0104b5) | 닉. 아직 자닉-네 앓흔 극진이 | 니르시니 | 뜻을 퍼거니와 쑤 送使다히셔 |
| (0721a4) | 닝이다. 그러면 이러나 더러나 | 니르시논 | 대로 헝옴새. 어제는 城에서 인 |
| (0703a2) | 1 使를 여기 보내소. 使를 불러 | 니르시논 | 바는 넘너-헝셔 예-쑤지 부리 |
| (0713a6) | 기 드옵소. 使 술오른 우흐로셔 | 니르시논 | 바는 海上 먼 길히 無事히 오신 |
| (0617a4) | 분-네-쑤 禮를 술와 주쇼셔. | 니르시논 | 道理 맛당은 헝옵거니와 그리 |
| (0720a5) | -헝니 덜고져 헝니 엇더-홀쑤? | 니르시논 | 바를 아춤의 奉行닉-쑤 議論헝 |
| (0525a4) | -헝야 쑤림 업게 지간-헝시소. | 니르시논 | 道理 一一 맛당-헝 일이읍도쇠 |
| (0212a3) | 겨시니 그도 굴 양으로 헝옵소. | 니르시논 | 대로 東萊의 엇즈와 催促헝여 |
| (0413b3) | 되게 분별-흠이 웃듬이읍도쇠. | 니르시논 | 배 오로 그러홀 쑤라도 이 公木 |
| (0803a4) | 닐러 보내눔이다. 對馬島主의 | 니르시논 | 바는 격기 奉行들 드리고 오래 |
| (0505a3) | 이면 너모 일오신가 너겟더니 | 니르시논 | 말을 드르니 수이 아니티 몬 흘 |
| (0502b4) | 上下 대되 無事헝고 對馬島主 | 니르시논 | 바는 信使 건너실 양으로논 드 |
| (0526b2) | 글-헝옵누이다. 아직 가서 太守 | 니르시논 | 道理 극진히 엇즈와 보오리. 자 |
| (0326b3) | 너기옵시논고 싱각-헝누이다. | 니르시디시 | 오늘은 날도 도쿄 서르 종용-헝 |
| (0519a3) | 다. 멀리 마즈심 滿足헝양이다. | 니르시디시 | 天氣도 머흐디 아냐 예-쑤지 |
| (0817b2) | 아닌 거시언마는 보내눔이다. | 니르시디시 | 上下 多人 中 無事히 예-쑤지 |
| (0813b5) | 아브 일-도곤 大慶이로송이다. | 니르시디시 | 無事히 예-쑤지 붓즈오니 對馬 |
| (0611b3) | 이 헝고져 헝니 엇더-헝온고? | 니르시디매 | 밋디 아녀 우리도 수이 헝고져 |
| (0826a2) | 들이다 아니 헝신고? 그 날란 | 니르시매 | 밋디 아냐 다 더러하 가오리. 도 |
| (0506a3) | 도라 와 보옵도 못 헝외. 東萊 | 니르시몬 | “슈고로이 건너 오시도쇠. 차 |
| (0426b6) | 니 잘 헤아려 믹츠시과다. 그리 | 니르시미 | 그르든 아니커니와 우리도 헝 |

| | | | | |
|----------|--------------------|--------|--|--------------------|
| (0711a6) | 도 묻저 술오려 흥연든디 이리 | 니르시미 | | 맛당-흥여이다. 回答 니르고 |
| (0719a1) | 깃티니 업시 모시게 흥라 흥야 | 니르시오니 | | 이런 줄을 숭녕이다. 그러면 進 |
| (0201b1) | ㅏ 無事히 渡海흥시니 아롭답다 | 니르시옵너 | | . 御意 감격-흥여이다. 우리는 |
| (0405b5) | ㅏ 아니튼니마는 이리나 더러나 | 니르신 | | 대로 흥야 無事히 못즈오니 아 |
| (0311b1) | 그리잇가? 늦출 보쇼셔. 머그라 | 니르신 | | 잔-마다 먹습고 正體 업습건마 |
| (0820a6) | ㄹ만 술왓습더니 色色 御慰勲히 | 니르신 | | 양 즈뭇 奉行씩로서 온 거슬 주 |
| (0414a6) | ㄹ려도 不審흥외. 자닉-네 걸터 | 니르심과 | | 우리 싱각과 그 어긋미 天地 ㄹ |
| (0411a6) | ㄹ 가옵소. 어와 어와 어히 업시 | 니르심이야 | | . 五十束 드린 公木을 다 나쁘 |
| (0813b1) | 또 닉일 날세 구름 가기도 도타 | 니르오니 | | 아므 일-도곤 大慶이로송이다. |
| (0810b6) | 으로 앓가 두 분-씩셔 권-흥야 | 니르오니 | | 이도 일덩 大君씩셔 信使씩 보. |
| (0615a3) | ㄹ 부러 출혀 오르시게 ㄹ-흥야 | 니르오니 | | 船 中에 ㄹ브심도 게실 썸시니 |
| (0622a5) | 人도 나쁘니 업시 請코져 흥여 | 니르오니 | | 그리 아라쇼셔. 이 앞회 바르 |
| (0205a2) | 러트시 ㄹ접-흥시를 가 正官씩 | 니르오면 | | 뵈옵디 묻 호를 ㄹ장 설이 너겨 |
| (0511b2) | 셔 여긋는 어닉 씩 브트시리라 | 니르옵논고 | | ? 서울은 아므 둘 아므 날 썸나 |
| (0513a2) | 흥니 朝鮮 사름-들흥 브어시라 | 니르옵논고 | | ? 우리는 오늘 타 띄워 기드릴 |
| (0512a6) | ㄹ 來月 十二三日의 덩-흥얏다 | 니르옵너 | | . 닉일은 信使 ㅅ 트실 吉日이리 |
| (0325b6) | 니니 代官네-씩 하 곱히디 말라 | 니르옵소 | | . 그는 判事네과 代官들히 열현 |
| (0211a5) | 스오니 이 후란 이러티 아니케 | 니르옵소 | | . 圓座 帳枕 以下 物을 催促흥 |
| (0508a5) | 事ㅣ 올고 짐작이 게실 썸시니 | 니르옵소 | | . 듯줍새. 어제 東萊 니르시기는 |
| (0521b6) | 이옵관디 이대-도록 어렵사리 | 니르옵시논고 | | ? 흥암죽-홀 만흔 일이오면 엇 |
| (0303a4) | ㅏ 겨시니 모로매 도리-흥옵소. | 니젓따소이다 | | . 病 中의 귀-흥 약을 만히 주 |
| (0217a4) | 이나 茶禮人 날 종용히 뵈옵고 | 니즌 | | 스이 업시 僉官들-씩 니르고 |
| (0524a4) | 三使 아회-들의 웃 웃슬 흥여 | 니피려 | | 흥오니 그리 아라시게 잘 주션 |
| (0108a6) | ㅏ 豊崎셔 日吉利를 기드리더라 | 닐러 | | 와시니 오늘은 건넌죽-흥 구름 |
| (0328b5) | 썸시니 묻저 代官네-씩 출히라 | 닐러 | | 두옵소. 그러면 모되 雨天 브터 |
| (0810a2) | ㅏ여 出船흥실 양으로 大君씩셔 | 닐러 | | 왓다 흥고 振舞홀 양도 잇는가 |
| (0805a1) | 奉行씩셔 이 樣子를 술오라코 | 닐러 | | 왓던디 묻저 이리 니르시니 숭 |
| (0803a2) | 쇼셔. 委細之 儀는 對馬島主씩 | 닐러 | | 보내놓이다. 對馬島主씩 니르 |
| (0508b6) | 올라 갈 양으로 흥라코 돈돈이 | 닐러 | | 겨시니 그리흥면 往來 九日 十 |
| (0804b2) | ㄹ 잘 아라셔 奉行네-씩 극진히 | 닐러 | | 도로 보내시를 미뎃습너. 對馬 |
| (0805b4) | 곰 아니 밋디 못 흥실 仔細호믈 | 닐러 | | 부러 사홀 쥘홀 홀리 왓습네티 |
| (0712b6) | 넬 일도 소임의-게 그 스정을 | 닐러 | | 들리소. 江戸로서 御使ㅣ 예-스 |
| (0416b2) | 일을 그리 흥는가? 뵈 公木이라 | 닐러도 | | 여긋셔 영종홀 일은 업스오니 |
| (0808b2) | ㅏ-게 준 거슬 더러로서 아므리 | 닐러도 | | 바들 인스는 아니어나와 對馬 |
| (0612a5) | ㅏ ㅅ 對馬島를 떠나실 양으로 | 닐러시니 | | 이제는 自由히 ㄹ음아디 못 흥 |
| (0404a4) | 念入흥여 잘 드라 건넬 양으로 | 닐렀습너 | | . 나라 일이란디 마디 못 흥여 |
| (0828a5) | 慰勲흥 宴席이옵도쇠. 진실로 | 닐르시드시 | | 兩國 誠信之 故로 귀-흥 곳을 |
| (0210a2) | ㅏ시도 數內에 흥나홀 더러시니 | 넛고 | | 이러-흥가? 우리를 모로는가 |
| (0210a5) | 올고? 일 모로논 것-들이 일덩 | 넛고 | | 그리 흥 일이옵도쇠. 무려 보와 |
| (0101a5) | 官의 가 내 말로 “그적긋 여긋 | 넛려 | | 와 어제라도 오을 거슬 路次의 |
| (0623b6) | ㅏ 東西도 모로논 것-들이 못히 | 넛려 | | 振舞 적이나 萬事에 보디 슬흔 |
| (0621a5) | 넛리시기 어렵기는 죠고마흥고 | 넛리디 | | 아니 흥시면 것기 사름-들히 못 |
| (0621a4) | 시 도케 흥쇼셔. 참-마다 비예 | 넛리시기 | | 어렵기는 죠고마흥고 넛리디 |
| (0401b6) | . 이 看品時 전 브터 저을 세니 | 넛리니 | | 出入에 差使員 썸 아니라 여긋 |
| (0803a1) | 실 양으로 흥옵쇼셔. 委細之 儀 | 넛 | | 對馬島主씩 닐러 보내놓이다. |
| (0423b2) | 니 날을 저므를 썸으로는 公儀 | 넛 | | 되디 아니코 이 민망을 비-홀 |
| (0501b6) | ㅏ신고? 아직 비예 트옵소. 御使 | 넛 | | 아미옵도쇠. 이리 드옵소. 어와 |
| (0602a4) | ㅏ려온 일인가 너기건마는 三使 | 넛 | | 엇디 너기실 디 아직 아직 아롭 |
| (0424a3) | . 곱곰 싱각-흥여 보옵소. 送使 | 넛 | | 텃텃-흥여 이러트시 되기 어려 |
| (0501b2) | 온 御使 ㅅ옵도쇠. 그러면 使者 | 넛 | | 뉘 와 겨신고? 아직 비예 트옵 |
| (0315a1) | 야 아롭답스오리. 長老와 島主 | 넛 | | 이 나라 臣下ㅣ 되엿스오니 ㅏ |
| (0702b3) | 켜도 밋디 못 홀 일이오니 太守 | 넛 | | 엇디 싱각-흥시논고? 右之 道 |
| (0926b2) | 州는 六郡 南海道の는 紀伊州 | 넛 | | 七郡 淡路州는 二郡 阿波州는 |
| (0924a6) | 九郡 奥州는 五十四郡 出羽州 | 넛 | | 十二郡 北陸道の는 若狹州는 |
| (0925b1) | 七郡 伯耆州는 六郡 出雲州 | 넛 | | 十郡 石見州는 六郡 隱岐州는 |
| (0922b4) | 二郡 尾張州는 八郡 三河州 | 넛 | | 八郡 遠江州는 十四郡 駿河州 |
| (0922b6) | 八郡 遠江州는 十四郡 駿河州 | 넛 | | 七郡 甲斐州는 四郡 伊豆州는 |
| (0922a6) | 州는 十三郡 東海道の는 伊賀州 | 넛 | | 四郡 伊勢州는 十五郡 志摩州 |
| (0924b3) | 三郡 越前州는 十二郡 加賀州 | 넛 | | 四郡 能登州는 四郡 越中州는 |
| (0926b5) | 二郡 阿波州는 九郡 讃岐州 | 넛 | | 十一郡 伊豫州는 十四郡 土佐 |

| | | | | |
|----------|-------------|-------------|-------------|-------------------|
| (0925b3) | 三 十 郡 石見州 | 三 六 郡 隱岐州 | 三 四 郡 山陽道の | 三 郡 幡磨州 |
| (0927b4) | 三 十四 郡 日向州 | 三 五 郡 大隅州 | 三 八 郡 薩摩州 | 三 十四 郡 一岐島 |
| (0925b2) | 三 六 郡 出雲州 | 三 十 郡 石見州 | 三 六 郡 隱岐州 | 三 四 郡 山陽道の |
| (0924b6) | 三 四 郡 越中州 | 三 四 郡 越後州 | 三 七 郡 佐渡州 | 三 三 郡 山陰道の |
| (0925a4) | 三 道の | 三 丹波州 | 三 六 郡 丹後州 | 三 五 郡 但馬州 |
| (0927a4) | 三 의 | 三 筑前州 | 三 十五 郡 筑後州 | 三 八 郡 因幡州 |
| (0927b2) | 三 八 郡 肥前州 | 三 十一 郡 肥後州 | 三 十 郡 豊前州 | 三 八 郡 豊後州 |
| (0926a3) | 三 十一 郡 備中州 | 三 九 郡 備後州 | 三 十四 郡 日向州 | 三 五 郡 大隅州 |
| (0927a6) | 三 十 郡 豊前州 | 三 八 郡 豊後州 | 三 十四 郡 安藝州 | 三 八 郡 周防州 |
| (0927b3) | 三 一 郡 肥後州 | 三 十四 郡 日向州 | 三 八 郡 肥前州 | 三 十一 郡 肥後州 |
| (0922b5) | 三 八 郡 三河州 | 三 八 郡 遠江州 | 三 五 郡 大隅州 | 三 八 郡 薩摩州 |
| (0923b4) | 三 十一 郡 東山道の | 三 近江州 | 三 十四 郡 駿河州 | 三 七 郡 甲斐州 |
| (0927a1) | 三 一 郡 伊豫州 | 三 十四 郡 土佐州 | 三 十三 郡 美濃州 | 三 十八 郡 飛驒 |
| (0925b6) | 三 郡 幡磨州 | 三 十四 郡 美作州 | 三 七 郡 西海道 | 三 의 |
| (0922b1) | 三 海道 | 三 伊賀州 | 三 七 郡 備前州 | 三 筑前州 |
| (0924b2) | 三 道の | 三 若狹州 | 三 十一 郡 備中州 | 三 十一 郡 備後州 |
| (0927a3) | 三 州 | 三 七 郡 西海道 | 三 十五 郡 志摩州 | 三 二 郡 尾張州 |
| (0927b1) | 三 八 郡 豊後州 | 三 八 郡 肥前州 | 三 十二 郡 加賀州 | 三 四 郡 能登州 |
| (0926a1) | 三 十四 郡 美作州 | 三 七 郡 備前州 | 三 十五 郡 筑後州 | 三 十 郡 豊前州 |
| (0927a5) | 三 十五 郡 筑後州 | 三 十 郡 豊前州 | 三 十一 郡 肥後州 | 三 十四 郡 日向 |
| (0924b5) | 三 四 郡 能登州 | 三 四 郡 越中州 | 三 八 郡 豊後州 | 三 九 郡 備後州 |
| (0926a2) | 三 七 郡 備前州 | 三 十一 郡 備中州 | 三 八 郡 肥前州 | 三 七 郡 佐渡州 |
| (0922b3) | 三 十五 郡 志摩州 | 三 二 郡 尾張州 | 三 四 郡 越後州 | 三 七 郡 備後州 |
| (0922a5) | 三 五 郡 和泉州 | 三 의 | 三 九 郡 備後州 | 三 十四 郡 安藝州 |
| (0925a1) | 三 의 | 三 三 郡 攝津州 | 三 八 郡 三河州 | 三 八 郡 遠江州 |
| (0924b4) | 三 四 郡 越後州 | 三 七 郡 佐渡州 | 三 十三 郡 東海道 | 三 伊賀州 |
| (0923a2) | 三 十二 郡 加賀州 | 三 七 郡 能登州 | 三 의 | 三 四 郡 越後州 |
| (0923a2) | 三 七 郡 甲斐州 | 三 四 郡 伊豆州 | 三 三 郡 山陰道の | 三 丹波州 |
| (0924a1) | 三 十八 郡 飛驒州 | 三 四 郡 信濃州 | 三 四 郡 越中州 | 三 四 郡 越後州 |
| (0923b5) | 三 의 | 三 近江州 | 三 三 郡 相模州 | 三 八 郡 武蔵州 |
| (0926b4) | 三 七 郡 淡路州 | 三 十三 郡 美濃州 | 三 十 郡 上野州 | 三 十四 郡 下野州 |
| (0925a3) | 三 州 | 三 二 郡 阿波州 | 三 十八 郡 飛驒州 | 三 四 郡 信濃州 |
| (0925a5) | 三 六 郡 丹後州 | 三 의 | 三 九 郡 讃岐州 | 三 十一 郡 伊豫州 |
| (0925a5) | 三 五 郡 但馬州 | 三 丹波州 | 三 六 郡 丹後州 | 三 五 郡 但馬州 |
| (0923a1) | 三 十四 郡 駿河州 | 三 七 郡 甲斐州 | 三 八 郡 因幡州 | 三 七 郡 伯耆州 |
| (0923a5) | 三 郡 武蔵州 | 三 二十一 郡 安房州 | 三 七 郡 伯耆州 | 三 六 郡 出雲州 |
| (0926a5) | 三 十四 郡 安藝州 | 三 八 郡 周防州 | 三 四 郡 伊豆州 | 三 三 郡 相模州 |
| (0927b5) | 三 의 | 三 五 郡 大隅州 | 三 四 郡 上總州 | 三 十一 郡 下總州 |
| (0922b2) | 三 四 郡 伊勢州 | 三 八 郡 薩摩州 | 三 六 郡 長門州 | 三 六 郡 南海道の |
| (0925b5) | 三 三 郡 山陽道の | 三 郡 幡磨州 | 三 十四 郡 一岐島 | 三 二 郡 對馬島 |
| (0923a3) | 三 의 | 三 四 郡 伊豆州 | 三 二 郡 尾張州 | 三 八 郡 三河州 |
| (0926a6) | 三 의 | 三 八 郡 周防州 | 三 十四 郡 美作州 | 三 七 郡 備前州 |
| (0924a3) | 三 十 郡 上野州 | 三 六 郡 長門州 | 三 八 郡 武蔵州 | 三 二十一 郡 安房 |
| (0924a2) | 三 의 | 三 四 郡 信濃州 | 三 六 郡 南海道の | 三 紀伊州 |
| (0923b2) | 三 一 郡 下總州 | 三 十四 郡 下野州 | 三 九 郡 奥州 | 三 七 郡 西海道 |
| (0926b3) | 三 道の | 三 十 郡 上野州 | 三 十四 郡 出羽州 | 三 十二 郡 北 |
| (0926b6) | 三 九 郡 讃岐州 | 三 十二 郡 常陸州 | 三 十一 郡 東山道の | 三 近江州 |
| (0924a4) | 三 의 | 三 七 郡 淡路州 | 三 二 郡 阿波州 | 三 九 郡 讃岐州 |
| (0923b1) | 三 의 | 三 十一 郡 伊豫州 | 三 十四 郡 土佐州 | 三 七 郡 西海道 |
| (0923a6) | 三 의 | 三 十四 郡 下野州 | 三 五十四 郡 出羽州 | 三 十二 郡 北 |
| (0925a6) | 三 의 | 三 九 郡 奥州 | 三 十二 郡 常陸州 | 三 十一 郡 東山 |
| (0926a4) | 三 의 | 三 四 郡 上總州 | 三 十一 郡 下總州 | 三 十二 郡 常陸 |
| (0924b1) | 三 의 | 三 八 郡 因幡州 | 三 六 郡 出雲州 | 三 十 郡 石見州 |
| (0923a4) | 三 의 | 三 七 郡 伯耆州 | 三 八 郡 周防州 | 三 六 郡 長門州 |
| (0832a4) | 三 의 | 三 九 郡 備後州 | 三 三 郡 越前州 | 三 十二 郡 加賀州 |
| (0208a2) | 三 의 | 三 十四 郡 安藝州 | 三 二十一 郡 安房州 | 三 四 郡 上總 |
| (0928a3) | 三 의 | 三 二 郡 對馬島 | 三 四 郡 信濃州 | 三 十 郡 上野州 |
| (0927b6) | 三 의 | 三 八 郡 薩摩州 | 三 御裁判을 | 三 彼 三 首尾 三 道히 三 勿 |
| (0928a1) | 三 의 | 三 十四 郡 一岐島 | 三 膳數器皿 | 三 以下 三 三 捷解新語 三 第 |
| (0922a6) | 三 의 | 三 二 郡 對馬島 | 三 六十六 郡 之外歟 | 三 捷解新語 三 第 |
| | 三 의 | 三 二 郡 此 二 島 | 三 二 郡 對馬島 | 三 二 郡 此 二 |
| | 三 의 | 三 二 郡 對馬島 | 三 二 郡 此 二 島 | 三 六十六 州之 |
| | 三 의 | 三 三 郡 攝津州 | 三 伊賀州 | 三 四 郡 伊勢州 |
| | 三 의 | 三 十三 郡 東海道 | 三 十五 郡 筑後州 | 三 十五 郡 筑後州 |

(0206a4) 써시니 아니 뵈오령잇가? 巡杯 | 는
(0909b5) 기 어려운 所望이옵도쇠. 昨夜 | 는
(0307b2) 셔디 못 흥올가 엇줍습닌. 前例 | 는
(0312a1) 意 마티 다 먹스오리이다. 長老 | 는
(0126a5) ㅅ옵소. 글란 그리 흥오리. 茶禮 | 는
(0129b4) 正官이 병 드르실 떠라도 茶禮 | 는
(0127a2) ㅅ 內에 홀 양으로 흥오리. 茶禮 | 는
(0322b5) 커니와 催促흥오리. 封進 返禮 | 는
(0133b2) 흥여 보옵소. 그리 흥오리. 案内 | 는
(0921b5) 十六州를 분하다. 아직 五畿內 | 는
(0213b5) 노흥여 하시니 흥 몸으로서는 | 는호디
(0211b5) 수이 드리옵소. 또 大廳地衣도 | 놀가
(0619b4) 흥오니 패롭스오나 오려셔 내나 | 놀이나
(0909a2) ㅅ네 홀 대로 흥쇼셔. 비록 내나 | 놀이나
(0209b3) 니 判事네 잘 드르시소. 과즐도 | 늦게
(0722a3) 르기 喜悅이 마이 업습고 우리 | 늦치
(0311a5) 이나 어이 남기고 머그리잇가? | 늦출
(0303a1) 업더니 어딴을 알파 하시던고? | 늦출
(0720a5) !? 니르시는 바를 아춤의 奉行 | 닉
(0403b2) 간-흥옵소. 니르시는 바 判事 | 닉
(0114b6) 근심 마옵소. 열현이 마르시고 | 닉일
(0120b1) 이제 釜山浦의 술와 注進흥고 | 닉일
(0814a4) 틈과 흥 가지로 깃거 흥는디 또 | 닉일
(0813b1) ㅅ다오미 御禮의 너머습는디 또 | 닉일
(0407a2) ㅅ五十束만 묻져 드려 주옵소. | 닉일
(0120b5) ㅅ고 올 거시니 종용히 쉬옵소. | 닉일
(0132b3) ㅅ 이런 道理를 東萊의 엇저와 | 닉일
(0902b4) ㅅ드리커나 우리 술은 일이오니 | 닉일
(0116b1) ㅅ렛스오니 別흥 일도 업스오니 | 닉일
(0430a6) 라도 밤-새물 기도로를 써시니 | 닉일
(0113a2) ㅅ터셔도 오늘은 밤이 드러시니 | 닉일
(0128b2) ㅅ 쏜 나올쇠. 그러면 엇디 브딤 | 닉일
(0620b1) ㅅ옴 편히 생각-흥쇼셔. 다만 | 닉일
(0616a2) ㅅ. 船 中에도 별히 ㅅ름도 업고 | 닉일도
(0715b5) 니 아름다와 흥닉이다. 올커니 | 닉일도
(0428a5) 今夜 쏜 下人을 ㅅ을 흥이시면 | 닉일란
(0128b6) 送使의 연고 업스 양으로 술와 | 닉일로
(0530b1) 일도 업기는 업거니와 그러나 | 닉일은
(0613a2) 船흥실 거시니 그리 아릅쇼셔. | 닉일은
(0513b1) 기드릴 즈음이옵도쇠. 올스외. | 닉일은
(0430a1) ㅅ-게 니르올고? 그리 흥오리. | 닉일은
(0613b4) ㅅ으로 흥쇼셔. 기별-흥심 마티 | 닉일은
(0512b3) ㅅ三 日의 덩-흥얏다 니르옵닌. | 닉일은
(0214b5) 흥 번이나 뵈와시니 그러흥외. | 닉일이나
(0421b4) ㅅ 자브시면 그 ㅅ근 ㅅ을 드려 | 닉일이라도
(0905a2) 다만 노름 히로나 흥려 흥오니 | 닉일이라도
(0509b3) ㅅ되여도 十二三 日만의 ㅅ 올가 | 다
(0211b5) 드리옵소. 또 大廳地衣도 놀가 | 다
(0310b3) ㅅ을 위-흥야 고디시기 잔-마다 | 다
(0213b4) ㅅ는 오라 더러셔는 아니 온다 | 다
(0514b2) ㅅ러면 出行의 아릅다운 일이라 | 다
(0826a2) !? 그 날란 니르시매 밋디 아냐 | 다
(0917a4) 마트신 분 五六人만 계시과다 | 다
(0410a4) 엇디 이러트시 사오납스온고? | 다
(0321a2) 이 머므시면 덩-흥 연향-들도 | 다
(0818a4) ㅅ處處의 ㅅ고-흥신 ㅅ子 말로 | 다
(0207b4) ㅅ을 보쇼셔. 하 ㅅ소이 너기외와 | 다
(0113a6) ㅅ중을 너머서 떠디온가? 거의 | 다
(0201b1) 신 날은 마즘 사오나온 보람의 | 다
(0311b5) ㅅ건마는 이 ㅅ으란 御意 마티 | 다

디낫습거니와 처음으로 보옵고
| 우리도 술의 취-흥여 심각디
| 그러티 아니커니와 今度 안자
| 樣體 사름의 넘고 술도 잘 홀
| 어닉 뵈 흥올고? 수이 홀 양으로
| 卒度之 間이오니 나셔 과연 건
| 明日 흥오니 미리 출혀 겨시디
| 서울로셔 헤아려 오는 대로 흥
| 先通之 意 서어탄 말이라. 의지
| 山城州의 所領이 八 郡이오 大
| 못 흥여 민망-흥외. 送使를 보
| 다 하야-더시니 그도 굴 양으로
| 민망-호를 프려 주쇼셔. 흥면
| 연고 이실 떠라도 振舞에 어긋
| 괴왔고 건물도 두 가지 업고 雞
| 비-홀 디 업시 아릅다이 너기
| 보쇼셔. 머그라 니르신 잔-마
| 보오니 이제도 병 빗치 겨시니
| -의 議論흥오니 御進物도 城에
| -의로셔 가지 가지 다스림으로
| 부부 츠츠쇼셔. 그리 흥올 거시
| 아춤은 東萊 올라 가 送使의 樣
| 구름 가기 도타 니르시니 一定
| 날세 구름 가기도 도타 니르오
| 東萊 올라 가 모뢰-쓰옵 드리
| 나죄란 入館흥여 보옵새이다.
| 브딤 홀 양으로 흥옵소. 힘 ㅅ
| 브터 우리 흥올 써시니 자네-
| 보옵소. 그는 그러커니와 書契
| 힘 쓰시기는 오로 미덥습닌. 捷
| 듯보와 보옵소. 그 ㅅ ㅅ중을
| 흥실 양으로 니르옵시던고? 正
| 出船의 뒤버트릴 작시면 中官
| 天氣 ㅅ호를 시브다 흥니 새베
| 보오련마는 먼 ㅅ ㅅ ㅅ ㅅ ㅅ
| 못즈오리. 判事네는 代官의 ㅅ
| 덩-흥디 이제야셔 正官의 병이
| 祝願의 연향이오니 信使의 對
| 구름 브트미 도쑈오니 監島-ㅅ
| 天氣에는 ㅅ듯디 아냐 吉日의
| 마츠마 니르시니 그지 업스매
| 天氣 ㅅ호를 시브다 여기 사름
| 信使 ㅅ ㅅ실 吉日이라 니르니
| 모뢰나 연고 업스신 날의 封進
| 드릴 거시니 엇디-흥올고? 자
| 연고 업스시거든 서어-흥 거술
| 헤아리옵데. 그리 아라 기드리
| 하야-더시니 그도 굴 양으로 흥
| 먹고 묻져 취-흥엇건마는 이도
| 노흥여 하시니 흥 몸으로서는
| 祝願흥옵닌. 그러면 게셔도 日
| 더브러 가오리. 오늘은 마즘 天
| 원-흥몬 兩國의 ㅅ옴이라 니르
| 도라 ㅅ세 보시고 ㅅ옴 사오나
| 못고 종용히 겨시다가 가실 양
| 못 홀 일이로송이다. 별로 인스
| 먹습니다. 전의는 격기엿 거
| 와셔 惡風을 만나 큰 ㅅ에 ㅅ군
| 無事히 渡海흥시니 아릅답다
| 먹스오리이다. 長老는 樣體 사

| | | | |
|----------|--------------------|---|--------------------|
| (0311a2) | 2니 자늑-네도 이제란 이 ㅁ티 | 다 | 자옴소. 싱심이나 어이 남기고 |
| (0305b4) | 능가 시버 뵈니 이 잔오란 브티 | 다 | 자옴소. 엇디 남기렁잇가? 본디 |
| (0419b5) | 3소. 엇디 ㅎ야 우리 ㄹ은 일은 | 다 | 슈지 사쁘시고 자늑-네 맛당- |
| (0306a2) | 잇가? 본디 먹디 못 ㅎ옴것마는 | 다 | 먹습는다. 술이 ㄲ토 아니 ㅎ |
| (0815b4) | ㄲ고 예-ㅅ지 오온 바를 말로는 | 다 | ㅎ기 어려운 祝願의 일이옴도 |
| (0208a4) | ㅎ고 과즐과 건물과 머글 거슬 | 다 | 머검즉이 장만-ㅎ옴스오니 ㄲ |
| (0917b2) | 이리옴도쇠. 아므려나 ㅁ옴을 | 다 | -ㅎ여 니기옴소. 그리 니르시니 |
| (0411b2) | ㄲ심이야. 五十束 드린 公木을 | 다 | 나므라고 엇디 ㅎ려 아르시니 |
| (0327b3) | ㅁ 심샹티 아나 奇特히 相指를 | 다 | 잘 ㅎ더라 기리시니 우리 ㄲ기 |
| (0304a5) | 넘녀-ㅎ는다. 그 약은 마즘 | 다 | 쁘고 적게 보내고 ㅁ에 걸려 ㅎ |
| (0914b4) | 말 거뵈이 진실로 日本 ㅅ오니 | 다 | 기특다코 일궈줍는디 쏘 말습- |
| (0719b6) | 걸-ㅎ시소. 쏘 드린 사름-돌토 | 다 | 페로을 ㅁ-ㅎ니 덜고져 ㅎ니 9 |
| (0826b6) | 디 업스되 그러커니와 오늘에 | 다 | ㅁㅁㅎ옴기 술을 양도 업스오니 |
| (0606a5) | ㅁ옴기도 젓습건마는 이 구석의 | 다 | 小園을 두엇습더니 게 가서 茶 |
| (0307a4) | 드와 이제 잠깐 ㅎ렘스오되 | 다 | 힘이 업스와 오래 서디 못 ㅎ을 |
| (0419b1) | 도 이셔 이리 술오니 이 우회는 | 다 | 표리도 업스니 자늑-네 ㅎ실 ㅁ |
| (0525b4) | 르시다 엇디 얼현히 ㅎ렘잇가? | 다 | 朝鮮 풍속의는 사름의 불골도 |
| (0910b6) | 디 아니 ㅎ니 내-게 맞디쇼셔. | 다 | 슬ㅎ여 ㅎ시게 ㄹ은 일이언마는 |
| (0620b1) | ㅁ시니 ㅁ옴 편히 싱각-ㅎ쇼셔. | 다 | 닉일 出船의 뒤버므릴 작시면 |
| (0904b6) | 예 드디 아닐까 의심-ㅎ거니와 | 다 | 노름 ㅎ로나 ㅎ려 ㅎ오니 닉일 |
| (0906a3) | 디도 겨실까 ㅁ장 젓습거니와 | 다 | 우리는 어리로온 얼굴과 놀래 |
| (0712b1) | 使도 冠帶를 ㅎ셔야 ㄲ싸울 디 | 다 | 冠帶 ㅎ시미 ㄲ홀가 시쁘외. 그 |
| (0909a5) | 振舞에 어긋날 일은 업스오리. | 다 | ㅁ옴의 걸리기는 若衆들의 연 |
| (0127b3) | ㄲ ㅎ쇼셔. 아옴게 그리 ㅎ오리. | 다 | 正官이 본디 병 든 사름이옴디 |
| (0812a3) | ㅎ면 마라도 ㄲ홀 듯 ㅎ건마는 | 다 | 앗가 니르시는 양이면 자늑-게 |
| (0130b3) | ㄲ 브터 병 드렛스오니 자늑-게 | 다 | 술을 스이도 업스매 그러는 ㅎ |
| (0409a1) | 너기옴넌. 보낼 짐을 출혀 보와 | 다 | 기별을 ㄹ스오리. 아직 公木을 |
| (0216a2) | ㅁ옴소. 代官들은 아랏습거니와 | 다 | 니르고 가오리. 釜山浦 니르시 |
| (0123a4) | 옴넌. 이제 正官 보오라 가오니 | 다 | 보옴새. 正官의 나도 사름을 보 |
| (0321b2) | 옴소. 이리 감격-ㅎ 御意ㅁ시니 | 다 | 술을 양이 업서이다. 그러커니 |
| (0805b2) | ㅁ는 信使ㅅ셔 거스려 니르셔도 | 다 | 다시ㅁ 아니 ㅁ디 못 ㅎ실 仔細 |
| (0709a1) | 2니 ㅁ싸오니 범남을 ㄹ왔더니 | 다 | 다시ㅁ 극진히 行下ㅎ시니 민 |
| (0709a1) | 스오나 범남을 ㄹ왔더니 다시ㅁ | 다 | 극진히 行下ㅎ시니 민ㅁ-ㅎ옴 |
| (0805b2) | ㅁㅅ셔 거스려 니르셔도 다시ㅁ | 다 | 아니 ㅁ디 못 ㅎ실 仔細호를 ㅁ |
| (0419a2) | ㅁ시니고? 代官들흔 자늑-네 하 | 다 | 쏘 우리-게도 ㅁ비 ㅁ 디도 이 |
| (0403b3) | ㅁ 바 判事ㅁ-ㅅ로셔 가지 가지 | 다 | 우리도 얼현이논 아디 아니 ㅎ |
| (0105a1) | ㄲ시니 ㅁ을 ㅁ거니와 쏘 送使 | 다 | 엇디 녀길 디 ㅁ옴의 걸리오니 |
| (0313a6) | 니르옴는다. 時節이 네과 | 다 | 上方의셔 아므란 雜說이나 이 |
| (0907a1) | 草히 振舞에 各各 중용히 말습 | 다 | -ㅎ시니 亭主의 ㅁㅁ이 노외야 |
| (0209a2) | 잘 달호련마는 엇디 ㅎ 디 예는 | 다 | 잘 못 ㅎ여 이러-ㅎ니 허믈 마 |
| (0208b6) | 이를 가지고 ㅁ장 머검즉이 잘 | 다 | 엇디 ㅎ 디 예는 달호기를 잘 ㅁ |
| (0103a6) | ㅁ 쏘는 싱소-ㅎ 거시오니 各各 | 다 | 너기실가 氣遣호오니 萬事의 ㅁ |
| (0602b4) | ㅁ. 진실로 兩國 靜謐히 誠信을 | 다 | 이러트시 아릅다운 일 아므 디 |
| (0322a2) | 게 ㅎ쇼셔. 글란 그리 ㅎ려니와 | 다 | 公貿易 銅 鐵 看品도 못 ㅎ옴고 |
| (0309b3) | ㅎ여이다. 안자셔 禮 어려오니 | 다 | 잔 ㅁ 들기를 禮를 삼습새. ㅁ장 |
| (0124b3) | ㅁ夜를 계유 堪忍호옴스오니 큰 | 다 | 열과 공석 五六枚만 ㅁ져 드려 |
| (0203b3) | 시니 아릅다와 ㅎ옴넌. ㄲ스와. | 다 | 無事호넉이다. 오늘은 折節 天 |
| (0405a1) | ㅎ는다. 나라 일을 ㅎ ㅁ기는 | 다 | 同前이오니 우리도 公木을 ㄲ |
| (0721b4) | ㅎ는 양이 ㅁ장 ㄲ히 ㅎ신 바를 | 다 | 일궈를 ㅁ이 아니라 大君도 거 |
| (0718b3) | ㅎ 일이로소이다. 그러면 上下 | 다 | 잔채-홀 일로 ㅁ티니 업시 모 |
| (0502b2) | ㅁ도 無事호온가? ㄲ스와. 上下 | 다 | 無事호고 對馬島主 니르시는 ㅁ |
| (0402a4) | ㅁ 아니라 여긔 소임-ㅎ는 官人 | 다 | 過怠에 ㅁ는 바는 자늑-네도 이 |
| (0915b1) | 셔 말습이나 ㅎ시면 즉시 싱각 | 다 | 되오몬 쉬을 ㅁ시니 이리 ㄹ오 |
| (0717a5) | 니 이 우회는 아므 제라도 싱각 | 다 | ㅎ시게 알외쇼셔. 자늑-네도 ㅁ |
| (0622a2) | 官 以下 ㄲ리디 말 일을 니르신 | 다 | 스설-ㅎ여도 一人도 나므니 ㅁ |
| (0405b5) | ㅁ니마는 이러나 더러나 니르신 | 다 | ㅎ야 無事히 못즈오니 아릅답 |
| (0323a2) | 返禮는 셔올로셔 헤아려 오논 | 다 | 호오려니와 公木은 數數ㅣ잇 |
| (0721a4) | ㄲ려면 이러나 더러나 니르시는 | 다 | 호옴새. 어제는 城에서 인스당 |
| (0212a3) | 도 ㄲ 양으로 ㅎ옴소. 니르시는 | 다 | 東萊의 엇즈와 催促ㅎ여 보내 |
| (0510a2) | ㅁ계 返事ㅣ왔습넌. 구-ㅎ시는 | 다 | 나믄 디 업시 불궈도 ㅁ스오니 |

| | | | |
|----------|--------------------|--------|-----------------------|
| (0707b4) | 도 업스니 아프리커나 나 흥는 | 대로 | 흥소. 자네 극진-흥신 바는 서- |
| (0807a4) | 니 흥오니 내 칭각은 亭主 흥는 | 대로 | 흥시미 도흥가도 너기읍닌. 쏘 |
| (0419b2) | 모리도 업스니 자네-네 흥실 | 대로 | 흥읍소. 엇디 흥야 우리 읍는 읍 |
| (0825b2) | 으로 이러나 더러나 맛당-흥실 | 대로 | 흥웁새. 쏘 풍뉴-흥는 사름은 |
| (0908b6) | 오니 이리 술온 우회란 자네 흥 | 대로 | 흥쇼셔. 비록 내나 늙이나 연고 |
| (0624b4) | 고? 아프리커나 자네 맛당-흥 | 대로 | 흥읍소. 捷解新語 第六 終 捷解 |
| (0913b3) | 을 싱각-흥면 측-흥건마는 힘 | 대로 | 못 흥고 붓그림을 모로는 거시 |
| (0429a3) | 브디 番을 흥읍소. 萬事 ㅁ음 | 대로 | 못 흥여 되츠디 못 흥는 바는 ㅁ |
| (0421a2) | 아니나 代官네 이러트시 ㅁ음 | 대로 | 흔다 만다 흥면 誠信의 희이침. |
| (0503b4) | 엿즈와 早早 註進야 그 返事 | 대로 | 우리 兩人 中에 一人이 飛船으로 |
| (0831b6) | 아름다운 御禮 몸애 나마 心底 | 대로는 | 퍼디 못 흥송이다. 御渡海 아름 |
| (0505a6) | 니 수이 아니티 묻 흥 일이오니 | 대테로이 | 아니 흥실 양으로 東萊의 엿즈. |
| (0824b1) | 풍뉴-흥는 사름을 기티디 말고 | 더 | 브르시게 밋줍닝이다. 어와 出 |
| (0205a6) | ㅁ 묻 호믈 ㅁ장 설이 너겨 病이 | 더 | 重흥까 너기읍닝이다. 封進宴을 |
| (0912b4) | 마는 常常 쓰디 아니모로 히로 | 더곰 | 이러-흥니 心中에 읍고져 흥는 |
| (0509b1) | 출히기에 二日三日이나 흥면 | 더디여도 | 十二三日만의는 올가 다 헤아 |
| (0616a6) | 으로 ㅁ 트노라 출히기에 出船도 | 더될 | 썸시니 온갓 接待에 극진-흥심 |
| (0322b3) | 返禮의 返書 ㅁ 올 거시니 自然 | 더될까 | 너기읍닌. 그러커니와 催促흥고 |
| (0814b4) | ㅁ上의 예-ㅁ지 오믈 우리 일란 | 더디고 | 太守의 果報 ㅁ 썸 일인가? 이러 |
| (0210a1) | 히 업고 덤시도 數內에 흥나흥 | 더러시니 | 넋고 이러-흥가? 우리를 모로 |
| (0826a2) | 그 날란 니르시매 밋디 아냐 다 | 더브러 | 가오리. 오늘은 마즘 天氣 도하 |
| (0823b6) | 닝이다. 글로 흥야 늘근 어미를 | 더브렀습더니 | 朝鮮 풍뉴를 브름 톱으로 듯고 |
| (0902a4) | ㅁ 우리 心中이 서르 던-흥인가 | 더욱 | 아름다왕이다. 그리 니르시니 |
| (0828b5) | 待의 만나 海上의 시름도 퍼매 | 더욱 | 썸 아름다이 너겨 술-들도 불사 |
| (0327b5) | 흥더라 기리시니 우리 듯기도 | 더욱 | 깃브옵테. 어제는 술을 ㅁ장 먹 |
| (0814a6) | 타 니르시니 一定 그러면 더욱 | 더욱 | 아름답스외. 진실로 먼 海上의 |
| (0814a6) | 기 도타 니르시니 一定 그러면 | 더욱 | 더욱 아름답스외. 진실로 먼 海 |
| (0323b5) | 주실 썸시오니 이 나라 흥 폐나 | 더올가 | 싱각-흥는이다. 우리 나라는 禮 |
| (0413a5) | 分과 公木 감시 상히로서 언머 | 더흥연는고 | 헤아려 無事히 되게 분별-홈이 |
| (0701a6) | ㅁ 예-ㅁ지 無事히 오시다 흥셔 | 덕담으로 | 下人을 주시게 흥야 차반을 가 |
| (0320a6) | 장 분부-흥엿스오니 아프려나 | 덕분을 | 썸 수이 歸島흥 양으로 브라느 |
| (0201b4) | . 御意 감격-흥여이다. 우리는 | 덕분을 | 썸 아프 일도 업시 완닝이다. ㅁ |
| (0303b2) | ㅁ中의 귀-흥 약을 만히 주시매 | 덕분의 | 먹습고 글로 브터 알튼 가슴과 |
| (0219a5) | 저믈 썸시니 수이 출혀 나쇼셔. | 덕분의 | 看品을 無事히 흥오니 우리도 |
| (0717a2) | 신 절츠를 술을 양도 업서이다. | 덕분의 | 무스히 오오니 이 우회는 아프 |
| (0133b4) | ㅁ 업단 말이라. 거의란 말이라. | 던득단 | 말이라. 捷解新語 終 捷解新語 |
| (0720a2) | ㅁ-들토 다는 폐로울 썸-흥니 | 덜고져 | 흥니 엇더-흥쇼? 니르시는 바 |
| (0612a2) | 시언마는 路次 處處의 일 출힐 | 덜토 | 헤아려 아프 들 아프 ㅁ對馬島 |
| (0827a5) | ㅁ중용히 노르셔 祝願흥시과다. | 더 | 귀-흥 풍뉴-들도 어미 듯고 거 |
| (0619a3) | ㅁ 오르시기 슈고롭스올 디라도 | 더 | -들히 폐를 허스되게 홈도 어 </td |
| (0712a1) | ㅁ접-흥시미 도흥까 시프외. 쏘 | 더 | 使 ㅁ 信使를 위-흥야 冠帶를 흥 |
| (0807b2) | 흥가도 너기읍닌. 쏘 내 힘으로 | 더 | 使를 自由히 ㅁ옴아디 못 흥 일 |
| (0910a1) | ㅁ 취-흥여 싱각디 못 흥거니와 | 더 | 若衆들의-게 밤-새-도록 거룩 |
| (0609a2) | 은 모로거니와 풍뉴과 어우러- | 더 | 즐거오미 ㅁ 업서 글로 흥여 齣 |
| (0409b1) | ㅁ 갈 때애 아프 비라 흥여 즈세 | 더거 | 보내읍소. 그리 흥오리. 公木 ㅁ |
| (0125a3) | ㅁ릴 양으로 흥오려니와 즈세히 | 더거 | 두읍소. 덩-흥여 주는 거슬 술- |
| (0703b2) | 어와 어와 여러 가지 珍味 이걸 | 더걸 | 慰勸히 흥신 양이 御禮에 너믈 |
| (0115b1) | ㅁ시온고? 나는 都船 이는 二船 | 더는 | 封進이읍도쇼. 正官은 어디 겨 |
| (0721a4) | 도 니르닝이다. 그러면 이러나 | 더러나 | 니르시는 대로 흥웁새. 어제는 |
| (0405b5) | ㅁ 그러티 아니트니마는 이러나 | 더러나 | 니르신 대로 흥야 無事히 못즈. |
| (0825b2) | 로 전 브터 니르심으로 이러나 | 더러나 | 맛당-흥실 대로 흥웁새. 쏘 풍 |
| (0620b5) | ㅁ디 말미 엇더-흥올고? 이러나 | 더러다 | 자네-게 밋디오니 흥 시 도케 |
| (0808b2) | 슈고-흥던 下人의-게 준 거슬 | 더러로서 | 아프리 닐러도 바들 인스는 아 |
| (0213b2) | ㅁ흥면 送使로서 이러셔는 오라 | 더러셔는 | 아니 온다 다 노흥여 흥시니 흥 |
| (0413a1) | ㅁ시키고 쉽디 못 호믈 어히 업서 | 더러타 | 이러타 읍든 아니커니와 자네- |
| (0326a6) | 아니 흥오리. 마즘 중용-흥여 | 더렁 | 이렁 읍스오니 언머 지리히 너 |
| (0811b6) | ㅁ 썸썸니와 드린 사름을 이렁 | 더렁 | 폐를 싱각-흥면 마라도 도흥 ㅁ |
| (0213a2) | ㅁ르시미 그르든 아니 흥거니와 | 더른 | 날의 東萊 釜山浦에 가 든녀 외 |
| (0211b5) | 쏘 大廳地衣도 놀가 다 하야- | 더시니 | 그도 곶 양으로 흥읍소. 니르시 |
| (0601b1) | 兩國 安泰히 誠信之 道를 서르 | 던 | -흥여 이제 쏘 三使 ㅁ 멀리 渡 |

| | | | | |
|----------|----------------------|-----|--|--------------------|
| (0902a3) | 리 니르시니 우리 心中이 서르 | 던 | | -흥인가 더욱 아롭다왕이다. 二 |
| (0815a4) | 려 심각-흥앗둔디 우리의 情이 | 던 | | -흥인 디 이리 祝願히시니 아도 |
| (0921b1) | 年도 못 흥디 그대-도록 ㅁ음 | 덜리 | | 심각디 마소. 日本 八 箇 道內 |
| (0315b2) | 흥리잇가? 그러흥므로 長老의 | 덜의 | | 朝鮮 御牌를 두고 常常 節句 日 |
| (0210a1) | 가지 업고 雞子도 흥나히 업고 | 덜시도 | | 數內에 흥나홀 더러시니 닛고 |
| (0402b3) | 라 兩 國 誠信으로 公貿易이라 | 덜 | | -흥여시면 이러트시 出入이 잇 |
| (0128b6) | 연고 업슨 양으로 술와 ㅅ일로 | 덜 | | -흥디 이제야셔 正官의 병이라 |
| (0125a5) | 오려니와 ㅅ세히 더거 두옵소. | 덜 | | -흥여 주는 거술 술은 거시 아 |
| (0512a6) | 出船 吉日은 來月 十二三 日의 | 덜 | | -흥앗다 니르옵디. ㅅ일은 信使 |
| (0324b2) | 十日 무거 도라 가셔도 約條의 | 덜 | | -흥 限-ㅅ지는 엇디 열현이 출 |
| (0324a3) | 리 나라는 禮ㅣ돈돈흥여 흥 번 | 덜 | | -흥 후는 고티디 아니 흥나 五 |
| (0321a1) | ㄹ도 머러시니 요스이 머므시면 | 덜 | | -흥 연향-들도 다 못고 鍾용히 |
| (0216b2) | 가? 엇디 흥 디 일이 만하 問安 | 도 | | 주로 畚디 못 흥나 일덜 정 업슨 |
| (0211b5) | 여 수이 드리옵소. ㅅ 大廳地衣 | 도 | | 닐가 다 하야-더시니 그도 굴 |
| (0122a5) | 흥시고 問安흥옵시데. ㅅ 軍官 | 도 | | 보내시더니 왓습든가? 앓가 만 |
| (0403a3) | 어와 오늘은 右之 道理를 正官 | 도 | | 분별 두셔 氣味 ㅅ케 ㅅ간-흥 |
| (0817a3) | 옵 편히 쉬신 후의 祝願의 宴享 | 도 | | 흥올가 미덜녕이다. ㅅ 이거슨 |
| (0919b2) | 우은 사름이로쇠. 홀리는 籠具 | 도 | | 업시 사름을 홀리는 사름이옵소 |
| (0721b6) | 대되 일ㅅ를 쏘이 아니라 大君 | 도 | | 거르기 喜悅이 ㅁ이 업습고 우 |
| (0320b5) | 이다. 오션 디 오래디 아냐 限 | 도 | | 머러시니 요스이 머므시면 ㅅ- |
| (0420b1) | 이 ㅅ이 各官으로서 沙汰之 限 | 도 | | 업슨 ㅅ에 前例의 업슨 일을 시 |
| (0417a4) | 은 서르 時分과 갑식 양도 見습 | 도 | | 계실 일인디 이대-도록 바회예 |
| (0712a5) | ㅁ-흥야 冠帶를 홀 작시면 信使 | 도 | | 冠帶를 흥셔야 ㅅㅅ을 디 다만 |
| (0428b4) | ㅁ닌논가 너기시거니와 이 樣子 | 도 | | 送使의 ㅅ세히 니르디 아니디 |
| (0209b5) | 왓고 건물도 두 가지 업고 雞子 | 도 | | 흥나히 업고 ㅅ시도 數內에 흥 |
| (0304b3) | 내고 ㅅ에 걸려 흥옵디. 都船主 | 도 | | 요스이 ㅅ히 겨시던가? 전의논 |
| (0312b2) | 보시고 ㅁ장 기리시고 ㅅ 島主 | 도 | | 나흔 ㅅㅅ셔도 萬事ㅣ長老의 |
| (0511a1) | ㅅ소. 심각 ㅅ기 수이 오니 太守 | 도 | | 일덜 ㅅ비 너기시올쇠. 불기예 |
| (0810b3) | ㅁ 鍾용히 흥쇼셔. ㅅ 大坂의 城 | 도 | | 거르기 장만-흥엇스오니 이도 |
| (0504a4) | 아옵소. 이리 호문 上方의 註進 | 도 | | 흥고 路次 各官의 接待의 ㅅ걸 |
| (0622a4) | ㅁ르신 대로 ㅅ셜-흥여도 一人 | 도 | | 나므니 업시 請코져 흥여 니르 |
| (0424a6) | 이 ㅅ로이 굴모로 東萊ㅅ 百姓 | 도 | | 건디디 못 홀 일은 五日 雜物 |
| (0623b4) | ㅁ 畚는 ㅅ기 일덜 下人 中 東西 | 도 | | 모로는 ㅅ-들이 못히 ㅅ려 振舞 |
| (0616a6) | ㅁ흥로셔 ㅅ노라 출히기에 出船 | 도 | | 더덜 ㅅ시니 온갓 接待에 극진 |
| (0128b4) | 로 니르옵시던고? 正官의 氣相 | 도 | | 아디 못 흥고 送使의 연고 업슨 |
| (0414a1) | ㅁ도 이 公木은 ㅅ트 公木의 一 束 | 도 | | ㅁ트니 업스물 자닉-네 눈에도 |
| (0410b6) | 남죽이 드렸고 나므니는 一 端 | 도 | | 자블 公木이 업스외. 이런 公木 |
| (0911b4) | 웁이 내 편을 ㅅㅁ ㅅ건마는 館中 | 도 | | 심심흥매 이러트 흥 우음 바탕 |
| (0901a4) | 捷解新語 第九 요스이는 館中 | 도 | | 徒然흥오니 우음 바탕으로도 흥 |
| (0502a6) | 天氣예 御仕합이옵도쇠. 府中 | 도 | | 無事흥온가? 올스외. 上下 대도 |
| (0316a4) | ㅁ 사름-마다 니름을 ㅅ트고 朝廷 | 도 | | ㅁ장 일ㅅ르시느니라. 술을 |
| (0314a4) | 기 御大儀 흥 일이옵도쇠. 朝廷 | 도 | | 誠信으로 아르시니 아므 일에 |
| (0516b2) | ㅁ ㅅ ㅅ 양으로 흥옵소. 여긔 船頭 | 도 | | 그리 보와시니 信使ㅅ셔도 ㅅ |
| (0921a6) | ㅁ ㅅ화 시작-호미 계오 五六年 | 도 | | 못 흥디 그대-도록 ㅁ음 ㅅ리 |
| (0322a2) | ㅅ니와 당시 公貿易 銅 鑑 看品 | 도 | | 못 흥엇고 封進 雜物들도 올려 |
| (0822a3) | ㅅ 아롭다이 건너신 祝願 振舞 | 도 | | ㅅ디 아니시고 御渡海흥실 ㅅ |
| (0618a4) | 흥고 참참이 못히 請흥여 振舞 | 도 | | 홀 양으로 흥엇는디 ㅅ 우호로 |
| (0720b1) | 奉行너-ㅅ 議論흥오니 御進物 | 도 | | 城에 오르시는 날 알ㅅ 가져 버 |
| (0412a6) | ㅅㅅ 各官으로서 東萊ㅣ時分 | 도 | | 헤아리디 아니코 公木을 거르기 |
| (0416a3) | ㅅ셔 五十 束 드린 公木을 半分 | 도 | | 아니 ㅅ고 나여 가라 흥논고? ㅅ |
| (0619a6) | 리도 ㅅ이에서 이러트 흥 差別 | 도 | | 畚디 아니 흥는 양으로 니르미 |
| (0528a2) | 사름-마다 기려야 우리의 面目 | 도 | | 이실디 ㅅ혀 批判홀 ㅅ이면 ㅅ |
| (0712b3) | 미 ㅅ홀가 시ㅅ외. 그러면 冠帶 | 도 | | 흥옴새. 술 ㅅ 일도 소임의-게 |
| (0203b5) | ㅅ흥닝이다. 오늘은 折節 天氣 | 도 | | ㅅ하 ㅅ용히 말슴-흥나 ㅅ거 흥 |
| (0519a5) | ㅅ足흥양이다. 니르시드시 天氣 | 도 | | 머흐디 아냐 예-ㅅ지 오오니 흥 |
| (0915b6) | ㅅ소. 극진이 권-흥심 아므 일- | 도곤 | | 감격-흥여 御禮 몸애 나른 일 |
| (0518b5) | 예 예-ㅅ지 건너시니 아므 일- | 도곤 | | 아롭다와 흥옵닝이다. ㅅ리 마 |
| (0813b3) | ㅁ기도 ㅅ타 니르오니 아므 일- | 도곤 | | 大慶이로송이다. 니르시드시 ㅅ |
| (0121b4) | 이 아니 흥오리. 東萊로셔 앓가 | 도라 | | 왓습디. 東萊겨셔도 "어제는 일 |
| (0410a4) | 디 이러트시 사오납스온고? 다 | 도라 | | ㅅ세 보시고 ㅅ옴 사오나옴을 |

| | | | |
|----------|--------------------|-------|--------------------|
| (0605b5) | 장 아름다이 너기닝이다. 흥마 | 도라 | 가상이다. 희운 것도 업스온디 |
| (0506a1) | 소. 어제논 東萊로써 밤 들게야 | 도라 | 와 보옵도 못 흥외. 東萊 니르사 |
| (0324a6) | 은 자넨-네 十日二十日 무거 | 도라 | 가셔도 約條의 덩-흥 限-석지 |
| (0328a3) | 제논 술을 ㅁ장 먹고 正根 업서 | 도라 | 오니 아프리 흥 줄도 모로올쇠. |
| (0608a4) | 아니시니 ㅁ름도 계실가 녀겨 | 도라 | 가고져 너기옵더니마는 하 극 |
| (0830b5) | 쳐도 정은 흥 가지니 그저 예서 | 도라 | 가시미 도쑥왕이다. 니르니 太 |
| (0907a6) | 의 술을 디내 먹고 아프리 흥여 | 도라 | 가심도 즈세 몰라 內內 이러로 |
| (0605a2) | 는 것도 두로 보시고 느죽-흥여 | 도라 | 가시게 브라닝이다. 今日은 御 |
| (0806a3) | 쑤으로는 아프리 흥여도 가져 | 도라 | 갈 일은 업스를 써시니 원컨대 |
| (0811b4) | 우리 가서 식환이 구경-흥고 | 도라 | 오른 썩찌니와 드린 사름을 이 |
| (0504a1) | 兩人 中에 一人이 飛船으로 | 도라 | 가울 거시니 그리 아옵소. 이리 |
| (0319a4) | 이다. ㅁ장 취-흥엿스오니 방의 | 도라 | 가기도 잘 못 흥가 너기닝이다. |
| (0829a2) | 술-들도 불서 취-흥야스오니 | 도라 | 가고져 흥닝이다. 빅예 트노라 |
| (0321b4) | 다. 그러커니와 흥리라도 수이 | 도라 | 가게 흥쇼셔. 글란 그리 흥려니 |
| (0323a5) | 束數 ㅁ 잇스오니 쇼인-네 수이 | 도라 | 가오면 五日 雜物은 묵는 스이 |
| (0320a3) | ㅁ 올 적의 오래 묵디 말고 수이 | 도라 | 오라 島主 ㅁ ㅁ장 분부-흥엿스 |
| (0804b2) | 아르셔 奉行네-씩 극진히 닐러 | 도로 | 보내시믈 미덧습니. 對馬島主 |
| (0808b6) | 니어니와 對馬島主의 힘으로도 | 도로 | 보낼 일이 못 될다 니르시면 출 |
| (0517b4) | 오르셔 흥리나 쉬시고 빅-들토 | 도로 | 시과다 問安하시딩이다. 예-씩 |
| (0610b2) | 란 귀-흥 일도 업시 終日 겨셔 | 도로켜 | 서의-흥온가는 너기옵거니와 |
| (0816b2) | 흥 가지오면 손을 디접-흥시미 | 도로켜 | 어렵소이 너기오와 廻引흥오니 |
| (0908a1) | 히 와 겨셔 너모 慰勸흥신 御禮 | 도로켜 | 붓그러온 次第흥편디 또 회례 |
| (0610b6) | 옵더니 御慰勸흥신 말씀-것티 | 도로혀 | 붓그럽스왕이다. 爰元 出船 이 |
| (0314b3) | 히 너기디 말고 千年이나 가- | 도록 | 오래 볼 양으로 흥세야 아릅답 |
| (0921b1) | 계오 五六年도 못 흥디 그대- | 도록 | ㅁ옵 덜리 싱각디 마소. 日本 ㅁ |
| (0530a2) | 키. 미리 이러-흥가 녀겨 그대- | 도록 | 술왔더니마는 이리 니르시니 흥 |
| (0620a1) | 녀. 흥면 그러곰 흥올가? 그대- | 도록 | 싱각-흥실 작시면 엇디 슈고로 |
| (0106b3) | 는 일이오니 샤-흥옵소. 이대- | 도록 | 거르기 니르디 아니셔도 자네 |
| (0811a6) | ㅁ으로 教습이 이실 식야 이대- | 도록 | 니르논가 너기닝이다. 우리 가 |
| (0417a6) | ㅁ도 見습도 계실 일인디 이대- | 도록 | 바회에 몬 박드시 마르시고 이 |
| (0525b1) | ㅁ도 日本 풍속을 아오니 이대- | 도록 | 세치 아니 니르시다 엇디 열현 |
| (0521b5) | 소. 익 므스 일이옵관디 이대- | 도록 | 어렵사리 니르옵시논고? 그야 |
| (0422b3) | 니 束의셔 곁힐 작시면 이대- | 도록 | 페로이 솟스올가? 그저 그저 우 |
| (0910a1) | 니어니와 더 若衆들의-게 밤-새- | 도록 | 거룩이 부소를 회이치더라 드 |
| (0825a1) | -와 흥농이다. 振舞흥 바는 되- | 도록 | 스양코져 너겟드니마는 자네도 |
| (0423a2) | ㅁ 못기 쉬울까 너기옵니. 니르- | 도록 | 니르-도록 뒤호로 가는 듯 흥 |
| (0423a3) | 까 너기옵니. 니르-도록 니르- | 도록 | 뒤호로 가는 듯 흥 붓 가지미 |
| (0918a5) | 는 디 길 네느니 ㅁ-흥여 니기- | 도록 | 뒤호로 므느는 듯 흥여 자네- |
| (0702a3) | 흥온가? 筑前殿 地界 두 참이- | 도록 | 거르기 격기-흥신디 흥믈며 이 |
| (0704a1) | -흥거니와 고을로써 두 참이- | 도록 | 多人 中의 격기 날분 디 업고 |
| (0831b2) | 셔 손을 드러 이 번 일은 니르- | 도록 | 니르-도록 아름다운 御禮 몸애 |
| (0831b3) | 키 이 번 일은 니르-도록 니르- | 도록 | 아름다운 御禮 몸애 나마 心底 |
| (0601a4) | 使를 請흥여 상접-홈이라. 솟- | 도록 | 솟-도록 아름다운 일은 兩國 |
| (0601a4) | 여 상접-홈이라. 솟-도록 솟- | 도록 | 아름다운 일은 兩國 安泰히 誠 |
| (0408a6) | 그는 슬오려니와 홈의 三隻- | 도록 | 엇더-흥올고? 자넨-네 借船으 |
| (0317a5) | 오늘은 자넨-네로 흥여 主人의 | 도리틀 | 출혀 권-흥 양으로 왔스오니 |
| (0907a4) | 의 깃름이 노외야 업서 亭主의 | 도리의 | 술을 디내 먹고 아프리 흥여 도 |
| (0111b4) | 이 흥여 떠덜습논고? 水木船이 | 뚫기 | 사오나와 떠덜습니. 오늘 아침 |
| (0825a1) | ㅁ롭다와 흥농이다. 振舞흥 바는 | 되 | -도록 스양코져 너겟드니마는 |
| (0413a6) | ㅁ머 더 흥연논고 헤아려 無事히 | 되게 | 분별-홈이 웃듬이옵도쇠. 니르 |
| (0424a5) | 는. 送使는 텃텃-흥여 이러트시 | 되기 | 어려이 페로이 굴모로 東萊入 |
| (0909b3) | 를 웃듬으로 니르시니 이 一段 | 되기 | 어려온 所望이옵도쇠. 昨夜는 |
| (0618b4) | 권 江戸에 들러도 우리 그른 디 | 되기는 | 눈에 알피라 흥여 가지 가지 니 |
| (0427a2) | ㅁ니커니와 우리도 흥나 둘히셔 | 되디 | 못 흥 거시니 送使의 談合흥여 |
| (0423b2) | 날을 저므를 쑤으로는 公儀는 | 되디 | 아니코 이 민망을 비-흥디 업 |
| (0509a2) | 그러흥면 往來 九日十日이나 | 되려니와 | 또 셔울서 返事 출히기에 二日 |
| (0920a2) | ㅁ작-흥여 이제 불서 十年나마 | 되야시되 | 진실로 이만 흥면 흥되 싱각-흥 |
| (0412a2) | 木花 사오나와 公木의 大切히 | 되야시든 | 자넨-네도 아릅심 겨시리. 즈 |
| (0913b5) | 못 흥고 붓그림을 모로논 거시 | 되얏스오니 | 아프려나 모다 내 樣子를 思分 |
| (0315a3) | 長老와 島主는 이 나라 臣下 | 되엿스오니 | ㅁ룻 일을 엇디 열현이 흥리 |

| | | | | |
|----------|--------------------|-------|--|---------------------|
| (0915b2) | 숨이나 헉시면 즉시 생각 대로 | 되오몬 | | 쉬울 써시니 이리 술오물 휴지 |
| (0822b4) | 시면 옛-마지 극진-흠이 해일 | 되올가 | | 너기오니 아프리거나 出船 日 |
| (0802a3) | 니 大君 드르시면 우리 그림이 | 되올까 | | 하 민망-헉와 그 雜物에 小判 |
| (0429a4) | 헉읍소. 萬事 ㅁ음 대로 못 헉여 | 되츄디 | | 못 헉는 바는 게나 예나 혼 가 |
| (0913a2) | 잘 읊디 못 헉고 알고도 無道히 | 된 | | 仕습 붓쓰러오미 海山 ㅁ티 너 |
| (0528a4) | 혀 批判홀 적이면 슈괴 허일이 | 될가 | | 이러트시 구읍닉. 太守 니르시 |
| (0808b6) | 의 힘으로도 도로 보낼 일이 못 | 될다 | | 니르시면 출하리 자네 바다서 |
| (0427a4) | 거시니 送使의 談合헉여 아못 | 도로나 | | 도홀 양으로 홀 거시니 아직 大 |
| (0303a3) | 이제다 병 빗치 거시니 모로매 | 도리 | | -헉읍소. 니것따소이다. 病 中 |
| (0917a1) | 자네 나토 저므서 뵈고 말겔도 | 도쓰오니 | | 자네-네 ㅁ트신 분 五六 人만 |
| (0613a2) | 아르쇼셔. 닥일은 구름 브트미 | 도쓰오니 | | 藍島-ㅅ지는 브트실까 아릅다 |
| (0310a1) | ㅁ 썸 들기를 禮를 삼습새. ㅁ장 | 도쓰오니 | | 그리 헉읍싸이다. 앓가는 서르 |
| (0712a5) | 작시면 信使도 冠帶를 헉여야 | 도쓰올 | | 디 다만 冠帶 헉시미 도홀가 시 |
| (0719a6) | 이라도 출홀 디 보시는 날 흠의 | 도쓰올 | | 디 자네 그 쯔을 드저오려 생각 |
| (0830b6) | 가지니 그저 예서 도라 가시미 | 도쓰왕이다 | | . 니르니 太守 술오몬 출하리 ㅅ |
| (0901b3) | 엇더-헉올고? 어와 어와 ㅁ장 | 도쓰외 | | . 이러로서 묻져 술오려 생각- |
| (0621a1) | 켜리다 자네-게 맞디오니 홀 시 | 도케 | | 헉쇼셔. 참-마다 비에 느리시 |
| (0403a5) | 道理를 正官도 분별 두서 氣味 | 도케 | | 직간-헉읍소. 니르시는 바 判事 |
| (0516a3) | 게 헉읍소. 오늘은 구름 가기도 | 도코 | | 브름도 도히 부러시니 수이 비 |
| (0326b4) | 이다. 니르시드시 오늘은 날도 | 도코 | | 서르 종용-헉여 우리도 깃거 헉 |
| (0813b1) | 는디 쏘 닥일 날세 구름 가기도 | 도타 | | 니르오니 아프 일-도곤 大慶이 |
| (0814a4) | 깃거 헉는디 쏘 닥일 구름 가 | 도타 | | 니르시니 一定 그러면 더욱 더 |
| (0306a4) | 읍것마는 다 먹습니다. 술이 | 도토 | | 아니 헉오니 권키 어렵습것마는 |
| (0117b4) | 직라도 어근나면 아프의 회도 | 도티 | | 아니 헉오니 브딤 내읍소. 그리 |
| (0304a2) | 점 헉리는 듯 헉읍건마는 채는 | 도티 | | 아니 헉오니 이제라도 녀녀-헉 |
| (0203b5) | 헉녕이다. 오늘은 折節 天氣도 | 도하 | | 쥬용히 말슴-헉니 깃거 헉읍닉 |
| (0826a4) | 브러 가오리. 오늘은 마즘 天氣 | 도하 | | 진실로 遠路에 나라 일을 못고 |
| (0711b6) | 오니 헉튼 안쥬로 디점-헉시미 | 도홀까 | | 시프외. 쏘 더 使 信使를 위- |
| (0410a5) | ㅁ스온고? 다 도라 즈세 보시고 | 도흠 | | 사오나옴을 니르읍소. 예서 잠 |
| (0608b2) | ㅁ 멈쳐 쏘 귀-흔 집-긔지 경의 | 도흠이 | | 뿔을 펴고 쏘는 어리로온 아하 |
| (0217b2) | 고 잇습니다. 드르니 正官이 | 도화파 | | 헉니 오늘은 보올가 너기읍닉. |
| (0218a1) | ㅁ. 약도 먹고 뽕도 헉여 이제는 | 도화습니다 | | . 이제 쏘 보올 거시니 종용되 |
| (0517a3) | ㅁ읍닉. 對馬島主의로셔 술오몬 | 도흔 | | 天氣에 예-ㅅ지 브트시니 아릅 |
| (0404b3) | ㅁ 보채엿습더니 맛당이 너기셔 | 도히 | | 못즈오니 아릅다와 헉니다. ㅁ |
| (0108b3) | 누-흔 구름 가기도 잇고 브름도 | 도히 | | 부러시니 多分 비가 올 거시니 |
| (0516a4) | 늘은 구름 가기도 도코 브름도 | 도히 | | 부러시니 수이 비를 낼 양으로 |
| (0304b3) | 걸려 헉읍닉. 都船主도 요스이 | 도히 | | 거시던가? 전의는 처음으로 보 |
| (0216a6) | 오리. 釜山浦 니르시몬 요스이 | 도히 | | 계시던가? 엇디 혼 디 일이 만 |
| (0832a5) | 今度는 御裁判을 ㅁ 彼此 首尾 | 도히 | | 못좁고 서르 하딤 아릅다왕이다 |
| (0518b3) | ㅁ조이로 왓습닉. 마즘 년-헉여 | 도흔 | | 天氣에 예-ㅅ지 건너시니 아프 |
| (0502a4) | 드읍소. 어와 어와 아릅답스외. | 도흔 | | 天氣에 御仕습이읍도쇠. 府中 |
| (0204b3) | 너 가 말슴-헉올고 너기읍더니 | 도흔 | | 일은 多魔라 니르미 진실로이 |
| (0614b1) | 송이다. 아직 출형의 이러트시 | 도흔 | | 날을 만나시니 이 앓흔 萬事 |
| (0614a3) | 르오니 부부 出船헉읍새. 마즘 | 도흔 | | 順風에 옛-ㅅ지 브트시니 大慶 |
| (0318b3) | 게요 출혀 안갓습니다. 日本 | 도흔 | | 술을 자시다가 이 술의 취-헉 |
| (0427a5) | 送使의 談合헉여 아못 도로나 | 도홀 | | 양으로 홀 거시니 아직 大廳의 |
| (0711a2) | 이나 이셔야 도홀 디 자네 아라 | 도홀 | | 양으로 헉소. 이러로서도 묻져 |
| (0710b6) | 고? 잔이나 내는 일이나 이셔야 | 도홀 | | 디 자네 아라 도홀 양으로 헉소 |
| (0715a4) | 저긔 御禮 술을 줄을 잘 아라셔 | 도홀 | | 양으로 술와 주쇼셔. 關伯으로 |
| (0812a1) | ㅁ 더령 패를 생각-헉면 마라도 | 도홀 | | 듯 헉건마는 다만 앓가 니르시 |
| (0718a1) | 친-헉야 아릅다왕이다. 우히도 | 도홀 | | 양으로 御禮을 술와 주쇼셔. 우 |
| (0205b6) | ㅁ 아니 보올까? 그 뵈는 병이 | 도홀 | | 일도 잇스올 써시니 아니 뵈오 |
| (0719b4) | 디 자네 그 쯔을 드저오려 생각 | 도홀 | | 양으로 괴겔-헉시소. 쏘 드린 |
| (0408b4) | 닉-네 借船으란 미쳐 보내여도 | 도홀가 | | 너기읍닉. 보낼 짐을 출혀 보와 |
| (0712b1) | 야 도쓰올 디 다만 冠帶 헉시미 | 도홀가 | | 시프외. 그러면 冠帶도 헉읍새. |
| (0613b5) | . 괴별-헉심 ㅁ티 닥일은 天氣 | 도홀가 | | 시브다 여긔 사름도 니르니 |
| (0807a5) | 생각은 亭主헉는 대로 헉시미 | 도홀가도 | | 너기읍닉. 쏘 내 힘으로 더 使 |
| (0720b5) | 켜 썸 후에 信使 가시게 헉면 | 도홀까 | | 시프다 헉니 그리 흠을 判事네 |
| (0417b3) | 고 이 번은 브딤 時分을 헤아려 | 도흠 | | 구즘을 군말 엄시 잡습소. 아프 |
| (0810b6) | ㅁ 이도 구경-헉실 양으로 앓가 | 두 | | 분-씩셔 권-헉야 니르오니 이 |

| | | | |
|----------|--------------------|-------|--------------------|
| (0714b2) | 서히 술오려 혼 일어로소이다. | 두 | 분을 예-식지 극진히 무로시미 |
| (0704a1) | 님도 무식-헝거니와 고을로써 | 두 | 참이-도록 多人 中의 격기 난흔 |
| (0209b4) | 소. 과즐도 늦게 괴왔고 건물도 | 두 | 가지 업고 雞子도 헝나히 업고 |
| (0702a3) | 헝면 그리헝온가? 筑前殿 地界 | 두 | 참이-도록 거르기 격기-헝신드 |
| (0427b5) | 셔 여러 필을 일하시니 쏘 밧긔 | 두고 | 番홀 사름도 업고 엇디 헝올고 |
| (0315b2) | 므로 長老의 덜의 朝鮮 御牌를 | 두고 | 常常 節句 日마다 拜禮를 헝느 |
| (0425a2) | 시러 헝르 스이 두락 잇틀 스이 | 두락 | 왕닉-헝니 사름이나 므쇼나 엇 |
| (0425a2) | 木들도 므쇼게 시러 헝르 스이 | 두락 | 잇틀 스이 두락 왕닉-헝니 사름 |
| (0819b1) | 그리 아읍소. 쏘 海上 遠路에 | 두로 | 쓰려 예-식지 無事히 온 우회 |
| (0604b5) | 修日 노르시고 내 집 지은 것도 | 두로 | 보시고 느죽-헝여 도라 가지게 |
| (0103b3) | 너기실가 氣遣호니 萬事의 | 두로 | 쓰리시를 미들 쏘름이읍도쇠. |
| (0914a3) | 다 내 樣子를 思分호셔 萬事를 | 두로 | 쓰리시를 미더습니다. 자네 |
| (0403a4) | 늘은 右之 道理를 正官도 분별 | 두셔 | 氣味 도케 직간-헝읍소. 니르 |
| (0801b6) | 지 스양-헝오완마는 굿-헝야 | 두시니 | 마디 못 헝여 두엇더니 大君 드 |
| (0801b2) | 믄 信使씩셔 격기에 나믄 雜物 | 두실 | 적의 가지 가지 스양-헝오완마 |
| (0427b3) | 의 드러 두읍소. 전의도 大廳의 | 두어셔 | 여러 필을 일하시니 쏘 밧긔 두 |
| (0515a4) | 니근 사름 十五 人을 差定호야 | 두어시니 | 느죽-헝야 一 船 二 船 三 船- |
| (0801b6) | 굿-헝야 두시니 마디 못 헝여 | 두엇더니 | 大君 드르시면 우리 그룹이 되 |
| (0803b6) | 시 이시니 출하리 이나 정으로 | 두엇더니 | 쏘 싱각 반씩 金子를 예지이 보 |
| (0524a1) | 볼쑈 사오나오니 마즘 모단을 | 두엇습더니 | 三使 아회-들의 옷 옷슬 헝여 |
| (0606a5) | 건마는 이 구석의 다락 小園을 | 두엇습더니 | 게 가서 茶를 자읍시고 혼 빼 |
| (0125a3) | 양으로 헝오려니와 즈세히 더거 | 두읍소 | 뎡-헝여 주는 거슬 술온 거시 |
| (0328b5) | 몬져 代官네-씩 출히라 닐려 | 두읍소 | 그러면 모로 雨天 브터 시작- |
| (0427b1) | 로 홀 거시니 아직 大廳의 드러 | 두읍소 | 전의도 大廳의 두어셔 여러 |
| (0408a3) | 헝여 三 隻이읍도쇠. 미리 술와 | 두읍소 | 그는 술오려니와 홀씩 三 隻- |
| (0427a2) | 르든 아니커니와 우리도 헝나 | 둘히셔 | 되디 못 홀 거시니 送使의 談合 |
| (0508b3) | 萊 니르시기는 므장 세춘 사름 | 둘홀 | 밤-낫 올라 갈 양으로 헝라코 |
| (0620b1) | 싱각-헝쇼셔. 다만 너일 出船의 | 뒤버므릴 | 작시면 中官 以下란 올리디 말 |
| (0423a3) | 기읍닉. 니르-도록 니르-도록 | 뒤호로 | 가는 듯 혼 뵈 가지미 어와 어 |
| (0918a5) | 길 네느니 굿-헝여 니기-도록 | 뒤호로 | 므느는 듯 헝여 자네-네 日本 |
| (0602a2) | 對坐호는 일 곰곰 싱각-헝면 | 둥간 | 티 아니케 잇기 어려운 일인가 |
| (0904b4) | 와 朝鮮 料理면 자네-네 뵈에 | 드디 | 아닐까 의심-헝거니와 다만 노 |
| (0114a3) | 이제 오는 법도 잇건마는 밤이 | 드러 | 되디 못 헝니 형혀 아모 되 붓 |
| (0918b3) | 자네-네 日本말 헝시를 드르면 | 드러 | 아든 못 헝여도 神妙히 너기 |
| (0831b1) | 어 나아 서르 장방 우회셔 손을 | 드러 | 이 번 일은 니르-도록 니르-도 |
| (0127b6) | 엇디 혼 디 오며셔 브터 쏘 뎡 | 드러 | 머글 엇도 잘 못 먹고 누엇소 |
| (0202a3) | 반가이 보올가 녀겼습더니 뎡 | 드러 | 몸 난다 헝니 므장 섭섭호외. |
| (0910a3) | 도록 거름이 부소를 희이치더라 | 드러시니 | 이 혼 허물로 싱각-헝읍거니와 |
| (0113a1) | 아므 되 붓터셔도 오늘날 밤이 | 드러시니 | 너일 듯보와 보읍소. 그 비 슈 |
| (0117b6) | 크디 내읍소. 그리 헝음새. 밤이 | 드러시니 | 아직 御酒 헝나 자읍소. 下口 |
| (0910b3) | 이 너비 므음아디 못 헝면 후의 | 드럼죽디 | 아니 헝니 내-게 맞디쇼셔. 다 |
| (0502b6) | 는 바는 信使 건너실 양으로 | 드럿거니와 | 어닉 들 어닉 날 셔울을 떠나셔 |
| (0410b4) | 束에 자블 公木이 十 端 남죽이 | 드럿고 | 나므니는 一 端도 자블 公木이 |
| (0116a5) | 보읍새. 그리 헝오려니와 김피 | 드럿스오니 | 別혼 일도 업스오니 너일 보 |
| (0130b1) | 헝읍거니와 正官 昨晚 브터 뎡 | 드럿스오니 | 자네-게 다시 술을 스이도 업 |
| (0903a4) | 예 혼 振舞 라 니르시니 고디 | 드럿습더니 | 싱각 밧씩 御馳走 쏘 아니라 |
| (0124b4) | 대 열과 공석 五六 枚만 몬져 | 드려 | 주읍소. 글란 이제 東萊 술와 |
| (0406b6) | 호오니 公木 五十 束만 몬져 | 드려 | 주읍소. 너일 東萊 올라 가 모 |
| (0427b1) | 양으로 홀 거시니 아직 大廳의 | 드려 | 두읍소. 전의도 大廳의 두어셔 |
| (0421b3) | 여 반만 자브시면 그 밧근 念을 | 드려 | 너일이라도 드릴 거시니 엇디- |
| (0409a3) | 귀별을 읊소오리. 아직 公木을 | 드려 | 주읍소. 그리 헝읍소. 註進홀 |
| (0325a3) | 양으로 가오려니와 아직 公木을 | 드려 | 주읍시면 몬져 가는 비에 보 |
| (0411a2) | 이 업스와. 이런 公木은 아모만 | 드려도 | 잘 잡디 못 홀 거시니 수이 내 |
| (0409b4) | 소. 그리 헝오리. 公木 五十 束 | 드려스오니 | 나 가 보와 잡읍소. 이 公木이 |
| (0217b2) | 劍官들-씩 니르고 잇습니다. | 드르니 | 正官이 도화파 헝니 오늘은 보 |
| (0302b1) | 헝도다 너기읍니다. 전 브터 | 드르니 | 뎡 드르시다 듯고 녀너-헝터 |
| (0505a3) | 신가 녀겼더니 니르시는 말을 | 드르니 | 수이 아니티 몬 홀 일이오니 대 |
| (0806b2) | 크디-헝올고 앓가 스설-헝시를 | 드르며 | 이리 읊는 일을 일뎡 힘 아니 |
| (0918b1) | 헝여 자네-네 日本말 헝시를 | 드르면 | 드려 아든 못 헝여도 神妙히 너 |
| (0705b4) | 트시 극진히 行下호시니 太守 | 드르셔도 | 過分타 헝셔 感激히 녀기시 |

| | | | | |
|----------|--------------------|-------|--|--------------------|
| (0131a4) | 죽-흥면 나고져 너기오되 東萊 | 드르셔도 | | 양병이라는 너기디 아니 흥실 |
| (0302b2) | 기웁넉이다. 전 브터 드르니 병 | 드르시다 | | 듯고 넘너-흥웁더니 어딴을 알 |
| (0802a1) | 니 마디 못 흥여 두엇더니 大君 | 드르시면 | | 우리 그룹이 되올까 하 민망-흥 |
| (0521b2) | 오소 흥여 술와시니 종용히 잘 | 드르시소 | | . 이 므스 일이웁판디 이대-도 |
| (0129b2) | 못 흥 거시니 비록 正官이 병 | 드르실 | | 띠라도 茶禮는 卒度之 間이오니 |
| (0424b3) | 견디디 못 흥 일은 五日 雜物 | 드리기에 | | 스나히는 지고 겨집은 이고 날 |
| (0424b5) | 이는 지고 겨집은 이고 날-마다 | 드리는 | | 公木들도 므쇼게 시러 흥르 스 |
| (0211a1) | 이웁도쇠. 무려 보와 이제라도 | 드리라 | | 흥웁새. 우리도 日記를 보고 솟 |
| (0527b3) | . 불관-흥 거시라도 장만-흥여 | 드리려 | | 흥올고? 信使를 모셔 갈 작시면 |
| (0407a4) | 넉일 東萊 올라 가 모되-쓰음 | 드리려니와 | | 므슴 빅 몇 척이나 가웁는고? - |
| (0415a3) | 카다 곳 너기시면 내여 가 마라 | 드리실까 | | ? 早速 못디 못 흥면 飛船 즈음 |
| (0211b2) | 帳枕 以下 物을 催促흥여 수이 | 드리웁소 | | . 또 大廳地衣도 놀가 다 하야- |
| (0411b2) | 어히 업시 니르십이야. 五十 束 | 드린 | | 公木을 다 나쁘라고 엇디 흥려 |
| (0416a2) | 너기시는 일은 어딴서 五十 束 | 드린 | | 公木을 半分도 아니 잡고 나여 |
| (0125a1) | 는. 글란 이제 東萊 술와 보내야 | 드릴 | | 양으로 흥오려니와 주세히 더가 |
| (0325b4) | 은 내 친히 보와 ㅁ장 吟味흥여 | 드릴 | | 거시니 代官네-씩 하 굴히디 못 |
| (0421b4) | 그 밋근 念을 드려 넉일이라도 | 드릴 | | 거시니 엇디-흥올고? 자넉의 |
| (0209b1) | 前規에 잇는 일이니 判事네 잘 | 드르시소 | | . 과즐도 늦게 괴왔고 건물도 드 |
| (0609b6) | 쇼셔. 이도 술의 타시로송이다. | 드문 | | 信使의 御馳走 오면 心中의는 |
| (0302a3) | 넉이다. 이전의도 뵈올 씨술 병 | 드오와 | | 딘시 뵈웁디 못 흥오와 本意를 |
| (0307a1) | 실 씨시니 아웁시드시 오래 병 | 드오와 | | 이제 잠깐 흥련스오되 다리 힘 |
| (0713a4) | 使 예-씩지 왔넉이다. 여기 | 드웁소 | | . 使 술오른 후호로서 니르시는 |
| (0502a1) | 웁소. 御使는 아웁웁도쇠. 이리 | 드웁소 | | . 여와 여와 아웁답스외. 道호 |
| (0127b4) | 흥오리. 다만 正官이 본딴 병 | 드 | | 사름이웁더니 엇디 흥 디 오며 |
| (0217a5) | 뵈웁고 니즌 스이 업시 僉官 | 드 | | -씩 니르고 잇습넉이다. 드르니 |
| (0803a5) | 主의 니르시는 바는 격기 奉行 | 드 | | 드리고 오래 슈고-흥던 아래 사 |
| (0506a1) | 를 내웁소. 어제는 東萊로서 밤 | 드게야 | | 도라 와 보웁도 못 흥외. 東萊 |
| (0309b5) | 자서 禮 어려오니 당테로 잔 쉰 | 드기틀 | | 禮를 삼습새. ㅁ장 道々오니 그 |
| (0418a4) | 아쁘려도 흥 테 업스오니 代官 | 드도 | | 가지 가지 싱각-흥건마는 별로 |
| (0102b3) | 事네도 同道흥야 오쇼셔. 代官 | 드도 | | 흥 고대 잇습넉. 아웁답스외. 이 |
| (0423b5) | 을 비-흥 디 업스외. 아직 代官 | 드도 | | 他國 일이라 싱각 말고 곰곰 싱 |
| (0514a3) | 흥웁넉. 니르시드시 朝鮮 船頭 | 드도 | | 來日은 日吉利 이실 듯 하디 니 |
| (0322a4) | 獵 看品도 못 흥엿고 封進 雜物 | 드도 | | 올려 가야 京으로서 返禮의 返 |
| (0424b5) | 은 이고 날-마다 드리는 公木 | 드도 | | 므쇼게 시러 흥르 스이 두락 잇 |
| (0317b5) | 가. 御意 감격-흥여이다. 우리- | 드도 | | 술을 一切 못 흥웁건마는 하 먹 |
| (0822b2) | 일이나 인는 양으로 家中 견- | 드도 | | 너길 작시면 옛-ㅁ지 극진-흥 |
| (0828b6) | 매 더욱 써 아릅다이 너겨 술- | 드도 | | 불서 취-흥야스오니 도라 가고 |
| (0321a1) | 요스이 머므시면 덩-흥 연향- | 드도 | | 다 못고 종용히 겨시다가 가실 |
| (0918a1) | 니기기 쉬오니라 니르믈 고디 | 드러터니 | | 아쁘리 흥여도 어두온 디 길 네 |
| (0618b2) | 셔 바르디 나시다 흥면 江戶에 | 드려도 | | 우리 그른 디 되기는 눈에 알피 |
| (0712b6) | 도 소임의-게 그 스경을 닐러 | 드리소 | | . 江戶로서 御使 예-씩지 왔 |
| (0104a1) | 당의 말슴이어니와 말슴-것치 | 드럼죽 | | -흥외. 우리-게 미드시는 일은 |
| (0216a1) | 니 나실 제 니르고 가웁소. 代官 | 드 | | 아랫습거니와 다시 니르고 가 |
| (0404a1) | 아니 흥웁넉. 在前 브터 代官 | 드의 | | -게도 申畝흥여 隨分 念入흥여 |
| (0910a1) | 싱각디 못 흥거니와 더 若衆 | 드의 | | -게 밤-새-도록 거룩이 부소 |
| (0909b1) | 리. 다만 므웁의 걸리기는 若衆 | 드의 | | 연고를 웃듬으로 니르시니 이 |
| (0523b4) | 못 흥고 압히 브리시는 아히- | 드의 | | 衣裳이 사오나오면 그 불꼴 사 |
| (0623b5) | 덩 下人 中 東西도 모로는 것- | 드 | | 못히 느려 振舞 적이나 萬事에 |
| (0210a5) | 기 주세 아올고? 일 모로는 것- | 드 | | 일덩 닛고 그리 흥 일이웁도쇠. |
| (0825b5) | 흥는 사름은 엇디 상해 불려 | 드디 | | 아니 흥신고? 그 날란 니르시미 |
| (0517b4) | 넉터 오르셔 홀리나 쉬시고 빅- | 드토 | | 도로 시과다 問安흥시덩이다. |
| (0419a1) | 事네 엇더케 너기시는고? 代官 | 드흔 | | 자넉-네 하 다스리시고 또 우리 |
| (0905b1) | 소. 기둥의도 놀래 브르든 若衆 | 드희 | | 연고 업기틀 전위-흥엿습넉. 흥 |
| (0809a3) | 다셔 슈고-흥던 對馬島 사름- | 드희 | | -게나 주시소. 信使 大坂의 브 |
| (0803b1) | 고 오래 슈고-흥던 아래 사름- | 드희 | | 별로 포-흥 일도 업서 마즘 雜 |
| (0106b6) | 자네 처엄 일이신 거시니 代官 | 드히 | | 모시디 아냐는 못 흥 일이어니 |
| (0326a2) | 니르웁소. 그는 判事네과 代官 | 드히 | | 얼현이 아니 흥오리. 마즘 종용 |
| (0513a2) | 이실 듯 흥다 흥니 朝鮮 사름- | 드흔 | | 프어시라 니르웁는고? 우리는 |
| (0119a6) | 을 기리시니 깃브웁거니와 고디 | 드 | | 아니 흥외. 저기 아라 듯즈울쑈 |
| (0617a6) | 당은 흥웁거니와 그리 니르실 | 드 | | 흥 일을 알고 信使-씩 솟디 아 |

| | | | | | |
|----------|---------------------|--|--------|--|--------------------|
| (0623a2) | 이다. 니르시는 양이 그러도 홀 | | 듯 | | 흐면 路次의 일란 자네-게 맞듯 |
| (0422a1) | !더-흐울고? 자네의 여러 말을 | | 듯건대 | | 아프리라도 흐고져 흐건마는 |
| (0302b2) | }. 전 브터 드르니 병 드르시다 | | 듯고 | | 넘너-흐옵더니 어딴 알파 흐 |
| (0313a2) | ㅍ特 혼 직간이라 니르니 우리도 | | 듯고 | | ㅍ장 아롭다와 흐니이다. 올소! |
| (0827b2) | 4다. 더 귀-흐 풍뉴-돌도 어미 | | 듯고 | | 거르기 귀히 너겨 깃세라 흐오 |
| (0604a5) | 떠나실 吉日은 郡郡에 괴별을 | | 듯고 | | 定홀 썬시오니 열현티 아니 흐. |
| (0316a2) | 왕낙예 보고 사름-마다 니름을 | | 듯고 | | 朝廷도 ㅍ장 일크르시느니이다 |
| (0906a3) | ㄴ리는 어리로온 얼굴과 놀래를 | | 듯고 | | 축슈만 위-홀 썬름이오니 의심 |
| (0824a3) | 더니 朝鮮 풍뉴를 브름 틈으로 | | 듯고져 | | 브라오니 풍뉴-흐는 사름을 기 |
| (0327b4) | 를 다 잘 흐더라 기리시니 우리 | | 듯기도 | | 더욱 깃브옵데. 어제는 술을 ㅍ |
| (0912a3) | 삼스울쇼? 모로미 모로미 고디 | | 듯디 | | 마옵소. 이전의도 내 여귀 와서 |
| (0113a2) | 도 오늘은 밤이 드르시니 닉일 | | 듯보와 | | 보옵소. 그 빅 슈종을 너머셔 ㅍ |
| (0119b2) | 1디 들든 아니 흐외. 저기 아라 | | 듯즈울쏸가 | | ? ㅍ장 춤히 通흐옵시니. 술란 |
| (0204a6) | 울 적 브터 東萊 극진-흐시물 | | 듯좁고 | | 언제 건너 가 말썬-흐울고 너가 |
| (0605a6) | 신 振舞 終日 아롭다운 御難談 | | 듯좁고 | | 즈못 거륵-흐 술을 흐고 나그니 |
| (0208b2) | 이다. 그리 니르시물 고디 아니 | | 듯좁넌 | | . 日本이면 이를 가지고 ㅍ장 ㅍ |
| (0508a5) | 짐작이 계실 썬시오니 니르옵소. | | 듯좁새 | | . 어제 東萊 니르시기는 ㅍ장 ㅍ |
| (0510a2) | 왔습넌. 구-흐시는 대로 나쁜 | | 디 | | 업시 불기도 왔스오니 깃브외. |
| (0107a5) | 네 혼자 가셔도 인스당의 낮븐 | | 디 | | 업스니 送使의 對面흐면 奇特 |
| (0320b3) | 島홀 양으로 브라느이다. 오션 | | 디 | | 오래디 아냐 限도 머러시니 요 |
| (0301a4) | 東萊계셔 니르시든 御渡海흐션 | | 디 | | 오래되 서르 보옵디 몬 흐오니 |
| (0318a3) | 하 먹과다 니르시니 그러흐온 | | 디 | | ㅍ장 취-흐오되 正根을 계요 ㅍ |
| (0202b5) | 빅예 이치여 오오니 그러흐온 | | 디 | | 밥도 일절 먹디 몬 흐고 누어 ㅍ |
| (0309a2) | 술 먹디 아니 흐오니 그러흐온 | | 디 | | 본딧 오래 서기 잘 못 흐외와 ㅍ |
| (0815a4) | 흐얏든디 우리의 情이 던-흐인 | | 디 | | 이리 祝願흐시니 아모의 果報 |
| (0208b6) | 검죽이 잘 달호련마는 엇디 혼 | | 디 | | 예는 달호기를 잘 못 흐여 이리 |
| (0127b5) | 디 병 든 사름이옵더니 엇디 혼 | | 디 | | 오며셔 브터 쏘 병 드러 머글 ㅍ |
| (0216a6) | 호스이 도히 계시던가? 엇디 혼 | | 디 | | 일이 만하 問安도 즈로 ㅍ디 못 |
| (0308b4) | 를 禮예 삼스오리잇가? 엇디 혼 | | 디 | | 日本 사름은 肉食 테잇 거슬 먹 |
| (0317a6) | 권-홀 양으로 왔스오니 그러흐 | | 디 | | 술도 내 ㅍ음을 바다 그러흐가 |
| (0712a5) | 信使도 冠帶를 흐셔야 도썬울 | | 디 | | 다만 冠帶 흐시미 도홀가 시프. |
| (0719b1) | 출홀 디 보시는 날 흠의 도썬울 | | 디 | | 자네 그 ㅍ을 드저오려 싱각 도 |
| (0719a5) | 1러면 進物을 來日이라도 출홀 | | 디 | | 보시는 날 흠의 도썬울 디 자네 |
| (0105a2) | 와 쏘 送使다히셔는 엇디 녀길 | | 디 | | ㅍ음의 걸리오니 자네-네 送使 |
| (0602a4) | ㅍ기건마는 三使는 엇디 녀기실 | | 디 | | 아직 아직 아롭답스와 흐닝이 |
| (0710b6) | 이나 내는 일이나 이셔야 도홀 | | 디 | | 자네 아라 도홀 양으로 흐소. ㅍ |
| (0520b6) | 니 근심 마르시고 一二 日이나 | | 디나 | | 중용커든 보옵새이다. 判事네- |
| (0622b2) | }. 그리 아로쇼셔. 이 앓히 바르 | | 디나 | | 섬죽-흐 곳으란 스양 아니 흐 |
| (0328a6) | 울쇠. 그는 그러커니와 二三 日 | | 디나거든 | | 銅 鑑 看品 홀 썬시오니 문져 代 |
| (0112a2) | 오늘 아춤 구름이 머흐더니 낮 | | 디나마 | | 브터 비 뿌리고 브름이 사오납 |
| (0523a4) | 對馬島主 솔오디 信使 우다히 | | 디나실 | | 제 이틀 사홀 길흐로서도 구경 |
| (0705a1) | 이다. 筑前主 분부-흐시든 信使 | | 디나실 | | 적의 아프려나 디접-흐올 양으 |
| (0306b4) | 잘 흐시는 술이옵도쇠. 잔수는 | | 디낫스오나 | | 일덩 立酌흐실 썬시오니 아옵시 |
| (0206a4) | 시니 아니 뵈오렁잇가? 巡杯는 | | 디낫습거니와 | | 처음으로 보옵고 하 섬섬흐오니 |
| (0907a4) | 외야 업서 亭主의 도리의 술을 | | 디내 | | 먹고 아프리 흐여 도라 가심도 |
| (0807a2) | 奉行들의 술설도 信使 스설의 | | 디디 | | 아니 흐오니 내 싱각은 亭主 |
| (0619a1) | 2니 비록 오르시기 슈고롭스울 | | 디라도 | | 더-들히 페를 허스되게 흠도 ㅍ |
| (0130a1) | 견디디 못 흐거든 문져 니르실 | | 디라도 | | 내 迷惑을 프르시과다. 니르시 |
| (0430a3) | }. 그지 업스매 내 친히 番을 홀 | | 디라도 | | 밤-새물 기도로울 썬시오니 닉일 |
| (0916b2) | 썬시오니 자네-네도 내 망발-홀 | | 디라도 | | 샤-흐시물 一入 미덧습넌이다. |
| (0302a4) | 이전의도 뵈울 썬술 병 드오와 | | 딘시 | | 뵈옵디 몬 흐오와 本意를 背 |
| (0404a4) | 도 申畚흐여 隨分 念入흐여 잘 | | 드라 | | 건넌 양으로 닉릿습넌. 나라 일 |
| (0105a5) | 음의 걸리오니 자네-네 送使의 | | 드리 | | 가셔 萬事를 주션-흐야 나의 ㅍ |
| (0803a5) | 의 니르시는 마는 격기 奉行들 | | 드리고 | | 오래 슈고-흐던 아래 사름-들 |
| (0607b2) | }.니 진실로 식양코져 흐건마는 | | 드리신 | | 사름의 지조를 보라 흐시니 이 |
| (0606b5) | 옵시고 흐 빠 수여 가옵시면 나 | | 드린 | | 저른 것-들홀 띄놀려 뵈옵고져 |
| (0719b6) | 도홀 양으로 괴걸-흐시소. 쏘 | | 드린 | | 사름-들토 다는 폐로를 썬-흐 |
| (0811b6) | 구경-흐고 도라 오든 썬썬이와 | | 드린 | | 사름을 이렇 더렁 페를 싱각-흐 |
| (0719b2) | }. 흠의 도썬울 디 자네 그 ㅍ을 | | 드저오려 | | 싱각 도홀 양으로 괴걸-흐시소 |
| (0329a5) | }. 썬시오니 아프려나 看品坐의셔 | | 드토디 | | 아니케 직간-흐옵소. 捷解新語 |

| | | | | |
|----------|---------------------|---|------|--------------------|
| (0213a3) | 와 더른 날의 東萊 釜山浦에 가 | 돈 | 나 | 와서 代官房의셔 談合할 일들 |
| (0705a4) | 의 아프려나 디접-항을 양으로 | 돈 | 돈이 | 분부-항여 계시건만는 의골 일 |
| (0508b6) | 밤-낮 올라 갈 양으로 항라코 | 돈 | 돈이 | 닐러 겨시니 그러헌면 往來 九 |
| (0708b4) | 야 禮홀 제 술오려 항닉. 장쉬 | 돈 | 돈이 | 분부-항야 계시오니 젓싸오나 |
| (0324a1) | 야-항닉이다. 우리 나라는 禮 | 돈 | 돈 항여 | 호 번 덩-호 후는 고티디 아니 |
| (0511b4) | 리라 니르옵는고? 서울은 아므 | 돌 | | 아므 날 썬나셔 釜山浦의는 아 |
| (0511b6) | 므 날 썬나셔 釜山浦의는 아므 | 돌 | | 아므 날 브트셔 목기는 二十四 |
| (0612a3) | 處의 일 출힐 덧도 헤아려 아므 | 돌 | | 아므 僻 對馬島를 떠나실 양으 |
| (0611a3) | 붓그릅스왕이다. 爰元 出船 이 | 돌 | | 十五 日이라 하니 일딩 그러하 |
| (0503a2) | 키실 양으로는 드렛거니와 어닉 | 돌 | | 어닉 날 서울을 떠나셔 어닉 썬 |
| (0523a6) | -홀 길호로서도 구경-홀 사름- | 돌 | | 모다셔 朝鮮 풍속은 아디 못 항 |
| (0827a5) | 祝願하시과다. 더 귀-홀 풍뉴- | 돌 | 도 | 어미 듯고 거르기 귀히 너겨 깃 |
| (0805a5) | 니 숲기도 어렵습썬니와 奉行 | 돌 | 의 | 스설-항옵썬는 信使의셔 거스 |
| (0806b6) | 으로 너기실 듯 항거니와 奉行 | 돌 | 의 | 술설도 信使 스설의 디디 아니 |
| (0608b4) | 득을 펴고 쏘는 어리로운 아회- | 돌 | 의 | 썬노는 양과 놀래 썬은 모로거 |
| (0524a4) | 모단을 두엇습더니 三使 아회- | 돌 | 의 | 웃 웃슬 항여 니피려 항오니 그 |
| (0802b5) | 키디 거스리디 말고 아래 사름- | 돌 | 의 | -게나 주실 양으로 항옵쇼셔. |
| (0808a5) | 싱각-항여 보시소. 江戶에 반 | 돌 | 이나 | 무거 슈고-항던 下人의-게 준 |
| (0719b6) | 리 기걸-항시소. 쏘 드린 사름- | 돌 | 토 | 다는 폐로울 썬-항니 덜고져 항 |
| (0911a2) | 시게 숲는 일이언마는 이 若衆 | 돌 | 흔 | 유여-호믈 웃듬으로 항니 귀- |
| (0606b5) | 여 가옵시면 나 드린 저믈 것- | 돌 | 홀 | 삿놀려 뵈옵고져 항닝이다. 이 |
| (0614b6) | 이다. 接待예 겹기-항는 낭반- | 돌 | 히 | 방샤를 부러 출혀 오르시게 굿 |
| (0619a3) | 르시기 슈고롭스올 디라도 더- | 돌 | 히 | 폐를 허스되게 흠도 여히 업습 |
| (0621b2) | -리디 아니 항시면 겹기 사름- | 돌 | 히 | 민만-흠믈 그지 못 홀 일이오니 |
| (0423a3) | -도록 니르-도록 뒤호로 가는 | 듯 | | 호 썬 가지미 어와 어와 어히 업 |
| (0918a5) | 항여 니기-도록 뒤호로 므느는 | 듯 | | 항여 자네-네 日本말 항시믈 드 |
| (0303b6) | 습과 僻 저기 그쳐 점점 항리는 | 듯 | | 항옵건만는 채는 도티 아니 항 |
| (0402b5) | 면 이러트시 出入이 엇디 아닐 | 듯 | | 항디 그 홀 시를 三장 未審히 나 |
| (0806b5) | 경 힘 아니 쓰는 양으로 너기실 | 듯 | | 항거니와 奉行들의 술설도 信使 |
| (0107b5) | 우리의 썬으로 보텔 바는 이실 | 듯 | | 아니 항건만는 모시거란 항오려 |
| (0513a1) | 天氣 樣子 일딩 順風이 이실 | 듯 | | 하다 항니 朝鮮 사름-들흔 므 |
| (0514a5) | 船頭들도 來日은 日吉利 이실 | 듯 | | 하다 니르니 그러면 出行의 아 |
| (0514b5) | 닉. 그러면 게셔도 日吉利 이실 | 듯 | | 하다 니르옵노쇠. 아프려나 그 |
| (0131b3) | 시니 자닉 그르다는 아니 항실 | 듯 | | 항오려. 이는 내 스스로 숲는 므 |
| (0812a1) | 키 폐를 싱각-항면 마라도 도홀 | 듯 | | 항건만는 다만 앓가 니르시는 |
| (0908a6) | 항시옵는고? 맛당히 스양-홀 | 듯 | | 호 일이언마는 朝鮮 썬과 고믈 |
| (0114a4) | 드러 뵈디 못 항니 항혀 아모 | 딕 | | 붓터도 東萊 釜山浦에 술와 方 |
| (0112b6) | 키 이제야 왓습닉. 떠딘 비 아므 | 딕 | | 붓터셔도 오늘은 밤이 드러시니 |
| (0918a3) | 들렛더니 아프리 항여도 어두온 | 딕 | | 길 네느니 굿-항여 니기-도록 |
| (0704a3) | 잡이-도록 多人 中의 격기 날분 | 딕 | | 업고 이 밧기는 바다도 비도 조 |
| (0618b4) | 항면 江戶에 들려도 우리 그른 | 딕 | | 되기는 눈에 알피라 항여 가지 |
| (0826b4) | 하디-항는 양 아롭다오미 나믈 | 딕 | | 업스되 그러커니와 오늘에 다 |
| (0406b3) | 장 잘 출히옵소. 요스이 僻 가는 | 딕 | | 보내려 싱각-항오니 公木 五十 |
| (0821b3) | 시니 그리 못 항올 일은 험-항 | 딕 | | 건너 온 비를 몬과 밥도 고티노 |
| (0610a2) | 御馳走 오면 心中의는 비-홀 | 딕 | | 업건만는 썬의 일이란디 心中의 |
| (0722a3) | 마이 업습고 우리 늦치 비-홀 | 딕 | | 업시 아롭다이 너기닝이다. 三 |
| (0918b6) | 기옵닉. 이리 부러-호믈 비-홀 | 딕 | | 업스니 일딩 니기시는 비밀-항 |
| (0423b4) | 되디 아니코 이 민망을 비-홀 | 딕 | | 업스외. 아직 代官들도 他國 일 |
| (0920b3) | 니르시는 바는 日本말을 비-홀 | 딕 | | 업슨 양으로 기리시니 일딩 과 |
| (0721b1) | 키제는 城에서 인스당이며 萬事 | 딕 | 답 | -항는 양이 三장 올히 항신 바 |
| (0423a6) | 시 아라 게시외. 서르 니르거니 | 딕 | 답거니 | 날을 저므를 썬으로는 公儀는 |
| (0526b6) | 극진히 엇즈와 보오리. 자닉-네 | 딕 | 답이 | 불셔 겹-항는 양이로직 엇디 항 |
| (0623b1) | -게 맞딜 거시니 보슬퍼 아므 | 딕 | 도 | 페 아니케 아라 항쇼셔. 이리 술 |
| (0603a1) | 가 이러트시 아롭다운 일 아므 | 딕 | 도 | 호 가지옵노쇠. 우리의 슈고를 |
| (0816a6) | 는 나의 굿브를 헤아리매 아므 | 딕 | 도 | 호 가지오면 손을 디접-항시미 |
| (0520a1) | 는 바는 보오믈 술을 썬슬 계신 | 딕 | 도 | 서의-항고 굿 브트셔 굿바도 항 |
| (0905a5) | 호 거슬 가지여 오옵새. 모드신 | 딕 | 도 | 알외여 주옵소. 기뵈옵고 놀래 |
| (0520b2) | - 넘녀-항신 使 옵노쇠. 인는 | 딕 | 도 | 넘녀-항시모로 三장 조출-항 |
| (0419a4) | -리시고 쏘 우리-게도 밧비 뵈 | 딕 | 도 | 이셔 이리 술오니 이 우히는 다 |
| (0618a1) | 니르키는 江戶로셔 信使 겨실 | 딕 | 도 | 극진이 항고 참참이 못히 請하 |

| | | | | |
|----------|---------------------|-------|--|--------------------|
| (0905b6) | 혀 이리 술오믈 석새와 너기실 | 되도 | | 겨실까 ㄹ장 첫슴거니와 다만 |
| (0817b6) | 아름다오미 서르 同前히 깃븐 | 되로송이다 | | . 진실로 太守 路次 處處의 슈고 |
| (0705a3) | 믄 信使 디나실 적의 아프려나 | 되접 | | -흥을 양으로 돈돈이 분부-흥 |
| (0711b5) | 섬섬홀 뜻 흥오니 헛튼 안주로 | 되접 | | -흥시미 도홀까 시프외. 쏜 더 |
| (0204b6) | 로이로소이다. 오늘은 이러특시 | 되접 | | -흥시믈 가 正官씩 니르오면 보 |
| (0305a4) | 터 처음으로 뵈오되 하 극진히 | 되접 | | -흥읍시니 술을 양도 업서이다 |
| (0816b1) | 개 아프 되도 흥 가지오면 손을 | 되접 | | -흥시미 도로켜 어렵소이 녀기 |
| (0716a1) | 올커니 너일도 보오련마는 먼 | 되 | | 使 시니 尋常히 못 흥 일이니 |
| (0129b2) | 거시니 비록 正官이 병 드르실 | 떠라도 | | 茶禮는 卒度之 間이오니 나셔 |
| (0204b3) | 고 너기읍더니 도흔 일은 多魔 | 라 | | 니르미 진실로이로소이다. 오늘 |
| (0722a5) | 기닝이다. 三奉行이 어제 御禮 | 라 | | 흥야 對馬島主로써 읍는 일은 |
| (0815b1) | 이리 祝願흥시니 아모의 果報 | 라도 | | 公儀 서르 못고 예-식지 오온 |
| (0624a5) | 니 小小흥 일이어든 中官 以下 | 란 | | 못히 올리기를 말고져 흥니 엇 |
| (0620b3) | 의 뒤버프릴 작시면 中官 以下 | 란 | | 올리디 말미 엇더-흥울고? 이터 |
| (0823a1) | 너기오니 아프리커나 出船 日 | 란 | | 亭主의-게 맞디시고 아직 아직 |
| (0429a2) | 기 아니터 몯 흥 썬시모로 今夜 | 란 | | 브되 番을 흥읍소. 萬事 ㅁ읍 더 |
| (0828a5) | 로 닐르시드시 兩國 誠信之 故 | 로 | | 귀-흥 곳을 구경-흥 분 아니라 |
| (0831a4) | 술 信使씩서 구터여 말리는 故 | 로 | | 太守 빅를 저어 나아 서르 정 |
| (0125b1) | 주는 거술 술온 거시 아니라 別 | 로 | | 술와 주실가 흥여 술왓습닉. 그 |
| (0722b1) | 이 어제 御禮라 흥야 對馬島主 | 로써 | | 읍는 일은 어제는 對面흥읍고사 |
| (0109a4) | 아니 흥여도 뵈면 즉시 釜山浦 | 로서 | | 우리-게 기별을 니를 거시니 二 |
| (0327a4) | 을 흥시니 깃브외. 東萊 釜山浦 | 로서 | | 正官과 都船네 樣體 심상티 |
| (0213b1) | 웃습홀 일돌이나 相談흥면 送使 | 로서 | | 이러셔는 오라 더려셔는 아니 |
| (0701a2) | 六終 捷解新語 第七 筑前 太守 | 로서 | | 예-식지 無事히 오시다 흥셔 더 |
| (0505b5) | 이 書契를 내읍소. 어제는 東萊 | 로서 | | 밤 들게야 도라 와 보읍도 못 흥 |
| (0121b4) | 셔도 일현이 아니 흥오리. 東萊 | 로서 | | 앗가 도라 왓습닉. 東萊겨셔도 |
| (0713a1) | ㄹ 그 스경을 닐러 들리소. 江戸 | 로서 | | 御使 예-식지 왓넛이다. 여고 |
| (0617b5) | 기-흥는 분-네 니르기는 江戸 | 로서 | | 信使 겨실 되도 극진이 흥고 침 |
| (0709b4) | 뵈오며셔 信使씩 술오믈 江戸 | 로서 | | 信使씩 問安의 어룬의 官員 二 |
| (0707a5) | 치 筑前殿의 그지 업스신 道理 | 로소이다 | | . 몬져 읍드시 스양-흥고 밧디 |
| (0709a4) | 흥시니 민망-흥읍건마는 行下 | 를 | | 존녕이다. 信使 吉田에 留홀 |
| (0211a3) | 도 드리라 흥읍새. 우리도 日記 | 를 | | 보고 읍스오니 이 후란 이러터 |
| (0116b3) | 보읍소. 그는 그러커니와 書契 | 를 | | 내 친히 보고 자네-네 姓名을 |
| (0116a2) | 인스 몰라 아릭 누어습닉. 書契 | 를 | | 내셔든 보읍새. 그리 흥오려나 |
| (0117a2) | 浦에 술와 注進홀 거시니 書契 | 를 | | 내읍소. 우리 일흠은 아뢰읍도 |
| (0505b4) | 을 쉼 양으로 흥읍새. 수이 書契 | 를 | | 내읍소. 어제는 東萊로써 밤 들 |
| (0203a5) | 잇스오니 민망-흥여이다. 書契 | 를 | | 보니 島中 無事흥시니 아름다오 |
| (0703a2) | 心得흥고 使를 여긔 보내소. 使 | 를 | | 블러 니르시는 바는 녀녀-흥셔 |
| (0702b6) | 니는고? 右之 道理 心得흥고 使 | 를 | | 여긔 보내소. 使를 블러 니르시 |
| (0712a1) | 도홀까 시프외. 쏜 더 使 信使 | 를 | | 위-흥야 冠帶를 홀 작시면 信使 |
| (0808a2) | 시거니와 문제 브터 읍던 道理 | 를 | | 잘 싱각-흥여 보시소. 江戸에 |
| (0712a5) | 冠帶를 홀 작시면 信使도 冠帶 | 를 | | 흥셔야 도쑈올 디 다만 冠帶 흥 |
| (0712a2) | 더 使 信使를 위-흥야 冠帶 | 를 | | 홀 작시면 信使도 冠帶를 흥셔 |
| (0309b5) | 켜오니 당테로 잔 쑤 들기를 禮 | 를 | | 삼습새. ㄹ장 도쑈오니 그리 흥 |
| (0704b2) | 이과 흥 가지니 使 아라 御禮 | 를 | | 술오시소. 첫슴거니와 알외녕이 |
| (0302a6) | 와 딘시 뵈읍디 몯 흥오와 本意 | 를 | | 背흥도다 너기읍넛이다. 전 브 |
| (0526a2) | 름의 불골도 저티고 상시 行儀 | 를 | | 웃듬-흥는 규귀오니 엇줍기는 |
| (0807b2) | 너기읍닉. 쏜 내 힘으로 더 使 | 를 | | 自由히 ㄹ읍아디 못 흥 일ियो |
| (0601a3) | 語 第五終 捷解新語 第六 三使 | 를 | | 請흥여 상접-흠이라. 읍-도록 |
| (0527b5) | 만-흥여 드리려 흥울고? 信使 | 를 | | 모셔 갈 작시면 사름-마다 기리 |
| (0214a3) | 호디 못 흥여 민망-흥외. 送使 | 를 | | 보셔도 차례로 보시면 뒤 雜言 |
| (0804a3) | 로 두엇더니 쏜 싱각 받씩 金子 | 를 | | 예지이 보내노라 흥여시니 자네 |
| (0818b2) | 니 江戸 奉行씩로써 보낸 金子 | 를 | | 자네 피신 사름의-게 네믈을 흥 |
| (0528b3) | 太守 니르시는 道理 前後 樣子 | 를 | | 극진히 三使씩 열즈오니 三使 |
| (0415b2) | 힘 쓰읍소. 아프리 시절의 樣子 | 를 | | 스셜-흥여도 代官네도 아라시 |
| (0805a1) | 기 아닌 전의 奉行씩서 이 樣子 | 를 | | 술오라코 닐러 왓던디 몬져 이 |
| (0120b3) | 춤은 東萊 올라 가 送使의 樣子 | 를 | | 읍고 올 거시니 좋용히 쉬읍소. |
| (0914a1) | 스오니 아프려나 모다 내 樣子 | 를 | | 思分흥셔 萬事를 두로 쓰리시 |
| (0327b2) | 體 심상티 아냐 奇特흥 相指 | 를 | | 다 잘 흥더라 기리시니 우리 듯 |
| (0123b3) | 보내올 거시니 자넛도 小通事 | 를 | | 몬져 보내여 보고 가읍소. 앓가 |

| | | | | | |
|----------|--|--|------|--|--|
| (0914a3) | 모다 내 樣子를 思分 ^히 서 萬事 | | 둘 | | 두로 쓰리시믈 미더습네이다. |
| (0105a6) | 네-네 送使의 드려 가서 萬事 | | 둘 | | 쥬선- ^히 야 나의 심소를 나타나 |
| (0126a2) | 죽진이 술오려니와 자너도 單字 | | 둘 | | 써 보내옵소. 글란 그리 ^히 오리 |
| (0921b4) | 소. 日本 八 箇 道內 六十六 州 | | 둘 | | 分 ^히 다. 아직 五 畿內는 山城州 |
| (0510b3) | 今日 帛를 내올 써시니 그 返書 | | 둘 | | 수이 가지여 오옵소. 생각 밧고 |
| (0606a6) | 小園을 두엇습더니 게 가서 茶 | | 둘 | | 자옵시고 ^히 빠 수여 가옵시면 |
| (0612a5) | 해아려 아므 들 아므 帛 對馬島 | | 둘 | | 떠나실 양으로 닐러시니 이제 |
| (0601b1) | 는 일은 兩 國 安泰히 誠信之 道 | | 둘 | | 서르 던- ^히 여 이제 쏘 三使 |
| (0315b2) | ^히 므로 長老의 덜의 朝鮮 御牌 | | 둘 | | 두고 常常 節句 日마다 拜禮를 |
| (0901b1) | 니 우음 바탕으로도 회츠 振舞 | | 둘 | | ^히 고져 ^히 오니 엇더- ^히 울고? |
| (0823b3) | 이吉日이오니 모되 하디 振舞 | | 둘 | | ^히 오니 御案內 아뢰닝이다. 글 |
| (0802b2) | 와 그 雜物에 小判 金子 百 枚 | | 둘 | | 밧고와 보내오니 브디 거스리 |
| (0908b3) | 鮮 썩과 고믈저은 안쥬의 珍味 | | 둘 | | 싱각- ^히 매 인스당도 아므 것도 |
| (0124b1) | 새 파락- ^히 야 누추- ^히 니 一夜 | | 둘 | | 계유 堪忍 ^히 엿스오니 큰 대 열 |
| (0108a6) | 의 二 番 特送이 豊崎서 日吉利 | | 둘 | | 기드리더라 닐러 와시니 오늘 |
| (0403a2) | 기옵네. 어와 오일은 右之 道理 | | 둘 | | 正官도 분별 두서 氣味 豆케 직 |
| (0132b1) | 커커니와 게서 힘 빠 이런 道理 | | 둘 | | 東萊의 엿즈와 닐일 브디 홀 양 |
| (0617a2) | 아르서 接待 ^히 는 분-네-의 禮 | | 둘 | | 술와 주쇼셔. 니르시는 道理 맛 |
| (0308a5) | 나. 立酌을 ^히 실 작시면 일덩 禮 | | 둘 | | 背홀가 너기옵더니 안즈라 니 |
| (0815a2) | 넌 일인가? 이러로서 內內 御禮 | | 둘 | | 술오려 싱각- ^히 얏든디 우리의 |
| (0315b4) | 를 두고 常常 節句 日마다 拜禮 | | 둘 | | ^히 느닝이다. 그리 홈을 島中 왕 |
| (0414a4) | 나-네 눈에도 보실디 어히 업다 | | 마다 | | 니르시는 바 아므려도 不審 ^히 오 |
| (0120a2) | ^히 옵시네. 술란 ^히 마 마옵소. 하 | | 마다 | | 니르시니 아직 앓줍새. 내 이제 |
| (0312a6) | 글 잘 ^히 매 朝廷으로셔도 書契 | | 마다 | | 보시고 ㅁ장 기리시고 쏘 島主 |
| (0315b4) | 朝鮮 御牌를 두고 常常 節句 日 | | 마다 | | 拜禮를 ^히 느닝이다. 그리 홈을 |
| (0313b5) | 실가 너겨 聞습을 위- ^히 여 ^히 - | | 마다 | | 올라 가느니이다. 어와 즈로 우 |
| (0310b3) | 客人을 위- ^히 야 고디시기 잔- | | 마다 | | 다 먹고 문져 취- ^히 엿건마는 이 |
| (0311b1) | 출 보쇼셔. 머그라 니르신 잔- | | 마다 | | 먹습고 正體 업습건마는 이 蠶 |
| (0424b5) | 나히는 지고 겨집은 이고 날- | | 마다 | | 드리는 公木들도 ㅁ쇼게 시러 |
| (0915a5) | 그림으란 모로는 테- ^히 고 날- | | 마다 | | 여기 와서 말습이나 ^히 시면 즉 |
| (0916a4) | 우히는 붓그림을 저티고 날- | | 마다 | | 와서 우음 바탕으로도 싱각- ^히 |
| (0621a4) | 디오니 홀 시 도케 ^히 쇼셔. 참- | | 마다 | | 빅에 느리시기 어렵기는 ㅁ고ㅁ |
| (0527b6) | 信使를 모셔 갈 작시면 사름- | | 마다 | | 기려야 우리의 面目도 이실디 |
| (0918a1) | ^히 영이다. 나도 日本말을 사름- | | 마다 | | 니기기 쉬오니라 니르를 고디 |
| (0316a2) | 홈을 島中 왕님께 보고 사름- | | 마다 | | 니름을 듯고 朝廷도 ㅁ장 일 |
| (0415a1) | 이 公木을 端端이 굴활까? 그를 | | 마다 | | 곳 너기시면 내여 가 ㅁ라 드리 |
| (0521a5) | 용커든 보옵새이다. 判事네-의 | | 마다 | | 못 홀 미드려 ^히 는 일이 이셔 |
| (0801b6) | 야- ^히 오완마는 곳- ^히 야 두시니 | | 마다 | | 못 ^히 여 두엇더니 大君 드르시 |
| (0404a6) | 으로 닐렀습네. 나라 일이란디 | | 마다 | | 못 ^히 여 보채엿습더니 맛당이 |
| (0812a1) | 를 이렇 더령 폐를 싱각- ^히 면 | | 마라도 | | 도홀 듯 ^히 건마는 다만 앓가 니 |
| (0206b5) | 를 과히 ^히 엿스오니 그만 ^히 야 | | 마르쇼셔 | | . 그러커니와 나의 스스ㅁ 정윳 |
| (0118a4) | 御酒 ^히 나 자옵소. 下口ㅣ오니 | | 마르쇼셔 | | . 對馬島셔도 자너는 上口ㅣ신 |
| (0319b5) | 습는 일이오니 그리곰 너기디 | | 마르쇼셔 | | . 쇼인 섬으로서 올 적의 오래 |
| (0609b2) | 코 니러 나오니 무디히 너기디 | | 마르쇼셔 | | . 이도 술의 타시로송이다. 드 |
| (0529b5) | 너모 ㅁ디 아닌 일이오니 글란 | | 마르쇼셔 | | . 미리 이러-홀가 너겨 그대-도 |
| (0417a6) | 이대-도록 바회에 묻 박디시 | | 마르시고 | | 이 번은 브디 時分을 해아려 도 |
| (0114b6) | 올 거시니 근심 마옵소. 열현이 | | 마르시고 | | 닐일 부루 츠즈쇼셔. 그리 ^히 울 |
| (0816b5) | 이 녀기오와 廻引 ^히 오니 허믈 | | 마르시고 | | ㅁ장 ㅁ옵 편히 쉬신 후의 祝願 |
| (0520b6) | 늘- ^히 야 ㅁ옵 편히 쉬오니 근심 | | 마르시고 | | 一二 日이나 디나 종용커든 보 |
| (0209a3) | 를 잘 못 ^히 여 이러- ^히 니 허믈 | | 마르시소 | | . 습디 아닐 일이엇마는 前規에 |
| (0921b1) | 이 그대-도록 ㅁ옵 떨리 싱각디 | | 마소 | | . 日本 八 箇 道內 六十六 州를 |
| (0119b6) | 장 츠히 通 ^히 옵시네. 술란 ^히 마 | | 마옵소 | | . 하 마다 니르시니 아직 앓줍 |
| (0504b3) | -호믈 위-홈이니 심상히 아디 | | 마옵소 | | . 그러면 이런 줄은 모로고 맛 |
| (0915b4) | 써시니 이리 술오믈 휴지 삼디 | | 마옵소 | | . 극진이 권- ^히 심 아므 일-도 |
| (0912a3) | 을쇼? 모로미 모로미 고디 듯디 | | 마옵소 | | . 이전의도 내 여기 와서 자네- |
| (0114b3) | 方 彼此의 츠즈올 거시니 근심 | | 마옵소 | | . 열현이 마르시고 닐일 부루 |
| (0818b6) | 게 네믈을 ^히 오니 모로미 스양 | | 마옵소 | | . 전 브터 습디시 우리는 문 바 |
| (0118b2) | ㅣ신 줄 聞及 ^히 엿스오니 斟酌 | | 마옵소 | | . 하 니르시니 ^히 나 먹소오리. |
| (0501a5) | 第五 이논 ㅁ슴 빅온고? 信使 | | 마즈라 | | 온 御使 빅옵도셔. 그러면 使者 |
| (0519a2) | 곤 아름다와 ^히 옵닝이다. 멀리 | | 마즈심 | | 滿足 ^히 양이다. 니르시디시 天 |

| | | | |
|----------|--------------------|------|----------------------|
| (0826a4) | 아냐 다 더브러 가오리. 오늘은 | 마즈 | 天氣 豆하 진실로 遠路에 나라 |
| (0614a3) | 도 니르오니 早早 出船 ㅎ 읍새. | 마즈 | 豆흔 順風에 옛-썅지 브트시니 |
| (0803b4) | 름-들희 별로 포-홀 일도 업서 | 마즈 | 雜物 나쁜 거시 이시니 출하리 |
| (0524a1) | 아오나오면 그 불썰 사오나오니 | 마즈 | 모단을 두엿습더니 三使 아희- |
| (0326a5) | 代官들히 열현이 아니 ㅎ오리. | 마즈 | 종용-ㅎ여 더령 이령 읍스오니 |
| (0518b3) | 다. 對馬島主 맛조이로 왓습닌. | 마즈 | 년-ㅎ여 도흔 天氣에 예-썅지 |
| (0304a5) | 라도 넘너-ㅎ느이다. 그 약은 | 마즈 | 다 쓰고 적게 보내고 뿔에 걸려 |
| (0201a4) | 二 東萊 니르심은 건너신 날은 | 마즈 | 사오나온 브람의 다 無事히 渡 |
| (0518a4) | 이 감격키 너기놓이다. 우리는 | 마즈 | 順風의 無事히 붓즈오니 깃거 |
| (0503a6) | 친고 ㅎ야 우리 兩 人을 불의예 | 막쳐 | 건네여 겨시니 자네-네 이 뿔을 |
| (0820a5) | 뵈을 거슬 ㄹ바 ㅎ읍실가 問安 | 만 | 슬왓습더니 色色 御慰懃히 너기 |
| (0917a3) | 니 자네-네 ㄹ트신 분 五六 人 | 만 | 계시과다 다 원-ㅎ몬 兩 國의 |
| (0406b6) | 라려 싱각-ㅎ오니 公木 五十 束 | 만 | 묻져 드려 주옵소. ㄹ일 東萊 ㅎ |
| (0512a2) | 날 브트셔 목기논 二十四五 日 | 만 | ㅎ셔 出船 吉日은 來月 十二三 |
| (0207a3) | 스스스 정윳 잔이오니 이 一 杯 | 만 | 잡습소. 大切의 御意오니 예셔 |
| (0124b3) | 오니 큰 대 열과 공석 五六 枚 | 만 | 묻져 드려 주옵소. 글란 이제 ㄹ |
| (0828b2) | 경-홀 분 아니라 이런 接待의 | 만나 | 海上의 시름도 퍼매 더욱 뼈 이 |
| (0113b3) | 더디온가? 거의 다 와셔 惡風을 | 만나 | 큰 비예 격군도 적고 비예 연장 |
| (0812b6) | ㄹ 힘-홀 海路의 ㅎ르도 惡風을 | 만나디 | 아니코 多人 中 아므 일도 업시 |
| (0426a2) | 기 前後의 업슨 일이니 내 죄예 | 만나쁜 | 관겨티 아니커니와 전두의 ㅎ |
| (0614b1) | 직 출형의 이러트시 도흔 날을 | 만나시니 | 이 얹흔 萬事 ㅁ음 편-ㅎ까 |
| (0122b1) | 도 보내시더니 왓습던가? 앓가 | 만났습닌 | . 먼디 극진이 軍官을 보내여 ㅁ |
| (0421a2) | 官네 이러트시 ㅁ음 대로 ㅎ다 | 만다 | ㅎ면 誠信의 회이침으로 너기 </td |
| (0509b1) | 이나 ㅎ면 더되여도 十二三 日 | 만의논 | 올가 다 헤아리옵데. 그리 아라 |
| (0611b2) | 안헤논 吉日이 업스온가? ㅎ릴 | 만정 | 수이 ㅎ고져 ㅎ니 엿더-ㅎ운고 |
| (0212a6) | 보내오리. 친히 보와 술을 말이 | 만컨마는 | 요스이 일절 예는 오디 아니 ㅎ |
| (0216b1) | 히 계시던가? 엿디 ㅎ 디 일이 | 만하 | 問安도 즈로 ㅎ디 못 ㅎ니 일딩 |
| (0303b1) | 파소이다. 病 中의 귀-ㅎ 약을 | 만히 | 주시매 덕분의 먹습고 글로 브 |
| (0319b2) | 을 너모 먹습고 젓스온 말습을 | 만히 | ㅎ온가 너기느이다. 이도 술이 |
| (0920a6) | 조곰도 업서 常常 이룰 ㄹ오출 | 만ㅎ논 | 날을 자네 니르시는 바는 日本 |
| (0522a1) | 아리 니르옵시논고? ㅎ암죽-ㅎ | 만ㅎ | 일이오면 엿디 열현이 ㅎ령잇 |
| (0622a1) | 오닝이다. ㅁ 中官 以下 올리디 | 말 | 일을 니르신 대로 스썰-ㅎ여도 |
| (0921a4) | 우소온 일이옵도쇠. 자네 日本 | 말 | ㅁ화 시작-호미 게오 五六 年 |
| (0918b1) | ㅁ르논 듯 ㅎ여 자네-네 日本 | 말 | ㅎ시를 드르면 드려 아든 ㅁ ㅎ |
| (0914b2) | 장 보드랍고 ㅁ 인스당 ㅎ시는 | 말 | 거동이 진실로 日本 톱오니 다 |
| (0917a1) | ㄹ이다. 자네 나토 저트셔 뵈고 | 말견도 | 豆하오니 자네-네 ㄹ트신 분 ㅁ |
| (0524b5) | 이리오니 내 술오매 기드로드 | 말고 | 잘 주션-ㅎ야 썅럼 업게 직간- |
| (0314b1) | ㅁ 일예 브터도 심상히 너기디 | 말고 | 千 年이나 가-도록 오래 볼 양. |
| (0802b3) | 고와 보내오니 브딕 거스리디 | 말고 | 아래 사름-들의-게나 주실 양. |
| (0824b1) | 오니 풍뉴-ㅎ논 사름을 기디디 | 말고 | 더 브르시게 밋줍닝이다. 어와 |
| (0320a2) | 인 섬으로써 올 적의 오래 목디 | 말고 | 수이 도라 오라 島主 ㄹ장 분 |
| (0423b6) | 직 代官들도 他國 일이라 싱각 | 말고 | 곰곰 싱각-ㅎ여 보옵소. 送使는 |
| (0624b1) | 돈 中官 以下란 못히 올리기를 | 말고져 | ㅎ니 엿더-ㅎ고? 아므리커나 |
| (0912b2) | ㅁ셔 자네-네 指南을 어더 저기 | 말도 | ㅎ더니마는 常常 ㅁ디 아니모 |
| (0325b6) | ㅁ 거시니 代官네-ㅁ 하 곱히디 | 말라 | 니르옵소. 그는 判事네과 代官 |
| (0101a4) | 히 이러 오라. 네 代官의 가 내 | 말로 | “그적기 여기 ㄹ려 와 어제라도 |
| (0818a4) | ㅁ 路次 處處의 슈고-ㅎ신 樣子 | 말로 | 다 못 ㅎ 일리로송이다. 별로 ㅎ |
| (0815b4) | ㅁ 서르 못고 예-썅지 오온 바를 | 말로논 | 다 ㅎ기 어려운 祝願의 일이옵. |
| (0831a4) | 나 모실 썅슬 信使의셔 구티여 | 말리논 | 故로 太守 ㅁ를 저어 나아 서 |
| (0620b3) | 릴 작시면 中官 以下란 올리디 | 말미 | 엿더-ㅎ울고? 이러나 더러다 |
| (0204b2) | ㅁ-ㅎ시를 듯줍고 언제 건너 가 | 말습 | -ㅎ울고 너기옵더니 豆흔 일은 |
| (0914a5) | ㅁ 쓰리시를 미더습닌이다. 자네 | 말습 | -것치 ㄹ장 보드랍고 ㅁ 인스당 |
| (0914b5) | ㅁ다곰 기특다코 일ㅁ줍닌디 ㅁ | 말습 | -ㅎ시는 전칙라 이리 니르시는 |
| (0104a1) | ㅁ도쇠. 인스당의 말습이어나와 | 말습 | -것치 들엄죽-ㅎ외. 우리-게 |
| (0901b6) | ㅁ져 술오려 싱각-ㅎ엿스오되 | 말습 | -ㅎ노라 떠뎛습더니 이리 니르 |
| (0204a1) | 늘은 折節 天氣도 豆하 ㅁ용히 | 말습 | -ㅎ니 깃거 ㅎ옵니. 그러ㅎ외. |
| (0307b6) | 기 못 ㅎ 썅시니 안자셔 ㅁ용히 | 말습 | -ㅎ읍새. 御意 감격-ㅎ여이다. |
| (0907a1) | ㅁ 草草 ㅎ 振舞에 ㅁ ㅁ용히 | 말습 | 달란-ㅎ시니 亭主의 깃뵈이 노 |
| (0722b5) | ㅁ은 어제논 對面 ㅎ읍고셔 서르 | 말습 | -ㅎ오매 아릅다오미 禮예 너머 |
| (0610b5) | 라 싱각-ㅎ읍더니 御慰懃 ㅎ신 | 말습 | -것티 도로혀 붓그릅스왕이다. |

| | | | |
|----------|--------------------|--------|--------------------|
| (0319b2) | 특시 술을 너모 먹습고 젓스온 | 말습을 | 만히 흥온가 너기느이다. 이도 |
| (0915a5) | 는 데-흥고 날-마다 여귀 와서 | 말습이나 | 흥시면 즉시 생각 대로 되오몬 |
| (0103b6) | 미들 색롭이옵도쇠. 인스당의 | 말습이어니와 | 말습-겻치 들엄즉-흥외. 우리- |
| (0119a4) | 시 잘 通흥시니 아릅답스외. 내 | 말을 | 기리시니 깃브옵거니와 고디 들 |
| (0422a1) | 니 엇더-흥올고? 자닉의 여러 | 말을 | 듯건대 아므리라도 흥고져 흥고 |
| (0919b6) | 흥시느고? 진실로 나도 日本 | 말을 | 니겨 시작-흥여 이제 불셔 十 |
| (0920b3) | 날을 자네 니르시는 바는 日本 | 말을 | 비-홀 디 업슨 양으로 기리시니 |
| (0917b5) | 니 감격-흥영이다. 나도 日本 | 말을 | 사롭-마다 니기기 쉬오니라 니 |
| (0505a3) | 일오신가 너겻더니 니르시는 | 말을 | 드르니 수이 아니티 몬 홀 일이 |
| (0118b6) | 니르시니 흥나 먹스오리. 자닉 | 말이 | 對馬島셔 聞及흥디시 잘 通흥 |
| (0212a6) | 흥여 보내오리. 친히 보와 술을 | 말이 | 만컨마는 요스이 일절 예는 오 |
| (0133b4) | 말이라. 거의란 말이라. 던득단 | 말이라 | 捷解新語 終 捷解新語 第二 |
| (0133b3) | 意 서어탄 말이라. 의지 업단 | 말이라 | 거의란 말이라. 던득단 말이라 |
| (0133b4) | 이라. 의지 업단 말이라. 거의란 | 말이라 | 던득단 말이라. 捷解新語 終 |
| (0133b3) | 오리. 案内는 先通之 意 서어탄 | 말이라 | 의지 업단 말이라. 거의란 말 |
| (0131b5) | 흥오리. 이는 내 스스로 읊는 | 말이어니와 | 자닉-네도 헤아려 보시쇼. 客 |
| (0825b2) | 터 니르심으로 이러나 더러나 | 맛당 | -흥실 대로 흥음새. 또 풍뉴-흥 |
| (0624b4) | 엇더-흥고? 아므리커나 자네 | 맛당 | -홀 대로 흥읍소. 捷解新語 第 |
| (0420a1) | 일은 다 슈지 사므시고 자닉-네 | 맛당 | -홀 쏜 묻져 흥시느고? 네 브터 |
| (0711a6) | 오려 흥연든디 이리 니르시미 | 맛당 | -흥여이다. 回答 니르고 그저 |
| (0202a6) | 난다 흥니 ㄱ장 섭섭흥외. 御意 | 맛당 | -흥여이다. 나토 늑고 본디 병 |
| (0525a4) | 흥-흥시쇼. 니르시는 道理 一一 | 맛당 | -흥 일이옵도쇠. 나도 日本 풍 |
| (0617a4) | 를 술와 주쇼셔. 니르시는 道理 | 맛당은 | 흥읍거니와 그리 니르실 듯 흥 |
| (0404b3) | 디 마디 못 흥여 보채엿습더니 | 맛당이 | 너기셔 도히 못즈오니 아름다 |
| (0908a6) | 거 므스 일을 흥려 흥시옵논고? | 맛당히 | 스양-홀 듯 흥 일이언마는 朝 |
| (0526a6) | 줍기는 가지 가지 주션-흥여도 | 맛당히 | 너기시디 아니실가 근심-흥읍 |
| (0507a1) | 읍소.” 흥시고 또 니르시기는 “ | 맛당히 | 수이 봄이 本意 언마는 朝廷 |
| (0415a6) | 쿠速 못디 못 흥면 飛船 즘음에 | 맛디 | 몬 홀 써시니 힘 쓰읍소. 아므리 |
| (0910b4) | 의 드림즉디 아니 흥니 내-게 | 맛디쇼셔 | . 다만 술흥여 흥시게 읊는 일 |
| (0823a1) | 므리커나 出船 日란 亭主의-게 | 맛디시고 | 아직 아직 종용히 쉬시미 本望 |
| (0620b5) | 흥고? 이러나 더러다 자네-게 | 맛디오니 | 홀 시 도케 흥쇼셔. 참-마다 비 |
| (0812a4) | 갓가 니르시는 양이면 자닉-게 | 맛디오리 | . 藍島 宿所에 太守 보오라 |
| (0623a5) | 듯 흥면 路次의 일란 자네-게 | 맛덜 | 거시니 보슬퍼 아므 디도 꽤 |
| (0518b1) | 니 깃거 흥음녕이다. 對馬島主 | 맛조이로 | 왓습니. 마즘 년-흥여 도흔 天 |
| (0504b6) | 읍소. 그러면 이런 줄은 모르고 | 맛조이면 | 너모 일오신가 너겻더니 니르 |
| (0916b2) | 각-흥을 써시니 자네-네도 내 | 망발 | -홀 디라도 샤-흥시물 一入 미 |
| (0208a6) | 고 과즐과 건물과 머글 거슬 다 | 머검즉이 | 장만-흥엿스오니 깃거 흥읍 |
| (0208b6) | 디. 日本이면 이를 가지고 ㄱ장 | 머검즉이 | 잘 달호련마는 엇디 흥 디 예 |
| (0311b1) | 기고 머그리잇가? 늦출 보쇼셔. | 머그라 | 니르신 잔-마다 먹습고 正體 |
| (0311a4) | 자읍소. 싱심이나 어이 남기고 | 머그리잇가 | ? 늦출 보쇼셔. 머그라 니르신 |
| (0128a2) | 흥 디 오며셔 브터 또 병 드러 | 머글 | 셋도 잘 못 먹고 누엿스오니 나 |
| (0208a4) | 下 조출흥고 과즐과 건물과 | 머글 | 거슬 다 머검즉이 장만-흥엿스 |
| (0320b5) | 이다. 오션 디 오래디 아냐 限度 | 머러시니 | 요스이 머므시면 덩-흥 연향- |
| (0606a2) | 가상이다. 희온 것도 업스온디 | 머므로옵기도 | 젓습건마는 이 구석의 다락 小 |
| (0320b6) | 디 아냐 限度 머러시니 요스이 | 머므시면 | 덩-흥 연향-들도 다 못고 종용 |
| (0112a1) | 와 떠덜습니. 오늘 아츰 구름이 | 머흐더니 | 낫 디나며 브터 비 뿌리고 브름 |
| (0519a5) | 흥양이다. 니르시디시 天氣도 | 머흐디 | 아냐 예-식지 오오니 이제야 |
| (0110b4) | 送이옵도쇠. 어와 어와 거르기 | 머흔디 | 아므 일 업시 건너시니 아릅다 |
| (0317a1) | 술과 거동이 ㄱ즈와이다. 잘 못 | 먹건마는 | 상히 못 흥고 오늘은 자닉-네 |
| (0310b3) | 위-흥야 고디시기 잔-마다 다 | 먹고 | 묻져 취-흥엿건마는 이도 또 |
| (0907a4) | 업서 亭主의 도리의 술을 디내 | 먹고 | 아므리 흥여 도라 가심도 즘 |
| (0217b6) | 오늘은 보올가 너기읍니. 약도 | 먹고 | 뵈도 흥여 이제는 도화습니디 |
| (0128a2) | 또 병 드러 머글 셋도 잘 못 | 먹고 | 누엿스오니 나디 몬 홀가 너기 |
| (0328a1) | 옥 깃브옵데. 어제는 술을 ㄱ장 | 먹고 | 正根 업서 도라 오니 아므리 |
| (0318a3) | 도 술을 一切 못 흥읍건마는 하 | 먹과다 | 니르시니 그러흥온 디 ㄱ장 취 |
| (0206b5) | 디 못 먹습건마는 감격-흥오매 | 먹기를 | 과히 흥엿스오니 그만 흥야 |
| (0306a1) | 자읍소. 엇디 남기렷가? 본디 | 먹디 | 못 흥읍것마는 다 먹습느이다. |
| (0203a1) | 오오니 그러흥온 디 밥도 일절 | 먹디 | 몬 흥고 누어 잇스오니 민망-흥 |
| (0309a1) | 디 日本 사롭은 肉食 데잇 거슬 | 먹디 | 아니 흥오니 그러흥온 디 본디 |
| (0310b6) | 1 묻져 취-흥엿건마는 이도 또 | 먹스오니 | 자닉-네도 이제란 이 ㄱ터 다 |

| | | | |
|----------|---------------------|--------|----------------------|
| (0118b4) | 斟酌 마음소. 하 니르시니 흥나 | 먹소오리 | . 자닌 말이 對馬島서 聞及흥나 |
| (0311b5) | 건마는 이 齣으란 御意 마티 다 | 먹소오리이다 | . 長老는 樣體 사람의 넘고 술도 |
| (0207a6) | 一切의 御意오니 예서 죽소와도 | 먹소오리이다 | . 이 齣을 보쇼셔. 하 것소이 너 |
| (0206b2) | 레 흥읍새. 쇼인-네는 본딧 못 | 먹습건마는 | 감격-흥오매 먹기를 과히 흥엿 |
| (0311b1) | 쇼셔. 머그라 니르신 잔-마다 | 먹습고 | 正體 업습건마는 이 齣으란 御 |
| (0319a6) | 기느이다. 이러트시 술을 너모 | 먹습고 | 짓스온 말숨을 만히 흥온가 너 |
| (0303b2) | 기-흥 약을 만히 주시매 덕분의 | 먹습고 | 글로 브터 알튼 가슴과 빅 저기 |
| (0306a2) | 기-? 본딧 먹디 못 흥습것마는 다 | 먹습느이다 | . 술이 도토 아니 흥오니 권키 |
| (0207b4) | 보쇼셔. 하 것소이 너기으와 다 | 먹습느이다 | . 전의는 격기엿 거시 이러티 |
| (0814b2) | 더욱 더욱 아릅답스외. 진실로 | 먼 | 海上의 예-씩지 오른 우리 일러 |
| (0716a1) | 다. 올커니 닉일도 보오련마는 | 먼 | 딛 使 시니 尋常히 못 흥 일 |
| (0713b2) | 우호로서 니르시는 바는 海上 | 먼 | 길히 無事히 오신 弼別을 거르 |
| (0122b5) | 키니 왔습던가? 앓가 만났습디. | 먼딛 | 극진이 軍官을 보내여 무르시 |
| (0519a2) | 일-도곤 아릅다와 흥읍닝이다. | 멀리 | 마즈심 滿足흥양이다. 니르시 |
| (0825a3) | 스양코져 너것드니마는 자네도 | 멀리 | 슈고-흥야 겨시니 祝願 아니 |
| (0310a4) | 그리 흥읍싸이다. 앓가는 서르 | 멀리 | 안자시니 술을 남기시를 아란 |
| (0601b3) | 서르 던-흥여 이제 쏘 三使 | 멀리 | 渡海흥서 내-게 請흥여 對坐 </td |
| (0830b3) | 三使씨로서 웨여 니르른 아쁘리 | 멀리 | 보내여도 정은 흥 가지니 그저 |
| (0821b6) | 도 二三日은 흥을 써시오 쏘는 | 멀리 | 되서 예-씩지 아릅다이 건너신 |
| (0115b5) | 은 어딴 겨시온고? 正官은 빅- | 멀미 | -흥여 인스 몰라 아리 누어습 |
| (0608a6) | 기읍더니마는 하 극진-흥시매 | 멈쳐 | 쏘 귀-흥 집-괴지 경의 도홈 |
| (0508a3) | 다 니르시니 安堵흥여 흥읍닉. | 며출만의나 | 返事 올고 짐작이 계실 써시 |
| (0904b1) | 흥오려 싱각거니와 朝鮮 料理 | 면 | 자네-네 뜻에 드디 아닐까 의 |
| (0407a6) | 모뢰-쓰음 드리려니와 므슴 빅 | 멧 | 칩이나 가읍논고? 一特送 中歸 |
| (0914a1) | 는 거시 되얏스오니 아쁘려나 | 모다 | 내 樣子를 思分흥서 萬事를 두 |
| (0913a6) | 려오미 海山 마티 너기농이다. | 모다 | 언머 서의-흥 거시라 흥 보심을 |
| (0904a1) | -흥여 밤-셋긔 뒤웃줍디. 언머 | 모다 | 우은 거시라 녀기셔냐? 이도 |
| (0523a6) | 길호로서도 구경-흥 사람-들 | 모다서 | 朝鮮 풍속은 아디 못 흥고 압회 |
| (0529b4) | 아니케 장만-흥이오려니와 그 | 모단은 | 너모 곳디 아닌 일이오니 글란 |
| (0524a1) | 오면 그 볼썰 사오나오니 마즘 | 모단을 | 두엇습더니 三使 아회-들의 웃 |
| (0905a5) | 서어-흥 거슬 가지여 오읍새. | 모드신 | 딛도 알외여 주읍소. 기둥의도 |
| (0608b6) | 기-들의 썩노는 양과 놀래 뽏은 | 모로거니와 | 풍뉴과 어우러-더 즐거오미 |
| (0504b5) | 아디 마음소. 그러면 이런 줄은 | 모로고 | 맛조이던 너모 일오신가 너것 |
| (0527a5) | 예 볼썰 사오나오면 그 作法은 | 모로고 | 내 나라 편잔은 아니온가? 우리 |
| (0623b5) | 습는 밧긔 일덩 下人 中東西도 | 모로논 | 것-들이 못히 느려 振舞 적이나 |
| (0915a3) | 다. 推量흥거니와 붓그림으란 | 모로논 | 테-흥고 날-마다 여긔 와셔 말 |
| (0913b5) | 카는 힘 대로 못 흥고 붓그림을 | 모로논 | 거시 되얏스오니 아쁘려나 모 |
| (0210a5) | 이런 일을 어이 주세 아올고? 일 | 모로논 | 것-들이 일덩 닛고 그리 흥 일 |
| (0210a4) | 시니 닛고 이러-흥가? 우리를 | 모로논가 | 녀겨 부러 이리 흥엿습는가? 우 |
| (0429b2) | 가지읍도쇠. 우리도 그런 줄은 | 모로든 | 아니컨마는 민망-호믈 뒤-게 |
| (0303a2) | 보오니 이제도 병 밧치 겨시니 | 모로매 | 도리-흥읍소. 니것따소이다. 病 |
| (0912a3) | 니면 므어슬 노름을 삼스울쑤? | 모로미 | 모로미 고디 듯디 마음소. 이전 |
| (0818b6) | 되신 사람의-게 네믈을 흥오니 | 모로미 | 스양 마음소. 전 브터 습드시 |
| (0912a3) | 어슬 노름을 삼스울쑤? 모로미 | 모로미 | 고디 듯디 마음소. 이전의도 내 |
| (0328a4) | 겍서 도라 오니 아쁘리 흥 줄도 | 모로울쇠 | . 그는 그러커니와 二三日 디 |
| (0407a4) | 려 주읍소. 닉일 東萊 올라 가 | 모뢰 | -쓰음 드리려니와 므슴 빅 멧 |
| (0823b3) | 일은 今 十五日이 吉日이오니 | 모뢰 | 하딛 振舞를 흥오니 御案内 아 |
| (0329a2) | 씩 출히라 닛러 두읍소. 그러면 | 모뢰 | 雨天 브터 시작-흥 써시니 아 |
| (0214b5) | 비와시니 그러흥외. 닉일이나 | 모뢰나 | 연고 업스신 날의 封進 看品흥 |
| (0718a4) | 禮을 술와 주쇼셔. 우호로서 “ | 모뢰는 | 吉日이오니 信使씨 비을 양을 |
| (0527b5) | 기-흥여 드리려 흥올고? 信使를 | 모셔 | 갈 작시면 사람-마다 기려야 |
| (0719a1) | 되 잔채-흥 일로 갓티니 업시 | 모시게 | 흥라 흥야 니르시오니 이런 줄 |
| (0108a1) | 켈 바는 이실 듯 아니 흥건마는 | 모시기란 | 흥오리. 先度 中歸船 便의 二 |
| (0107a2) | 처엄 일이신 거시니 代官들히 | 모시디 | 아냐는 못 흥 일이어니와 자네 |
| (0831a2) | 太守 술오른 출하리 半程이나 | 모실 | 써슬 信使씨서 구터억 말리는 |
| (0707b1) | 의 그지 업스신 道理로소이다. | 몬져 | 습드시 스양-흥고 밧디 아니 |
| (0901b5) | 와 어와 마장 도쑤외. 이러로서 | 몬져 | 술오려 싱각-흥엿소오되 말숨 |
| (0830a4) | 흥읍닉. 빅를 타 띄워 信使 비예 | 몬져 | 저어 나매 信使씨로서 웨여 |
| (0310b4) | 흥야 고디시기 잔-마다 다 먹고 | 몬져 | 취-흥엿건마는 이도 쏘 먹소 |
| (0711a4) | 도흥 양으로 흥소. 이러로서도 | 몬져 | 술오려 흥엿드디 이리 니르 |

| | | | | |
|----------|--------------------|----|--|-------------------|
| (0214b1) | 울고? 우리는 一番 特送이오니 | 문저 | | 보심이 올티 아니 흥온가? 예는 |
| (0328b3) | 기나거든 銅鑞 看品 홀 써시니 | 문저 | | 代官네-씩 출히라 닐러 두옵소 |
| (0301b4) | 이리 보오니 귀-흥외. 쇼인이 | 문저 | | 술을 써술 이리 御意흥시니 감 |
| (0805a4) | 樣子를 술오라코 닐러 왔던디 | 문저 | | 이리 니르시니 숭기도 어렵습 |
| (0406b6) | 꺾 싱각-흥오니 公木 五十 束만 | 문저 | | 드려 주옵소. 너일 東萊 올라 |
| (0124b4) | 니 큰 대 열과 공석 五六 枚만 | 문저 | | 드려 주옵소. 글란 이제 東萊 |
| (0325a4) | 와 아직 公木을 드려 주옵시면 | 문저 | | 가는 비에 보내올까 너기니 |
| (0420a1) | 사르시고 자넌-네 맛당-홀 켜 | 문저 | | 흥시논고? 네 브터 束을 풀고 |
| (0130a1) | 니 나셔 과연 견디디 못 흥거든 | 문저 | | 니르실 디라도 내 迷惑을 프르 |
| (0124a1) | 니 브르더라 흥옵니. 그러커든 | 문저 | | 가옵소. 나도 미쳐 그리 가오리 |
| (0123b3) | 내올 거시니 자넌도 小通事를 | 문저 | | 보내여 보고 가옵소. 앓가 사름 |
| (0808a2) | 나는 브딕 밧과다 니르시거니와 | 문제 | | 브터 畚斗 道理를 잘 싱각-흥 |
| (0202a3) | 이 보올가 녀겼습더니 병 드러 | 문 | | 난다 흥니 ㅁ장 접접흥외. 御意 |
| (0117a6) | 일홈은 아피옵도쇠. 그리 흥여 | 문 | | 흥오리. 書契의 흥 지라도 어근 |
| (0417a6) | 계실 일인디 이대-도록 바희예 | 문 | | 박드시 마르시고 이 번은 브딕 |
| (0920b6) | 각-흥거니와 그러나 노흥여도 | 문 | | 흥고 거르기 우소온 일이옵도 |
| (0128a4) | 도 잘 못 먹고 누엿스오니 나디 | 문 | | 흥가 너기오니 우리 켜 나올쇠. |
| (0128b4) | 옵시던고? 正官의 氣相도 아디 | 문 | | 흥고 送使의 연고 업슨 양으로 |
| (0710a4) | 의 가실 써시니 즉제 아니 보디 | 문 | | 흥 일을 아르시게 흥야 案内 畚 |
| (0114a3) | 법도 잇건마는 밤이 드러 뵈디 | 문 | | 흥니 흥혀 아모 더 브터도 東萊 |
| (0203a1) | 니 그러흥온 디 밥도 일절 먹디 | 문 | | 흥고 누어 잇스오니 민망-흥여 |
| (0301a5) | 海흥선 디 오래되 서르 보옵디 | 문 | | 흥오니 접접흥옵더니 이리 보 |
| (0205a4) | 물 가 正官의 니르오면 뵈옵디 | 문 | | 호물 ㅁ장 설이 너겨 病이 더 |
| (0302a4) | 올 써술 병 드오와 던시 뵈옵디 | 문 | | 흥오와 本意를 背흥도다 너기 |
| (0415a6) | 못디 못 흥면 飛船 즘음에 맞디 | 문 | | 흥 써시니 힘 쓰옵소. 아프리 |
| (0821a2) | 아니오니 아모리 흥여도 좃디 | 문 | | 흥 일이로송이다. 쯔 二三 日 |
| (0529a4) | 니와 朝鮮 作法은 굿긋디 그리 | 문 | | 흥염즉-흥건마는 니르시는 일 |
| (0417a1) | 기 不足흥 써라도 분별 아니티 | 문 | | 흥실 일은 서르 時分과 감식 양 |
| (0428b6) | 送使의 ㅁ세히 니르디 아니티 | 문 | | 흥 써시모로 今夜란 브딕 畚을 |
| (0505a4) | 시는 말을 드르니 수이 아니티 | 문 | | 흥 일이오니 대테로이 아니 흥 |
| (0425b4) | 물 걸터 니르니 나라토 부디티 | 문 | | 흥 일은 公木을 端端이 곱희자 |
| (0918b4) | 本말 흥시물 드르면 드러 아든 | 문 | | 흥여도 神妙히 너기옵니. 이리 |
| (0819a2) | 가옵소. 전 브터 畚드시 우리는 | 문 | | 바들 즘음이오니 그리 아옵소. |
| (0821b3) | 올 일은 힘-흥 더 건너 온 비를 | 문과 | | 밥도 고티노라 흥면 이도 二三 |
| (0907b1) | 아프리 흥여 도라 가심도 ㅁ세 | 문과 | | 內內 이러로써 술을 써술 이도 |
| (0115b6) | 고? 正官은 비-떨피-흥여 인스 | 문과 | | 아릭 누어습니. 書契를 내셔든 |
| (0831b4) | 도록 니르-도록 아릅다운 御禮 | 문과 | | 나마 心底 대로는 퍼디 못 흥송 |
| (0916a2) | 아프 일-도곤 감격-흥여 御禮 | 문과 | | 나쁜 일이옵쯔쇠. 이 우히는 붓 |
| (0213b5) | 가니 온다 다 노흥여 흥시니 흥 | 문과 | | 는호디 못 흥여 민망-흥외. 送 |
| (0818a4) | 處의 슈고-흥신 樣子 말로 다 | 문 | | 흥 일이로송이다. 별로 인스-흥 |
| (0506a2) | 로써 밤 들게야 도라 와 보옵도 | 문 | | 흥외. 東萊 니르시든 “슈고로이 |
| (0921a6) | 화 시작-호미 게오 五六年도 | 문 | | 흥디 그대-도록 ㅁ음 멀리 싱 |
| (0322a2) | 니와 당시 公貿易 銅鑞 看品도 | 문 | | 흥엿고 封進 雜物들도 올려 가 |
| (0913b3) | 각-흥면 즉-흥건마는 힘 대로 | 문 | | 흥고 붓그림을 모로는 거시 되 |
| (0429a3) | ㅁ 畚을 흥옵소. 萬事 ㅁ음 대로 | 문 | | 흥여 되츄디 못 흥는 바는 게나 |
| (0404a6) | 닐렀습니. 나라 일이란디 마디 | 문 | | 흥여 보채엿습더니 맛당이 너 |
| (0801b6) | 오완마는 굿-흥야 두시니 마디 | 문 | | 흥여 두엇더니 大君 드르시면 |
| (0521a5) | ㅁ 보옵새이다. 判事네-씩 마디 | 문 | | 흥 미드려 흥는 일이 이셔 예 |
| (0523b2) | ㅁ-들 모다셔 朝鮮 풍속은 아디 | 문 | | 흥고 압회 브리시는 아회-들의 |
| (0910b3) | 올 흥는 사름이 너비 ㅁ음아디 | 문 | | 흥면 후의 드림즉디 아니 흥니 |
| (0612b2) | ㅁ시니 이제는 自由히 ㅁ음아디 | 문 | | 흥을 써시니 그 날은 天氣예도 |
| (0807b2) | 으로 더 使를 自由히 ㅁ음아디 | 문 | | 흥 일이오니 이러트시 엿줍 |
| (0307a6) | 되 다리 힘이 업스와 오래 서디 | 문 | | 흥올가 엿줍습니. 前例는 그리 |
| (0831b6) | 禮 몸애 나마 心底 대로는 퍼디 | 문 | | 흥송이다. 御渡海 아롭다이 흥 |
| (0213b6) | 흥시니 흥 몸으로서는 는호디 | 문 | | 흥여 민망-흥외. 送使를 보셔 |
| (0427a2) | 니와 우리도 흥나 들히셔 되디 | 문 | | 흥 거시니 送使의 談合흥여 아 |
| (0129b6) | 之 間이오니 나셔 과연 견디디 | 문 | | 흥거든 문저 니르실 디라도 내 |
| (0429a4) | 萬事 ㅁ음 대로 못 흥여 되츄디 | 문 | | 흥는 바는 게나 예나 흥 가지 |
| (0424b1) | 굴모로 東萊 ㅁ 百姓도 견디디 | 문 | | 흥 일은 五日 雜物 드리기에 |
| (0909b6) | ㅁ 우리도 술의 취-흥여 싱각디 | 문 | | 흥거니와 더 若衆들의-게 밤 |

| | | | |
|----------|--------------------|------|--------------------|
| (0306a1) | 니 엇디 남기령잇가? 본디 먹디 | 못 | 흥읍것마는 다 먹습는다. 술 |
| (0307b4) | 니와 今度 안자도 禮에는 삼디 | 못 | 흥 써시니 안자서 종용히 말습 |
| (0411a4) | 公木은 아모만 드러도 잘 잡디 | 못 | 흥 거시니 수이 내여 가옵소. |
| (0412b6) | 제 안가-터로 니르시고 쉽디 | 못 | 흥물 어히 업서 더러타 이러타 |
| (0912b6) | 中에 읍고져 흥는 일도 잘 읍디 | 못 | 흥고 알고도 無道히 된 仕合 不 |
| (0216b2) | 디 일이 만하 問安도 즈로 읍디 | 못 | 흥니 일덩 정 업슨 양으로 너기 |
| (0805b4) | 셔도 다시곰 다시곰 아니 밧디 | 못 | 흥실 仔細흥물 닐러 부러 사흘 |
| (0702b2) | 켜 이러툇 흥 배 아프려도 밧디 | 못 | 흥 일이오니 太守는 엇디 싱각 |
| (0610a4) | 는 섬의 일이란디 心中의 밧디 | 못 | 흥여 아프란 귀-흥 일도 업시 |
| (0415a4) | 가 마라 드리실까? 早速 밧디 | 못 | 흥면 飛船 즈음에 밧디 묻 흥 |
| (0414b4) | 거니와 이리 흥 켜오로는 밧디 | 못 | 흥 써시니 이 公木을 端端이 곱 |
| (0821a6) | 日 內 出船이라 니르시니 그리 | 못 | 흥을 일은 힘-흥 뒤 건너 온 비 |
| (0808b6) | 主의 힘으로도 도로 보낼 일이 | 못 | 될다 니르시면 출하리 자네 바 |
| (0621b2) | 기 사름-돌히 민만-흠몬 그지 | 못 | 흥 일이오니 이 알프란 곳-흥 |
| (0208a1) | 다. 전의는 격기엿 거시 이러티 | 못 | 흥읍더니 今度는 膳數器皿 以 |
| (0218a4) | 다. 이제 또 보올 거시니 종용티 | 못 | 흥외. 看品은 無事히 흥오니 아 |
| (0716a1) | 련마는 먼 딛 使 시니 尋常히 | 못 | 흥 일이니 吉日을 곱히노라 廻 |
| (0206b2) | 차례 흥읍새. 쇼인-네는 본디 | 못 | 먹습건마는 감격-흥오매 먹기 |
| (0317a1) | 즈와이다. 잘 못 먹건마는 상히 | 못 | 흥고 오늘은 자닉-네로 흥여 |
| (0107a2) | 거시니 代官들히 모시디 아냐는 | 못 | 흥 일이어니와 자네 혼자 가서 |
| (0825a6) | 슈고-흥야 거시니 祝願 아니튼 | 못 | 흥 양으로 전 브터 니르심으로 |
| (0317a1) | 니 술과 거동이 不즈와이다. 잘 | 못 | 먹건마는 상히 못 흥고 오늘은 |
| (0128a2) | 브터 또 병 드러 머글 엇도 잘 | 못 | 먹고 누엿스오니 나디 묻 흥가 |
| (0209a3) | 엇디 흥 디 예는 달호기를 잘 | 못 | 흥여 이러-흥니 허물 마르시소 |
| (0309a4) | 그러흥온 디 본디 오래 서기 잘 | 못 | 흥와 술왓습써니 自由히 너기 |
| (0319a4) | 엿스오니 방의 도라 가기도 잘 | 못 | 흥가 너기는다. 이러티시 술 |
| (0129a6) | 디 아니면 우리의 그르믈 발명 | 못 | 흥 거시니 비록 正官이 병 드러 |
| (0318a1) | 흥여이다. 우리-들도 술을 一切 | 못 | 흥읍건마는 하 먹과다 니르시니 |
| (0104a6) | 늘 곱티오 이러로써 미들 일은 | 피 | 곱즈울 거시니 只음 브티시믈 |
| (0821b6) | 三日은 흥을 써시오 쏘는 멀리 | 피서 | 예-식지 아롭다이 건너신 祝願 |
| (0818b4) | 奉行으로써 보낸 金子를 자네 | 피신 | 사름의-게 네믈을 흥오니 모로 |
| (0419b1) | 셔 이리 술오니 이 우회는 다른 | 묘리도 | 업스니 자닉-네 흥실 대로 흥 |
| (0418a6) | 싱각-흥건마는 별로 흥염출-흥 | 묘리도 | 업고 출하리는 이 五十 束을 |
| (0919a3) | 업스니 일덩 니기시는 비밀-흥 | 묘리도 | 이실 써시니 아프려나 不르치 |
| (0808a5) | 흥여 보시소. 江戸에 반 돌이나 | 무거 | 슈고-흥던 下人의-게 준 거슬 |
| (0324a6) | 雜物은 자닉-네 十日 二十日 | 무거 | 도라 가서도 約條의 덩-흥 限- |
| (0809b5) | 히 兩人의셔 예셔 四五 日어나 | 무그셔 | 쉬여 出船흥실 양으로 大君의셔 |
| (0609b2) | 상을 서디 아니코 니러 나오니 | 무디히 | 너기디 마르쇼셔. 이도 술의 타 |
| (0210a6) | 일덩 닛고 그리 흥 일이옵도쇼. | 무러 | 보와 이제라도 드러라 흥읍새. |
| (0108b5) | 니 多分 비가 올 거시니 遠見의 | 무러 | 보옵소. 어와 그러흥온가? 遠見 |
| (0716b4) | 송이다. 어와 어와 즉시 懇懃히 | 무로시니 | 感激흥신 절츠를 술을 양도 업 |
| (0714b3) | 이다. 두 분을 예-식지 극진히 | 무로시미 | 感激흥영이다. 수이 가 브틀 써 |
| (0122b5) | 디. 먼디 극진이 軍官을 보내여 | 무르시니 | 감격-흥여 흥읍닉. 이제 正官 |
| (0703b5) | 이로소이다. 이를 밧디 아님도 | 무식 | -흥거니와 고을로써 두 참이 |
| (0903b4) | 도 싱각 아니코 기리 안자시니 | 무식히도 | 흥가-흥여 밤-셋굿 뉘웃즘닉. |
| (0717a2) | 를 술을 양도 업서이다. 덕썬의 | 무스히 | 오오니 이 우회는 아프 제라도 |
| (0708a6) | 禮을 술을 써시니 자네 일흠은 | 무어신고 | 싱각-흥야 禮흥 제 술오려 흥 |
| (0517b3) | 심도 계실 써시니 서의-흥오니 | 무티 | 오르셔 홀리나 쉬시고 비-들토 |
| (0512a2) | 甫의는 아프 둘 아프 날 브트셔 | 목기논 | 二十四五日만 흥셔 出船 吉日 |
| (0603b5) | 떠나올고? 上下 多人 中 오래 | 목기도 | 엇더-흥니 아프려나 수이 나게 |
| (0323b2) | 수이 도라 가오면 五日 雜物은 | 목는 | 스이만 주실 써시오니 이 나라 |
| (0320a2) | 다. 쇼인 섬으로써 올 적의 오래 | 목디 | 말고 수이 도라 오라 島主 不 |
| (0109a2) | 쇼. 어와 그러흥온가? 遠見의는 | 못디 | 아니 흥여도 되면 즉시 釜山浦 |
| (0616a6) | 브다 흥니 새배 出船흥 작시면 | 못호로써 | 토노라 출히기에 出船도 더딜 |
| (0623b6) | 人 中 東西도 모로는 것-들이 | 못히 | 느려 振舞 적이나 萬事에 보디 |
| (0618a2) | 겨실 디도 극진이 흥고 참참이 | 못히 | 請흥여 振舞도 흥 양으로 흥엇 |
| (0624b1) | 小小 흥 일이어든 中官 以下란 | 못히 | 올리기를 말고져 흥니 엇더-흥 |
| (0918a5) | 니 不-흥여 니기-도록 뒤호로 | 프는는 | 듯 흥여 자네-네 日本말 흥시들 |
| (0315a3) | 는 이 나라 臣下 不 되엿스오니 | 프를 | 일을 엇디 일현이 흥리잇가? 二 |
| (0908a4) | 第읍편디 또 회례라 일흠 지어 | 프스 | 일을 흥려 흥시옵는고? 맛당히 |

| | | | | |
|----------|--------------------|--------|--|-------------------|
| (0521b4) | 와시니 종용히 잘 드르시쇼. 익 | 미스 | | 일이옵관디 이대-도록 어렵사 |
| (0527b2) | 은 아니온가? 우리도 小小하면 | 미스 | | 일로 불관-흔 거시라도 장만- |
| (0407a6) | 올라 가 모뢰-쓰음 드리려니와 | 미슴 | | 빅 몇 척이나 가옵논고? 一特送 |
| (0111b2) | 호오니 글로 하여 근심-하옵닌. | 미슴 | | 빅 어이 하여 떠돌습논고? 水木 |
| (0501a3) | 語 第四 終 捷解新語 第五 이논 | 미슴 | | 빅온고? 信使 마즈라 온 御使 |
| (0110a6) | 니 자네-네도 아옵소. 이 빅논 | 미슴 | | 빈고? 當年條 二 番 特送이옵도 |
| (0513a2) | 듯 하다 하니 朝鮮 사름-들흔 | 미어시라 | | 니르옵논고? 우리는 오늘 타 |
| (0912a1) | 흔 우음 바탕을 니르디 아니면 | 미어술 | | 노름을 삼스올쏘? 모로미 모로 |
| (0105b5) | 오늘은 처음으로 극진-하시를 | 미더 | | 내 생각-흔 일을 점치디 아니 |
| (0104b1) | 굿즈올 거시니 므음 브티시를 | 미더습닌 | | 아직 자넌-네 앓흔 극진이 니 |
| (0914a3) | 몹스하셔 萬事를 두로 쓰리시를 | 미더습닌이다 | | 자네 말슴-것치 마장 보드랍 |
| (0817a3) | 신 후의 祝願의 宴享도 하올가 | 미덜닝이다 | | 또 이거슨 귀티 아닌 거시언 |
| (0430b1) | 써시니 닉일 힘 쓰시기는 오로 | 미덜습닌 | | 捷解新語 第四 終 捷解新語 |
| (0105b3) | 심소를 나타나디 아닐 양으로 | 미덜습닌 | | 진실로 오늘은 처음으로 극진 |
| (0804b2) | 씩 극진히 닐러 도로 보내시를 | 미덜습닌 | | 對馬島主 엿즈오믄 信使씩셔 |
| (0916b3) | 발-홀 디라도 샤-하시를 一入 | 미덜습닌이다 | | 자네 나토 저므셔 뵈고 말겄 |
| (0906b2) | 니 의심도 업슬 양으로 직간을 | 미덜습닌이다 | | 어제는 하 심심하매 草草흔 |
| (0521a5) | 새이다. 判事네-씩 마디 못 홀 | 미드려 | | 하논 일이 이셔 예-씩지 오소 |
| (0104a6) | 논 일은 바늘 굿티오 이러로서 | 미들 | | 일은 뵈 굿즈올 거시니 므음 브 |
| (0103b3) | 호오니 萬事의 두로 쓰리시를 | 미들 | | 쓰름이옵도쇼. 인스당의 말슴 |
| (0104a3) | 습-것치 들엄죽-하외. 우리-게 | 미드시논 | | 일은 바늘 굿티오 이러로서 마 |
| (0530a1) | 아닌 일이오니 글란 마르쇼셔. | 미리 | | 이러-홀가 너겨 그대-도록 술 |
| (0522b3) | 로올 양으로 너기니 이러모로 | 미리 | | 자넌-네-씩 쇠야기를 조지니 |
| (0408a2) | 一 隻 습하여 三 隻이옵도쇼. | 미리 | | 술와 두옵소. 그는 술오려니와 |
| (0127a3) | 로 하오리. 茶禮는 明日 하오니 | 미리 | | 출혀 거시다가 나실 양으로 하 |
| (0524b3) | 하시쇼. 자넌-네는 日本 풍속을 | 미리 | | 아르시는 이리오니 내 술오매 |
| (0124a2) | 기. 그러커든 묻져 가옵소. 나도 | 미쳐 | | 그리 가오리. 자넌 보시드셔 방 |
| (0408b2) | 더-하올고? 자넌-네 借船이란 | 미쳐 | | 보내여도 도홀가 너기옵닌. 보 |
| (0621b2) | 아니 하시면 것기 사름-들히 | 민만 | | -홈은 그지 못 홀 일이오니 이 |
| (0309b1) | 슬왓습써니 自由히 너기옵신가 | 민망 | | -하여이다. 안자셔 禮 어려오니 |
| (0619b4) | 로릅스오나 오르셔 내나 늙이나 | 민망 | | -호믈 프러 주쇼셔. 하면 그러 |
| (0802a5) | 르시면 우리 그름이 되올까 하 | 민망 | | -하와 그 雜物에 小判 金子 百 |
| (0213b6) | 흔 몸으로서논 논호디 못 하여 | 민망 | | -하외. 送使를 보셔도 차례로 |
| (0203a3) | 절 먹디 못 하고 누어 잇스오니 | 민망 | | -하여이다. 書契를 보니 島中 |
| (0709a4) | 로곰 다시곰 극진히 行下하시니 | 민망 | | -하옵건마는 行下를 존여이다. |
| (0619b1) | 습디 아니 하논 양으로 니르미 | 민망 | | -하오니 폐릅스오나 오르셔 내 |
| (0429b4) | 그런 줄은 모로든 아니컨마는 | 민망 | | -호믈 뉘-게 니르올고? 그리 |
| (0423b4) | 으로논 公儀는 되디 아니코 이 | 민망울 | | 비-홀 디 업스와. 아직 代官들 |
| (0402a5) | 기 소임-하논 官人 대되 過愈예 | 밋논 | | 바는 자넌-네도 아르실 쏘 아 |
| (0826a2) | 아니 하신고? 그 날란 니르시매 | 밋디 | | 아냐 다 더브러 가오리. 오늘은 |
| (0611b3) | 하니 엿더-하온고? 니르시매 | 밋디 | | 아녀 우리도 수이 하고져 하논 |
| (0610a4) | 견마는 섬의 일이란디 心中의 | 밋디 | | 못 하여 아므란 귀-흔 일도 업 |
| (0824b1) | 름을 기티디 말고 더 브르시게 | 밋즈닝이다 | | 어와 出船 日을 定하시니 아 |
| (0615b2) | 이제 座船을 트시고 오옵심을 | 밋즈닝이다 | | 격기-하논 분-네-게로셔도 |
| (0424b6) | 이고 날-마다 드리는 公木들도 | 미쇼게 | | 시러 하르 스이 두락 잇틀 스이 |
| (0425a4) | 스이 두락 왕닌-하니 사름이나 | 미쇼나 | | 엿디 견디올고? 자넌-네도 아 |
| (0520b4) | 클너-하시모로 마장 조출-하야 | 미옵 | | 편히 쉬오니 근심 마르시고 一 |
| (0614b3) | 날을 만나시니 이 앓흔 萬事 | 미옵 | | 편-홀까 祝願하닝이다. 接待예 |
| (0104b1) | 씩 미들 일은 뵈 굿즈올 거시니 | 미옵 | | 브티시를 미더습닌. 아직 자넌 |
| (0115a3) | 무 츠즈쇼셔. 그리 하올 거시니 | 미옵 | | 편히 너기옵소. 正官은 뉘시온 |
| (0620a5) | 미끼올고? 이제 오로 올 써시니 | 미옵 | | 편히 생각-하쇼셔. 다만 닉일 |
| (0421a2) | 계티 아니나 代官네 이러트시 | 미옵 | | 대로 한다 만다 하면 誠信의 회 |
| (0921b1) | 五六 年도 못 하디 그대-도록 | 미옵 | | 덜리 생각디 마소. 日本 八 箇 |
| (0816b6) | 하하오니 허믈 마르시고 마장 | 미옵 | | 편히 쉬신 후의 祝願의 宴享도 |
| (0429a3) | 今夜란 브디 番을 하옵소. 萬事 | 미옵 | | 대로 못 하여 되츄디 못 하논 |
| (0917b2) | 니르논 이리옵도쇼. 아므려나 | 미옵을 | | 다-하여 니기옵소. 그리 니르 |
| (0317b1) | 로 왓스오니 그러흔 디 술도 내 | 미옵을 | | 바다 그러흔가 너기논이다. 御 |
| (0216b6) | 덩 정 업슨 양으로 너기시논가 | 미옵의 | | 걸리옵닌. 심심이나 茶禮는 날 |
| (0105a3) | 또 送使다하셔는 엿디 녀길 디 | 미옵의 | | 걸리오니 자네-네 送使의 드려 |
| (0909a5) | 에 어긋날 일은 업스오리. 다만 | 미옵의 | | 걸리기는 若衆들의 연고를 웃 |

| | | | |
|----------|--------------------|-------|-------------------|
| (0405b1) | 도쇠. 오늘은 생각 밋기 술술이 | 밋추니 | 大慶이 읊도쇠. 전의는 그러티 |
| (0430a1) | 니르올고? 그리 호오리. 닥일은 | 밋추마 | 니르시니 그지 업스매 내 친히 |
| (0426b4) | 헤아리실 앓피오니 잘 헤아려 | 밋추시과다 | . 그리 니르시미 그르든 아니커 |
| (0321a2) | 머므시면 덩-흔 연향-들도 다 | 밋고 | 중용히 겨시다가 가실 양으로 |
| (0815b2) | 니 아모의 果報라도 公儀 서르 | 밋고 | 예-씩지 오온 바를 말로는 다 |
| (0826b1) | 도하 진실로 遠路에 나라 일을 | 밋고 | 三使을 청-호야 하딕-흔는 양 |
| (0422b6) | 그저 우리 읊는 양으로 호시면 | 밋기 | 쉬울까 너기옵닉. 니르-도록 |
| (0414b4) | 地 곳거니와 이리 흘 뿐으로는 | 밋디 | 못 흘 찌시니 이 公木을 端端이 |
| (0428b2) | 는 代官의 손에 인는 거슬 오늘 | 밋디 | 아닌는가 너기시거니와 이 樣 |
| (0415a4) | ! 내여 가 마라 드리실까? 早速 | 밋디 | 못 호면 飛船 즘음에 맞디 몬 |
| (0404b3) | !!엿습더니 맛당이 너기서 도히 | 밋즈오니 | 아름다와 호느이다. 나라 일을 |
| (0406a1) | 러나 니르신 대로 호야 無事히 | 밋즈오니 | 아름답스외. 버거 근심은 公木 |
| (0428a5) | 下人을 番을 호이시면 닥일란 | 밋즈오리 | . 判事네는 代官의 손에 인는 |
| (0832a5) | 는 御裁判을 떠 彼此 首尾 도히 | 밋좁고 | 서르 하딕 아름다왕이다. 太守 |
| (0212b3) | 결 예는 오디 아니 호시니 ㅁ장 | 밋야호여 | 노흠스와 호옵닉. 니르시미 그 |
| (0414a4) | 실디 어히 업다 마다 니르시는 | 바 | 아쁘려도 不審호외. 자넨-네 |
| (0403b1) | ㅁ 도케 직간-호옵소. 니르시는 | 바 | 判事닉-씩로셔 가지 가지 다스 |
| (0603a4) | 르시거니와 이는 物에 비-호면 | 바늘 | 굿티오 자네 슈고와 폐는 비-호 |
| (0707b6) | 는 대로 호소. 자네 극진-호신 | 바늘 | 서울 가서 筑前殿의 接待 호 일 |
| (0807b6) | 시 엿줍놓이다. 太守 니르시는 | 바늘 | 브딕 밋과다 니르시거니와 몬 |
| (0920b1) | 출 만호는 날을 자네 니르시는 | 바늘 | 日本말을 비-홀 디 업슨 양으로 |
| (0803a4) | !!놓이다. 對馬島主의 니르시는 | 바늘 | 격기 奉行들 드리고 오래 슈고 |
| (0703a2) | 과 보내소. 使를 불러 니르시는 | 바늘 | 넘녀-호셔 예-씩지 부리실 뿐 |
| (0713a6) | 使 술오른 우호로셔 니르시는 | 바늘 | 海上 먼 길히 無事히 오신 기별 |
| (0502b4) | ㅁ 無事호고 對馬島主 니르시는 | 바늘 | 信使 건너실 양으로는 드렸거니 |
| (0429a4) | ㅁ 대로 못 호여 되츄디 못 호는 | 바늘 | 게나 예나 호 가지옵도쇠. 우리 |
| (0519b4) | 主의 使ㅣ 즉시 와서 太守 읊는 | 바늘 | 보오물 술을 찌술 계신 디도 서 |
| (0402a5) | ㅁ-호는 官人 대되 過愈에 밋는 | 바늘 | 자넨-네도 아릅실 뿐 아니라 |
| (0107b4) | 는 앓피니 우리의 뜻으로 보텔 | 바늘 | 이실 듯 아니 호건마는 모시기 |
| (0825a1) | 니 아름다와 호농이다. 振舞 홀 | 바늘 | 되-도록 스양코져 너겟드니마 |
| (0104a3) | -호외. 우리-게 미드시는 일은 | 바늘 | 굿티오 이러로셔 미들 일은 피 |
| (0721b3) | ㅣ답-호는 양이 ㅁ장 올히 호신 | 바늘 | 대되 일코를 쯔이 아니라 大君 |
| (0317b1) | 오니 그러흔 디 술도 내 ㅁ음을 | 바다 | 그러헝가 너기느이다. 御意 감 |
| (0418a1) | 소. 아쁘리 니르셔도 이 公木을 | 바다 | 아쁘려도 홀 테 업스오니 代官 |
| (0704a4) | ㅣ 격기 날분 디 업고 이 밋기는 | 바다도 | 빅도 조브니 바든 이과 호 가지 |
| (0707b3) | 스양-호고 밋디 아니미 아니라 | 바다셔 | 홀 테도 업스니 아쁘리커나 나 |
| (0809a1) | 못 될다 니르시면 출하리 자네 | 바다셔 | 슈고-호던 對馬島 사름-들회- |
| (0806a6) | 갈 일은 업스올 찌시니 원컨대 | 바드셔 | 下人의-게나 주시미 엿더-호을 |
| (0706b6) | ㅁ 업시 너길 꺼시니 아쁘려나 | 바드시과다 | 호야 알외닉이다. 자네 스설-호 |
| (0704a6) | 이 밋기는 바다도 빅도 조브니 | 바든 | 이과 호 가지니 使ㅣ 아라 御禮 |
| (0808b3) | 거슬 더러로셔 아쁘리 닐러도 | 바들 | 인스는 아니어나와 對馬島主의 |
| (0819a2) | ㅁ소. 전 브터 읊드시 우리는 몬 | 바들 | 즈음이오니 그리 아옵소. ㅁ 海 |
| (0622b2) | 르오니 그리 아릅쇼셔. 이 앓희 | 바르 | 디나 섬죽-호 곳으란 스양 아 |
| (0618b1) | 양으로 호엿는디 빅 우호로셔 | 바르디 | 나시다 호면 江戸에 들려도 우 |
| (0815b2) | . 公儀 서르 밋고 예-씩지 오온 | 바를 | 말로는 다 호기 어려운 祝願의 |
| (0720a5) | !저 호니 엿더-홀쇼? 니르시는 | 바를 | 아춤의 奉行닉-의 議論호오니 |
| (0916a6) | ㅁ을 저티고 날-마다 와서 우음 | 바탕으로도 | 싱각-호을 찌시니 자네-네도 |
| (0901a4) | ㅁ이는 館中도 徒然호오니 우음 | 바탕으로도 | 회츠 振舞를 호고져 호오니 엿 |
| (0911b5) | 中도 심심호매 이러툷 호 우음 | 바탕을 | 니르디 아니면 프어술 노름을 |
| (0417a6) | 見습도 계실 일인딕 이대-도록 | 바회예 | 몬 박드시 마르시고 이 번은 브 |
| (0417a6) | ㅁ 일인딕 이대-도록 바회예 몬 | 박드시 | 마르시고 이 번은 브딕 時分을 |
| (0808a5) | . 잘 싱각-호여 보시소. 江戸에 | 반 | 들이나 무거 슈고-호던 下人의 |
| (0202a2) | 므 일도 업시 완닉이다. 正官을 | 반가이 | 보올가 너겟습더니 병 드러 몬 |
| (0421b1) | 흠은 五十束을 束으로 굴히여 | 반만 | 자브시면 그 밋근 念을 드러 닥 |
| (0820b5) | 노라 호시는 배 감격-호옵기는 | 받고져 | 호옵건마는 스스 찌시 아니오니 |
| (0706a6) | 부러 보내여 겨옵시더니 이를 | 반디 | 아니시면 우리의 그름이라도 호 |
| (0804a3) | 이나 정으로 두엿더니 ㅁ 싱각 | 반의 | 金子를 예지이 보내노라 호여 |
| (0129a6) | 이 나디 아니면 우리의 그르든 | 발명 | 못 흘 거시니 비록 正官이 병 |
| (0910a1) | ㅣ 못 호거니와 더 若衆들의-게 | 밤 | -재-도록 거룩이 부소를 회이 |
| (0506a1) | ㅁ契를 내옵소. 어제는 東萊로셔 | 밤 | 들게야 도라 와 보옵도 못 호외 |

| | | | |
|----------|--------------------|------|-----------------------|
| (0903b5) | 안자시니 무식히도 혼가-흥여 | 밤 | -셋굿 뉘웃줍네. 언머 모다 우- |
| (0430a5) | 갑스매 내 친히番禺 홀 디라도 | 밤 | -새물 기도로올 썸시니 너일 흥 |
| (0508b4) | 락시기는 그장 세춘 사름 둘홀 | 밤 | -낫 올라 갈 양으로 흥라코 둔 |
| (0133a4) | 같이 녀기실 거시니 아프리거나 | 밤의도 | 養性흥여 나실 양으로 흥여 보 |
| (0613a6) | 크트실까 아름다와 흥옵닝이다. | 밤이 | 불디 아닌 전의 出船흥실 양으 |
| (0117b6) | 그니 브딕 내옵소. 그리 흥옵새. | 밤이 | 드러시니 아직 御酒 흥나 자옵 |
| (0113a1) | 긴 비 아프 디 붓터셔도 오늘은 | 밤이 | 드러시니 너일 듯보와 보옵소. |
| (0114a3) | 옵네. 이제 오는 법도 잇건마는 | 밤이 | 드러 보디 몬 흥니 흥혀 아모 |
| (0821b3) | 은 힘-흥 디 건너 온 비를 몬과 | 밤도 | 고티노라 흥면 이도 二三 日은 |
| (0203a1) | 예 이치여 오오니 그러흥온 디 | 밤도 | 일절 먹디 몬 흥고 누어 잇스오 |
| (0802b2) | 그 雜物에 小判 金子 百枚를 | 밤고와 | 보내오니 브딕 거스리디 말고 |
| (0808a1) | 이다. 太守 니르시는 바는 브딕 | 밤과다 | 니르시거니와 문제 브터 숲던 |
| (0421b3) | 으로 고티여 반만 자브시면 그 | 밤근 | 숲을 드러 너일이라도 드릴 거 |
| (0427b5) | 두어서 여러 필을 일허시니 쏘 | 밤기 | 두고 番홀 사름도 업고 었디 흥 |
| (0510b5) | 書를 수이 가지여 오옵소. 생각 | 밤기 | 수이 오니 太守도 일덩 깃비 너 |
| (0405a6) | 면 흥 가지옵도쇠. 오늘은 생각 | 밤기 | 술술이 맛추니 大慶이옵도쇠. |
| (0623b4) | 아니케 아라 흥쇼셔. 이리 숲는 | 밤기 | 일덩 下人 中 東西도 모로는 것 |
| (0704a4) | 人 中의 격기 날분 디 업고 이 | 밤기는 | 바다도 빅도 조브니 바든 이과 |
| (0804a5) | 이 보내노라 흥여시니 자네 이 | 밤기 | 어려운 差別을 잘 아르셔 奉行 |
| (0707b1) | 는이다. 몬져 숲드시 스양-흥고 | 밤디 | 아니미 아니라 바다셔 홀 테도 |
| (0702b2) | 흥믈며 이러툃 흥 배 아프려도 | 밤디 | 못 흥 일이오니 太守는 었디 싱 |
| (0822a3) | 아름다이 건너신 祝願 振舞도 | 밤디 | 아니시고 御渡海흥실 작시면 |
| (0805b4) | 니르셔도 다시곰 다시곰 아니 | 밤디 | 못 흥실 仔細호믈 닐러 부러 사 |
| (0703b5) | 禮에 너른 양이로소이다. 이를 | 밤디 | 아님도 무식-흥거니와 고을로 |
| (0419a4) | 하 다스리시고 쏘 우리-게도 | 밤비 | 팔 디도 이셔 이리 술오니 이 |
| (0903a5) | 르시니 고디 드럿습더니 생각 | 밤씩 | 御馳走 쏘 아니라 주못 큰 술에 |
| (0616b4) | 接待예 극진-흥심은 비예셔도 | 밤주오면 | 오름과 흥 가지오니 자네 잘 이 |
| (0615a1) | 接待예 겹기-흥는 낭반-돌히 | 방샤를 | 부러 출혀 오르시게 굿-흥야 |
| (0124a5) | 쳐 그리 가오리. 자네 보시드시 | 방새 | 파락-흥야 누추-흥니 一夜를 |
| (0319a4) | 아녀이다. 그장 취-흥옛스오니 | 방의 | 도라 가기도 잘 못 흥가 녀기 </td |
| (0130a5) | 迷惑을 프르시과다. 니르시는 | 배 | 그러흥옵거니와 正官 昨晚 브터 |
| (0413b4) | -홈이 웃듬이옵도쇠. 니르시는 | 배 | 오로 그러흥 썸라도 이 公木은 |
| (0820b5) | 피로셔 온 거슬 주노라 흥시는 | 배 | 감격-흥옵기는 받고져 흥옵건 |
| (0707a3) | 알외네이다. 자네 스썸-흥는 | 배 | 날날치 筑前殿의 그지 업스신 |
| (0702b1) | 격기-흥신디 흥믈며 이러툃 흥 | 배 | 아프려도 밤디 못 흥 일이오니 |
| (0406a2) | 無事히 못주오니 아릅답스와. | 버거 | 근심은 公木 善惡의 브터 判事 |
| (0720b3) | 도 城에 오르시는 날 알픽 가져 | 버려 | 썸 후에 信使 가시게 흥면 도 |
| (0831b2) | 석락 장방 우회셔 손을 드러 이 | 번 | 일은 니르-도록 니르-도록 아 |
| (0324a3) | 우리 나라는 禮 돈돈 흥여 흥 | 번 | 덩-흥 후는 고티디 아니 흥니 |
| (0417b2) | 바회에 몬 박드시 마르시고 이 | 번은 | 브딕 時分을 헤아려 도홉 구즘 |
| (0214b4) | 이 올티 아니 흥온가? 예는 흥 | 번이나 | 뵈와시니 그러흥외. 너일이나 |
| (0708b6) | 분부-흥야 계시오니 젓싸오나 | 범남을 | 솔왔더니 다시곰 다시곰 극진 |
| (0114a2) | 흥여 근심-흥옵네. 이제 오는 | 법도 | 잇건마는 밤이 드러 보디 몬 흥 |
| (0818a6) | 말로 다 못 흥 일이로송이다. | 별로 | 인스-흥 테도 업스니 江戸 奉行 |
| (0803b2) | 래 슈고-흥던 아래 사름-들희 | 별로 | 포-흥 일도 업서 마즘 雜物 나 |
| (0418a5) | 들도 가지 가지 생각-흥건마는 | 별로 | 흥염죽-흥 묘리도 업고 출하리 |
| (0616a2) | 주진-흥 일이옵도쇠. 船 中에도 | 별히 | 굵음도 업고 너일도 天氣 杻홀 |
| (0307a1) | 흥실 썸시니 아옵시드시 오래 | 병 | 드으와 이제 잠깐 흥렘스오되 |
| (0130b1) | 러흥옵거니와 正官 昨晚 브터 | 병 | 드럿스오니 자네-게 다시 술을 |
| (0303a1) | 흥시던고? 늦출 보오니 이제도 | 병 | 빗치 겨시니 모로매 묘리-흥옵 |
| (0127b6) | 니 었디 흥 디 오며셔 브터 쏘 | 병 | 드러 머글 켓도 잘 못 먹고 누 |
| (0202a3) | 을 반가이 보올가 녀겼습더니 | 병 | 드러 몬 난다 흥니 그장 섭섭 |
| (0302b2) | 녀기옵네이다. 전 브터 드르니 | 병 | 드르시다 듯고 녀며-흥옵더니 |
| (0129b2) | 칼명 못 흥 거시니 비록 正官이 | 병 | 드르실 떠라도 茶禮는 卒度之 |
| (0127b4) | 그리 흥오리. 다만 正官이 본디 | 병 | 든 사름이옵더니 었디 흥 디 오 |
| (0202b3) | 한당-흥여이다. 나토 늙고 본디 | 병 | 인는 사름이옵더니 비예 이치 |
| (0302a3) | 옵네이다. 이전의도 뵈을 썸술 | 병 | 드오와 던시 뵈옵디 몬 흥오와 |
| (0205b6) | 그 저괴 아니 보올까? 그 띄는 | 병이 | 도홉 일도 잇스을 썸시니 아니 |
| (0129a3) | 일로 덩-흥디 이제야셔 正官의 | 병이라 | 니르시니 正官이 나디 아니면 |
| (0123b3) | 자네도 小通事를 몬져 보내여 | 보고 | 가옵소. 앓가 사름을 보내오니 |

| | | | |
|----------|--------------------|-------|---------------------|
| (0315b6) | 닝이다. 그리 흠을 島中 왕닝에 | 보고 | 사름-마다 니름을 듯고 朝廷도 |
| (0116b4) | 는 그러커니와 書契를 내 친히 | 보고 | 자닝-네 姓名을 아라 釜山浦에 |
| (0211a3) | 드리라 ㅎ읍새. 우리도 日記를 | 보고 | 숯스오니 이 후란 이러티 아니 |
| (0215b3) | 로 ㅎ읍소. 나도 代官의 사름을 | 보내거니와 | 자닝-네도 나실 제 니르고 가 |
| (0304a6) | 다. 그 약은 마즘 다 쓰고 적게 | 보내고 | 뿃에 걸려 ㅎ읍닌. 都船主도 요 |
| (0804a3) | 니 쯔 싱각 받썻 金子를 예지이 | 보내노라 | ㅎ여시니 자네 이 밧기 어려운 |
| (0803a2) | 委細之儀는 對馬島主의 닐러 | 보내놓이다 | . 對馬島主의 니르시는 바는 격 |
| (0817a6) | 이거슨 귀티 아닌 거시언마는 | 보내놓이다 | . 니르시드시 上下 多人 中 無事 |
| (0406b4) | 날 출히읍소. 요스이 비 가는 덕 | 보내려 | 싱각-ㅎ오니 公木 五十 束만 돈 |
| (0830a1) | 새 ㅎ고 보낸대 對馬島主 불서 | 보내믈 | 위-ㅎ야 비를 내다 ㅎ읍닌. 비 |
| (0702b6) | 右之道理 心得ㅎ고 使를 여기 | 보내소 | . 使를 불러 니르시는 바는 념 |
| (0122a5) | 시고 問安 ㅎ읍시데. 쯔 軍官도 | 보내시더니 | 왔습던가? 앓가 만났습닌. 먼 |
| (0804b2) | ㄱ 奉行네-의 극진히 닐러 도로 | 보내시믈 | 미뎛습닌. 對馬島主 엇즈오믈 |
| (0829a6) | ㄱ 辰時에 判使네를 對馬島主게 | 보내야 | 이제야 비에 톱오니 선창 ㄱ의 |
| (0124b6) | ㄱ 주읍소. 글란 이제 東萊 술와 | 보내야 | 드릴 양으로 ㅎ오려니와 ㄱ세 |
| (0801a6) | 격기 奉行의로서 부러 사름을 | 보내야 | 술오믈 信使의셔 격기에 나믈 |
| (0706a5) | 談엿 일이라 ㅎ셔 우리를 부러 | 보내여 | 겨읍시더니 이를 만다 아니시 |
| (0123b3) | 거시니 자닝도 小通事를 묻져 | 보내여 | 보고 가읍소. 앓가 사름을 보내 |
| (0122b5) | 만났습닌. 먼디 극진이 軍官을 | 보내여 | 무르시니 감격-ㅎ여 ㅎ읍닌. 이 |
| (0408b2) | 올고? 자닝-네 借船이란 미쳐 | 보내여도 | 도홀가 너기읍닌. 보낼 짐을 출 |
| (0830b3) | 로셔 웨여 니르믈 아므리 멀리 | 보내여도 | 정은 ㅎ 가지니 그져 예셔 도라 |
| (0802b2) | 物에 小判 金子 百 枚를 밧고와 | 보내오니 | 브딕 거스리디 말고 아래 사름 |
| (0123b5) | 내여 보고 가읍소. 앓가 사름을 | 보내오니 | 브르더라 ㅎ읍닌. 그러커든 문 |
| (0212a4) | 대로 東萊의 엇즈와 催促 ㅎ여 | 보내오리 | . 친히 보와 술을 말이 만컨마는 |
| (0123b1) | 시 보읍새. 正官의 나도 사름을 | 보내올 | 거시니 자닝도 小通事를 묻져 |
| (0325a5) | 드려 주읍시면 묻져 가는 비예 | 보내올까 | 너기눔이다. 글란 그리 ㅎ읍소. |
| (0409b1) | 때에 아므 비라 ㅎ여 ㄱ세 더거 | 보내읍소 | . 그리 ㅎ오리. 公木 五十 束 드 |
| (0126a2) | 술오려니와 자닝도 單字를 써 | 보내읍소 | . 글란 그리 ㅎ오리. 茶禮는 어 |
| (0818b2) | 테도 업스니 江戸 奉行의로서 | 보낸 | 金子를 자네 피신 사름의-게 |
| (0829b4) | 선창 ㄱ의 가 하딕 술읍새 ㅎ고 | 보낸대 | 對馬島主 불서 보내믈 위-ㅎ야 |
| (0808b6) | 와 對馬島主의 힘으로도 도로 | 보낼 | 일이 못 될다 니르시면 출하리 |
| (0408b6) | 쳐 보내여도 도홀가 너기읍닌. | 보낼 | 짐을 출혀 보와 다시 ㄱ별을 畵 |
| (0231a5) | 스오니 민망-ㅎ여이다. 書契를 | 보니 | 島中 無事 ㅎ시니 아룻다와 ㅎ |
| (0703a5) | 부리실 썸이 아니라 쯔 目錄을 | 보니 | 어와 어와 여러 가지 珍味 이 |
| (0624a2) | 못히 느려 振舞 적이나 萬事에 | 보디 | 슬흔 일이나 이시면 엇덜고 ㅎ |
| (0132a4) | 려 보시소. 客人이 와야 亭主 | 보디 | 아니 ㅎ읍는가? 그러커니와 ㄱ |
| (0710a4) | 三島의 가실 썸시니 ㄱ제 아니 | 보디 | 물 ㅎ 일을 아루시게 ㅎ야 案内 |
| (0529b1) | 는 니르시는 일이오니 웃 웃술 | 보디 | 슬티 아니케 장만-ㅎ이오려니 |
| (0914a5) | 습닌이다. 자네 말슴-꺄치 ㄱ장 | 보드랍고 | 쯔 인스당 ㅎ시는 말 거동이 진 |
| (0607b3) | 건마는 드리신 사름의 ㄱ조를 | 보라 | ㅎ시니 이를 보려 위-ㅎ여 스 |
| (0607b4) | 름의 ㄱ조를 보라 ㅎ시니 이를 | 보려 | 위-ㅎ여 스양을 아니 ㅎ닌이다 |
| (0305b2) | 시니 술을 양도 업서이다. 예셔 | 보매 | 잔을 남기는가 시버 뵈니 이 잔 |
| (0214a3) | 디 못 ㅎ여 민망-ㅎ외. 送使를 | 보셔도 | 츠레로 보시면 뉘 雜言 ㅎ올고? |
| (0207b1) | 스와도 먹소오리이다. 이 齏을 | 보쇼셔 | . 하 꺄소이 너기으와 다 먹습 |
| (0311a5) | 어이 남기고 머그리잇가? ㄱ출 | 보쇼셔 | . 머그라 니르신 잔-마다 먹습 |
| (0312a6) | 날 ㅎ매 朝廷으로셔도 書契마다 | 보시고 | ㄱ장 기리시고 쯔 島主도 나흔 |
| (0410a4) | 니 사오납스온고? 다 도라 ㄱ세 | 보시고 | 도홀 사오나움을 니르읍소. 예 |
| (0604b6) | 노르시고 내 집 지은 것도 두로 | 보시고 | 느즉-ㅎ여 도라 가시게 브라닝 |
| (0701b4) | 왔스오니 어렵습거니와 使者을 | 보시고 | 御回答이나 ㅎ시게 습닌이다. |
| (0719a6) | 면 進物을 來日이라도 출홀 디 | 보시는 | 날 ㅎ의 ㄱ싸울 디 자네 그 ㅈ |
| (0124a3) | . 나도 미쳐 그리 가오리. 자닝 | 보시드시 | 방새 파락-ㅎ야 누추-ㅎ니 一 |
| (0214a3) | ㄱ-ㅎ외. 送使를 보셔도 츠레로 | 보시면 | 뉘 雜言 ㅎ올고? 우리는 一番 |
| (0132a1) | 말이어니와 자닝-네도 헤아려 | 보시소 | . 客人이 와야 亭主 보디 아니 |
| (0808a4) | ㄱ터 습딘 道理를 잘 싱각-ㅎ여 | 보시소 | . 江戸에 반 둘이나 무거 슈고- |
| (0414a2) | ㄱ터니 업스를 자닝-네 눈에도 | 보실디 | 어히 엷다 마다 니르시는 바 이 |
| (0913a6) | 모다 언머 서의-ㅎ 거시라 ㅎ | 보심을 | 싱각-ㅎ면 즉-ㅎ건마는 힘 대 |
| (0214b1) | 우리는 一番 特送이오니 묻져 | 보심이 | 올티 아니 ㅎ운가? 예는 ㅎ 번 |
| (0623b1) | ㄱ의 일란 자네-게 맞딜 거시니 | 보슬퍼 | 아므 뒤도 꽤 아니케 아라 ㅎ쇼 |
| (0301b2) | 묻 ㅎ오니 섭섭 ㅎ읍더니 이리 | 보오니 | 귀-ㅎ외. 쇼인이 묻져 술을 ㅈ |
| (0306a6) | 키 어렵습것마는 잔 잡는 양을 | 보오니 | 어내 잘 ㅎ시는 술이읍도쇠. 잔 |

| | | | |
|----------|--------------------|--------|--------------------|
| (0303a1) | 기 어딴걸 알파 하시던고? 늦출 | 보오니 | 이제도 병 빗치 겨시니 모로매 |
| (0812b1) | 맛디오리. 藍鳥 宿所에 太守 | 보오라 | 와서 信使의 술오른 여와 여와 |
| (0123a3) | 감격-하여 하옵닌. 이제 正官 | 보오라 | 가오니 다시 보옵새. 正官의 나 |
| (0132b5) | 홀 양으로 하옵소. 힘 빼 술와 | 보오려니와 | 東萊 釜山浦 오셔도 거르기 섭 |
| (0715b5) | 다와 하닌이다. 올커니 닉일도 | 보오련마는 | 먼 뒷 使시니 尋常히 못 홀 |
| (0526b3) | 니르시는 道理 극진히 엇즈와 | 보오리 | . 자닌-네 덕답이 불서 겁-하느 |
| (0519b5) | 吏ㅣ 즉시 와서 太守 壽命 바는 | 보오믈 | 술을 써술 계신 덕도 서의-하느 |
| (0717b2) | 알외쇼셔. 자닌-네도 처음으로 | 보오완마는 | 兩國 誠信之道ㅣ란디 心中의 |
| (0218a3) | 이제는 도화하닌이다. 이제 또 | 보을 | 거시니 종용티 못 하외. 看品은 |
| (0202a2) | 업시 완닌이다. 正官을 반가이 | 보을가 | 너겼습더니 병 드러 묻 난다 하 |
| (0217b4) | 니 正官이 도화파 하니 오늘은 | 보을가 | 너기옵닌. 약도 먹고 뽕도 하여 |
| (0205b3) | 수이 홀을 써시니 그 저기 아니 | 보을까 | ? 그 띄는 병이 도홀 일도 잇스 |
| (0409b5) | 公木 五十 束 드련스오니 나 가 | 보와 | 잡습소. 이 公木이 엇디 이러트 |
| (0210a6) | 닛고 그리 홀 일이옵도쇠. 무려 | 보와 | 이제라도 드리라 하옵새. 우리 |
| (0408b6) | 홀가 너기옵닌. 보낼 짐을 출혀 | 보와 | 다시 기별을 술스오리. 아직 公 |
| (0325b2) | ㅅ 그리 하옵소. 木綿은 내 친히 | 보와 | ㅅ장 吟味하여 드릴 거시니 代 |
| (0212a6) | 즈와 催促하여 보내오리. 친히 | 보와 | 술을 말이 만컨마는 요스이 일 |
| (0410b1) | 오나움을 니르옵소. 예서 잠깐 | 보와도 | 아울쇠. 그 안해도 一 束에 자를 |
| (0516b2) | 으로 하옵소. 여긔 船頭도 그리 | 보와시니 | 信使의셔도 최촉-하셔 이제 禮 |
| (0507a4) | 마는 朝廷으로서 返事 온 후에 | 보와야 | 禮ㅣ오매 아직 기다리옵닌. 不 |
| (0304b5) | 히 겨시던가? 전의는 처음으로 | 보옵고 | 그지 업서 하옵데. 御意 ㅅ티 |
| (0401a5) | 오늘은 看品에 브터 처음으로 | 보옵고 | 아름다와 하닌이다. 니르시디 |
| (0206a4) | 巡杯는 디낫습거니와 처음으로 | 보옵고 | 하 섭섭하오니 또 홀 차례 하옵 |
| (0506a2) | 는 東萊로서 밤 들게야 도라 와 | 보옵도 | 못 하외. 東萊 니르시든 “슈고 |
| (0301a5) | 른 御渡海하선 디 오래되 서르 | 보옵디 | 묻 하오니 섭섭하옵더니 이리 |
| (0123a4) | 이제 正官 보오라 가오니 다시 | 보옵새 | . 正官의 나도 사람을 보내올 |
| (0116a2) | 아리 누어습닌. 書契를 내셔든 | 보옵새 | . 그리 하오려니와 겁피 드렸스 |
| (0121a1) | 쉬옵소. 닉일 나죄란 入館하여 | 보옵새이다 | . 그리 하옵소. 슈고-하옵시니. |
| (0521a2) | 고 一二 日이나 디나 종용커든 | 보옵새이다 | . 判事네-씨 마디 못 홀 미드려 |
| (0108b5) | 分 비가 올 거시니 遠見의 무려 | 보옵소 | . 여와 그리하온가? 遠見의는 |
| (0133a6) | 도 養性하여 나실 양으로 하여 | 보옵소 | . 그리 하오리. 案内는 先通之 |
| (0424a2) | 이라 싱각 말고 꼼곰 싱각-하여 | 보옵소 | . 送使는 텃텃-하여 이러트시 |
| (0113a2) | 은 밤이 드러시니 닉일 듯보와 | 보옵소 | . 그 비 슈중을 너머서 떠드온 |
| (0116b1) | 오니 別한 일도 업스오니 닉일 | 보옵소 | . 그는 그러커니와 書契를 내 |
| (0404b1) | ㅣ. 나라 일이란디 마디 못 하여 | 보채엿습더니 | 맛당이 너기셔 도히 못즈오니 |
| (0107b4) | 른 아는 앓피니 우리의 뜻으로 | 보텔 | 바는 이실 듯 아니 하건마는 모 |
| (0306a1) | ㅣ 다 자옵소. 엇디 남기랑잇가? | 본디 | 먹디 못 하옵것마는 다 먹습닌 |
| (0202b3) | 御意 맛당-하여이다. 나토 늙고 | 본디 | 병 인는 사람이옵더니 비예 이 |
| (0309a4) | 먹디 아니 하오니 그러하온 디 | 본디 | 오래 서기 잘 못 하와 술왔습 |
| (0127b4) | 옵게 그리 하오리. 다만 正官이 | 본디 | 병 든 사람이옵더니 엇디 홀 디 |
| (0206b2) | 또 홀 차례 하옵새. 쇼인-네는 | 본디 | 못 먹습건마는 감격-하오매 먹 |
| (0314b3) | 말고 千 年이나 가-도록 오래 | 볼 | 양으로 하세야 아릅답스오리. |
| (0530b4) | 니 信使의 對面하여 또도 술와 | 볼 | 거시니 그리 아릅시소. 捷解新 |
| (0710b3) | 닝이다. 즈세 아옵거이다. 하면 | 볼 | 작시면 그 거조는 엇디 홀고? |
| (0527a3) | . 편만 싱각-하시느고? 他國에 | 볼골 | 사오나오면 그 作法은 모로고 |
| (0525b6) | 가? 다만 朝鮮 풍속의는 사람의 | 볼골도 | 저티고 상시 行儀를 웃듬-하느 |
| (0523b6) | 화-들의 衣裳이 사오나오면 그 | 볼꼴 | 사오나오니 마즘 모단을 두엇습 |
| (0507a1) | 고 또 니르시기는 “맛당히 수이 | 봄이 | 本意ㅣ언마는 朝廷으로서 返事 |
| (0916b6) | 덧습닌이다. 자네 나토 쳐므셔 | 뵈고 | 말겔도 도썩오니 자네-네 ㅅ |
| (0811a5) | 니 이도 일딩 大君의셔 信使의 | 뵈고 | 노르실 양으로 敎令이 이실 |
| (0305b2) | 예서 보매 잔을 남기는가 시버 | 뵈니 | 이 잔으란 브디 다 자옵소. 엇 |
| (0114a3) | 오는 법도 잇건마는 밤이 드러 | 뵈디 | 묻 하니 형혀 아모 디 붓터도 |
| (0109a3) | 가? 遠見의는 못디 아니 하여도 | 뵈면 | 즉시 釜山浦로서 우리-게 기별 |
| (0305a2) | 서 하옵데. 御意 ㅅ티 처음으로 | 뵈오디 | 하 극진히 덕접-하옵시니 술을 |
| (0206a1) | 도홀 일도 잇스올 써시니 아니 | 뵈오렁잇가 | ? 巡杯는 디낫습거니와 처음으로 |
| (0709b2) | 田에 留홀 제 島主과 昭長老 | 뵈오며셔 | 信使의 술오른 江戶로서 信使 |
| (0820a2) | 시니 그리 아릅쇼셔. 어제도 가 | 뵈올 | 거술 곳바 하옵실가 問安만 술 |
| (0302a2) | 감격히 너기옵닌이다. 이전의도 | 뵈올 | 써술 병 드오와 딜시 뵈옵디 |
| (0718a6) | 셔 “모되는 吉日이오니 信使의 | 뵈올 | 양을 친히 가 기별을 술오라.” |
| (0214b4) | ㅣ 아니 하온가? 예는 홀 번이나 | 뵈와시니 | 그려하외. 닉일이나 모되나 연 |

| | | | |
|----------|--------------------|---------|--------------------|
| (0217a2) | 니. 싱심이나 茶禮人 날 종용히 | 뵈옵고 | 니즌 스이 업시 僉官들-씩 니르 |
| (0606b6) | 나 드린 저문 것-들 흘 띄놀려 | 뵈옵고저 | 흥녕이다. 이도 祝願의 일이라 |
| (0302a4) | 의도 뵈옵 써술 병 드오와 던시 | 뵈옵디 | 묻 흥오와 本意를 背흥도다 너 |
| (0205a4) | 접-흥시를 가 正官씩 니르오면 | 뵈옵디 | 묻 호를 ㄹ장 설이 너겨 病이 드 |
| (0109b6) | 遠見으로서 안 싸다히 日本 빅 | 뵈다 | 니르니 일덩 二番 特送이 오는 |
| (0425b4) | 어려오를 걸터 니르니 나라토 | 부디 | 티 묻 흥 일은 公木을 端端이 들 |
| (0426b1) | 시 一年二年은 아니오 엇디 | 부디 | -흥가 너기시논고? 그저 헤아터 |
| (0805b6) | 니 밋디 못 흥실 仔細호를 닐려 | 부러 | 사흥 찢흥 흥릭 왔습는디 내 스 |
| (0210a4) | -흥가? 우리를 모로논가 너겨 | 부러 | 이리 흥엿습는가? 우리도 이런 |
| (0801a6) | 사흥 길 곳에 격기 奉行씩로써 | 부러 | 사름을 보내야 슬오른 信使씩사 |
| (0918b6) | 흥여도 神妙히 너기옵니. 이리 | 부러 | -호를 비-흥 디 업스니 일덩 二 |
| (0708a5) | 접待흥 일과 이 차반 흥 줄을 | 부러 | 御禮을 술을 써시니 자네 일흥. |
| (0615a1) | 것기-흥는 낭반-들히 방샤를 | 부러 | 출혀 오르시게 곳-흥야 니르오 |
| (0706a5) | 야 德談엿 일이라 흥셔 우리를 | 부러 | 보내여 겨옵시더니 이를 받디 |
| (0516a4) | 구름 가기도 도쿄 ㅂ름도 ㅂ히 | 부러시니 | 수이 ㅂ를 낼 양으로 흥옵소. ㅂ |
| (0108b3) | 구름 가기도 잇고 ㅂ름도 ㅂ히 | 부러시니 | 多分 ㅂ가 올 거시니 遠見의 무 |
| (0703a4) | 시는 바는 녀너-흥셔 예-씩지 | 부리실 | 썸이 아니라 썸 目錄을 보니 어 |
| (0910a3) | 衆들의-게 밤-새-도록 거룩이 | 부소를 | 희이치더라 드러시니 이 흥 하 |
| (0810b6) | 도 구경-흥실 양으로 앓가 두 | 분 | -씩셔 권-흥야 니르오니 이도 |
| (0917a3) | 결도 ㅂ싸오니 자네-네 ㅄ트신 | 분 | 五六人만 계시과다 다 원-흥돈 |
| (0617b5) | 이 스양-흥여도 이 격기-흥는 | 분 | -네 니르기는 江戸로써 信使 ㅄ |
| (0615b5) | 옵심을 밋줍녕이다. 격기-흥는 | 분 | -네-게로써도 극진-흥 일이옵 |
| (0617a2) | 오니 자네 잘 아르셔 接待흥는 | 분 | -네-씩 禮를 술와 주쇼셔. 니르 |
| (0828b1) | 信之 故로 귀-흥 곳을 구경-흥 | 분 | 아니라 이런 接待의 만나 海上 |
| (0413a6) | 흥연논고 헤아려 無事히 되게 | 분별 | -홈이 웃듬이옵도쇠. 니르시는 |
| (0417a1) | 思슴흥셔 저기 不足흥 써라도 | 분별 | 아니티 묻 흥실 일은 서르 時分 |
| (0403a4) | 와 오늘은 右之 道理를 正官도 | 분별 | 두셔 氣味 ㅂ케 지간-흥옵소. ㅄ |
| (0708b4) | 흥 제 술오려 흥니. 장썸 돈돈이 | 분부 | -흥야 계시오니 것싸오나 범남 |
| (0705a4) | 려나 디접-흥을 양으로 돈돈이 | 분부 | -흥여 계시건만는 식골 일이란 |
| (0320a5) | 고 수이 도라 오라 島主 ㅄ장 | 분부 | -흥엿스오니 아프려나 덕분을 |
| (0704b6) | ㅄ습거니와 알외녕이다. 筑前主 | 분부 | -흥시문 信使 디나실 적의 아드 |
| (0714b2) | 히 술오려 흥 일이로소이다. 두 | 분을 | 예-씩지 극진히 무로시미 感激 |
| (0706a1) | 感激히 너기시울쇠. 썸 이거슨 | 불관 | -흥 거시언마는 下人을 위-흥 |
| (0610b6) | 御慰勸흥신 말슴-것티 도로혀 | 붓그릅스왕이다 | . 元元 出船 이 들 十五 日이라 |
| (0513b1) | 도쇠. 올스외. ㅄ일은 天氣예는 | 붓듯디 | 아냐 吉日의 위-홈이니 寅時예 |
| (0518a4) | 다. 우리는 마즘 順風의 無事히 | 붓즈오니 | 깃거 흥옵녕이다. 對馬島主 맛 |
| (0113b5) | 빅예 격군도 격고 빅예 연장도 | 브딜 | -흥여 떠뎡스오니 글로 흥여 ㅄ |
| (0802b3) | 金子 百 枚를 밋고와 보내오니 | 브딧 | 거스리디 말고 아래 사름-들의 |
| (0117b4) | 아므의 희도 ㅂ터 아니 흥오니 | 브딧 | 내옵소. 그리 흥옵새. 밤이 드러 |
| (0128b2) | 접 우리 썸 나울쇠. 그러면 엇디 | 브딧 | ㅄ일 흥실 양으로 니르옵시던고 |
| (0305b4) | 남기논가 시버 ㅄ니 이 잔으란 | 브딧 | 다 자옵소. 엇디 남기렁잇가? ㅄ |
| (0429a2) | 아니티 묻 흥 써시모로 今夜란 | 브딧 | 番을 흥옵소. 萬事 ㅄ옵 대로 ㅄ |
| (0417b2) | 예 묻 ㅄ드시 마르시고 이 번은 | 브딧 | 時分을 헤아려 ㅄ흥 구즘을 군 |
| (0808a1) | 줍농이다. 太守 니르시는 바는 | 브딧 | 밋과다 니르시거니와 문제 브터 |
| (0132b3) | 런 道理를 東萊씩 엿즈와 ㅄ일 | 브딧 | 흥 양으로 흥옵소. 힘 ㅄ 술와 |
| (0123b5) | 가옵소. 앓가 사름을 보내오니 | 브르더라 | 흥옵니. 그러커든 문제 가옵소. |
| (0905b1) | 알외여 주옵소. 기둥의도 놀래 | 브르든 | 若衆들희 연고 업기를 전위-흥 |
| (0824b1) | ㅄ-흥는 사름을 기터디 말고 더 | 브르시게 | 밋줍녕이다. 어와 出船 日을 定 |
| (0523b4) | 開鮮 풍속은 아디 못 흥고 압희 | 브리시논 | 아희-들의 衣裳이 사오나오면 |
| (0401a3) | 捷解新語 第四 오늘은 看品에 | 브터 | 처음으로 보옵고 아릅다와 흥 |
| (0112a2) | 춤 구름이 머호더니 ㅄ 디나며 | 브터 | 비 뿌리고 ㅄ름이 사오납더니 |
| (0127b5) | 름이옵더니 엇디 흥 디 오며서 | 브터 | 썸 병 드러 머글 켜도 잘 못 |
| (0420a2) | 맛당-흥 썸 문제 흥시논고? 네 | 브터 | 束을 풀고 곱히여 낸 일이 업슨 |
| (0808a2) | ㅄ딧 밋과다 니르시거니와 문제 | 브터 | 슬던 道理를 잘 싱각-흥여 보 |
| (0303b4) | 히 주시매 덕분의 먹습고 글로 | 브터 | 알튼 가슴과 비 저기 그쳐 점점 |
| (0406a4) | 스외. 버거 근심은 公木 善惡의 | 브터 | 判事네과 싸흥가 너기오니 ㅄ장 |
| (0204a4) | 려흥외. 正官은 썸으로써 올 적 | 브터 | 東萊 극진-흥시를 ㅄ트고 문제 |
| (0825a6) | 접 祝願 아니튼 못 흥 양으로 전 | 브터 | 니르심으로 이려나 더려나 밋 |
| (0302b1) | 를 背흥도다 너기옵니이다. 전 | 브터 | 드러니 병 드러시다 듯고 녀너 |
| (0819a2) | 흥오니 모로미 스양 ㅄ옵소. 전 | 브터 | 슬드시 우리는 묻 바들 즈옵이. |

| | | | |
|----------|--------------------|-------|--------------------|
| (0401b6) | 아름다와 흥옵넌. 이 看品時 전 | 브터 | 저울 세니 느리니 出入에 差使 |
| (0902b4) | 커나 우리 술은 일이오니 넌일 | 브터 | 우리 흥을 썬지니 자네-네도 二 |
| (0404a1) | 현이는 아디 아니 흥옵넌. 在前 | 브터 | 代官들의-게도 申숨흥여 隨分 |
| (0329a2) | 닐러 두옵소. 그러면 모되 早天 | 브터 | 시작-흥 썬지니 아프려나 看品 |
| (0130b1) | 배 그러흥옵거니와 正官 昨晚 | 브터 | 병 드럿스오니 자넌-게 다시 申 |
| (0314b1) | 誠信으로 아르시니 아프 일에 | 브터도 | 심상히 너기디 말고 千 年이나 |
| (0817b5) | 上下 多人 中 無事히 예-삭지 | 브트니 | 아름다오미 서르 同前히 깃븐 |
| (0613a2) | 니 그리 아르쇼셔. 넌일은 구름 | 브트미 | 도썬오니 監島-삭지는 브트실 |
| (0511b6) | 여 釜山浦의는 아프 둘 아프 날 | 브트서 | 목기는 二十四五 日만 흥서 出 |
| (0520a3) | 썬술 계신 뒤도 서의-흥고 又 | 브트서 | 곳바도 흥옵시는가 아직 問安 |
| (0815b6) | 의 일이옵도쇠. 여제는 술술이 | 브트시니 | 아릅답스와 일일 와 問安호미 |
| (0813a3) | 人 中 아프 일도 업시 예-삭지 | 브트시니 | 아름다오미 御禮의 너머습넌디 |
| (0517a4) | 썬 술오른 도흔 天氣에 예-삭지 | 브트시니 | 아름다와 흥농이다. 빅예 又브 |
| (0715b2) | 言使의 아모 일도 업시 예-삭지 | 브트시니 | 아름다와 흥넌이다. 울커니 넌 |
| (0511b2) | 거넌 썬 썬나서 여기는 거넌 썬 | 브트시리라 | 니르습넌고? 서울은 아프 둘 이 |
| (0809a5) | 들회-게나 주시소. 信使 大坂의 | 브트시매 | 對馬島主 술오른 大坂 留守 아 |
| (0714a2) | 시고 이 二三日 안히는 江戶에 | 브트실 | 썬지니 御對面흥서야 次서히 申 |
| (0613a5) | 브트미 도썬오니 監島-삭지는 | 브트실까 | 아름다와 흥옵넌이다. 밤이 붉 |
| (0714b5) | 로시미 感激흥영이다. 수이 가 | 브틀 | 썬지니 그 저리 御禮 술을 줄을 |
| (0112b2) | 너시도쇠. 올스외. 날이 노파서 | 브틀 | 거슬 브름의 이치여 이제야 왔 |
| (0814a1) | 히 예-삭지 붓즈오니 對馬島에 | 브틀과 | 흥 가지로 깃거 흥넌디 썬 넌일 |
| (0104b1) | 들 일은 피 곳즈울 거시니 又 | 브티시물 | 미더습넌. 아직 자넌-네 앞흔 |
| (0614a4) | 새. 마썬 도흔 順風에 옛-삭지 | 브트시니 | 大慶이로송이다. 아직 출항의 |
| (0527b2) | 가? 우리도 小小흥면 므스 일로 | 불관 | -흥 거시라도 장만-흥여 드리 |
| (0825b5) | 드 풍뉴-흥는 사름은 엇디 상해 | 불러 | 들이디 아니 흥신고? 그 날란 |
| (0703a2) | 得흥고 使를 여기 보내소. 使를 | 불러 | 니르시는 바는 녀-흥서 예- |
| (0903a3) | 자네-네도 그리 아옵소. 여제는 | 불의예 | 흥 振舞 라 니르시니 고디 드 |
| (0503a6) | 船 吉日인고 흥야 우리 兩 人을 | 불의예 | 막켜 건네여 거시니 자넌-네 이 |
| (0908a1) | 서 너모 慰勸흥신 御禮 도로켜 | 붓그러온 | 次第습넌디 썬 회례라 일홈 지 |
| (0915a3) | 르시는 일이로다. 推量흥거니와 | 붓그림으란 | 모로논 테-흥고 날-마다 여기 |
| (0913b4) | 측-흥건마는 힘 대로 못 흥고 | 붓그림을 | 모로논 거시 되얏스오니 아프 |
| (0916a4) | 애 나쁜 일이옵도쇠. 이 우히는 | 붓그림을 | 저티고 날-마다 와셔 우음 바 |
| (0612b4) | 흥을 썬지니 그 날은 天氣에도 | 붓디 | 아녀 出船흥실 거시니 그리 아 |
| (0913a2) | 못 흥고 알고도 無道히 된 仕습 | 붓쓰러오미 | 海山 又티 너기농이다. 모다 |
| (0813b5) | 나. 니르시드시 無事히 예-삭지 | 붓즈오니 | 對馬島에 브틀과 흥 가지로 깃 |
| (0114a4) | 너러 보디 몯 흥니 흥혀 아모 뒤 | 붓터도 | 東萊 釜山浦에 술와 方方 彼此 |
| (0112b6) | 이제야 왔습넌. 떠던 빅 아프 뒤 | 붓터서도 | 오늘은 밤이 드러시니 넌일 듯 |
| (0112a2) | 름이 머호더니 닛 디나마 브터 | 비 | 빠리고 브름이 사오납더니 일 |
| (0603a4) | 고를 니르시거니와 이는 物에 | 비 | -흥면 바늘 굿티오 자네 슈고와 |
| (0722a3) | 喜悅이 又이 업습고 우리 又치 | 비 | -흥 디 업시 아름다이 너기닝 |
| (0603a6) | 바늘 굿티오 자네 슈고와 페는 | 비 | -흥기 어려오니 거넌 썬 예 |
| (0610a2) | 言使의 御馳走 오면 心中의는 | 비 | -흥 디 업건마는 썬의 일이란 |
| (0918b6) | 히 너기옵넌. 이리 부러-호믈 | 비 | -흥 디 업스니 일딩 니기시는 |
| (0920b3) | 자네 니르시는 바는 日本말을 | 비 | -흥 디 업슨 양으로 기리시니 |
| (0423b4) | 公儀는 되디 아니코 이 민망을 | 비 | -흥 디 업스외. 아직 代官들도 |
| (0909a2) | 는 우회란 자네 흥 대로 흥쇼셔. | 비록 | 내나 늬이나 연고 이실 썬라도 |
| (0619a1) | 피라 흥여 가지 가지 니르오니 | 비록 | 오르시기 슈고롭스울 디라도 |
| (0129b2) | 리의 그르믈 발명 못 흥 거시니 | 비록 | 正官이 병 드르실 떠라도 茶禮 |
| (0919a3) | -흥 디 업스니 일딩 니기시는 | 비밀 | -흥 묘리도 이실 썬지니 아프 |
| (0303a1) | 나던고? 늦출 보오니 이제도 병 | 빗치 | 거시니 모로매 도리-흥옵소. 나 |
| (0320b2) | 덕분을 썬 수이 歸島흥 양으로 | 브라노이다 | . 오션 디 오래디 아냐 限도 머 |
| (0605a2) | 보시고 느즈-흥여 도라 가시게 | 브라닝이다 | . 今日는 御慰勸흥신 振舞 終日 |
| (0824a4) | 鮮 풍뉴를 브름 틈으로 듯고져 | 브라오니 | 풍뉴-흥는 사름을 기티디 말고 |
| (0201a4) | 은 건너신 날은 마썬 사오나온 | 브람의 | 다 無事히 渡海흥시니 아릅답 |
| (0824a3) | 를 더브렷습더니 朝鮮 풍뉴를 | 브름 | 틈으로 듯고져 브라오니 풍뉴- |
| (0108b3) | 는 건넌즈-흥 구름 가기도 잇고 | 브름도 | 도히 부러시니 多分 빅가 올 거 |
| (0516a4) | 옵소. 오늘은 구름 가기도 도코 | 브름도 | 도히 부러시니 수이 빅를 낼 양 |
| (0514a1) | 해 빅에 터서 勘蠻夷-삭지 가셔 | 브름을 | 기드리려 흥신다 흥옵넌. 니르 |
| (0112b4) | 올스외. 날이 노파서 브틀 거슬 | 브름의 | 이치여 이제야 왔습넌. 떠던 빅 |
| (0112a3) | 커니 닛 디나마 브터 비 빠리고 | 브름이 | 사오납더니 일딩 슈고로이 건 |

| | | | | |
|----------|--------------------|------|--|--------------------|
| (0510a4) | 구-흥시는 대로 나쁜 되 업시 | 불기도 | | 왔스오니 깃브외. 大慶의 일이 |
| (0511a3) | 大守도 일딩 깃비 너기시울쇠. | 불기에도 | | 이시려니와 아직 수이 알고 시. |
| (0920a2) | 日本말을 니겨 시작-흥여 이제 | 불서 | | 十年나마 되야시되 진실로 이 |
| (0828b6) | 옥 뼈 아름다이 너겨 술-들도 | 불서 | | 취-흥야스오니 도라 가고져 흥 |
| (0526b6) | 큰즈와 보오리. 자넌-네 덕답이 | 불서 | | 겁-흥는 양이로지 었디 흥 편만 |
| (0830a1) | 술음새 흥고 보낸대 對馬島主 | 불서 | | 보내물 위-흥야 비를 내다 흥을 |
| (0613a6) | 까 아름다와 흥읍닝이다. 밤이 | 불디 | | 아닌 전의 出船흥실 양으로 흥. |
| (0517b4) | 니 무턱 오르서 홀리나 쉬시고 | 빅 | | -들토 도로 시과다 問安흥시딩 |
| (0303b5) | 먹습고 글로 브터 알튼 가슴과 | 빅 | | 저기 그쳐 점점 흥리는 듯 흥읍 |
| (0111a5) | 御陰을 뼈 無事히 왓습거니와 | 빅 | | 흥 척이 뼈덜스오니 글로 흥여 |
| (0113a5) | 커시니 너일 듯보와 보읍소. 그 | 빅 | | 슈종을 너머서 뼈디온가? 거의 |
| (0409a5) | 는. 그리 흥읍소. 註進홀 거시니 | 빅 | | 갈 뼈예 아므 빅라 흥여 즈세 |
| (0406b3) | 오니 又장 잘 출히읍소. 요스이 | 빅 | | 가는 덕 보내려 생각-흥오니 |
| (0618a6) | 여 振舞도 홀 양으로 흥엿는덕 | 빅 | | 우호로서 바르디 나시다 흥면 |
| (0115b5) | 正官은 어딴 거시온고? 正官은 | 빅 | | -멀미-흥여 인스 몰라 아릭 누 |
| (0112b5) | 의 이치여 이제야 왓습닉. 뼈딘 | 빅 | | 아므 덕 붓터셔도 오늘은 밤이 |
| (0407a6) | 가 모뢰-쓰음 드리려니와 므슴 | 빅 | | 몇 척이나 가읍는고? 一特送 |
| (0111b2) | 글로 흥여 근심-흥읍닉. 므슴 | 빅 | | 어이 흥여 뼈덜습는고? 水木船 |
| (0512b3) | 흥얏다 니르 읍닉. 너일은 信使 | 빅 | | 특실 吉日이라 니르니 일딩 그 |
| (0109b6) | 가 遠見으로서 안 싸다히 日本 | 빅 | | 웁다 니르니 일딩 二番 特送이 |
| (0108b5) | 고 브름도 도히 부러시니 多分 | 빅가 | | 올 거시니 遠見의 무려 보읍소. |
| (0110a6) | 시브니 자네-네도 아읍소. 이 | 빅는 | | 므슴 빈고? 當年條 二番 特送 |
| (0704a5) | 관분 덕 업고 이 밧기는 바다도 | 빅도 | | 조브니 바든 이과 흥 가지니 使 |
| (0409a6) | 註進홀 거시니 빅 갈 뼈예 아므 | 빅라 | | 흥여 즈세 더거 보내읍소. 그리 |
| (0830a1) | 對馬島主 불서 보내물 위-흥야 | 빅를 | | 내다 흥읍닉. 빅를 타 띄워 信使 |
| (0516b5) | 니 信使씨셔도 최촉-흥셔 이제 | 빅를 | | 내읍닉. 對馬島主씨로서 술오든 |
| (0831a5) | 셔 구턱여 말리는 故로 太守 | 빅를 | | 저어 나아 서르 장방 우회셔 손 |
| (0516a6) | 코 브름도 도히 부러시니 수이 | 빅를 | | 넬 양으로 흥읍소. 여긔 船頭도 |
| (0830a4) | 물 위-흥야 비를 내다 흥읍닉. | 빅를 | | 타 띄워 信使 빅에 몬져 저어 |
| (0821b3) | 못 흥을 일은 험-흥 덕 건너 온 | 빅를 | | 몬과 밥도 고티노라 흥면 이도 |
| (0121a4) | 고-흥읍시닉. 앓가 숲던 뼈딘 | 빅를 | | 御念入흥셔 肝煎흥읍소. 쏘 아 |
| (0510b1) | 브외. 大慶의 일이읍도쇠. 今日 | 빅를 | | 내올 씨시니 그 返書를 수이 가 |
| (0621a4) | 니 홀 시 도케 흥쇼셔. 참-마다 | 빅예 | | 느리시기 어렵기는 죠고마히고 |
| (0517a5) | 브트시니 아름다와 흥농이다. | 빅예 | | 굿브심도 게실 씨시니 서의-흥 |
| (0829a4) | 스오니 도라 가고져 흥닝이다. | 빅예 | | 트노라 흥야 辰時에 判使네를 |
| (0829b2) | 날 對馬島主게 보내야 이제야 | 빅예 | | 트오니 선창의 가 하딕 술음 |
| (0513b5) | 아냐 吉日의 위-흥이니 寅時에 | 빅예 | | 트셔 勘蠻夷-선지 가서 브름을 |
| (0113b5) | 靑을 만나 큰 빅예 격군도 적고 | 빅예 | | 연장도 브딜-흥여 뼈덜스오니 |
| (0202b4) | 고 본디 병 인는 사름이읍더니 | 빅예 | | 이치여 오오니 그러흥온 디 밥 |
| (0501b4) | 면 使者는 뉘 와 겨신고? 아직 | 빅예 | | 트읍소. 御使는 아미읍도쇠. 이 |
| (0113b3) | ? 거의 다 와셔 惡風을 만나 큰 | 빅예 | | 격군도 적고 빅예 연장도 브딜 |
| (0325a4) | 木을 드러 주읍시면 몬져 가는 | 빅예 | | 보내올까 너기스이다. 글란 그 |
| (0830a4) | 다 흥읍닉. 빅를 타 띄워 信使 | 빅예 | | 몬져 저어 나매 信使씨로서 웨 |
| (0515b2) | 三船-선지는 三人-식 그 나쁜 | 빅예는 | | 二人-식 틈을 씨시니 이 道理 |
| (0616b3) | 시니 온갓 接待예 극진-흥심은 | 빅예셔도 | | 밧즈오면 오름과 흥 가지오니 |
| (0501a3) | 적 終 捷解新語 第五 이는 므슴 | 빅온고 | | ? 信使 마즈라 온 御使 빅읍도 |
| (0501a6) | 빅온고? 信使 마즈라 온 御使 | 빅읍도쇠 | | . 그러면 使者는 뉘 와 겨신고? |
| (0921a4) | 소온 일이읍도쇠. 자네 日本말 | 빅화 | | 시작-호미 계오 五六年도 못 |
| (0110a6) | 네-네도 아읍소. 이 빅는 므슴 | 빅고 | | ? 當年條 二番 特送이읍도쇠. |
| (0612a3) | 출힐 덧도 헤아려 아므 들 아므 | 빅 | | 對馬島를 떠나실 양으로 닐러 |
| (0603b2) | 파 페는 비-흥기 어려오니 어너 | 빅 | | 예를 떠나올고? 上下 多人 中 |
| (0126a5) | 글란 그리 흥오리. 茶禮는 어너 | 빅 | | 흥을고? 수이 홀 양으로 흥읍소 |
| (0205b6) | 시니 그 저기 아니 보올까? 그 | 빅는 | | 병이 도홀 일도 잇스올 씨시니 |
| (0606b2) | 키니 게 가서 茶를 자읍시고 흥 | 빅 | | 수여 가읍시면 나 드린 저른 것 |
| (0420b1) | 各官으로서 沙汰之 限도 업슨 | 빅예 | | 前例의 업슨 일을 시작-흥여 |
| (0409a5) | 흥읍소. 註進홀 거시니 빅 갈 | 빅예 | | 아므 빅라 흥여 즈세 더거 보내 |
| (0503a2) | 거니와 어너 들 어너 날 셔울을 | 빅나셔 | | 어너 씨 出船 吉日인고 흥야 우 |
| (0801a3) | 語 第七 終 捷解新語 第八 信使 | 빅나셔 | | 사홀 길 곳에 격기 奉行씨로서 |
| (0604a3) | 드려나 수이 나게 흥쇼셔. 여긔 | 빅나실 | | 吉日은 郡郡에 分別을 두고 定 |
| (0612a5) | 가려 아므 들 아므 빅 對馬島를 | 빅나실 | | 양으로 닐러시니 이제는 自由 |

| | | | |
|----------|--------------------|-------|--------------------|
| (0603b2) | -헝기 어려오니 어니 뵈 예를 | 떠나올고 | ? 上下 多人 中 오래 묵기도 엇 |
| (0111b2) | 심-헝습니. 므슴 비 어이 헝여 | 떠덜습는고 | ? 水木船이 돛기 사오나와 떠덜 |
| (0111b5) | 는고? 水木船이 돛기 사오나와 | 떠덜습니 | . 오늘 아춤 구름이 떠흐더니 |
| (0113b5) | ≡ 적고 비에 연장도 브덜-헝여 | 떠덜스오니 | 글로 헝여 근심-헝습니. 이제 |
| (0111a5) | 無事히 왓습거니와 비 헝 척이 | 떠덜스오니 | 글로 헝여 근심-헝습니. 므슴 |
| (0902a1) | 싱각-헝엿스오되 말습-헝노라 | 떠덜습더니 | 이리 니르시니 우리 心中이 서 |
| (0907b3) | 셔 술을 썬술 이도 술의 타스로 | 떠덜습더니 | 쏘 친히 와 겨셔 너모 慇懃헝신 |
| (0312b4) | 나흔 저므셔도 萬事 長老의 | 떠디디 | 아녀 奇特헝 직간이라 니르니 |
| (0113a5) | 나 보옵소. 그 비 슈중을 너머셔 | 떠디온가 | ? 거의 다 와셔 惡風을 만나 큰 |
| (0112b5) | 브름의 이치여 이제야 왓습니. | 떠딘 | 비 아므 되 붓터셔도 오늘은 밤 |
| (0121a4) | 소. 슈고-헝습시니. 앓가 습던 | 떠딘 | 비를 御念入혀셔 肝煎헝습소. |
| (0217b6) | 은 보올가 너기습니. 약도 먹고 | 뜸도 | 헝여 이제는 도화습니다. 이 |
| (0423a3) | 니르-도록 뒤호로 가는 듯 헝 | 뜸 | 가지미 어와 어와 어히 업시 아 |
| (0904b4) | 각거니와 朝鮮 料理면 자네-네 | 뜸에 | 드디 아닐까 의심-헝거니와 다 |
| (0304b1) | 약은 마즘 다 쓰고 적게 보내고 | 뜸에 | 걸려 헝습니. 都船主도 요스이 |
| (0107b4) | 이 너기믄 아는 앓피니 우리의 | 뜸으로 | 보텔 바는 이실 듯 아니 헝건마 |
| (0608b6) | 는 아회-들의 썬노는 양과 놀래 | 뜸은 | 모로거니와 풍뉴과 어우러-더 |
| (0104b6) | 자넌-네 앓흔 극진이 니르시니 | 뜸을 | 퍼거니와 쏘 送使다히셔는 엇 |
| (0503b2) | 나켜 건네여 겨시니 자넌-네 이 | 뜸을 | 東萊의 엿즈와 부부 註進하야 |
| (0608b2) | 또 귀-헝 집-괴지 경의 도홈이 | 뜸을 | 퍼고 쏘는 어리로온 아회-들의 |
| (0606b5) | 나습시면 나 드린 저믄 것-들 흘 | 뜸놀려 | 뵈옵고져 헝닝이다. 이도 祝願 |
| (0513a5) | 나 니르습는고? 우리는 오늘 타 | 뜸위 | 기드릴 즈음이옵도쇠. 올스외. |
| (0830a4) | 하야 비를 내다 헝습니. 비를 타 | 뜸위 | 信使 비에 묻져 저어 나매 信使 |
| (0112a2) | 이 떠흐더니 닛 디나며 브터 비 | 뽀리고 | 브름이 사오납더니 일덩 슈고도 |
| (0828b5) | 만나 海上의 시름도 퍼매 더욱 | 뽀 | 아롭다이 너겨 술-들도 불셔 쿨 |
| (0320a6) | -헝엿스오니 아프려나 덕분을 | 뽀 | 수이 歸島홀 양으로 브라나이다 |
| (0201b4) | 감격-헝여이다. 우리는 덕분을 | 뽀 | 아므 일도 업시 완니이다. 正官 |
| (0111a3) | 다와 헝닝이다. 우리는 御陰을 | 뽀 | 無事히 왓습거니와 비 헝 척이 |
| (0109b3) | 는 업스오리. 代官네-의 書簡을 | 뽀 | 니름은 앓가 遠見으로서 안 싸 |
| (0832a4) | 다이 헝쇼셔. 今度는 御裁判을 | 뽀 | 彼此 首尾 도히 못좁고 서르 히 |
| (0132b5) | 기일 브되 홀 양으로 헝습소. 힘 | 뽀 | 술와 보오려니와 東萊 釜山浦 |
| (0132a6) | 헝습는가? 그러커니와 게셔 힘 | 뽀 | 이런 道理를 東萊의 엿즈와 니 |
| (0304a5) | 녀-헝는이다. 그 약은 마즘 다 | 뽀고 | 적게 보내고 뽀에 걸려 헝습니. |
| (0404b6) | 롭다와 헝는이다. 나라 일을 힘 | 뽀기는 | 대되 同前이오니 우리도 公木 |
| (0806b5) | 나 이리 습는 일을 일덩 힘 아니 | 뽀는 | 양으로 너기실 듯 헝거니와 奉 |
| (0912b3) | 더 저기 말도 헝더니마는 常常 | 뽀디 | 아니모로 히로 더곰 이려-헝니 |
| (0430a6) | 새물 기도로올 썬시니 니일 힘 | 뽀시기는 | 오로 미덜습니. 捷解新語 第四 |
| (0507b1) | 리습니. 不自由헝 고되 아므란 | 뽀실 | 썬시나 잇거든 기별-헝습소.” |
| (0415a6) | 나 즈음에 맞디 못 홀 썬시니 힘 | 뽀습소 | . 아프리 시절의 樣子를 스설- |
| (0419a4) | 다스리시고 쏘 우리-게도 밧비 | 뽀 | 되도 이셔 이리 슬오니 이 우히 |
| (0803b1) | 를 드리고 오래 슈고-헝던 아래 | 사람 | -들회 별로 포-홀 일도 업서 |
| (0802b5) | 오니 브되 거스리디 말고 아래 | 사람 | -들의-게나 주실 양으로 헝습 |
| (0316a2) | 나. 그리 홈을 島中 왕년에 보고 | 사람 | -마다 니름을 돛고 朝廷도 |
| (0621b2) | 헝고 느리디 아니 헝시면 것기 | 사람 | -들회 민만-홈은 그지 못 홀 |
| (0527b6) | 헝올고? 信使를 모셔 갈 작시면 | 사람 | -마다 기려야 우리의 面目도 |
| (0515a2) | 그러헝면 日本 船頭 ㅁ장 니근 | 사람 | 十五 人을 差定하야 두어시니 |
| (0719b6) | 양으로 괴걸-헝시소. 쏘 드린 | 사람 | -들토 다는 폐로를 썬-헝니 덜 |
| (0508b3) | 제 東萊 니르시기는 ㅁ장 세춘 | 사람 | 둘홀 밤-나트 올라 갈 양으로 헝 |
| (0918a1) | 감격-헝영이다. 나도 日本말을 | 사람 | -마다 니기기 쉬오니라 니르믄 |
| (0523a6) | 이틀 사흘 길호로셔도 구경-홀 | 사람 | -들 모다셔 朝鮮 풍속은 아디 |
| (0513a2) | 順風이 이실 듯 헝다 헝니 朝鮮 | 사람 | -들흔 므어시라 니르습는고? |
| (0809a3) | 자네 바다셔 슈고-헝던 對馬島 | 사람 | -들회-게나 주시소. 信使 大坂 |
| (0613b5) | 일은 天氣 도홀가 시브다 여귀 | 사람도 | 니르오니 부부 出船헝습새. 마 |
| (0427b6) | 을 일허시니 쏘 밧기 두고 番홀 | 사람도 | 업고 엇디 헝올고? 今夜 썬 |
| (0825b5) | 실 대로 헝옵새. 쏘 풍뉴-헝는 | 사람은 | 엇디 상해 불러 들이디 아니 헝 |
| (0308b5) | 나스오리잇가? 엇디 헝 디 日本 | 사람은 | 肉食 데워 거슬 먹디 아니 헝 |
| (0123b5) | 몬져 보내여 보고 가옵소. 앓가 | 사람을 | 보내오니 브르더라 헝습니. 그 |
| (0801a6) | 길 곳에 격기 奉行의로서 부러 | 사람을 | 보내야 슬오른 信使의셔 격기 |
| (0123b1) | 오니 다시 보옵새. 正官의 나도 | 사람을 | 보내올 거시니 자넌도 小通事 |
| (0215b3) | 홀 양으로 헝습소. 나도 代官의 | 사람을 | 보내거니와 자넌-네도 나실 제 |

| | | | |
|----------|--------------------|--------|--------------------|
| (0919b2) | 사람이로쇠. 홀리는 籠具도 업시 | 사람을 | 홀리는 사람이옴쏘쇠. 엇디 이 |
| (0811b6) | 하고 도라 오른 업꺼니와 드린 | 사람을 | 이런 더령 폐를 생각-하면 마 |
| (0824a5) | 로 듯고져 브라오니 풍뉴-하는 | 사람을 | 기터디 말고 더 브르시게 밋줍 |
| (0818b5) | 씩로써 보낸 金子를 자네 피신 | 사람의 | -게 네물을 함오니 모로미 소 |
| (0607b2) | 물로 식양코져 함건마는 드리신 | 사람의 | 직조를 보라 함시니 이룰 보려 |
| (0525b6) | 함링잇가? 다만 朝鮮 풍속의는 | 사람의 | 볼골도 저티고 상시 行儀를 웃 |
| (0312a1) | 다 먹스오리이다. 長老는 樣體 | 사람의 | 넘고 술도 잘 홀 쏘 아니라 글 |
| (0910b1) | 거니와 兩 國境의 소임을 함는 | 사람이 | 너비 그음아디 못 함면 후의 드 |
| (0425a4) | 막 잇틀 스이 두락 왕녀-함니 | 사람이나 | 막쇼나 엇디 견디올고? 자넨- |
| (0919a6) | 막치시과자. 어와 자네는 우은 | 사람이로쇠 | . 홀리는 籠具도 업시 사람을 홀 |
| (0127b4) | 함오리. 다만 正官이 본디 병 든 | 사람이옴더니 | 엇디 혼 디 오며써 브터 쏘 병 |
| (0202b3) | 함이다. 나토 늙고 본디 병 인는 | 사람이옴더니 | 빅에 이치여 오오니 그러함은 |
| (0919b2) | 는 籠具도 업시 사람을 홀리는 | 사람이옴쏘쇠 | . 엇디 이리 괴롱-함시느고? 진 |
| (0419b5) | 함야 우리 늙는 일은 다 슈지 | 사르시고 | 자넨-네 맛당-홀 쏘 묻져 함시 |
| (0523b6) | 의 衣裳이 사오나오면 그 볼썰 | 사오나오니 | 마즘 모단을 두엇습더니 三使 |
| (0523b4) | 희 브리시는 아희-들의 衣裳이 | 사오나오면 | 그 볼썰 사오나오니 마즘 모단 |
| (0527a3) | 상각-함시느고? 他國에 볼골 | 사오나오면 | 그 作法은 모로고 내 나라 편진 |
| (0201a4) | 葉 니르심은 건너신 날은 마즘 | 사오나온 | 브람의 다 無事히 渡海함시니 |
| (0121b6) | 습넌. 東葉겨셔도 “어제는 일기 | 사오나온디 | 언머 슈고로이 건너시도다.” 넌 |
| (0410a5) | 고? 다 도라 즈세 보시고 도홈 | 사오나옴을 | 니르옴소. 예셔 잠깐 보와도 아 |
| (0111b4) | 여 떠덜습느고? 水木船이 돛기 | 사오나와 | 떠덜습넌. 오늘 아춤 구름이 떠 |
| (0412a1) | 함물며 近年 以來 년-함여 木花 | 사오나와 | 公木の 大切히 되야스른 자넨- |
| (0112a3) | 디나며 브터 비 뿌리고 브름이 | 사오납더니 | 일덩 슈고로이 건너시도쇠. 올 |
| (0410a2) | 습소. 이 公木이 엇디 이러트시 | 사오납스온고 | ? 다 도라 즈세 보시고 도홈 사 |
| (0805b6) | 기 못 함실 仔細호를 닐러 부러 | 사홀 | 썰홀 홀릭 왓습넌디 내 스설-홀 |
| (0801a3) | 終 捷解新語 第八 信使 떠나서 | 사홀 | 길 곳에 격기 奉行씩로써 부러 |
| (0523a6) | 디 信使 우다히 디나실 제 이틀 | 사홀 | 길흐로써도 구경-홀 사람-들 |
| (0915b4) | 쉬울 써시니 이리 솔옴을 휴지 | 삼디 | 마옴소. 극진이 권-함심 아므 |
| (0307b4) | 니커니와 今度 안자도 禮예는 | 삼디 | 못 홀 써시니 안자셔 종용히 밀 |
| (0308b3) | 양이 업서이다. 우리 이틀 禮예 | 삼스오리잇가 | ? 엇디 혼 디 日本 사람은 肉食 |
| (0912a1) | 니르디 아니면 뜰어솔 노름을 | 삼스올쏘 | ? 모로미 모로미 고디 듯디 마 |
| (0309b5) | 오니 당테로 잔 쏘 들기틀 禮를 | 삼습새 | . 그장 도쏘오니 그러 함습싸이 |
| (0609b1) | 늘 즐겨 어즐-함여 正體 업스와 | 상을 | 서디 아니코 니러 나오니 무디 |
| (0910a1) | 함거니와 더 若衆들의-게 밤- | 새 | -도록 거룩이 부소를 회이치더 |
| (0430a5) | 매 내 친히 썬을 홀 디라도 밤- | 새물 | 기도로올 써시니 닉일 힘 쓰시 |
| (0616a4) | 일도 天氣 조홀까 시브다 함니 | 새베 | 出船홀 작시면 못호로써 투노 |
| (0903b5) | 시니 무식히도 함가-함여 밤- | 셋굿 | 뉘웃줍넌. 언머 모다 우은 거시 |
| (0916b3) | 자네-네도 내 망발-홀 디라도 | 샤 | -함시물 一入 미덜습넌이다. 스 |
| (0106b1) | 하 無斗方함여 늙는 일이오니 | 샤 | -함옴소. 이대-도록 거룩기 니 |
| (0526a2) | 풍속의는 사람의 볼골도 저티고 | 상시 | 行儀를 웃듬-함는 규귀오니 엇 |
| (0601a3) | 捷解新語 第六 三使를 請함여 | 상접 | -홈이라. 숭-도록 숭-도록 아 |
| (0825b5) | 새. 쏘 풍뉴-함는 사람은 엇디 | 상해 | 블러 들이디 아니 함신고? 그 |
| (0317a1) | 이 그즈와이다. 잘 못 먹건마는 | 상히 | 못 함고 오늘은 자넨-네로 함 |
| (0413a3) | 함자넨-네도 時分과 公木 갑시 | 상히로써 | 언머 더함연느고 헤아려 無事 |
| (0609b1) | 함어즐-함여 正體 업스와 상을 | 서디 | 아니코 니러 나오니 무디히 너 |
| (0423a6) | 함어와 어히 업시 아라 계시와. | 서르 | 니르거니 디답거니 날을 저르 |
| (0902a3) | 니 이리 니르시니 우리 心中이 | 서르 | 던-함인가 더욱 아롭다왕이다. |
| (0417a3) | 각도 분별 아니티 묻 함실 일은 | 서르 | 時分과 갑시 양도 見습도 계실 |
| (0310a3) | 오니 그리 함습싸이다. 앓가는 | 서르 | 멀리 안자시니 술을 남기시물 |
| (0601b1) | 일은 兩 國 安泰히 誠信之 道를 | 서르 | 던-함여 이제 쏘 三使 1 멀리 |
| (0815b2) | 함함시니 아모의 果報라도 公儀 | 서르 | 못고 예-씩지 오온 바를 말로는 |
| (0831b1) | 는 故로 太守 1 비를 저어 나아 | 서르 | 장방 우회셔 손을 드러 이 번 |
| (0722b5) | 함는 일은 어제는 對面함고셔 | 서르 | 말습-함오매 아롭다오미 禮예 |
| (0832b1) | 뻬을 뻬 彼此 首尾 도히 못줍고 | 서르 | 하디 아롭다왕이다. 太守 1 |
| (0326b5) | 니르시드시 오늘은 날도 도쿄 | 서르 | 종용-함여 우리도 깃거 함느이 |
| (0301a5) | 함르시른 御渡海함션 디 오래되 | 서르 | 보습디 못 함오니 섭섭함습디 |
| (0817b6) | 히 예-씩지 브트니 아롭다오미 | 서르 | 同前히 깃븐 디로송이다. 진실 |
| (0905a3) | 함닉일이라도 연고 업스시거든 | 서어 | -함 거슬 가지여 오옴새. 모든 |
| (0133b3) | 그리 함오리. 案内는 先通之 意 | 서어 | 탄 말이라. 의지 업단 말이라. |
| (0913a6) | 함마티 너기눔이다. 모다 언머 | 서의 | -함 거시라 흥 보심을 생각-함 |

| | | | | |
|----------|---------------------|--------|--|--------------------|
| (0610b2) | 흔 일도 업시 終日 겨서 도로켜 | 서의 | | -흥온가는 너기옵거니와 祝願 |
| (0520a1) | 는 보오믄 술을 써술 계신 디도 | 서의 | | -흥고 곳 브트셔 곳바도 흥옵 |
| (0517a6) | 다. 빅에 굿브심도 계실 써시니 | 서의 | | -흥오니 무턱 오르셔 홀리나 수 |
| (0133a2) | 와 東萊 釜山浦 오셔도 거르기 | 섭섭이 | | 너기실 거시니 아프리커나 밤으 |
| (0206a5) | 한습거니와 처음으로 보옵고 하 | 섭섭흥오니 | | 또 흥 츠레 흥옵새. 쇼인-네는 |
| (0202a5) | 하니 병 드러 몬 난다 흥니 마장 | 섭섭흥외 | | . 御意 맛당-흥여이다. 나토 늑 |
| (0826b6) | 그러커니와 오늘에 다드라는 | 섭섭흥옵기 | | 술을 양도 업스오니 오늘날 종 |
| (0301a6) | 오래되 서르 보옵디 몬 흥오니 | 섭섭흥옵더니 | | 이리 보오니 귀-흥외. 쇼인이 |
| (0711b3) | 좁 니르고 그저 니러 나미 마장 | 섭섭홀 | | 뜻 흥오니 헛튼 안주로 디접-흥 |
| (0401b6) | 흥옵닉. 이 看品時 전 브터 저울 | 세니 | | 느리니 出入에 差使員 뿐 아니 |
| (0412b2) | 아리디 아나코 公木을 거르기 | 세치 | | 굴원다 흥고 공스 오로 홀 제 |
| (0525b1) | 日本 풍속을 아오니 이대-도록 | 세치 | | 아니 니르시다 엇디 열현히 흥 |
| (0508b2) | 새. 어제 東萊 니르시기는 마장 | 세춘 | | 사름 둘홀 밤-낮 올라 갈 양으 |
| (0814b5) | 리 일란 더디고 太守의 果報 | 셴 | | 일인가? 이러로셔 內內 御禮를 |
| (0108a6) | 中歸船 便의 二 番 特送이 豊崎 | 셔 | | 日吉利를 기다리더라 닐러 와 |
| (0119a1) | 나 먹스오리. 자닉 말이 對馬島 | 셔 | | 聞及흥드시 잘 통흥시니 아릅 |
| (0309a4) | 흥오니 그러흥온 디 본디 오래 | 셔기 | | 잘 못 흥으와 술왓습써니 自由 |
| (0118b1) | . 下口 오니 마르쇼셔. 對馬島 | 셔도 | | 자닉는 上口 신 줄 聞及흥엇 |
| (0307a6) | 스오되 다리 힘이 업스와 오래 | 셔디 | | 못 흥올가 엇줍습닉. 前例는 그 |
| (0503a2) | 는 드럿거니와 어닉 둘 어닉 날 | 셔울을 | | 떠나셔 어닉 띄 出船 吉日인고 |
| (0707b6) | 로 흥소. 자네 극진-흥신 바는 | 셔울 | | 가셔 筑前殿의 接待흥 일과 이 |
| (0323a1) | 니와 催促흥오리. 封進 返禮는 | 셔울로셔 | | 헤아려 오는 대로 흥오려니와 |
| (0509a5) | 九 日 十 日이나 되려니와 또 | 셔울셔 | | 返事 출히기에 二 日 三 日이나 |
| (0511b4) | 닉 띄 브트시리라 니르옵는고? | 셔울은 | | 아프 둘 아프 날 써나셔 釜山浦 |
| (0511a6) | 니와 아직 수이 알고 지브오니 | 셔울은 | | 어닉 띄 써나셔 여기는 어닉 띄 |
| (0829b4) | 게 보내야 이제야 빅에 토오니 | 선창 마의 | | 가 하딕 술옴새 흥고 보낸대 對 |
| (0205a4) | 니르오면 뵈옵디 몬 호믄 마장 | 설이 | | 너겨 病이 더 重홀까 너기옵당 |
| (0204a4) | 깃거 흥옵닉. 그러흥외. 正官은 | 섬으로서 | | 울 적 브터 東萊 극진-흥시믄 |
| (0319b6) | 그리곰 너기디 마르쇼셔. 쇼인 | 섬으로서 | | 울 적의 오래 묵디 말고 수이 |
| (0610a4) | 心中의는 비-홀 디 업건마는 | 섬의 | | 일이란디 心中의 밋디 못 흥여 |
| (0622b2) | 아르쇼셔. 이 淸희 바르 디나 | 섬죽 | | -흥 곳으란 스양 아니 흥셔도 |
| (0720b3) | 에 오르시는 날 알피 가져 버려 | 셴 | | 후에 信使 가시게 흥면 도홀 |
| (0505b2) | 양으로 東萊의 엇즈와 飛脚을 | 셴 | | 양으로 흥옴새. 수이 書契를 내 |
| (0402a3) | 出入에 差使員 뿐 아니라 여기 | 소임 | | -흥는 官人 대되 過愈에 밋는 |
| (0103a2) | 옵소. 아직 편히 안줍소. 나는 | 소임으로 | | 왓습거니와 처음이옵고 쏘는 |
| (0910b1) | 로 싱각-흥옵거니와 兩 國境의 | 소임을 | | 흥는 사름이 너비 마옴아디 못 |
| (0712b6) | 커면 冠帶도 흥옴새. 술 낼 일도 | 소임의 | | -게 그 스정을 닐러 들리소. 江 |
| (0420b5) | 글을 시작-흥여 批判 이실 적은 | 소임의 | | 죄는 관계티 아니나 代官네 이 |
| (0428b1) | 란 못즈오리. 判事네는 代官의 | 손에 | | 인는 거술 오늘 못디 아닌는가 |
| (0831b1) | 를 저어 나아 서르 장방 우회셔 | 손을 | | 드러 이 번 일은 니르-도록 니 |
| (0816b1) | 아리매 아프 디도 흥 가지오면 | 손을 | | 디접-흥시미 도로켜 어럽소이 |
| (0522b5) | 니 이러모로 미리 자닉-네-띄 | 쇠아기틀 | | 조지니 그리 아르셔 信使의 술 |
| (0324b5) | 썩지는 엇디 열현이 출히올가? | 쇼인 | | -네는 출혀 주시는 양으로 가 |
| (0206b2) | 섭섭흥오니 또 흥 츠레 흥옵새. | 쇼인 | | -네는 본디 못 먹습건마는 감 |
| (0319b6) | 오니 그리곰 너기디 마르쇼셔. | 쇼인 | | 섬으로서 울 적의 오래 묵디 말 |
| (0323a4) | 하니와 公木은 束數 잇스오니 | 쇼인 | | -네 수이 도라 가오면 五日 雜 |
| (0301b4) | 흥옵더니 이리 보오니 귀-흥외. | 쇼인이 | | 몬져 술을 써술 이리 御意흥시 |
| (0606b2) | 게 가서 茶를 자옵시고 흥 때 | 수여 | | 가옵시면 나 드린 저문 것-둘 |
| (0604a1) | 래 묵기도 엇디-흥니 아프려나 | 수이 | | 나게 흥쇼셔. 여기 떠나실 吉日 |
| (0714b5) | 극진히 무로시미 感激흥영이다. | 수이 | | 가 브틀 써시니 그 저기 御禮 |
| (0505b4) | 즈와 飛脚을 셴 양으로 흥옴새. | 수이 | | 書契를 내옵소. 어제는 東萊로 |
| (0320b2) | 흥옴스오니 아프려나 덕분을 써 | 수이 | | 歸島홀 양으로 브라느이다. 오 |
| (0323a5) | 木은 束數 잇스오니 쇼인-네 | 수이 | | 도라 가오면 五日 雜物은 묵는 |
| (0211b2) | 圓座 帳枕 以下 物을 催促흥여 | 수이 | | 드리옵소. 또 大廳地衣도 놀가 |
| (0320a3) | 으로서 울 적의 오래 묵디 말고 | 수이 | | 도라 오라 島主 마장 분부-흥 |
| (0126a6) | 오리. 茶禮는 어닉 띄 흥올고? | 수이 | | 홀 양으로 흥옵소. 東萊가 요스 |
| (0321b4) | 썩서이다. 그러커니와 홀리라도 | 수이 | | 도라 가게 흥쇼셔. 글란 路次 |
| (0611b5) | 고? 니르시매 밋디 아녀 우리도 | 수이 | | 흥고져 흥는 거시언마는 路次 |
| (0510b5) | 수이 가지여 오옵소. 싱각 밋피 | 수이 | | 오니 太守도 일당 깃비 너기시 |
| (0505a4) | 썩것더니 니르시는 말을 드르니 | 수이 | | 아니티 몬 홀 일이오니 대테로 |

| | | | |
|----------|--------------------|-------|--------------------|
| (0411a4) | 나 드려도 잘 잡디 못 흘 거시니 | 수이 | 내여 가옵소. 어와 어와 어히 오 |
| (0219a3) | 연향-흥실되 날도 저를 써시니 | 수이 | 출혀 나쇼셔. 덕분의 看品을 無 |
| (0516a6) | 도 도쿄 보롬도 도히 부러시니 | 수이 | 빅을 낼 양으로 흥옵소. 여긔 船 |
| (0507a1) | 흥시고 쏘 니르시기는 “맛당히 | 수이 | 봄이 本意 언마는 朝廷으로서 |
| (0511a4) | 쇠. 불귀예도 이시려니와 아직 | 수이 | 알고 시브오니 서울은 어닉 썩 |
| (0219b5) | 리는 이제 나올 써시니 게 일을 | 수이 | 출히옵소. 捷解新語 第二 終 捷 |
| (0205b2) | 흥할까 너기옵닝이다. 封進宴을 | 수이 | 흥을 써시니 그 저긔 아니 보을 |
| (0510b3) | 日 빅을 내을 써시니 그 返書를 | 수이 | 가지여 오옵소. 생각 밧긔 수이 |
| (0611b2) | 는吉日이 업스온가? 흘릴 만정 | 수이 | 흥고져 하니 엇더-흥온고? 니 |
| (0712b4) | 시프외. 그러면 冠帶도 흥옵새. | 술 | 낼 일도 소임의-게 그 스정을 |
| (0828b6) | 도 퍼매 더욱 뼈 아롭다이 너겨 | 술 | -들도 불셔 취-흥야스오니 도 |
| (0316b5) | 面上의는 酒氣 一切 업스오니 | 술과 | 거동이 굵즈와이다. 잘 못 먹건 |
| (0312a3) | 이다. 長老는 樣體 사름의 넘고 | 술도 | 잘 흘 뿐 아니라 글 잘 흥매 |
| (0317b1) | 흘 양으로 왓스오니 그러흔 디 | 술도 | 내 맛음을 바다 그러헉가 너기 |
| (0119b5) | 울쏸가? ㅁ장 춤히 通흥옵시니. | 술란 | 흥마 마옵소. 하 마다 니르시니 |
| (0405b1) | 가지옵도쇠. 오늘은 생각 밧긔 | 술술이 | ㅁ츠니 大慶이옵도쇠. 전의는 |
| (0815b6) | 은 祝願의 일이옵도쇠. 어제는 | 술술이 | 브트시니 아롭답스와 일일 와 |
| (0903b1) | 밧긔 御馳走 쏘 아니라 즈뭇 큰 | 술에 | 正體 업서 니르섬도 생각 아 |
| (0316a6) | 朋廷도 ㅁ장 일ㅋ르시느니라. | 술을 | 흔 가지로 자선마는 御手前 面 |
| (0318a1) | 1意 감격-흥여이다. 우리-들도 | 술을 | 一切 못 흥옵건마는 하 먹과다 |
| (0907a4) | 이 노외야 업서 亭主의 도리의 | 술을 | 디내 먹고 아프리 흥여 도라 가 |
| (0310a5) | 다. 앓가는 서르 멀리 안자시니 | 술을 | 남기시를 아란마는 나는 下口 |
| (0319a5) | 못 흘가 너기느이다. 이러트시 | 술을 | 너모 먹습고 젓스온 말숨을 만 |
| (0328a1) | 듯기도 더욱 깃브옵테. 어제는 | 술을 | ㅁ장 먹고 正根 업서 도라 오니 |
| (0318b3) | 출혀 안갓습느이다. 日本 도흔 | 술을 | 자시다가 이 술의 취-흥실가? |
| (0605b2) | 는 御雜談 듯좁고 즈뭇 거룩-흥 | 술을 | 흥고 나그내 시름을 퍼니 ㅁ장 |
| (0909b5) | 所望이옵도쇠. 昨夜는 우리도 | 술의 | 취-흥여 생각디 못 흥거니와 |
| (0609b4) | 무디히 너기디 마르쇼셔. 이도 | 술의 | 타시로송이다. 드른 信使의 御 |
| (0907b3) | 內內 이러로서 술을 써술 이도 | 술의 | 타스로 떠뎡습더니 쏘 친히 와 |
| (0318b4) | 나. 日本 도흔 술을 자시다가 이 | 술의 | 취-흥실가? 싱심이나 그러튼 |
| (0306a4) | 못 흥옵것마는 다 먹습느이다. | 술이 | 도토 아니 흥오니 권키 어렵습 |
| (0319b4) | 만히 흥온가 너기느이다. 이도 | 술이 | 습는 일이오니 그리곰 너기디 |
| (0306b2) | 는 양을 보오니 어내 잘 흥시는 | 술이옵도쇠 | . 잔수는 디낫스오니 일뎡 立酌 |
| (0716b1) | 1히 路次의 괴로오미나 從容히 | 쉬과다 | 흥야 습는 일이로송이다. 어와 |
| (0517b3) | 의-흥오니 무턱 오르셔 홀리나 | 쉬시고 | 빅-들토 도로 시과다 問安흥시 |
| (0823a3) | 게 맞디시고 아직 아직 종용히 | 쉬시미 | 本望이옵도송이다. 御出船 日은 |
| (0817a1) | 허물 마르시고 ㅁ장 맛음 편히 | 쉬신 | 후의 祝願의 宴享도 흥올가 미 |
| (0810a2) | 썩셔 예셔 四五 日어나 무그셔 | 쉬여 | 出船흥실 양으로 大君썩셔 닐러 |
| (0520b4) | 1로 ㅁ장 조출-흥야 맛음 편히 | 쉬오니 | 근심 마르시고 一二 日이나 디 |
| (0918a1) | 도 日本말을 사름-마다 니기기 | 쉬오니라 | 니르믈 고디 들렷더니 아프리 |
| (0522a5) | 는 엇디 열현이 흥렁잇가? ㅁ장 | 쉬온 | 일이언마는 朝鮮 家風이 패롭 |
| (0915b2) | 흥시면 즉시 생각 대로 되오몬 | 쉬을 | 써시니 이리 술오믈 휴지 삼디 |
| (0422b6) | 우리 습는 양으로 흥시면 밧긔 | 쉬을와 | 너기옵닉. 니르-도록 니르-도 |
| (0120b4) | 樣子를 습고 올 거시니 종용히 | 쉬옵소 | . 닉일 나죄란 入館흥여 보옵새 |
| (0412b6) | 1로 흘 제 안가-터로 니르시고 | 쉽디 | 못 호를 어히 업서 더러타 이러 |
| (0506b3) | 1上 道理 즈셔히 註進흥여시니 | 쉽사리 | 返事 올 써시니 그리 아옵소. |
| (0811b4) | 나 尺蠖이 구경-흥고 도라 오몬 | 쉽써니와 | 드린 사름을 이렇 더렁 폐를 싱 |
| (0803b1) | 바는 격기 奉行들 드리고 오래 | 슈고 | -흥던 아래 사름-들회 별로 포 |
| (0808a6) | 보시쇼. 江戸에 반 둘이나 무거 | 슈고 | -흥던 下人의-게 준 거슬 더러 |
| (0218b4) | . 춘 날의 오래 안자 게셔 언머 | 슈고 | -흥옵셔뇨? 看品 後 연향-흥실 |
| (0809a3) | 니르시면 출하리 자네 바다셔 | 슈고 | -흥던 對馬島 사름-들회-게나 |
| (0121a3) | 흥여 보옵새이다. 그리 흥옵소. | 슈고 | -흥옵시니. 앓가 습던 떠딘 빅 |
| (0818a4) | 이다. 진실로 太守 路次 處處의 | 슈고 | -흥신 樣子 말로 다 못 흘 일이 |
| (0825a3) | 1저 너겼드니마는 자네도 멀리 | 슈고 | -흥야 거시니 祝願 아니튼 못 |
| (0832b3) | 덕 아롭다왕이다. 太守 今度 | 슈고 | -흥신 양은 朝廷의도 즈셔히 |
| (0620a3) | -도록 생각-흥실 작시면 엇디 | 슈고로오매 | 결리끼올고? 이제 오로 올 써시 |
| (0122a1) | “어제는 일긔 사오나온딕 언머 | 슈고로이 | 건너지도다.” 녀-흥시고 問 |
| (0506a4) | 옵도 못 흥외. 東萊 니르시몬 “ | 슈고로이 | 건너 오시도쇠. 자넌-네 口上 |
| (0112a6) | 1리고 보롬이 사오납더니 일뎡 | 슈고로이 | 건너지도쇠. 올스외. 날이 노파 |
| (0619a1) | 가지 니르오니 비록 오르시기 | 슈고롭스울 | 디라도 더-들회 폐를 허스되게 |

| | | | | |
|----------|--------------------|------|--|--------------------|
| (0603a2) | 므 디도 혼 가지옵도쇠. 우리의 | 슈고를 | | 니르시거니와 이논 物에 비-헝 |
| (0603a6) | 헝에 비-헝면 바늘 굿티오 자네 | 슈고와 | | 페논 비-헝기어 어려오니 어니 |
| (0528a4) | 도 이실디 헝혀 批判헝 적이면 | 슈괴 | | 허일이 될가 이러트시 구읍닉. |
| (0113a5) | 니 닉일 듯보와 보옵소. 그 빅 | 슈중을 | | 너머서 떠디온가? 거의 다 와서 |
| (0419b5) | . 엇디 헝야 우리 읍논 일은 다 | 슈지 | | 사므시고 자넹-네 맛당-홀 쏜 |
| (0529b1) | 르시는 일이오니 옷 옷솔 보디 | 슬티 | | 아니케 장만-헝이오려니와 그 |
| (0624a2) | 느려 振舞 적이나 萬事에 보디 | 슬흔 | | 일이나 이시면 엇덜고 헝니 |
| (0910b6) | 니 헝니 내-게 맞디쇼셔. 다만 | 슬헝여 | | 헝시게 읍논 일이언마는 이 若 |
| (0705a5) | 돈돈이 분부-헝여 계시건만는 | 식골 | | 일이란디 아프란 貴흔 일도 업 |
| (0905b6) | 니-헝엇습닉. 헝혀 이리 솔오믈 | 식새와 | | 너기실 디도 겨실까 마장 첫습 |
| (0811b3) | 르논가 너기닝이다. 우리 가서 | 식훤이 | | 구경-헝고 도라 오몬 쉼찌니와 |
| (0621a1) | 니 더러다 자넹-게 맞디오니 홀 | 시 | | 도케 헝쇼셔. 참-마다 비에 |
| (0426a4) | 관겨티 아니커니와 전두의 홀 | 시 | | 一年二年은 아니오 엇디 부 |
| (0517b4) | 니 홀리나 쉬시고 빅-들토 도로 | 시과다 | | 問安헝시덩이다. 예-작지 使者 |
| (0424b6) | -마다 드리는 公木들도 므쇼게 | 시러 | | 헝르 스이 두락 잇틀 스이 두락 |
| (0828b4) | 나라 이런 接待의 만나 海上의 | 시름도 | | 퍼매 더욱 뼈 아롭다이 너겨 술 |
| (0403a1) | 니入이 잇디 아닐 듯 헝디 그 홀 | 시름을 | | 마장 未審히 너기읍닉. 어와 오 |
| (0605b3) | 니못 거륵-헝 술을 헝고 나그네 | 시름을 | | 퍼니 마장 아롭다이 너기닝이다 |
| (0305b2) | 이다. 예셔 보매 잔을 남기논가 | 시버 | | 뵈니 이 잔으란 브디 다 자옵소 |
| (0110a2) | 르니 일덩 二番 特送이 오논가 | 시브니 | | 자네-네도 아옵소. 이 빅는 므 |
| (0613b5) | 헝심 마티 닉일은 天氣 도홀가 | 시브다 | | 여기 사름도 니르오니 부루 出 |
| (0616a2) | 름도 업고 닉일도 天氣 조홀까 | 시브다 | | 헝니 새배 出船헝 작시면 못헝. |
| (0810a4) | 왔다 헝고 振舞홀 양도 잇논가 | 시브오니 | | 그리 아로서 종용히 헝쇼셔. 또 |
| (0511a4) | 도 이시려니와 아직 수이 알고 | 시브오니 | | 서울은 어니 썩 썩나셔 여긔논 |
| (0329a2) | 두옵소. 그러면 모되 雨天 브터 | 시작 | | -홀 썩시니 아프려나 看品坐의 |
| (0919b6) | 고? 진실로 나도 日本말을 니겨 | 시작 | | -헝여 이제 불셔 十年나마 되 |
| (0921a4) | 일이옵도쇠. 자네 日本말 비화 | 시작 | | -호미 계오 五六 年도 못 헝디 |
| (0420b2) | 도 업슨 때에 前例의 업슨 일을 | 시작 | | -헝여 批判 이실 적은 소임의 |
| (0415b2) | 니 홀 썩시니 힘 쓰옵소. 아프리 | 시절의 | | 樣子를 스설-헝여도 代官네도 |
| (0720b5) | 에 信使 가시게 헝면 도홀까 | 시프다 | | 헝니 그리 홀을 判事네-썩도 |
| (0712b1) | 올 디 다만 冠帶 헝시미 도홀가 | 시프외 | | . 그러면 冠帶도 헝옴새. 술 낼 |
| (0711b6) | 튼 안जू로 디접-헝시미 도홀까 | 시프외 | | . 또 디 使 信使를 위-헝야 |
| (0515b1) | 船 二 船 三 船-썩지는 三人- | 식 | | 그 나든 비에는 二人-식 티울 |
| (0515b3) | 三人-식 그 나든 비에는 二人- | 식 | | 티울 썩시니 이 道理 信使의 엇 |
| (0608a1) | 아니 헝닉이다. 接待의 馳走 | 심상 | | 티 아니시니 굿름도 계실가 너 |
| (0327b1) | 浦로셔 正官과 都船네 樣體 | 심상 | | 티 아나 奇特헝 相指를 다 잘 |
| (0314b1) | 로 아로서니 아프 일에 브터도 | 심상히 | | 너기디 말고 千年이나 가-도 |
| (0504b2) | 接待의 괴걸-호믈 위-홈이니 | 심상히 | | 아디 마옵소. 그러면 이런 줄은 |
| (0906b4) | 간을 미덧습닝이다. 어제는 하 | 심심헝매 | | 草草헝 振舞에 各各 종용히 말 |
| (0911b4) | 기 내 편을 텨 굿건마는 館中도 | 심심헝매 | | 이러툇 혼 우음 바탕을 니르디 |
| (0424b4) | 니 홀 일은 五日 雜物 드리기에 | 스나히논 | | 지고 겨집은 이고 날-마다 드 |
| (0806b2) | 게나 주시미 엇디-헝울고 앓가 | 스설 | | -헝시믈 드르며 이리 읍논 일을 |
| (0806a1) | 러 사홀 썩홀 홀릭 왓습는디 내 | 스설 | | -홀 쏜으로는 아프리 헝여도 |
| (0707a3) | 시과다 헝야 알외닉이다. 자네 | 스설 | | -헝는 배 날날치 筑前殿의 그 |
| (0622a2) | 下 올리디 말 일을 니르신 대로 | 스설 | | -헝여도 一人도 나쁘니 업시 |
| (0805a5) | 썩기도 어렵습찌니와 奉行들의 | 스설 | | -헝옴끼는 信使썩셔 거스려 니 |
| (0415b2) | 쓰옵소. 아프리 시절의 樣子를 | 스설 | | -헝여도 代官네도 아로서건마 |
| (0807a2) | 거니와 奉行들의 술설도 信使 | 스설의 | | 디디 아니 헝오니 내 칭각은 후 |
| (0821a1) | -헝옴기는 받고져 헝옴건마는 | 스스 | | 썩시 아니오니 아모리 헝여도 |
| (0207a2) | 야 마르쇼셔. 그러커니와 나의 | 스스로 | | 정잇 잔이오니 이 一杯만 잡습 |
| (0131b5) | 아니 헝실 듯 헝오리. 이는 내 | 스스로 | | 읍논 말이어니와 자넹-네도 헤 |
| (0125b4) | 실가 헝여 솔왓습닉. 그러헝면 | 스스로이 | | 어들 일은 아니오니 내 친히 東 |
| (0818b6) | 름의-게 네믈을 헝오니 모로미 | 스양 | | 마옵소. 전 브터 읍드시 우리는 |
| (0707b1) | 신 道理로소이다. 몬져 읍드시 | 스양 | | -헝고 맞디 아니미 아니라 바 |
| (0617b3) | 信使-썩 읍디 아난 전의 色色이 | 스양 | | -헝여도 이 격기-헝는 분-네 |
| (0801b4) | 나쁜 雜物 두실 적의 가지 가지 | 스양 | | -헝오완마는 굿-헝야 두시니 |
| (0908a6) | 일을 헝려 헝시읍논고? 맞당히 | 스양 | | -홀 듯 혼 일이언마는 朝鮮 썩 |
| (0825a1) | 헝농이다. 振舞홀 바논 되-도록 | 스양 | | 코져 너겼드니마는 자네도 멀 |
| (0622b4) | 니회 바르 디나 썩죽-헝 굿으란 | 스양 | | 아니 헝셔도 島主 아로서 案 |
| (0607b5) | 니라 헝시니 이를 보려 위-헝여 | 스양을 | | 아니 헝닉이다. 接待의 馳走 |

| | | | |
|----------|--------------------|--------|--------------------|
| (0420a6) | 이 업슨디 즈뫓 앓가 솟디시 이 | 스이 | 各官으로서 沙汰之 限도 업슨 |
| (0425a2) | 논 公木들도 므쇼게 시러 흐르 | 스이 | 두락 잇틀 스이 두락 왕덕-흐니 |
| (0217a4) | 茶禮人 날 종용히 뵈옵고 니즌 | 스이 | 업시 僉官들-씩 니르고 잇습니 |
| (0425a2) | 쇼게 시러 흐르 스이 두락 잇틀 | 스이 | 두락 왕덕-흐니 사름이나 므쇼 |
| (0130b3) | 드럿스오니 자넨-게 다시 술올 | 스이도 | 업스매 그러는 흐거니와 이 양 |
| (0323b2) | 도라 가오면 五日 雜物은 묵는 | 스이만 | 주실 써시오니 이 나라 흐 폐나 |
| (0619a4) | 되게 흠도 어히 업습고 우리도 | 스이에셔 | 이러툇 흐 差別도 솟디 아니 흐 |
| (0712b6) | 옴새. 술 낼 일도 소임의-게 그 | 스정을 | 닐러 들리소. 江戸로셔 御使 |
| (0806b6) | 너기실 듯 흐거니와 奉行들의 | 술[스]셜도 | 信使 스셜의 디디 아니 흐오니 |
| (0106a2) | 나-흐 일을 점치디 아니코 이리 | 술오니 | 언머 無調法이 너기시를 알건 |
| (0419a5) | -게도 밧비 뵈 디도 이셔 이리 | 술오니 | 이 우히는 다룬 묘리도 업스니 |
| (0523a2) | 나르셔 信使의 솟기란 對馬島主 | 술오디 | 信使 우다히 디나실 제 이틀 사 |
| (0718b2) | 뽕의 뵈올 양을 친히 가 괴별을 | 술오라 | . ” 흐 일 이로소이다. 그러면 |
| (0805a1) | 아닌 전의 奉行의셔 이 樣子를 | 술오라 | 코 닐러 왔던디 묻져 이리 니르 |
| (0708b2) | 는 무어신고 싱각-흐야 禮홀 제 | 술오려 | 흐닉. 장쉬 돈돈이 분부-흐야 |
| (0901b5) | 와 刀장 도쑈외. 이러로서 묻져 | 술오려 | 싱각-흐얏스오되 말슴-흐노라 |
| (0711a4) | 양으로 흐소. 이러로서도 묻져 | 술오려 | 흐연든디 이리 니르시미 맛당- |
| (0714a6) | 를 써시니 御對面히셔야 즈셔히 | 술오려 | 흐 일 이로소이다. 두 분을 예- |
| (0815a2) | 일인가? 이러로서 内内 御禮를 | 술오려 | 싱각-흐얏든디 우리의 情이 던 |
| (0125b6) | 니오니 내 친히 東萊 가 극진이 | 술오려니와 | 자넨도 單字를 써 보내옵소. 글 |
| (0408a4) | 을도쇠. 미리 술와 두옵소. 그는 | 술오려니와 | 흠의 三隻-도록 엇더-흐올고 |
| (0622b6) | 니 흐셔도 島主 아라셔 案内 | 술오령이다 | . 니르시는 양이 그러도 홀 듯 |
| (0524b5) | 을 미리 아라시는 이리오니 내 | 술오매 | 기드로디 말고 잘 주션-흐야 |
| (0801a6) | 奉行의로서 부러 사름을 보내야 | 술오믄 | 信使의셔 격기에 나른 雜物 두- |
| (0517a1) | 뵈올 내옵니. 對馬島主의로서 | 술오믄 | 도흔 天氣에 예-스지 브트시니 |
| (0812b2) | 에 太守 보오라 와셔 信使의 | 술오믄 | 어와 어와 三使의 御果報에 往 |
| (0709b3) | 과 昭長老 뵈오며셔 信使의 | 술오믄 | 江戸로셔 信使의 問安의 어룬 |
| (0713a6) | 곳지 왔닉이다. 여긔 드옵소. 使 | 술오믄 | 우흐로서 니르시는 바는 海上 |
| (0809b1) | 信使 大坂의 브트시매 對馬島主 | 술오믄 | 大坂 留守 아므가히 아므가히 |
| (0831a2) | 시미 도쑈왕이다. 니르니 太守 | 술오믄 | 출하리 半程이나 모실 써술 信 |
| (0905b6) | 이를 전위-흐얏습니. 형혀 이리 | 술오믄 | 식새와 너기실 디도 겨실까 |
| (0915b4) | 대로 되오몬 쉬올 써시니 이리 | 술오믄 | 휴지 삼디 마옵소. 극진이 권- |
| (0101b6) | 나. 안히 계시면 오려 흐여 案内 | 술오시드라 | . ” 니르고 오라. 御念比 |
| (0704b2) | 과 흐 가지니 使 아라 御禮를 | 술오시소 | . 짓습거니와 알외닝이다. 筑前 |
| (0902b2) | 격-흐거니와 아므리커나 우리 | 술온 | 일이오니 니일 브터 우리 흐올 |
| (0908b6) | 므 것도 솟디 아니 흐오니 이리 | 술온 | 우회란 자네 홀 대로 흐쇼셔. 바 |
| (0125a5) | 거 두옵소. 덩-흐여 주는 거술 | 술온 | 거시 아니라 別로 술와 주실가 |
| (0907b2) | 심도 즈세 몰라 内内 이러로서 | 술올 | 써술 이도 술의 타스로 떠덜습 |
| (0301b4) | 보오니 귀-흐외. 쇼인이 묻져 | 술올 | 써술 이리 御意히시니 감격히 |
| (0212a6) | 催促히여 보내오리. 친히 보와 | 술올 | 말이 만컨마는 요스이 일절 예 |
| (0827a1) | 나 오늘에 다드라는 섭섭흐옵기 | 술올 | 양도 업스오니 오늘란 종용히 |
| (0308b1) | 나 너기옵더니 안즈라 니르시니 | 술올 | 양이 업서이다. 우리 이를 禮예 |
| (0305a5) | 오디 하 극진히 디접-흐옵시니 | 술올 | 양도 업서이다. 예셔 보매 잔을 |
| (0130b3) | 나 병 드럿스오니 자넨-게 다시 | 술올 | 스이도 업스매 그러는 흐거니와 |
| (0321b2) | 이리 감격-흐 御意 시니 다시 | 술올 | 양이 업서이다. 그러커니와 홀 |
| (0717a1) | 히 무로시니 感激히신 절츠를 | 술올 | 양도 업서이다. 덕쵸의 무스히 |
| (0519b6) | 시 와셔 太守 솟는 바는 보오믄 | 술올 | 써술 계신 디도 서의-흐고 |
| (0708a5) | 나 이 차반 흐 줄을 부러 御禮을 | 술올 | 써시니 자네 일흠은 무어신고 |
| (0715a1) | 가 브틀 써시니 그 저긔 御禮 | 술올 | 줄을 잘 아라셔 도홀 양으로 술 |
| (0829b4) | 뵈에 트오니 선창의 가 하디 | 술옴새 | 흐고 보낸대 對馬島主 불셔 보 |
| (0911b2) | 로 너기오니 그리 아옵소. 이리 | 술옴이 | 내 편을 텨 곳진마는 館中도 심 |
| (0132b5) | 브디 홀 양으로 흐옵소. 힘 뼈 | 술와 | 보오려니와 東萊 釜山浦 오셔 |
| (0117a1) | 자넨-네 姓名을 아라 釜山浦예 | 술와 | 注進홀 거시니 書契를 내옵소. |
| (0114a6) | 아모 디 붓터도 東萊 釜山浦예 | 술와 | 方方 彼此의 좇즈올 거시니 근 |
| (0530b4) | 나리오니 信使의 對面히여 쏘도 | 술와 | 불 거시니 그리 아라시소. 捷解 |
| (0128b6) | 흐고 送使의 연고 업슨 양으로 | 술와 | 니일로 덩-흐디 이제야셔 正官 |
| (0715a4) | 올 줄을 잘 아라셔 도홀 양으로 | 술와 | 주쇼셔. 關伯으로서 奉行으로 |
| (0125b1) | 는 거술 술온 거시 아니라 別로 | 술와 | 주실가 흐여 술왔습니. 그러 |
| (0120a6) | 자직 앓줍새. 내 이제 釜山浦의 | 술와 | 注進흐고 니일 아츰은 東萊 |
| (0408a2) | 隻 습히여 三隻이옵도쇠. 미리 | 술와 | 두옵소. 그는 술오려니와 흠 |

| | | | |
|-----------|--------------------|--------|---------------------|
| (00178a2) | 다. 우히도 도를 양으로 御禮을 | 술와 | 주쇼셔. 우호로서 “모래는 吉日 |
| (0617a2) | ·러서 接待하는 분-네-의 禮를 | 술와 | 주쇼셔. 니르시는 道理 맛당은 |
| (0124b6) | 키 드러 주옵소. 글란 이제 東萊 | 술와 | 보내야 드릴 양으로 호오려니와 |
| (0521a6) | 일이 이셔 예-씩지 오소 하여 | 술와시니 | 종용히 잘 드르시오. 익 므스 일 |
| (0708b6) | 야 계시오니 젓쑈오나 범남을 | 술왔더니 | 다시곰 다시곰 극진히 行下하시 |
| (0530a2) | 리 이러-홀가 너겨 그대-도록 | 술왔더니마는 | 이리 니르시니 홀 일도 업기는 |
| (0125b1) | 아니라 別로 술와 주실가 하여 | 술왔습디 | . 그러하면 스스로이 어들 일은 |
| (0820a5) | 올 거슬 굿바 호읍실가 問安만 | 술왔습더니 | 色色 御慰懃히 니르신 양 잘못 |
| (0309a5) | 본디 오래 서기 잘 못 호으와 | 술왔습써니 | 自由히 너기옵신이 민망-하여 |
| (0106a6) | 시물 알건마는 하 無斗方하여 | 술훈 | 일리오니 샤-호읍소. 이대-도록 |
| (0601a4) | 三使를 請하여 상접-홈이라. | 술훈 | -도록 술훈-도록 아름다운 일은 |
| (0601a4) | 請하여 상접-홈이라. 술훈-도록 | 술훈 | -도록 아름다운 일은 兩國 安 |
| (0621b3) | 일이오니 이 알프란 곳-하여 | 술훈거든 | 조츠시미 옷듬이오닝이다. 쪼 |
| (0120b3) | 은 東萊 올라 가 送使의 樣子를 | 술훈고 | 올 거시니 종용히 쉬옵소. 닉일 |
| (0912b6) | 히로 더곰 이러-하니 心中에 | 술훈고져 | 하는 일도 잘 술훈디 못 하고 알고 |
| (0805a4) | 러 왔던디 묻저 이리 니르시니 | 술훈기도 | 어렵습써니와 奉行들의 스설- |
| (0523a2) | 를 조지니 그리 아라셔 信使의 | 술훈기란 | 對馬島主 술오디 信使 우다히 |
| (0716b2) | 로오미나 從容히 쉬과다 하여 | 술훈는 | 일이로송이다. 어와 어와 즉시 |
| (0722b1) | 제 御禮라 하여 對馬島主로써 | 술훈는 | 일은 어제는 對面호읍고셔 서 |
| (0910b6) | 맞디쇼셔. 다만 슬하여 하시게 | 술훈는 | 일이언마는 이 若衆흔 유여- |
| (0131b5) | 실 듯 호오리. 이는 내 스스로 | 술훈는 | 말이어니와 자닉-네도 헤아려 |
| (0422b5) | 로이 술훈스올가? 그저 그저 우리 | 술훈는 | 양으로 하시면 못기 쉬올까 너 |
| (0419b4) | 대로 호읍소. 엇디 하여 우리 | 술훈는 | 일은 다 슈지 사쁘시고 자닉-네 |
| (0623b4) | 페 아니케 아라 호쇼셔. 이리 | 술훈는 | 밧길 일덩 下人 나 東西도 모로 |
| (0806b2) | 갓가 스설-하시물 드르며 이리 | 술훈는 | 일을 일덩 힘 아니 쓰는 양으로 |
| (0319b4) | 하온가 너기노이다. 이도 술이 | 술훈는 | 일리오니 그러곰 쓰기다 마르 |
| (0519b4) | 馬島主의 使ㅣ 즉시 와셔 太守 | 술훈는 | 바는 보오믄 술을 써술 계신 디 |
| (0701b6) | 를 보시고 御回答이나 하시게 | 술훈녕이다 | . 하면 그러 하온가? 筑前殿 地 |
| (0719a3) | 라 하여 니르시오니 이런 줄을 | 술훈녕이다 | . 그러면 進物을 來日이라도 출 |
| (0710a6) | 맡 홀 일을 아라시게 하여 案内 | 술훈녕이다 | . 즈세 아홉거이다. 하면 불 작 |
| (0121a4) | 호읍소. 슈고-호읍시닉. 갓가 | 술훈딘 | 떠딘 비를 御念入하시 肝煎호 |
| (0808a2) | 과다 니르시거니와 문제 브터 | 술훈딘 | 道理를 잘 생각-하여 보시오. |
| (0707b1) | 지 업스신 道理로소이다. 묻저 | 술훈드시 | 스양-하고 밧디 아니미 아니라 |
| (0908b5) | 싱각-함매 인스당도 아프 것도 | 술훈디 | 아니 호오니 이리 술온 우회란 |
| (0619a6) | 도 스이에서 이러툷 혼 差別도 | 술훈디 | 아니 하는 양으로 니르미 민망- |
| (0216b2) | 한 디 일이 만하 問安도 즈로 | 술훈디 | 못 하니 일덩 정 업슨 양으로 나 |
| (0209a6) | 하여 이러-하니 허물 마르시오. | 술훈디 | 아닐 일이엇마는 前規에 잇는 |
| (0617b3) | 르실 듯 혼 일을 알고 信使-의 | 술훈디 | 아닌 전의 色色이 스양-하여도 |
| (0912b6) | 니 心中에 술훈고져 하는 일도 잘 | 술훈디 | 못 하고 알고도 無道히 된 仕合 |
| (0420a5) | 하여 낸 일이 업스디 즈못 갓가 | 술훈드시 | 이 스이 各官으로서 沙汰之限 |
| (0819a2) | 모로미 스양 마옵소. 전 브터 | 술훈드시 | 우리는 몸 바들 즈음이오니 그 |
| (0413a1) | 호믄 여히 업서 더러타 이러타 | 술훈든 | 아니커니와 자닉-네도 時分과 |
| (0211a3) | 라 호읍새. 우리도 日記를 보고 | 술훈스오니 | 이 후란 이러티 아니케 니르옵 |
| (0326a6) | 리. 마즘 종용-하여 더령 이렇 | 술훈스오니 | 언머 지리히 너기옵시느고 싱각 |
| (0409a1) | 켈 짐을 출혀 보와 다시 기별을 | 술훈스오리 | . 아직 公木을 드러 주옵소. 그 |
| (0422b3) | 굴힐 작시면 이대-도록 페로이 | 술훈스올가 | ? 그저 그저 우리 술훈는 양으로 |
| (0811a5) | 고 노르실 양으로 教令이 이실 | 식야 | 이대-도록 니르는가 너기닝이 |
| (0607a6) | 色의 慰懃을 꾸미시니 진실로 | 식양 | 코져 호건마는 드리신 사름의 |
| (0323b5) | 시오니 이 나라 혼 페나 더올가 | 싱각 | -호는이다. 우리 나라는 禮ㅣ |
| (0610b4) | 너기옵거니와 祝願의 일이라 | 싱각 | -호읍더니 御慰懃하신 말씀-즈 |
| (0423b6) | 외. 아직 代官들도 他國 일이라 | 싱각 | 말고 곰곰 생각-하여 보옵소. |
| (0106a1) | 처음으로 극진-하시물 미더 내 | 싱각 | -혼 일을 점치디 아니코 이리 |
| (0406b4) | 소. 요스이 빅 가는 디 보내려 | 싱각 | -호오니 公木 五十束만 묻저 |
| (0719b4) | 쑈올 디 자네 그 줍을 두저오려 | 싱각 | 도홀 양으로 괴결-하시소. 쪼 |
| (0815a2) | 이러로서 內內 御禮를 술오려 | 싱각 | -호얏든지 우리의 情이 던-하 |
| (0901b5) | 도쑈외. 이러로서 묻저 술오려 | 싱각 | -호엿소오되 말씀-호노라 떠 |
| (0708b2) | 써시니 자네 일흠은 무어신고 | 싱각 | -호가 禮홀 제 술오려 하닉. 장 |
| (0326b2) | 니 언머 지리히 너기옵시느고 | 싱각 | -호는이다. 니르시드시 오늘은 |
| (0717a5) | 오오니 이 우회는 아프 제라도 | 싱각 | 대로 하시게 알외쇼셔. 자닉-네 |
| (0916a6) | 갈-마다 와서 우음 바탕으로도 | 싱각 | -호올 써시니 자네-네도 내 |

| | | | | | |
|----------|--------------------|--|-------|--|-------------------|
| (0903b3) | 큰 술에 正體 업서 니러섬도 | | 싱각 | | 아니코 기리 안자시니 무식히도 |
| (0804a3) | 하리 이나 정으로 두엇더니 또 | | 싱각 | | 받의 金子를 예지이 보내노라 |
| (0920b5) | 리시니 일덩 귀롱-흔는 양으로 | | 싱각 | | -헝거니와 그러나 노헝여도 몰 |
| (0910a5) | 치더라 드러시니 이 혼 허믈로 | | 싱각 | | -헝옵거니와 兩 國境의 소임을 |
| (0510b5) | 그 返書를 수이 가지여 오옵소. | | 싱각 | | 밧긔 수이 오니 大守도 일덩 것 |
| (0920a4) | 야시되 진실로 이만 헝면 홀되 | | 싱각 | | -헝는 일 조금도 업서 常常 이 |
| (0903a5) | 라 니르시니 고디 드럿습더니 | | 싱각 | | 밧의 御馳走 쏜 아니라 즈뭇 큰 |
| (0702b3) | 디 못 홀 일이오니 太守는 엇디 | | 싱각 | | -헝시논고? 右之 道理 心得헝 |
| (0421a4) | 희이침으로 너기거니와 우리 | | 싱각 | | -흙은 五十 束을 束으로 굴히어 |
| (0915b1) | 괴 와셔 말습이나 헝시면 즉시 | | 싱각 | | 대로 되오몬 쉬을 써시니 이리 |
| (0418a4) | 업스오니 代官들도 가지 가지 | | 싱각 | | -헝건마는 별로 헝염죽-헝 묘 |
| (0620a5) | 이제 오로 올 써시니 믇옵 편히 | | 싱각 | | -헝쇼셔. 다만 닉일 出船의 뒤 |
| (0620a1) | 면 그러곰 헝올가? 그대-도록 | | 싱각 | | -헝실 작시면 엇디 슈고로오매 |
| (0416a5) | 가여 가라 헝논고? 헝갓 내히만 | | 싱각 | | -헝고 일을 그리 헝는가? 냇 |
| (0527a1) | 헝-헝는 양이로직 엇디 혼 편만 | | 싱각 | | -헝시논고? 他國에 불골 사오 |
| (0405a6) | 자브면 혼 가지옵도쇠. 오늘은 | | 싱각 | | 밧긔 술술이 믇추니 大慶이옵 |
| (0808a3) | 니와 문제 브터 숲던 道理를 잘 | | 싱각 | | -헝여 보시쇼. 江戸에 반 들이 |
| (0913b2) | 한머 서의-헝 거시라 흥 보심을 | | 싱각 | | -헝면 측-헝건마는 힘 대로 못 |
| (0811b6) | 와 드린 사름을 이렇 더렁 페를 | | 싱각 | | -헝면 마라도 도홀 듯 헝건마는 |
| (0908b4) | 썩과 고믈저은 안주의 珍味를 | | 싱각 | | -헝매 인스당도 아프 것도 숲 |
| (0601b6) | -게 請헝여 對坐헝는 일 곱곱 | | 싱각 | | -헝면 둥간티 아니케 잇기 어 |
| (0424a2) | 도 他國 일이라 싱각 말고 곱곱 | | 싱각 | | -헝여 보옵소. 送使는 텃텃-헝 |
| (0904a6) | 다. 우리로서도 회례를 헝오려 | | 싱각거니와 | | 朝鮮 料理면 자네-네 뺏에 드 |
| (0414b1) | . 자닉-네 걸터 니르심과 우리 | | 싱각과 | | 그 어긔미 天地 闊거니와 이리 |
| (0909b6) | . 昨夜는 우리도 술의 취-헝여 | | 싱각디 | | 못 헝거니와 더 若衆들의-게 보 |
| (0921b1) | . 못 혼디 그대-도록 믇옵 멀리 | | 싱각디 | | 마소. 日本 八 箇道內 六十六 |
| (0807a4) | 吏 스설의 디디 아니 헝오니 내 | | 싱각은 | | 亭主헝는 대로 헝시미 도홀가 |
| (0103a4) | 로 왓습거니와 처음이옵고 쏜는 | | 싱소 | | -헝 거시오니 各各 답답이 너 |
| (0105b2) | 키 가셔 萬事를 주션-헝야 나의 | | 싱소를 | | 나타나디 아닐 양으로 미뎃습 |
| (0318b6) | 자시다가 이 술의 취-헝실가? | | 싱심이나 | | 그러튼 아녀이다. 7장 취-헝 |
| (0311a4) | 도 이제란 이 7티 다 자옵소. | | 싱심이나 | | 어이 남기고 머그리잇가? 늦출 |
| (0217a1) | . 너기시는가 믇옵의 걸리옵닉. | | 싱심이나 | | 茶禮나 날 종용히 뵈옵고 니즌 |
| (0525a1) | 기드로디 말고 잘 주션-헝야 | | 써림 | | 업게 직간-헝시쇼. 니르시는 錯 |
| (0831a2) | 술오몬 출하리 半程이나 모실 | | 써슬 | | 信使썩셔 구둣여 말리는 故로 |
| (0821a1) | 기기는 받고져 헝옵건마는 스스 | | 써시 | | 아니오니 아모리 헝여도 좃디 |
| (0507b1) | 닉. 不自由헝 고딧 아브란 쓰실 | | 써시나 | | 잇거든 귀별-헝옵소.” 헝시는 |
| (0506b3) | 進헝여시니 쉽사리 返事 올 | | 써시니 | | 그리 아옵소.” 헝시고 쏜 니르 |
| (0620a5) | 2매 걸리끼올고? 이제 오로 올 | | 써시니 | | 므옵 편히 싱각-헝쇼셔. 다만 |
| (0219b3) | 비 너기옵닉. 우리는 이제 나올 | | 써시니 | | 게 일을 수이 출히옵소. 捷解新 |
| (0510b1) | 의 일이옵도쇠. 今日 비를 내올 | | 써시니 | | 그 返書를 수이 가지여 오옵소. |
| (0430a5) | 늘 홀 디라도 밤-새믈 기도로올 | | 써시니 | | 닉일 힘 쓰시기는 오로 미뎃습 |
| (0915b3) | 편 즉시 싱각 대로 되오몬 쉬올 | | 써시니 | | 이리 슬오믈 휴지 삼디 마옵소. |
| (0806a3) | 저도 가져 도라 갈 일은 업스올 | | 써시니 | | 원컨대 바드셔 下人의-게나 주 |
| (0205b6) | 그 띄는 병이 도홀 일도 잇스올 | | 써시니 | | 아니 뵈오렁잇가? 巡杯는 디낫 |
| (0205b2) | 옵닝이다. 封進宴을 수이 헝올 | | 써시니 | | 그 저긔 아니 보올까? 그 띄는 |
| (0612b2) | 제는 自由히 7음아디 못 헝올 | | 써시니 | | 그 날은 天氣에도 붓디 아녀 出 |
| (0902b4) | 일이오니 닉일 브터 우리 헝올 | | 써시니 | | 자네-네도 그리 아옵소. 어제는 |
| (0916a6) | 셔 우음 바탕으로도 싱각-헝올 | | 써시니 | | 자네-네도 내 망발-홀 디라도 |
| (0716a4) | 니 吉日을 굴히노라 廻引헝올 | | 써시니 | | 그 안히 路次의 괴로오미니 從 |
| (0515b3) | 그 나몬 비예는 二人-식 톱올 | | 써시니 | | 이 道理 信使의 엇죽고 小通事 |
| (0708a5) | 차반 혼 줄을 부러 御禮을 술올 | | 써시니 | | 자네 일홈은 무어신고 싱각-헝 |
| (0219a1) | 7品 後 연향-헝실디 날도 저믈 | | 써시니 | | 수이 출혀 나쇼셔. 덕분의 看品 |
| (0418b4) | 7式 굴히여 내면 十 束을 자블 | | 써시니 | | 判事네 엇더케 너기시논고? 代 |
| (0714b5) | 미 感激헝영이다. 수이 가 브틀 | | 써시니 | | 그 저긔 御禮 술을 줄을 잘 아 |
| (0616a6) | 트노라 출히기에 出船도 더딜 | | 써시니 | | 온갖 接待예 극진-헝심은 비예 |
| (0710a3) | 다 헝오니 來日은 三島의 가실 | | 써시니 | | 즉제 아니 보디 못 홀 일을 아 |
| (0508a5) | 의나 返事 올고 짐작이 게실 | | 써시니 | | 니르옵소. 뚝죽세. 어제 東萊 |
| (0517a5) | 헝농이다. 비예 7브심도 게실 | | 써시니 | | 서의-헝오니 무티 오로서 홀리 |
| (0615a5) | 로오니 船 中에 7브심도 게실 | | 써시니 | | 이제 座船을 트시고 오옵심을 |
| (0714a3) | 二三 日 안히논 江戸에 브트실 | | 써시니 | | 御對面헝셔야 7져셔 술오려 헝 |

| | | | | | |
|----------|----------------------|--|-------|--|--------------------|
| (0919a3) | 니기시는 비밀-흔 묘리도 이실 | | 써시니 | | 아프려나 ㅁㄹ치시과자. 어와 |
| (0306b5) | 는 디낫스오나 일딩 立酌ㅎ실 | | 써시니 | | 아옵시다시 오래 병 드으와 이 |
| (0328b2) | 二三日 디나거든 銅鑪 看品 ㅎ | | 써시니 | | 문져 代官네-씩 출히라 닐러 |
| (0307b4) | 今度 안자도 禮예는 삼디 못 ㅎ | | 써시니 | | 안자셔 종용히 말슴-ㅎ옵새. 後 |
| (0414b4) | 이리 ㅎ 뿐으로는 못디 못 ㅎ | | 써시니 | | 이 公木을 端端이 굴힐까? 그 |
| (0415a6) | ㅎ면 飛船 즘음에 맞디 못 ㅎ | | 써시니 | | 힘 ㅂㅅ소. 아프리 시절의 樣子 |
| (0329a2) | 러면 모리 雨天 브터 시작-ㅎ | | 써시니 | | 아프려나 看品坐의셔 드토디 |
| (0215a1) | 연고 업스신 날의 封進 看品 ㅎ | | 써시니 | | 그리 아르셔 나옵소. 우리는 연 |
| (0428b6) | 의 ㅈ세히 니르디 아니티 못 ㅎ | | 써시모로 | | 今夜란 브디 ㅂㅅ을 ㅎ옵소. 萬事 |
| (0821b5) | 노라 ㅎ면 이도 二三 日은 ㅎ을 | | 써시오 | | 또는 멀리 뵈셔 예-ㅅ지 아릅 |
| (0323b2) | 五日 雜物은 묵는 스이만 주실 | | 써시오니 | | 이 나라 ㅎ 꽤나 더울가 ㅅㅅ |
| (0604a5) | 日은 郡郡에 ㅅㅅ을 듯고 定 ㅎ | | 써시오니 | | 얼현티 아니 ㅎ오리. 아직 오늘 |
| (0302a2) | 너기옵디이다. 이전의도 ㅅㅅ | | 써술 | | 병 드오와 던시 ㅅㅅ디 못 ㅎ오 |
| (0519b6) | 셔 太守 ㄴ는 바는 보오믈 술을 | | 써술 | | 계신 ㅅ도 서의-ㅎ고 ㅅ 브트 |
| (0907b2) | ㅈ세 몰라 內內 이러로서 술을 | | 써술 | | 이도 술의 타스로 ㅅㅅㅅㅅ디 |
| (0301b4) | 니 귀-ㅎ외. 쇼인이 문져 술을 | | 써술 | | 이리 御意ㅎ시니 감격히 너기 |
| (0128a2) | 오며셔 브터 또 병 드리 머글 | | ㅅㅅ도 | | 잘 못 먹고 누엇스오니 나디 못 |
| (0607a5) | 라 ㅅㅅㅅ이다. 色色의 慰勸을 | | ㅅㅅㅅ시니 | | 진실로 ㅅㅅㅅㅅ져 ㅎ건마는 ㅅ |
| (0819b1) | 아옵소. ㅅ 海上 遠路에 두로 | | ㅅㅅ려 | | 예-ㅅ지 無事히 온 우회는 나 |
| (0914a3) | 樣子를 思分ㅎ셔 萬事를 두로 | | ㅅㅅ리시믈 | | 미더습디이다. 자네 말슴-ㅅ치 |
| (0103b3) | ㅅㅅ가 氣遣ㅎ오니 萬事의 두로 | | ㅅㅅ리시믈 | | 미들 ㅅㅅㅅ이옵도셔. 인스당의 |
| (0511b2) | 은 어닉 ㅅㅅ ㅅㅅ나셔 여기는 어닉 | | ㅅㅅ | | 브트시리라 니르옵는고? 셔을 |
| (0511a6) | 이 알고 시브오니 셔을은 어닉 | | ㅅㅅ | | ㅅㅅ나셔 여기는 어닉 ㅅㅅ 브트 |
| (0503a3) | 들 어닉 날 셔을을 ㅅㅅ나셔 어닉 | | ㅅㅅ | | 出船 吉日인고 ㅎ야 우리 兩人 |
| (0123b1) | 오라 가오니 다시 보옵새. 正官 | | ㅅㅅ | | 나도 사를을 보내올 거시니 자 |
| (0205a2) | 이러특시 ㅅㅅㅅ-ㅎ시믈 가 正官 | | ㅅㅅ | | 니르오면 ㅅㅅ디 못 호믈 ㅁ장 |
| (0528b3) | 道理 前後 樣子를 극진히 三使 | | ㅅㅅ | | 연즈오니 三使 니르시믈 극진 |
| (0811a5) | 오니 이도 일딩 大君의셔 信使 | | ㅅㅅ | | ㅅ고 노르실 양으로 教令이 아 |
| (0718a6) | 로셔 “모리는 吉日이오니 信使 | | ㅅㅅ | | ㅅ을 양을 친히 가 ㅅㅅ을 술오 |
| (0709b3) | 主과 昭長老 ㅅㅅ ㅅㅅ나셔 信使 | | ㅅㅅ | | 술오믈 江戶로셔 信使의 問安 |
| (0812b2) | 所에 太守 ㅅㅅ 보오라 와셔 信使 | | ㅅㅅ | | 술오믈 어와 어와 三使의 御果 |
| (0523a2) | 기를 조지니 그리 아르셔 信使 | | ㅅㅅ | | ㅅ기란 對馬島主 ㅅㅅ오디 信使 |
| (0715a6) | 關伯으로서 奉行으로 ㅅㅅ 信使 | | ㅅㅅ | | 아모 일도 업시 예-ㅅ지 브트 |
| (0515b5) | -ㅅ ㅅㅅ ㅅㅅ시니 이 道理 信使 | | ㅅㅅ | | ㅅㅅㅅ 小通事의-게 니르셔 거 |
| (0709b4) | 信使의 술오믈 江戶로셔 信使 | | ㅅㅅ | | 問安의 어룬의 官員 二人이 三 |
| (0530b3) | ㅅㅅ일은 祝願의 연향이오니 信使 | | ㅅㅅ | | 對面ㅎ여 또도 술와 불 거시니 |
| (0107a6) | 인스당의 ㅅㅅㅅ ㅅㅅ ㅅㅅㅅ 送使 | | ㅅㅅ | | 對面ㅎ면 奇特이 너기믈 아는 |
| (0803a4) | ㅅㅅ 닐러 보내놓이다. 對馬島主 | | ㅅㅅ | | 니르시는 바는 ㅅㅅ ㅅㅅㅅ들 ㅅ |
| (0803a1) | ㅅㅅㅅ셔. 委細之 儀는 對馬島主 | | ㅅㅅ | | 닐러 보내놓이다. 對馬島主의 |
| (0708a1) | ㅅㅅ-ㅎ신 바는 셔을 가셔 筑前殿 | | ㅅㅅ | | 接待ㅎ 일과 이 차반 ㅎ ㅅㅅ을 |
| (0132b1) | ㅅㅅ ㅅㅅ 힘 ㅅㅅ 이런 道理를 東萊 | | ㅅㅅ | | ㅅㅅ와 ㅅㅅ일 브디 ㅎ 양으로 ㅎ |
| (0212a3) | 로 ㅎ옵소. 니르시는 대로 東萊 | | ㅅㅅ | | ㅅㅅ와 催促ㅎ여 보내오리. 친 |
| (0503b2) | ㅅㅅ시니 자네-네 이 ㅅㅅ을 東萊 | | ㅅㅅ | | ㅅㅅ와 ㅅㅅㅅ 註進ㅎ야 그 返事 |
| (0505b1) | 테로이 아니 ㅎ실 양으로 東萊 | | ㅅㅅ | | ㅅㅅ와 飛脚을 ㅅㅅ 양으로 ㅎ옵 |
| (0328b3) | 看品 ㅎ ㅅㅅ시니 문져 代官네- | | ㅅㅅ | | 출히라 닐러 두옵소. 그러면 모 |
| (0325b6) | 吟味ㅎ여 드릴 거시니 代官네- | | ㅅㅅ | | 하 굴히디 말라 니르옵소. 그 |
| (0109b3) | 斷ㅎ 일은 업스오리. 代官네- | | ㅅㅅ | | 書簡을 ㅅㅅ 니름은 앓가 遠見 |
| (0804a6) | ㅅㅅ은 差別을 잘 아르셔 奉行네- | | ㅅㅅ | | 극진히 닐러 도로 보내시믈 미 |
| (0521a4) | 종용커든 보옵새이다. 判事네- | | ㅅㅅ | | 마디 못 ㅎ 미드려 ㅎ는 일이 |
| (0522b5) | 기니 이러모로 미리 자네-네- | | ㅅㅅ | | ㅅㅅㅅㅅ를 조지니 그리 아르셔 |
| (0617a2) | 네 잘 아르셔 接待ㅎ는 분-네- | | ㅅㅅ | | 禮를 술와 주쇼셔. 니르시는 道 |
| (0720a5) | 니르시는 바를 아춤의 奉行네- | | ㅅㅅ | | 議論ㅎ오니 御進物도 城에 오 |
| (0217a5) | ㅅㅅ고 니즌 스이 업시 僉官들- | | ㅅㅅ | | 니르고 잇습디이다. 드르니 正 |
| (0617b3) | 니르실 듯 ㅎ 일을 알고 信使- | | ㅅㅅ | | ㅅㅅ디 아닌 전의 色色이 ㅅㅅ양- |
| (0721a1) | ㅅㅅㅅ다 ㅎ니 그리 ㅎ을 判事네- | | ㅅㅅ도 | | 니르닝이다. 그러면 이러나 더 |
| (0818b2) | ㅅㅅ-ㅎ 테도 업스니 江戶 奉行 | | ㅅㅅ로셔 | | 보낸 金子를 자네 ㅅㅅㅅ 사를의 |
| (0801a6) | ㅅㅅ나셔 사를 길 곳에 ㅅㅅ기 ㅅㅅ | | ㅅㅅ로셔 | | 부러 사를을 보내야 술오믈 信 |
| (0820b2) | 御慰勸히 니르신 양 ㅅㅅㅅ ㅅㅅ | | ㅅㅅ로셔 | | 온 거슬 주노라 ㅎ시는 배 감격 |
| (0830a6) | 言使 ㅅㅅ에 문져 저어 나매 信使 | | ㅅㅅ로셔 | | 웨여 니르믈 아프리 멀리 보내 |
| (0517a1) | ㅅㅅ 이제 ㅅㅅ을 내옵디. 對馬島主 | | ㅅㅅ로셔 | | 술오믈 ㅅㅅ 天氣에 예-ㅅ지 ㅅ |

| | | | | |
|----------|---|-----|--|--|
| (0403b2) | -흥 읍소. 니르시는 바 判事 ^니 - | 씩로서 | | 가지 가지 다스림으로 우리도 |
| (0810a2) | 셔 쉬여 出船 ^흥 실 양으로 大君 | 씩셔 | | 닐러 왔다 흥고 振舞 ^흥 양도 있 |
| (0811a3) | 흥야 니르오니 이도 일덩 大君 | 씩셔 | | 信使 ^씩 뵈고 노르실 양으로 教 |
| (0805a1) | 씩셔 니르시디 아닌 전의 奉行 | 씩셔 | | 이 樣子 ^를 술오라코 닐러 왔던 |
| (0805b1) | 奉行들의 스설-흥 읍끼는 信使 | 씩셔 | | 거스려 니르셔도 다시곰 다시곰 |
| (0801b2) | 러 사름을 보내야 술오른 信使 | 씩셔 | | 격기에 나쁜 雜物 ^두 실 적의 기 |
| (0831a4) | 하리 半程이나 모실 씨슬 信使 | 씩셔 | | 구탁여 말리는 故로 太守 ^이 비 |
| (0804b5) | 습니. 對馬島主 ^옛 즈오른 信使 | 씩셔 | | 니르시디 아닌 전의 奉行 ^{씩셔} |
| (0809b3) | 留守 아므가히 아므가히 兩人 | 씩셔 | | 예셔 四五 日어나 무그셔 쉬여 |
| (0810b6) | 구경-흥 실 양으로 앓가 두 분- | 씩셔 | | 권-흥야 니르오니 이도 일덩 |
| (0516b4) | 곶 船頭도 그리 보와시니 信使 | 씩셔도 | | 최측-흥셔 이제 비를 내읍니. |
| (0805b6) | 흥 실 仔細 ^호 를 닐러 부러 사흘 | 쉴흘 | | 홀릭 왔습는디 내 스설-흥 켜스 |
| (0710a1) | 安의 어른의 官員 二人이 三島 | 씩지 | | 와 기도른다 흥오니 來日은 三 |
| (0518b4) | 마즘 년-흥여 도흥 天氣에 예- | 씩지 | | 건너시니 아므 일-도곤 아름다 |
| (0714b2) | 흥 일어로소이다. 두 분을 예- | 씩지 | | 극진히 무로시미 感激 ^흥 영이다 |
| (0703a4) | 니르시는 바는 녀녀-흥셔 예- | 씩지 | | 부리실 켜이 아니라 쏘 目錄을 |
| (0817b5) | 드시 上下 多人 中 無事히 예- | 씩지 | | 브트니 아름다오미 서르 同前 ^히 |
| (0517a3) | 씩로서 술오른 도흥 天氣에 예- | 씩지 | | 브트시니 아름다와 흥농이다. |
| (0715b2) | 썩 信使 ^씩 아모 일도 업시 예- | 씩지 | | 브트시니 아름다와 흥닉이다. |
| (0813a3) | 코 多人 中 아므 일도 업시 예- | 씩지 | | 브트시니 아름다오미 御禮의 |
| (0813b5) | 습이다. 니르시드시 無事히 예- | 씩지 | | 붓즈오니 對馬島에 브툼과 흥 |
| (0822a3) | 올 씨시오 쏘는 멀리 뵈셔 예- | 씩지 | | 아름다이 건너신 祝願 ^{振舞} 도 |
| (0814b3) | 답스외. 진실로 먼 海上의 예- | 씩지 | | 오른 우리 일란 더디고 太守의 |
| (0521a6) | 홀 미드려 흥는 일이 이셔 예- | 씩지 | | 오소 흥여 술와시니 종용히 잘 |
| (0519a5) | 니드시 天氣도 머흐디 아냐 예- | 씩지 | | 오오니 이제야 安堵 ^흥 영이다. |
| (0815b2) | 果報라도 公儀 서르 못고 예- | 씩지 | | 오온 바를 말로는 다 흥기 어려 |
| (0713a2) | 들리소. 江戸로서 御使 ^이 예- | 씩지 | | 왔닉이다. 여긔 드읍소. 使 술오 |
| (0518a2) | 르 시과다 問安 ^흥 시덩이다. 예- | 씩지 | | 使者 ^이 감격키 너기농이다. 우 |
| (0701a4) | 新語 第七 筑前 太守로서 예- | 씩지 | | 無事히 오시다 흥셔 덕담으로 |
| (0819b1) | 쏘 海上 遠路에 두로 쓰려 예- | 씩지 | | 無事히 온 우회는 나쁜 일도 업 |
| (0713b5) | 깃비 너기샤 우리 二人을 예- | 씩지 | | 問安 ^흥 시고 이 二三 日 안히는 |
| (0614a4) | 흥 읍새. 마즘 도흥 順風에 옛- | 씩지 | | 브트시니 大慶이로송이다. 아 |
| (0513b5) | 이니 寅時에 뵈에 忖셔 勘蠻夷- | 씩지 | | 가셔 브툼을 기드려려 흥신다 |
| (0101b3) | 썩 路次의 窺브매 이제야 門- | 씩지 | | 왔습니. 안히 계시면 오려 흥여 |
| (0324b2) | 도라 가셔도 約條의 덩-흥 限- | 씩지는 | | 엇디 열현이 출히올가? 쇼인니 |
| (0515b1) | 느죽-흥야 一 船 二 船 三 船- | 씩지는 | | 三人-씩 그 나쁜 뵈에는 二人 |
| (0613a4) | 는 구름 브트미 뵈즈오니 籃島- | 씩지는 | | 브트실까 아름다와 흥읍닝이다 |
| (0511a6) | 알고 시브오니 서울은 어닉 썩 | 썩나셔 | | 여긔는 어닉 썩 브트시리라 니 |
| (0511b4) | 는고? 서울은 아므 둘 아므 날 | 썩나셔 | | 釜山浦의는 아므 둘 아므 날 브 |
| (0908b2) | 양-흥 듯 흥 일이언마는 朝鮮 | 썩과 | | 고물저은 안주의 珍味를 싱각- |
| (0821a5) | 여도 좇디 몬 흥 일어로송이다. | 썩 | | 二三 日 內 出船이라 니르시니 |
| (0622a1) | 썩든 조츠시미 웃듬이오닝이다. | 썩 | | 中官 以下 올리디 말 일을 니르 |
| (0817a6) | 의 宴享도 흥올가 미덧닝이다. | 썩 | | 이거슨 귀티 아닌 거시언마는 |
| (0703a5) | 썩 예-씩지 부리실 켜이 아니라 | 썩 | | 目錄을 보니 어와 어와 여러 기 |
| (0825b5) | 썩러나 맛당-흥 실 대로 흥읍새. | 썩 | | 풍뉴-흥는 사름은 엇디 상해 |
| (0127b6) | 읍더니 엇디 흥 디 오며셔 브터 | 썩 | | 병 드러 머글 엇도 잘 못 먹고 |
| (0122a5) | .” 녀녀-흥시고 問安 ^흥 읍시대. | 썩 | | 軍官도 보내시더니 왔습던가? |
| (0218a3) | 여 이제는 도화습닉이다. 이제 | 썩 | | 보울 거시니 종용티 못 흥외. 三 |
| (0601b3) | 信之道를 서르 던-흥여 이제 | 썩 | | 三使 ^이 멀리 渡海 ^흥 셔 내-계 |
| (0810b3) | 니 그리 아르셔 종용히 흥쇼셔. | 썩 | | 大坂의 城도 거르기 장만-흥엇 |
| (0608b1) | 디니마는 하 극진-흥시매 멈쳐 | 썩 | | 귀-흥 집-괴지 경의 도홈이 뵈 |
| (0312b2) | 契마다 보시고 ㄱ장 기리시고 | 썩 | | 島主도 나흔 저므셔도 萬事 ^이 |
| (0419a3) | 함들흔 자닉-네 하 다스리시고 | 썩 | | 우리-게도 밧비 썩 디도 이셔 |
| (0506b5) | 썩 씨시니 그리 아읍소.” 흥시고 | 썩 | | 니르시기는 “맛당히 수이 봄이 |
| (0914b2) | 자네 말슴-겻치 ㄱ장 보드랍고 | 썩 | | 인스당 흥시는 말 거동이 진실 |
| (0310b6) | 컹고 몬져 썩-흥엇건마는 이도 | 썩 | | 먹스오니 자닉-네도 이제란 이 |
| (0719b6) | 각 도흥 양으로 괴걸-흥시소. | 썩 | | 드린 사름-들토 다는 폐로를 |
| (0819a6) | 바들 즈음이오니 그리 아읍소. | 썩 | | 海上 遠路에 두로 쓰려 예-씩지 |
| (0211b5) | 物을 催促 ^흥 여 수이 드리읍소. | 썩 | | 大廳地衣도 놀가 다 하야-드시 |
| (0121b2) | 빅을 御念入 ^흥 셔 肝煎 ^흥 읍소. | 썩 | | 아니 니르셔도 열현이 아니 흥 |

| | | | |
|----------|--------------------|--------|--------------------|
| (0105a1) | 부진이 니르시니 뜻을 퍼거니와 | ㅅ | 送使다히셔는 엇디 녀길 디 모 |
| (0509a5) | 生來 九日十日이나 되려니와 | ㅅ | 서울셔 返事 출히기에 二日三 |
| (0706a1) | 分타 ㅎ셔 感激히 녀기시울쇠. | ㅅ | 이거슨 불관-ㅎ 거시언마는 下 |
| (0712a1) | 로 ㄷ첩-ㅎ시미 ㄷ홀까 시프외. | ㅅ | 더 使 信使를 위-ㅎ야 冠帶를 |
| (0907b5) | 이도 술의 타스로 ㅅ뎡습더니 | ㅅ | 친히 와 겨셔 너모 慰懃ㅎ신 御 |
| (0804a3) | 출하리 이나 정으로 두엇더니 | ㅅ | 싱각 반의 金子를 예지이 보내. |
| (0206a6) | 음으로 보옵고 하 ㅅㅅㅎ오니 | ㅅ | ㅎ 츠레 ㅎ옵새. 쇼인-네는 본 |
| (0427b5) | 의 두어서 여러 ㅅ을 일히시니 | ㅅ | 밧기 두고 ㅅ홀 사름도 업고 엇 |
| (0807b2) | 로 ㅎ시미 ㄷ홀가도 녀기옵닉. | ㅅ | 내 힘으로 더 使를 自由히 ㅅ옵 |
| (0908a4) | 도로켜 붓그러운 次第옵던 | ㅅ | 회례라 일홈 지어 ㅅ스 일을 ㅎ |
| (0814a4) | 브름과 ㅎ 가지로 깃거 ㅎ는 | ㅅ | 닉일 구름 가기 ㄷ타 니르시니 |
| (0813b1) | 아름다오미 御禮의 너머습는 | ㅅ | 닉일 날세 구름 가기도 ㄷ타 니 |
| (0914b5) | 가끔다끔 ㅅ특다코 일ㅅ습는 | ㅅ | 말습-ㅎ시는 전치라 이리 니르 |
| (0608b4) | ㅅ-ㅅ지 경의 ㄷ홀미 ㅅ을 퍼고 | ㅅ는 | 어리로온 아회-들의 ㅅ노는 양 |
| (0103a4) | 김으로 ㅅ습거니와 처음이옵고 | ㅅ는 | 싱소-ㅎ 거시오니 各各 ㅅㅅㅅ이 |
| (0821b6) | 권 이도 二三日은 ㅎ을 ㅅ시오 | ㅅ는 | 멀리 ㅅ셔 예-ㅅ지 아릅다이 ㅅ |
| (0530b4) | ㅅ 연향이오니 信使의 對面ㅎ여 | ㅅ도 | 술와 볼 거시니 그리 아릅시오. |
| (0719b6) | ㅅ ㅅ런 사름-돌토 다는 ㅅ로을 | ㅅ | -ㅎ니 ㅅ고져 ㅎ니 엇더-ㅎ쇼 |
| (0711b3) | 고 그져 니러 나미 ㅅ장 ㅅㅅㅎ | ㅅ | ㅎ오니 ㅎ튼 안쥬로 ㄷ첩-ㅎ시 |
| (0608b6) | 퍼고 ㅅ는 어리로온 아회-들의 | ㅅ노는 | 양과 놀래 ㅅ은 모로거니와 ㅅ |
| (0909a2) | ㅅ. 비록 내나 ㅅ이나 연고 이실 | ㅅ라도 | 振舞에 어긋날 일은 업소오리. |
| (0413b4) | 도쇠. 니르시는 배 오로 그러홀 | ㅅ라도 | 이 公木은 넷 公木의 一 束도 ㅅ |
| (0416b6) | ㅅ려나 ㅅ습ㅎ셔 저기 ㅅ足홀 | ㅅ라도 | 분별 아니티 ㅅ ㅎ실 일은 ㅅ르 |
| (0906a5) | ㅅ과 놀래를 ㅅ고 ㅅ쥬만 위-ㅎ | ㅅ를이오니 | 의심도 업술 양으로 ㅅ간을 미 |
| (0103b4) | 니 萬事의 두로 ㅅ리시를 미들 | ㅅ를이옵도쇠 | . 인스양의 말습이어니와 말습 |
| (0109b6) | ㅅ 니름은 ㅅ가 遠見으로써 안 | ㅅ다히 | 日本 ㅅ ㅅ다 니르니 일딩 二 ㅅ |
| (0128a5) | 니 나디 ㅅ 홀가 녀기오니 우리 | ㅅ | 나울쇠. 그러면 엇디 브디 ㅅ일 |
| (0309b5) | 안자셔 禮 어려오니 당테로 ㅅ | ㅅ | 들기를 禮를 ㅅ습새. ㅅ장 ㅅ |
| (0402a6) | ㅅ 밋는 바는 자닉-네도 아릅실 | ㅅ | 아니라 兩國 誠信으로 公貿易 |
| (0312a3) | ㅅ 樣體 사름의 ㅅ고 술도 잘 ㅎ | ㅅ | 아니라 글 잘 ㅎ매 朝廷으로써 |
| (0420a1) | ㅅ지 사르시고 자닉-네 맛당-ㅎ | ㅅ | 몬져 ㅎ시는고? 네 브터 束을 ㅅ |
| (0402a2) | 을 세니 ㅅ리니 出入에 ㅅ使員 | ㅅ | 아니라 여기 소임-ㅎ는 官人 ㅅ |
| (0903a5) | 드렷습더니 싱각 밧의 御馳走 | ㅅ | 아니라 ㅅ못 큰 술에 正體 ㅅ |
| (0428a3) | ㅅ름도 업고 엇디 ㅎ올고? 今夜 | ㅅ | 下人을 ㅅ을 ㅎ이시면 ㅅ일란 |
| (0423b2) | ㅅ르거니 ㅅ답거니 날을 ㅅ르를 | ㅅ으로는 | 公儀는 ㅅ디 아니코 이 민망을 |
| (0414b3) | 어기미 天地 ㅅ거니와 이리 ㅎ | ㅅ으로는 | ㅅ디 ㅅ 홀 ㅅ시니 이 公木을 ㅅ |
| (0806a1) | ㅅ홀 ㅎ릭 ㅅ습는디 내 ㅅ설-ㅎ | ㅅ으로는 | 아프리 ㅎ여도 가져 도라 갈 일 |
| (0703a4) | ㅅ ㅅ녀-ㅎ셔 예-ㅅ지 부리실 | ㅅ이 | 아니라 ㅅ 目錄을 보니 어와 어 |
| (0721b4) | 장 올히 ㅎ신 바늘 대되 일ㅅ를 | ㅅ이 | 아니라 大君도 거르기 喜悅이 |
| (0406a6) | 은 公木 善惡의 브터 判事네과 | ㅅ홀가 | 녀기오니 ㅅ장 잘 출히옵소. 요 |
| (0126a2) | ㅅ이 술오려니와 자닉도 單字를 | ㅅ | 보내옵소. 글란 그리 ㅎ오리. ㅅ |
| (0407a4) | 옵소. ㅅ일 東萊 올라 가 모뢰- | ㅅ음 | 드리려니와 ㅅ슴 ㅅ 몇 ㅅ이나 |
| (0320b4) | 로 브라노이다. 오션 디 오래디 | 아냐 | 限도 머러시니 요스이 머르시 |
| (0519a5) | 다. 니르시드시 天氣도 머ㅎ디 | 아냐 | 예-ㅅ지 오오니 이제야 安堵ㅎ |
| (0826a2) | ㅎ신고? 그 날란 니르시매 밋디 | 아냐 | 다 더브러 가오리. 오늘은 마즘 |
| (0513b1) | ㅅ외. ㅅ일은 天氣에는 ㅅ듯디 | 아냐 | 吉日의 위-ㅎ이니 寅時에 ㅅ예 |
| (0126b2) | 로 ㅎ옵소. 東萊가 요스이 ㅅ디 | 아냐 | ㅎ시더니 잠깐 ㅎ려 겨시니 二 |
| (0327b1) | 正官과 都船네 樣體 ㅅ 심상티 | 아냐 | 奇特ㅎ 相指를 다 잘 ㅎ더라 기 |
| (0107a2) | ㅅ이신 거시니 代官들히 모시디 | 아냐는 | ㅅ 홀 일이어니와 자네 혼자 가 |
| (0312b4) | ㅅ르셔도 萬事 ㅅ長老의 ㅅ디디 | 아녀 | 奇特ㅎ ㅅ간이라 니르니 우리도 |
| (0612b5) | ㅅ시니 그 날은 天氣에도 ㅅ디 | 아녀 | 出船ㅎ실 거시니 그리 아릅쇼 |
| (0611b3) | ㅅ 엇더-ㅎ온고? 니르시매 밋디 | 아녀 | 우리도 수이 ㅎ고져 ㅎ는 거시 |
| (0318b6) | ㅅ ㅅ실가? ㅅ심이나 그러튼 | 아녀이다 | . ㅅ장 ㅅ-ㅎ엿소오니 방의 ㅅ |
| (0710a4) | ㅅ은 三島의 가실 ㅅ시니 ㅅ제 | 아니 | 보디 ㅅ 홀 일을 아릅시게 ㅎ이 |
| (0623b1) | 길 거시니 보슬퍼 아프 ㅅ도 ㅅ | 아니 | 케 아라 ㅎ쇼셔. 이리 ㅅ는 밧 |
| (0416a3) | ㅅ 五十束 드린 公木을 ㅅ分도 | 아니 | 잡고 나여 가라 ㅎ는고? ㅎ갓 |
| (0121b2) | 를 御念入ㅎ셔 肝煎ㅎ옵소. ㅅ | 아니 | 니르셔도 ㅅ현이 아니 ㅎ오리. |
| (0306a4) | 가는 다 먹습노이다. 술이 ㅅ토 | 아니 | ㅎ오니 권키 어릅ㅅ것마는 ㅅ |
| (0205b3) | ㅅ을 수이 ㅎ을 ㅅ시니 그 저기 | 아니 | 보올까? 그 ㅅ는 병이 ㄷ홀 일 |
| (0206a1) | 병이 ㄷ홀 일도 잇스을 ㅅ시니 | 아니 | ㅅ오령잇가? 巡杯는 디넛습거 |

| | | | | | |
|----------|--------------------|--|-----|--|--------------------|
| (0813a1) | 海路의 흥르도 惡風을 만나디 | | 아니 | | 코 多人 中 아므 일도 업시 예- |
| (0403b5) | 스럼으로 우리도 열현이는 아디 | | 아니 | | 흥옹닉. 在前 브터 代官들의-가 |
| (0609b1) | 술-흥여 正體 업스와 상을 서디 | | 아니 | | 코 니러 나오니 무디히 너기디 |
| (0208b2) | 옹닉이다. 그리 니르시물 고디 | | 아니 | | 듯줍닉. 日本이면 이를 가지고 |
| (0132a4) | 시소. 客人이 와야 亭主 보디 | | 아니 | | 흥옹는가? 그러커니와 게서 힘 |
| (0212b2) | 컨마는 요스이 일절 예는 오디 | | 아니 | | 흥시니 그장 미야흥여 노흠스오 |
| (0329a5) | 아므려나 看品坐의셔 드토디 | | 아니 | | 케 직간-흥옹소. 捷解新語 第三 |
| (0423b2) | 저므를 쏜으로는 公儀는 되디 | | 아니 | | 코 이 민망을 비-홀 디 업스와. |
| (0428b6) | 樣子도 送使의 즈세히 니르디 | | 아니 | | 티 몬 홀 써시모로 今夜란 브디 |
| (0131a6) | 드르셔도 양병이라는 녀기디 | | 아니 | | 흥실 거시니 자닉 그르다는 아 |
| (0807a2) | 들의 설설도 信使 스설의 디디 | | 아니 | | 흥오니 내 생각은 亭主는 대. |
| (0412a6) | 으로서 東萊 時分도 헤아리디 | | 아니 | | 코 公木을 거르기 세치 고티다 |
| (0621a5) | 어렵기는 죠고마흥고 느리디 | | 아니 | | 흥시면 켓기 사름-돌히 민만- |
| (0825b5) | 사름은 엇디 상해 블러 들이디 | | 아니 | | 흥신고? 그 날란 니르시매 밋디 |
| (0106a1) | 미더 내 생각-흥 일을 접치디 | | 아니 | | 코 이리 슬오니 언머 無調法이 |
| (0324a3) | 흥여 흥 번 덩-흥 후는 고티디 | | 아니 | | 흥니 五日 雜物은 자닉-네 十 |
| (0309a1) | 本 사름은 肉食 데잇 거슬 먹디 | | 아니 | | 흥오니 그러흥온 디 본디 오래 |
| (0910b3) | 음아디 못 흥면 후의 드림죽디 | | 아니 | | 흥니 내-게 맞디쇼셔. 다만 슬 |
| (0619a6) | 이예서 이러툃 흥 差別도 슸디 | | 아니 | | 흥는 양으로 니르미 민망-흥오 |
| (0908b5) | 흥매 인스당도 아므 것도 슸디 | | 아니 | | 흥오니 이리 슬온 우회란 자네 |
| (0109a2) | 와 그러흥온가? 遠見의는 못디 | | 아니 | | 흥여도 뵈면 즉시 釜山浦로서 |
| (0505a6) | 니티 몬 홀 일이오니 대테로이 | | 아니 | | 흥실 양으로 東萊의 엇즈와 飛 |
| (0505a4) | 니 니르시는 말을 드르니 수이 | | 아니 | | 티 몬 홀 일이오니 대테로이 아 |
| (0121b2) | 옹소. 쏘 아니 니르셔도 열현이 | | 아니 | | 흥오리. 東萊로서 앓가 도라 왓 |
| (0326a3) | 는 判事네과 代官들히 열현이 | | 아니 | | 흥오리. 마췌 좃용-흥여 더령 |
| (0525b1) | 풍속을 아오니 이대-도록 세치 | | 아니 | | 니르시다 엇디 열현히 흥링잇가 |
| (0307b2) | 올가 엇줍습닉. 前例는 그러티 | | 아니 | | 커니와 今度 안자도 禮에는 삼 |
| (0405b4) | 大慶이옹도쇠. 전의는 그러티 | | 아니 | | 뜬니마는 이러나 더러나 니르스 |
| (0211a5) | 보고 슸스오니 이 후란 이러티 | | 아니 | | 케 니르옹소. 圓座 帳枕 以下 物 |
| (0117b4) | 도 어근나면 아므의 히도 도티 | | 아니 | | 흥오니 브디 내옹소. 그리 흥옹 |
| (0304a2) | 리는 듯 흥옹건마는 채는 도티 | | 아니 | | 흥오니 이제라도 녀녀-흥닉이 |
| (0426a3) | 일이니 내 죄예 만나든 관겨티 | | 아니 | | 커니와 전두의 홀 시 一年二 |
| (0602a2) | 는 일 곰곰 생각-흥면 둥간티 | | 아니 | | 케 잇기 어려운 일인가 녀기건 |
| (0604a6) | 을 듯고 定홀 써시오니 열현티 | | 아니 | | 흥오리. 아직 오들은 祝願의 일 |
| (0214b1) | 特送이오니 몬져 보심이 올티 | | 아니 | | 흥온가? 예는 흥 번이나 뵈와시 |
| (0529b1) | 는 일이오니 웃 웃술 보디 슸티 | | 아니 | | 케 장만-흥이오려니와 그 모단 |
| (0903b3) | 예 正體 업서 니러섬도 생각 | | 아니 | | 코 기리 안자시니 무식히도 흥 |
| (0131b3) | 니 흥실 거시니 자닉 그르다는 | | 아니 | | 흥실 듯 흥오리. 이는 내 스스도 |
| (0213b2) | 으로서 이러셔는 오라 더러셔는 | | 아니 | | 온다 다 노흥여 흥시니 흥 몸으 |
| (0429b3) | 도쇠. 우리도 그런 줄은 모로든 | | 아니 | | 컨마는 민망-호믈 뉘-게 니르 |
| (0213a1) | 스와 흥옹닉. 니르시미 그르든 | | 아니 | | 흥거니와 더러 날의 東萊 釜山 |
| (0426b6) | 시과다. 그리 니르시미 그르든 | | 아니 | | 커니와 우리도 흥나 들히셔 되 |
| (0119a6) | 시니 깃브옹거니와 고디 들든 | | 아니 | | 흥외. 저기 아라 듯즈올쏸가? |
| (0413a1) | 어히 업서 더러타 이러타 슸든 | | 아니 | | 커니와 자닉-네도 時分과 公木 |
| (0417a1) | 흥셔 저기 不足홀 써라도 분별 | | 아니 | | 티 몬 흥실 일은 서르 時分과 |
| (0607b5) | 니 이를 보려 위-흥여 스양을 | | 아니 | | 흥닉이다. 接待의 馳走 심상 |
| (0805b4) | 스려 니르셔도 다시곰 다시곰 | | 아니 | | 밋디 못 흥실 仔細호믈 닐러 부 |
| (0806b5) | 드르며 이리 슸는 일을 일덩 힘 | | 아니 | | 쓰는 양으로 녀기실 듯 흥거니 |
| (0107b5) | 키의 뜻으로 보탬 바는 이실 듯 | | 아니 | | 흥건마는 모시기관 흥오리. 先 |
| (0622b4) | 아르 디나 섬죽-흥 곳으란 스양 | | 아니 | | 흥셔도 島主 아라셔 案内 슸 |
| (0825a6) | 드 멀리 슈고-흥야 거시니 祝願 | | 아니 | | 튼 못 홀 양으로 전 브터 니르스 |
| (0420b5) | 이실 적은 소임의 죄는 관계티 | | 아니나 | | 代官네 이러트시 므옹 대로 흥 |
| (0707b2) | 스디시 스양-흥고 밋디 아니미 | | 아니라 | | 바다셔 홀 테도 업스니 아므려 |
| (0125a5) | 덩-흥여 주는 거슬 슸온 거시 | | 아니라 | | 別로 슸와 주실가 흥여 슸왓스 |
| (0703a4) | 녀-흥셔 예-스지 부리실 쏴이 | | 아니라 | | 또 目錄을 보나 어와 어와 여려 |
| (0721b4) | 히 흥신 바늘 대되 일크를 쏴이 | | 아니라 | | 大君도 거르기 喜悅이 마이 업 |
| (0828b1) | 故로 귀-흥 곳을 구경-홀 분 | | 아니라 | | 이런 接待의 만나 海上의 시름 |
| (0312a3) | 體 사름의 녀고 슸도 잘 홀 쏴 | | 아니라 | | 글 잘 흥매 朝廷으로서도 書契 |
| (0402a2) | 세니 느리니 出入에 差使員 쏴 | | 아니라 | | 여기 소임-흥는 官人 대되 過 |
| (0903a5) | 럿습더니 생각 밋의 御馳走 쏴 | | 아니라 | | 즈못 큰 슸에 正體 업서 니러 |

| | | | |
|----------|-------------------|--------|-------------------|
| (0402a6) | 그는 바는 자네-네도 아랴실 썬 | 아니라 | 兩國 誠信으로 公貿易이라 덩 |
| (0129a4) | 병이라 니르시니 正官이 나디 | 아니면 | 우리의 그르믄 발명 못 홀 거시 |
| (0911b5) | 이러툇 혼 우음 바탕을 니르디 | 아니면 | 프어술 노름을 삼스울꼬? 모로 |
| (0912b3) | 기 말도 헉더니마는 常常 쓰디 | 아니모로 | 히로 더곰 이러-헉니 心中에 |
| (0707b1) | 몬져 읍드시 스양-헉고 밧디 | 아니미 | 아니라 바다셔 홀 테도 업스니 |
| (0106b3) | 소, 이대-도록 거르기 니르디 | 아니셔도 | 자네 처엄 일이신 거시니 代官 |
| (0822a3) | 다이 건너신 祝願 振舞도 밧디 | 아니시고 | 御渡海 ㅎ실 작시면 아므란 御 |
| (0608a1) | 넉이다. 接待의 馳走ㅣ심상티 | 아니시니 | 긋븜도 계실가 녀겨 도라 가고 |
| (0706a6) | 보내여 겨옵시더니 이를 받디 | 아니시면 | 우리의 그름이라도 헉고 장쉬 |
| (0526a6) | 주선-헉여도 맛당히 녀기시디 | 아니실가 | 근심-헉옵넉이다. 아직 가서 |
| (0808b3) | 셔 아프리 닐러도 바들 인스는 | 아니어니와 | 對馬島主의 힘으로도 도로 보 |
| (0130b5) | 매 그러는 헉거니와 이 양병은 | 아니오 | 正官 氣色이 건디엄죽-헉면 |
| (0426a6) | 전두의 홀 시 一年二年은 | 아니오 | 엇디 부디-홀가 녀기시는고? |
| (0821a1) | 받고져 헉옵건마는 스스 썬시 | 아니오니 | 아모리 헉여도 좃디 못 홀 일이 |
| (0125b4) | 그러헉면 스스로이 어들 일은 | 아니오니 | 내 친히 東萊 가 극진이 술오려 |
| (0527a5) | 作法은 모로고 내 나라 편잔은 | 아니온가 | ? 우리도 小小헉면 므스 일로 |
| (0804b5) | 엿조은 信使썬셔 니르시디 | 아닌 | 전의 奉行썬셔 이 樣子를 술오 |
| (0613a6) | 롭다와 헉옵닝이다. 밤이 붉디 | 아닌 | 전의 出船 ㅎ실 양으로 ㅎ쇼셔. |
| (0522b2) | 이언마는 朝鮮 家風이 페롭디 | 아닌 | 일을 페로울 양으로 녀기니 이 |
| (0617b3) | 듯 혼 일을 알고 信使-썬 읍디 | 아닌 | 전의 色色이 스양-헉여도 이 |
| (0529b4) | 오려니와 그 모단은 너모 긋디 | 아닌 | 일이오니 글란 마르쇼셔. 미리 |
| (0817a6) | 가 미뎃닝이다. 썬 이거슨 귀티 | 아닌 | 거시언마는 보내놓이다. 니르 |
| (0428b2) | 함의 손에 인는 거슬 오늘 못디 | 아닌는가 | 녀기시거니와 이 樣子도 送使의 |
| (0105b2) | 현-헉야 나의 청소를 나타나디 | 아닐 | 양으로 미뎃습디. 진실로 오늘 |
| (0209a6) | 이러-헉니 허물 마르시소. 읍디 | 아닐 | 일이엇마는 前規에 잇는 일이 |
| (0402b5) | 헉여시면 이러트시 出入이 엇디 | 아닐 | 듯 혼디 그 홀 시를 ㄹ장 未審 |
| (0904b4) | 膳 料理면 자네-네 뵈에 드디 | 아닐까 | 의심-헉거니와 다만 노름 히로 |
| (0703b5) | 너믄 양이로소이다. 이를 밧디 | 아님도 | 무식-헉거니와 고을로셔 두 참 |
| (0107b2) | 對面 ㅎ면 奇特이 녀기믄 | 아는 | 얹피니 우리의 뵈으로 보텔 바 |
| (0918b3) | 네 日本말 ㅎ시믄 드르면 드려 | 아든 | 몬 헉여도 神妙히 녀기옵넉. 이 |
| (0128b4) | 니르옵시던고? 正官의 氣相도 | 아디 | 몬 헉고 送使의 연고 업슨 양으 |
| (0504b2) | 긋결-호믄 위-홈이니 심상히 | 아디 | 마옵소. 그러면 이런 줄은 모로 |
| (0523b2) | 사람-들 모다셔 朝鮮 풍속은 | 아디 | 못 헉고 압회 브리시는 아회-들 |
| (0403b5) | 다스림으로 우리도 열현이는 | 아디 | 아니 헉옵넉. 在前 ㅈ터 代官들 |
| (0711a2) | 는 일이나 이셔야 도홀 디 자네 | 아라 | 도홀 양으로 ㅎ소. 이러로셔도 |
| (0623b1) | 니 보슬퍼 아프 디도 페 아니케 | 아라 | ㅎ쇼셔. 이리 읍는 밧기 일덩 |
| (0704b2) | 브니 바든 이과 혼 가지니 使ㅣ | 아라 | 御禮를 술오시소. ㅈ습거니와 |
| (0119b2) | 와 고디 뵈든 아니 헉외. 저기 | 아라 | 듯즈울썬가? ㄹ장 ㅈ히 通ㅎ옵 |
| (0509b4) | 의는 올가 다 헤아리옵데. 그리 | 아라 | 기드리옵소. 그 장계 返事ㅣ왔 |
| (0423a5) | 뵈 가지미 어와 어와 어히 업시 | 아라 | 계시외. 서르 니르거니 ㅈ답거 |
| (0116b5) | 내 친히 보고 자네-네 姓名을 | 아라 | 釜山浦에 술와 注進홀 거시니 |
| (0622b6) | 으란 스양 아니 헉셔도 島主ㅣ | 아라셔 | 案内 술오령이다. 니르시는 양 |
| (0715a2) | 니 그 저기 御禮 술을 줄을 잘 | 아라셔 | 도홀 양으로 술와 주쇼셔. 關伯 |
| (0310a5) | 멀리 안자시니 술을 남기시믄 | 아란마는 | 나는 下口ㅣ언마는 客人을 위- |
| (0216a1) | 실 제 니르고 가옵소. 代官들은 | 아랴습거니와 | 다시 니르고 가오리. 釜山浦 니 |
| (0802b5) | 보내오니 브딕 거스리디 말고 | 아래 | 사람-들의-게나 주실 양으로 |
| (0803b1) | 奉行들 드리고 오래 슈고-헉던 | 아래 | 사람-들히 별로 포-홀 일도 업 |
| (0823b4) | 되 하딕 振舞를 ㅎ오니 御案内 | 아뢰닝이다 | 글로 ㅎ야 늘근 어미를 더브 |
| (0522b6) | -네-썬 쇠아기를 조지니 그리 | 아르셔 | 信使의 읍기란 對馬島主 술오 |
| (0524a6) | 웃슬 헉여 니피려 ㅎ오니 그리 | 아르시게 | 잘 주선-ㅎ시소. 자네-네는 |
| (0425b1) | 나 엇디 건디올고? 자네-네도 | 아르심도 | 겨시리. 오로 어려오믄 걸터 니 |
| (0215a3) | 날의 封進 看品홀 썬시니 그리 | 아르셔 | 나옵소. 우리는 연고 업스오니 |
| (0810a6) | 홀 양도 잇는가 시브오니 그리 | 아르셔 | 종용히 ㅎ쇼셔. 썬 大坂의 城도 |
| (0617a1) | 권 오름과 혼 가지오니 자네 잘 | 아르셔 | 接待 ㅎ는 분-네-썬 禮를 술와 |
| (0804a6) | 자네 이 밧기 어려운 差別을 잘 | 아르셔 | 奉行네-썬 극진히 닐러 도로 |
| (0612b6) | 디 아녀 出船 ㅎ실 거시니 그리 | 아르쇼셔 | 넉일은 구름 브트미 도착오니 |
| (0819b6) | 日 內에 出船 ㅎ을 거시니 그리 | 아르쇼셔 | 어재도 가 비올 거슬 ㅈ바 ㅎ |
| (0622a6) | 시 請코져 ㅎ여 니르오니 그리 | 아르쇼셔 | 이 압회 바르 디나 ㅈ죽-헉 |
| (0415b4) | 樣子를 스설-헉여도 代官네도 | 아르시건마는 | 중시 올허만 녀기시는 일은 어 |
| (0710a5) | 니 즉제 아니 보디 못 홀 일을 | 아르시게 | ㅎ야 案内 읍닝이다. ㅈ세 아 |

| | | | |
|----------|---------------------|--------|--------------------|
| (0314a5) | 일이읍도쇠. 朝廷도 誠信으로 | 아르시니 | 아르 일에 브터도 심상히 너기 |
| (0524b3) | 자넨-네는 日本 풍속을 미리 | 아르시논 | 이리오니 내 술오매 기드로디 |
| (0411b4) | 公木을 다 나쁘라고 었디 흥려 | 아르시논고 | ? 흥몰며 近年以來 年-흥여 木 |
| (0530b5) | 흥여 또도 술와 불 거시니 그리 | 아르시소 | . 捷解新語 第五 終 捷解新語 負 |
| (0402a6) | 過怠에 밋는 바는 자넨-네도 | 아르실 | 썸 아니라 兩國 誠信으로 公質 |
| (0412a4) | 의 大切히 되야시몬 자넨-네도 | 아르심 | 겨시리. 各官으로서 東萊 |
| (0722b5) | 面흥옴고셔 서르 말슴-흥오매 | 아름다오미 | 禮에 너머이다. 捷解新語 第七 |
| (0817b6) | 多人 中 無事히 예-삭지 브트니 | 아름다오미 | 서르 同前히 깃븐 디로송이다. |
| (0813a4) | 일도 업시 예-삭지 브트시니 | 아름다오미 | 御禮의 너머습는디 또 닉일 날 |
| (0826b4) | 三使을 청-흥야 하디-흥는 양 | 아름다오미 | 나쁜 디 업스되 그러커니와 오 |
| (0514b1) | 뜻 흥다 니르니 그러면 出行의 | 아름다운 | 일이라 다 祝願흥넌. 그러면 |
| (0602b6) | 靜謐히 誠信을 닷가 이러트시 | 아름다운 | 일 아르 디도 흥 가지읍도쇠. 各 |
| (0831b4) | 번 일은 니르-도록 니르-도록 | 아름다운 | 御禮 몸애 나마 心底 대로는 퍼 |
| (0601a5) | 장접-흥이라. 숲-도록 숲-도록 | 아름다운 | 일은 兩國 安泰히 誠信之 道를 |
| (0605a6) | 今日은 御慰懃흥신 振舞 終日 | 아름다운 | 御雜談 듯좁고 各官 거룩-흥 술 |
| (0613a5) | 썸오니 籃島-삭지는 브트실까 | 아름다와 | 흥옴넌이다. 밤이 붉디 아닌 전 |
| (0401a5) | 看品에 브터 처음으로 보옴고 | 아름다와 | 흥넌이다. 니르시드시 처음으로 |
| (0404b4) | 맛당이 너기셔 도히 못즈오니 | 아름다와 | 흥넌이다. 나라 일을 힘 쓰기는 |
| (0401b3) | 시드시 처음으로 御對面흥오니 | 아름다와 | 흥넌. 이 看品時 전 브터 저를 |
| (0110b6) | 머흔디 아르 일 업시 건너시니 | 아름다와 | 흥넌이다. 우리는 御陰을 써 無 |
| (0517a4) | 도흔 天氣에 예-삭지 브트시니 | 아름다와 | 흥넌이다. 비에 各官심도 계실 |
| (0715b3) | 일도 업시 예-삭지 브트시니 | 아름다와 | 흥넌이다. 울커니 닉일도 보오 |
| (0203b1) | 書契를 보니 島中 無事흥시니 | 아름다와 | 흥넌. 울스와. 대되 無事흥넌 |
| (0824b4) | 이다. 어와 出船 日을 定흥시니 | 아름다와 | 흥넌이다. 振舞흥 바는 되-도록 |
| (0518b5) | -삭지 건너시니 아르 일-도곤 | 아름다와 | 흥옴넌이다. 멀리 마즈심 滿足 |
| (0313a2) | 이라 니르니 우리도 듯고 各官 | 아름다와 | 흥넌이다. 울스와이다. 島中の |
| (0717b6) | 信之道 란디 心中의 친-흥야 | 아름다왕이다 | . 우히도 도홀 양으로 御禮을 술 |
| (0902a4) | 心中이 서르 던-흥인가 더욱 | 아름다왕이다 | . 그리 니르시니 감격-흥거니오 |
| (0832b1) | 比 首尾 도히 못좁고 서르 하디 | 아름다왕이다 | . 太守 今度 슈고-흥신 양은 |
| (0828b5) | 海上의 시름도 퍼매 더욱 써 | 아름다이 | 너겨 술-들도 불셔 취-흥야스 |
| (0102a4) | . 御念比흥 御使 읍도쇠. 어와 | 아름다이 | 오옴시도쇠. 안히 잇스오니 判 |
| (0722a3) | 습고 우리 늦치 비-홀 디 업시 | 아름다이 | 너지넌이다. 三奉行이 어제 御 |
| (0822a3) | 키시오 쏘는 멀리 피셔 예-삭지 | 아름다이 | 건너신 祝願 振舞도 밋디 아니 |
| (0605b4) | 흥고 나그내 시름을 퍼니 各官 | 아름다이 | 너지넌이다. 흥마 도라 가상이 |
| (0832a1) | 로는 퍼디 못 홀송이다. 御渡海 | 아름다이 | 흥쇼서. 今度는 御裁判을 써 彼 |
| (0201b1) | 브람의 다 無事히 渡海흥시니 | 아름답다 | 니르시옴넌. 御意 감격-흥여이 |
| (0314b5) | -도록 오래 불 양으로 흥세야 | 아름답스오리 | . 長老와 島主는 이 나라 臣下 |
| (0816a1) | 도쇠. 어제는 술술이 브트시니 | 아름답스와 | 일일 와 問安호미 本意옴건마는 |
| (0602a6) | 흥는 었디 너기실 디 아직 아직 | 아름답스와 | 흥넌이다. 극진히 니르심이로 |
| (0502a3) | 읍도쇠. 이리 드옴소. 어와 어와 | 아름답스외 | . 도흔 天氣에 御仕合이읍도쇠. |
| (0406a1) | 신 대로 흥야 無事히 못즈오니 | 아름답스외 | . 버거 근심은 公木 善惡의 브터 |
| (0218b1) | 못 흥외. 看品은 無事히 흥오니 | 아름답스외 | . 춘 날의 오래 안자 계셔 언머 |
| (0119a2) | 島셔 聞及흥드시 잘 通흥시니 | 아름답스외 | . 내 말을 기리시니 깃브옴거니 |
| (0102b5) | 노셔. 代官들도 흥 고대 잇습넌. | 아름답스외 | . 여기 오르옴소. 아직 편히 안 |
| (0814a6) | 르시니 一定 그러면 더욱 더욱 | 아름답스외 | . 진실로 먼 海上의 예-삭지 오 |
| (0115b6) | 官은 비-멀미-흥여 인스 몰라 | 아리 | 누어습넌. 書契를 내셔든 보옴 |
| (0114a4) | 밤이 드러 뵈디 못 흥니 흥혀 | 아모 | 디 브터도 東萊 釜山浦에 술와 |
| (0715b2) | 關伯으로서 奉行으로써 信使의 | 아모 | 일도 업시 예-삭지 브트시니 |
| (0821a1) | 옴건마는 스스 써시 아니오니 | 아모리 | 흥여도 좇디 못 홀 일어로송이 |
| (0411a2) | 불 公木이 업스외. 이런 公木은 | 아모만 | 드려도 잘 잡디 못 홀 거시니 |
| (0815b1) | 던-흥인 디 이리 祝願흥시니 | 아모의 | 果報라도 公儀 서르 못고 예-스 |
| (0427a4) | 못 홀 거시니 送使의 談合흥여 | 아못 | 도로나 도홀 양으로 홀 거시니 |
| (0117a4) | 니 書契를 내옴소. 우리 일홈은 | 아되읍도쇠 | . 그리 흥여 못 흥오리. 書契의 |
| (0816a6) | 건마는 나의 各官을 헤아리매 | 아므 | 디도 흥 가지오면 손을 디접-흥 |
| (0201b5) | 키-흥여이다. 우리는 덕분을 써 | 아므 | 일도 업시 완넌이다. 正官을 반 |
| (0612a3) | 次 處處의 일 출힐 덧도 헤아려 | 아므 | 돌 아르 對馬島를 떠나실 양 |
| (0623b1) | 자네-게 맞딜 거시니 보슬퍼 | 아므 | 디도 꽤 아니케 아라 흥쇼서. |
| (0409a6) | 옴소. 註進흥 거시니 비 같 때예 | 아므 | 빅라 흥여 주세 더거 보내옴소. |
| (0908b4) | 의 珍味를 칭각-흥매 인스당도 | 아므 | 것도 옴디 아니 흥오니 이리 술 |
| (0813b3) | 세 구름 가기도 묘타 니르오니 | 아므 | 일-도곤 大慶이로송이다. 니르 |

| | | | |
|----------|---------------------|-------|---------------------|
| (0518b5) | 도흐 天氣에 예-씩지 건너시니 | 아므 | 일-도곤 아름다와 흐옴녕이다. |
| (0314b1) | 되. 朝廷도 誠信으로 아라시니 | 아므 | 일에 브터도 심상히 너기디 말. |
| (0110b5) | 도되. 어와 어와 거르기 머흔디 | 아므 | 일 업시 건너시니 아름다와 흐 |
| (0112b5) | 이치여 이제야 왓습니. 떠던 빅 | 아므 | 디 브터셔도 오늘은 밤이 드러 |
| (0511b4) | 트시리라 니르옵논고? 서울은 | 아므 | 들 아므 날 썬나셔 釜山浦의는 |
| (0511b6) | 들 아므 날 썬나셔 釜山浦의는 | 아므 | 들 아므 날 브트셔 묵기는 二十 |
| (0717a4) | 썬의 무스히 오오니 이 우희는 | 아므 | 제라도 싱각 대로 흐시게 알와. |
| (0603a1) | 을 닷가 이러트시 아름다운 일 | 아므 | 되도 흐 가지옵도되. 우리의 슈 |
| (0511b4) | 아 니르옵논고? 서울은 아므 들 | 아므 | 날 썬나셔 釜山浦의는 아므 들 |
| (0511b6) | 날 썬나셔 釜山浦의는 아므 들 | 아므 | 날 브트셔 묵기는 二十四五日 |
| (0612a3) | 일 출힐 덧도 헤아려 아므 들 | 아므 | 픽 對馬島를 떠나실 양으로 날 |
| (0915b6) | 삼디 마옵소. 극진이 권-흐심 | 아므 | 일-도곤 감격-흐여 御禮 몸매 |
| (0813a3) | 惡風을 만나디 아니코 多人中 | 아므 | 일도 업시 예-씩지 브트시니 |
| (0809b3) | 主 술오른 大坂 留守 아므가히 | 아므가히 | 兩人의셔 예셔 四五 日어나 무 |
| (0101a4) | 捷解新語 第一 | 아므가히 | 이러 오라. 네 代官의 가 내 말. |
| (0809b3) | 매 對馬島主 술오른 大坂 留守 | 아므가히 | 아므가히 兩人의셔 예셔 四五 |
| (0313b2) | 다. 時節이 네과 달라 上方의셔 | 아므란 | 雜說이나 이실가 너겨 聞음을 |
| (0610a5) | 일이란디 心中의 맛디 못 흐여 | 아므란 | 귀-흐 일도 업시 終日 겨셔 도 |
| (0507b1) | 직 기드리옵니. 不自由호 고되 | 아므란 | 쓰실 썬나 잇거든 괴별-흐옴 |
| (0705b1) | 여 계시건만는 쇠골 일이란디 | 아므란 | 貴호 일도 업스디 이러트시 극 |
| (0822a6) | 아니시고 御渡海호 실 작시면 | 아므란 | 御意에 걸리신 일이나 인는 양 |
| (0514b6) | 吉利 이실 듯 하다 니르옵노되. | 아므려나 | 그러와다. 그러호면 日本 船頭 |
| (0917b2) | 흐옴이라 니르는 이리옵도되. | 아므려나 | 막음을 다-흐여 니기옵소. 그리 |
| (0705a3) | 분부-흐시른 信使 디나실 적의 | 아므려나 | 되첩-흐올 양으로 돈돈이 분부 |
| (0416b5) | 여긔셔 엉쫁홀 일은 업스오니 | 아므려나 | 思습호셔 저기 不足홀 썬라도 |
| (0914a1) | 림을 모로는 거시 되얏스오니 | 아므려나 | 모다 내 樣子를 思分호셔 萬事 |
| (0320a6) | 島主 1 2 장 분부-흐엿스오니 | 아므려나 | 덕분을 썬 수이 歸島홀 양으로 |
| (0706b6) | 고 장썬 面目 업시 너길 썬시니 | 아므려나 | 바드시과다 호야 알외니이다. |
| (0919a4) | 비밀-호 묘리도 이실 썬시니 | 아므려나 | 마르치시과자. 어와 자네는 우 |
| (0329a3) | 되 雨天 브터 시작-홀 썬시니 | 아므려나 | 看品坐의셔 드토디 아니케 직 |
| (0604a1) | 多人中 오래 묵기도 엿더-호니 | 아므려나 | 수이 나게 호쇼셔. 여긔 떠나실 |
| (0418a2) | 트리 니르셔도 이 公木을 바다 | 아므려도 | 홀 테 업스오니 代官들도 가지 |
| (0414a5) | 키 어히 엿다 마다 니르시는 바 | 아므려도 | 不審호외. 자네-네 걸터 니르 |
| (0702b1) | 1-호신티 흐믈며 이러트 호 배 | 아므려도 | 밧디 못 홀 일이오니 太守는 엿 |
| (0422a6) | 한마는 우리도 代官의 구실이면 | 아므려도 | 마옵알기 어려올 양이오니 束 |
| (0808b2) | 1 2 下人의-게 준 거슬 더러로셔 | 아므리 | 닐러도 바들 인스는 아니어니 |
| (0907a6) | 亭主의 도리의 술을 디내 먹고 | 아므리 | 호여 도라 가심도 주세 몰라 肉 |
| (0624b2) | 기를 말고져 호니 엿더-홀고? | 아므리 | 커나 자네 맛당-홀 대로 흐옴 |
| (0417b5) | 도흐 구즘을 군말 업시 잡습소. | 아므리 | 니르셔도 이 公木을 바다 아므 |
| (0415b2) | 맛디 못 홀 썬시니 힘 쓰옵소. | 아므리 | 시절의 樣子를 스설-호여도 代 |
| (0902b2) | 그리 니르시니 감격-호거니와 | 아므리 | 커나 우리 술은 일이오니 너일 |
| (0918a3) | 호오니라 니르믈 고디 들렷더니 | 아므리 | 호여도 어두운 되 길 네느니 |
| (0328a4) | 2 장 먹고 正根 업셔 도라 오니 | 아므리 | 호 줄도 모로올되. 그는 그러커 |
| (0822b6) | 진-홈이 헤일 되올가 너기오니 | 아므리 | 커나 出船 日란 亭主의-게 맛 |
| (0707b4) | 아니라 바다셔 홀 테도 업스니 | 아므리 | 커나 나 호는 대로 호소. 자네 |
| (0133a4) | 거르기 썬썬이 너기실 거시니 | 아므리 | 커나 밤의도 養性호여 나실 양 |
| (0830b3) | 나매 信使의로셔 웨여 니르른 | 아므리 | 멀리 보내여도 정은 호 가지니 |
| (0806a3) | 왓습스디 내 스설-홀 썬으로 | 아므리 | 호여도 가져 도라 갈 일은 업스 |
| (0422a2) | 홀고? 자네의 여러 말을 듯건대 | 아므리라도 | 히고져 호건마는 우리도 代官 |
| (0117b4) | 리. 書契의 호 직라도 어근나면 | 아므의 | 히도 도터 아니 호오니 브되 내 |
| (0501b6) | 고? 아직 비에 트옵소. 御使는 | 아므옵도되 | 이리 드옵소. 어와 어와 아 |
| (0525a6) | 일이옵도되. 나도 日本 풍속을 | 아오니 | 이대-도록 세치 아니 니르시다 |
| (0210a2) | 호? 우리도 이런 일을 어이 주세 | 아울고 | 일 모로는 것-들이 일명 너고 |
| (0410b1) | 을 니르옵소. 예셔 잠깐 보와도 | 아울되 | 그 안해도 一 束에 자블 公木 |
| (0710b2) | 시게 호야 案内 숲녕이다. 주세 | 아옵거이다 | 호면 볼 작시면 그 거조는 엿 |
| (0127b1) | 겨시다가 나실 양으로 호쇼셔. | 아옵게 | 그리 호외. 다만 正官이 본되 |
| (0110a4) | 썬이 오는가 시브니 자네-네도 | 아옵소 | 이 비는 뜨습 빈고? 當年條 二 |
| (0819a4) | 리는 못 바들 즈음이오니 그리 | 아옵소 | 또 海上 遠路에 두로 쓰려 예 |
| (0902b6) | 호올 썬시니 자네-네도 그리 | 아옵소 | 어제는 불의예 호 振舞이라 |
| (0504a2) | 船으로 도라 가올 거시니 그리 | 아옵소 | 이리 호른 上方의 註進도 호 |

| | | | |
|----------|--------------------|--------|---------------------|
| (0911b1) | 춤이 웃듬으로 너기오니 그리 | 아옵소 | 이리 술움이 내 편을 텨 곳간 |
| (0506b4) | 첩사리 返事 올 써시니 그리 | 아옵소 | .” 흐시고 쫓 니르시기는 “맛 |
| (0307a1) | 한스오나 일딩 立酌 ㅎ실 써시니 | 아옵시드시 | 오래 병 드으와 이제 잠깐 ㅎ릴 |
| (0520a4) | 곳 브트셔 곳바도 ㅎ옵시는가 | 아직 | 問安 알외닝이다. 녀너-ㅎ신 使 |
| (0526b2) | 디 아니실가 근심-ㅎ옵느이다. | 아직 | 가서 太守 니르시는 道理 극진 |
| (0614a5) | 지 브트시니 大慶이로송이다. | 아직 | 출형의 이러트시 도흔 날을 만 |
| (0921b5) | 箇道內 六十六州를 分ㅎ다. | 아직 | 五畿內는 山城州의 所領이 八 |
| (0507a5) | 返事 온 후에 보와야 禮 오매 | 아직 | 기드리옵느. 不自由 ㅎ 고딕 아 |
| (0823a3) | 出船 日란 亭主의-계 맞디시고 | 아직 | 아직 종용히 쉬시미 本望이옵도 |
| (0501b4) | . 그러면 使者는 뉘 와 겨신고? | 아직 | 빅에 트옵소. 御使는 아의옵도 |
| (0102b6) | . 아릅답스외. 여긔 오르옵소. | 아직 | 편히 안줍소. 나는 소임으로 왔 |
| (0325a3) | 혀 주시는 양으로 가오려니와 | 아직 | 公木을 드려 주옵시면 묻져 가 |
| (0511a4) | 기시올쇠. 불귀예도 이시려니와 | 아직 | 수이 알고 시브오니 셔울은 어 |
| (0423b5) | 코 이 민망을 비-홀 디 업스외. | 아직 | 代官들도 他國 일이라 생각 말 |
| (0427b1) | 도로나 도홀 양으로 홀 거시니 | 아직 | 大廳의 드려 두옵소. 전의도 大 |
| (0118a2) | 는. 그리 ㅎ옵새. 밤이 드러시니 | 아직 | 御酒 ㅎ나 자옵소. 下口 오니 |
| (0120a3) | ㅎ마 마옵소. 하 마다 니르시니 | 아직 | 앗줍새. 내 이제 釜山浦의 술와 |
| (0602a6) | 건마는 三使는 엇디 너기실 디 | 아직 | 아직 아릅답스와 ㅎ닝이다. 극 |
| (0409a2) | 혀 보와 다시 기별을 ㅎ스오리. | 아직 | 公木을 드려 주옵소. 그리 ㅎ옵 |
| (0604b2) | 써시오니 얼현티 아니 ㅎ오리. | 아직 | 오늘은 祝願의 일이오니 終日 |
| (0104b5) | 시니 ㅁ옵 브티시를 미더습느. | 아직 | 자넨-네 얌흔 극진이 니르시니 |
| (0602a6) | 는 三使는 엇디 너기실 디 아직 | 아직 | 아릅답스와 ㅎ닝이다. 극진히 |
| (0823a3) | 日란 亭主의-계 맞디시고 아직 | 아직 | 종용히 쉬시미 本望이옵도송이 |
| (0112a1) | 듯기 사오나와 떠덜습느. 오늘 | 아춤 | 구름이 머흐더니 낮 디나며 브 |
| (0120b1) | 釜山浦의 술와 注進 ㅎ고 닉일 | 아춤은 | 東萊 올라 가 送使의 樣子를 ㅎ |
| (0720a5) | 니 엇더-홀쇼? 니르시는 바를 | 아춤의 | 奉行-의 議論 ㅎ오니 御進物 |
| (0608b4) | 홈이 뺏을 펴고 쫓는 어리로온 | 아희 | -들의 썩노는 양과 놀래 뺏은 |
| (0523b4) | 은 아디 못 ㅎ고 압희 브리시는 | 아희 | -들의 衣裳이 사오나오면 그 ㅎ |
| (0524a4) | 마즘 모단을 두엇습더니 三使 | 아희 | -들의 옷 옷슬 ㅎ여 니피려 ㅎ |
| (0109b6) | 을 써 니름은 앓가 遠見으로서 | 안 | 싸다히 日本 비 뵈다 니르니 일 |
| (0218b2) | 오니 아릅답스외. 춘 날의 오래 | 안자 | 게서 언머 슈고-ㅎ옵셔뇨? 看 |
| (0307b4) | 例는 그러티 아니커니와 今度 | 안자도 | 禮에는 삼디 못 홀 써시니 안자 |
| (0309b3) | 히 너기옵신가 민망-ㅎ여이다. | 안자셔 | 禮 어려오니 당테로 잔 썩 단기 |
| (0307b6) | 자도 禮에는 삼디 못 홀 써시니 | 안자셔 | 종용히 말슴-ㅎ옵새. 御意 감 |
| (0903b3) | 서 니러섬도 생각 아니코 기리 | 안자시니 | 무식히도 ㅎ가-ㅎ여 밤-셋 |
| (0310a4) | ㅎ옵싸이다. 앓가는 서르 멀리 | 안자시니 | 술을 남기시를 아란마는 나는 |
| (0318b1) | 창 취-ㅎ오되 正根을 계요 출혀 | 안갓습느이다 | . 日本 도흔 술을 자시다가 이 |
| (0711b5) | 기 ㅁ장 섭섭홀 쫓 ㅎ오니 헛튼 | 안주로 | 디접-ㅎ시미 도홀까 시프외. 珍 |
| (0908b3) | 이언마는 朝鮮 썩과 고물저은 | 안주의 | 珍味를 생각-ㅎ매 인스당도 아 |
| (0308b1) | 일딩 禮를 背홀가 너기옵더니 | 안즈라 | 니르시니 술울 양이 업서이다. |
| (0102b6) | 스외. 여긔 오르옵소. 아직 편히 | 안줍소 | . 나는 소임으로 왔습거니와 처 |
| (0611a6) | 기라 ㅎ니 일딩 그러ㅎ온가? 그 | 안헤는 | 吉日이 업스온가? 홀릴 만정 수 |
| (0410b2) | . 예서 잠깐 보와도 아올쇠. 그 | 안헤도 | 一束에 자블 公木이 十端 남 |
| (0102a5) | 쇠. 어와 아릅다이 오옵시도쇠. | 안히 | 잇스오니 判事네도 同道 ㅎ야 |
| (0716a5) | 굴히노라 廻引 ㅎ올 써시니 그 | 안히 | 路次의 괴로오미나 從容히 쉬 |
| (0101b3) | 브매 이제야 門-ㅅ지 왔습느. | 안히 | 계시면 오려 ㅎ여 案内 술오시 |
| (0714a1) | ㅁ-ㅅ지 問安 ㅎ시고 이 二三 日 | 안히는 | 江戸에 브트실 써시니 御對面 |
| (0412b4) | 굴환다 ㅎ고 궁스 오로 홀 제 | 안가 | -터로 니르시고 쉽디 못 호믈 |
| (0106a4) | 오니 언머 無調法이 너기시를 | 알건마는 | 하 無斗方 ㅎ여 ㅎ는 일이오니 |
| (0511a4) | 불귀예도 이시려니와 아직 수이 | 알고 | 시브오니 셔울은 어긔 썩 썩나 |
| (0617a6) | 거니와 그리 니르실 듯 ㅎ 일을 | 알고 | 信使-의 ㅎ디 아닌 전의 色色 |
| (0913a2) | 저 ㅎ는 일도 잘 ㅎ디 못 ㅎ고 | 알고도 | 無道히 된 仕合 ㅁ트스러오미 海 |
| (0707a1) | 니 아프려나 바드시과다 ㅎ야 | 알외넉이다 | . 자네 스설-ㅎ는 배 난난치 筑 |
| (0704b4) | 御禮를 ㅎ오시소. 젓습거니와 | 알외닝이다 | . 筑前主 분부-ㅎ시미는 信使 디 |
| (0520a4) | 곳바도 ㅎ옵시는가 아직 問安 | 알외닝이다 | . 녀너-ㅎ신 使 옵도쇠. 인는 |
| (0717a6) | 아므 제라도 ㅎ고 대로 ㅎ시게 | 알외쇼셔 | . 자넨-네도 처음으로 보오완 |
| (0905a5) | 술 가지여 오옵새. 모드신 디도 | 알외여 | 주옵소. 기둥의도 놀래 브르든 |
| (0303b4) | 시매 덕분의 먹습고 글로 브터 | 알튼 | 가슴과 비 쳐기 그쳐 점점 ㅎ리 |
| (0302b5) | 다 듯고 녀너-ㅎ옵더니 어딕를 | 알파 | ㅎ시던고? ㅎ출 보오니 이제도 |
| (0621b3) | -홈은 그지 못 홀 일이오니 이 | 알프란 | 곳-ㅎ여 ㅎ거든 조츠시미 웃듬 |

| | | | | |
|----------|--------------------|-------|--|---------------------|
| (0720b3) | 니 御進物도 城에 오르시는 날 | 알피 | | 가져 버려 쉼 후에 信使 가시 |
| (0618b4) | 켜도 우리 그르 디 되기는 눈에 | 알피라 | | 하여 가지 가지 니르오니 비록 |
| (0107b2) | 對面하면 奇特이 너기른 아는 | 알피니 | | 우리의 뜻으로 보랄 바는 이실 |
| (0426b3) | 가 너기시는고? 그저 헤아리실 | 알피오니 | | 잘 헤아려 무츠시과다. 그리 니 |
| (0104b5) | 키시물 미더습닌. 아직 자닌-네 | 알흔 | | 극진이 니르시니 뜻을 퍼거니와 |
| (0614b3) | 러트시 도흔 날을 만나시니 이 | 알흔 | | 萬事 막음 편-홀까 祝願하닝 |
| (0622b2) | 여 니르오니 그리 아라쇼셔. 이 | 알희 | | 바르 디나 섬즉-흔 곳으란 스오 |
| (0523b4) | 다셔 朝鮮 풍속은 아디 못 하고 | 압희 | | 브리시는 아희-들의 衣裳이 사 |
| (0122b1) | 軍官도 보내시더니 왓습던가? | 앗가 | | 만났습닌. 먼디 극진이 軍官을 |
| (0121b4) | 얼현이 아니 호오리. 東萊로서 | 앗가 | | 도라 왓습닌. 東萊겨서도 “어저 |
| (0806b2) | (의-게나 주시미 엇더-호올고 | 앗가 | | 스설-호시물 드르며 이리 읊는 |
| (0810b6) | 스오니 이도 구경-호실 양으로 | 앗가 | | 두 분-씩셔 권-호야 니르오니 |
| (0123b5) | 事를 묻져 보내여 보고 가옵소. | 앗가 | | 사를을 보내오니 브르더라 호실 |
| (0121a4) | . 그리 호옵소. 슈고-호옵시닌. | 앗가 | | 습던 떠던 비를 御念入하서 肝 |
| (0812a3) | 마라도 도홀 듯 호건마는 다만 | 앗가 | | 니르시는 양이면 자닌-게 맞디 |
| (0109b4) | . 代官네-씩 書簡을 써 니름은 | 앗가 | | 遠見으로서 안 빠다히 日本 비 |
| (0420a5) | 고 곁히여 낸 일이 업스디 즈못 | 앗가 | | 습드시 이 스이 各官으로서 沙 |
| (0310a3) | 장 도쑈오니 그리 호옵싸이다. | 앗가는 | | 서르 멀리 안자시니 술을 남기 |
| (0120a3) | 가옵소. 하 마다 니르시니 아직 | 앗습새 | | . 내 이제 釜山浦의 술와 注進하 |
| (0217b6) | 호니 오늘은 보올가 너기옵닌. | 약도 | | 먹고 땀도 하여 이제는 도화습 |
| (0304a5) | 이제라도 넘너-호느이다. 그 | 약은 | | 마즘 다 쓰고 적게 보내고 뜻에 |
| (0303b1) | . 니것따소이다. 病 中의 귀-흔 | 약을 | | 만히 주시매 덕분의 먹습고 글. |
| (0820b1) | 나습더니 色色 御慰勸히 니르신 | 양 | | 즈못 奉行의로서 온 거슬 주노 |
| (0826b4) | 고 三使을 청-호야 하딕-호는 | 양 | | 아롭다오미 나른 디 업스되 그 |
| (0608b6) | 는 어리로운 아희-들의 썩노는 | 양과 | | 놀래 뜻은 모로거니와 풍뉴과 |
| (0417a3) | 문 호실 일은 서르 時分과 갑식 | 양도 | | 見습도 계실 일인디 이대-도록 |
| (0305a5) | 하 극진히 디접-호옵시니 술을 | 양도 | | 업서이다. 예셔 보매 잔을 남기 |
| (0717a1) | 로시니 感激하신 절츠를 술을 | 양도 | | 업서이다. 덕썩의 무스히 오오 |
| (0827a1) | 에 다드라는 섭섭호옵기 술을 | 양도 | | 업스오니 오늘날 종용히 노르 |
| (0810a4) | 君씩셔 닐러 왓다 호고 振舞홀 | 양도 | | 잇는가 시브오니 그리 아라셔 |
| (0130b5) | 도 업스매 그러는 호거니와 이 | 양병은 | | 아니오. 正官 氣色이 건디염즉 |
| (0131a6) | 고져 너기오되 東萊 드르셔도 | 양병이라는 | | 너기디 아니 호실 거시니 자닌 |
| (0806b5) | 읊는 일을 일딩 힘 아니 쓰는 | 양으로 | | 너기실 듯 호거니와 奉行들의 |
| (0325a1) | 이올가? 쇼인-네는 출혀 주시는 | 양으로 | | 가오려니와 아직 公木을 드러 |
| (0619b1) | 켜툼 흔 差別도 습디 아니 호는 | 양으로 | | 니르미 민망-호오니 폐롭스오 |
| (0920b5) | 으로 기리시니 일딩 괴롱-호는 | 양으로 | | 심각-호거니와 그러나 노호여 |
| (0822a6) | 란 御意에 걸리신 일이나 인는 | 양으로 | | 家中 견-들도 너길 작시면 옛- |
| (0422b5) | 습스올가? 그저 그저 우리 읊는 | 양으로 | | 호시면 못기 쉬올까 너기옵닌. |
| (0920b3) | 바는 日本말을 비-홀 디 업슨 | 양으로 | | 기리시니 일딩 괴롱-호는 양으 |
| (0216b5) | 으로 습디 못 호니 일딩 정 업슨 | 양으로 | | 너기시는가 막음의 걸리옵닌. |
| (0128b6) | 아디 몬 호고 送使의 연고 업슨 | 양으로 | | 술와 너일로 덩-흔디 이제야셔 |
| (0508b4) | 세춘 사름 둘홀 밤-낫 올라 갈 | 양으로 | | 하라코 돈돈이 닐러 겨시니 그 |
| (0516a6) | 도 도히 부러시니 수이 비를 낼 | 양으로 | | 호옵소. 여긔 船頭도 그리 보와 |
| (0404a4) | 여 隨分 念入하여 잘 드라 건넬 | 양으로 | | 닐렀습닌. 나라 일이란디 마디 |
| (0505b2) | 으로 東萊의 엇즈와 飛脚을 쉼 | 양으로 | | 호옵새. 수이 書契를 내옵소. 오 |
| (0314b3) | 고 千 年이나 가-도록 오래 볼 | 양으로 | | 호세야 아롭답스오리. 長老와 |
| (0522b2) | 風이 폐롭디 아닌 일을 폐로울 | 양으로 | | 너기니 이러모로 미리 자닌-네 |
| (0705a3) | 나실 적의 아프려나 디접-호올 | 양으로 | | 돈돈이 분부-하여 계시건만 |
| (0105b2) | 야 나의 싱소를 나타나디 아닐 | 양으로 | | 미뎛습닌. 진실로 오늘은 처음. |
| (0125a1) | 관 이제 東萊 술와 보내야 드릴 | 양으로 | | 호오려니와 즈세히 더겨 두옵 |
| (0321a3) | 다 못고 종용히 겨시다가 가실 | 양으로 | | 호옵소. 이리 감격-흔 御意 사 |
| (0127a5) | 오니 미리 출혀 겨시다가 나실 | 양으로 | | 호쇼셔. 아옵게 그리 호오리. 다 |
| (0133a6) | 리커나 밤의도 養性하여 나실 | 양으로 | | 하여 보옵소. 그리 호오리. 案 |
| (0612a5) | 므 들 아프 對馬島를 떠나실 | 양으로 | | 닐러시니 이제는 自由히 막음 |
| (0802b5) | 고 아래 사름-들의-게나 주실 | 양으로 | | 호옵쇼셔. 委細의 儀는 對馬島 |
| (0811a5) | 大君씩셔 信使의 비고 노르실 | 양으로 | | 教습이 이실 식야 이대-도록 |
| (0128b2) | 키. 그러면 엇디 브디 너일 호실 | 양으로 | | 니르옵시던고? 正官의 氣복 |
| (0505b1) | 일이오니 대테로이 아니 호실 | 양으로 | | 東萊의 엇즈와 飛脚을 쉼 양으 |
| (0810b4) | 한-호엿스오니 이도 구경-호실 | 양으로 | | 앓가 두 분-씩셔 권-호야 니르 |
| (0613b1) | 밤이 붉디 아닌 견의 出船호실 | 양으로 | | 호쇼셔. 기별-호심 7티 너일은 |

| | | | |
|----------|--------------------|--------|--------------------|
| (0810a2) | 日어나 무그셔 쉬여 出船호실 | 양으로 | 大君께서 내려 왔다 호고 振舞 |
| (0211b6) | 놀가 다 하야-더시니 그도 곁 | 양으로 | 호옵소. 니르시는 대로 東萊의 |
| (0906a6) | 위-홀 썩음이오니 의심도 업술 | 양으로 | 직간을 미뎡습녕이다. 어제는 |
| (0825a6) | 호야 겨시니 祝願 아니튼 못 홀 | 양으로 | 전 브터 니르심으로 이러나 더 |
| (0618a4) | 참참이 못히 請호여 振舞도 홀 | 양으로 | 호엿는디 빅 우호로셔 바르디 |
| (0126b6) | 호려 겨시니 二三日 內에 홀 | 양으로 | 호오리. 茶禮는 明日 호오니 미 |
| (0126a6) | 禮는 어닉 빅 호올고? 수이 홀 | 양으로 | 호옵소. 東萊가 요스이 편티 아 |
| (0132b3) | 를 東萊의 엿즈와 닉일 브디 홀 | 양으로 | 호옵소. 힘 빼 술와 보오려니와 |
| (0215b1) | 연고 업스오니 明日이라도 홀 | 양으로 | 호옵소. 나도 代官의 사름을 보 |
| (0719b4) | 케 그 쯤을 드저오려 생각 도홀 | 양으로 | 괴결-호시소. 쏘 드린 사름-들 |
| (0715a4) | 御禮 술을 줄을 잘 아라셔 도홀 | 양으로 | 술와 주쇼셔. 關伯으로서 奉行. |
| (0711a2) | 이셔야 도홀 디 자네 아라 도홀 | 양으로 | 호소. 이러로셔도 묻져 술오려 |
| (0427a5) | 의 談合호여 아뭇 도로나 도홀 | 양으로 | 홀 겨시니 아직 大廳의 드러 두 |
| (0718a1) | 야 아릅다왕이다. 우히도 도홀 | 양으로 | 御禮을 술와 주쇼셔. 우호로셔 |
| (0317a5) | 호여 主人의 도리를 출처 권-홀 | 양으로 | 왔스오니 그러홀 디 술도 내 마 |
| (0320b2) | 브려나 덕분을 빼 수이 歸島 홀 | 양으로 | 브라느이다. 오션 디 오래디 아 |
| (0502b6) | 主 니르시는 바는 信使 건너실 | 양으로 | 드럿거니와 어닉 들 어닉 날 셔 |
| (0832b3) | 왕이다. 太守 今度 슈고-호신 | 양은 | 朝廷의도 츠셔히 엿조로링이다 |
| (0306a6) | 니 권키 어렵습것마는 잔 잡는 | 양을 | 보오니 어내 잘 호시는 술이옵 |
| (0718a6) | 되논 吉日이오니 信使의 뵈올 | 양을 | 친히 가 괴별을 술오라.” 혼 일 |
| (0703b2) | 지 珍味 이견 더견 慰勸히 호신 | 양이 | 御禮에 너른 양이로소이다. 이 |
| (0623a2) | 셔 案内 술오링이다. 니르시는 | 양이 | 그러도 홀 듯 호면 路次의 일란 |
| (0721b1) | 셔 인스당이며 萬事 디답-호는 | 양이 | 又장 올히 호신 바늘 대되 일카 |
| (0308b1) | 이옵더니 안즈라 니르시니 술을 | 양이 | 업서이다. 우리 이틀 禮에 삼스 |
| (0321b2) | 감격-호 御意 시니 다시 술을 | 양이 | 업서이다. 그러커니와 홀리라도 |
| (0703b4) | 慰勸히 호신 양이 御禮에 너른 | 양이로소이다 | . 이를 밧디 아님도 무식-호거 |
| (0526b6) | 자닉-네 디답이 불셔 겹-호는 | 양이로 | 엇디 혼 편만 생각-호시는고? |
| (0812a3) | 호건마는 다만 앓가 니르시는 | 양이면 | 자닉-게 맞디오리. 藍鳥 宿所여 |
| (0422a6) | 이면 아프려도 又음알기 어려울 | 양이오니 | 東의셔 곁힐 작시면 이대-도록 |
| (0117b1) | 키 몬 호오리. 書契의 혼 지라도 | 어근나면 | 아프의 히도 도티 아니 호오니 |
| (0414b2) | 결터 니르심과 우리 생각과 그 | 어긔미 | 天地 又거니와 이리 홀 쏘으로 |
| (0909a4) | 이나 연고 이실 썩라도 振舞에 | 어긔날 | 일은 업스오리. 다만 又음의 결 |
| (0809b5) | 므가히 兩 人의셔 예셔 四五 日 | 어나 | 무그셔 쉬여 出船호실 양으로 |
| (0306b2) | 습것마는 잔 잡는 양을 보오니 | 어내 | 잘 호시는 술이옵도쇼. 잔수는 |
| (0603b2) | 슈고와 폐는 비-호기 어려오니 | 어닉 | 빅 예를 떠나올고? 上下 多人 |
| (0503a3) | 어닉 들 어닉 날 셔울을 떠나셔 | 어닉 | 의 出船 吉日인고 호야 우리 兩 |
| (0503a2) | 건너실 양으로 드럿거니와 | 어닉 | 들 어닉 날 셔울을 떠나셔 어닉 |
| (0511a6) | 직 수이 알고 시브오니 셔울은 | 어닉 | 의 썩나셔 여긔는 어닉 의 브트 |
| (0511b2) | 셔울은 어닉 의 썩나셔 여긔는 | 어닉 | 의 브트시리라 니르옵는고? 셔 |
| (0126a5) | 호소. 글란 그리 호오리. 茶禮는 | 어닉 | 빅 호올고? 수이 홀 양으로 호 |
| (0503a2) | 양으로 드럿거니와 어닉 들 | 어닉 | 날 셔울을 떠나셔 어닉 의 出船 |
| (0912b1) | 내 여긔 와서 자네-네 指南을 | 어더 | 저기 말도 호더니마는 常常 쓰 |
| (0918a3) | 고디 들렷더니 아프리 호여도 | 어두온 | 디 길 네느니 又-호여 니기-도 |
| (0125b4) | 술왓습니. 그러호면 스스로이 | 어들 | 일은 아니오니 내 친히 東萊 가 |
| (0115b3) | 船 더는 封進이옵도쇼. 正官은 | 어딕 | 겨시온고? 正官은 빅-멀미-호 |
| (0302b5) | 드르시다 듯고 녀너-호옵더니 | 어딕를 | 알파 호시던고? 又출 보오니 이 |
| (0416a1) | 는 종시 올히만 너기시는 일은 | 어딕셔 | 五十 東 드린 公木을 半分도 아 |
| (0603a6) | 오 자네 슈고와 폐는 비-호기 | 어려오니 | 어닉 빅 예를 떠나올고? 上下 |
| (0309b3) | 인가 민망-호여이다. 안자셔 禮 | 어려오니 | 당테로 잔 쏘 들기를 禮를 삼습 |
| (0425b2) | 아-네도 아릅심도 겨시리. 오로 | 어려오믈 | 결터 니르니 나라토 부디터 몬 |
| (0909b3) | 듬으로 니르시니 이 一段 되기 | 어려온 | 所望이옵도쇼. 昨夜는 우리도 |
| (0815b4) | 까지 오온 바를 말로는 다 호기 | 어려온 | 祝願의 일이옵도쇼. 어제는 술 |
| (0804a5) | 내노라 호여시니 자네 이 밧기 | 어려온 | 差別을 잘 아라셔 奉行네-의 |
| (0602a3) | 생각-호면 둥간티 아니케 잇기 | 어려온 | 일인가 너기건마는 三使는 엿 |
| (0422a6) | 구실이면 아프려도 又음알기 | 어려울 | 양이오니 東의셔 곁힐 작시면 |
| (0424a5) | 벗는 텃텃-호여 이리트시 되기 | 어려이 | 페로이 굴모로 東萊入 百姓도 |
| (0621a4) | 호쇼셔. 참-마다 빅에 느리시기 | 어렵기 | 쥬고마호고 느리디 아니 호시 |
| (0521b5) | 키 프스 일이옵관디 이대-도록 | 어렵사리 | 니르옵시는고? 호얌죽-홀 만 |
| (0816b2) | 오면 손을 디집-호시미 도로켜 | 어렵소이 | 너기오와 廻引호오니 허를 마 |
| (0701b4) | 반을 가지고 使者 왔스오니 | 어렵습거니와 | 使者을 보시고 御回答이나 호 |

| | | | |
|----------|--------------------|--------|--------------------|
| (0306a5) | ㅈ. 술이 묘도 아니 호오니 권키 | 어렵습것마는 | 잔 잡는 양을 보오니 어내 잘 호 |
| (0805a4) | 되 묻져 이리 니르시니 술기도 | 어렵습끼니와 | 奉行들의 수설-호옵끼는 信使 |
| (0709b5) | 오른 江戸로서 信使의 問安의 | 어룬의 | 官員 二人이 三島까지 와 기도 |
| (0608b4) | 지 경의 痘瘡이 뵈을 펴고 쏘는 | 어리로온 | 아희-들의 썩노는 양과 놀래 뵈 |
| (0906a3) | ㅈ장 젓습거니와 다만 우리는 | 어리로온 | 얼굴과 놀래를 듯고 축수만 위 |
| (0827b2) | 호시과다. 더 귀-흔 풍뉴-들도 | 어미 | 듯고 거르기 귀히 너겨 깃썰라 |
| (0823b6) | 쳐 아뢰닝이다. 글로 호야 늘근 | 어미를 | 더브렀습더니 朝鮮 풍뉴를 보 |
| (0314a1) | 호여 히-마다 올라 가느니이다. | 어와 | 즈로 우다히 오로느리기 御大 |
| (0716b4) | 과다 호야 숲는 일어로송이다. | 어와 | 어와 즉시 慰慰히 무로시니 感 |
| (0824b4) | 말고 더 브르시게 밋줍닝이다. | 어와 | 出船 日을 定히시니 아롭다와 |
| (0828a2) | 德인가 감격이 녀기옵닝이다. | 어와 | 어와 慰慰히 宴席이옵도쇠. 진 |
| (0919a6) | 키시니 아프려나 ㅈ르치시과자. | 어와 | 자네는 우은 사름이로쇠. 홀리 |
| (0507b6) | 별-호옵소.” 호시는 일이옵데. | 어와 | 註進을 극진이 호시다 니르시 |
| (0901b3) | 호고져 호오니 엇더-호울고? | 어와 | 어와 ㅈ장 痘疹외. 이러로서 문 |
| (0411a6) | 호 홀 거시니 수이 내여 가옵소. | 어와 | 어와 어히 업시 니르심이야. 五 |
| (0108b6) | 울 거시니 遠見의 무리 보옵소. | 어와 | 그러호온가? 遠見의는 못디 아 |
| (0502a3) | 호는 아미옵도쇠. 이리 드옵소. | 어와 | 어와 아롭답스외. 痘疹 天氣에 |
| (0110b4) | 年條 二 番 特送이옵도쇠. 어와 | 어와 | 거르기 머흔디 아프 일 업시 건 |
| (0901b3) | 호져 호오니 엇더-호울고? 어와 | 어와 | ㅈ장 痘疹외. 이러로서 묻져 술 |
| (0502a3) | 아미옵도쇠. 이리 드옵소. 어와 | 어와 | 아롭답스외. 痘疹 天氣에 御仕 |
| (0411a6) | 거시니 수이 내여 가옵소. 어와 | 어와 | 어히 업시 니르심이야. 五十 束 |
| (0423a4) | 호로 가는 듯 호 뵈 가지미 어와 | 어와 | 어히 업시 아라 계시외. 서르니 |
| (0703a6) | 이 아니라 쏘 目錄을 보니 어와 | 어와 | 여러 가지 珍味 이걸 더걸 慰慰 |
| (0716b4) | 호야 숲는 일어로송이다. 어와 | 어와 | 즉시 慰慰히 무로시니 感激호 |
| (0812b3) | 오라 와셔 信使의 술오른 어와 | 어와 | 三使의 御果報에 往來 힘-흔 淮 |
| (0828a2) | 가 감격이 녀기옵닝이다. 어와 | 어와 | 慰慰히 宴席이옵도쇠. 진실로 |
| (0102a4) | 오라. 御念比호 御使이옵도쇠. | 어와 | 아롭다이 오옵시도쇠. 안히 잇 |
| (0110b4) | !? 當年條 二 番 特送이옵도쇠. | 어와 | 어와 거르기 머흔디 아프 일 업 |
| (0703a6) | 실 쏘이 아니라 쏘 目錄을 보니 | 어와 | 어와 여러 가지 珍味 이걸 더걸 |
| (0423a4) | 호 뒤호로 가는 듯 호 뵈 가지미 | 어와 | 어와 어히 업시 아라 계시외. 서 |
| (0403a2) | 호 시를 ㅈ장 未審히 녀기옵닌. | 어와 | 오늘은 右之 道理를 正官도 분 |
| (0812b3) | 호 보오라 와셔 信使의 술오른 | 어와 | 어와 三使의 御果報에 往來 힘 |
| (0609a2) | 놀래 뵈은 모로거니와 풍뉴과 | 어우러 | -더 즐거오미 ㅈ 업서 글로 호 |
| (0311a4) | 호 이 ㅈ티 다 자옵소. 청심이나 | 어이 | 남기고 머그리잇가? 늦을 보쇼 |
| (0111b2) | 호 호여 근심-호옵닌. 므슴 빅 | 어이 | 호여 떠던습는고? 水木船이 뵈 |
| (0210a2) | 호엿습는가? 우리도 이런 일을 | 어이 | 즈세 아올고? 일 모로는 것-들 |
| (0820a2) | 船호울 거시니 그리 아릅쇼셔. | 어재도 | 가 뵈을 거슬 곳바 호옵실가 問 |
| (0508b1) | 계실 썩시니 니르옵소. 듯줍새. | 어제 | 東萊 니르시기는 ㅈ장 세춘 사 |
| (0722a5) | 아롭다이 녀기닝이다. 三奉行이 | 어제 | 御禮라 호야 對馬島主로써 숲는 |
| (0327a1) | 호-호여 우리도 것거 호느이다. | 어제 | 無事히 연향을 호시니 깃브외. |
| (0906b4) | 양으로 직간을 밋듭습닝이다. | 어제 | 하 심심호매 草草히 振舞에 各 |
| (0721a6) | 더러나 니르시는 대로 호옵새. | 어제 | 城에서 인스당이며 萬事 디답- |
| (0328a1) | 니 우리 듯기도 더욱 깃브옵데. | 어제 | 술을 ㅈ장 먹고 正根 업서 도라 |
| (0121b6) | ㅈ가 도라 왓습닌. 東萊겨셔도 “ | 어제 | 일기 사오나온디 언머 슈고로 |
| (0903a3) | 키시니 자네-네도 그리 아옵소. | 어제 | 불의에 호 振舞이라 니르시니 |
| (0505b5) | 호 호옵새. 수이 書契를 내옵소. | 어제 | 東萊로서 밤 들게야 도라 와 보 |
| (0815b6) | 기 어려운 祝願의 일이옵도쇠. | 어제 | 술술이 브트시니 아롭답스와 |
| (0722b2) | 호야 對馬島主로써 숲는 일은 | 어제 | 對面호옵고셔 서르 말습-호 |
| (0101a6) | 내 말로 “그적과 여과 느려 와 | 어제라도 | 오을 거슬 路次의 곳브매 이제 |
| (0609a5) | 호 ㅈ 업서 글로 호여 蠶을 즐겨 | 어즐 | -호여 正體 업스와 상을 서디 |
| (0619a3) | 호 더-들히 폐를 허스되게 흠도 | 어히 | 업습고 우리도 수이에서 이러 |
| (0411a6) | 호 수이 내여 가옵소. 어와 어와 | 어히 | 업시 니르심이야. 五十 束 드린 |
| (0423a5) | 호는 듯 호 뵈 가지미 어와 어와 | 어히 | 업시 아라 계시외. 서르 니르거 |
| (0414a3) | 업스믈 자넌-네 눈에도 보실디 | 어히 | 업다 마다 니르시는 바 아프려 |
| (0412b6) | 호-터로 니르시고 험디 못 호를 | 어히 | 업서 더러타 이러타 숲돈 아니 |
| (0913a6) | 호 海山 ㅈ티 녀기닝이다. 모다 | 언머 | 서의-흔 거시라 흥 보심을 칭 |
| (0218b4) | 호스외. 춘 날의 오래 안자 게서 | 언머 | 슈고-호옵셔뇨? 看品 後 연향- |
| (0413a5) | 도 時分과 公木 감시 상히로써 | 언머 | 더호연는고 헤아려 無事히 되 |
| (0326b2) | 중용-호여 더령 이렇 숲스오니 | 언머 | 지리히 녀기옵시는고 심각-호 |
| (0106a4) | 을 점치디 아니코 이리 술오니 | 언머 | 無調法이 녀기시믈 알건마는 호 |

| | | | | |
|----------|--------------------|------|--|--------------------|
| (0904a1) | 훈가-호여 밤-셋굿 뉘웃죽닉. | 언머 | | 모다 우은 거시라 녀기셔냐? ㅇ |
| (0122a1) | 셔도 “어제는 일기 사오나온딕 | 언머 | | 슈고로이 건너시도다.” 넘녀-ㅎ |
| (0204a6) | 브터 東萊 극진-호시믈 듯죽고 | 언제 | | 건너 가 말슴-호을고 녀기옵더 |
| (0906a3) | 거니와 다만 우리는 어리로온 | 얼굴과 | | 놀래를 듯고 축슈만 위-홀 썩힐 |
| (0604a6) | 에 괴별을 듯고 定홀 써시오니 | 얼현 | | 티 아니 호오리. 아직 오늘은 祝 |
| (0121b2) | 肝煎호옵소. 쯔 아니 니르셔도 | 얼현이 | | 아니 호오리. 東萊로셔 앓가 도 |
| (0114b6) | 의 좃즈을 거시니 근심 마옵소. | 얼현이 | | 마르시고 닉일 부부 츠즈쇼셔. |
| (0324b4) | 約條의 덩-호 限-씩지는 엇디 | 얼현이 | | 출히올가? 쇼인-네는 출혀 주 |
| (0315a5) | 되엿스오니 므릇 일을 엇디 | 얼현이 | | 호리잇가? 그러호므로 長老의 |
| (0522a3) | 호암죽-홀 만흔 일이오면 엇디 | 얼현이 | | 호령잇가? ㄹ장 쉬운 일이언마 |
| (0326a3) | 옵소. 그는 判事네과 代官들히 | 얼현이 | | 아니 호오리. 마즘 종용-호여 1 |
| (0403b5) | 가지 가지 다스림으로 우리도 | 얼현이 | | 아디 아니 호옵닉. 在前 브터 代 |
| (0525b3) | 도록 세치 아니 니르시다 엇디 | 얼현히 | | 호령잇가? 다만 朝鮮 풍속의는 |
| (0530a5) | 이리 니르시니 홀 일도 업기는 | 업거니와 | | 그러나 닉일은 祝願의 연향이고 |
| (0610a2) | 馳走 오면 心中의는 비-홀 딕 | 업건마는 | | 섬의 일이란딕 心中의 맛디 못 |
| (0525a1) | 로디 말고 잘 주션-호야 썩림 | 업게 | | 직간-호시소. 니르시는 道理- |
| (0418a6) | 건마는 별로 호염죽-호 묘리도 | 업고 | | 출하리는 이 五十束을 一束에 |
| (0616a2) | 옵도쇠. 船 中에도 별히 ㄹ붓도 | 업고 | | 닉일도 天氣 조홀까 시브다 호 |
| (0427b6) | 시니 쯔 밧긔 두고 番홀 사름도 | 업고 | | 엇디 호을고? 今夜 썩 下人을 雞 |
| (0209b4) | 도 늦게 괴왔고 건믈도 두 가지 | 업고 | | 雞子도 호나히 업고 덤시도 數 |
| (0209b5) | 도 두 가지 업고 雞子도 호나히 | 업고 | | 덤시도 數內에 호나홀 더러시니 |
| (0704a3) | -도록 多人 中의 격기 닛분 딕 | 업고 | | 이 밧긔는 바다도 빅도 조브니 |
| (0530a5) | 니마는 이리 니르시니 홀 일도 | 업기는 | | 업거니와 그러나 닉일은 祝願의 |
| (0905b3) | 도 놀래 브르든 若衆들히 연고 | 업기틀 | | 전위-호엿습닉. 형혀 이리 술도 |
| (0414a3) | 를 자닉-네 눈에도 보실딕 어히 | 업다 | | 마다 니르시는 바 아프려도 不 |
| (0133b3) | 先通之 意 서어탄 말이라. 의지 | 업단 | | 말이라. 거의란 말이라. 단득단 |
| (0907a2) | -호시니 亭主의 깃븜이 노외야 | 업서 | | 亭主의 도리의 술을 디내 먹고 |
| (0803b2) | 래 사름-들히 별로 포-홀 일도 | 업서 | | 마즘 雜物 나쁜 거시 이시니 출 |
| (0819b2) | 지 無事히 온 우희는 나쁜 일도 | 업서 | | 이 二三日 內에 出船호을 거시 |
| (0920a4) | 호면 홀되 싱각-호는 일 조곰도 | 업서 | | 常常 이틀 뉘오출 만흔는 날을 |
| (0903b1) | 썩 아니라 ㄹ뭇 큰 술에 正體 | 업서 | | 니러섬도 싱각 아니코 기리 안 |
| (0304b6) | 전의는 처음으로 보옵고 그지 | 업서 | | 호옵데. 御意 ㄹ티 처음으로 뵈 |
| (0412b6) | 로 니르시고 쉽디 못 호믈 어히 | 업서 | | 더러타 이러타 솟든 아니커니호 |
| (0609a3) | 풍뉴과 어우러-더 즐거오미 ㄹ | 업서 | | 글로 호여 蠶을 즐겨 어즐-호으 |
| (0328a3) | ㄹ. 어제는 술을 ㄹ장 먹고 正根 | 업서 | | 도라 오니 아프리 호 줄도 모로 |
| (0717a1) | 니 感激호신 절츄를 술을 양도 | 업서이다 | | . 덕썩의 무스히 오오니 이 우희 |
| (0305a5) | 진히 딕접-호옵시니 술을 양도 | 업서이다 | | . 예셔 보매 잔을 남기는가 시비 |
| (0321b2) | 호 御意 시니 다시 술을 양이 | 업서이다 | | . 그러커니와 홀리라도 수이 도 |
| (0308b1) | 니 안즈라 니르시니 술을 양이 | 업서이다 | | . 우리 이틀 禮에 삼소오리잇가 |
| (0707b3) | 아니미 아니라 바다셔 홀 테도 | 업스니 | | 아프리카나 나 호는 대로 호소. |
| (0818a6) | 이로송이다. 별로 인스-홀 테도 | 업스니 | | 江戸 奉行의로셔 보낸 金子를 |
| (0826b4) | ㄹ-호는 양 아름다오미 나쁜 딕 | 업스되 | | 그러커니와 오늘에 다드라는 ㄹ |
| (0705b1) | 꿀 일이란딕 아프란 貴흔 일도 | 업슨딕 | | 이러트시 극진히 行下호시니 ㄹ |
| (0715b2) | 奉行으로써 信使의 아모 일도 | 업시 | | 예-씩지 브트시니 아름다와 호 |
| (0813a3) | 나디 아니코 多人 中 아프 일도 | 업시 | | 예-씩지 브트시니 아름다오미 |
| (0201b5) | ㄹ. 우리는 덕분을 뵈 아프 일도 | 업시 | | 완닉이다. 正官을 반가이 보을 |
| (0610a5) | 디 못 호여 아프란 귀-호 일도 | 업시 | | 終日 겨셔 도로켜 서의-호은가 |
| (0919b2) | -은 사름이로쇠. 홀리는 籠具도 | 업시 | | 사름을 홀리는 사름이옵썩쇠. ‘ |
| (0510a2) | 습닉. 구-호시는 대로 나쁜 디 | 업시 | | 불기도 왓스오니 깃브외. 大慶 |
| (0622a5) | ㄹ 스썩-호여도 一人도 나쁘니 | 업시 | | 請코져 호여 니르오니 그리 아 |
| (0719a1) | ㄹ下 대되 잔채-홀 일로 깃터니 | 업시 | | 모시게 호라 호야 니르시오니 |
| (0217a4) | ㄹ 날 종용히 뵈옵고 니즌 스이 | 업시 | | 僉官들-썩 니르고 잇습닉이다. |
| (0411a6) | 내여 가옵소. 어와 어와 어히 | 업시 | | 니르심이야. 五十束 드린 公木 |
| (0423a5) | 호 ㄹ 뜻 가지미 어와 어와 어히 | 업시 | | 아라 계시외. 서르 니르거니 딕 |
| (0722a3) | 이 업습고 우리 늦치 비-홀 딕 | 업시 | | 아름다이 녀기닝이다. 三奉行 |
| (0417b4) | 分을 헤아려 도홍 구즘을 군말 | 업시 | | 잡습소. 아프리 니르셔도 이 공 |
| (0110b5) | 와 어와 거르기 머흔딕 아프 일 | 업시 | | 건너지니 아름다와 호닝이다. |
| (0706b4) | 의 그룹이라도 호고 장썩 面目 | 업시 | | 너길 꺼시니 아프려나 바드시 |
| (0419b1) | 술오니 이 우희는 닛른 묘리도 | 업스니 | | 자닉-네 호실 대로 호옵소. 엇 |
| (0107a5) | 혼자 가셔도 인스당의 닛븐 디 | 업스니 | | 送使의 對面호면 奇特이 녀기 |

| | | | | |
|----------|--------------------|-------|--|-------------------|
| (0918b6) | 궤넉. 이리 부러-호믈 비-홀 디 | 업스니 | | 일덩 너기시는 비밀-흔 묘리도 |
| (0130b3) | 넉니 자넉-게 다시 술을 스이도 | 업스매 | | 그러는 흥거니와 이 양병은 아 |
| (0430a2) | 넉일은 못츠마 니르시니 그지 | 업스매 | | 내 친히 꺾을 홀 디라도 밤-새 |
| (0414a1) | 木은 넷 公木의 一 束도 못츠니 | 업스믈 | | 자넉-네 눈에도 보실디 어히 |
| (0905a2) | 흥려 흥오니 넉일이라도 연고 | 업스시거든 | | 서어-흔 거슬 가지여 오옵새. |
| (0214b6) | 흥외. 넉일이나 모되나 연고 | 업스신 | | 날의 封進 看品홀 써시니 그리 |
| (0707a5) | 흥는 배 난난치 筑前殿의 그지 | 업스신 | | 道理로소이다. 몬져 읊드시 스 |
| (0418a2) | 이 公木을 바다 아프려도 홀 테 | 업스오니 | | 代官들도 가지 가지 생각-흥건 |
| (0215a5) | 리 아르셔 나옵소. 우리는 연고 | 업스오니 | | 明日이라도 홀 양으로 흥옵소. |
| (0116a6) | 와 꺾피 드렸스오니 別 흥 일도 | 업스오니 | | 넉일 보옵소. 그는 그러커니와 |
| (0827a1) | 나드라는 썩썩 흥옵기 술을 양도 | 업스오니 | | 오늘날 종용히 노르셔 祝願흥 |
| (0416b4) | 라 닐러도 여긔서 영쫑홀 일은 | 업스오니 | | 아프르나 思습흥셔 저기 不足 |
| (0316b3) | 는 御手前 面上의는 酒氣 一切 | 업스오니 | | 술과 거동이 可조와이다. 잘 못 |
| (0909a4) | 실 써라도 振舞에 어긔날 일은 | 업스오리 | | . 다만 可음의 걸리기는 若衆들 |
| (0109b1) | 니를 거시니 그는 油斷홀 일은 | 업스오리 | | . 代官네-의 書簡을 써 니름은 |
| (0611a6) | 그러 흥온가? 그 안혜는 吉日이 | 업스온가 | | ? 홀릴 만정 수이 흥고져 흥니 |
| (0606a1) | 흥마 도라 가상이다. 희온 것도 | 업스온디 | | 머므로옵기도 첫썩건마는 이 |
| (0806a3) | 므리 흥여도 가져 도라 갈 일은 | 업스올 | | 써시니 원컨대 바드셔 下人의- |
| (0307a4) | 제 잠깐 흥련스오되 다리 힘이 | 업스와 | | 오래 서디 못 흥올가 엇썩습. |
| (0609b1) | 흥여 齣을 즐겨 어즐-흥여 正體 | 업스와 | | 상을 서디 아니코 니러 나오니 |
| (0410b6) | 나르니는 一 端도 자블 公木이 | 업스와 | | . 이런 公木은 아모만 드려도 |
| (0423b4) | 디 아니코 이 민망을 비-홀 디 | 업스와 | | . 아직 代官들도 他國 일이라 |
| (0128b6) | 相도 아디 못 흥고 送使의 연고 | 업슨 | | 양으로 술와 넉일로 덩-흔디 |
| (0420b1) | 스이 各官으로서 沙汰之 限도 | 업슨 | | 때에 前例의 업슨 일을 시작- |
| (0426a1) | 端이 굴회자 니르시미 前後의 | 업슨 | | 일이니 내 죄에 만나든 관겨티 |
| (0420b2) | 沙汰之 限도 업슨 때에 前例의 | 업슨 | | 일을 시작-흥여 批判 이실 적 |
| (0920b3) | 르시는 바는 日本말을 비-홀 디 | 업슨 | | 양으로 기리시니 일덩 괴롱-흥 |
| (0216b5) | 조도 조로 읊디 못 흥니 일덩 정 | 업슨 | | 양으로 너기시는가 可음의 걸리 |
| (0420a3) | 브터 束을 풀고 굴회여 낸 일이 | 업슨디 | | 조못 앓가 읊드시 이 스이 各官 |
| (0906a6) | 슈만 위-홀 썩름이오니 의심도 | 업슬 | | 양으로 지간을 미뎛습니다. |
| (0311b3) | 나 니르신 잔-마다 먹습고 正體 | 업습건마는 | | 이 齣으란 御意 可티 다 먹스오 |
| (0721b6) | 라 大君도 거르기 喜悅이 可이 | 업습고 | | 우리 늦치 비-홀 디 업시 아릅 |
| (0619a3) | 돌히 폐를 허스되게 흥도 어히 | 업습고 | | 우리도 스이에서 이러튼 差 |
| (0603b5) | 흥고? 上下 多人 中 오래 묵기도 | 업고 | | -흥니 아프려나 수이 나게 可 |
| (0901b1) | 도 회쭈 振舞를 흥고져 흥오니 | 엇더 | | -흥올고? 어와 어와 可장 도썩 |
| (0421b4) | 드려 넉일이라도 드릴 거시니 | 엇더 | | -흥올고? 자넉의 여러 말을 듯 |
| (0611b2) | 흥? 홀릴 만정 수이 흥고져 흥니 | 엇더 | | -흥온고? 니르시매 밋디 아녀 |
| (0624b2) | 란 못히 올리기를 말고져 흥니 | 엇더 | | -흥고? 아프리커나 자네 맛당- |
| (0720a2) | 흥 폐로올 썩-흥니 덜고져 흥니 | 엇더 | | -흥썩? 니르시는 바를 아춤의 |
| (0806a6) | 대 바드셔 下人의-게나 주시미 | 엇더 | | -흥올고 앓가 스썩-흥시믈 드 |
| (0620b3) | 시면 中官 以下란 올리디 말미 | 엇더 | | -흥올고? 이러나 더러다 자너- |
| (0408a6) | 흥 술오려니와 흥썩 三 隻-도록 | 엇더 | | -흥올고? 자넉-네 借船으란 미 |
| (0418b6) | 권 十 束을 자블 써시니 判事네 | 엇더케 | | 너기시는고? 代官들흔 자넉-너 |
| (0624a3) | 事に 보디 슬흔 일이나 이시면 | 엇덜고 | | 흥니 小小 흥 일이어든 中官 以 |
| (0216a6) | 르시믈 요스이 도히 계시던가? | 엇디 | | 흥 디 일이 만하 問安도 조로 |
| (0308b4) | 우리 이를 禮에 삼스오리잇가? | 엇디 | | 흥 디 日本 사름은 肉食 테윳 |
| (0425a5) | 곽 왕넉-흥니 사름이나 可쇼나 | 엇디 | | 견디올고? 자넉-네도 아르심도 |
| (0525b3) | 이대-도록 세치 아니 니르시다 | 엇디 | | 얼현히 흥렁잇가? 다만 朝鮮 聘 |
| (0411b4) | 十 束 드린 公木을 다 나쁘라고 | 엇디 | | 흥려 아르시는고? 흥믈며 近年 |
| (0428a1) | 또 밋피 두고 꺾홀 사름도 업고 | 엇디 | | 흥올고? 今夜 썩 下人을 꺾을 |
| (0305b6) | 넉니 이 잔으란 브디 다 자옵소. | 엇디 | | 남기랑잇가? 본디 먹디 못 흥옵 |
| (0419b3) | 니 자넉-네 흥실 대로 흥옵소. | 엇디 | | 흥야 우리 읊는 일은 다 슈지 |
| (0426b1) | 홀 시 一年 二年은 아니오 | 엇디 | | 부디-흥가 너기시는고? 그저 |
| (0919b3) | 사름을 홀리는 사름이옵썩. | 엇디 | | 이리 괴롱-흥시는고? 진실로 |
| (0127b5) | 官이 본디 병 든 사름이옵더니 | 엇디 | | 흥 디 오며셔 브터 썩 병 드러 |
| (0410a2) | 나 가 보와 잡습소. 이 公木이 | 엇디 | | 이러트시 사오납스온고? 다 도 |
| (0527a1) | 디답이 불서 겁-흥는 양이로직 | 엇디 | | 흥 편만 생각-흥시는고? 他國 |
| (0128b2) | 기오니 우리 썩 나옵썩. 그러면 | 엇디 | | 브디 넉일 흥실 양으로 니르옵 |
| (0522a3) | 흥고? 흥얹쭈-홀 만흔 일이오면 | 엇디 | | 얼현히 흥렁잇가? 可장 쉬운 |
| (0620a3) | 흥 그대-도록 생각-흥실 작시면 | 엇디 | | 슈고로오매 걸리씨올고? 이제 |

| | | | |
|----------|--------------------|-----|--------------------|
| (0825b5) | 호음새. 쏘 풍뉴-호는 사람은 | 엇디 | 상해 불러 들이디 아니 호신고 |
| (0208b6) | 마장 머검죽이 잘 달호련마는 | 엇디 | 호 디 예는 달호기를 잘 못 호 |
| (0105a2) | 뜻을 펴거니와 쏘 送使다히셔는 | 엇디 | 너길 디 믿음의 걸리오니 자네 |
| (0710b4) | 이다. 호면 불 작시면 그 거조는 | 엇디 | 홀고? 잔이나 내는 일이나 이제 |
| (0324b4) | 셔도 約條의 덩-호 限-식지는 | 엇디 | 얼현이 출히올가? 쇼인-네는 |
| (0602a4) | 켜온 일인가 너기건마는 三使는 | 엇디 | 너기실 디 아직 아직 아롬답소 |
| (0702b3) | 도 밧디 못 홀 일이오니 太守는 | 엇디 | 싱각-호시논고? 右之 道理 心得 |
| (0315a5) | 臣下 되엿소오니 므릇 일을 | 엇디 | 얼현이 호리잇가? 그러호므로 |
| (0416b3) | 가? 넷 公木이라 닐러도 여긔셔 | 엥쫑홀 | 일은 업스오니 아프려나 思合 |
| (0209a6) | 쇼. 숲디 아닐 일이엇마는 前規 | 에 | 잇는 일이니 判事네 잘 드르시 |
| (0604a5) | 쇼셔. 여긔 떠나실 吉日은 郡郡 | 에 | 기별을 두고 定홀 써시오니 얼 |
| (0624a2) | 이 못히 느려 振舞 적이나 萬事 | 에 | 보디 슬흔 일이나 이시면 엇덜 |
| (0812a6) | 자닉-게 맞디오리. 藍島 宿所 | 에 | 太守 보오라 와서 信使의 술 |
| (0720b1) | 닉-씩 議論호오니 御進物도 城 | 에 | 오르시는 날 알픽 가져 버려 쉼 |
| (0410b2) | 와도 아울쇠. 그 안헤도 一束 | 에 | 자불 公木이 十 端 남죽이 드렸 |
| (0418b2) | 출하리논 이 五十 束을 一束 | 에 | 十 端-式 곁히여 내면 十 束을 |
| (0615a5) | 긔시게 굿-호야 니르오니 船 中 | 에 | 긔브심도 계실 써시니 이제 座 |
| (0503b5) | 야 그 返事 대로 우리 兩人 中 | 에 | 一人이 飛船으로 도라 가올 거 |
| (0912b6) | 로 히로 더곰 이러-호니 心中 | 에 | 숭고져 호는 일도 잘 숭디 못 호 |
| (0709a6) | 行下를 존녕이다. 信使 吉田 | 에 | 留홀 제 島主과 昭長老 비오 |
| (0814a1) | 事히 예-식지 붓조오니 對馬島 | 에 | 브툼과 호 가지로 깃거 호는디 |
| (0401b6) | 전 브터 저울 세니 느릭니 出入 | 에 | 差使員 쏘 아니라 여긔 소임-호 |
| (0401a3) | 終 捷解新語 第四 오늘은 看品 | 에 | 브터 처음으로 보옵고 아롬다 |
| (0909a4) | 눔이나 연고 이실 쯔라도 振舞 | 에 | 여긔날 일은 업스오리. 다만 |
| (0906b5) | 제는 하 심심호매 草草호 振舞 | 에 | 各各 좃용히 말슴 달란-호시니 |
| (0614a4) | 早 出船호음새. 마즘 도호 順風 | 에 | 엇-식지 브트시니 大慶이로송 |
| (0603a4) | 슈고를 니르시거니와 이는 物 | 에 | 비-호면 바늘 굿티오 자네 슈고 |
| (0802a5) | 되올까 하 민망-호와 그 雜物 | 에 | 小判 金子 百 枚를 밧고와 보내 |
| (0812b3) | 오른 어와 어와 三使의 御果報 | 에 | 往來 힘-호 海路의 호르도 惡 |
| (0826b1) | 은 마즘 天氣 도하 진실로 遠路 | 에 | 나라 일을 못고 三使을 청-호 |
| (0819a6) | 니 그리 아옵소. 쏘 海上 遠路 | 에 | 두로 쓰려 예-식지 無事히 온 |
| (0527a3) | 호 편만 싱각-호시논고? 他國 | 에 | 볼골 사오나오면 그 作法은 모 |
| (0618b2) | 로셔 바르디 나시디 호면 江戶 | 에 | 들려도 우리 그른 디 되기는 눈 |
| (0808a5) | 를 잘 싱각-호여 보시소. 江戶 | 에 | 반 돌이나 무거 슈고-호던 下ノ |
| (0714a2) | 호시고 이 二三日 안히는 江戶 | 에 | 브트실 써시니 御對面호셔야 |
| (0616a2) | 도 극진-호 일이옵도쇠. 船 中 | 에도 | 별히 곱뵈도 업고 닉일도 天氣 |
| (0721a6) | 르시는 대로 호음새. 어제논 城 | 에서 | 인스당이며 萬事 되담-호는 양 |
| (0706a3) | 시언마는 下人을 위-호야 德談 | 엇 | 일이라 호셔 우리를 부러 보내 |
| (0915a5) | 으란 모로논 테-호고 날-마다 | 여긔 | 와셔 말슴이나 호시면 즉시 상 |
| (0613b5) | 터 닉일은 天氣 도홀가 시브다 | 여긔 | 사름도 니르오니 早早 出船호 |
| (0713a4) | 로셔 御使 예-식지 왔닉이다. | 여긔 | 드옵소. 使 술오른 우호로셔 니 |
| (0402a3) | 릭니 出入에 差使員 쏘 아니라 | 여긔 | 소임-호는 官人 대되 過愈에 |
| (0912a5) | 고디 듯디 마옵소. 이전의도 내 | 여긔 | 와셔 자네-네 指南을 여더 겨 |
| (0604a3) | 니 아프려나 수이 나게 호쇼셔. | 여긔 | 떠나실 吉日은 郡郡에 기별을 |
| (0102b5) | 호 고대 잇습닉. 아롬답소와. | 여긔 | 오르옵소. 아직 편히 안줍소. |
| (0101a5) | 네 代官의 가 내 말로 “그적기 | 여긔 | 느려 와 어제라도 오올 거슬 路 |
| (0702b6) | 고? 右之 道理 心得호고 使를 | 여긔 | 보내소. 使를 불러 니르시는 바 |
| (0511b2) | 브오니 셔울은 어닉 썩 떠나셔 | 여긔논 | 어닉 썩 브트시리라 니르옵논고 |
| (0416b3) | 가 호논가? 넷 公木이라 닐러도 | 여긔셔 | 엥쫑홀 일은 업스오니 아프려나 |
| (0516b2) | 수이 비를 낼 양으로 호옵소. | 여긔 | 船頭도 그리 보와시니 信使의 |
| (0427b4) | 두옵소. 전의도 大廳의 두어서 | 여러 | 필을 일히시니 쏘 밧기 두고 番 |
| (0703a6) | 나라 쏘 目錄을 보니 어와 어와 | 여러 | 가지 珍味 이걸 더건 慰勸히 호 |
| (0422a1) | 거시니 엇더-호올고? 자닉의 | 여러 | 말을 듯건대 아프리라도 호고 |
| (0214b5) | 니 그러호외. 닉일이나 모되나 | 연고 | 업스신 날의 封進 看品홀 써시 |
| (0909a2) | 대로 호쇼셔. 비록 내나 눔이나 | 연고 | 이실 쯔라도 振舞에 여긔날 일 |
| (0905a2) | 로나 호려 호오니 닉일이라도 | 연고 | 업스시거든 서어-호 거슬 가지 |
| (0128b6) | 의 氣相도 아디 못 호고 送使의 | 연고 | 업스 양으로 술와 닉일로 덩-호 |
| (0905b3) | 들유의도 놀래 브르든 若衆들히 | 연고 | 업기를 전위-호엿습닉. 형혀 |
| (0215a5) | 니 그리 아르셔 나옵소. 우리는 | 연고 | 업스오니 明日이라도 홀 양으로 |
| (0909b1) | 만 믿음의 걸리기는 若衆들의 | 연고 | 웃듬으로 니르시니 이 一段 되 |

| | | | | |
|----------|--------------------|--------|--|--------------------|
| (0113b5) | 관나 큰 비에 격군도 적고 비에 | 연장도 | | 브덜-ㅎ여 떠덜스오니 글로 ㅎ |
| (0321a1) | 러시니 요스이 머므시면 덩-ㅎ | 연향 | | -들도 다 못고 종용히 거시다가 |
| (0218b6) | 언머 슈고-ㅎ옵셔뇨? 看品 後 | 연향 | | -ㅎ실딜 날도 저물 썬시니 수오 |
| (0327a3) | 갓거 ㅎ늑이다. 어제는 無事히 | 연향을 | | ㅎ시니 갓브외. 東萊 釜山浦로 |
| (0530b1) | 갓거니와 그러나 닉일은 祝願의 | 연향이오니 | | 信使의 對面ㅎ여 쏘도 술와 불 |
| (0528b3) | 理 前後 樣子를 극진히 三使의 | 열조오니 | | 三使 니르시믄 극진히 넘너-ㅎ |
| (0124b3) | 를 계유 堪忍ㅎ엿스오니 큰 대 | 열과 | | 공석 五六 枚만 몬져 드려 주옵 |
| (0832b5) | 고-ㅎ신 양은 朝廷의도 즈셔히 | 엿조오랑이다 | | . 捷解新語 第八 終 捷解新語 終 |
| (0804b5) | . 보내시믄 미덧습니. 對馬島主 | 엿조오른 | | 信使의셔 니르시디 아닌 전의 |
| (0132b2) | 게셔 힘 뼈 이런 道理를 東萊의 | 엿조와 | | 닉일 브딤 홀 양으로 ㅎ옵소. ㅎ |
| (0212a3) | ㅎ옵소. 니르시는 대로 東萊의 | 엿조와 | | 催促ㅎ여 보내오리. 친히 보와 |
| (0503b2) | 키시니 자닉-네 이 뵈을 東萊의 | 엿조와 | | 早早 註進ㅎ야 그 返事 대로 우 |
| (0505b1) | 로이 아니 ㅎ실 양으로 東萊의 | 엿조와 | | 飛脚을 썬 양으로 ㅎ옵새. 수이 |
| (0526b3) | 셔 太守 니르시는 道理 극진히 | 엿조와 | | 보오리. 자닉-네 덕답이 불셔 |
| (0515b5) | 식 틱을 썬시니 이 道理 信使의 | 엿조고 | | 小通事의-게 니르셔 거느려 가 |
| (0526a4) | 시 行儀를 웃듬-ㅎ는 규귀오니 | 엿조기논 | | 가지 가지 주선-ㅎ여도 맛당히 |
| (0807b4) | 아디 못 홀 일이오니 이러트시 | 엿조농이다 | | . 太守 니르시는 바는 브딤 밧고 |
| (0607a2) | ㅎ닝이다. 이도 祝願의 일이라 | 엿조넉이다 | | . 色色的 慰勸을 꾸미시니 진실 |
| (0307a6) | 이 업스와 오래 셔디 못 ㅎ올가 | 엿조습넉 | | . 前例는 그러티 아니커니와 속 |
| (0518a2) | . 도로 시과다 問安ㅎ시덩이다. | 예 | | -삭지 使者 감격키 너기농이 |
| (0519a5) | 러시드시 天氣도 머흐디 아나 | 예 | | -삭지 오오니 이제야 安堵ㅎ영 |
| (0819b1) | 소. 쏘 海上 遠路에 두로 쓰려 | 예 | | -삭지 無事히 온 우회는 나믄 |
| (0701a4) | 捷解新語 第七 筑前 太守로서 | 예 | | -삭지 無事히 오시다 ㅎ셔 덕도 |
| (0822a3) | 은 ㅎ올 썬시오 쏘는 멀리 되셔 | 예 | | -삭지 아롭다이 건너신 祝願 拂 |
| (0521a6) | 못 홀 미드려 ㅎ는 일이 이셔 | 예 | | -삭지 오소 ㅎ여 술와시니 종용 |
| (0703a4) | 블러 니르시는 바는 넘너-ㅎ셔 | 예 | | -삭지 부리실 썬이 아니라 쏘 |
| (0517a3) | 主의로서 술오른 도흔 天氣에 | 예 | | -삭지 브트시니 아롭다와 ㅎ농 |
| (0518b4) | 닉. 마즘 년-ㅎ여 도흔 天氣에 | 예 | | -삭지 건너시니 아프 일-도곤 |
| (0815b2) | 모의 果報라도 公儀 서르 못고 | 예 | | -삭지 오온 바를 말로는 다 ㅎ |
| (0814b3) | 아롭답스외. 진실로 먼 海上의 | 예 | | -삭지 오온 우리 일란 더디고 |
| (0713a2) | 닐러 들리소. 江戸로서 御使 | 예 | | -삭지 왓넉이다. 여귀 드옵소. |
| (0715b2) | 으로썬 信使의 아모 일도 업시 | 예 | | -삭지 브트시니 아롭다와 ㅎ넉 |
| (0813a3) | 아니코 多人 中 아므 일도 업시 | 예 | | -삭지 브트시니 아롭다오미 御 |
| (0813b5) | 로송이다. 니르시드시 無事히 | 예 | | -삭지 붓조오니 對馬島에 브툼 |
| (0817b5) | 러시드시 上下 多人 中 無事히 | 예 | | -삭지 브트니 아롭다오미 서르 |
| (0822a6) | 渡海ㅎ실 작시면 아프란 御意 | 예 | | 걸리신 일이나 일논 양으로 家 |
| (0213a3) | 거니와 더룬 날의 東萊 釜山浦 | 예 | | 가 둔너 와셔 代官房의셔 談合 |
| (0114a6) | 혀 아모 덕 붓터도 東萊 釜山浦 | 예 | | 술와 方方 彼此의 좇조을 거시 |
| (0117a1) | 자닉-네 姓名을 아라 釜山浦 | 예 | | 술와 注進홀 거시니 書契를 내 |
| (0829a6) | 닝이다. 비에 트노라 ㅎ야 辰時 | 예 | | 判使네를 對馬島主게 보내야 |
| (0513b5) | 아냐 吉日의 위-홈이니 寅時 | 예 | | 비에 트셔 勘蠻夷-삭지 가서 |
| (0614b6) | 편-ㅎ까 祝願ㅎ닝이다. 接待 | 예 | | 갓기-ㅎ는 낭반-돌히 방샤를 |
| (0616b3) | 出船도 더될 썬시니 온갓 接待 | 예 | | 극진-ㅎ심은 비에셔도 밧조오 |
| (0402a5) | 귀 소임-ㅎ는 官人 대되 過怠 | 예 | | 밧는 바는 자닉-네도 아릅실 술 |
| (0517a3) | 島主의로서 술오른 도흔 天氣 | 예 | | 예-삭지 브트시니 아롭다와 ㅎ |
| (0518b3) | 습니. 마즘 년-ㅎ여 도흔 天氣 | 예 | | 예-삭지 건너시니 아프 일-도 |
| (0502a4) | 와 어와 아롭답스외. 도흔 天氣 | 예 | | 御仕습이옵도쇠. 府中도 無事히 |
| (0722b5) | 르 말습-ㅎ오매 아롭다오미 禮 | 예 | | 너머이다. 捷解新語 第七 終 捷 |
| (0308b3) | 을 양이 업서이다. 우리 이룰 禮 | 예 | | 삼스오리잇가? 엿디 홀 디 日本 |
| (0703b4) | 긴 더긴 慰勸히 ㅎ신 양이 御禮 | 예 | | 너믄 양이로소이다. 이를 밧디 |
| (0126b6) | 잠만 ㅎ려 거시니 二三日 內 | 예 | | 홀 양으로 ㅎ오리. 茶禮는 明日 |
| (0819b4) | 나믄 일도 업서 이 二三日 內 | 예 | | 出船ㅎ올 거시니 그리 아릅쇼 |
| (0210a1) | 수도 ㅎ나히 업고 덤시도 數內 | 예 | | 하나홀 더러시니 닛고 이러-ㅎ |
| (0714b2) | 오려 ㅎ 일이로소이다. 두 분을 | 예 | | -삭지 극진히 무로시미 感激ㅎ |
| (0713b5) | 르기 갓비 너기샤 우리 二人을 | 예 | | -삭지 問安ㅎ시고 이 二三日 內 |
| (0429a5) | ㅎ여 되즈디 못 ㅎ는 바는 게나 | 예나 | | ㅎ 가지옵도쇠. 우리도 그런 줄 |
| (0214b4) | 르져 보심이 올터 아니 ㅎ온가? | 예논 | | ㅎ 번이나 뵈와시니 그러ㅎ외. |
| (0209a2) | 죽이 잘 달호련마는 엿디 홀 디 | 예논 | | 달호기를 잘 못 ㅎ여 이러-ㅎ |
| (0513b1) | 이옵도쇠. 올스외. 닉일은 天氣 | 예논 | | 붓듯디 아냐 吉日의 위-홈이니 |
| (0307b4) | 티 아니커니와 今度 안자도 禮 | 예논 | | 삼디 못 홀 썬시니 안자셔 종용 |

| | | | |
|----------|---------------------|------|----------------------|
| (0212b2) | 울 말이 만컨마는 요스이 일절 | 예는 | 오디 아니 하시니 ㄹ장 밍야하 |
| (0612b4) | ㅅ 못 흘을 써시니 그 날은 天氣 | 예도 | ㅅ 못디 아니 出船할 실 거시니 그 |
| (0603b2) | ㅅ 비-ㅎ기 어려오니 어니 빙 | 예를 | ㅅ 떠나올고? 上下 多人 中 오래 |
| (0305b2) | ㅎ습시니 술을 양도 업서이다. | 예서 | ㅅ 보매 잔을 남기는가 시버 뵈니 |
| (0830b5) | 보내여도 정은 혼 가지니 그저 | 예서 | ㅅ 도라 가시미 도쑈왕이다. 니르 |
| (0809b5) | 아므가히 아므가히 兩 人씩서 | 예서 | ㅅ 四五 日어나 무그서 쉬여 出船 |
| (0410b1) | 고 도흠 사오나움을 니르옵소. | 예서 | ㅅ 잠깐 보와도 아올쇠. 그 안헤도 |
| (0207a6) | 杯만 잡습소. 大切의 御意오니 | 예서 | ㅅ 죽스와도 먹스오리이다. 이 蠶 |
| (0804a3) | 두엇더니 쏘 싱각 받의 金子를 | 예지이 | ㅅ 보내노라 ㅎ여시니 자네 이 밋 |
| (0614a4) | 出船ㅎ습새. 마즘 도흔 順風에 | 옛 | ㅅ -ㅅ지 브트시니 大慶이로송이 |
| (0822b4) | 로 家中 걷-들도 너길 작시면 | 옛 | ㅅ -ㅅ지 극진-흠이 헤일 되올가 |
| (0328a3) | 술을 ㄹ장 먹고 正根 업서 도라 | 오니 | ㅅ 아프리 혼 줄도 모로올쇠. 그는 |
| (0510b5) | 가지여 오옵소. 싱각 밋기 수이 | 오니 | ㅅ 大守도 일덩 깃비 너기시올쇠. |
| (0207a5) | ㅅ 一 杯만 잡습소. 大切의 御意 | 오니 | ㅅ 예서 죽스와도 먹스오리이다. |
| (0114a2) | 글로 ㅎ여 근심-ㅎ습넌. 이제 | 오논 | ㅅ 법도 잇건마는 밤이 드러 뵈디 |
| (0323a2) | 封進 返禮는 셔울로셔 헤아려 | 오논 | ㅅ 대로 ㅎ오려니와 公木은 束數 |
| (0110a2) | 빈다 니르니 일덩 二 番 特送이 | 오논가 | ㅅ 시브니 자네-네도 아옵소. 이 |
| (0112a1) | 船이 돛기 사오나와 떠덜습넌. | 오늘 | ㅅ 아츰 구름이 머흐더니 밋 디나 |
| (0513a5) | 므어시라 니르옵논고? 우리는 | 오늘 | ㅅ 타 띄워 기드릴 즈음이옵도쇠. |
| (0428b2) | 事네는 代官의 손에 인는 거슬 | 오늘 | ㅅ 못디 아닌논가 너기시거니와 |
| (0827a3) | ㅅ ㅅ습ㅎ습기 술을 양도 업스오니 | 오늘란 | ㅅ 종용히 노르셔 祝願하시과다. |
| (0826b6) | 미 나쁜 디 업스되 그러커니와 | 오늘에 | ㅅ 다드라는 ㅅㅅㅎ습기 술을 양 |
| (0204b6) | 라 니르미 진실로이로소이다. | 오늘은 | ㅅ 이러트시 ㅅㅅ-ㅎ시를 가 正官 |
| (0203b5) | ㅅ. 올스와. 대되 無事ㅎ넌이다. | 오늘은 | ㅅ 折節 天氣도 도하 ㅅ용히 말습 |
| (0317a2) | ㅅ. 잘 못 먹건마는 상히 못 ㅎ고 | 오늘은 | ㅅ 자넌-네로 ㅎ여 主人의 도리를 |
| (0113a1) | 습넌. 떠딘 빙 아프 디 붓터셔도 | 오늘은 | ㅅ 밤이 드러시니 ㅅ일 듯보와 보 |
| (0105b3) | 아닐 양으로 미덧습넌. 진실로 | 오늘은 | ㅅ 처음으로 극진-ㅎ시를 미더 내 |
| (0516a3) | 케 니르셔 거느려 가게 ㅎ습소. | 오늘은 | ㅅ 구름 가기도 도쿄 브롬도 ㅅ히 |
| (0403a2) | 를 ㄹ장 未審히 너기습넌. 어와 | 오늘은 | ㅅ 右之 道理를 正官도 분별 두셔 |
| (0405a6) | 굴히여 자브면 혼 가지옵도쇠. | 오늘은 | ㅅ 싱각 밋기 술술이 ㅅ초니 大慶 |
| (0108b2) | ㅅ利를 기드리더라 닐러 와시니 | 오늘은 | ㅅ 건넌죽-혼 구름 가기도 잇고 |
| (0217b4) | 다. 드르니 正官이 도화파 ㅎ니 | 오늘은 | ㅅ 보올가 너기습넌. 약도 먹고 ㅅ |
| (0826a4) | ㅅ 밋디 아냐 다 더브러 가오시. | 오늘은 | ㅅ 마즘 天氣 도하 진실로 遠路에 |
| (0326b4) | 고 싱각-ㅎ는이다. 니르시드시 | 오늘은 | ㅅ 날도 도쿄 셔르 ㅅ용-ㅎ여 우리 |
| (0604b2) | 오니 일현티 아니 ㅎ오리. 아직 | 오늘은 | ㅅ 祝願의 일이오니 終日 노르시 |
| (0401a3) | 解新語 第三 終 捷解新語 第四 | 오늘은 | ㅅ 看品에 브터 처음으로 보옵고 |
| (0212b2) | 이 만컨마는 요스이 일절 예는 | 오디 | ㅅ 아니 하시니 ㄹ장 밍야하 |
| (0320a3) | 적의 오래 묵디 말고 수이 도라 | 오라 | ㅅ 島主 ㅅ ㄹ장 분부-ㅎ엿스오니 |
| (0101a4) | 捷解新語 第一 아므가히 이러 | 오라 | ㅅ . 네 代官의 가 내 말로 “그적 |
| (0101b6) | ㅎ여 案内 술오시드라.” 니르고 | 오라 | ㅅ . 御念比호 御使 ㅅ옵도쇠. 어와 |
| (0213b1) | ㅅ 相談ㅎ면 送使로셔 이러셔는 | 오라 | ㅅ 더러셔는 아니 온다 다 노ㅎ여 |
| (0803b1) | 시는 바는 격기 奉行들 드리고 | 오래 | ㅅ 슈고-ㅎ던 아래 사름-들희 별 |
| (0307a6) | ㅅ ㅎ련스오되 다리 힘이 업스와 | 오래 | ㅅ 셔디 못 ㅎ올가 엿줍습넌. 前例 |
| (0320a2) | 르쇼셔. 쇼인 섬으로써 올 적의 | 오래 | ㅅ 묵디 말고 수이 도라 오라 島主 |
| (0218b2) | 히 ㅎ오니 아릅답스외. 춘 날의 | 오래 | ㅅ 안자 게셔 언머 슈고-ㅎ습셔노 |
| (0307a1) | ㅅ 立酌ㅎ실 써시니 아옵시드시 | 오래 | ㅅ 병 드와 이제 잠깐 ㅎ련스오 |
| (0309a4) | 아니 ㅎ오니 그러ㅎ온 디 본딧 | 오래 | ㅅ 셔기 잘 못 ㅎ와 술왔습써니 |
| (0314b3) | ㅅ기디 말고 千 年이나 가-도록 | 오래 | ㅅ 불 양으로 ㅎ세야 아릅답스오 |
| (0603b5) | ㅅ 예를 떠나올고? 上下 多人 中 | 오래 | ㅅ 묵기도 엿더-ㅎ니 아프려나 수 |
| (0301a4) | ㅅ 게셔 니르시몬 御渡海ㅎ션 디 | 오래되 | ㅅ 셔르 보옵디 몰 ㅎ오니 ㅅㅅㅎ |
| (0320b3) | ㅎ 양으로 브라논이다. 오션 디 | 오래디 | ㅅ 아냐 限도 머러시니 요스이 머 |
| (0101b5) | ㅅ 門-ㅅ지 왔습넌. 안히 게시면 | 오려 | ㅅ ㅎ여 案内 술오시드라.” 니르고 |
| (0413b4) | ㅅ 이 웃듬이옵도쇠. 니르시는 배 | 오로 | ㅅ 그러ㅎ 썬라도 이 公木은 ㅅ公 |
| (0620a5) | 슈고로오매 걸리끼올고? 이제 | 오로 | ㅅ 올 써시니 ㅅ옴 편히 싱각-ㅎ |
| (0425b2) | ? 자넌-네도 아릅심도 겨시리. | 오로 | ㅅ 어려오를 걸터 니르니 나라토 |
| (0412b3) | 거르기 세치 곱힌다 ㅎ고 공스 | 오로 | ㅅ ㅎ 제 안가-터로 니르시고 ㅅ |
| (0430b1) | 로올 써시니 ㅅ일 힘 ㅅ시기는 | 오로 | ㅅ 미덧습넌. 捷解新語 第四 終 捷 |
| (0314a2) | 가느니이다. 어와 즈로 우다히 | 오로논리 | ㅅ 御大儀 혼 일이옵도쇠. 朝廷도 |
| (0616b5) | 진-ㅎ심은 빙예셔도 밋조오면 | 오름과 | ㅅ ㅎ 가지오니 자네 잘 아르셔 接 |
| (0619b2) | 르미 민망-ㅎ오니 페롭스오나 | 오르셔 | ㅅ 내나 늬이나 민망-호를 프러 |

| | | | |
|----------|--------------------|-------|---------------------|
| (0517b3) | 계실 써시니 서의-호오니 무턱 | 오르셔 | 홀리나 쉬시고 빅-들토 도로 스 |
| (0615a3) | 낭반-들히 방사를 부러 출혀 | 오르시게 | 곳-호야 니르오니 船 中에 곳 |
| (0619a1) | 호여 가지 가지 니르오니 비록 | 오르시기 | 슈고롭스울 디라도 더-들히 폐 |
| (0720b1) | -의 議論 호오니 御進物도 城에 | 오르시는 | 날 알피 가져 버려 셴 후에 信 |
| (0102b5) | 고대 잇습닉. 아롬답스외. 여귀 | 오르읍소 | . 아직 편히 안좁소. 나는 소임. |
| (0127b5) | 형 든 사름이읍더니 엇디 혼 디 | 오며셔 | 브터 쏘 병 드러 머글 씻도 잘 |
| (0811b4) | 가셔 석환이 구경-호고 도라 | 오른 | 쉽찌니와 드린 사름을 이렇 더 |
| (0814b3) | 외. 진실로 먼 海上의 예-씩지 | 오른 | 우리 일란 더디고 太守의 果報 |
| (0132b6) | 슬와 보오려니와 東萊 釜山浦 | 오셔도 | 거르기 섭섭이 너기실 거시니 |
| (0320b3) | 이 歸島홀 양으로 브라느이다. | 오션 | 디 오래디 아냐 限도 머러시니 |
| (0521a6) | 드려 호는 일이 이셔 예-씩지 | 오소 | 호여 슬와시니 좋용히 잘 드르 |
| (0102b1) | 잇스오니 判事네도 同道호야 | 오쇼셔 | . 代官들도 혼 고대 잇습닉. 아 |
| (0701a4) | 筑前 太守로서 예-씩지 無事히 | 오시다 | 호셔 덕담으로 下人을 주시게 |
| (0506a4) | 東萊 니르시몬 “슈고로이 건너 | 오시도쇠 | . 자닉-네 口上 道理 주셔히 註 |
| (0713b4) | 시는 바는 海上 먼 길히 無事히 | 오신 | 기별을 거르기 깃비 너기샤 우 |
| (0202b4) | 는 사름이읍더니 빅에 이치여 | 오오니 | 그러호온 디 밥도 일절 먹디 못 |
| (0519a5) | 天氣도 머호디 아냐 예-씩지 | 오오니 | 이제야 安堵호영이다. 對馬島 |
| (0717a3) | 양도 업서이다. 덕썩의 무스히 | 오오니 | 이 우회는 아므 제라도 싱각 대 |
| (0815b2) | 라도 公儀 서르 못고 예-씩지 | 오온 | 바를 말로는 다 호기 어려운 祿 |
| (0101a6) | 그적과 여귀 느려 와 어제라도 | 오을 | 거슬 路次의 굿브매 이제야 門 |
| (0905a3) | 스시거든 서어-혼 거슬 가지여 | 오읍새 | . 모든신 디도 알외여 주읍소. |
| (0510b3) | 써시니 그 返書를 수이 가지여 | 오읍소 | . 싱각 맞과 수이 오니 大守도 |
| (0102a4) | 御使 읍도쇠. 여와 아롬다이 | 오읍시도쇠 | . 안히 잇스오니 判事네도 同道 |
| (0615b2) | 실 써시니 이제 座船을 두시고 | 오읍심을 | 밋쥬닝이다. 격기-호는 분-네- |
| (0501a5) | 이느 므슴 빅온고? 信使 마즈라 | 온 | 御使 빅읍도쇠. 그러면 使者는 |
| (0821b3) | 리 못 호을 일은 험-혼 디 건너 | 온 | 빅을 묻과 밥도 고티노라 호면 |
| (0820b2) | 히 니르신 양 주 못 奉行으로써 | 온 | 거슬 주노라 호시는 배 감격-호 |
| (0819b1) | 에 두로 쓰려 예-씩지 無事히 | 온 | 우회는 나쁜 일도 업서 이二三 |
| (0507a3) | 本意 언마는 朝廷으로서 返事 | 온 | 후에 보와야 禮 오매 아직 기 |
| (0616b3) | 출히기에 出船도 더될 써시니 | 온갓 | 接待예 극진-호심은 빅에서도 |
| (0213b2) | 이러셔는 오라 더러셔는 아니 | 온다 | 다 노호여 호시니 혼 몸으로써 |
| (0108b5) | 롬도 도히 부러시니 多分 빅가 | 올 | 거시니 遠見의 무려 보읍소. 어 |
| (0204a4) | 닉. 그러호외. 正官은 섬으로써 | 올 | 적 브터 東萊 극진-호시물 듯 |
| (0320a1) | 기다 마르쇼셔. 쇼인 섬으로써 | 올 | 적의 오래 목디 말고 수이 도라 |
| (0120b3) | 萊 올라 가 送使의 樣子를 솟고 | 올 | 거시니 좋용히 쉬읍소. 닉일 나 |
| (0620a5) | 로오매 걸리꺼울고? 이제 오로 | 올 | 써시니 므을 편히 싱각-호쇼셔 |
| (0506b3) | 註進호여시니 쉽사리 返事 | 올 | 써시니 그리 아읍소.” 호시고 |
| (0322b1) | 가야 京으로서 返禮의 返書 | 올 | 거시니 自然 더될까 너기습닉. |
| (0509b1) | 면 더디여도 十二三日만의는 | 올가 | 다 헤아리읍데. 그리 아라 기 |
| (0508a3) | 여 호읍닉. 며칠만의나 返事 | 올고 | 짐작이 계실 써시니 니르읍소. |
| (0313b5) | 너겨 聞습을 위-호여 히-마다 | 올라 | 가느니다. 어와 즈로 우다히 |
| (0508b4) | 는 ㅁ장 세춘 사름 둘홀 밤-낫 | 올라 | 갈 양으로 호라코 돈돈이 닐러 |
| (0120b1) | 와 注進호고 닉일 아춤은 東萊 | 올라 | 가 送使의 樣子를 솟고 올 거시 |
| (0407a2) | ㅁ 몬져 드러 주읍소. 닉일 東萊 | 올라 | 가 모되-쓰음 드리려니와 므슴 |
| (0322a4) | 品도 못 호엿고 封進 雜物들도 | 올려 | 가야 京으로서 返禮의 返書 |
| (0624b1) | 혼 일이어든 中官 以下란 못히 | 올리기를 | 말고져 호니 엇더-홀고? 아프 |
| (0620b3) | 뒤버뜨릴 작시면 中官 以下란 | 올리디 | 말미 엇더-호을고? 이러나 더 |
| (0622a1) | 웃듬이오녕이다. 쏘 中官 以下 | 올리디 | 말 일을 니르신 대로 스셜-호 |
| (0313a4) | 듯고 ㅁ장 아롬다와 호닉이다. | 올스와의다 | . 島中의셔도 그리 니르읍스니 |
| (0502b2) | 이읍도쇠. 府中도 無事호온가? | 올스외 | . 上下 대되 無事호고 對馬島主 |
| (0112b2) | 니 일덩 슈고로이 건너시도쇠. | 올스외 | . 날이 노파셔 브틀 거슬 브름의 |
| (0513b1) | 타 띄워 기드릴 즈음이읍도쇠. | 올스외 | . 닉일은 天氣에는 붓듯디 아냐 |
| (0203b3) | 無事호시니 아롬다와 호읍닉. | 올스외 | . 대되 無事호닝이다. 오늘은 ㅁ |
| (0715b5) | 브트시니 아롬다와 호닉이다. | 올커니 | 닉일도 보오려마는 먼 ㅁ 使 |
| (0214b1) | 一番 特送이오니 몬져 보심이 | 올터 | 아니 호온가? 예는 혼 번이나 |
| (0721b3) | ㅁ며 萬事 디답-호는 양이 ㅁ장 | 올히 | 호신 바늘 대되 일킷를 썩이 이 |
| (0415b6) | 代官네도 아로시킨마는 중시 | 올히만 | 너기시는 일은 어딿서 五十 東 |
| (0524a4) | 두엇습더니 三使 아회-들의 웃 | 웃술 | 호여 니피려 호오니 그리 아르 |
| (0529b1) | 건마는 니르시는 일이오니 웃 | 웃술 | 보디 슬터 아니케 장만-호이오 |
| (0506a2) | 제는 東萊로서 밤 들게야 도라 | 와 | 보읍도 못 호외. 東萊 니르시몬 |

| | | | | |
|----------|---------------------|-------|--|---------------------|
| (0101a5) | 가 내 말로 “그적괴 여귀 느려 | 와 | | 어제라도 오을 거슬 路次의 곳. |
| (0501b3) | 使 비옵도쇠. 그러면 使者는 뒤 | 와 | | 겨신고? 아직 비에 투옵소. 御 |
| (0710a1) | 어룬의 官員 二人이 三島까지 | 와 | | 기도른다 항오니 來日은 三島 |
| (0907b5) | 의 타스로 떠들습더니 쏘 친히 | 와 | | 겨서 너모 慰勸 항신 御禮 도로 |
| (0315a1) | 로 항세야 아롬답스오리. 長老 | 와 | | 島主는 이 나라 臣下 1 되엿스. |
| (0816a3) | 이 브트시니 아롬답스와 일일 | 와 | | 問安호미 本意읍건마는 나의 |
| (0113a6) | 종을 너머서 떠디온가? 거의 다 | 와서 | | 惡風을 만나 큰 비에 격군도 적 |
| (0916a4) | 히는 붓그림을 저티고 날-마다 | 와서 | | 우음 바탕으로도 심각-항을 써 |
| (0812b1) | 리. 藍島 宿所에 太守 1 보오라 | 와서 | | 信使의 슬오른 어와 어와 三使 |
| (0213a3) | 른 날의 東萊 釜山浦에 가 든너 | 와서 | | 代官房의셔 談合할 일들이나 |
| (0915a5) | 모로는 테-항고 날-마다 여귀 | 와서 | | 말습이나 항시면 즉시 심각 대 |
| (0912a5) | 듯디 마옵소. 이전의도 내 여귀 | 와서 | | 자네-네 指南을 어더 저기 말 |
| (0519b3) | 영이다. 對馬島主의 使 1 즉시 | 와서 | | 太守 畵는 바는 보오물 술을 써 |
| (0108a6) | 혀서 日吉利를 기드리더라 닐러 | 와시니 | | 오늘은 건넌죽-흔 구름 가기도 |
| (0132a2) | 가-네도 헤아려 보시소. 客人이 | 와야 | | 亭主 1 보디 아니 항옵는가? 二 |
| (0201b5) | 리는 덕분을 뼈 아므 일도 업시 | 완넹이다 | | . 正官을 반가이 보올가 녀겿습 |
| (0713a2) | 소. 江戸로써 御使 1 예-까지 | 왔넹이다 | | . 여귀 드옵소. 使 슬오른 우호 |
| (0810a2) | 船 항실 양으로 大君의셔 닐러 | 왔다 | | 항고 振舞할 양도 잇는가 시브. |
| (0805a1) | 씩셔 이 樣子를 슬오라코 닐러 | 왔던디 | | 몬져 이리 니르시니 슬기도 어 |
| (0510a4) | 시는 대로 나쁜 디 업시 불기도 | 왔스오니 | | 깃브외. 大慶의 일이옵도쇠. 今 |
| (0317a5) | 의 도리를 출혀 권-홀 양으로 | 왔스오니 | | 그러한 디 술도 내 맛음을 바다 |
| (0701b2) | 게 항야 차반을 가지고 使者 1 | 왔스오니 | | 어렵습거니와 使者를 보시고 御 |
| (0103a2) | 직 편히 안줍소. 나는 소임으로 | 왔습거니와 | | 처음이옵고 쏘는 칭소-흔 거시 |
| (0111a3) | 이다. 우리는 御陰을 뼈 無事히 | 왔습거니와 | | 빅 흔 적이 떠들스오니 글로 항 |
| (0805b6) | 호를 닐러 부러 사흘 쥘할 홀릭 | 왔습넹 | | 내 스설-홀 쏘오로는 아프리 항 |
| (0121b4) | 니 항오리. 東萊로써 앓가 도라 | 왔습넹 | | . 東萊겨셔도 “어제는 일기 사 |
| (0112b4) | 틀 거슬 브름의 이치여 이제야 | 왔습넹 | | . 떠딘 비 아므 디 붓터셔도 오 |
| (0518b1) | 옵넹이다. 對馬島主 맛조이로 | 왔습넹 | | . 마즘 년-항여 도흔 天氣에 예 |
| (0509b6) | 라 기드리옵소. 그 장계 返事 1 | 왔습넹 | | . 구-항시는 대로 나쁜 디 업시 |
| (0101b3) | 路次의 곳브매 이제야 門-까지 | 왔습넹 | | . 안히 계시면 오려 항여 案内 |
| (0122a6) | 옵시데. 쏘 軍官도 보내시더니 | 왔습던가 | | ? 앓가 만났습넹. 먼디 극진이 |
| (0425a3) | 항르 스이 두락 잇틀 스이 두락 | 왕넹 | | -하니 사름이나 맛쇼나 엇디 |
| (0315b6) | 를 항느넹이다. 그리 흠을 島中 | 왕넹예 | | 보고 사름-마다 니름을 듯고 尊 |
| (0126b2) | 수이 홀 양으로 항옵소. 東萊가 | 요스이 | | 편티 아냐 항시더니 잠만 항려 |
| (0304b3) | 고 뜻에 걸려 항옵넹. 都船主도 | 요스이 | | 도히 겨시던가? 전의는 처음으 |
| (0406b3) | 가 너기오니 맛장 잘 출히옵소. | 요스이 | | 빅 가는 디 보내려 심각-항오니 |
| (0320b6) | 디 오래디 아냐 限도 머러시니 | 요스이 | | 머므시면 덩-흔 연향-들도 다 |
| (0216a6) | 르고 가오리. 釜山浦 니르시문 | 요스이 | | 도히 계시던가? 엇디 흔 디 일 |
| (0212b2) | 친히 보와 술을 말이 만컨마는 | 요스이 | | 일절 예는 오디 아니 항시니 3 |
| (0901a3) | 解新語 第八 終 捷解新語 第九 | 요스이 | | 館中도 徒然 항오니 우음 바탕 |
| (0314a1) | 다 올라 가느니이다. 어와 즈로 | 우다히 | | 오로느리기 御大儀 흔 일이옵도 |
| (0523a4) | 슬기란 對馬島主 슬오디 信使 | 우다히 | | 디나실 제 이틀 사흘 길흐로써 |
| (0902b2) | 니 감격-항거니와 아프리커나 | 우리 | | 슬은 일이오니 닉일 브터 우리 |
| (0308b3) | 니르시니 술을 양이 업서이다. | 우리 | | 이를 禮에 삼스오리잇가? 엇디 |
| (0317b5) | 기느이다. 御意 감격-항여이다. | 우리 | | -들도 술을 一切 못 항읍건마는 |
| (0324a1) | 흔 폐나 더올가 심각-항느이다. | 우리 | | 나라는 禮 1 돈돈 항여 흔 번 덩 |
| (0811b3) | 대-도록 니르는가 너기넹이다. | 우리 | | 가셔 석환이 구경-항고 도라 |
| (0713b5) | 신 기별을 거르기 깃비 너기샤 | 우리 | | 二人을 예-까지 問安항시고 |
| (0419b4) | 11 항실 대로 항옵소. 엇디 항야 | 우리 | | 슬은 일은 다 슈지 사쁘시고 자 |
| (0503a6) | 셔 어넹 띄 出船 吉日인고 항야 | 우리 | | 兩人을 불의에 막켜 건네여 겨 |
| (0422b5) | 루 폐로이 슬스올가? 그저 그저 | 우리 | | 슬은 양으로 항시면 못기 쉬울 |
| (0902b4) | 우리 슬은 일이오니 닉일 브터 | 우리 | | 항을 써시니 자네-네도 그리 |
| (0109a4) | 항여도 뵈면 즉시 釜山浦로써 | 우리 | | -게 기별을 니를 거시니 그는 |
| (0722a3) | 도 거르기 喜悅이 3이 업습고 | 우리 | | 늦치 비-홀 디 업시 아롭다이 |
| (0618b4) | 디 나시다 항면 江戸에 들려도 | 우리 | | 그른 디 되기는 눈에 알피라 항 |
| (0419a3) | 들흔 자넹-네 하 다스리시고 쏘 | 우리 | | -게도 맞비 찰 디도 이셔 이리 |
| (0503b5) | 와 부루 註進 항야 그 返事 대로 | 우리 | | 兩人 中에 一人이 飛船으로 |
| (0117a4) | 註進할 거시니 書契를 내옵소. | 우리 | | 일흠은 아뢰옵도쇠. 그리 항여 |
| (0414b1) | 항호외. 자넹-네 겹터 니르심과 | 우리 | | 심각과 그 어귀미 天地 곳거니 |
| (0421a4) | 誠信의 회이침으로 너기거니와 | 우리 | | 심각-흠은 五十 束을 束으로 |

| | | | | |
|----------|--------------------|----|--|-------------------|
| (0104a3) | 니와 말씀-것치 들엄죽-하외. | 우리 | | -게 미드시는 일은 바늘 굿티오 |
| (0128a5) | 스오니 나디 몯 홀가 녀기오니 | 우리 | | 썬 나을죄. 그러면 엇디 브딕 |
| (0902a3) | 라 떠뎃습더니 이리 니르시니 | 우리 | | 心中이 서르 던-하인가 더욱 |
| (0327b4) | 相指를 다 잘 하더라 기리시니 | 우리 | | 듯기도 더욱 깃브옵데. 어제는 |
| (0802a3) | 하여 두엇더니 大君 드르시면 | 우리 | | 그름이 되올까 하 민망-하와 |
| (0814b4) | 신실로 먼 海上의 예-삭지 오면 | 우리 | | 일란 더디고 太守의 果報-썬 |
| (0201b4) | 르시옵네. 御意 감격-하여이다. | 우리 | | 덕분을 써 아므 일도 업시 완 |
| (0518a4) | 지 使者- 감격키 녀기눔이다. | 우리 | | 마중 順風의 無事히 붓즈오니 |
| (0111a3) | 건너시니 아름다와 하닝이다. | 우리 | | 御陰을 써 無事히 왓습거니와 |
| (0513a5) | 를-들흔 브어시라 니르옵는고? | 우리 | | 오늘 타 띄워 기드릴 즈음이었 |
| (0214a6) | 차례로 보시면 뉘 雜言하올고? | 우리 | | 一番 特送이오니 묻저 보심이 |
| (0215a5) | 홀 써시니 그리 아려서 나옵소. | 우리 | | 연고 업스오니 明日이라도 홀 |
| (0819a2) | 스양 마옵소. 전 브터 숲드시 | 우리 | | 몯 바들 즈음이오니 그리 아옵 |
| (0219b2) | 하오니 우리도 깃비 녀기옵네. | 우리 | | 이제 나을 써시니 게 일을 수이 |
| (0906a3) | 겨실까 ㅁ장 첫습거니와 다만 | 우리 | | 어리로운 얼굴과 놀래를 듯고 |
| (0527a6) | 로고 내 나라 편잔은 아니온가? | 우리 | | 小小하면 므스 일로 불관-하 |
| (0210a2) | 가 녀겨 부러 이리 하엿습는가? | 우리 | | 이런 일을 어이 즈세 아올고? |
| (0211a3) | 보와 이제라도 드리라 하옵새. | 우리 | | 日記를 보고 숲스오니 이 후란 |
| (0611b5) | 하하온고? 니르시매 밋디 아녀 | 우리 | | 수이 하고져 하는 거시언마는 |
| (0326b6) | 들은 날도 도쿄 서르 종용-하여 | 우리 | | 깃거 하느이다. 어제는 無事히 |
| (0619a4) | 를 허스되게 흠도 어히 업습고 | 우리 | | 스이에서 이러툃 혼 差別도 숲 |
| (0403b5) | -씩로써 가지 가지 다스림으로 | 우리 | | 얼현이는 아디 아니 하옵네. 在 |
| (0427a2) | 니르시미 그르든 아니커니와 | 우리 | | 하나 둘히셔 되디 못 홀 거시니 |
| (0429b2) | 파는 게나 예나 혼 가지옵도죄. | 우리 | | 그런 줄은 모로든 아니컨마는 |
| (0405a2) | 을 힘 쓰기는 대되 同前이오니 | 우리 | | 公木을 굴히여 자브면 혼 가지 |
| (0219b1) | 덕분의 看品을 無事히 하오니 | 우리 | | 깃비 녀기옵네. 우리는 이제 나 |
| (0313a2) | 아녀 奇特하 직간이라 니르니 | 우리 | | 듯고 ㅁ장 아름다와 하네이다. |
| (0422a4) | 아마리라도 하고져 하건마는 | 우리 | | 代官의 구실이면 아브려도 ㅁ |
| (0909b5) | 어려운 所望이옵도죄. 昨夜는 | 우리 | | 술의 취-하여 생각디 못 하거니 |
| (0904a6) | 本 놀래예 훌흔 일로송이다. | 우리 | | 회례를 하오려 생각거니와 朝無 |
| (0210a4) | 하하 더러시니 닛고 이러-하가? | 우리 | | 모로는가 녀겨 부러 이리 하엿 |
| (0706a5) | 을 위-하야 德談엿 일이라 하셔 | 우리 | | 부러 보내여 겨옵시더니 이를 |
| (0528a2) | 크 갈 작시면 사름-마다 기려야 | 우리 | | 面目도 이실디 형혀 批判할 적 |
| (0603a2) | 는 일 아므 되도 혼 가지옵도죄. | 우리 | | 슈고로 니르시거니와 이는 物 |
| (0107b4) | 면 奇特이 녀기른 아는 앓피니 | 우리 | | 뜻으로 보텔 바는 이실 듯 아니 |
| (0815a4) | 御禮를 술오려 생각-하얏드디 | 우리 | | 情이 던-하인 디 이리 祝願하 |
| (0129a6) | 니르시니 正官이 나디 아니면 | 우리 | | 그르든 발명 못 홀 거시니 비록 |
| (0706b1) | 크옵시더니 이를 받디 아니시면 | 우리 | | 그름이라도 하고 장쉬 面目 업 |
| (0921a2) | 러나 노하여도 몯 하고 거르기 | 우 | | 일이옵도죄. 자네 日本말 비화 |
| (0904a1) | 밤-셋굿 뒤웃줍네. 언머 모다 | 우 | | 거시라 녀기셔냐? 이도 日本 놀 |
| (0919a6) | 나 ㅁ르치시과자. 어와 자네는 | 우 | | 사름이로죄. 홀리는 籠具도 업 |
| (0916a6) | 붓그림을 저티고 날-마다 와서 | 우 | | 바탕으로도 생각-하올 써시니 |
| (0901a4) | 요스이는 館中도 徒然하오니 | 우 | | 바탕으로도 회쵸 振舞를 하고 |
| (0911b5) | 는 館中도 심심하매 이러툃 혼 | 우 | | 바탕을 니르디 아니면 브어술 |
| (0718a4) | 홀 양으로 御禮를 술와 주쇼셔. | 우 | | “모되는 吉日이오니 信使의 비 |
| (0618a6) | 振舞도 홀 양으로 하엿는디 빅 | 우 | | 바르디 나시디 하면 江戸에 들 |
| (0713a6) | 기이다. 여긔 드옵소. 使 술오른 | 우 | | 니르시는 바는 海上 먼 길히 無 |
| (0717a4) | 이다. 덕썬의 무스히 오오니 이 | 우 | | 아므 제라도 생각 대로 하시게 |
| (0819b1) | 두로 쓰려 예-삭지 無事히 온 | 우 | | 나쁜 일도 업서 이 二三日 內 |
| (0908b6) | 도 숲디 아니 하오니 이리 술온 | 우 | | 자네 홀 대로 하쇼셔. 비록 내 |
| (0831b1) | 寺- 빅를 저어 나아 서르 장방 | 우 | | 손을 드러 이 번 일은 니르-도 |
| (0419a6) | 를 깔 되도 이셔 이리 술오니 이 | 우 | | 다른 묘리도 업스니 자네-네 |
| (0916a4) | 御禮 몸애 나쁜 일이옵또죄. 이 | 우 | | 붓그림을 저티고 날-마다 와서 |
| (0718a1) | 心中의 친-하야 아름다왕이다. | 우 | | 도홀 양으로 御禮를 술와 주쇼 |
| (0524a4) | 을 두엇습더니 三使 아회-들의 | 우 | | 옷을 하여 니피려 하오니 그리 |
| (0529b1) | 하하건마는 니르시는 일이오니 | 우 | | 옷을 보디 슬티 아니케 장만-하 |
| (0917a4) | 특신 분 五六人만 계시과다 다 | 우 | | -하몬 兩國의 하음이라 니르 |
| (0806a6) | 져 도라 갈 일은 업스올 써시니 | 우 | | 컨대 바드셔 下人의-게나 주시 |
| (0830a6) | 예 묻저 저어 나매 信使의로써 | 우 | | 니르든 아프리 멀리 보내여도 |
| (0607b4) | 직조를 보라 하시니 이를 보려 | 우 | | -하여 스양을 아니 하네이다. |

| | | | | |
|----------|---------------------|------|--|--------------------|
| (0513b2) | 天氣에는 붓듯디 아냐 吉日의 | 위 | | -홈이니 寅時에 비에 텃셔 勘驗 |
| (0906a5) | 운 얼굴과 놀래들 듯고 축슈만 | 위 | | -홀 썩름이오니 의심도 업술 〇 |
| (0712a1) | 할까 시프외. 쏘 더 使 信使를 | 위 | | -헝야 冠帶를 홀 작시면 信使도 |
| (0830a1) | 보낸대 對馬島主 불셔 보내믈 | 위 | | -헝야 비를 내다 헝옵닌. 비를 |
| (0504b1) | 路次 各官의 接待의 戒-호믈 | 위 | | -홈이니 심상히 아디 마옵소. |
| (0313b3) | 雜說이나 이실가 너겨 聞合을 | 위 | | -헝여 히-마다 올라 가느니이 |
| (0706a3) | 손 불관-헝 거시언마는 下人을 | 위 | | -헝야 德談엿 일이라 헝셔 우리 |
| (0310b1) | 나는 나는 下口 언마는 客人을 | 위 | | -헝야 고디시기 잔-마다 다 먹 |
| (0911a2) | 습는 일이언마는 이 若衆들 혼 | 유여 | | -호믈 웃듬으로 헝니 귀-헝 禮 |
| (0408b1) | 룩 엿더-헝올고? 자넌-네 借船 | 으란 | | 미쳐 보내여도 도홀가 너기옵 |
| (0311b3) | 먹습고 正體 업습건마는 이 齋 | 으란 | | 御意 마티 다 먹스오리이다. 長 |
| (0314a4) | 儀 혼 일이옵도쇠. 朝廷도 誠信 | 으로 | | 아르시니 아프 일에 브터도 심 |
| (0402b2) | 아르실 썩 아니라 兩國 誠信 | 으로 | | 公貿易이라 덩-헝여시면 이러 |
| (0504a1) | 우리 兩人 中에 一人이 飛船 | 으로 | | 도라 가울 거시니 그리 아옵소. |
| (0421a6) | 우리 싱각-홈은 五十 束을 束 | 으로 | | 굴히여 반만 자브시면 그 밋근 |
| (0715a6) | 술와 주쇼셔. 關伯으로서 奉行 | 으로써 | | 信使의 아모 일도 업시 예-싱 |
| (0420a6) | 즈못 앓가 솟드시 이 스이 各官 | 으로써 | | 沙汰之 限도 업슨 때예 前例의 |
| (0412a5) | 네도 아르심 거시리. 즈못 各官 | 으로써 | | 東萊 時分도 헤아리디 아니 |
| (0407b5) | 隻 第一 船 中歸船 一隻 代官 | 으로써 | | 借船 一隻 합헝여 三 隻이옵도 |
| (0322b1) | 고 封進 雜物들도 올려 가야 京 | 으로써 | | 返禮의 返書 올 거시니 自然 |
| (0109b4) | 의 書簡을 써 니름은 앓가 遠見 | 으로써 | | 안 싸다히 日本 비 뵈다 니르니 |
| (0507a2) | 수이 봄이 本意 언마는 朝廷 | 으로써 | | 返事 온 후에 보와야 禮 오매 |
| (0715a6) | 도홀 양으로 술와 주쇼셔. 關伯 | 으로써 | | 奉行으로써 信使의 아모 일도 |
| (0312a4) | 홀 썩 아니라 글 잘 헝매 朝廷 | 으로써도 | | 書契마다 보시고 〇장 기리시고 |
| (0115a4) | 시니 므옵 편히 너기옵소. 正官 | 은 | | 뉘시온고? 나는 都船 이논 二 |
| (0115b5) | . 正官은 어딧 거시온고? 正官 | 은 | | 빅-멀미-헝여 인스 몰라 아리 |
| (0204a4) | 가 갖거 헝옵닌. 그러헝외. 正官 | 은 | | 섬으로서 올 적 브터 東萊 극진 |
| (0115b3) | 二 船 더는 封進이옵도쇠. 正官 | 은 | | 어딧 거시온고? 正官은 빅-멀 |
| (0821b5) | 도 고티노라 헝면 이도 二三 日 | 은 | | 헝올 써시오 쏘는 멀리 뵈셔 예 |
| (0823a6) | 本望이옵도송이다. 御出船 日 | 은 | | 今 十五 日이 吉日이오니 모외 |
| (0604a3) | 나게 헝쇼셔. 여긔 떠나실 吉日 | 은 | | 郡郡에 弔別을 듯고 定홀 써시. |
| (0512a4) | 二十四五 日만 헝셔 出船 吉日 | 은 | | 來月 十二三 日의 덩-헝얏다 |
| (0605a4) | 도라 가시게 브라닝이다. 今日 | 은 | | 御慰懃 〇신 振舞 終日 아릅다 |
| (0710a2) | 썩지 와 기도르다 헝오니 來日 | 은 | | 三島의 가실 써시니 즉제 아니 |
| (0514a5) | 아르시드시 朝鮮 船頭들도 來日 | 은 | | 日吉利 이실 듯 헝다 니르니 그 |
| (0426a6) | 니와 전투의 홀 시 一年 二年 | 은 | | 아니오 엿디 부디-홀가 너기시 |
| (0218a6) | 올 거시니 중용티 못 헝외. 看品 | 은 | | 無事히 헝오니 아릅답스외. 춘 |
| (0323a6) | 수이 도라 가오면 五日 雜物 | 은 | | 묵는 스이만 주실 써시오니 이 |
| (0324a4) | 고티디 아니 헝니 五日 雜物 | 은 | | 자넌-네 十日 二十日 무거 도 |
| (0529a2) | 여이다. 그러커니와 朝鮮 作法 | 은 | | 긋긋티 그리 몰 헝염죽-헝건마 |
| (0527a5) | 國에 볼골 사오나오면 그 作法 | 은 | | 모로고 내 나라 편잔은 아니온 |
| (0325b2) | 이다. 글란 그리 헝옵소. 木綿 | 은 | | 내 친히 보와 〇장 吟味헝여 드 |
| (0413b4) | 깨 오로 그러홀 찌라도 이 公木 | 은 | | 넛 公木의 一 束도 〇트니 업스 |
| (0411a1) | 자블 公木이 업스외. 이런 公木 | 은 | | 아모만 드러도 잘 잡디 못 홀 |
| (0323a3) | 려 오는 대로 헝오려니와 公木 | 은 | | 束數 잇스오니 쇼인-네 수이 |
| (0111a3) | 롭다와 헝닝이다. 우리는 御陰 | 을 | | 써 無事히 왓습거니와 빅 혼 적 |
| (0606a5) | 습건마는 이 구석의 다락 小園 | 을 | | 두엇습더니 게 가서 茶를 자옵 |
| (0205b2) | 重홀까 너기옵닝이다. 封進宴 | 을 | | 수이 헝올 써시니 그 저긔 아니 |
| (0122b5) | 가 만났습닌. 먼디 극진이 軍官 | 을 | | 보내여 무르시니 감격-헝여 헝 |
| (0202a2) | 아프 일도 업시 완닌이다. 正官 | 을 | | 반가이 보올가 녀겼습더니 병 |
| (0109b3) | 같은 업스오리. 代官네-썩 書簡 | 을 | | 써 니름은 앓가 遠見으로서 안 |
| (0505b2) | 실 양으로 東萊의 엿즈와 飛脚 | 을 | | 셀 양으로 헝옵새. 수이 書契를 |
| (0313b3) | 란 雜說이나 이실가 너겨 聞合 | 을 | | 위-헝여 히-마다 올라 가느니 |
| (0318a6) | 헝온 디 〇장 취-헝오되 正根 | 을 | | 게요 출혀 안잣습닌이다. 日本 |
| (0826b1) | 로 遠路에 나라 일을 못고 三使 | 을 | | 청-헝야 하디-헝는 양 아릅다 |
| (0701b4) | 왓스오니 어럽습거니와 使者 | 을 | | 보시고 御回答이나 헝시게 습 |
| (0308a3) | 새. 御意 감격-헝여이다. 立酌 | 을 | | 헝실 작시면 일덩 禮를 背홀가 |
| (0602b4) | 다. 진실로 兩國 靜謐히 誠信 | 을 | | 닷가 이러트시 아릅다운 일 아 |
| (0507b6) | .” 헝시는 일이옵데. 여와 註進 | 을 | | 극진이 헝시다 니르시니 安堵 |
| (0503a6) | 出船 吉日이고 헝야 우리 兩人 | 을 | | 블의예 막켜 건네여 거시니 자 |

| | | | |
|----------|----------------------|---|-----------------------|
| (0713b5) | 거르기 깃비 너기샤 우리 二人 | 을 | 예-식지 問安하시고 이二三 |
| (0515a4) | 船頭 ㅁ장 니근 사롬 十五人 | 을 | 差定하야 두어시니 느즉-하야 |
| (0706a3) | 거순 불관-흔 거시언마는 下人 | 을 | 위-하야 德談엿 일이라 하셔 |
| (0701a6) | 히 오시다 하셔 덕담으로 下人 | 을 | 주시게 하야 차반을 가지고 使 |
| (0428a3) | 고 엇디 하올고?今夜 ㅅ 下人 | 을 | 番을 하이시면 ㅅ일란 못조오리 |
| (0310b1) | ㅅ마는 나는 下口 ㅅ언마는 客人 | 을 | 위-하야 고디시기 잔-마다 다 |
| (0615b1) | 브심도 계실 써시니 이제 座船 | 을 | ㅅ시고 오옵심을 밋줍녕이다. |
| (0418b4) | ㅅ ㅅ 端-式 곁히여 내면 ㅅ 束 | 을 | 자블 써시니 判事네 엇더케 너 |
| (0420a3) | ㅅ ㅅ몬져 하시는고?네 브터 束 | 을 | 플고 곁히여 낸 일이 업스디 ㅅ |
| (0418b1) | 리도 업고 출하리는 이 五十束 | 을 | ㅅ 束에 ㅅ 端-式 곁히여 내면 |
| (0421a6) | ㅅ니와 우리 싱각-ㅎ은 五十束 | 을 | 束으로 곁히여 반만 자브시면 |
| (0912b1) | 도 내 여긔 와서 자네-네 指南 | 을 | 어더 저기 말도 하더니마는 常 |
| (0824b4) | 시게 밋줍녕이다. 어와 出船 日 | 을 | 定하시니 아롭다와 하놓이다. |
| (0716a3) | 시니 尋常히 못 홀 일이니 吉日 | 을 | 곁히노라 廻引하을 써시니 그 |
| (0421b3) | 히여 반만 자브시면 그 ㅅ 念 | 을 | 드려 ㅅ일이라도 드릴 거시니 |
| (0832a4) | ㅅ롬다이 하쇼셔. 今度는 御裁判 | 을 | ㅅ 彼此 首尾 ㅅ히 못줍고 서 |
| (0428a4) | 디 하올고?今夜 ㅅ 下人을 番 | 을 | 하이시면 ㅅ일란 못조오리. 判 |
| (0429a2) | ㅅ ㅅ ㅅ히여 ㅅ히모로今夜란 브디 番 | 을 | 하옵소. 萬事 ㅅ ㅅ 대로 못 하 |
| (0430a3) | 르시니 그지 업스매 내 친히 番 | 을 | 하 디라도 밤-새를 기도로올 ㅅ |
| (0219a5) | 수이 출혀 나쇼셔. ㅅ ㅅ 看品 | 을 | 無事히 하오니 우리도 깃비 너 |
| (0113b3) | ㅅ ㅅ디온가? 거의 다 와서 惡風 | 을 | 만나 큰 비에 격군도 적고 비에 |
| (0812b6) | ㅅ來 ㅎ-흔 海路의 하르도 惡風 | 을 | 만나디 아니코 ㅅ人 中 아므 일 |
| (0211b1) | ㅅ ㅅ ㅅ ㅅ. 圓座 帳枕 以下 物 | 을 | 催促하야 수이 드리옵소. ㅅ 大 |
| (0719a4) | 런 줄을 ㅅ녕이다. 그러면 進物 | 을 | 來日이라도 출홀 디 보시는 날 |
| (0911a4) | ㅅ ㅅ ㅅ ㅅ으로 하니 귀-흔 禮物 | 을 | ㅅ ㅅ ㅅ ㅅ으로 너기오니 그리 |
| (0417b2) | 시 마르시고 이 번은 브디 時分 | 을 | 헤아려 ㅅ ㅅ ㅅ ㅅ을 군말 업시 |
| (0804a5) | 시니 자네 이 ㅅ기 어려운 差別 | 을 | 잘 아르셔 奉行네-ㅅ ㅅ ㅅ ㅅ |
| (0116b5) | ㅅ ㅅ 내 친히 보고 자네-네 姓名 | 을 | 아라 釜山浦에 ㅅ와 進進홀 거 |
| (0412b2) | 時分도 헤아리디 아니코 公木 | 을 | 거르기 세치 곁힌다 하고 ㅅ ㅅ |
| (0405a2) | 대되 同前이오니 우리도 公木 | 을 | 곁히여 자브면 하 가지옵도쇠. |
| (0411b2) | 니르심이야. 五十束 드린 公木 | 을 | 다 나쁘라고 엇디 하려 아르시 |
| (0325a3) | 양으로 가오려니와 아직 公木 | 을 | 드려 주옵시면 ㅅ져 가는 비에 |
| (0409a2) | ㅅ ㅅ ㅅ ㅅ을 ㅅ조오리. 아직 公木 | 을 | 드려 주옵소. 그리 하옵소. 註進 |
| (0418a1) | ㅅ소. 아쁘리 니르셔도 이 公木 | 을 | 바다 아쁘려도 홀 헤 업스오니 |
| (0414b6) | ㅅ ㅅ 못디 못 홀 써시니 이 公木 | 을 | 端端이 곁힐까? 그를 마다 ㅅ |
| (0425b6) | ㅅ라토 부디터 ㅅ ㅅ 일은 公木 | 을 | 端端이 곁히자 니르시미 前後 |
| (0416a2) | 일은 어딿서 五十束 드린 公木 | 을 | ㅅ分도 아니 잡고 나여 가라 하 |
| (0130a2) | ㅅ ㅅ ㅅ ㅅ ㅅ ㅅ 디라도 내 迷惑 | 을 | 프르시과다. 니르시는 배 그리 |
| (0607a4) | 이라 엇줍녕이다. 色色의 慇懃 | 을 | ㅅ미시니 진실로 ㅅ ㅅ ㅅ ㅅ 하 |
| (0207b1) | 죽스와도 먹스오리이다. 이 蠶 | 을 | 보쇼셔. 하 ㅅ소이 너기오와 다 |
| (0609a4) | 즐거오미 ㅅ ㅅ ㅅ 글로 하야 蠶 | 을 | 즐거 어즐-하야 正體 ㅅ ㅅ와 ㅅ |
| (0708a5) | ㅅ과 이 차반 하 줄을 부러 御禮 | 을 | ㅅ을 써시니 자네 일ㅎ은 무어 |
| (0718a2) | 이다. 우히도 ㅅ ㅅ 양으로 御禮 | 을 | ㅅ와 주쇼셔. 우호로서 “모되는 |
| (0703a5) | ㅅ ㅅ ㅅ ㅅ ㅅ ㅅ 아니라 ㅅ 目錄 | 을 | 보니 어와 어와 여러 가지 珍味 |
| (0526a2) | 의 불골도 ㅅ터고 ㅅ ㅅ ㅅ ㅅ | 을 | -하 ㅅ ㅅ ㅅ ㅅ ㅅ 엇줍기는 가지 |
| (0911a6) | ㅅ로 하니 귀-흔 禮物을 ㅅ ㅅ ㅅ | 을 | 너기오니 그리 아옵소. 이리 ㅅ |
| (0911a2) | ㅅ마는 이 若衆들하 ㅅ ㅅ-ㅎ ㅅ | 을 | 하니 귀-흔 禮物을 ㅅ ㅅ ㅅ ㅅ |
| (0909b1) | ㅅ의 ㅅ리기는 若衆들의 ㅅ ㅅ ㅅ | 을 | 니르시니 이 一段 되기 어려운 |
| (0621b5) | ㅅ ㅅ ㅅ-하야 ㅅ ㅅ ㅅ ㅅ ㅅ ㅅ | 을 | . ㅅ ㅅ ㅅ ㅅ 以下 올리디 말 일을 |
| (0413b1) | 헤아려 無事히 되게 ㅅ ㅅ-ㅎ ㅅ | 을 | . 니르시는 배 오로 그리홀 ㅅ리 |
| (0709b4) |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 을 | 어룬의 官員 二人이 三島ㅅ지 |
| (0120a5) | ㅅ ㅅ ㅅ ㅅ ㅅ. 내 이제 釜山浦 | 을 | ㅅ와 進進하고 ㅅ일 아홉은 東 |
| (0504a5) | ㅅ ㅅ의 註進도 하고 路次 各官 | 을 | 接待의 ㅅ ㅅ-ㅎ ㅅ 위-ㅎ ㅅ ㅅ |
| (0129a3) | ㅅ일로 ㅅ-하디 이제야서 正官 | 을 | 병이라 니르시니 正官이 나디 |
| (0128b4) | ㅅ ㅅ 양으로 니르옵시던고? 正官 | 을 | 氣相도 아디 ㅅ 하고 送使의 ㅅ |
| (0101a4) | ㅅ 아쁘가히 이려 오라. 네 代官 | 을 | 가 내 말로 “그적과 여긔 느려 |
| (0422a4) | ㅅ 하고져 하건마는 우리도 代官 | 을 | 구실이면 아쁘려도 ㅅ ㅅ알기 |
| (0215b3) | ㅅ ㅅ ㅅ 양으로 하옵소. 나도 代官 | 을 | ㅅ ㅅ을 보내거니와 자네-네도 |
| (0428b1) | 일란 못조오리. 判事네는 代官 | 을 | ㅅ ㅅ에 인는 거슬 오늘 못디 아 |
| (0530b1) | ㅅ ㅅ 거니와 그러나 ㅅ일은 祝願 | 을 | ㅅ ㅅ향이오니 ㅅ ㅅ의 對面하야 ㅅ |

| | | | | |
|----------|--------------------|---|--|--------------------|
| (0607a2) | 뵈옵고져 흥녕이다. 이도 祝願 | 의 | | 일이라 엿줍네이다. 色色의 慰 |
| (0610b3) | -흥온가는 너기옵거니와 祝願 | 의 | | 일이라 싱각-흥옵더니 御慰勸 |
| (0604b2) | 아니 흥오리. 아직 오늘은 祝願 | 의 | | 일이오니 終日 노르시고 내 집 |
| (0815b4) | 를 말로는 다 흥기 어려운 祝願 | 의 | | 일이옵도쇠. 어제는 술술이 브 |
| (0817a3) | ㅁ장 ㅁ옵 편히 쉬신 후의 祝願 | 의 | | 宴享도 흥올가 미덧녕이다. 쯔 |
| (0910b1) | 믈로 싱각-흥옵거니와 兩 國境 | 의 | | 소임을 흥는 사름이 너비 ㅁ옵 |
| (0117b1) | 쇠. 그리 흥여 몬 흥오리. 書契 | 의 | | 흔 직라도 어근나면 아므의 희 |
| (0510a6) | 불기도 왓소오니 깃브와. 大慶 | 의 | | 일이옵도쇠. 今日 ㅁ를 내올 썸 |
| (0108b5) | 시니 多分 ㅁ가 올 거시니 遠見 | 의 | | 무려 보옵소. 어와 그러흥온가 |
| (0426a1) | 端端이 고희자 니르시미 前後 | 의 | | 업슨 일이니 내 죄에 만나몬 관 |
| (0514b1) | 실 듯 흥다 니르니 그러면 出行 | 의 | | 아름다운 일이라 다 祝願 흥옵 |
| (0114b1) | 東萊 釜山浦에 술와 方方 彼此 | 의 | | 춧죽을 거시니 근심 ㅁ옵소. 열 |
| (0809a5) | -들희-게나 주시소. 信使 大坂 | 의 | | 브트시매 對馬島主 술오몬 大坂 |
| (0810b3) | 아르셔 종용히 흥쇼셔. 쯔 大坂 | 의 | | 城도 거르기 장만-흥엿소오니 |
| (0812b3) | 信使의 술오몬 어와 어와 三使 | 의 | | 御果報에 往來 힘-흔 海路의 흥 |
| (0609b6) | 술의 타시로송이다. 드문 信使 | 의 | | 御馳走 오면 心中의는 비-홀 |
| (0105a5) | ㅁ옵의 걸리오니 자네-네 送使 | 의 | | 드려 가서 萬事를 주선-흥야니 |
| (0128b6) | 官의 氣相도 아디 몬 흥고 送使 | 의 | | 연고 업슨 양으로 술와 ㅁ일로 |
| (0428b5) | -너기시거니와 이 樣子도 送使 | 의 | | 즈세히 니르디 아니티 몬 홀 썸 |
| (0427a3) | 둘히셔 되디 못 홀 거시니 送使 | 의 | | 談合 흥여 아뭇 도로나 도홀 양 |
| (0120b3) | ㅁ일 아츰은 東萊 올라 가 送使 | 의 | | 樣子를 ㄹ고 올 거시니 종용히 |
| (0515b6) | 이 道理 信使의 엿줍고 小通事 | 의 | | -게 니르셔 거느려 가게 흥옵 |
| (0103b3) | ㅁ이 너기실가 氣遣 흥오니 萬事 | 의 | | 두로 쓰리시믈 미들 ㅁ름이옵 |
| (0716a5) | 廻引 흥올 썸시니 그 안히 路次 | 의 | | 괴로오미나 從容히 쉬과다 흥 |
| (0101b2) | 켜 와 어제라도 오올 거슬 路次 | 의 | | 긋브매 이제야 門-ㅁ지 왓습 |
| (0623a4) | ㅁ 양이 그러도 홀 듯 흥면 路次 | 의 | | 일란 자네-게 맞딜 거시니 보 |
| (0823a1) | 니 아므리커나 出船 日란 亭主 | 의 | | -게 맞디시고 아직 아직 종용 |
| (0907a2) | 종용히 말슴 달란-흥시니 亭主 | 의 | | 깃븜이 노외야 업서 亭主의 도 |
| (0907a4) | 主의 깃븜이 노외야 업서 亭主 | 의 | | 도리의 술을 디내 먹고 아므리 |
| (0808b6) | ㅁ 인스는 아니어니와 對馬島主 | 의 | | 힘으로도 도로 보낼 일이 못 될 |
| (0519b3) | ㅁ제야 安堵 흥영이다. 對馬島主 | 의 | | 使 즉시 와셔 太守 ㄹ는 바 |
| (0814b5) | 지 오몬 우리 일란 더디고 太守 | 의 | | 果報 켜 일인가? 이러로셔 ㅁ |
| (0921b6) | 分 흥다. 아직 五 畿內는 山城州 | 의 | | 所領이 八 郡이오 大和州의는 |
| (0828b4) | 아니라 이런 接待의 만나 海上 | 의 | | 시름도 껴매 더욱 ㅁ 아름다이 |
| (0814b2) | 옥 아릅답스외. 진실로 먼 海上 | 의 | | 예-ㅁ지 오몬 우리 일란 더디고 |
| (0607a4) | 願의 일이라 엿줍네이다. 色色 | 의 | | 慰勸을 꾸미시니 진실로 식양 |
| (0421a3) | ㅁ옵 대로 흥다 만다 흥면 誠信 | 의 | | 희이침으로 너기거니와 우리 ㅁ |
| (0808b1) | -들이나 무거 슈고-흥던 下人 | 의 | | -게 준 거슬 더러로셔 아므리 |
| (0806a6) | 올 썸시니 원컨대 바드셔 下人 | 의 | | -게나 주시미 엿더-흥올고 앓 |
| (0317a5) | ㅁ 오늘은 자네-네로 흥여 主人 | 의 | | 도리를 출혀 권-홀 양으로 왓 |
| (0207a5) | ㅁ오니 이 一杯만 잡습소. 大切 | 의 | | 御意오니 예셔 죽스와도 먹스 |
| (0620b1) | 싱각-흥쇼셔. 다만 ㅁ일 出船 | 의 | | 뒤버므릴 작시면 中官 以下란 |
| (0504b1) | 註進도 흥고 路次 各官의 接待 | 의 | | 궐-호믈 위-홈이니 심상히 |
| (0828b2) | -구경-홀 분 아니라 이런 接待 | 의 | | 만나 海上의 시름도 껴매 더욱 |
| (0608a1) | 여 스양을 아니 흥네이다. 接待 | 의 | | 馳走 심상티 아니시니 ㅁ븜 |
| (0704a3) | ㅁ을로셔 두 참이-도록 多人 中 | 의 | | 궐기 난분 뒤 업고 이 맞괴는 ㅁ |
| (0303b1) | -흥옵소. 니젓따소이다. 病 中 | 의 | | 귀-흔 약을 만히 주시매 덕분 |
| (0610a4) | 업건마는 ㅁ의 일이란디 心中 | 의 | | 밋디 못 흥여 아므란 귀-흔 일 |
| (0717b6) | 는 兩 國 誠信之道 란디 心中 | 의 | | 친-흥야 아름다왕이다. 우히도 |
| (0707a5) | ㅁ 스설-흥는 배 ㄹ날치 筑前殿 | 의 | | 그지 업스신 道理로소이다. 몬 |
| (0710a2) | -기도른다 흥오니 來日은 三島 | 의 | | 가실 썸시니 즉제 아니 보디 몬 |
| (0512a5) | 여 出船 吉日은 來月 十二三日 | 의 | | 딩-흥앗다 니르옵. ㅁ일은 ㅁ |
| (0513b2) | 은 天氣에는 ㅁ듯디 아냐 吉日 | 의 | | 위-홈이니 寅時에 ㅁ에 트셔 ㅁ |
| (0518a4) | 너기눔이다. 우리는 ㅁ즘 順風 | 의 | | 無事히 ㅁ즈오니 ㅁ거 흥옵녕 |
| (0108a3) | 시기란 흥오리. 先度 中歸船 便 | 의 | | 二 番 特送이 豐崎서 日吉利 |
| (0504a4) | ㅁ 그리 아옵소. 이리 호몬 上方 | 의 | | 註進도 흥고 路次 各官의 接待 |
| (0413b5) | ㅁ홀 씨라도 이 公木은 ㅁ트 公木 | 의 | | 一 束도 ㅁ트니 업스믈 자네-네 |
| (0412a2) | ㅁ년-흥여 木花 사오나와 公木 | 의 | | 大切히 되야시몬 자네-네도 아 |
| (0420b2) | 여 沙汰之 限도 업슨 ㅁ에 前例 | 의 | | 업슨 일을 시작-흥여 批判 이 |
| (0812b5) | ㅁ의 御果報에 往來 힘-흔 海路 | 의 | | 흥르도 惡風을 만나디 아니코 |

| | | | |
|----------|-------------------|-----|--------------------|
| (0315b2) | 이 흐리잇가? 그러흐므로 長老 | 의 | 덜의 朝鮮 御牌를 두고 常常 節 |
| (0312b4) | 도 나흔 저므셔도 萬事 長老 | 의 | 띠디디 아녀 奇特호 직간이라 |
| (0818a2) | 송이다. 진실로 太守 路次 處處 | 의 | 슈고-흐신 樣子 말로 다 못 흘 |
| (0612a1) | 저 흐는 거시언마는 路次 處處 | 의 | 일 출힐 덧도 헤아려 아므 둘 |
| (0917a5) | 만 계시과다 다 원-흐몬 兩國 | 의 | 흐음이라 니르는 이리옵도쇠. |
| (0427b3) | 廳의 드러 두옵소. 전의도 大廳 | 의 | 두어서 여러 필을 일히시니 쏘 |
| (0427b1) | 홀 양으로 홀 거시니 아직 大廳 | 의 | 드러 두옵소. 전의도 大廳의 두 |
| (0406a4) | 답스외. 버거 근심은 公木 善惡 | 의 | 브터 判事네과 싸홀가 너기오니 |
| (0324b2) | 二十日 무거 도라 가셔도 約條 | 의 | 덩-흔 限-씩지는 엇디 열현이 |
| (0813a5) | 지 브트시니 아롭다오미 御禮 | 의 | 너머습는디 쏘 닥일 날세 구름 |
| (0322b1) | 들도 올려 가야 京으로서 返禮 | 의 | 返書 올 거시니 自然 더될까 |
| (0511b6) | 아므 둘 아므 날 썬나셔 釜山浦 | 의는 | 아므 둘 아므 날 브트셔 목기는 |
| (0109a2) | 로옵소. 어와 그러흐운가? 遠見 | 의는 | 못디 아니 흐여도 뵈면 즉시 釜 |
| (0922a4) | 郡 河內州의는 十五 郡 和泉州 | 의는 | 三 郡 攝津州는 十三 郡 東海道 |
| (0922a1) | 州의 所領이 八 郡이오 大和州 | 의는 | 十五 郡 河內州의는 十五 郡 和 |
| (0922a3) | 오 大和州의는 十五 郡 河內州 | 의는 | 十五 郡 和泉州의는 三 郡 攝津 |
| (0316b1) | 가지로 자선마는 御手前 面上 | 의는 | 酒氣 一切 업스오니 술과 거동 |
| (0610a2) | 은 信使의 御馳走 오면 心中 | 의는 | 비-홀 디 업건마는 섬의 일이라 |
| (0925a2) | 七 郡 佐渡州는 三 郡 山陰道 | 의는 | 丹波州는 六 郡 丹後州는 五 郡 |
| (0927a2) | 十四 郡 土佐州는 七 郡 西海道 | 의는 | 筑前州는 十五 郡 筑後州는 十 |
| (0926b1) | 六 郡 長門州는 六 郡 南海道 | 의는 | 紀伊州는 七 郡 淡路州는 二 郡 |
| (0923b3) | 二 郡 常陸州는 十一 郡 東山道 | 의는 | 近江州는 十三 郡 美濃州는 十 |
| (0925b4) | 六 郡 隱岐州는 四 郡 山陽道 | 의는 | 郡 幡磨州는 十四 郡 美作州는 |
| (0924b1) | 四 郡 出羽州는 十二 郡 北陸道 | 의는 | 若狹州는 三 郡 越前州는 十二 |
| (0832b3) | 今度 슈고-흐신 양은 朝廷 | 의도 | 주셔히 엇즈오랑이다. 捷解新語 |
| (0329a3) | 작-홀 썬시니 아프려나 看品坐 | 의셔 | 득토디 아니케 직간-흐옵소. 捷 |
| (0422b1) | 마음알기 어려울 양이오니 束 | 의셔 | 굴힐 작시면 이대-도록 페로이 |
| (0313a6) | 니이다. 時節이 네과 달라 上方 | 의셔 | 아프란 雜說이나 이실가 너겨 |
| (0213a4) | 釜山浦에 가 든녀 와셔 代官房 | 의셔 | 談合홀 일들이나 相談호면 送使 |
| (0313a4) | 와 흐넢이다. 올스와이다. 島中 | 의셔도 | 그리 니르옵느니이다. 時節이 |
| (0904b4) | 하면 자네-네 뜻에 드디 아닐까 | 의심 | -흐거니와 다만 노름 히로나 흐 |
| (0906a6) | 듯고 축슈만 위-홀 썬름이오니 | 의심도 | 업슬 양으로 직간을 미덧습닝 |
| (0133b3) | 치는 先通之 意 서어탄 말이라. | 의지 | 업단 말이라. 거의란 말이라. 또 |
| (0318b4) | 이다. 日本 도흔 술을 자시다가 | 이 | 술의 취-흐실가? 싱심이나 그 |
| (0207b1) | 예셔 죽스와도 먹소오리이다. | 이 | 썬을 보쇼셔. 하 것소이 너기 |
| (0831b2) | 가 서르 장방 우회셔 손을 드러 | 이 | 번 일은 니르-도록 니르-도록 |
| (0819b4) | 事히 온 우회는 나쁜 일도 업셔 | 이 | 二三日 內에 出船호을 거시니 |
| (0804a5) | 제지이 보내노라 흐여시니 자네 | 이 | 밧기 어려운 差別을 잘 아르셔 |
| (0503b2) | 막켜 건네여 거시니 자네-네 | 이 | 뜻을 東萊의 엇즈와 早早 註進 |
| (0622b2) | 흐여 니르오니 그리 아르쇼셔. | 이 | 앓히 바르 디나 섬죽-흔 곳으로 |
| (0805a1) | 니르시디 아닌 전의 奉行의셔 | 이 | 樣子를 슬오라코 닐러 왔던디 |
| (0417b2) | 록 바회에 못 박드시 마르시고 | 이 | 번은 브디 時分을 헤아려 도함 |
| (0714a1) | 二人을 예-씩지 問安호시고 | 이 | 二三日 안히는 江戸에 브트실 |
| (0704a4) | 多人 中의 격기 날분 디 업고 | 이 | 밧기는 바다도 빅도 조브니 바 |
| (0413b4) | 르시는 배 오로 그러홀 썬라도 | 이 | 公木은 넷 公木의 一 束도 木 |
| (0418a1) | 업시 잡습소. 아프리 니르셔도 | 이 | 公木을 바다 아프려도 홀 테 업 |
| (0617b5) | 아닌 전의 色色이 스양-흐여도 | 이 | 격기-흐는 분-네 니르기는 江 |
| (0409b6) | 드런스오니 나 가 보와 잡습소. | 이 | 公木이 엇디 이러트시 사오남 |
| (0110a6) | 가 시브니 자네-네도 아옵소. | 이 | 빅는 므슴 빙고? 當年條 二 番 |
| (0423b4) | 썬으로는 公儀는 되디 아니코 | 이 | 민망을 비-홀 디 업스외. 아직 |
| (0708a3) | 울 가셔 筑前殿의 接待호 일과 | 이 | 차반 호 줄을 부러 御禮을 술을 |
| (0428b4) | 못디 아닌는가 너기시거니와 | 이 | 樣子도 送使의 주셔히 니르디 |
| (0130b5) | 이도 업스매 그러는 흐거니와 | 이 | 양병은 아니오. 正官 氣色이 건 |
| (0916a4) | 여 御禮 몸애 나쁜 일이옵쇼쇠. | 이 | 우회는 붓그림을 저티고 날-마 |
| (0717a4) | 서이다. 덕썬의 무스히 오오니 | 이 | 우회는 아므 제라도 싱각 대로 |
| (0323b4) | 은 목는 스이만 주실 썬시오니 | 이 | 나라 흔 페나 더올가 싱각-흐 |
| (0207a3) | 와 나의 스스入 정윳 잔이오니 | 이 | 一杯만 잡습소. 大切의 御意오 |
| (0621b3) | 만-흠몬 그지 못 흘 일이오니 | 이 | 알프란 곳-흐여 숲거든 조츠시 |
| (0211a5) | 우리도 日記를 보고 읊소오니 | 이 | 후란 이러디 아니케 니르옵소. |
| (0419a6) | 캣비 깔 디도 이셔 이리 술오니 | 이 | 우회는 다른 묘리도 업스니 자 |

| | | | |
|----------|----------------------|-----|--------------------|
| (0305b4) | 보매 잔을 남기느가 시버 뵈니 | 이 | 잔으란 브딕 다 자옵소. 엇디 노 |
| (0614b3) | 이러트시 도흔 날을 만나시니 | 이 | 앓흔 萬事 므옵 편-홀까 祝願 |
| (0414b6) | 홀 뿐으로논 못디 못 홀 썸시니 | 이 | 公木을 端端이 굴훤까? 그를 公 |
| (0515b5) | · 비예는 二人-식 툇을 썸시니 | 이 | 道理 信使의 엇줍고 小通事의- |
| (0910a5) | 부소를 회이치더라 드러시니 | 이 | 혼 허믈로 싱각-헝옵거니와 兩 |
| (0909b3) | 들의 연고를 웃듬으로 니르시니 | 이 | 一段 되기 어려운 所望이옵도 |
| (0420a6) | 일이 업슨디 즈뫼 앓가 솟디시 | 이 | 스이 各官으로서 沙汰之 限도 |
| (0401b4) | 對面헝오니 아롭다와 헝옵닌. | 이 | 看品時 전 브터 저울 세니 公 |
| (0129a4) | 正官의 병이라 니르시니 正官 | 이 | 나디 아니면 우리의 그르믈 발 |
| (0217b2) | 르고 잇습닌이다. 드러니 正官 | 이 | 도화따 헝니 오늘은 보올가 너 |
| (0129b2) | 발명 못 홀 거시니 비록 正官 | 이 | 병 드르실 떠라도 茶禮는 卒度 |
| (0127b3) | 아옵게 그리 헝오리. 다만 正官 | 이 | 본딕 병 든 사름이옵더니 엇디 |
| (0722a5) | 아롭다이 너기닝이다. 三奉行 | 이 | 어제 御禮라 헝야 對馬島主로 |
| (0523b4) | 압회 브리시는 아회-들의 衣裳 | 이 | 사오나오면 그 볼썽 사오나오 |
| (0815a4) | 오려 싱각-헝얏든디 우리의 情 | 이 | 던-헝인 디 이리 祝願헝시니 |
| (0617b3) | · 信使-의 솟디 아닌 전의 色色 | 이 | 스얏-헝여도 이 격기-헝는 분- |
| (0130b6) | · 이 양병은 아니오. 正官 氣色 | 이 | 건딕염죽-헝면 나고져 너기오 |
| (0709b5) | 吏의 問安의 어른의 官員 二人 | 이 | 三島까지 와 기도른다 헝오니 |
| (0504a1) | 事 대로 우리 兩人 中에 一人 | 이 | 飛船으로 도라 가올 거시니 그 |
| (0132a2) | · 님-네도 헤아려 보시소. 客人 | 이 | 와야 亭主 보디 아니 헝옵는 |
| (0313a6) | 도 그리 니르옵느니이다. 時節 | 이 | 네과 달라 上方의셔 아므란 雜 |
| (0111b4) | 어이 헝여 떠던습느고? 水木船 | 이 | 돛기 사오나와 떠던습닌. 오늘 |
| (0110a2) | 뵈다 니르니 일덩 二 番 特送 | 이 | 오는가 시브니 자네-네도 아옵 |
| (0108a4) | · 先度 中歸船 便의 二 番 特送 | 이 | 豊崎셔 日吉利를 기드리더라 노 |
| (0425b6) | 부디터 몰 홀 일은 公木을 端端 | 이 | 굴회자 니르시미 前後의 업슨 |
| (0414b6) | 못 홀 썸시니 이 公木을 端端 | 이 | 굴훤까? 그를 마다 곳 너기시면 |
| (0902a3) | 더니 이리 니르시니 우리 心中 | 이 | 서르 던-헝인가 더욱 아롭다왕 |
| (0107b2) | 업스니 送使의 對面헝면 奇特 | 이 | 너기믈 아는 앓피니 우리의 뜻. |
| (0823a6) | · 이다. 御出船 日은 今 十五 日 | 이 | 吉日이오니 모뢰 하딕 振舞를 |
| (0611a6) | · 그러헝온가? 그 안헤는 吉日 | 이 | 업스온가? 홀릴 만정 수이 헝고 |
| (0402b5) | 라 덩-헝여시면 이러트시 出入 | 이 | 잇디 아닐 듯 헝디 그 홀 시를 |
| (0205a6) | · 디 몰 호믈 三장 설이 너겨 病 | 이 | 더 重홀까 너기옵닌이다. 封進 |
| (0522a6) | 장 쉬온 일이언마는 朝鮮 家風 | 이 | 폐롭디 아닌 일을 폐로올 양으 |
| (0513a1) | 헝온가? 天氣 樣子 일덩 順風 | 이 | 이실 듯 헝다 헝니 朝鮮 사름- |
| (0106a4) | 니코 이리 슬오니 언머 無調法 | 이 | 너기시를 알건마는 하 無斗方 |
| (0410b6) | 고 나므니는 一端도 자블 公木 | 이 | 업스와. 이런 公木은 아모만 드 |
| (0409b6) | · 니 나 가 보와 잡습소. 이 公木 | 이 | 엇디 이러트시 사오납스온고? |
| (0410b4) | · 그 안헤도 一束에 자블 公木 | 이 | 十 端 남죽이 드럿고 나므니는 |
| (0921b6) | 아직 五 畿內는 山城州의 所領 | 이 | 八 郡이오 大和州의는 十五 郡 |
| (0811a5) | 使의 뵈고 노르실 양으로 教令 | 이 | 이실 식야 이대-도록 니르느가 |
| (0721b6) | 이 아니라 大君도 거르기 喜悅 | 이 | 公이 업습고 우리 늦치 비-홀 |
| (0311a2) | 또 먹스오니 자넨-네도 이제란 | 이 | 公티 다 자옵소. 싱심이나 어이 |
| (0311b3) | -마다 먹습고 正體 업습건마는 | 이 | 齋으란 御意 公티 다 먹스오리 |
| (0606a5) | 온디 머므로옵기도 젓습건마는 | 이 | 구석의 다락 小園을 두엇습더니 |
| (0911a2) | · 헝여 헝시게 솟는 일이언마는 | 이 | 若衆들흔 유여-호믈 웃듬으로 |
| (0418b1) | 염죽-헝 묘리도 업고 출하리는 | 이 | 五十 束을 一束에 十 端-式 굴 |
| (0315a3) | · 아롭답스오리. 長老와 島主는 | 이 | 나라 臣下 되엿스오니 公 |
| (0611a3) | · 혀 붓그립스왕이다. 爰元 出船 | 이 | 十五 日이라 헝니 일덩 그리 |
| (0817a6) | 宴享도 헝올가 미덧닝이다. 또 | 이거슨 | 귀티 아닌 거시언마는 보내놓 |
| (0706a1) | · 타 헝셔 感激히 너기시올쇠. 또 | 이거슨 | 불관-헝 거시언마는 下人을 위 |
| (0703b2) | 보니 어와 어와 여러 가지 珍味 | 이견 | 더견 慰懃히 헝신 양이 御禮에 |
| (0424b4) | · 리기에 스나히는 지고 겨집은 | 이고 | 날-마다 드리는 公木들도 公 |
| (0704a6) | · 기는 바다도 비도 조브니 바든 | 이과 | 혼 가지니 使 아라 御禮를 솔 |
| (0803b6) | 雜物 나믈 거시 이시니 출하리 | 이나 | 정으로 두엇더니 또 싱각 받 |
| (0831a2) | · 르니 太守 슬오믈 출하리 半程 | 이나 | 모실 썸슬 信使의셔 구티여 말 |
| (0701b6) | · 거니와 使者을 보시고 御回答 | 이나 | 헝시게 솟닌이다. 헝면 그러 |
| (0509a2) | · 니 그러헝면 往來 九 日 十 日 | 이나 | 되려니와 또 셔울셔 返事 출하 |
| (0520b6) | · 쉬오니 근심 마르시고 一二 日 | 이나 | 디나 종용커든 보옵새이다. 判 |
| (0509a5) | · 셔 返事 출히기에 二 日 三 日 | 이나 | 헝면 더디여도 十二 三 日만의 |
| (0314b3) | · 킨도 심상히 너기디 말고 千年 | 이나 | 가-도록 오래 볼 양으로 헝세 |

| | | | |
|----------|-------------------|-------|---------------------|
| (0313b2) | 과 달라 上方의셔 아므란 雜說 | 이나 | 이실가 너겨 聞습을 위-헝여 |
| (0603a4) | . 우리의 슈고톨 니르시거니와 | 이논 | 物에 비-헝면 바늘 굿티오 자 |
| (0131b5) | 그르다논 아니 헝실 듯 헝오리. | 이논 | 내 스스로 읍논 말이어니와 자 |
| (0501a3) | 解新語 第四 終 捷解新語 第五 | 이논 | 므슴 비온고? 信使 마즈라 온 |
| (0115b1) | . 正官은 뉘시온고? 나는 都船 | 이논 | 二 船 더논 封進이옵도쇠. 正官 |
| (0811a6) | 르실 양으로 敎令이 이실 식야 | 이대 | -도록 니르논가 너기닝이다. 우 |
| (0106b3) | 헝여 읍논 일이오니 샤-헝옵소. | 이대 | -도록 거르기 니르디 아니셔도 |
| (0525b1) | 도쇠. 나도 日本 풍속을 아오니 | 이대 | -도록 세치 아니 니르시다 엇 |
| (0521b5) | 드르시소. 익 므스 일이옵관디 | 이대 | -도록 어렵사리 니르옵시논고 |
| (0417a6) | 갑식 양도 見습도 계실 일인디 | 이대 | -도록 바회에 뭇 박디시 마르 |
| (0422b3) | 양이오니 束의셔 골힐 작시면 | 이대 | -도록 폐로이 읍스올가? 그쳐 |
| (0319b4) | 습을 만히 헝온가 너기닝이다. | 이도 | 술이 읍논 일이오니 그리곰 너 |
| (0607a2) | 홀 뵙놀려 뵙고져 헝닝이다. | 이도 | 祝願의 일이라 엇줍디이다. 色 |
| (0904a4) | 너 모다 우은 거시라 너기셔나? | 이도 | 日本 놀래에 훌헝 일이로송이 |
| (0609b4) | 오니 무디히 너기디 마르쇼셔. | 이도 | 술의 타시로송이다. 드문 信使 |
| (0811a1) | 두 분-씩셔 권-헝야 니르오니 | 이도 | 일덩 大君씩셔 信使의 뵙고 노 |
| (0810b4) | 城도 거르기 장만-헝엿스오니 | 이도 | 구경-헝실 양으로 앓가 두 분- |
| (0821b5) | 비를 몬과 밥도 고티노라 헝면 | 이도 | 二三 日은 헝을 써시오 쏘는 멀 |
| (0310b6) | 다 먹고 몬져 취-헝엿건마는 | 이도 | 쏘 먹스오니 자닉-네도 이제란 |
| (0907b3) | 몰라 內內 이러로서 술을 써술 | 이도 | 술의 타스로 뵙뎡습더니 쏘 친 |
| (0402b3) | 아니라 兩 國 誠信으로 公貿易 | 이라 | 덩-헝여시면 이러트시 出入이 |
| (0821a5) | 로송이다. 쏘 二三日 內 出船 | 이라 | 니르시니 그리 못 헝을 일은 헝 |
| (0611a3) | 이다. 爰元 出船 이 日 十五 | 이라 | 헝니 일덩 그리헝온가? 그 안 |
| (0512b3) | 헝. 너일은 信使 日 吉 | 이라 | 니르니 일덩 그리헝온가? 天氣 |
| (0416b2) | 고 일을 그리 헝는가? 뵙 公木 | 이라 | 닐러도 여기셔 엉뚱홀 일은 업 |
| (0215b1) | 소. 우리는 연고 업스오니 明日 | 이라도 | 홀 양으로 헝옵소. 나도 代官의 |
| (0719a5) | 습닝이다. 그러면 進物을 來日 | 이라도 | 출홀 디 보시는 날 肅의 釣竿을 |
| (0209a3) | 디 예논 달호기를 잘 못 헝여 | 이러 | -헝니 허물 마르시소. 습디 아 |
| (0210a2) | 數內에 헝나홀 더러시니 닛고 | 이러 | -헝가? 우리를 모로논가 너겨 |
| (0530a1) | 일이오니 글란 마르쇼셔. 미리 | 이러 | -홀가 너겨 그대-도록 술앗디 |
| (0101a4) | 捷解新語 第一 아므가히 | 이러 | 오라. 네 代官의 가 내 말로 “그 |
| (0912b4) | 常常 쓰디 아니모로 히로 더곰 | 이러 | -헝니 心中에 읍고져 헝는 일 |
| (0620b5) | 란 올리디 말미 엇디-헝올고? | 이러나 | 더러다 자너-게 맞디오니 홀 |
| (0825b2) | 홀 양으로 전 브터 니르심으로 | 이러나 | 더러나 맞당-헝실 대로 헝음 |
| (0721a4) | 事네-씩도 니르닝이다. 그러면 | 이러나 | 더러나 니르시는 대로 헝음 |
| (0405b5) | . 전의논 그러티 아니트니마는 | 이러나 | 더러나 니르신 대로 헝야 無事 |
| (0815a2) | 고 太守의 果報 1 셴 일인가? | 이러로서 | 內內 御禮를 술오려 싱각-헝 |
| (0104a6) | 게 미드시는 일은 바늘 굿티오 | 이러로서 | 미들 일은 뵙 굿즈을 거시니 |
| (0901b5) | 올고? 어와 어와 7장 釣竿외. | 이러로서 | 몬져 술오려 싱각-헝엿스오 |
| (0907b2) | 쳐 도라 가심도 즈세 몰라 內內 | 이러로서 | 술을 써술 이도 술의 타스로 |
| (0711a4) | 자네 아라 도홀 양으로 헝소. | 이러로서도 | 몬져 술오려 헝엿디 이리 니 |
| (0522b3) | 넌 일을 폐로올 양으로 너기니 | 이러모로 | 미리 자닉-네-씩 쇠아기를 조 |
| (0213b1) | 일들이나 相談헝면 送使로서 | 이러서는 | 오라 더러서는 아니 온다 다 노 |
| (0413a1) | 첩디 못 호를 어히 업서 더러타 | 이러타 | 습든 아니커니와 자닉-네도 時 |
| (0208a1) | 습는이다. 전의논 격기엿 거시 | 이러티 | 못 헝옵더니 今度는 膳數器皿 |
| (0211a5) | 日記를 보고 읍스오니 이 후란 | 이러티 | 아니케 니르옵소. 圓座 帳枕 以 |
| (0528a5) | 判홀 적이면 슈괴 허일이 될가 | 이러트시 | 구옵디. 太守 니르시는 道理 前 |
| (0602b6) | 실로 兩 國 靜謐히 誠信을 닷가 | 이러트시 | 아름다운 일 아므 디도 헝 가지 |
| (0319a5) | 가기도 잘 못 홀가 너기닝이다. | 이러트시 | 술을 너모 먹습고 젓스온 말습 |
| (0421a2) | 의 죄논 관계티 아니나 代官네 | 이러트시 | 막음 대로 혼다 만다 헝면 誠信 |
| (0424a3) | 헝여 보옵소. 送使는 텃텃-헝여 | 이러트시 | 되기 어려워 폐로이 굴모로 東 |
| (0614b1) | 大慶이로송이다. 아직 출힐의 | 이러트시 | 도흔 날을 만나시니 이 앓흔 萬 |
| (0807b4) | 由히 7음아디 못 홀 일이오니 | 이러트시 | 엇줍농이다. 太守 니르시는 바 |
| (0410a2) | 보와 잡습소. 이 公木이 엇디 | 이러트시 | 사오납스온고? 다 도라 즈세 보 |
| (0705b3) | 란디 아므란 貴흔 일도 업슨디 | 이러트시 | 극진히 行下헝시니 太守 드르 |
| (0402b5) | 으로 公貿易이라 덩-헝여시면 | 이러트시 | 出入이 엇디 아닐 듯 헝디 그 |
| (0204b6) | 미 진실로이로소이다. 오늘은 | 이러트시 | 딛첩-헝시를 가 正官의 니르 |
| (0911b5) | 팀 7건마는 館中도 심심헝매 | 이러트 | 헝 우음 바탕을 니르디 아니면 |
| (0702b1) | 록 거르기 격기-헝신디 헝물며 | 이러트 | 헝 배 아프려도 맞디 못 홀 일 |
| (0619a6) | 어히 업습고 우리도 스이에서 | 이러트 | 헝 差別도 습디 아니 헝는 양 |

| | | | |
|----------|-------------------|-------|-------------------|
| (0828b2) | 귀-흔 곳을 구경-홀 분 아니라 | 이런 | 接待의 만나 海上의 시름도 퍼 |
| (0132b1) | 을는가? 그러커니와 게서 힘 뼈 | 이런 | 道理를 東萊의 옛죽와 너일 브 |
| (0210a2) | 부러 이리 흥엿습는가? 우리도 | 이런 | 일을 어이 주세 아올고? 일 모 |
| (0411a1) | 一 端도 자불 公木이 업스외. | 이런 | 公木은 아모만 드려도 잘 잡디 |
| (0719a3) | 모시게 하라 하여 니르시오니 | 이런 | 줄을 숯님이다. 그러면 進物을 |
| (0504b5) | 니 심상히 아디 마옵소. 그러면 | 이런 | 줄은 모로고 맛조이면 너모 일. |
| (0811b6) | 라 오문 씹싸니와 드린 사름을 | 이렇 | 더렁 폐를 싱각-하면 마라도 도 |
| (0326a6) | 호오리. 마즘 종용-하여 더렁 | 이렇 | 숯스오니 언머 지리히 너기옵 |
| (0813b3) | 니 니르오니 아므 일-도곤 大慶 | 이로송이다 | 니르시드시 無事히 예-식지 |
| (0614a4) | 順風에 옛-식지 브트시니 大慶 | 이로송이다 | 아직 출항의 이르트시 도흔 |
| (0703b5) | 이 御禮에 너문 양이로소이다. | 이를 | 밧디 아님도 무식-허거니와 고 |
| (0706a6) | 너를 부러 보내여 겨옵시더니 | 이를 | 반디 아니시면 우리의 그림이 |
| (0915a1) | 줍는디 쏘 말슴-하시논 전척라 | 이리 | 니르시는 일이로다. 推量허거 |
| (0210a4) | 가? 우리를 모로는가 녀겨 부러 | 이리 | 흥엿습는가? 우리도 이런 일을 |
| (0806b2) | 울고 앓가 스설-하시물 드르며 | 이리 | 숯는 일을 일덩 힘 아니 쓰는 |
| (0623b4) | 디도 폐 아니케 아라 호쇼셔. | 이리 | 숯는 밧과 일덩 下人 中 東西도 |
| (0419a5) | 우리-게도 밧비 빨 디도 이서 | 이리 | 술오니 이 우히는 다른 묘리도 |
| (0805a4) | 를 술오라코 닐러 앓던디 몬져 | 이리 | 니르시니 숯기도 어렵습싸니와 |
| (0905b6) | 업기를 전위-흥엿습니. 형혀 | 이리 | 술오물 식새와 너기실 디도 겨 |
| (0911b2) | 듬으로 너기오니 그리 아옵소. | 이리 | 술움이 내 편을 텨 又건마는 誰 |
| (0504a4) | 도라 가올 거시니 그리 아옵소. | 이리 | 호문 上方의 註進도 호고 路次 |
| (0321a6) | 겨시다가 가실 양으로 흥옵소. | 이리 | 감격-흔 御意ㅣ시니 다시 술을 |
| (0106a2) | 싱각-흔 일을 점치디 아니코 | 이리 | 술오니 언머 無調法이 너기시 |
| (0414b3) | 각과 그 어귀미 天地 又거니와 | 이리 | 홀 뿐으로는 못디 못 홀 써시 |
| (0502a1) | 예 트옵소. 御使는 아미옵도쇠. | 이리 | 드옵소. 여와 여와 아릅답스외. |
| (0902a2) | 오되 말슴-호노라 떠뎛습더니 | 이리 | 니르시니 우리 心中이 서르던 |
| (0301b2) | 옵디 몬 호오니 쟁쟁호옵더니 | 이리 | 보오니 귀-호외. 쇼인이 몬져 |
| (0908b6) | 도 아므 것도 숯디 아니 호오니 | 이리 | 술은 우회란 자네 홀 대로 호쇼 |
| (0915b4) | 싱각 대로 되오몬 쉬을 써시니 | 이리 | 술오물 휴지 삼디 마옵소. 극진 |
| (0815a5) | 든디 우리의 情이 던-호인 디 | 이리 | 祝願하시니 아모의 果報라도 |
| (0919b4) | 을 홀리는 사름이옵쑈쇠. 엇디 | 이리 | 괴롱-하시논고? 진실로 나도 |
| (0918b6) | 든 몬 하여도 神妙히 너기옵니. | 이리 | 부러-호믈 비-홀 디 업스니 일 |
| (0711a6) | 로셔도 몬져 술오려 호연든디 | 이리 | 니르시미 맛당-하여이다. 回答 |
| (0530a3) | 녀겨 그대-도록 술왔더니마는 | 이리 | 니르시니 홀 일도 업기는 업거 |
| (0301b6) | -호외. 쇼인이 몬져 술을 써술 | 이리 | 御意하시니 감격히 너기옵니이 |
| (0524b3) | 는 日本 풍속을 미리 아라시는 | 이리오니 | 내 술오매 기드로디 말고 잘 주 |
| (0917a6) | 호문 兩國의 호욘이라 니르 | 이리옵도쇠 | 아프려나 모음을 다-하여 니 |
| (0607b4) | 신 사름의 직조를 보라 하시니 | 이를 | 보려 위-하여 스양을 아니 호 |
| (0308b3) | 시니 술을 양이 업서이다. 우리 | 이를 | 禮에 삼스오리잇가? 엇디 홀 |
| (0208b4) | 믈 고디 아니 듯줍니. 日本이면 | 이를 | 가지고 又장 머검즉이 잘 달호 |
| (0920a6) | 싱각-호는 일 죠곰도 업서 常常 | 이를 | 뒤오출 만호는 날을 자네 니르 |
| (0920a3) | 셔 十年나마 되야시되 진실로 | 이만 | 하면 홀되 싱각-호는 일 죠곰 |
| (0208b4) | 르시믈 고디 아니 듯줍니. 日本 | 이면 | 이를 가지고 又장 머검즉이 잘 |
| (0419a4) | 고 쏘 우리-게도 밧비 빨 디도 | 이셔 | 이리 술오니 이 우히는 다른 묘 |
| (0521a5) | 마디 못 홀 미드려 호는 일이 | 이셔 | 예-식지 오소 하여 술와시니 |
| (0710b6) | 갓디 홀고? 잔이나 내는 일이나 | 이셔야 | 도홀 디 자네 아라 도홀 양으로 |
| (0803b4) | 일도 업서 마즘 雜物 나문 거시 | 이시니 | 출하리 이나 정으로 두엇더니 |
| (0511a3) | 덩 깃비 너기시울쇠. 불기예도 | 이시려니와 | 아직 수이 알고 시브오니 셔울 |
| (0624a2) | 이나 萬事에 보디 슬흔 일이나 | 이시면 | 엇덜고 하니 小小흔 일이어든 |
| (0909a2) | 호쇼셔. 비록 내나 늙이나 연고 | 이실 | 씨라도 振舞에 어긋날 일은 업 |
| (0919a3) | 일덩 니기시는 비밀-흔 묘리도 | 이실 | 써시니 아프려나 又러치시과자 |
| (0513a1) | 는가? 天氣 樣子ㅣ일덩 順風이 | 이실 | 듯 하다 하니 朝鮮 사름-들흔 |
| (0811a5) | 씩 비고 노르실 양으로 教令이 | 이실 | 식야 이대-도록 니르는가 너기 |
| (0107b5) | 피니 우리의 뜻으로 보텔 바는 | 이실 | 듯 아니 호건마는 모시거란 호 |
| (0420b3) | 제의 업슨 일을 시작-하여 批判 | 이실 | 적은 소임의 죄는 관계티 아니 |
| (0514a5) | 朝鮮 船頭들도 來日은 日吉利 | 이실 | 듯 하다 니르니 그러면 出行의 |
| (0514b4) | 호옵니. 그러면 게셔도 日吉利 | 이실 | 듯 하다 니르옵도쇠. 아프려나 |
| (0313b2) | 라 上方의서 아프란 雜說이나 | 이실가 | 녀겨 聞습을 위-하여 회-마다 |
| (0528a2) | 름-마다 기려야 우리의 面目도 | 이실디 | 형혀 批判홀 적이면 슈괴 허일 |
| (0921b6) | 畿內는 山城州의 所領이 八 郡 | 이오 | 大和州의는 十五 郡 河內州의는 |

| | | | | | |
|----------|---------------------|--|--------|--|---------------------|
| (0129b4) | 르실 떠라도 茶禮는 卒度之間 | | 이오니 | | 나서 과연 건디디 못 ㅎ거든 몬 |
| (0405a1) | 나라 일을 힘 쓰기는 대되 同前 | | 이오니 | | 우리도 公木을 굴히여 자브면 |
| (0214a6) | 難言 ㅎ을고? 우리는 一番 特送 | | 이오니 | | 몬져 보심이 올티 아니 ㅎ은가? |
| (0823a6) | 御出船 日은 今 十五 日이 吉日 | | 이오니 | | 모되 하딕 振舞를 ㅎ오니 御案 |
| (0718a4) | 주쇼셔. 우호로셔 “모되는 吉日 | | 이오니 | | 信使의 ㅅ을 양을 친히 가 기별 |
| (0823a3) | 아직 아직 종용히 쉬시미 本望 | | 이옵도송이다 | | 御出船 日은 今 十五 日이 吉 |
| (0405b2) | 싱각 ㅅ긔 술술이 ㅅ츠니 大慶 | | 이옵도쇠 | | 전의는 그러타 아니튼니마는 |
| (0502a4) | ㅅ답스외. 도흔 天氣에 御仕合 | | 이옵도쇠 | | 府中도 無事 ㅎ은가? 올스외. |
| (0115b1) | ㅅ는 都船 이는 二 船 더는 封進 | | 이옵도쇠 | | 正官은 어딕 겨시온고? 正官 |
| (0408a1) | ㅅ로셔 借船 一 隻 ㅅ혀 三 隻 | | 이옵도쇠 | | 미리 술와 두옵소. 그는 술오 |
| (0828a2) | 닝이다. 어와 어와 慰勸 ㅎ 宴席 | | 이옵도쇠 | | 진실로 닐르시디시 兩 國 誠 |
| (0110b2) | ㅅ슴 빈고? 當年條 二 番 特送 | | 이옵도쇠 | | 어와 어와 거르기 머흔디 아 |
| (0909b4) | ㅅ이니 이 一段 되기 어려운 所望 | | 이옵도쇠 | | 昨夜는 우리도 술의 ㄱ-ㅎ여 |
| (0218a3) | 도 ㅎ여 이제는 ㅅ화습닌이다. | | 이제 | | 또 보을 겨시니 종용티 못 ㅎ외 |
| (0120a5) | 카다 니르시니 아직 ㅅ줍새. 내 | | 이제 | | 釜山浦의 술와 注進 ㅎ고 닐일 |
| (0516b5) | 와시니 信使의셔도 ㅅ족-ㅎ셔 | | 이제 | | 빅을 내옵닌. 對馬島主의셔 |
| (0920a2) | 나도 日本말을 니겨 시작-ㅎ여 | | 이제 | | 블셔 十年나마 되야시되 진실 |
| (0601b3) | ㅅ히 誠信之 道를 서르 던-ㅎ여 | | 이제 | | 또 三使 멀리 渡海 ㅎ셔 내-가 |
| (0620a5) | 엇디 슈고로오매 걸리씨울고? | | 이제 | | 오로 올 씨시니 ㅅ옴 편히 싱각 |
| (0307a3) | 니 아옵시디시 오래 병 드오와 | | 이제 | | 잠깐 ㅎ련스오되 다리 힘이 업 |
| (0615b1) | 船 中에 ㅅ브심도 계실 씨시니 | | 이제 | | 座船을 ㅅ시고 오옵심을 ㅅ줍 |
| (0123a2) | ㅅ 무르시니 감격-ㅎ여 ㅎ옵닌. | | 이제 | | 正官 보오라 가오니 다시 보옵 |
| (0114a2) | ㅅ오니 글로 ㅎ여 근심-ㅎ옵닌. | | 이제 | | 오는 ㅅ법도 잇건마는 밤이 드러 |
| (0124b6) | ㅅ枚만 몬져 드러 주옵소. 글란 | | 이제 | | 東葉 술와 보내야 드릴 양으로 |
| (0219b2) | 우리도 ㅅ비 ㅅ기옵닌. 우리는 | | 이제 | | 나을 씨시니 계 일을 수이 출히 |
| (0217b6) | ㅅ기옵닌. 약도 먹고 ㅅ뎡도 ㅎ여 | | 이제 | | ㅅ화습닌이다. 이제 또 보을 겨 |
| (0612b2) | ㅅ島를 떠나실 양으로 닐르시니 | | 이제 | | 自由히 ㅅ옴아디 못 ㅎ을 씨시 |
| (0303a1) | 를 알파 ㅎ시던고? ㅅ출 보오니 | | 이제 | | 병 ㅅ치 겨시니 모로매 ㅅ리-ㅎ |
| (0211a1) | 그리 ㅎ 일이옵도쇠. 무려 보와 | | 이제 | | 드리라 ㅎ옵새. 우리도 日記를 |
| (0304a3) | 건마는 ㅅ는 ㅅ티 아니 ㅎ오니 | | 이제 | | ㅅ녀-ㅎ는이다. 그 약은 마즘 |
| (0311a1) | ㅅ 이도 또 ㅅ스오니 자닌-네도 | | 이제 | | 이 ㅅ티 다 자옵소. ㅅ심이나 |
| (0101b2) | 라도 오을 거슬 路次의 ㅅ브매 | | 이제 | | 門-ㅅ지 ㅅ옵닌. 안히 계시면 |
| (0829b2) | ㅅ 判使네를 對馬島主게 보내야 | | 이제 | | 빅에 ㅅ오니 ㅅ창 ㅅ의 가 하딕 |
| (0112b4) | ㅅ셔 브를 거슬 브름의 이치여 | | 이제 | | ㅅ옵닌. ㅅ딘 빅 아므 ㅅ 븏터 |
| (0519b1) | ㅅ 머흔디 아냐 예-ㅅ지 오오니 | | 이제 | | 安堵 ㅎ영이다. 對馬島主의 使 |
| (0129a3) | ㅅ 양으로 술와 ㅅ일로 ㅅ-ㅎ딕 | | 이제 | | 正官의 병이라 니르시니 正官 |
| (0302a2) | ㅅ ㅎ시니 감격히 ㅅ기옵닌이다. | | 이제 | | ㅅ을 씨술 병 드오와 ㅅ시 ㅅ옵 |
| (0912a5) | 로미 모로미 고디 ㅅ디 마옵소. | | 이제 | | 내 여긔 와셔 자네-네 指南을 |
| (0202b4) | ㅅ 병 인는 사름이옵더니 빅에 | | 이제 | | 오오니 그러 ㅎ온 디 ㅅ법도 일절 |
| (0112b4) | 날이 노파셔 브를 거슬 브름의 | | 이제 | | 이제 ㅅ ㅅ옵닌. ㅅ딘 빅 아므 |
| (0523a6) | 술오되 信使 우다히 디나실 제 | | 이제 | | 사을 길호로셔도 구경-ㅎ 사름 |
| (0827b5) | 오니 일로써 兩 國 安泰 ㅎ 陰德 | | 이제 | | 감격이 ㅅ기옵닌이다. 어와 어 |
| (0503a3) | 을을 떠나셔 어닌 ㅅ 出船 吉日 | | 이제 | | ㅎ야 우리 兩 人을 ㅅ의에 막켜 |
| (0428b1) | 즈오리. 判事네는 代官의 ㅅ에 | | 이제 | | 거슬 오늘 ㅅ디 아닌는가 ㅅ기 |
| (0520b2) | ㅅ이다. ㅅ녀-ㅎ신 ㅅ ㅅ도쇠. | | 이제 | | ㅅ도 ㅅ녀-ㅎ시모로 ㅅ장 조출 |
| (0202b3) | ㅅ-ㅎ여이다. 나토 ㅅ고 ㅅ딘 병 | | 이제 | | 사름이옵더니 빅에 이치여 오 |
| (0115b6) | ㅅ온고? 正官은 빅-ㅅ의-ㅎ여 | | 이제 | | ㅅ라 아리 ㅅ어옵닌. 書契를 내 |
| (0818a6) | ㅅ 다 못 ㅎ 일이로송이다. ㅅ로 | | 이제 | | -ㅎ ㅅ도 ㅅ스니 江戶 奉行의 |
| (0808b3) | ㅅ러로셔 아므리 닐러도 바들 | | 이제 | | 아니어니와 對馬島主의 ㅅ으로 |
| (0914b2) | ㅅ 말슴-ㅅ치 ㅅ장 보드랍고 또 | | 이제 | | ㅎ시는 말 거동이 진실로 日本 |
| (0908b4) | 저은 안주의 珍味를 싱각-ㅎ매 | | 이제 | | 아므 ㅅ도 ㅅ디 아니 ㅎ오니 이 |
| (0107a5) | 일이어니와 자네 ㅎ자 가셔도 | | 이제 | | ㅅ븐 ㅅ ㅅ스니 送使의 對面 ㅎ |
| (0103b5) | ㅅ ㅅ리시믈 ㅅ들 ㅅ옴이옵도쇠. | | 이제 | | 말슴이어니와 말슴-ㅅ치 들옵 |
| (0721a6) | ㅅ 대로 ㅎ옵새. 어제는 城에서 | | 이제 | | 萬事 ㅅ답-ㅎ는 양이 ㅅ장 올 |
| (0822a6) | 아므란 御意에 걸리신 일이나 | | 이제 | | 양으로 家中 ㅅ-들도 ㅅ길 ㅅ |
| (0210a5) | ㅅ 이런 일을 어이 ㅅ세 아옵고? | | 이제 | | 모로는 ㅅ-들이 일딩 ㅅ고 그러 |
| (0518b5) | 天氣에 예-ㅅ지 ㅅ너시니 아므 | | 이제 | | -도곤 아릅다와 ㅎ옵닌이다. ㅅ |
| (0813b3) | ㅅ 가기도 ㅅ타 니르오니 아므 | | 이제 | | -도곤 大慶이로송이다. 니르 |
| (0915b6) | ㅅ옵소. ㅅ진이 ㅅ-ㅎ심 아므 | | 이제 | | -도곤 감격-ㅎ여 御禮 ㅅ에 나 |
| (0110b5) | 어와 어와 거르기 머흔디 아므 | | 이제 | | ㅅ시 ㅅ너시니 아릅다와 ㅎ옵 |

| | | | |
|----------|--------------------|------|--------------------|
| (0612a1) | 흔는 거시언마는 路次 處處의 | 일 | 출힐 덧도 헤아려 아므 둘 아므 |
| (0602b6) | 信을 닷가 이러트시 아릅다운 | 일 | 아므 덧도 흔 가지읍도쇠. 우리 |
| (0920a4) | 로 이만 흔면 홀되 생각-흔는 | 일 | 쥬곰도 업서 常常 이틀 뉘오출 |
| (0601b5) | 每흔서 내-게 請흔여 對坐흔는 | 일 | 곰곰 생각-흔면 둥간티 아니케 |
| (0708a3) | 는 서울 가서 筑前殿의 接待흔 | 일과 | 이 차반 흔 줄을 부러 御禮을 |
| (0121b6) | 와 왓습닉. 東萊겨셔도 “어제는 | 일기 | 사오나온디 언머 슈고로이 건나 |
| (0306b5) | 늘이읍도쇠. 잔수는 디낫스오나 | 일덩 | 立酌흔실 써시니 아읍시드시 |
| (0811a1) | 썩셔 권-흔야 니르오니 이도 | 일덩 | 大君썩셔 信使의 뵈고 노르실 |
| (0511a1) | 는. 생각 밧괴 수이 오니 大守도 | 일덩 | 깃비 너기시올쇠. 불기에도 이 |
| (0623b4) | 아라 흔쇼셔. 이리 읍는 밧괴 | 일덩 | 下人 中 東西도 모로는 것-들이 |
| (0513a1) | 일덩 그러흔온가? 天氣 樣子 | 일덩 | 順風이 이실 듯 하다 하니 朝鮮 |
| (0112a6) | 비 빠리고 브름이 사오납더니 | 일덩 | 슈고로이 건너시도쇠. 올스외. |
| (0110a2) | 안 싸다히 日本 뵈 뵈다 니르니 | 일덩 | 二番 特送이 오논가 시브니 지 |
| (0920b5) | -홀 디 업슨 양으로 기리시니 | 일덩 | 괴롱-흔는 양으로 생각-흔겨니 |
| (0512b4) | 信使 뵈 특실 吉日이라 니르니 | 일덩 | 그러흔온가? 天氣 樣子 |
| (0919a2) | 리 부러-호몰 비-홀 디 업스니 | 일덩 | 니기시는 비밀-흔 묘리도 이실 |
| (0611a4) | 出船 이 들 十五日이라 하니 | 일덩 | 그러흔온가? 그 안해는 吉日이 |
| (0216b5) | 관하 問安도 즈로 읍디 못 하니 | 일덩 | 정 업슨 양으로 너기시는가 |
| (0210a5) | 세 아올고? 일 모로는 것-들이 | 일덩 | 넋고 그리 흔 일이읍도쇠. 무려 |
| (0308a5) | 흔여이다. 立酌을 흔실 작시면 | 일덩 | 禮를 背홀가 너기읍더니 안즈려 |
| (0806b5) | 흔시믈 드르며 이리 읍는 일을 | 일덩 | 힘 아니 쓰는 양으로 너기실 듯 |
| (0715b2) | 로서 奉行으로써 信使의 아모 | 일도 | 업시 예-썩지 브트시니 아릅다 |
| (0201b5) | 여이다. 우리는 덕분을 뵈 아므 | 일도 | 업시 완닉이다. 正官을 반가이 |
| (0813a3) | 을 만나디 아니코 多人 中 아므 | 일도 | 업시 예-썩지 브트시니 아릅다 |
| (0819b2) | -썩지 無事히 온 우희는 나쁜 | 일도 | 업서 이 二三 日 內에 出船흔올 |
| (0912b6) | 이러-흔니 心中에 읍고져 흔는 | 일도 | 잘 읍디 못 하고 알고도 無道히 |
| (0610a5) | 의 밋디 못 흔여 아므란 귀-흔 | 일도 | 업시 終日 겨셔 도로켜 서의-흔 |
| (0705b1) | 는 식골 일이란디 아므란 貴흔 | 일도 | 업슨디 이러트시 극진히 行下흔 |
| (0116a6) | 러니와 김피 드럿스오니 別흔 | 일도 | 업스오니 닉일 보옵소. 그논 그 |
| (0712b4) | . 그러면 冠帶도 흔옴새. 술 낼 | 일도 | 소임의-게 그 스정을 닉러 들러 |
| (0530a5) | 와트더니마는 이리 니르시니 홀 | 일도 | 업기는 업거니와 그러나 닉일 |
| (0205b6) | 니 보올까? 그 뵈는 병이 도홀 | 일도 | 잇스올 써시니 아니 뵈오렁잇 |
| (0803b2) | 던 아래 사름-들희 별로 포-홀 | 일도 | 업서 마즘 雜物 나쁜 거시 이시 |
| (0213a6) | 든너 와서 代官房의서 談合홀 | 일돌이나 | 相談하면 送使로서 이러셔는 |
| (0623a4) | 양이 그러도 홀 듯 흔면 路次의 | 일란 | 자네-게 맞딜 거시니 보솔피 |
| (0814b4) | 먼 海上의 예-썩지 오쁜 우리 | 일란 | 더디고 太守의 果報 |
| (0527b2) | 니온가? 우리도 小小흔면 므스 | 일로 | 불관-흔 거시라도 장만-흔여 |
| (0718b4) | 다. 그러면 上下 대되 잔채-홀 | 일로 | 깃티니 업시 모시게 헐라 흔야 |
| (0827b4) | 르기 귀히 너겨 깃썰라 흔오니 | 일로써 | 兩國 安泰흔 陰德인가 감격이 |
| (0314b1) | 朝廷도 誠信으로 아릅시니 아므 | 일에 | 브터도 심상히 너기디 말고 千 |
| (0505a1) | 런 줄은 모로고 맛조이면 너모 | 일오신가 | 너겏더니 니르시는 말을 드르니 |
| (0831b2) | 장방 우희셔 손을 드러 이 번 | 일은 | 니르-도록 니르-도록 아릅다운 |
| (0601a5) | 라. 읍-도록 읍-도록 아릅다운 | 일은 | 兩國 安泰히 誠信之 道를 서르 |
| (0415b6) | 건마는 종시 올히만 너기시는 | 일은 | 어디셔 五十束 드린 公木을 半 |
| (0104a3) | 업즈-흔외. 우리-게 미드시는 | 일은 | 바늘 굿티오 이러로서 미들 일 |
| (0419b4) | 흔 읍소. 엇디 흔야 우리 읍는 | 일은 | 다 슈지 사므시고 자닉-네 맛 |
| (0722b1) | 禮라 흔야 對馬島主로써 읍는 | 일은 | 어제는 對面흔옵고셔 서르 말 |
| (0204b3) | 말습-흔올고 너기읍더니 도흔 | 일은 | 多魔라 니르미 진실로이로소이 |
| (0806a3) | 는 아프리 흔여도 가져 도라 갈 | 일은 | 업스올 써시니 원컨대 바드셔 |
| (0909a4) | 고 이실 썩라도 振舞에 어긋날 | 일은 | 업스오리. 다만 므옴의 걸리기 |
| (0821a6) | 船이라 니르시니 그리 못 흔올 | 일은 | 힘-흔 디 건너 온 비를 몬과 밥 |
| (0125b4) | 습닉. 그러흔면 스스roi 어들 | 일은 | 아니오니 내 친히 東萊가 극진 |
| (0104a6) | 은 바늘 굿티오 이러로서 미들 | 일은 | 되 굿즈올 거시니 므옴 브티사 |
| (0417a1) | 홀 썩라도 분별 아니티 몬 흔실 | 일은 | 서르 時分과 갑식 양도 見습도 |
| (0424b1) | 로 東萊入 百姓도 건디디 못 홀 | 일은 | 五日 雜物 드리기에 스나히는 |
| (0425b4) | 켜 니르니 나라토 부디티 몬 홀 | 일은 | 公木을 端端이 곶희차 니르시 |
| (0416b4) | 木이라 닉러도 여긔셔 엉뚱홀 | 일은 | 업스오니 아프려나 思合흔셔 |
| (0109b1) | 별을 니를 거시니 그논 油斷홀 | 일은 | 업스오리. 代官네-의 書簡을 |
| (0826b1) | 天氣 도하 진실로 遠路에 나라 | 일을 | 못고 三使을 청-흔야 하딕-흔 |
| (0404b6) | 오니 아릅다와 흔닉이다. 나라 | 일을 | 힘 쓰기는 대되 同前이오니 우 |

| | | | | |
|----------|--------------------|--------|--|--------------------|
| (0219b5) | }. 우리는 이제 나을 써시니 게 | 일을 | | 수이 출히옵소. 捷解新語 第二 |
| (0416a6) | ‘논고? 혼갓 내히만 생각-헝고 | 일을 | | 그리 헝는가? 넷 公木이라 닐려 |
| (0908a4) | 된디 또 회례라 일흠 지어 므스 | 일을 | | 헝려 헝시옵논고? 맛당히 스양 |
| (0210a2) | 이리 헝엿습는가? 우리도 이런 | 일을 | | 어이 즈세 아올고? 일 모로논 |
| (0522b2) | 마는 朝鮮 家風이 폐롭디 아닌 | 일을 | | 페로울 양으로 너기니 이러모도 |
| (0806b2) | 스설-헝시믈 드르며 이리 읍논 | 일을 | | 일덩 힘 아니 쓰는 양으로 너기 |
| (0420b2) | 乙 限도 업슨 때에 前例의 업슨 | 일을 | | 시작-헝여 批判 이실 적은 소양 |
| (0617a6) | 헝옵거니와 그리 니르실 듯 혼 | 일을 | | 알고 信使-씩 읍디 아닌 전의 |
| (0106a1) | 극진-헝시믈 미더 내 생각-흔 | 일을 | | 점치디 아니코 이리 슬오니 언 |
| (0622a1) | 3이다. 또 中官 以下 올리디 말 | 일을 | | 니르신 대로 스설-헝여도 一 |
| (0710a5) | 3 써시니 즉제 아니 보디 몬 홀 | 일을 | | 아르시게 헝야 案內 읍녕이다. |
| (0315a3) | 나라 臣下 1 되엿스오니 므릇 | 일을 | | 엇디 열현이 헝리잇가? 그러헝 |
| (0216b1) | 이 도히 계시던가? 엇디 혼 디 | 일이 | | 만하 問安도 즈로 읍디 못 헝니 |
| (0420a3) | ? 네 브터 束을 풀고 굴히여 낸 | 일이 | | 업슨디 즈못 앓가 읍드시 이 스 |
| (0521a5) | 네-씩 마디 못 홀 미드려 헝논 | 일이 | | 이셔 예-씩지 오소 헝여 슬와서 |
| (0808b6) | 馬島主의 힘으로도 도로 보낼 | 일이 | | 못 될다 니르시면 출하리 자네 |
| (0624a2) | 振舞 적이나 萬事에 보디 슬흔 | 일이나 | | 이시면 엇덜고 헝니 小小 혼 일 |
| (0822a6) | 작시면 아므란 御意에 걸리신 | 일이나 | | 인는 양으로 家中 견-들도 너겔 |
| (0710b6) | 이조는 엇디 헝고? 잔이나 내는 | 일이나 | | 이셔야 도홀 디 자네 아라 도홀 |
| (0209a6) | 아닐 일이엇마는 前規에 잇는 | 일이니 | | 判事네 잘 드르시소. 과즐도 늦 |
| (0426a1) | 굴히자 니르시미 前後의 업슨 | 일이니 | | 내 죄예 만나든 관겨티 아니커 |
| (0716a1) | 면 뒷 使 1 시니 尋常히 못 홀 | 일이니 | | 吉日을 굴히노라 廻引헝을 써서 |
| (0610b3) | 헝온가는 너기옵거니와 祝願의 | 일이라 | | 싱각-헝옵더니 御慰勸헝신 말 |
| (0607a2) | 옵고져 헝녕이다. 이도 祝願의 | 일이라 | | 엿줍디이다. 色色의 慰勸을 꾸 |
| (0514b1) | 3르니 그러면 出行의 아릅다운 | 일이라 | | 다 祝願헝옵디. 그러면 게셔도 |
| (0706a3) | 간마는 下人을 위-헝야 德談엿 | 일이라 | | 헝서 우리를 부러 보내여 겨옵 |
| (0423b6) | 디 업스와. 아직 代官들도 他國 | 일이라 | | 싱각 말고 곰곰 싱각-헝여 보옵 |
| (0404a5) | 라 건넌 양으로 닐렸습디. 나라 | 일이란디 | | 마디 못 헝여 보채엿습더니 맛 |
| (0610a4) | 그의는 비-홀 디 업건마는 섬의 | 일이란디 | | 心中의 밋디 못 헝여 아므란 귀 |
| (0705a5) | 이 분부-헝여 계시건만는 식골 | 일이란디 | | 아므란 貴흔 일도 업슨디 이러 |
| (0915a1) | -헝시는 전칙라 이리 니르시는 | 일이로다 | | . 推量헝거니와 붓그림으란 모 |
| (0718b2) | 을 친히 가 괴별을 슬오라.” 혼 | 일이로소이다 | | . 그러면 上下 대되 잔채-홀 일 |
| (0714a6) | 對面헝셔야 즈서히 슬오려 혼 | 일이로소이다 | | . 두 분을 예-씩지 극진히 무로 |
| (0716b2) | 미나 從容히 쉬과다 헝야 읍논 | 일이로송이다 | | . 어와 어와 즉시 慰勸히 무로 |
| (0904a4) | 이셔냐? 이도 日本 놀래예 후흔 | 일이로송이다 | | . 우리로서도 회례를 헝오려 싱 |
| (0818a4) | 슈고-헝신 樣子 말로 다 못 홀 | 일이로송이다 | | . 별로 인스-홀 테도 업스니 江 |
| (0821a3) | 오니 아모리 헝여도 좃디 몬 홀 | 일이로송이다 | | . 또 二三日內 出船이라 니르 |
| (0106b5) | 기 니르디 아니셔도 자네 처엄 | 일이신 | | 거시니 代官들히 모시디 아냐는 |
| (0107a2) | 代官들히 모시디 아냐는 못 홀 | 일이어니와 | | 자네 혼자 가셔도 인스당의 닛 |
| (0624a5) | 나 이시면 엇덜고 헝니 小小 혼 | 일이어든 | | 中官 以下란 못히 올리기를 말 |
| (0522a5) | 이 열현이 헝링잇가? 7장 쉬온 | 일이언마는 | | 朝鮮 家風이 폐롭디 아닌 일을 |
| (0910b6) | 쇼셔. 다만 슬헝여 헝시게 읍논 | 일이언마는 | | 이 若衆들흔 유여-호믈 웃듬으 |
| (0908a6) | 옵논고? 맛당히 스양-홀 듯 혼 | 일이언마는 | | 朝鮮 썩과 고믈저은 안쥬의 珍 |
| (0209a6) | 헝니 허믈 마르시소. 읍디 아닐 | 일이엇마는 | | 前規에 잇는 일이니 判事네 잘 |
| (0604b2) | 니 헝오리. 아직 오늘은 祝願의 | 일이오니 | | 終日 노르시고 내 집 지은 것도 |
| (0902b2) | 거니와 아프리커나 우리 슬온 | 일이오니 | | 넉일 브터 우리 헝을 써시니 자 |
| (0529b4) | 기와 그 모단은 너모 궂디 아닌 | 일이오니 | | 글란 마르쇼셔. 미리 이러-홀 |
| (0529a5) | 몬 헝염죽-헝건마는 니르시는 | 일이오니 | | 웃 웃슬 보디 슬터 아니케 장만 |
| (0106a6) | 알건마는 하 無斗方헝여 읍논 | 일이오니 | | 샤-헝옵소. 이대-도록 거르기 |
| (0319b4) | 가 너기누이다. 이도 술이 읍논 | 일이오니 | | 그리곰 너기디 마르쇼셔. 쇼인 |
| (0505a4) | 갈을 드르니 수이 아니티 몬 홀 | 일이오니 | | 대테로이 아니 헝실 양으로 東 |
| (0621b2) | 름-돌히 민만-홈든 그지 못 홀 | 일이오니 | | 이 알프란 곳-헝여 슬거든 조 |
| (0807b2) | 켜 使를 自由히 7옴아디 못 홀 | 일이오니 | | 이러트시 엿줍디이다. 太守 니 |
| (0702b2) | 3툷 혼 배 아프려도 밋디 못 홀 | 일이오니 | | 太守는 엇디 싱각-헝시논고? 자 |
| (0522a1) | 3르 읍시는고? 헝암죽-홀 만흔 | 일이오면 | | 엇디 열현이 헝링잇가? 7장 수 |
| (0521b4) | 3 좋용히 잘 드르시소. 위 므스 | 일이옵관디 | | 이대-도록 어렵사리 니르옵시 |
| (0507b3) | 잇거든 괴별-헝옵소.” 헝시는 | 일이옵데 | | . 어와 註進을 극진히 헝시디 |
| (0815b4) | 말로는 다 헝기 어려운 祝願의 | 일이옵도쇠 | | . 어제는 술술이 브트시니 아릅 |
| (0510a6) | 괴도 왓스오니 깃브외. 大慶의 | 일이옵도쇠 | | . 今日 빅를 내올 써시니 그 返 |
| (0921a2) | 헝여도 몬 헝고 거르기 우소온 | 일이옵도쇠 | | . 자네 日本말 비화 시작-호미 |

| | | | |
|----------|--------------------|----------|---------------------|
| (0210a5) | 는 것-들이 일덩 닛고 그리 혼 | 일이 읍도쇠 | . 무려 보와 이제라도 드리라 혼 |
| (0615b5) | 흔는 분-네-게로셔도 극진-흔 | 일이 읍도쇠 | . 船 中에도 별히 又봄도 업고 |
| (0525a4) | 니 나르시논 道理 一一 맛당-흔 | 일이 읍도쇠 | . 나도 日本 풍속을 아오니 이대 |
| (0314a3) | 은 우다히 오로느리기 御大儀 혼 | 일이 읍도쇠 | . 朝廷도 誠信으로 아르시니 아 |
| (0916a2) | 은 곤 감격-흔여 御禮 몸애 나쁜 | 일이 읍또쇠 | . 이 우히는 붓그림을 저티고 닛 |
| (0814b5) | 일란 더디고 太守의 果報 1 센 | 일인가 | ? 이러로서 内内 御禮를 술오르 |
| (0602a3) | 면 둥간티 아니케 잇기 어려운 | 일인가 | 너기건마는 三使는 엇디 너기 |
| (0417a4) | 時分과 감식 양도 見습도 계실 | 일인디 | 이대-도록 바회에 몬 박드시 |
| (0816a3) | 은 술술이 브트시니 아롬답스와 | 일일 | 와 問安호미 本意읍건마는 나 |
| (0203a1) | 치여 오오니 그러흔온 디 밥도 | 일절 | 먹디 몬 ㅎ고 누어 잇스오니 민 |
| (0212b2) | 와 술을 말이 만컨마는 요스이 | 일절 | 예는 오디 아니 ㅎ시니 ㄹ장 디 |
| (0316a4) | 마다 니름을 듯고 朝廷도 ㄹ장 | 일ㄹ르시느니이다 | . 술을 혼 가지로 자선마는 御 |
| (0721b4) | 양이 ㄹ장 올히 ㅎ신 바늘 대되 | 일ㄹ를 | 뿐이 아니라 大君도 거르기 ㅎ |
| (0914b4) | 1本 톱오니 다곰다곰 괴특다곰 | 일ㄹ좁는디 | 쏘 말슴-ㅎ시는 전치라 이리 |
| (0427b4) | 의도 大廳의 두어서 여러 필을 | 일혀시니 | 쏘 밧기 두고 番홀 사름도 업고 |
| (0908a4) | 은 그러운 次第읍편디 쏘 회례라 | 일홈 | 지어 므스 일을 ㅎ려 ㅎ시읍는 |
| (0708a6) | 부러 御禮을 술을 써시니 자네 | 일홈은 | 무어신고 싱각-ㅎ야 禮홀 제 |
| (0117a4) | 홀 거시니 書契를 내읍소. 우리 | 일홈은 | 아피읍도쇠. 그리 ㅎ여 몬 ㅎ오 |
| (0507b1) | 由 혼 고딧 아므란 쓰실 써시나 | 잇거든 | 괴별-ㅎ읍소.” ㅎ시는 일이읍 |
| (0114a2) | 근심-ㅎ읍닌. 이제 오는 법도 | 잇건마는 | 밤이 드러 뵈디 몬 ㅎ니 ㅎ혀 |
| (0108b2) | 오늘은 건넌죽-흔 구름 가기도 | 잇고 | 브롬도 도히 부러시니 多分 비 |
| (0602a2) | 곰곰 싱각-ㅎ면 둥간티 아니케 | 잇기 | 어려운 일인가 너기건마는 三 |
| (0209a6) | 습디 아닐 일이엇마는 前規에 | 잇는 | 일이니 判事네 잘 드르시쇼. 과 |
| (0810a4) | 쳐 닐러 왔다 ㅎ고 振舞홀 양도 | 잇는가 | 시브오니 그리 아르셔 종용히 |
| (0402b5) | 덩-ㅎ여시면 이러트시 出入이 | 잇디 | 아닐 듯 ㅎ디 그 홀 시를 ㄹ장 |
| (0203a3) | 1 밥도 일절 먹디 몬 ㅎ고 누어 | 잇스오니 | 민망-ㅎ여이다. 書契를 보니 ㄹ |
| (0323a4) | 1로 ㅎ오려니와 公本은 束數 1 | 잇스오니 | 쇼인-네 수이 도라 가오면 五 |
| (0102a5) | 와 아롬다이 오읍시도쇠. 안히 | 잇스오니 | 判事네도 同道 ㅎ야 오쇼셔. 代 |
| (0205b6) | 올까? 그 띄는 병이 도홀 일도 | 잇스올 | 써시니 아니 뵈오링잇가? 巡杯 |
| (0102b3) | ㅎ야 오쇼셔. 代官들도 혼 고대 | 잇습닌 | . 아롬답스와. 여기 오르읍소. < |
| (0217a5) | 은 스이 업시 僉官들-띄 니르고 | 잇습닌이다 | . 드르니 正官이 도화파 ㅎ니 < |
| (0425a2) | 도 므쇼게 시러 ㅎ르 스이 두락 | 잇틀 | 스이 두락 왕년-ㅎ니 사름이나 |
| (0816a3) | 답스와 일일 와 問安호미 本意 | 읍건마는 | 나의 ㄹ브를 헤아리매 아므 디 |
| (0908a1) | 신 御禮 도로켜 붓그러운 次第 | 읍편디 | 쏘 회례라 일홈 지어 므스 일을 |
| (0521b4) | 술와시니 종용히 잘 드르시쇼. | 익 | 므스 일이읍관디 이대-도록 어 |
| (0620b5) | 엇더-ㅎ을고? 이러나 더러다 | 자네[네] | -게 맞디오니 홀 시 도케 ㅎ쇼 |
| (0624b4) | ㅎ니 엇더-ㅎ고? 아프리커나 | 자네 | 맛당-홀 대로 ㅎ읍소. 捷解新 |
| (0707a3) | 바드시과다 ㅎ야 알외니이다. | 자네 | 스설-흔는 배 난남치 筑前殿의 |
| (0914a5) | 두로 쓰리시물 미더습닌이다. | 자네 | 말슴-것치 ㄹ장 보드랍고 쏘 |
| (0916b6) | 샤-ㅎ시물 一入 미더습닌이다. | 자네 | 나토 저므셔 뵈고 말견도 ㄹ쑈 |
| (0912b1) | 카읍소. 이전의도 내 여기 와서 | 자네 | -네 指南을 어더 저기 말도 ㅎ |
| (0918b1) | 1-도록 뒤호로 므느는 듯 ㅎ여 | 자네 | -네 日本말 ㅎ시물 드르면 드 |
| (0106b5) | -도록 거르기 니르디 아니셔도 | 자네 | 처엄 일이신 거시니 代官들히 |
| (0707b6) | 아프리커나 나 ㅎ는 대로 ㅎ소. | 자네 | 극진-ㅎ신 바는 서울 가서 筑前 |
| (0603a6) | 1는 物에 비-ㅎ면 바늘 굿티오 | 자네 | 슈고와 폐는 비-ㅎ기 어려오니 |
| (0107a3) | 시디 아냐는 못 홀 일이어니와 | 자네 | 혼자 가셔도 인스당의 닛븐 디 |
| (0921a4) | 고 거르기 우소온 일이읍도쇠. | 자네 | 日本말 비화 시작-호미 게오 < |
| (0105a5) | 엇디 녀길 디 므옴의 걸리오니 | 자네 | -네 送使의 드려 가서 萬事를 |
| (0617a1) | 밧즈오면 오름과 혼 가지오니 | 자네 | 잘 아르셔 接待 ㅎ는 분-네-띄 |
| (0917a3) | 저므셔 뵈고 말견도 ㄹ쑈오니 | 자네 | -네 ㄹ특신 분 五六人만 계시 |
| (0110a4) | 경 二番 特送이 오는가 시브니 | 자네 | -네도 아읍소. 이 비는 므슴 빈 |
| (0902b6) | 니 닛일 브터 우리 ㅎ을 써시니 | 자네 | -네도 그리 아읍소. 어제는 불 |
| (0916b2) | 바탕으로도 싱각-ㅎ을 써시니 | 자네 | -네도 내 망발-홀 디라도 샤- |
| (0708a6) | 줄을 부러 御禮을 술을 써시니 | 자네 | 일홈은 무어신고 싱각-ㅎ야 禮 |
| (0804a4) | 을 예지이 보내노라 ㅎ여시니 | 자네 | 이 밧기 어려운 差別을 잘 아 |
| (0719b2) | 을 디 보시는 날 홈의 ㄹ쑈올 디 | 자네 | 그 쯤을 드저오려 싱각 ㄹ쑈 양 |
| (0711a2) | 나 내는 일이나 이셔야 ㄹ쑈 디 | 자네 | 아라 ㄹ쑈 양으로 ㅎ쇼. 이러로 |
| (0809a1) | 일이 못 될다 니르시면 출하리 | 자네 | 바다셔 슈고-ㅎ던 對馬島 사름 |
| (0908b6) | 아니 ㅎ오니 이리 술은 우회관 | 자네 | 홀 대로 ㅎ쇼셔. 비록 내나 ㅎ |
| (0623a5) | 그러도 홀 듯 ㅎ면 路次의 일란 | 자네 | -게 맞딜 거시니 보슬퍼 아프 |

| | | | | |
|----------|--------------------|------|--|---------------------|
| (0904b4) | 오려 싱각거니와 朝鮮 料理면 | 자네 | | -네 뜻에 드디 아닐까 의심-ㅎ |
| (0920b1) | 常常 이룰 뉘오출 만흔 날을 | 자네 | | 니르시는 바는 日本말을 비-홀 |
| (0818b4) | 江戸 奉行의로서 보낸 金子를 | 자네 | | 되신 사름의-게 네물을 ㅎ오니 |
| (0919a6) | 아프려나 마르치시과자. 어와 | 자네는 | | 우은 사름이로쇠. 홀리는 籠具 |
| (0825a3) | -도록 스양코져 너겟드니마는 | 자네도 | | 멀리 슈고-ㅎ야 겨시니 祝願 |
| (0717b2) | 도 싱각 대로 ㅎ시게 알외쇼셔. | 자넹 | | -네도 처음으로 보오완마는 兩 |
| (0116b5) | 러커니와 書契를 내 친히 보고 | 자넹 | | -네 姓名을 아라 釜山浦에 슬오 |
| (0420a1) | 리 숯는 일은 다 슈지 사르시고 | 자넹 | | -네 맛당-홀 쏜 몬져 ㅎ시는고 |
| (0408b1) | 홀찌 三隻-도록 엇더-ㅎ을고? | 자넹 | | -네 借船이란 미쳐 보내여도 |
| (0425b1) | 름이나 마쇼나 엇디 건덕을고? | 자넹 | | -네도 아르심도 겨시리. 오로 |
| (0524b2) | 그리 아르시게 잘 주션-ㅎ시쇼. | 자넹 | | -네는 日本 풍속을 미리 아르 |
| (0215b5) | 나도 代官의 사름을 보내거니와 | 자넹 | | -네도 나실 제 니르고 가옵소. |
| (0132a1) | 는 내 스스로 숯는 말이어나와 | 자넹 | | -네도 헤아려 보시소. 客人이 |
| (0413a2) | 러타 이러타 숯든 아니커니와 | 자넹 | | -네도 時分과 公木 감시 상히 |
| (0506a5) | 니문 “슈고로이 건너 오시도쇠. | 자넹 | | -네 口上 道理 ㅈ서히 註進ㅎ |
| (0414a6) | 르시는 바 아프려도 不審ㅎ외. | 자넹 | | -네 걸터 니르심과 우리 싱각 |
| (0311a1) | -ㅎ엿건마는 이도 쏘 먹소오니 | 자넹 | | -네도 이제란 이 마티 다 자옵 |
| (0130b3) | 正官 昨晚 브터 병 드럿소오니 | 자넹 | | -게 다시 술을 스이도 업스매 |
| (0131b3) | 라는 녀기디 아니 ㅎ실 겨시니 | 자넹 | | 그르다는 아니 ㅎ실 듯 ㅎ오리. |
| (0503b2) | 을 불의예 막켜 건네여 겨시니 | 자넹 | | -네 이 뜻을 東萊의 엿즈와 부 |
| (0419b2) | 이 우히는 다른 묘리도 업스니 | 자넹 | | -네 ㅎ실 대로 ㅎ옵소. 엇디 ㅎ |
| (0124a3) | 가옵소. 나도 미쳐 그리 가오리. | 자넹 | | 보시드시 방새 파락-ㅎ야 누추 |
| (0526b6) | 는 道理 극진히 엿즈와 보오리. | 자넹 | | -네 디답이 불셔 겁-ㅎ는 양이 |
| (0118b6) | 는. 하 니르시니 ㅎ나 먹소오리. | 자넹 | | 말이 對馬島셔 聞及ㅎ드시 잘 |
| (0522b5) | 양으로 너기니 이러모로 미리 | 자넹 | | -네-의 쇠아기를 조지니 그리 |
| (0104b5) | 먹음 브티시물 미더습디. 아직 | 자넹 | | -네 앓흔 극진이 니르시니 뜻 |
| (0812a4) | 는 다만 앓가 니르시는 양이면 | 자넹 | | -게 맞디오리. 藍島 宿所에 太 |
| (0412a3) | 나와 公木의 大切히 되야시문 | 자넹 | | -네도 아르심 겨시리. ㅈ뭇 各 |
| (0317a2) | 먹건마는 상히 못 ㅎ고 오늘은 | 자넹 | | -네로 ㅎ여 主人의 도리를 출 |
| (0324a6) | 고티디 아니 ㅎ니 五日 雜物은 | 자넹 | | -네 十日 二十日 무거 도라 |
| (0419a2) | 엇더케 너기시는고? 代官들흔 | 자넹 | | -네 하 다스리시고 쏘 우리-게 |
| (0402a6) | 는 官人 대되 過怠에 밋는 바는 | 자넹 | | -네도 아르실 쏜 아니라 兩國 |
| (0414a2) | 公木의 一 束도 마트니 업스물 | 자넹 | | -네 눈에도 보실디 어히 엇다 |
| (0118b1) | 니 오니 마르쇼셔. 對馬島셔도 | 자넹는 | | 上口 신 줄 聞及ㅎ엿소니 ㅈ |
| (0126a2) | 히 東萊가 극진이 슬오려니와 | 자넹도 | | 單字를 써 보내옵소. 글란 그리 |
| (0123b3) | 의 나도 사름을 보내올 겨시니 | 자넹도 | | 小通事를 몬져 보내여 보고 가 |
| (0422a1) | 나도 드릴 겨시니 엇더-ㅎ을고? | 자넹의 | | 여러 말을 듯건대 아프리라도 |
| (0405a3) | 이오니 우리도 公木을 굴히여 | 자브면 | | ㅎ 가지옵도쇠. 오늘은 싱각 밋 |
| (0421b1) | 五十束을 束으로 굴히여 반만 | 자브시면 | | 그 밋근 念을 드려 넉일이라도 |
| (0410b4) | 나도 아올쇠. 그 안해도 一束에 | 자블 | | 公木이 十端 남죽이 드럿고 니 |
| (0410b6) | 죽이 드럿고 나쁘니는 一端도 | 자블 | | 公木이 업스외. 이런 公木은 아 |
| (0418b4) | 十端-式 굴히여 내면 十束을 | 자블 | | 썸시니 判事네 엇더케 너기시 |
| (0316a6) | 르시느니이다. 술을 ㅎ 가지로 | 자션마는 | | 御手前 面上의는 酒氣 一切 업 |
| (0318b3) | 안갓습느이다. 日本 도흔 술을 | 자시다가 | | 이 술의 취-ㅎ실가? 싱심이나 |
| (0118a2) | 밤이 드러시니 아직 御酒 ㅎ나 | 자옵소 | | . 下口 오니 마르쇼셔. 對馬島 |
| (0311a2) | 자넹-네도 이제란 이 마티 다 | 자옵소 | | . 싱심이나 어이 남기고 머그리 |
| (0305b4) | 나 시버 뵈니 이 잔으란 브디 다 | 자옵소 | | . 엇디 남기령잇가? 본디 먹디 |
| (0606a6) | 園을 두엿습더니 게 가서 茶를 | 자옵시고 | | ㅎ 빼 수여 가옵시면 나 드린 |
| (0309b5) | 다. 안자셔 禮 어려오니 당테로 | 잔 | | 쏜 들기를 禮를 삼습새. ㅈ장 |
| (0310b3) | 가는 客人을 위-ㅎ야 고디시기 | 잔 | | -마다 다 먹고 몬져 취-ㅎ엿건 |
| (0311b1) | 나? 늦출 보쇼셔. 머그라 니르신 | 잔 | | -마다 먹습고 正體 업습건마는 |
| (0306a6) | 나니 ㅎ오니 권키 어렵습것마는 | 잔 | | 잡는 양을 보오니 어내 잘 ㅎ시 |
| (0306b4) | 니 어내 잘 ㅎ시는 술이옵도쇠. | 잔수는 | | 디낫소나 일등 立酌ㅎ실 썸 |
| (0305b4) | 개 잔을 남기는가 시버 뵈니 이 | 잔으란 | | 브디 다 자옵소. 엇디 남기령잇 |
| (0305b2) | 술을 양도 업서이다. 예셔 보매 | 잔을 | | 남기는가 시버 뵈니 이 잔으란 |
| (0710b6) | ㅈ작시면 그 거조는 엇디 홀고? | 잔이나 | | 내는 일이나 이셔야 도홀 디 자 |
| (0207a2) | 그러커니와 나의 스스스 정윳 | 잔이오니 | | 이 一杯만 잡습소. 大切의 御 |
| (0718b4) | 이로소이다. 그러면 上下 대되 | 잔채 | | -홀 일로 깃터니 업시 모시게 |
| (0327b3) | 심상티 야나 奇特흔 相指를 다 | 잘 | | ㅎ더라 기리시니 우리 듯기도 |
| (0317a1) | 오니 술과 거동이 ㅈ즈와이다. | 잘 | | 못 먹건마는 상히 못 ㅎ고 오늘 |

| | | | |
|----------|--------------------|-----|--------------------|
| (0306b2) | 카는 잔 잡는 양을 보오니 어내 | 잘 | 흥시는 술이 읊도쇠. 잔수는 다 |
| (0524a6) | 니피려 흥오니 그리 아라시게 | 잘 | 쥬션-흥시소. 자늑-네는 日本 |
| (0617a1) | 오면 오름과 흥 가지오니 자네 | 잘 | 아라셔 接待 흥는 분-네-의 禮 |
| (0209b1) | 는 前規에 잇는 일이니 判事네 | 잘 | 드르시소. 과즐도 늦게 괴왔고 |
| (0404a4) | -게도 申숨 흥여 隨分 念入 흥여 | 잘 | 드라 건넨 양으로 닐렸습닌. 나 |
| (0524b5) | 오니 내 술오매 기드로디 말고 | 잘 | 쥬션-흥야 씨림 업게 직간-흥 |
| (0411a4) | 외. 이런 公木은 아모만 드러도 | 잘 | 잡디 못 흥 거시니 수이 내여 가 |
| (0319a4) | -흥옛스오니 방의 도라 가기도 | 잘 | 못 흥가 너기노이다. 이러트시 |
| (0312a3) | 長老는 樣體 사름의 넘고 술도 | 잘 | 흥 쏘 아니라 글 잘 흥매 朝廷 |
| (0912b6) | 흥니 心中에 숨고져 흥는 일도 | 잘 | 숨디 못 흥고 알고도 無道히 된 |
| (0128a2) | 쥬셔 브터 쏘 병 드러 머글 찢도 | 잘 | 못 먹고 누옛스오니 나디 못 흥 |
| (0309a4) | 니 그려흥온 디 분디 오래 서기 | 잘 | 못 흥으와 술왔습써니 自由히 |
| (0426b3) | 논고? 그저 헤아리실 앞피오니 | 잘 | 헤아려 모츨시과다. 그리 니르 |
| (0119a2) | 나니 말이 對馬島셔 聞及 흥디시 | 잘 | 通 흥시니 아릅답스외. 내 말을 |
| (0208b6) | 면 이룰 가지고 ㅁ장 머검즉이 | 잘 | 달호련마는 엇디 흥 디 예는 달 |
| (0521b1) | 지 오소 흥여 술와시니 종용히 | 잘 | 드르시소. 익 므스 일이 읊판디 |
| (0312a4) | 넘고 술도 잘 흥 쏘 아니라 글 | 잘 | 흥매 朝廷으로서도 書契마다 |
| (0808a3) | 거니와 문제 브터 숨던 道理를 | 잘 | 싱각-흥여 보시소. 江戸에 반 |
| (0715a2) | 켜시니 그 저기 御禮 술을 줄을 | 잘 | 아라셔 도흥 양으로 술와 주쇼 |
| (0804a6) | 니 자네 이 밧기 어려운 差別을 | 잘 | 아라셔 奉行네-의 극진히 닐러 |
| (0209a3) | 카는 엇디 흥 디 예는 달호기를 | 잘 | 못 흥여 이러-흥니 허를 마르 |
| (0406b1) | 判事네과 싸흥가 너기오니 ㅁ장 | 잘 | 출히읍소. 요스이 빅 가는 디 |
| (0307a3) | 읍시드시 오래 병 드으와 이제 | 잠깐 | 흥련스오되 다리 힘이 업스와 |
| (0410b1) | 흙 사오나움을 니르읍소. 예셔 | 잠깐 | 보와도 아올쇠. 그 안해도 一 |
| (0126b4) | 가 요스이 편티 아나 흥시더니 | 잠깐 | 흥려 겨시니 二三 日 內에 흥 |
| (0416a3) | 十 束 드린 公木을 半分도 아니 | 잡고 | 나여 가라 흥논고? 흥갓 내히 |
| (0306a6) | 흥오니 권키 어렵습것마는 잔 | 잡는 | 양을 보오니 어내 잘 흥시는 술 |
| (0411a4) | 이런 公木은 아모만 드러도 잘 | 잡디 | 못 흥 거시니 수이 내여 가읍소 |
| (0409b5) | 五十 束 드련스오니 나 가 보와 | 잡습소 | . 이 公木이 엇디 이러트시 사 |
| (0417b4) | 헤아려 도흥 구즘을 군말 업시 | 잡습소 | . 아므리 니르셔도 이 公木을 |
| (0207a3) | 스스 정윳 잔이오니 이 一杯만 | 잡습소 | . 大切의 御意오니 예셔 죽스와 |
| (0509b6) | 음데. 그리 아라 기드리읍소. 그 | 장게 | 返事 왔습닌. 구-흥시는 대 |
| (0831b1) | 로 太守 빅를 저어 나아 서르 | 장방 | 우희셔 손을 드러 이 번 일은 |
| (0527b5) | 드리려 흥올고? 信使를 모셔 갈 | 작시면 | 사름-마다 기려야 우리의 面目 |
| (0710b3) | 이다. 주세 아옵거이다. 흥면 볼 | 작시면 | 그 거조는 엇디 흥고? 잔이나 |
| (0422b2) | 어려울 양이오니 束의셔 굴릴 | 작시면 | 이대-도록 폐로이 읊스올가? |
| (0822b2) | 는 양으로 家中 건-들도 너길 | 작시면 | 옛-ㅁ지 극진-흙이 헤일 되을 |
| (0620b1) | 셔. 다만 너일 出船의 뒤버므릴 | 작시면 | 中官 以下란 올리디 말미 엇 |
| (0308a3) | 감격-흥여이다. 立酌을 흥실 | 작시면 | 일덩 禮를 背흥가 너기읍더니 |
| (0620a1) | 흥올가? 그대-도록 싱각-흥실 | 작시면 | 엇디 슈고로오매 걸리씨올고? |
| (0822a4) | 도 밧디 아니시고 御渡海 흥실 | 작시면 | 아므란 御意에 걸리신 일이나 |
| (0712a2) | 信使를 위-흥야 冠帶를 흥 | 작시면 | 信使도 冠帶를 흥셔야 도츠올 |
| (0616a4) | 흥까 시브다 흥니 새베 出船흥 | 작시면 | 못흥로셔 트노라 출히기에 出船 |
| (0529b2) | 오니 옷 옷술 보디 슬티 아니케 | 장만 | -흥이오려니와 그 모단은 너모 |
| (0527b3) | 므스 일로 불관-흥 거시라도 | 장만 | -흥여 드리려 흥올고? 信使를 |
| (0810b3) | 흥쇼셔. 또 大坂의 城도 거르기 | 장만 | -흥옛스오니 이도 구경-흥실 |
| (0208a6) | 건틀과 머글 거슬 다 머검즉이 | 장만 | -흥옛스오니 깃거 흥읍노이다. |
| (0706b4) | 작시면 우리의 그름이라도 흥고 | 장쥬 | 面目 업시 너길 꺼시니 아프려 |
| (0708b4) | 각-흥야 禮흥 제 술오려 흥닌. | 장쥬 | 돈돈이 분부-흥야 계시오니 것 |
| (0205b3) | 封進宴을 수이 흥올 씨시니 그 | 저기 | 아니 보올까? 그 띄는 병이 도 |
| (0715a1) | 이다. 수이 가 브틀 씨시니 그 | 저기 | 御禮 술을 줄을 잘 아라셔 도흥 |
| (0830a4) | . 빅를 타 띄워 信使 빅에 몬져 | 저어 | 나매 信使의로셔 웨여 니르 |
| (0831a5) | 띄여 말리는 故로 太守 빅를 | 저어 | 나아 서르 장방 우희셔 손을 드 |
| (0401b6) | 와 흥읍닌. 이 看品時 전 브터 | 저울 | 세니 느리니 出入에 差使員 쏘 |
| (0204a4) | 그러흥외. 正官은 섬으로써 올 | 적 | 브터 東萊 극진-흥시를 듯좁고 |
| (0420b3) | 스운 일을 시작-흥여 批判 이실 | 적은 | 소임의 죄는 관계티 아니나 代 |
| (0320a1) | 디 마르쇼셔. 쇼인 섬으로써 올 | 적의 | 오래 묵디 말고 수이 도라 오리 |
| (0705a1) | 前主 분부-흥시른 信使 디나실 | 적의 | 아프려나 디접-흥올 양으로 돈 |
| (0801b2) | 使의셔 격기에 나른 雜物 두실 | 적의 | 가지 가지 스양-흥오완마는 곳 |
| (0623b6) | 로논 것-들이 못히 느려 振舞 | 적이나 | 萬事に 보디 슬흔 일이나 이시 |

| | | | |
|----------|--------------------|-------|---------------------|
| (0528a3) | 의 面目도 이실디 行혀 批判홀 | 적이면 | 슈괴 허일이 될가 이러특시 구 |
| (0106a1) | -헝시를 미더 내 싱각-헝 일을 | 점치디 | 아니코 이리 술오니 언머 無調 |
| (0207b3) | 호리이다. 이 齣을 보쇼셔. 하 | 젓소이 | 너기으와 다 먹습니이다. 전의 |
| (0319b2) | 다. 이러특시 술을 너모 먹습고 | 젓스온 | 말습을 만히 헝온가 너기니이다 |
| (0704b4) | 니 使 아라 御禮를 술오시소. | 젓습거니와 | 알외닝이다. 筑前主 분부-헝시 |
| (0906a1) | 새와 너기실 디도 겨실까 ㄴ장 | 젓습거니와 | 다만 우리는 어리로운 얼굴과 |
| (0606a2) | 는 것도 업스온디 머므로옵기도 | 젓습건마는 | 이 구석의 다락 小園을 두엇습 |
| (0708b5) | 쉬 돈돈이 분부-헝야 계시오니 | 젓쑈오나 | 범남을 술왔더니 다시곰 다시 |
| (0215b5) | 을 보내거니와 자넨-네도 나실 | 제 | 니르고 가옵소. 代官들은 아랏 |
| (0523a4) | 主 술오디 信使 우다히 디나실 | 제 | 이틀 사흘 길흐로셔도 구경-홀 |
| (0412b3) | 세치 고크다 헝고 공스 오로 홀 | 제 | 안가-터로 나르시고 쉽디 못 |
| (0709a6) | 존닝이다. 信使 吉田에 留홀 | 제 | 島主과 昭長老 뵈옵며셔 信使 |
| (0708b2) | 홈은 무어신고 싱각-헝야 禮홀 | 제 | 술오려 헝니. 장쑤 돈돈이 분부 |
| (0717a4) | 무스허 오오니 이 우희는 아므 | 제라도 | 싱각 대로 헝시게 알외쇼셔. 자 |
| (0912b2) | 키기 와셔 자네-네 指南을 어더 | 저기 | 말도 헝더니마는 常常 쓰디 아 |
| (0416b6) | 는 업스오니 아므려나 思습헝셔 | 저기 | 不足홀 씨라도 분별 아니티 묻 |
| (0119b2) | 습거니와 고디 뚫든 아니 헝외. | 저기 | 아라 듯즈울쏸가? ㄴ장 춤히 通 |
| (0303b5) | 습고 글로 브터 알튼 가슴과 빅 | 저기 | 그쳐 점점 헝리는 듯 헝습건마 |
| (0423b2) | 서르 나르거니 디답거니 날을 | 저므를 | 쑤으로는 公儀는 되디 아니코 |
| (0916b6) | 一入 미덧습니이다. 자네 나토 | 저므셔 | 뵈고 말견도 도쑈오니 자네-네 |
| (0312b3) | ㄴ장 기리시고 쑈 島主도 나흔 | 저므셔도 | 萬事 長老의 떠디디 아녀 奇 |
| (0606b5) | 고 헝 빼 수여 가옵시면 나 드린 | 저믄 | 것-돌홀 띄놀려 뵈옵고져 헝닝 |
| (0219a1) | 뇨? 看品 後 연향-헝실디 날도 | 저믄 | 썩시니 수이 출혀 나쇼셔. 덕분 |
| (0525b6) | 朝鮮 풍속의는 사름의 불골도 | 저티고 | 상시 行儀를 웃듬-헝는 규귀오 |
| (0916a4) | 이옵쑈. 이 우희는 붓그림을 | 저티고 | 날-마다 와셔 우음 바탕으로도 |
| (0304a6) | 헝니이다. 그 약은 마즘 다 쓰고 | 적게 | 보내고 뵈에 걸려 헝습니. 都船 |
| (0113b3) | 셔 惡風을 만나 큰 빅에 격군도 | 적고 | 빅에 연장도 브딜-헝여 떠뎡스 |
| (0302b1) | 意를 背헝도다 너기습니이다. | 전 | 브터 드르니 병 드르시다 듯고 |
| (0825a6) | 시니 祝願 아니튼 못 홀 양으로 | 전 | 브터 나르심으로 이러나 더러 |
| (0819a2) | 을 헝오니 모로미 스양 마옵소. | 전 | 브터 습디시 우리는 몬 바들 즈 |
| (0401b6) | 니 아롭다와 헝습니. 이 看品時 | 전 | 브터 저울 세니 나르니 出入에 |
| (0426a4) | 키에 만나몬 관겨티 아니커니와 | 전두의 | 홀 시 一年 二年은 아니오 |
| (0905b3) | 브르든 若衆들회 연고 업기를 | 전위 | -헝엿습니. 行혀 이리 술오믄 |
| (0613a6) | 와 헝습닝이다. 밤이 붉디 아닌 | 전의 | 出船헝실 양으로 헝쇼셔. 司別 |
| (0617b3) | 일을 알고 信使-썩 습디 아닌 | 전의 | 色色이 스양-헝여도 이 격기- |
| (0804b5) | 호른 信使썩셔 나르시디 아닌 | 전의 | 奉行썩셔 이 樣子를 술오라코 |
| (0304b5) | 船主도 요스이 도히 겨시던가? | 전의는 | 처음으로 보옵고 그지 업서 헝 |
| (0208a1) | 소이 너기으와 다 먹습니이다. | 전의는 | 격기엿 거시 이러티 못 헝습디 |
| (0405b4) | 술술이 ㄴ츠니 大慶이옵도쑈. | 전의는 | 그러티 아니특니마는 이러나 |
| (0427b3) | 시니 아직 大廳의 드려 두옵소. | 전의도 | 大廳의 두어서 여러 필을 일허 |
| (0914b5) | 코 일ㄴ잡는디 쑈 말습-헝시는 | 전치라 | 이리 나르시는 일이다. 推量 |
| (0716b6) | 습시 慇懃히 무로시니 感激헝신 | 절츄를 | 술을 양도 업서이다. 덕쑤의 무 |
| (0303b6) | 브터 알튼 가슴과 빅 저기 그쳐 | 점점 | 헝리는 듯 헝습건마는 채는 도 |
| (0216b5) | 安도 즈로 습디 못 헝니 일딩 | 정 | 업슨 양으로 너기시는가 ㄴ음 |
| (0803b6) | 나몬 거시 이시니 출하리 이나 | 정으로 | 두엇더니 쑈 싱각 반썩 金子를 |
| (0830b3) | 나르몬 아프리 멀리 보내여도 | 정은 | 헝 가지니 그쳐 예셔 도라 가시 |
| (0207a2) | 쇼셔. 그러커니와 나의 스스 | 정윳 | 잔이오니 이 一杯만 잡습소. ㄴ |
| (0704a5) | 키 업고 이 밧괴는 바다도 빅도 | 조브니 | 바든 이과 헝 가지니 使 아라 |
| (0522b5) | 로 미리 자넨-네-썩 쇠아기를 | 조지니 | 그리 아르셔 信使썩 습기란 對 |
| (0520b2) | 인는 디도 녀녀-헝시모로 ㄴ장 | 조출 | -헝야 ㄴ음 편히 쉬오니 근심 |
| (0208a3) | 습더니 今度는 膳數器皿 以下 | 조출헝고 | 과즐과 건물과 머글 거술 다 머 |
| (0621b5) | 니 이 알프란 곳-헝여 습거든 | 조츠시미 | 웃듬이오닝이다. 쑈 中官 以下 |
| (0709a4) | 시니 민망-헝습건마는 行下를 | 존닝이다 | . 信使 吉田에 留홀 제 島主과 |
| (0821a2) | 썩셔 아니오니 아모리 헝여도 | 쑤디 | 몬 홀 일이다송이다. 쑈 二三 |
| (0420b5) | 키-헝여 批判 이실 적은 소임의 | 죄는 | 관계티 아니나 代官네 이러특 |
| (0426a2) | 르시미 前後의 업슨 일이니 내 | 죄예 | 만나몬 관겨티 아니커니와 전 |
| (0621a4) | -마다 빅에 나르시기 어렵기는 | 쑤오마헝고 | 나르디 아니 헝시면 겹기 사름 |
| (0920a4) | 이만 헝면 홀되 싱각-헝는 일 | 쑤곰도 | 업서 常常 이를 뉘오출 만헝는 |
| (0204a1) | 이다. 오늘은 折節 天氣도 도하 | 쑤용히 | 말습-헝니 겹거 헝습니. 그러 |
| (0616a2) | 별히 ㄴ름도 업고 ㄴ일도 天氣 | 쑤홀까 | 시브다 헝니 새배 出船홀 작시 |

| | | | |
|----------|--------------------|--------|--------------------|
| (0415b6) | 호여도 代官네도 아라시건마는 | 중시 | 올히만 너기시는 일은 어딴서 |
| (0521a1) | 심 마라시고 一二 日이나 디나 | 중용 | 커든 보옵새이다. 判事네-의 |
| (0326b5) | 시득시 오늘은 날도 도쿄 서러 | 중용 | -호여 우리도 깃거 호는이다. |
| (0326a5) | 들히 열현이 아니 호오리. 마즘 | 중용 | -호여 더령 이령 솟소오니 언 |
| (0218a4) | 습덕이다. 이제 쏘 보올 거시니 | 중용티 | 못 호외. 看品은 無事히 호오니 |
| (0307b6) | 예는 삼디 못 흘 썬시니 안자서 | 중용히 | 말슴-호옵새. 御意 감격-호여 |
| (0810a6) | 잇는가 시브오니 그리 아라서 | 중용히 | 호쇼셔. 쏘 大坂의 城도 거르기 |
| (0321a2) | 시면 덩-흔 연향-들도 다 못고 | 중용히 | 거시다가 가실 양으로 호옵소. |
| (0120b4) | 送使의 樣子를 솟고 올 거시니 | 중용히 | 쉬옵소. 닉일 나죄란 入舘호여 |
| (0521b1) | 쵸예-썬지 오소 호여 슬와시니 | 중용히 | 잘 드르시소. 이 프스 일이관 |
| (0823a3) | 亭主의-게 맞디시고 아직 아직 | 중용히 | 쉬시미 本望이옵도송이다. 御 |
| (0827a3) | 기 술올 양도 업소오니 오늘란 | 중용히 | 노르셔 祝願호시과다. 더 귀-흔 |
| (0217a2) | 결리옵닉. 심심이나 茶禮人 날 | 중용히 | 뵈옵고 니즌 스이 업시 僉官들- |
| (0907a1) | 심심호매 草草히 振舞에 各各 | 중용히 | 말슴 달란-호시니 亭主의 깃봄 |
| (0820b5) | 신 양 즈못 奉行의로서 온 거슬 | 주노라 | 호시는 배 감격-호옵기는 받고 |
| (0125a5) | 즈세히 더거 두옵소. 덩-호여 | 주는 | 거슬 술은 거시 아니라 別로 술 |
| (0619b4) | 쵸 내나 늬이나 민망-호믈 프러 | 주쇼셔 | . 호면 그러곰 호올가? 그대-도 |
| (0617a2) | 接待호는 분-네-썬禮를 슬와 | 주쇼셔 | . 니르시는 道理 맞당은 호옵거 |
| (0718a2) | 히도 도홀 양으로 御禮을 슬와 | 주쇼셔 | . 우호로서 “모되는 吉日이오니 |
| (0715a4) | 을 잘 아라서 도홀 양으로 슬와 | 주쇼셔 | . 關伯으로서 奉行으로써 信使 |
| (0701a6) | 오시다 호셔 덕담으로 下人을 | 주시게 | 호야 차반을 가지고 使者 왔 |
| (0325a1) | 이 출히올가? 쇼인-네는 출혀 | 주시는 | 양으로 가오려니와 아직 公木을 |
| (0303b1) | 이다. 病 中の 귀-흔 약을 만히 | 주시매 | 덕분의 먹습고 글로 브터 알튼 |
| (0806a6) | 니 원컨대 바드셔 下人의-게나 | 주시미 | 엇더-호올고 앓가 스썰-호시들 |
| (0809a3) | -호던 對馬島 사름-들화-게나 | 주시소 | . 信使 大坂의 브트시매 對馬島 |
| (0802b5) | 디 말고 아래 사름-들의-게나 | 주실 | 양으로 호옵쇼셔. 委細之 儀는 |
| (0323b2) | 오면 五日 雜物은 묵는 스이만 | 주실 | 썬시오니 이 나라 흔 페나 더올 |
| (0125b1) | 술 술은 거시 아니라 別로 슬와 | 주실가 | 호여 슬왔습닉. 그러호면 스스 |
| (0409a3) | 을 솟소오리. 아직 公木을 드려 | 주옵소 | . 그리 호옵소. 註進홀 거시니 |
| (0124b4) | 결과 공석 五六 枚만 몬져 드려 | 주옵소 | . 글란 이제 東萊 슬와 보내야 |
| (0407a1) | 오니 公木 五十 束만 몬져 드려 | 주옵소 | . 닉일 東萊 올라 가 모되-쓰음 |
| (0905a5) | 여 오옵새. 모드신 덕도 알외여 | 주옵소 | . 기둥의도 놀래 브르든 若衆들 |
| (0325a3) | 가오려니와 아직 公木을 드려 | 주옵시면 | 몬져 가는 비에 보내올까 너기 |
| (0207a6) | 잡습소. 大切의 御意오니 예셔 | 죽스와도 | 먹소오리이다. 이 蠶을 보쇼셔. |
| (0808b1) | 나 무거 슈고-호던 下人의-게 | 준 | 거슬 더러로서 아르리 닐러도 |
| (0118b1) | . 對馬島셔도 자넨는 上口 신 | 줄 | 聞及호엿소오니 斟酌 마옵소. |
| (0328a4) | 正根 업서 도라 오니 아프리 흔 | 줄도 | 모로올쇠. 그는 그러커니와 그 |
| (0429b2) | 나 흔 가지옵도쇠. 우리도 그런 | 줄은 | 모로든 아니컨마는 민망-호믈 |
| (0504b5) | 상히 아디 마옵소. 그러면 이런 | 줄은 | 모로고 맛조이면 너모 일오신가 |
| (0719a3) | 게 호라 호야 니르시오니 이런 | 줄을 | 솟녕이다. 그러면 進物을 來日 |
| (0708a3) | 前殿의 接待호 일과 이 차반 흔 | 줄을 | 부러 御禮을 술을 썬시니 자네 |
| (0715a1) | 브틀 썬시니 그 저귀 御禮 술을 | 줄을 | 잘 아라서 도홀 양으로 슬와 주 |
| (0526a4) | 규귀오니 엿줍기는 가지 가지 | 쥬션 | -호여도 맞당히 너기시디 아니 |
| (0524a6) | 피려 호오니 그리 아라시게 잘 | 쥬션 | -호시소. 자넨-네는 日本 풍속 |
| (0524b5) | 니 내 슬오매 기드로디 말고 잘 | 쥬션 | -호야 썬림 업게 지간-호시소. |
| (0105a6) | 네-네 送使의 드려 가셔 萬事를 | 쥬션 | -호야 나의 싱소를 나타나디 |
| (0415a5) | 실까? 早速 못디 못 호면 飛船 | 즈음에 | 맞디 몬 흘 썬시니 힘 쓰옵소. |
| (0819a2) | 전 브터 솟드시 우리논 몬 바들 | 즈음이오니 | 그리 아옵소. 쏘 海上 遠路에 |
| (0513a5) | ? 우리논 오늘 타 띄워 기드릴 | 즈음이옵도쇠 | . 올스외. 닉일은 天氣예는 붓 |
| (0716b4) | 솟는 일이로송이다. 어와 어와 | 즉시 | 慰懃히 무로시니 感激호신 결 |
| (0519b3) | 堵호영이다. 對馬島主의 使 | 즉시 | 와셔 太守 솟는 바는 보오믈 슬 |
| (0109a3) | 見의논 못디 아니 호여도 뵈면 | 즉시 | 釜山浦로서 우리-게 기별을 니 |
| (0915b1) | 다 여귀 와셔 말슴이나 호시면 | 즉시 | 싱각 대로 되오몬 쉬올 썬시니 |
| (0710a4) | 니 來日은 三島의 가실 썬시니 | 즉제 | 아니 보디 몬 흘 일을 아라시게 |
| (0609a2) | 모로거니와 풍뉴과 어우러-더 | 즐거오미 | 그 업서 글로 호여 蠶을 즐겨 |
| (0609a4) | 거오미 그 업서 글로 호여 蠶을 | 즐거 | 어즐-호여 正體 업스와 상을 |
| (0424b4) | 五日 雜物 드리기에 스나히는 | 지고 | 겨집은 이고 날-마다 드리는 |
| (0326b2) | 호여 더령 이령 솟소오니 언머 | 지리히 | 너기옵시논고 싱각-호는이다. |
| (0908a4) | 온 次第옵썬디 쏘 회레라 일흠 | 지어 | 프스 일을 호려 호시옵논고? 못 |
| (0604b5) | 일이오니 終日 노르시고 내 집 | 지은 | 것도 두로 보시고 느즉-호여 |

| | | | |
|----------|--------------------|----------|--------------------|
| (0602b4) | 다. 극진히 니르심이로송이다. | 진실로 | 兩國 靜謐히 誠信을 닳가 이려 |
| (0818a2) | 서로 同前히 깃븐 디로송이다. | 진실로 | 太守 路次 處處의 슈고-흥신 精 |
| (0826b1) | 가오리. 오늘은 마즘 天氣 도하 | 진실로 | 遠路에 나라 일을 못고 三使을 |
| (0919b6) | 쇠. 엇디 이리 괴롱-흥시논고? | 진실로 | 나도 日本말을 니겨 시작-흥여 |
| (0920a3) | 이제 불셔 十年나마 되야시되 | 진실로 | 이만 흥면 홀되 생각-흥논 일 |
| (0828a5) | 와 어와 慰懃흥 宴席이옵도쇠. | 진실로 | 닐르시드시 兩國 誠信之 故로 |
| (0814b2) | 그러면 더욱 더욱 아롬답스외. | 진실로 | 먼 海上의 예-식지 오믄 우리 |
| (0607a6) | 이다. 色色의 慰懃을 꾸미시니 | 진실로 | 식양코져 흥건마는 드리신 사 |
| (0914b2) | 고 쏘 인스당 흥시는 말 거동이 | 진실로 | 日本 토포니 다곰다곰 괴특다 |
| (0105b3) | 타나디 아닐 양으로 미덧습니. | 진실로 | 오늘은 처음으로 극진-흥시 |
| (0204b4) | 더니 도흔 일은 多魔라 니르미 | 진실로이로소이다 | . 오늘은 이러트시 디점-흥시 |
| (0408b6) | 내여도 도홀가 너기옵니. 보낼 | 짐을 | 출혀 보와 다시 괴별을 숲시오 |
| (0508a5) | 옵니. 며출만의나 返事 올고 | 짐작이 | 계실 썬시니 니르옵소. 듯줍새. |
| (0604b5) | 의 일이오니 終日 노르시고 내 | 짐 | 지은 것도 두로 보시고 느즉-흥 |
| (0608b1) | 하 극진-흥시매 멈쳐 쏘 귀-흥 | 짐 | -괴지 경의 도홀이 빗을 펴고 |
| (0216b2) | ? 엇디 흥 디 일이 만하 問安도 | 조로 | 숲디 못 흥니 일덩 정 업슨 양 |
| (0314a1) | 이-마다 올라 가느니이다. 어와 | 조로 | 우다히 오로느리기 御大儀흥 일 |
| (0903b1) | 니 생각 밧의 御馳走 쏘 아니라 | 조못 | 큰 술에 正體 업서 니르섬도 |
| (0605b2) | 終日 아롬다운 御雜談 듯줍고 | 조못 | 거룩-흥 술을 흥고 나그네 시 |
| (0412a4) | 이른 자넌-네도 아롬심 거시리. | 조못 | 各官으로써 東萊 時分도 혜 |
| (0420a4) | 을 풀고 곁히여 낸 일이 업슨디 | 조못 | 앗가 숲드시 이 스이 各官으로 |
| (0820b2) | 더니 色色 御慰懃히 니르신 양 | 조못 | 奉行으로써 온 거슬 주노라 흥 |
| (0714a6) | 브트실 썬시니 御對面흥셔야 | 조서히 | 술오려 흥 일이로소이다. 두 분 |
| (0832b5) | 今度 슈고-흥신 양은 朝廷의도 | 조서히 | 엇조령이다. 捷解新語 第八 |
| (0506b1) | 오시도쇠. 자넌-네 口上 道理 | 조서히 | 註進흥여시니 쉽사리 返事 술 |
| (0710b2) | 아르시게 흥야 案内 숲닝이다. | 조세 | 아옵거이다. 흥면 불 작시면 그 |
| (0410a4) | 러트시 사오납스온고? 다 도라 | 조세 | 보시고 도홀 사오나옴을 니르 |
| (0409b1) | 이니 비 갈 빼에 아프 비라 흥여 | 조세 | 더거 보내옵소. 그리 흥오리. 소 |
| (0907b1) | 먹고 아프리 흥여 도라 가심도 | 조세 | 몰라 內內 이러로서 술을 썬 |
| (0210a2) | 습는가? 우리도 이런 일을 어이 | 조세 | 아울고? 일 모로는 것-들이 일 |
| (0125a3) | 내야 드릴 양으로 흥오려니와 | 조세히 | 더거 두옵소. 덩-흥여 주는 거 |
| (0428b6) | 키기시거니와 이 樣子도 送使의 | 조세히 | 니르디 아니티 몬 홀 썬시모 |
| (0525a1) | 말고 잘 주션-흥야 썬람 업게 | 지간 | -흥시소. 니르시는 道理 一一 |
| (0403a5) | 를 正官도 분별 두서 氣味 도케 | 지간 | -흥옵소. 니르시는 바 判事니- |
| (0329a5) | 나 看品坐의셔 드토디 아니케 | 지간 | -흥옵소. 捷解新語 第三 終 捷 |
| (0906b2) | 름이오니 의심도 업술 양으로 | 지간을 | 미덧습닝이다. 어제는 하 심 |
| (0312b6) | 長老의 떠디디 아녀 奇特흥 | 지간이라 | 니르니 우리도 듯고 7장 아 |
| (0117b1) | 리 흥여 몬 흥오리. 書契의 흥 | 지라도 | 어근나면 아프의 흥도 도티 아 |
| (0607b2) | 코져 흥건마는 드리신 사 | 지조를 | 보라 흥시니 이를 보려 위-흥 |
| (0719b2) | 는 날 흥씩 도싸울 디 자네 그 | 짐을 | 드저오려 생각 도홀 양으로 괴 |
| (0708a3) | 가셔 筑前殿의 接待흥 일과 이 | 차반 | 흥 줄을 부러 御禮을 술을 썬 |
| (0701b2) | 덕담으로 下人을 주시게 흥야 | 차반을 | 가지고 使者 왓스오니 어렵 |
| (0621a4) | 맞디오니 흥 시 도케 흥쇼셔. | 참 | -마다 비에 느리시기 어렵기는 |
| (0702a3) | 브 그러흥온가? 筑前殿 地界 두 | 참이 | -도록 거르기 격기-흥신디 흥 |
| (0704a1) | 도 무식-흥거니와 고을로서 두 | 참이 | -도록 多人 中の 격기 난분 디 |
| (0618a2) | 셔 信使 겨실 디도 극진이 흥고 | 참참이 | 못히 請흥여 振舞도 홀 양으로 |
| (0304a2) | 쳐 점점 흥리는 듯 흥옵건마는 | 채는 | 도티 아니 흥오니 이제라도 넘 |
| (0106b5) | 거르기 니르디 아니셔도 자네 | 처엄 | 일이신 거시니 代官들히 모시 |
| (0401a4) | 新語 第四 오늘은 看品에 브터 | 처음으로 | 보옵고 아롬다와 흥느이다. 니 |
| (0717b2) | 르 흥시게 알외쇼셔. 자넌-네도 | 처음으로 | 보오완마는 兩國 誠信之 道 |
| (0206a4) | 령잇가? 巡杯는 디낫습거니와 | 처음으로 | 보옵고 하 섭섭흥오니 쏘 흥 |
| (0401b2) | 아롬다와 흥느이다. 니르시드시 | 처음으로 | 御對面흥오니 아롬다와 흥옵 |
| (0305a2) | 고 그지 업서 흥옵데. 御意 7티 | 처음으로 | 뵈오디 하 극진히 디점-흥옵 |
| (0105b5) | 으로 미덧습니. 진실로 오늘은 | 처음으로 | 극진-흥시를 미더 내 생각-흥 |
| (0304b5) | 요스이 도히 거시던가? 전의는 | 처음으로 | 보옵고 그지 업서 흥옵데. 御意 |
| (0103a3) | 소. 나는 소임으로 왓습거니와 | 처음이옵고 | 또는 싱소-흥 거시오니 各各 |
| (0111a5) | 을 빼 無事히 왓습거니와 비 흥 | 척이 | 떠덧소오니 글로 흥여 근심-흥 |
| (0826b1) | 遠路에 나라 일을 못고 三使을 | 청 | -흥야 하디-흥는 양 아롬다 |
| (0516b4) | 흥도 그리 보와시니 信使의셔도 | 최촉 | -흥셔 이제 비를 내옵니. 對馬 |
| (0906a5) | 어리로운 얼굴과 놀래를 듯고 | 촉슈만 | 위-홀 썬름이오니 의심도 업 |

| | | | |
|----------|-------------------|------|--------------------|
| (0614a5) | 이러트시니 大慶이로송이다. 아직 | 출형의 | 이러트시 도흔 날을 만나시니 |
| (0828b6) | 아름다이 너겨 술-들도 불셔 | 취 | -하야소오니 도라 가고져 하닝 |
| (0310b4) | 디시기 잔-마다 다 먹고 문져 | 취 | -하엿건마는 이도 또 먹소오니 |
| (0318b4) | 本 도흔 술을 자시다가 이 술의 | 취 | -하실가? 싱심이나 그러튼 아 |
| (0909b6) | 이읍도쇠. 昨夜는 우리도 술의 | 취 | -하여 싱각디 못 하거니와 더 |
| (0319a1) | 심이나 그러튼 아녀이다. ㄹ장 | 취 | -하엿소오니 방의 도라 가기도 |
| (0318a5) | 다 니르시니 그러하온 디 ㄹ장 | 취 | -하오되 正根을 계요 출혀 안 |
| (0913b2) | 거시라 흥 보심을 싱각-하면 | 측 | -하건마는 힘 대로 못 하고 붓 |
| (0717b6) | 兩國 誠信之道 ㄹ란디 心中의 | 친 | -하야 아름다왕이다. 우히도 도 |
| (0116b4) | 소. 그는 그러커니와 書契를 내 | 친히 | 보고 자넹-네 姓名을 아라 釜山 |
| (0325b2) | 글란 그리 하읍소. 木綿은 내 | 친히 | 보와 ㄹ장 吟味하여 드릴 거시 |
| (0125b5) | 스로이 여들 일은 아니오니 내 | 친히 | 東葉 가 극진이 술오려니와 자 |
| (0430a3) | 츠마 니르시니 그지 업스매 내 | 친히 | 番을 홀 디라도 밤-새물 기도 |
| (0907b5) | 도 술의 타스로 떠덧습더니 또 | 친히 | 와 겨셔 너모 慇懃하신 御禮 도 |
| (0212a6) | 의 엿즈와 催促하여 보내오리. | 친히 | 보와 술을 말이 만컨마는 요스 |
| (0718b2) | 吉日이오니 信使씨 뵈을 양을 | 친히 | 가 기별을 술오라.” 혼 일이로 |
| (0206a6) | 로 보옵고 하 섭섭하오니 또 혼 | 츠레 | 하읍새. 쇼인-네는 본디 못 먹 |
| (0214a3) | 하여 민망-하외. 送使를 보셔도 | 츠레로 | 보시면 뉘 雜言하올고? 우리는 |
| (0114b6) | 소. 열현이 마르시고 닉일 부부 | 츠즈쇼셔 | . 그리 하올 거시니 막음 편히 |
| (0218b2) | 은 無事히 하오니 아롬답스외. | 츄 | 날의 오래 안자 게셔 언머 슈고 |
| (0803b6) | 서 마즘 雜物 나쁜 거시 이시니 | 츄하리 | 이나 정으로 두엇더니 또 싱각 |
| (0809a1) | 로 보낼 일이 못 될다 니르시면 | 츄하리 | 자네 바다셔 슈고-하던 對馬島 |
| (0831a2) | 쓰왕이다. 니르니 太守 술오른 | 츄하리 | 半程이나 모실 씨슬 信使씨셔 |
| (0418a6) | 별로 하염죽-흔 묘리도 업고 | 츄하리 | 이 五十束을 一束에 十端-式 |
| (0615a2) | -하논 낭반-돌히 방샤를 부려 | 츄혀 | 오르시게 굿-하야 니르오니 船 |
| (0318a6) | ㄹ장 취-하오되 正根을 계요 | 츄혀 | 안갓습는다. 日本 도흔 술을 |
| (0127a3) | 오리. 茶禮는 明日 하오니 미리 | 츄혀 | 겨시다가 나실 양으로 하쇼셔. |
| (0219a3) | 하실디 날도 저물 씨시니 수이 | 츄혀 | 나쇼셔. 덕분의 看品을 無事히 |
| (0324b6) | 열현이 출히올가? 쇼인-네는 | 츄혀 | 주시는 양으로 가오려니와 아 |
| (0408b6) | 도 도홀가 너기읍닌. 보낼 짐을 | 츄혀 | 보와 다시 기별을 솟소오리. 아 |
| (0317a5) | 자넹-네로 하여 主人의 도리를 | 츄혀 | 권-홀 양으로 왓소오니 그러 |
| (0719a5) | 다. 그러면 進物을 來日이라도 | 츄홀 | 디 보시는 날 홀씨 도쓰올 디 |
| (0616a6) | 船홀 작시면 못호로서 톱노라 | 츄히기에 | 出船도 더릴 씨시니 온갓 接待 |
| (0509a5) | 이나 되려니와 또 셔울셔 返事 | 츄히기에 | 二日三日이나 하면 더되여도 |
| (0328b5) | 看品 홀 씨시니 문져 代官네-씨 | 츄히라 | 닐러 두읍소. 그러면 모되 雨天 |
| (0324b4) | 당-흔 限-쓰지는 엿디 열현이 | 츄히올가 | ? 쇼인-네는 출혀 주시는 양으 |
| (0219b5) | 이제 나올 씨시니 게 일을 수이 | 츄히읍소 | . 捷解新語 第二 終 捷解新語 負 |
| (0406b1) | 네과 싸홀가 너기오니 ㄹ장 잘 | 츄히읍소 | . 요스이 빅 가는 디 보내려 상 |
| (0612a1) | 는 거시언마는 路次 處處의 일 | 츄힐 | 덧도 헤아려 아므 돌 아므 빅 |
| (0119b4) | 저기 아라 듯즈올쏸가? ㄹ장 | 츄히 | 通하읍시닌. 술란 하마 마읍소. |
| (0114b2) | 萊 釜山浦에 술와 方方 彼此의 | 츄즈올 | 거시니 근심 마읍소. 열현이 마 |
| (0407a6) | 쓰음 드리려니와 므슴 빅 몇 | 칙이나 | 가읍는고? 一特送 中歸船 一隻 |
| (0707b4) | 바다셔 홀 테도 업스니 아므리 | 커나 | 나 하논 대로 하소. 자네 극진- |
| (0133a4) | 섭섭이 너기실 거시니 아므리 | 커나 | 밤의도 養性하여 나실 양으로 |
| (0902b2) | 르시니 감격-하거니와 아므리 | 커나 | 우리 술온 일이오니 닉일 브터 |
| (0624b2) | 고져 하니 엿더-홀고? 아므리 | 커나 | 자네 맛당-홀 대로 하읍소. 捷 |
| (0822b6) | 헤일 되올가 너기오니 아므리 | 커나 | 出船 日란 亭主의-게 맞디시고 |
| (0426b6) | 야. 그리 니르시미 그르든 아니 | 커니와 | 우리도 하나 둘히셔 되디 못 홀 |
| (0413a1) | 업서 더러타 이러타 숲든 아니 | 커니와 | 자넹-네도 時分과 公木 감시 |
| (0426a3) | 내 죄예 만나쁜 관겨티 아니 | 커니와 | 전두의 홀 시 一年二 年은 |
| (0307b2) | 엿줍습닌. 前例는 그러티 아니 | 커니와 | 今度 안자도 禮예는 삼디 못 홀 |
| (0521a1) | 르시고 一二 日이나 디나 종용 | 커든 | 보읍새이다. 判事네-씨 마디 못 |
| (0806a6) | 도라 갈 일은 업스올 씨시니 원 | 컨대 | 바드셔 下人의-게나 주시미 엿 |
| (0429b3) | 우리도 그런 줄은 모로든 아니 | 컨마는 | 민망-호믈 뉘-게 니르올고? 그 |
| (0211a5) | 솟소오니 이 후란 이러티 아니 | 케 | 니르읍소. 圓座 帳枕 以下 物을 |
| (0623b1) | 시니 보슬퍼 아므 되도 폐 아니 | 케 | 아라 하쇼셔. 이리 솟는 밧기 |
| (0602a2) | 곰곰 싱각-하면 둥간티 아니 | 케 | 잇기 어려운 일인가 너기건마는 |
| (0529b1) | 이오니 옷 옷슬 보디 슬티 아니 | 케 | 장만-하이오려니와 그 모단은 |
| (0329a5) | 려나 看品坐의셔 도도디 아니 | 케 | 직간-하읍소. 捷解新語 第三 終 |
| (0914b4) | 日本 톱오니 다곰다곰 괴특다 | 코 | 일콧줍는디 또 말습-하시는 전 |

| | | | | |
|----------|--------------------|--------|--|---------------------|
| (0805a1) | 의 奉行의셔 이 樣子를 술오라 | 코 | | 닐러 왔던딕 몬져 이리 니르시 |
| (0508b4) | 홀 밤-낮 올라 갈 양으로 호라 | 코 | | 돈돈이 닐러 겨시니 그러호면 |
| (0903b3) | 體 업서 니려섬도 싱각 아니 | 코 | | 기리 안자시니 무식히도 호가- |
| (0609b1) | 여 正體 업스와 상을 서디 아니 | 코 | | 니러 나오니 무디히 너기디 마 |
| (0423b2) | 를 뿐으로는 公儀는 되디 아니 | 코 | | 이 민망을 비-홀 딕 업스외. 아 |
| (0106a1) | 내 싱각-흔 일을 점치디 아니 | 코 | | 이리 술오니 언머 無調法이 녀 |
| (0412a6) | 東萊 時分도 헤아리디 아니 | 코 | | 公木을 거르기 세치 고크온다 호 |
| (0813a1) | 의 호르도 惡風을 만나디 아니 | 코 | | 多人 中 아프 일도 업시 예-식 |
| (0825a1) | 다. 振舞홀 바는 되-도록 스양 | 코저 | | 너겼드니마는 자네도 멀리 슈 |
| (0607a6) | 慇懃을 꾸미시니 진실로 식양 | 코저 | | 호건마는 드리신 사람의 직조 |
| (0622a5) | 호여도 一人도 나쁘니 업시 請 | 코저 | | 호여 니르오니 그리 아라쇼셔. |
| (0113b3) | 가? 거의 다 와서 惡風을 만나 | 큰 | | 빅에 격군도 적고 빅에 연장도 |
| (0124b3) | 一 夜를 계유 堪忍호엿스오니 | 큰 | | 대 열과 공석 五六 枚만 몬져 드 |
| (0903b1) | 각 仗의 御馳走 뿐 아니라 즈뭇 | 큰 | | 술에 正體 업서 니려섬도 싱 |
| (0518a2) | 이렇이다. 예-식지 使者 감격 | 키 | | 너기농이다. 우리는 마즘 順風 |
| (0306a5) | 이다. 술이 도토 아니 호오니 권 | 키 | | 어렵습것마는 잔 잡는 양을 보 |
| (0705b4) | 下호시니 太守 드르셔도 過分 | 타 | | 호셔 感激히 녀기시울쇠. 쏘 이 |
| (0513a5) | 시라 니르옵는고? 우리는 오늘 | 타 | | 픽워 기드럴 즈음이옵도쇠. 올 |
| (0830a4) | -호야 비를 내다 호옵넌. 비를 | 타 | | 픽워 信使 빅에 몬져 저어 나매 |
| (0609b4) | 히 너기디 마르쇼셔. 이도 술의 | 타시로송이다 | | . 드른 信使의 御馳走 오면 心 |
| (0907b3) | 이러로셔 술을 써술 이도 술의 | 타스로 | | 떠뎡습더니 쏘 친히 와 겨셔 너 |
| (0133b3) | 호오리. 案內는 先通之 意 서어 | 탄 | | 말이라. 의지 업단 말이라. 거의 |
| (0412b4) | 다 호고 공스 오로 홀 제 안가- | 터로 | | 니르시고 쉽디 못 호를 어히 업 |
| (0424a3) | 곰곰 싱각-호여 보옵소. 送使는 | 텃텃 | | -호여 이러트시 되기 어려이 |
| (0915a3) | 量호거니와 붓그림으란 모로논 | 테 | | -호고 날-마다 여긔 와서 말습 |
| (0418a2) | 도 이 公木을 바다 아프려도 홀 | 테 | | 업스오니 代官들도 가지 가지 |
| (0707b3) | 밧디 아니미 아니라 바다셔 홀 | 테도 | | 업스니 아프리커나 나 호는 대 |
| (0818a6) | 홀 일지로송이다. 별로 인스-홀 | 테도 | | 업스니 江戶 奉行의로셔 보낸 |
| (0309a1) | ? 었디 홀 디 日本 사람은 肉食 | 테윗 | | 거술 먹디 아니 호오니 그러호 |
| (0711b5) | 구미 ㅁ장 섭섭홀 쏘 호오니 헛 | 튼 | | 안주로 디점-호시미 도홀까 시 |
| (0824a3) | 브러습더니 朝鮮 풍뉴를 브름 | 툼으로 | | 듯고져 브라오니 풍뉴-호는 사 |
| (0426b1) | 슨 일이니 내 죄에 만나든 관겨 | 티 | | 아니커니와 전두의 홀 시 一年 |
| (0420b5) | 뻬 이실 적은 소임의 죄는 관계 | 티 | | 아니나 代官네 이러트시 므옵 |
| (0817a6) | 올가 미뎡이다. 쏘 이거슨 귀 | 티 | | 아닌 겨시언마는 보내농이다. |
| (0417a1) | 저기 不足홀 씨라도 분별 아니 | 티 | | 몬 호실 일은 서르 時分과 갑식 |
| (0428b6) | 도 送使의 즈세히 니르디 아니 | 티 | | 몬 홀 씨시모로 今夜란 브딕 番 |
| (0505a4) | 르시는 말을 드르니 수이 아니 | 티 | | 몬 홀 일이오니 대테로이 아니 |
| (0425b4) | 오를 걸터 니르니 나라토 부디 | 티 | | 몬 홀 일은 公木을 端端이 고크 |
| (0602a2) | 스호는 일 곰곰 싱각-호면 둥간 | 티 | | 아니케 잇기 어려운 일인가 너 |
| (0126b2) | 으로 호옵소. 東萊가 요스이 편 | 티 | | 아냐 호시더니 잠깐 호려 겨시 |
| (0604a6) | 별을 듯고 定홀 써시오니 열현 | 티 | | 아니 호오리. 아직 오늘은 祝願 |
| (0327b1) | 셔 正官과 都船네 樣體 심상 | 티 | | 아냐 奇特호 相指를 다 잘 호디 |
| (0608a1) | 호닉이다. 接待의 馳走 심상 | 티 | | 아니시니 ㅁ뵈도 계실가 녀겨 |
| (0911b2) | 아옵소. 이리 술움이 내 편을 | 텃 | | ㅁ건마는 館中도 심심하매 이러 |
| (0616a6) | 새배 出船홀 작시면 못호로서 | 툼노라 | | 출히기에 出船도 더될 써시니 |
| (0829a4) | 니 도라 가고져 호닝이다. 빅에 | 툼노라 | | 호야 辰時에 判使네를 對馬島 |
| (0405b4) | 이옵도쇠. 전의는 그러티 아니 | 툼니마는 | | 이러나 더러나 니르신 대로 호 |
| (0513b5) | 吉日의 위-홈이니 寅時에 빅에 | 툼셔 | | 勘蠻夷-식지 가셔 브름을 기드 |
| (0615b1) | 심도 계실 써시니 이제 座船을 | 툼시키고 | | 오옵심을 밋줍닝이다. 격기-호 |
| (0512b3) | 쫓다 니르옵넌. 닌일은 信使 빅 | 툼실 | | 吉日이라 니르니 일뎡 그러호 |
| (0829b2) | 對馬島主게 보내야 이제야 빅에 | 툼오니 | | 선창ㅁ의 가 하딕 술움새 호고 |
| (0501b5) | 者는 뉘 와 겨신고? 아직 빅에 | 툼옵소 | | . 御使는 아미옵도쇠. 이리 드 |
| (0825a6) | 슈고-호야 겨시니 祝願 아니 | 툼 | | 못 홀 양으로 전 브터 니르심으 |
| (0914b2) | 호시는 말 거동이 진실로 日本 | 툼오니 | | 다곰다곰 기특다코 일ㅁ줍넌딕 |
| (0515b3) | (-식 그 나쁜 빅에는 二人-식 | 툼을 | | 써시니 이 道理 信使의 엇줍고 |
| (0124a5) | 리 가오리. 자넌 보시드시 방새 | 파라 | | -호야 누추-호니 一夜를 계유 |
| (0104b6) | 네 얹흔 극진이 니르시니 ㅁ을 | 퍼거니와 | | 또 送使다히셔는 엇디 녀길 디 |
| (0608b2) | -호 집-기저 경의 도홈이 ㅁ을 | 퍼고 | | 또는 어리로운 아회-둘의 ㅁ노 |
| (0605b3) | ㅁ-호 술을 호고 나그네 시름을 | 퍼니 | | ㅁ장 아릅다이 녀기닝이다. 호 |
| (0831b6) | 온 御禮 ㅁ에 나마 心底 대로는 | 퍼디 | | 못 홀송이다. 御渡海 아릅다이 |

| | | | |
|----------|--------------------|-------|--------------------|
| (0828b4) | 런 接待의 만나 海上의 시름도 | 편매 | 더욱 빠 아름다이 너겨 술-들5 |
| (0126b2) | 양으로 ㅎ읍소. 東萊가 요스이 | 편 | 티 아나 ㅎ시더니 잠깐 ㅎ려 겨 |
| (0614b4) | 만나시니 이 萬事 ㅁ음 | 편 | -ㅎ까 祝願 ㅎ녕이다. 接待예 3 |
| (0527a1) | ㅁ셔 겹-ㅎ는 양이로지 엇디 ㅎ | 편만 | 싱각-ㅎ시논고? 他國에 불골 ㅁ |
| (0911b2) | ㅁ 그리 아읍소. 이리 술움이 내 | 편을 | 팀 ㅁ건마는 館中도 심심 ㅎ매 |
| (0102b6) | 름답스외. 여긔 오락 읍소. 아직 | 편히 | 안줍소. 나는 소임으로 왓습겨 |
| (0115a3) | ㅁ쇼셔. 그리 ㅎ을 거시니 ㅁ음 | 편히 | 너기읍소. 正官은 ㅁ시온고? ㅁ |
| (0817a1) | 오니 허믈 마르시고 ㅁ장 ㅁ음 | 편히 | 쉬신 후의 祝願의 宴享도 ㅎ을 |
| (0520b4) | ㅎ시모로 ㅁ장 조출-ㅎ야 ㅁ음 | 편히 | 쉬오니 근심 마르시고 一二 日 |
| (0620a5) | -고? 이제 오로 올 ㅁ시니 ㅁ음 | 편히 | 싱각-ㅎ쇼셔. 다만 ㅁ일 出船의 |
| (0623b1) | 맛딜 거시니 보슬퍼 아르 디도 | 페 | 아니케 아라 ㅎ쇼셔. 이리 ㅎ는 |
| (0323b4) | 이만 주실 ㅁ시오니 이 나라 ㅎ | 페나 | 더올가 싱각-ㅎ는이다. 우리 ㅁ |
| (0603a6) | ㅎ면 바늘 ㅁ티오 자네 슈고와 | 페는 | 비-ㅎ기 어려오니 어긔 ㅁ 예 |
| (0522b2) | 朝鮮 家風이 ㅁ롭디 아닌 일을 | 페로울 | 양으로 너기니 이러모로 미리 |
| (0719b6) | 시소. ㅁ ㅁ린 사름-들토 다는 | 페로울 | ㅁ-ㅎ니 덜고져 ㅎ니 엇디-ㅎ |
| (0424a5) | ㅁ-ㅎ여 이러트시 되기 어려워 | 페로이 | 굴모로 東萊 ㅁ 百姓도 ㅁ디디 |
| (0422b3) | 束의셔 ㅁ월 작시면 이대-도록 | 페로이 | ㅎ스올가? 그저 그저 우리 ㅎ는 |
| (0522b2) | ㅁ쉬은 일이언마는 朝鮮 家風이 | ㅁ롭디 | 아닌 일을 페로울 양으로 너기 |
| (0619b2) | 는 양으로 니르미 민망-ㅎ오니 | ㅁ롭스오나 | 오르셔 내나 ㅎ이나 민망-ㅎ믈 |
| (0619a3) | 기 슈고롭스올 디라도 더-들히 | 페를 | ㅎ스되게 ㅎ도 어긔 업습고 우 |
| (0811b6) | ㅁ니와 ㅁ린 사름을 이렇 더렇 | 페를 | 싱각-ㅎ면 마라도 도홀 ㅁ ㅎ |
| (0803b2) | -고-ㅎ던 아래 사름-들희 별로 | 포 | -ㅎ 일도 업서 ㅁ즘 雜物 나믈 |
| (0825b5) | 나 맛당-ㅎ실 대로 ㅎ음새. ㅁ | 풍뉴 | -ㅎ는 사름은 엇디 ㅁ해 블러 |
| (0824a5) | ㅁ름 ㅁ으로 ㅁ고져 브라운이 | 풍뉴 | -ㅎ는 사름을 기티디 ㅁ고 더 |
| (0827a5) | ㅁ르셔 祝願 ㅎ시과다. 더 ㅁ-ㅎ | 풍뉴 | -들도 어긔 ㅁ고 거르기 ㅁ히 |
| (0609a2) | 는 양과 놀래 ㅁ은 모로거니와 | 풍뉴과 | 어우러-더 즐거오미 ㅁ 업서 |
| (0824a3) | ㅁ근 어미를 더브릿습더니 朝鮮 | 풍뉴를 | ㅁ름 ㅁ으로 ㅁ고져 브라운이 |
| (0523b1) | 구경-ㅎ 사름-들 모다셔 朝鮮 | 풍속은 | 아디 ㅁ ㅎ고 ㅁ회 브리시는 이 |
| (0524b2) | 쥬션-ㅎ시소. 자네-네는 日本 | 풍속을 | 미리 아르시는 이리오니 내 술 |
| (0525a6) | ㅁ당-ㅎ 일이읍도셔. 나도 日本 | 풍속을 | 아오니 이대-도록 세치 아니 |
| (0525b4) | ㅁ 열현히 ㅎ링잇가? 다만 朝鮮 | 풍속의는 | 사름의 불골도 ㅁ티고 ㅁ시 行 |
| (0619b4) | 오르셔 내나 ㅎ이나 민망-ㅎ믈 | 프리 | 주쇼셔. ㅎ면 그러곰 ㅎ올가? |
| (0130a3) | ㅁ져 니르실 디라도 내 迷惑을 | 프르시과다 | ㅁ. 니르시는 배 그러 ㅎ을거니와 |
| (0420a3) | ㅁ ㅁ져 ㅎ시논고? 네 브터 束을 | 플고 | ㅁ히여 내 일이 업스디 ㅁ믈 ㅁ |
| (0527a5) | 오면 그 ㅁ法은 모로고 내 나라 | ㅁ잔은 | 아니온가? 우리도 ㅁ小 ㅎ면 ㅁ |
| (0427b4) | 소. ㅁ의도 大廳의 두어셔 여러 | ㅁ을 | 일하시니 ㅁ ㅁ긔 두고 ㅁ홀 사 |
| (0802a5) | ㅁ르시면 우리 ㅁ름이 되올까 | 하 | 민망-ㅎ와 그 雜物에 ㅁ判 金 |
| (0419a2) | ㅁ기시논고? 代官들 ㅎ는 자네-네 | 하 | 다스리시고 ㅁ 우리-게도 ㅁ비 |
| (0207b3) | ㅁ스오리이다. 이 ㅎ을 보쇼셔. | 하 | ㅁ소이 너기 ㅎ와 다 ㅁ습 ㅎ이 |
| (0206a5) | 디낫습거니와 처음으로 보옵고 | 하 | ㅁㅁ ㅎ오니 ㅁ ㅎ ㅁ레 ㅎ음새. |
| (0118b4) | ㅁ聞及 ㅎ엿스오니 ㅁ酌 ㅁ읍소. | 하 | 니르시니 ㅎ나 ㅁ스오리. 자네 |
| (0120a2) | 通 ㅎ읍시네. 술란 ㅎ마 ㅁ읍소. | 하 | ㅁ다 니르시니 아직 ㅁ줍새. 내 |
| (0325b6) | ㅁ ㅎ여 드릴 거시니 代官네-ㅁ | 하 | ㅁ히디 말라 니르읍소. 그는 ㅁ |
| (0305a4) | 데. 御意 ㅁ티 처음으로 ㅁ오디 | 하 | ㅁ진히 ㅁ접-ㅎ읍시니 술을 양 |
| (0608a6) | ㅁ 도라 가고져 너기읍더니마는 | 하 | ㅁ진-ㅎ시매 ㅁ쳐 ㅁ ㅁ-ㅎ ㅁ |
| (0106a6) | ㅁ 無調法이 너기시믈 알건마는 | 하 | 無斗方 ㅎ여 ㅎ는 일이오니 ㅁ- |
| (0318a3) | 들도 술을 一切 ㅁ ㅎ읍건마는 | 하 | ㅁ과다 니르시니 그러 ㅎ온 디 |
| (0906b4) | ㅁ ㅁ간을 ㅁ몫습녕이다. 어제는 | 하 | ㅁㅁ ㅎ매 草草 ㅎ 振舞에 各各 |
| (0829b4) | ㅁ야 비예 트오니 선창 ㅁ의 가 | 하디 | 술음새 ㅎ고 보낸대 對馬島主 |
| (0826b4) | ㅁ라 일을 ㅁ고 三使을 청-ㅎ야 | 하디 | -ㅎ는 양 아름다오미 나믈 ㅁ |
| (0823b3) | ㅁ 十五 日이 吉日이오니 모로 | 하디 | 振舞를 ㅎ오니 御案內 아뢰녕 |
| (0832b1) | ㅁ 彼此 首尾 ㅁ히 ㅁ좁고 서르 | 하디 | 아름다왕이다. 太守 ㅁ ㅁ度 슈 |
| (0211b5) | 리읍소. ㅁ 大廳地衣도 ㅎ가 다 | 하야 | -더시니 그도 ㅁ 양으로 ㅎ읍 |
| (0816b5) | 어렵소이 너기오와 廻引 ㅎ오니 | 허믈 | 마르시고 ㅁ장 ㅁ음 편히 쉬신 |
| (0209a3) | ㅁ호기를 ㅁ ㅁ ㅎ여 이러-ㅎ니 | 허믈로 | 마르시소. ㅎ디 아날 일이엇마 |
| (0910a5) | 를 ㅎ이치더라 드러시니 이 ㅎ | 허스되게 | 싱각-ㅎ을거니와 兩國境의 소 |
| (0619a3) | 고롭스올 디라도 더-들히 페를 | 허스되게 | ㅎ도 어긔 업습고 우리도 ㅁ이 |
| (0528a4) | 실디 ㅎ혀 批判 ㅎ 적이면 슈괴 | 허일이 | ㅁ가 이러트시 구읍네. 太守 니 |
| (0821b3) | ㅁ 니르시니 그리 ㅁ ㅎ을 일은 | ㅎ | -ㅎ ㅁ 건너 온 비를 ㅁ과 ㅁ도 |
| (0812b5) | 와 어와 三使의 御果報에 往來 | ㅎ | -ㅎ 海路의 ㅎ르도 惡風을 만 |

| | | | |
|----------|--------------------|-------|---------------------|
| (0711b5) | 러 나미 ㅁ장 섭섭홀 쫓 ㅎ오니 | 헛 | 튼 안주로 뒤집-ㅎ시미 ㄷ오히 |
| (0822b4) | 길 작시면 옛-ㅁ지 극진-홈이 | 헤일 | 되올가 너기오니 아프리커나 |
| (0323a2) | ㅎ오리. 封進 返禮는 서울로서 | 헤아려 | 오는 대로 ㅎ오려니와 公木은 |
| (0413a5) | ㅁ시 상히로서 언머 더ㅎ연는고 | 헤아려 | 無事히 되게 분별-홈이 웃듬이 |
| (0132a1) | 로 읍는 말이어니와 자네-네도 | 헤아려 | 보시소. 客人이 와야 亭主ㅣ보 |
| (0612a2) | 카는 路次 處處의 일 출힐 덧도 | 헤아려 | 아므 들 아므 ㅁ對馬島를 떠나 |
| (0426b3) | 고? 그저 헤아리실 앓피오니 잘 | 헤아려 | ㅁ츠시과다. 그리 니르시미 그 |
| (0417b2) | 마르시고 이 번은 브딕 時分을 | 헤아려 | 도홈 구즘을 군말 업시 잡습소. |
| (0412a6) | ㅁ못 各官으로서 東萊ㅣ時分도 | 헤아리디 | 아니코 公木을 거르기 세치 굴 |
| (0816a4) | ㅁ미 本意을 건마는 나의 ㄱ브를 | 헤아리매 | 아므 되도 ㅎ 가지오면 손을 뒤 |
| (0426b3) | ㅣ부디-홀가 너기시는고? 그저 | 헤아리실 | 앓피오니 잘 헤아려 ㅁ츠시과다 |
| (0509b3) | 여도 十二三 日만의는 올가 다 | 헤아리옵네 | ㅣ. 그리 아라 기드리옵소. 그 장 |
| (0504a4) | 가을 거시니 그리 아옵소. 이리 | 호믄 | 上方의 註進도 ㅎ고 路次 各官 |
| (0805b4) | 카시곰 아니 밧디 못 ㅎ실 仔細 | 호믈 | 닐러 부러 사홀 썰홀 홀릭 왔습 |
| (0918b6) | 神妙히 너기옵네. 이리 부러- | 호믈 | 비-홀 뒤 업스니 일덩 니기시는 |
| (0911a2) | 일이언마는 이 若衆들 혼 유여- | 호믈 | 웃듬으로 ㅎ니 귀-ㅎ 禮物을 |
| (0504b1) | ㅎ고 路次 各官의 接待의 기결- | 호믈 | 위-홈이니 심상히 아디 마옵소 |
| (0429b4) | 줄은 모로든 아니컨마는 민망- | 호믈 | 뒤-게 니르올고? 그리 ㅎ오리. |
| (0619b4) | ㅣ나 오르셔 내나 ㄴ이나 민망- | 호믈 | 프러 주쇼셔. ㅎ면 그러곰 ㅎ올 |
| (0205a4) | 가 正官의 니르오면 뵈옵디 몬 | 호믈 | ㅁ장 설이 너겨 病이 더 重홀까 |
| (0412b6) | ㅣ안가-터로 니르시고 쉽디 못 | 호믈 | 어히 업서 더러타 이러타 읍든 |
| (0816a3) | 시니 아롬답스와 일일 와 問安 | 호미 | 本意을 건마는 나의 ㄱ브를 헤 |
| (0921a4) | 도쇠. 자네 日本말 비화 시작- | 호미 | 계오 五六年도 못 ㅎ되 그대- |
| (0904a4) | ㅁ 너기셔냐? 이도 日本 놀래예 | 호흔 | 일이로송이다. 우리로셔도 회 |
| (0107a3) | 아냐는 못 홀 일이어니와 자네 | 혼자 | 가셔도 인스당의 낫븐 뒤 업스 |
| (0919b2) | 어와 자네는 우은 사름이로쇠. | 홀리는 | 籠具도 업시 사름을 홀리는 사 |
| (0919b2) | 쇠. 홀리는 籠具도 업시 사름을 | 홀리는 | 사름이옵소쇠. 엇디 이리 괴롱- |
| (0619a3) | 기라도 더-돌히 폐를 허스되게 | 홈도 | 어히 업습고 우리도 스이에서 |
| (0621b2) | ㅎ시면 것기 사름-돌히 민만- | 홈믄 | 그지 못 홀 일이오니 이 알프린 |
| (0315b6) | 마다 拜禮를 ㅎ느닝이다. 그리 | 홈을 | 島中 왕ㄴ예 보고 사름-마다 |
| (0822b4) | 도 너길 작시면 옛-ㅁ지 극진- | 홈이 | 헤일 되올가 너기오니 아프리 |
| (0413a6) | 고 헤아려 無事히 되게 분별- | 홈이 | 웃듬이옵도쇠. 니르시는 배 오 |
| (0504b1) | 各官의 接待의 기결-호믈 위- | 홈이니 | 심상히 아디 마옵소. 그러면 이 |
| (0513b2) | ㅁ예는 붓뎡디 아냐 吉日의 위- | 홈이니 | 寅時에 ㅁ예 터셔 勘蠻夷-ㅁ지 |
| (0601a3) | ㅁ語 第六 三使를 請ㅎ여 상접- | 홈이라 | ㅣ. 읍-도록 읍-도록 아롬다운 |
| (0908a4) | ㅁ로커 붓그러온 次第을 ㅁ되 쫓 | 회례라 | 일홈 지어 ㅁ스 일을 ㅎ려 ㅎ시 |
| (0904a6) | ㅁ흔 일이로송이다. 우리로셔도 | 회례를 | ㅎ오려 생각거니와 朝鮮 料理 |
| (0901b1) | ㅁ徒然ㅎ오니 우음 바탕으로도 | 회츠 | 振舞를 ㅎ고져 ㅎ오니 엇더-ㅎ |
| (0324a3) | 는 禮ㅣ 돈돈ㅎ여 ㅎ 번 덩-ㅎ | 후는 | 고티디 아니 ㅎ니 五日 雜物은 |
| (0211a5) | 리도 日記를 보고 읍스오니 이 | 후란 | 이러티 아니케 니르옵소. 圓座 |
| (0720b3) | 오르시는 날 알피 가져 버려 셴 | 후에 | 信使ㅣ 가시게 ㅎ면 ㄷ오히 |
| (0507a3) | ㅁㅣ 언마는 朝廷으로서 返事 온 | 후에 | 보와야 禮ㅣ오매 아직 기드리 |
| (0910b3) | 사름이 너비 ㅁ음아디 못 ㅎ면 | 후의 | 드림즉디 아니 ㅎ니 내-게 맞 |
| (0817a1) | 마르시고 ㅁ장 ㅁ음 편히 쉬신 | 후의 | 祝願의 宴享도 ㅎ올가 미뎡 |
| (0915b4) | 오몬 쉬올 썸시니 이리 슬오믈 | 휴지 | 삼디 마옵소. 극진이 권-ㅎ심 |
| (0913a6) | 다. 모다 언머 서의-ㅎ 거시라 | 휴 | 보심을 생각-ㅎ면 츠-ㅎ 건마 |
| (0910a3) | 게 밤-새-도록 거룩이 부소틀 | 회이치더라 | 드러시니 이 ㅎ 허물로 생각-ㅎ |
| (0421a3) | 옵 대로 ㅎ다 만다 ㅎ면 誠信의 | 회이침으로 | 너기거니와 우리 생각-홈은 五 |
| (0705b6) | 守 드르셔도 過分타 ㅎ셔 感激 | 히 | 너기시올쇠. 쫓 이거슨 불관-ㅎ |
| (0413a6) | 언머 더ㅎ연는고 헤아려 無事 | 히 | 되게 분별-홈이 웃듬이옵도쇠. |
| (0406a1) | 더러나 니르신 대로 ㅎ야 無事 | 히 | 못즈오니 아롬답스와. 버거 근 |
| (0518a4) | 이다. 우리는 마즘 順風의 無事 | 히 | 붓즈오니 것거 ㅎ옵닝이다. 對 |
| (0327a1) | 도 것거 ㅎ느니다. 어제는 無事 | 히 | 연향을 ㅎ시니 것브외. 東萊 釜 |
| (0813b5) | ㅁ이로송이다. 니르시드시 無事 | 히 | 예-ㅁ지 붓즈오니 對馬島에 브 |
| (0817b5) | 니르시드시 上下 多人 中 無事 | 히 | 예-ㅁ지 브트니 아롬다오미 서 |
| (0701a4) | ㅁ筑前 太守로셔 예-ㅁ지 無事 | 히 | 오시다 ㅎ셔 덕담으로 下人을 |
| (0713b4) | 르시는 바는 海上 먼 길히 無事 | 히 | 오신 괴별을 거르기 것비 너가 |
| (0819b1) | ㅁ路에 두로 ㅁ려 예-ㅁ지 無事 | 히 | 온 우회는 나쁜 일도 업서 이 |
| (0111a3) | 딩이다. 우리는 御陰을 ㅁ 無事 | 히 | 왔습거니와 ㅁ ㅎ 착이 ㅁ뎡스. |
| (0218a6) | ㅁ 종용티 못 ㅎ외. 看品은 無事 | 히 | ㅎ오니 아롬답스와. 춘 날의 오 |

| | | | |
|----------|--------------------|------|--------------------|
| (0219a5) | 허 나쇼셔. 덕분의 看品을 無事 | 히 | 호오니 우리도 깃비 너기옵닌. |
| (0201b1) | 마춤 사오나온 브람의 다 無事 | 히 | 渡海하시니 아롭답다 니르시옵 |
| (0716a1) | 오런마는 먼 딛 使 시니 尋常 | 히 | 못 홀 일이니 吉日을 골히노라 |
| (0403a1) | 듯 흐티 그 홀 시를 未審 | 히 | 너기옵닌. 어와 오늘은 右之 道 |
| (0412a2) | 여 木花 사오나와 公木의 大切 | 히 | 되야시몬 자넌-네도 아릅심 겨 |
| (0817b6) | 브트니 아롭다오미 서르 同前 | 히 | 깃븐 디로송이다. 진실로 太守 |
| (0601b1) | 도록 아롭다운 일은 兩 國 安泰 | 히 | 誠信之 道를 서르 던-호여 이저 |
| (0913a2) | 잘 읊디 못 호고 알고도 無道 | 히 | 된 仕合 붓쓰러오미 海山 未티 |
| (0918b4) | 르면 드러 아든 못 호여도 神妙 | 히 | 너기옵닌. 이리 부러-호물 비- |
| (0612b2) | 양으로 닐러시니 이제는 自由 | 히 | 마음아디 못 홀을 써시니 그 닐 |
| (0807b2) | 닌. 또 내 힘으로 더 使를 自由 | 히 | 마음아디 못 홀 일이오니 이려 |
| (0309b1) | 잘 못 호와 술왓습써니 自由 | 히 | 너기옵신가 민망-호여이다. 안 |
| (0716b1) | 안히 路次의 괴로오미나 從容 | 히 | 쉬과다 호야 읊는 일이로송이다 |
| (0716b4) | 로송이다. 어와 어와 즉시 慇懃 | 히 | 무로시니 感激하신 절츠를 술을 |
| (0703b2) | 저러 가지 珍味 이걸 더걸 慇懃 | 히 | 하신 양이 御禮에 너든 양이로. |
| (0820a6) | 安만 술왓습터니 色色 御慇懃 | 히 | 니르신 양 즈못 奉行되로서 온 |
| (0602b4) | 이로송이다. 진실로 兩 國 靜謐 | 히 | 誠信을 닷가 이려트시 아롭다운 |
| (0132a6) | 니 호옵는가? 그러커니와 게서 | 힘 | 배 이런 道理를 東萊의 옛즈와 |
| (0132b5) | 나 닐 브딤 홀 양으로 호옵소. | 힘 | 배 술와 보오려니와 東萊 釜山 |
| (0415a6) | 飛船 즈음에 맞디 못 홀 써시니 | 힘 | 쓰옵소. 아프리 시절의 樣子를 |
| (0913b3) | 심을 싱각-호면 측-호건마는 | 힘 | 대로 못 호고 붓그림을 모로논 |
| (0404b6) | 아롭다와 호는이다. 나라 일을 | 힘 | 쓰기는 대되 同前이오니 우리도 |
| (0430a6) | 깜-새물 기도로울 써시니 닐 | 힘 | 쓰시기는 오로 미덧습닌. 捷解 |
| (0806b5) | 물 드르며 이리 읊는 일을 일딩 | 힘 | 아니 쓰는 양으로 너기실 듯 호 |
| (0807b2) | 시미 도홀가도 너기옵닌. 또 내 | 힘으로 | 더 使를 自由히 마음아디 못 홀 |
| (0808b6) | 인스는 아니어니와 對馬島主의 | 힘으로도 | 도로 보낼 일이 못 될다 니르시 |
| (0307a4) | 와 이제 잠깐 호련스오되 다리 | 힘이 | 업스와 오래 서디 못 호올가 옛 |
| (0213a1) | 호옵닌. 니르시미 그르든 아니 | 호거니와 | 더룬 날의 東萊 釜山浦에 가 든 |
| (0915a2) | 이리 니르시는 일이로다. 推量 | 호거니와 | 붓그림으란 모로논 테-호고 날 |
| (0920b5) | 일딩 괴롱-호는 양으로 싱각- | 호거니와 | 그러나 노호여도 못 호고 거르 |
| (0902a6) | 왕이다. 그리 니르시니 감격- | 호거니와 | 아프리카나 우리 술은 일이오니 |
| (0703b6) | 이다. 이를 밋디 아님도 무식- | 호거니와 | 고을로서 두 참이-도록 多人 |
| (0904b4) | 네-네 뵈에 드디 아닐까 의심- | 호거니와 | 다만 노름 히로나 호록 호오니 |
| (0130b4) | 시 술을 스이도 업스매 그러는 | 호거니와 | 이 양병은 아니오. 正官 氣色이 |
| (0909b6) | 리도 술의 취-호여 싱각디 못 | 호거니와 | 더 若衆들의-계 밤-새-도록 若 |
| (0806b5) | 힘 아니 쓰는 양으로 너기실 듯 | 호거니와 | 奉行들의 술설도 信使 스설의 |
| (0129b6) | 間이오니 나셔 과연 견디디 못 | 호거든 | 문져 니르실 디라도 내 迷惑을 |
| (0422a2) | 할 듯건대 아프리라도 호고저 | 호건마는 | 우리도 代官의 구실이면 아프리 |
| (0607a6) | 를 꾸미시니 진실로 식양코저 | 호건마는 | 드리신 사름의 직조를 보라 호 |
| (0107b6) | 뜻으로 보텔 바는 이실 듯 아니 | 호건마는 | 모시기란 호오리. 先度 中歸船 |
| (0418a4) | 니 代官들도 가지 가지 싱각- | 호건마는 | 별로 호염측-호 묘리도 업고 홀 |
| (0529a4) | 法은 굿긋디 그리 못 호염측- | 호건마는 | 니르시는 일이오니 옷 옷술 보 |
| (0913b2) | 시라 흥 보심을 싱각-호면 측- | 호건마는 | 힘 대로 못 호고 붓그림을 모로 |
| (0812a1) | 를 싱각-호면 마라도 도홀 듯 | 호건마는 | 다만 앓가 니르시는 양이면 자 |
| (0412b2) | 코 公木을 거르기 세치 골힌다 | 호고 | 공스 오로 홀 제 안가-터로 나 |
| (0810a2) | 실 양으로 大君의 서 닐러 왔다 | 호고 | 振舞홀 양도 잇는가 시브오니 |
| (0829b4) | 오니 선창 未의 가 하딕 술옴새 | 호고 | 보낸대 對馬島主 불셔 보내믈 |
| (0706b2) | 아니시면 우리의 그름이라도 | 호고 | 장쉬 面目 업시 너길 꺼시니 이 |
| (0504a4) | 옵소. 이리 호몬 上方의 註進도 | 호고 | 路次 各官의 接待의 괴걸-호물 |
| (0618a1) | 戶로서 信使 겨실 디도 극진이 | 호고 | 참참이 못히 請호여 振舞도 홀 |
| (0502b2) | 온가? 올스외. 上下 대되 無事 | 호고 | 對馬島主 니르시는 바는 信使 |
| (0120a6) | 내 이제 釜山浦의 술와 注進 | 호고 | 닐 아춤은 東萊 올라 가 送使 |
| (0702b5) | 각-호시는고? 右之 道理 心得 | 호고 | 使를 여긋 보내소. 使를 불러 나 |
| (0915a3) | 거니와 붓그림으란 모로논 테- | 호고 | 날-마다 여긋 와서 말습이나 호 |
| (0520a1) | 물 술을 써술 계신 디도 서의- | 호고 | 곳 브트서 굿바도 호옵시는가 |
| (0416a5) | 라 호는고? 호갓 내희만 싱각- | 호고 | 일을 그리 호는가? 넷 公木이리 |
| (0707b1) | 로소이다. 문져 읊디시 스양- | 호고 | 밋디 아니미 아니라 바다서 홀 |
| (0811b3) | 이다. 우리 가셔 식환이 구경- | 호고 | 도라 오른 쉼써니와 드린 사름 |
| (0920b6) | -호거니와 그러나 노호여도 못 | 호고 | 거르기 우소온 일이옵도쇠. 자 |
| (0203a1) | 그러호온 디 밥도 일절 먹디 못 | 호고 | 누어 잇스오니 민망-호여이다. |

| | | | |
|----------|--------------------|-------|--------------------|
| (0617b5) | 色色이 스양-흥여도 이 격기- | 흥늘 | 분-네 니르기는 江戸로서 信使 |
| (0615b5) | 그 오음심을 밋줍님이다. 격기- | 흥늘 | 분-네-게로셔도 극진-흥일이 |
| (0614b6) | 가 祝願흥녕이다. 接待예 거기- | 흥늘 | 냥반-돌히 방사를 부러 출혀 |
| (0920a4) | 진실로 이만 흥면 흥되 싱각- | 흥늘 | 일 조금도 업서 常常 이를 뉘오 |
| (0826b4) | 을 못고 三使를 청-흥야 하디- | 흥늘 | 양 아름다오미 나쁜 덕 업스되 |
| (0707a3) | 흥야 알외닉이다. 자네 스설- | 흥늘 | 배 날날치 筑前殿의 그지 업스 |
| (0526a2) | 물도 저티고 상시 行儀를 웃듬- | 흥늘 | 규귀오니 엇줍기는 가지 가지 |
| (0402a3) | 差使員 뿐 아니라 여귀 소임- | 흥늘 | 官人 대되 過怠에 밋는 바는 자 |
| (0721b1) | 城에서 인스당이며 萬事 디답- | 흥늘 | 양이 그장 올히 흥신 바늘 대되 |
| (0526b6) | 그리. 자네-네 디답이 불셔 겁- | 흥늘 | 양이로지 엇디 흥 편만 싱각-흥 |
| (0920b5) | 양으로 기리시니 일덩 괴롱- | 흥늘 | 양으로 싱각-흥거니와 그러나 |
| (0910b1) | -흥옴거니와 兩 國境의 소임을 | 흥늘 | 사름이 너비 그옴아디 못 흥면 |
| (0429a4) | 만 그옴 대로 못 흥여 되츠디 못 | 흥늘 | 바는 게나 예나 흥 가지옴도쇠. |
| (0416a6) | 내히만 싱각-흥고 일을 그리 | 흥는가 | ? 냇 公木이라 닐러도 여귀셔 |
| (0416a4) | 을 半分도 아니 잡고 나여 가라 | 흥내고 | ? 흥갓 내히만 싱각-흥고 일을 |
| (0814a2) | 馬島에 브툼과 흥 가지로 깃거 | 흥네티 | 또 닐일 구름 가기 도타 니르시 |
| (0708b2) | 그고 싱각-흥야 禮흥 제 솔오려 | 흥닉 | . 장쉬 든돈이 분부-흥야 계시 |
| (0313a2) | 니 우리도 듯고 그장 아름다와 | 흥닉이다 | . 올스와이다. 島中의셔도 그리 |
| (0715b3) | 시 예-씩지 브트시니 아름다와 | 흥닉이다 | . 올커니 닐일도 보오련마는 먼 |
| (0607b5) | 이를 보려 위-흥여 스양을 아니 | 흥닉이다 | . 接待의 馳走 심상티 아니시 |
| (0829a2) | 셔 취-흥야스오니 도라 가고져 | 흥녕이다 | . 빅에 트노라 흥야 辰時에 判 |
| (0606b6) | 저른 것-돌흥 띄놀려 뵈옵고져 | 흥녕이다 | . 이도 祝願의 일이라 엇줍닉이 |
| (0110b6) | 므 일 업시 건너시니 아름다와 | 흥녕이다 | . 우리는 御陰을 뵈 無事히 왔습 |
| (0602a6) | 기실 디 아직 아직 아름답스와 | 흥녕이다 | . 극진히 니르심이로송이다. 진 |
| (0614b4) | 함흥 萬事 그옴 편-흥까 祝願 | 흥녕이다 | . 接待예 거기-흥늘 냇반-돌 |
| (0921b4) | 一本 八 箇 道內 六十六 州를 분 | 흥다 | . 아직 五 畿內는 山城州의 所 |
| (0514a5) | 頭들도 來日은 日吉利 이실 듯 | 흥다 | 니르니 그러면 出行의 아름다 |
| (0514b5) | 그러면 게셔도 日吉利 이실 듯 | 흥다 | 니르옴노쇠. 아프려나 그러과 |
| (0513a1) | 氣 様子 일덩 順風이 이실 듯 | 흥다 | 흥니 朝鮮 사름-들흥 므어시라 |
| (0912b2) | 네-네 指南을 어더 저기 말도 | 흥더니마는 | 常常 쓰디 아니모로 히로 더곰 |
| (0327b3) | 양티 아냐 奇特흥 相指를 다 잘 | 흥더라 | 기리시니 우리 듯기도 더욱 깃 |
| (0803b1) | 키기 奉行들 드리고 오래 슈고- | 흥던 | 아래 사름-들희 별로 포-흥 일 |
| (0808a6) | 江戸에 반 들이나 무거 슈고- | 흥던 | 下人의-게 준 거슬 더러로써 |
| (0809a3) | 이면 출하리 자네 바다셔 슈고- | 흥던 | 對馬島 사름-들희-게나 주시 |
| (0302a6) | 시 뵈옵디 묻 흥오와 本意를 背 | 흥도다 | 너기옴닉이다. 전 브터 드르니 |
| (0119a1) | 오리. 자네 말이 對馬島셔 聞及 | 흥드시 | 잘 通흥시니 아름답스와. 내 말 |
| (0719a1) | 흥-흥 일로 깃티니 업시 모시게 | 흥라 | 흥야 니르시오니 이런 줄을 숄 |
| (0508b4) | 름 돌흥 밤-낮 올라 갈 양으로 | 흥라 | 코 든돈이 닐러 겨시니 그러흥 |
| (0904b6) | 심-흥거니와 다만 노름 히로나 | 흥려 | 흥오니 닐일이라도 연고 업스 |
| (0411b4) | 드린 公木을 다 나쁘라고 엇디 | 흥려 | 아르시논고? 흥물며 近年 以來 |
| (0126b4) | 스이 편티 아냐 흥시더니 잠깐 | 흥려 | 겨시니 二三日內에 흥 양으로 |
| (0908a4) | 또 회례라 일흥 지어 므스 일을 | 흥려 | 흥시옴논고? 맛당히 스양-흥 |
| (0321b6) | 도라 가게 흥쇼셔. 글란 그리 | 흥려니와 | 당시 公貿易 銅 鑑 看品도 못 |
| (0307a3) | 드시 오래 병 드으와 이제 잠깐 | 흥련스오되 | 다리 힘이 업스와 오래 셔디 못 |
| (0303b6) | 갈튼 가슴과 빅 저기 그쳐 점점 | 흥리는 | 듯 흥옴건마는 채는 도티 아니 |
| (0315a5) | 스오니 브룻 일을 엇디 열현이 | 흥리잇가 | ? 그러흥므로 長老의 玆의 朝鮮 |
| (0522a3) | 흥 만흥 일이오면 엇디 열현이 | 흥령잇가 | ? 그장 쉬운 일이언마는 朝鮮 |
| (0525b3) | 치 아니 니르시다 엇디 열현히 | 흥령잇가 | ? 다만 朝鮮 풍속의는 사름의 |
| (0425a2) | 드리는 公木들도 므쇼게 시러 | 흥르 | 스이 두락 잇틀 스이 두락 왕닉 |
| (0812b6) | 御果報에 往來 험-흥 海路의 | 흥르도 | 惡風을 만나디 아니코 多人中 |
| (0605b5) | 니 그장 아름다이 너기닝이다. | 흥마 | 도라 가상이다. 희운 것도 업스 |
| (0119b5) | 흥? 그장 흥히 通흥옵시닉. 술란 | 흥마 | 마옴소. 하 마다 니르시니 아직 |
| (0908b4) | 고물저은 안주의 珍味를 싱각- | 흥매 | 인스당도 아프 것도 숄디 아니 |
| (0312a4) | 술도 잘 흥 뿐 아니라 글 잘 | 흥매 | 朝廷으로서도 書契마다 보시고 |
| (0509a5) | 反事 출히기에 二日 三日이나 | 흥면 | 더디여도 十二日만의는 올 |
| (0618b1) | 디 빅 우흐로셔 빠르디 나시다 | 흥면 | 江戸에 들려도 우리 그른 디 되 |
| (0710b3) | 內 숄닝이다. 그세 아옴거이다. | 흥면 | 볼 작시면 그 거조는 엇디 흥고 |
| (0702a1) | . 御回答이나 흥시게 숄닝이다. | 흥면 | 그러흥온가? 筑前殿 地界 두 |
| (0421a2) | 이러트시 그옴 대로 흥다 만다 | 흥면 | 誠信의 회이침으로 너기거니와 |
| (0821b3) | 키 온 비를 묻과 밥도 고티노라 | 흥면 | 이도 二三日은 흥을 써시오 또 |

| | | | | |
|----------|--------------------|------|--|-------------------|
| (0720b5) | 저 버려 셴 후에 信使 가시게 | 헝면 | | 도홀까 시프다 헝니 그리 흠을 |
| (0619b6) | 이나 민망-호물 프러 주쇼셔. | 헝면 | | 그러곰 헝올가? 그대-도록 싱각 |
| (0527a6) | 편잔은 아니온가? 우리도 小小 | 헝면 | | 므스 일로 불관-헝 거시라도 |
| (0213a6) | 房의셔 談合홀 일돌이나 相談 | 헝면 | | 送使로서 이러셔는 오라 더러 |
| (0107a6) | 의 낫븐 디 업스니 送使의 對面 | 헝면 | | 奇特이 너기믄 아는 앓피니 우 |
| (0603a4) | 를 니르시거니와 이는 物에 비- | 헝면 | | 바늘 굿티오 자네 슈고와 폐는 |
| (0601b6) | 헝여 對坐헝는 일 곱곰 싱각- | 헝면 | | 등간티 아니케 잇기 어려운 일 |
| (0811b6) | 사름을 이렇 더령 폐를 싱각- | 헝면 | | 마라도 도홀 듯 헝건마는 다만 |
| (0913b2) | 의-헝 거시라 흥 보심을 싱각- | 헝면 | | 측-헝건마는 힘 대로 못 헝고 |
| (0131a2) | 나오. 正官 氣色이 건디엄죽- | 헝면 | | 나고져 너기오되 東萊 드르셔 |
| (0920a3) | 年나마 되야시되 진실로 이만 | 헝면 | | 홀되 싱각-헝는 일 죠곰도 업 |
| (0910b3) | 헝는 사름이 너비 그음아디 못 | 헝면 | | 후의 드림죽디 아니 헝니 내- |
| (0415a4) | 마라 드리실까? 早速 못디 못 | 헝면 | | 飛船 즘음에 맞디 묻 홀 써시니 |
| (0623a2) | 나. 니르시는 양이 그러도 홀 듯 | 헝면 | | 路次의 일란 자네-게 맞달 거 |
| (0917a4) | 분 五六人만 계시과다 다 원- | 헝문 | | 兩國의 헝음이라 니르는 이리 |
| (0411b4) | 프라고 엇디 헝려 아르시논고? | 헝물며 | | 近年 以來 년-헝여 木花 사오 |
| (0702b1) | 장이-도록 거르기 격기-헝신디 | 헝물며 | | 이러툇 흥 배 아므려도 맞디 못 |
| (0701a4) | 寺로서 예-씩지 無事히 오시다 | 헝셔 | | 덕담으로 下人을 주시게 헝야 |
| (0706a3) | 下人을 위-헝야 德談엿 일이라 | 헝셔 | | 우리를 부러 보내여 겨옵시더 |
| (0705b4) | 헝시니 太守 드르셔도 過分타 | 헝셔 | | 感激히 너기시올쇠. 또 이거슨 |
| (0601b3) | 헝여 이제 또 三使 멀리 渡海 | 헝셔 | | 내-게 請헝여 對坐헝는 일 곱 |
| (0416b5) | 일은 업스오니 아므려나 思습 | 헝셔 | | 저기 不足홀 씨라도 분별 아니 |
| (0121a6) | 나. 앓가 솟던 떠던 비를 御念入 | 헝셔 | | 肝煎헝옵소. 또 아니 니르셔도 |
| (0914a1) | 아므려나 모다 내 樣子를 思分 | 헝셔 | | 萬事를 두로 쓰리시를 미더습 |
| (0703a4) | 를 불러 니르시는 바는 녀너- | 헝셔 | | 예-씩지 부리실 뿐이 아니라 |
| (0516b4) | 리 보와시니 信使의셔도 최촉- | 헝셔 | | 이제 비를 내옵넌. 對馬島主의 |
| (0512a2) | 브트셔 묵기는 二十四五 日만 | 헝셔 | | 出船 吉日은 來月 十二三 日의 |
| (0622b4) | 나 섬죽-헝 곳으란 스양 아니 | 헝셔도 | | 島主 아라셔 案内 솔오령이 |
| (0714a3) | 江戶에 브트실 써시니 御對面 | 헝셔야 | | 즈셔히 솔오려 흥 일이로소이 |
| (0712a5) | 帶를 홀 작시면 信使도 冠帶를 | 헝셔야 | | 도싸울 디 다만 冠帶 헝시미 |
| (0301a4) | 三 東萊계셔 니르시믄 御渡海 | 헝션 | | 디 오래되 서르 보옵디 묻 헝오 |
| (0314b4) | 이나 가-도록 오래 볼 양으로 | 헝세야 | | 아름답스오리. 長老와 島主는 |
| (0707b4) | 스니 아므리커나 나 헝는 대로 | 헝소 | | 자네 극진-헝신 바는 셔울 가 |
| (0711a2) | 도홀 디 자네 아라 도홀 양으로 | 헝소 | | 이러로서도 묻져 솔오려 헝연 |
| (0623b2) | 슬퍼 아프 디도 폐 아니케 아라 | 헝쇼셔 | | 이리 솟는 밋기 일덩 下人 中 |
| (0321b4) | 니와 홀리라도 수이 도라 가게 | 헝쇼셔 | | 글란 그리 헝려니와 당시 公 |
| (0604a1) | 엇더-헝니 아므려나 수이 나게 | 헝쇼셔 | | 여기 떠나실 吉日은 郡郡에 |
| (0621a1) | 자네-게 맞디오니 홀 시 도케 | 헝쇼셔 | | 참-마다 비예 누리시기 어렵 |
| (0909a1) | 이리 솔은 우회란 자네 홀 대로 | 헝쇼셔 | | 비록 내나 늙이나 연고 이실 |
| (0613b1) | 디 아닌 전의 出船헝실 양으로 | 헝쇼셔 | | 기별-헝심 그티 낯일은 天氣 |
| (0127a5) | 리 출혀 겨시다가 나실 양으로 | 헝쇼셔 | | 아웁게 그리 헝오리. 다만 正 |
| (0832a2) | 못 홀송이다. 御渡海 아릅다이 | 헝쇼셔 | | 今度는 御裁判을 써 彼此 首月 |
| (0810a6) | 시브오니 그리 아르셔 종용히 | 헝쇼셔 | | 또 大坂의 城도 거르기 장만- |
| (0620a5) | 로 올 써시니 므음 편히 싱각- | 헝쇼셔 | | 다만 낯일 出船의 뒤버트릴 |
| (0701b6) | 와 使者을 보시고 御回答이나 | 헝시게 | | 솟녕이다. 헝면 그러헝온가? 策 |
| (0910b6) | 내-게 맞디쇼셔. 다만 슬헝여 | 헝시게 | | 솟는 일이언마는 이 若衆들혼 |
| (0717a6) | 우회는 아프 제라도 싱각 대로 | 헝시게 | | 알외쇼셔. 자네-네도 처음으로 |
| (0506b4) | 事 올 써시니 그리 아웁소.” | 헝시고 | | 또 니르시기는 “맞당히 수이 |
| (0714a1) | 샤 우리 二人을 예-씩지 問安 | 헝시고 | | 이 二三日 안히는 江戶에 브트 |
| (0122a2) | 슈고로이 건너지도다.” 녀너- | 헝시고 | | 問安헝옵시데. 또 軍官도 보내 |
| (0827a4) | 니 오늘란 종용히 노르셔 祝願 | 헝시과다 | | 더 귀-헝 풍뉴-들도 어미 듯 |
| (0607b3) | 는 드리신 사름의 직조를 보라 | 헝시니 | | 이를 보려 위-헝여 스양을 아 |
| (0213b4) | 더러셔는 아니 온다 다 노헝여 | 헝시니 | | 헝 몸으로서는 논호디 못 헝여 |
| (0212b2) | 는 요스이 일절 예는 오디 아니 | 헝시니 | | 그장 미야헝여 노홉스와 헝옵 |
| (0301b6) | 진이 묻져 솔을 써슬 이리 御意 | 헝시니 | | 감격히 너기옵넌이다. 이전의 |
| (0709a2) | 니 다시곰 다시곰 극진히 行下 | 헝시니 | | 민망-헝건마는 行下를 존냥 |
| (0705b3) | 업스디 이러트시 극진히 行下 | 헝시니 | | 太守 드르셔도 過分타 헝셔 |
| (0201b1) | 오나온 브람의 다 無事히 渡海 | 헝시니 | | 아름답다 니르시옵넌. 御意 |
| (0815a5) | 의 情이 던-헝인 디 이리 祝願 | 헝시니 | | 아모의 果報라도 公儀 서르 |
| (0203a6) | 여이다. 書契를 보니 島中 無事 | 헝시니 | | 아름다와 헝옵넌. 올스와 대 |

| | | | | |
|----------|----------------------|-------|--|---------------------|
| (0119a2) | 이 對馬島서 聞及ㅎ드시 잘 通 | ㅎ시니 | | 아름답스외. 내 말을 기리시니 |
| (0824b4) | 밋줍닝이다. 어와 出船 日을 定 | ㅎ시니 | | 아름다와 ㅎ농이다. 振舞 ㅎ |
| (0907a1) | 辰舞에 各各 중용히 말슴 달란- | ㅎ시니 | | 亭主의 깃봄이 노외야 업서 亭 |
| (0327a3) | 늑이다. 어제는 無事히 연향을 | ㅎ시니 | | 깃브외. 東萊 釜山浦로서 正官 |
| (0820b5) | 못 奉行쵸로서 온 거슬 주노라 | ㅎ시는 | | 배 감격-ㅎ옵기는 받고져 ㅎ옵 |
| (0507b3) | 썸시나 잇거든 기별-ㅎ옵소." | ㅎ시는 | | 일이옵데. 어와 註進을 극진이 |
| (0510a2) | 는. 그 장계 返事 왔습닉. 구- | ㅎ시는 | | 대로 나쁜 되 업시 불기도 왔스 |
| (0914b5) | 괴특다코 일궤줍는되 썸 말슴- | ㅎ시는 | | 전치라 이리 니르시는 일이로 |
| (0306b2) | 은 잔 잡는 양을 보오니 어내 잘 | ㅎ시는 | | 술이옵도쇠. 잔수는 디낫스오 |
| (0914b2) | 것치 마장 보드랍고 썸 인스당 | ㅎ시는 | | 말 거동이 진실로 日本 토크오니 |
| (0420a1) | 시고 자닉-네 맛당-홀 썸 몬져 | ㅎ시는고 | | ? 네 브터 束을 풀고 굴히여 낸 |
| (0702b3) | 홀 일이오니 太守는 엇디 싱각- | ㅎ시는고 | | ? 右之 道理 心得ㅎ고 使를 여 |
| (0527a1) | 양이로지 엇디 홀 편만 싱각- | ㅎ시는고 | | ? 他國에 불골 사오나오면 그 |
| (0919b4) | 아름이옵썸쇠. 엇디 이리 괴롱- | ㅎ시는고 | | ? 진실로 나도 日本말을 니겨 |
| (0507b6) | 일이옵데. 어와 註進을 극진이 | ㅎ시다 | | 니르시니 安堵ㅎ여 ㅎ옵닉. 며 |
| (0126b2) | 옵소. 東萊가 요스이 편디 아나 | ㅎ시더니 | | 잠깐 ㅎ려 겨시니 二三 日 內에 |
| (0302b5) | 고 넘너-ㅎ옵더니 어딴를 알파 | ㅎ시던고 | | ? 늦출 보오니 이제도 병 빗치 |
| (0517b5) | 이고 빅-들토 도로 시과다 問安 | ㅎ시던이다 | | . 예-썸지 使者 감격키 너기 |
| (0608a6) | 고져 너기옵더니마는 하 극진- | ㅎ시매 | | 멈쳐 썸 귀-홀 집-괴지 경의 도 |
| (0915a5) | 그 날-마다 여긔 와셔 말슴이나 | ㅎ시면 | | 즉시 싱각 대로 되오몬 쉬울 썸 |
| (0422b5) | 는? 그저 그저 우리 늑는 양으로 | ㅎ시면 | | 못기 쉬울까 너기옵닉. 니르- |
| (0621a5) | 줍기는 죠고마ㅎ고 느리디 아니 | ㅎ시면 | | 것기 사름-돌히 민만-흠몬 그 |
| (0520b2) | 使 옵도쇠. 인는 디도 넘너- | ㅎ시모로 | | 마장 조출-ㅎ야 므옵 편히 쉬 |
| (0704b6) | 와 알외닝이다. 筑前主 分부- | ㅎ시몬 | | 信使 디나실 적의 아프려나 디 |
| (0916b3) | 네도 내 땅발-홀 디라도 샤- | ㅎ시믈 | | 一入 미덥습닉이다. 자네 나토 |
| (0204a6) | 으로셔 올 적 브터 東萊 극진- | ㅎ시믈 | | 듯줍고 언제 건너 가 말슴-ㅎ옵 |
| (0105b5) | 진실로 오늘은 처음으로 극진- | ㅎ시믈 | | 미더 내 싱각-홀 일을 점치디 |
| (0806b2) | 시미 엇더-ㅎ올고 앓가 스설- | ㅎ시믈 | | 드르며 이리 늑는 일을 일딩 힘 |
| (0204b6) | 는이다. 오늘은 이러특시 디접- | ㅎ시믈 | | 가 正官의 니르오면 뵈옵디 몬 |
| (0918b1) | 는는 듯 ㅎ여 자네-네 日本말 | ㅎ시믈 | | 드르면 드려 아든 몬 ㅎ여도 禰 |
| (0807a4) | 오니 내 싱각은 亭主는 대로 | ㅎ시미 | | 도홀가도 너기옵닉. 썸 내 힘으 |
| (0816b1) | 디도 홀 가지오면 손을 디접- | ㅎ시미 | | 도로켜 어렵소이 너기오와 廻 |
| (0711b5) | 썸 ㅎ오니 헛튼 안쥬로 디접- | ㅎ시미 | | 도홀까 시프외. 썸 더 使 信 |
| (0712b1) | 를 ㅎ셔야 도썸을 디 다만 冠帶 | ㅎ시미 | | 도홀까 시프외. 그러면 冠帶도 |
| (0525a1) | 잘 쥬션-ㅎ야 썸립 업게 직간- | ㅎ시소 | | . 니르시는 道理 一一 맛당-홀 |
| (0524a6) | ㅎ오니 그리 아르시게 잘 쥬션- | ㅎ시소 | | . 자닉-네는 日本 풍속을 미리 |
| (0719b4) | 괴오려 싱각 도홀 양으로 괴걸- | ㅎ시소 | | . 썸 드린 사름-들토 다는 폐 |
| (0908a4) | 쾌라 일흠 지어 므스 일을 ㅎ려 | ㅎ시옵는고 | | ? 맛당히 스양-홀 듯 홀 일이언 |
| (0721b3) | 동事 디답-ㅎ는 양이 마장 올히 | ㅎ신 | | 바늘 대되 일궤를 썸이 아니라 |
| (0703b2) | 괴 가지 珍味 이걸 더건 慰勸히 | ㅎ신 | | 양이 御禮에 너쁜 양이로소이 |
| (0716b6) | 와 즉시 慰勸히 무로시니 感激 | ㅎ신 | | 절츠를 술을 양도 업서이다. 덕 |
| (0907b6) | 니 썸 친히 와 겨셔 너모 慰勸 | ㅎ신 | | 御禮 도로켜 붓그러운 次第옵 |
| (0610b5) | 일이라 싱각-ㅎ옵더니 御慰勸 | ㅎ신 | | 말슴-것티 도로혀 붓그럽스왕 |
| (0605a4) | 게 브라닝이다. 今日은 御慰勸 | ㅎ신 | | 振舞 終日 아름다운 御雜談 듯 |
| (0520a6) | 아직 問安 알외닝이다. 넘너- | ㅎ신 | | 使 옵도쇠. 인는 디도 넘너-ㅎ |
| (0832b3) | 를 다왕이다. 太守 今度 슈고- | ㅎ신 | | 양은 朝廷의도 즈셔히 엇즈오 |
| (0818a4) | 진실로 太守 路次 處處의 슈고- | ㅎ신 | | 樣子 말로 다 못 홀 일이로송이 |
| (0707b6) | 나 ㅎ는 대로 ㅎ소. 자네 극진- | ㅎ신 | | 바는 셔울 가서 筑前殿의 接待 |
| (0825b5) | 은 엇디 상해 블러 들이디 아니 | ㅎ신고 | | ? 그 날란 니르시매 밋디 아나 |
| (0514a1) | 夷-썸지 가서 브롬을 기드리려 | ㅎ신다 | | ㅎ옵닉. 니르시드시 朝鮮 船頭 |
| (0702a5) | 界 두 참이-도록 거르기 격기- | ㅎ신되 | | ㅎ믈며 이러툷 홀 배 아프려도 |
| (0419b2) | 은 다른 묘리도 업스니 자닉-네 | ㅎ실 | | 대로 ㅎ옵소. 엇디 ㅎ야 우리 |
| (0131a6) | 썸셔도 양병이라는 너기디 아니 | ㅎ실 | | 거시니 자닉 그르다는 아니 ㅎ |
| (0131b3) | 실 거시니 자닉 그르다는 아니 | ㅎ실 | | 듯 ㅎ오리. 이는 내 스스로 늑는 |
| (0505a6) | 몬 홀 일이오니 대테로이 아니 | ㅎ실 | | 양으로 東萊의 엇즈와 飛脚을 |
| (0822a4) | 振舞도 밋디 아니시고 御渡海 | ㅎ실 | | 작시면 아프란 御意에 걸리신 |
| (0306b5) | 잔수는 디낫스오나 일딩 立酌 | ㅎ실 | | 썸시니 아옵시드시 오래 병 드 |
| (0612b5) | 날은 天氣에도 붓디 아녀 出船 | ㅎ실 | | 거시니 그리 아르쇼셔. 넉일은 |
| (0613b1) | 이다. 밤이 붉디 아녀 전의 出船 | ㅎ실 | | 양으로 ㅎ쇼셔. 기별-ㅎ심 마 |
| (0810a2) | 四五 日어나 무그셔 쉬여 出船 | ㅎ실 | | 양으로 大君의셔 날러 왔다 ㅎ |

| | | | | |
|----------|---------------------|-------|--|--------------------|
| (0620a1) | 취곰 ㅎ올가? 그대-도록 ㅎ싱각- | ㅎ실 | | 작시면 엇디 슈고로오매 걸리자 |
| (0825b2) | 르심으로 이러나 더러나 맛당- | ㅎ실 | | 대로 ㅎ옵새. 쏘 풍뉴-ㅎ는 사 |
| (0810b4) | 장만-ㅎ엿스오니 이도 구경- | ㅎ실 | | 양으로 앓가 두 분-씩셔 권-ㅎ |
| (0417a1) | 不足 ㅎ 찌라도 분별 아니티 묻 | ㅎ실 | | 일은 서르 時分과 갑식 양도 見 |
| (0308a3) | . 御意 감격-ㅎ여이다. 立酌을 | ㅎ실 | | 작시면 일덩 禮를 背홀가 너기 |
| (0128b2) | 나올쇠. 그러면 엇디 브딤 닉일 | ㅎ실 | | 양으로 니르옵시던고? 正官의 |
| (0805b4) | 도 다시곰 다시곰 아니 뵈디 못 | ㅎ실 | | 仔細호믈 닐러 부러 사홀 쥘홀 |
| (0318b4) | . ㅎ 술을 자시다가 이 술의 취- | ㅎ실가 | | ? ㅎ심이나 그러튼 아녀이다. |
| (0218b6) | 슈고-ㅎ옵셔뇨? 看品 後 延향- | ㅎ실디 | | 날도 저믈 찌시니 수이 출혀 나 |
| (0528b6) | ㅈ 三使 니르시믈 극진히 녀너- | ㅎ심 | | 滿足 ㅎ여이다. 그러커니와 朝 |
| (0915b5) | 휴지 삼디 마옵소. 극진이 권- | ㅎ심 | | 아므 일-도곤 감격-ㅎ여 御禮 |
| (0613b2) | 出船 ㅎ실 양으로 ㅎ쇼셔. 기별- | ㅎ심 | | ㅁ티 닉일은 天氣 도홀가 시브 |
| (0616b3) | ㅈ딜 찌시니 온갖 接待에 극진- | ㅎ심은 | | 빅에서도 ㅁ즈오면 오름과 ㅎ |
| (0829a4) | 가고져 ㅎ녕이다. 빅에 투노라 | ㅎ야 | | 辰時에 判使네를 對馬島主게 ㅁ |
| (0719a1) | 일로 깃티니 업시 모시게 ㅎ라 | ㅎ야 | | 니르시오니 이런 줄을 ㅎ녕이다 |
| (0722a5) | 녕이다. 三奉行이 어제 御禮라 | ㅎ야 | | 對馬島主로써 ㅎ는 일은 어제 |
| (0716b1) | ㅈ의 괴로오미나 從容히 쉬과다 | ㅎ야 | | ㅎ는 일어로송이다. 어와 어와 |
| (0706b6) | ㅈ 찌시니 아프려나 바드시과다 | ㅎ야 | | 알외닉이다. 자네 스설-ㅎ는 ㅁ |
| (0701a6) | . ㅎ셔 덕담으로 下人을 주시게 | ㅎ야 | | 차반을 가지고 使者 ㅁ스오나 |
| (0710a5) | 아니 보디 못 ㅎ 일을 아라시게 | ㅎ야 | | 案内 ㅎ녕이다. ㅁ세 아옵거이 |
| (0503a3) | 떠나셔 어닉 ㅈ 出船 吉日인고 | ㅎ야 | | 우리 兩 人을 불의에 막켜 건네 |
| (0405b5) | 는 이러나 더러나 니르신 대로 | ㅎ야 | | 無事히 ㅁ즈오니 아람답스외. |
| (0823b6) | 오니 御案内 아뢰녕이다. 글로 | ㅎ야 | | 늘근 어미를 더브릇습더니 朝 |
| (0419b3) | . ㅎ-네 ㅎ실 대로 ㅎ옵소. 엇디 | ㅎ야 | | 우리 ㅎ는 일은 다 슈지 사르시 |
| (0503b3) | 뜻을 東萊의 엿즈와 ㅁㅁ註進 | ㅎ야 | | 그 返事 대로 우리 兩 人 中에 |
| (0515a4) | ㅁ장 니근 사를 十五 人을 差定 | ㅎ야 | | 두어시니 ㄴ즈-ㅎ야 一 船 二 ㅁ |
| (0102b1) | 안히 잇스오니 判事네도 同道 | ㅎ야 | | 오쇼셔. 代官들도 ㅎ 고대 잇습 |
| (0825a3) | 갇드니마는 자네도 멀리 슈고- | ㅎ야 | | 겨시니 祝願 아니튼 못 ㅎ 양으 |
| (0708b4) | 오려 ㅎ닉. 장쉬 돈돈이 분부- | ㅎ야 | | 게시오니 ㅈ쑈오나 ㅁ남을 ㅎ |
| (0310b1) | 나는 下口 언마는 客人을 위- | ㅎ야 | | 고디시기 잔-ㅁ다 다 먹고 ㅁ즈 |
| (0830a1) | ㅁ대 對馬島主 불셔 보내믈 위- | ㅎ야 | | 빅을 내다 ㅎ옵닉. 빅을 타 ㅁ우 |
| (0712a1) | 시프외. 쏘 더 使 信使를 위- | ㅎ야 | | 冠帶를 ㅎ 작시면 信使도 冠帶 |
| (0706a3) | . ㅁ-ㅎ 거시언마는 下人을 위- | ㅎ야 | | 德談엿 일이라 ㅎ셔 우리를 부 |
| (0708b2) | ㅈ 자네 일홈은 무어신고 ㅎ각- | ㅎ야 | | 禮홀 제 슬오려 ㅎ닉. 장쉬 돈돈 |
| (0124a5) | . 리. 자닉 보시드시 방새 파락- | ㅎ야 | | 누추-ㅎ니 一 夜를 계유 堪忍 ㅎ |
| (0515a6) | 人을 差定 ㅎ야 두어시니 ㄴ즈- | ㅎ야 | | 一 船 二 船 三 船-ㅈ지는 三 |
| (0105a6) | ㅁ使의 드려 가서 萬事를 ㅁ션- | ㅎ야 | | 나의 ㅎ소를 나타나디 아닐 양. |
| (0524b5) | ㅁ오매 기드로디 말고 잘 ㅁ션- | ㅎ야 | | 썩럼 업게 ㅈ간-ㅎ시소. 니르사 |
| (0810b6) | ㅈ 양으로 앓가 두 분-씩셔 권- | ㅎ야 | | 니르오니 이도 일덩 大君 ㅈ셔 |
| (0717b6) | ㅈ 誠信之道 란디 心中의 친- | ㅎ야 | | 아름다왕이다. 우히도 도홀 양. |
| (0520b2) | 도 녀너-ㅎ시모로 ㅁ장 조출- | ㅎ야 | | ㅁ옵 편히 쉬오니 근심 마르시. |
| (0615a3) | ㅈ샤를 부러 출혀 오르시게 ㅁ- | ㅎ야 | | 니르오니 船 中에 ㅁ브심도 ㅁ |
| (0801b6) | . ㅈ 가지 스양-ㅎ오완마는 ㅁ- | ㅎ야 | | 두시니 ㅁ디 못 ㅎ여 두엇더니 |
| (0826b1) | . 에 나라 일을 ㅁ고 三使를 청- | ㅎ야 | | 하딤-ㅎ는 양 아름다오미 나믈 |
| (0206b5) | 먹기를 ㅁ히 ㅎ엿스오니 그만 | ㅎ야 | | 마르쇼셔. 그러커니와 나의 스 |
| (0828b6) | 롭다이 너겨 술-들도 불셔 취- | ㅎ야스오니 | | 도라 가고져 ㅎ녕이다. 빅에 투 |
| (0522a1) | . 도록 어렵사리 니르옵시뇨? | ㅎ압즈 | | -홀 만 ㅎ일이오면 엇디 열현 |
| (0512a6) | . 吉日은 來月 十二三日의 ㅁ- | ㅎ얏다 | | 니르옵닉. 닉일은 信使 빅 트실 |
| (0815a2) | 르셔 內內 御禮를 슬오려 ㅎ각- | ㅎ얏든디 | | 우리의 情이 ㅁ-ㅎ인 디 이리 |
| (0519a2) | ㅎ옵녕이다. 멀리 ㅁ즈심 滿足 | ㅎ양이다 | | . 니르시드시 天氣도 ㅁ흐디 |
| (0125b1) | 거시 아니라 別로 슬와 주실가 | ㅎ여 | | 슬왓습닉. 그러ㅎ면 스스roi |
| (0618b4) | 리 그른 디 되기는 눈에 알피라 | ㅎ여 | | 가지 가지 니르오니 비록 오르 |
| (0409a6) | ㅈ 거시니 빅 갈 ㅁ에 아므 빅라 | ㅎ여 | | ㅁ세 더겨 보내옵소. 그리 ㅎ오 |
| (0101b5) | ㅈ지 왓습닉. 안히 게시면 오려 | ㅎ여 | | 案内 슬오시드라.” 니르고 오리 |
| (0622a5) | 도 一 人도 나쁘니 업시 ㅁ코져 | ㅎ여 | | 니르오니 그리 아르쇼셔. 이 ㅁ |
| (0217b6) | 올가 너기옵닉. 약도 먹고 ㅁ도 | ㅎ여 | | 이제는 ㅁ화습닉이다. 이제 쏘 |
| (0317a2) | ㅈ히 못 ㅎ고 오늘은 자닉-네로 | ㅎ여 | | 主人의 ㅁ리를 출혀 권-홀 양으 |
| (0133a6) | . ㅁ의도 養性 ㅎ여 나실 양으로 | ㅎ여 | | 보옵소. 그리 ㅎ오리. 案内는 ㅁ |
| (0111a6) | 와 빅 ㅎ 취이 ㅁ뎛스오니 글로 | ㅎ여 | | 근심-ㅎ옵닉. ㅁ슴 빅 어이 ㅎ |
| (0113b6) | 도 브딜-ㅎ여 ㅁ뎛스오니 글로 | ㅎ여 | | 근심-ㅎ옵닉. 이제 오는 ㅁ도 |

| | | | | |
|----------|--------------------|-----|--|-------------------|
| (0609a4) | 너-더 즐거오미 又 업서 글로 | 흥여 | | 췌을 즐겨 어즐-흥여 正體 업스 |
| (0521a6) | 흥논 일이 이셔 예-스지 오소 | 흥여 | | 술와시니 종용히 잘 드르시소. |
| (0117a6) | 우리 일홈은 아피옵도쇠. 그리 | 흥여 | | 몸 흥오리. 書契의 흥 지라도 |
| (0907a6) | 도리의 술을 디내 먹고 아프리 | 흥여 | | 도라 가심도 주세 몰라 內內 이 |
| (0111b2) | 여 근심-흥옵넌. 므슴 비 어이 | 흥여 | | 떠던습논고? 水木船이 듯기 사 |
| (0120b6) | 용히 쉬옵소. 너일 나죄란 入館 | 흥여 | | 보옵새이다. 그리 흥옵소. 슈고 |
| (0408a1) | - 隻 代官으로서 借船 一隻 승 | 흥여 | | 三 隻이옵도쇠. 미리 술와 두옵 |
| (0427a3) | 되디 못 흥 거시니 送使의 談合 | 흥여 | | 아못 도로나 도홀 양으로 흥 거 |
| (0133a4) | 거시니 아프리커나 밤의도 養性 | 흥여 | | 나실 양으로 흥여 보옵소. 그리 |
| (0601a3) | 五 終 捷解新語 第六 三使를 請 | 흥여 | | 상접-홈이라. 술-도록 술-도록 |
| (0618a2) | 도 극진이 흥고 참참이 못히 請 | 흥여 | | 振舞도 흥 양으로 흥엿넌디 비 |
| (0601b5) | 三使 1 멀리 渡海흥서 내-게 請 | 흥여 | | 對坐흥논 일 곱곰 싱각-흥면 못 |
| (0212a4) | 시는 대로 東萊의 엿즈와 催促 | 흥여 | | 보내오리. 친히 보와 술을 말이 |
| (0211b2) | 3소. 圓座 帳枕 以下 物을 催促 | 흥여 | | 수이 드리옵소. 또 大廳地衣도 |
| (0508a1) | 극진이 흥시다 니르시니 安堵 | 흥여 | | 흥옵넌. 며칠만의나 返事 1 올 |
| (0404a2) | 들의-게도 申舍흥여 隨分 念入 | 흥여 | | 잘 드라 건넬 양으로 닐릿습넌. |
| (0106a6) | 너기시믈 알건마는 하 無斗方 | 흥여 | | 습논 일이오니 샤-흥옵소. 이디 |
| (0325b4) | 木綿은 내 친히 보와 又 장 吟味 | 흥여 | | 드릴 거시니 代官네-씩 하 곱 |
| (0530b3) | 願의 연향이오니 信使의 對面 | 흥여 | | 또도 술와 볼 거시니 그리 아 |
| (0404a1) | 在前 브터 代官들의-게도 申舍 | 흥여 | | 隨分 念入흥여 잘 드라 건넬 양 |
| (0903b4) | 기리 안자시니 무식히도 흥가- | 흥여 | | 밤-셋쥬 뉘웃줍넌. 언머 모다 |
| (0917b2) | 3옵도쇠. 아프려나 므옵을 다- | 흥여 | | 니기옵소. 그리 니르시니 감격- |
| (0705a4) | 접-흥을 양으로 돈돈이 분부- | 흥여 | | 계시건만는 식골 일이란디 아 |
| (0607b4) | 를 보라 흥시니 이룰 보려 위- | 흥여 | | 스양을 아니 흥넌이다. 接待의 |
| (0313b3) | 3이나 이실가 너겨 聞合을 위- | 흥여 | | 히-마다 올라 가느니이다. 어오 |
| (0909b6) | 도쇠. 昨夜는 우리도 술의 취- | 흥여 | | 싱각디 못 흥거니와 더 若衆들 |
| (0115b5) | 키 거시온고? 正官은 비-멀미- | 흥여 | | 인스 몰라 아리 누어습넌. 書契 |
| (0808a3) | 제 브터 습던 道理를 잘 싱각- | 흥여 | | 보시소. 江戸에 반 둘이나 무거 |
| (0424a2) | 1 일이라 싱각 말고 곱곰 싱각- | 흥여 | | 보옵소. 送使는 텃텃-흥여 이 |
| (0919b6) | 3로 나도 日本말을 니겨 시작- | 흥여 | | 이제 불셔 十年나마 되야시되 |
| (0420b2) | 배예 前例의 업슨 일을 시작- | 흥여 | | 批判 이실 적은 소임의 죄는 권 |
| (0122b6) | 軍官을 보내여 무르시니 감격- | 흥여 | | 흥옵넌. 이제 正官 보오라 가오 |
| (0915b6) | 권-흥심 아프 일-도곤 감격- | 흥여 | | 御禮 몸에 나른 일이옵소쇠. 이 |
| (0605a2) | 지은 것도 두로 보시고 느즈- | 흥여 | | 도라 가시게 바라넌이다. 今日 |
| (0527b3) | 일로 불관-흥 거시라도 장만- | 흥여 | | 드리려 흥올고? 信使를 모셔 곱 |
| (0518b3) | 主 맛조이로 왓습넌. 마즈 년- | 흥여 | | 도홀 天氣에 예-스지 건너시니 |
| (0411b6) | 시논고? 흥물며 近年 以來 년- | 흥여 | | 木花 사오나와 公木의 大切히 |
| (0601b1) | 1 安泰히 誠信之 道를 서르 던- | 흥여 | | 이제 또 三使 1 멀리 渡海흥서 |
| (0609a5) | 서 글로 흥여 췌을 즐겨 어즐- | 흥여 | | 正體 업스와 상을 서디 아니코 |
| (0113b5) | 3군도 적고 비예 연장도 브딜- | 흥여 | | 떠덜스오니 글로 흥여 근심-흥 |
| (0424a3) | 각-흥여 보옵소. 送使는 텃텃- | 흥여 | | 이러트시 되기 어려워 폐로이 |
| (0621b3) | 못 흥 일이오니 이 알프란 곳- | 흥여 | | 습거든 조츠시미 웃듬이오녕이 |
| (0918a3) | 여도 어두운 디 길 네느니 又- | 흥여 | | 니기-도록 뒤호로 므느는 듯 흥 |
| (0125a5) | 니와 주세히 더거 두옵소. 덩- | 흥여 | | 주는 거슬 술온 거시 아니라 뵈 |
| (0326a5) | 현이 아니 흥오리. 마즈 종용- | 흥여 | | 더렁 이렇 습스오니 언머 지리 |
| (0326b5) | 오늘은 날도 도쿄 서르 종용- | 흥여 | | 우리도 깃거 흥넌이다. 어제는 |
| (0524a4) | 3더니 三使 아회-들의 웃 웃슬 | 흥여 | | 니피려 흥오니 그리 아리시게 |
| (0429a3) | 췌을 흥옵소. 萬事 므옵 대로 못 | 흥여 | | 되츠디 못 흥논 바는 게나 예나 |
| (0801b6) | 3마는 곳-흥야 두시니 마디 못 | 흥여 | | 두엇더니 大君 드르시면 우리 |
| (0213b6) | 시니 흥 몸으로셔는 논호디 못 | 흥여 | | 민망-흥외. 送使를 보셔도 츠 |
| (0404a6) | 릿습넌. 나라 일이란디 마디 못 | 흥여 | | 보채엿습더니 맛당이 너기셔 또 |
| (0610a4) | 섬의 일이란디 心中의 밋디 못 | 흥여 | | 아프란 귀-흥 일도 업시 終日 |
| (0209a3) | 3디 흥 디 예는 달호기를 잘 못 | 흥여 | | 이러-흥니 허물 마르시소. 습 |
| (0918a5) | 3 니기-도록 뒤호로 므느는 듯 | 흥여 | | 자네-네 日本말 흥시믈 드르면 |
| (0109a2) | 러 흥온가? 遠見의는 못디 아니 | 흥여도 | | 뵈면 즉시 釜山浦로써 우리-게 |
| (0821a1) | 는 스스 썸시 아니오니 아모리 | 흥여도 | | 췌디 못 흥 일이로송이다. 또 |
| (0806a3) | 1 내 스췌-흥 썸으로는 아프리 | 흥여도 | | 가져 도라 갈 일은 업스올 썸 |
| (0918a3) | 니르믈 고디 들렛더니 아프리 | 흥여도 | | 어두운 디 길 네느니 又-흥여 |
| (0526a4) | 2니 엿줍기는 가지 가지 주션- | 흥여도 | | 맛당히 너기시디 아니실가 근 |
| (0622a2) | 디 말 일을 니르신 대로 스췌- | 흥여도 | | 一人도 나르니 업시 請코져 흥 |

| | | | |
|----------|---------------------|-------|---------------------|
| (0415b2) | .. 아프리 시절의 樣子를 스설- | 흥여도 | 代官네도 아라시건마는 종시 술 |
| (0617b3) | 습디 아닌 전의 色色이 스양- | 흥여도 | 이 격기-흥는 분-네 니르기는 |
| (0918b4) | 갈 흥시물 드르면 드러 아든 물 | 흥여도 | 神妙히 너기옵디. 이리 부러-호 |
| (0804a3) | .. 반씩 金子를 예지이 보내노라 | 흥여시니 | 자네 이 맞기 어려운 差別을 질 |
| (0506b1) | 나-네 口上 道理 즈서히 註進 | 흥여시니 | 쉽사리 返事 올 써시니 그리 |
| (0402b3) | .. 國 誠信으로 公貿易이라 덩- | 흥여시면 | 이러특시 出入이 잇다 아닐 듯 |
| (0528b6) | 르시몬 극진히 넘너-흥심 滿足 | 흥여이다 | .. 그러커니와 朝鮮 作法은 긋 |
| (0317b5) | 나-흥가 너기노이다. 御意 감격- | 흥여이다 | .. 우리-들도 술을 一切 못 흥 |
| (0201b3) | 를답다 니르시옵디. 御意 감격- | 흥여이다 | .. 우리는 덕분을 써 아브 일도 |
| (0308a3) | 용히 말슴-흥옵새. 御意 감격- | 흥여이다 | .. 立酌을 흥실 작시면 일뎡 禮 |
| (0202a6) | 니 마장 섭섭히외. 御意 맞당- | 흥여이다 | .. 나토 늑고 본디 병 인는 사람 |
| (0711a6) | 흥연든디 이리 니르시미 맞당- | 흥여이다 | .. 回答 니르고 그저 니러 나미 |
| (0309b1) | 떠니 自由히 너기옵신가 민망- | 흥여이다 | .. 안자서 禮 어려오니 당데로 |
| (0203a3) | 물 흥고 누어 잇스오니 민망- | 흥여이다 | .. 書契를 보니 島中 無事흥시니 |
| (0711a4) | 흥소. 이러로서도 몬져 술오려 | 흥연든디 | 이리 니르시미 맞당-흥여이다. |
| (0418a5) | 가지 가지 생각-흥건마는 별로 | 흥염즉 | -흥 묘리도 업고 출하리는 이 |
| (0529a4) | 와 朝鮮 作法은 긋긋티 그리 몬 | 흥염즉 | -흥건마는 니르시는 일이오니 |
| (0310b4) | 이기 잔-마다 다 먹고 몬져 취- | 흥염건마는 | 이도 쏘 먹스오니 자-네도 이 |
| (0322a2) | 나 당시 公貿易 銅 鐵 看品도 못 | 흥엇고 | 封進 雜物들도 올려 가야 京으 |
| (0618a4) | 못히 請흥여 振舞도 흥 양으로 | 흥엇는디 | 빅 우호로서 바르디 나시다 흥 |
| (0206b5) | 카는 감격-흥오매 먹기를 과히 | 흥엇스오니 | 그만 흥야 마르쇼셔. 그러커니 |
| (0118b1) | 셔도 자-는 上口 신 줄 聞及 | 흥엇스오니 | 斟酌 마옵소. 하 니르시니 흥나 |
| (0124b1) | 나 누추-흥니 一夜를 계유 堪忍 | 흥엇스오니 | 큰 대 열과 공석 五六 枚만 몬 |
| (0320a5) | 도라 오라 島主 마장 분부- | 흥엇스오니 | 아프려나 덕분을 써 수이 歸島 |
| (0319a1) | 나 그러튼 아녀이다. 마장 취- | 흥엇스오니 | 방의 도라 가기도 잘 못 흥가 |
| (0208a6) | 머글 거슬 다 머검즉이 장만- | 흥엇스오니 | 깃거 흥옵노이다. 그리 니르시 |
| (0810b3) | .. 쏘 大坂의 城도 거르기 장만- | 흥엇스오니 | 이도 구경-흥실 양으로 앓가 |
| (0901b5) | .. 이러로서 몬져 술오려 생각- | 흥엇스오되 | 말슴-흥노라 떠들습더니 이리 |
| (0210a5) | 리틀 모로논가 너겨 부러 이리 | 흥엇습는가 | ? 우리도 이런 일을 어이 즈세 |
| (0905b3) | .. 若衆들희 연고 업기를 전위- | 흥엇습디 | .. 형혀 이리 술오물 식새와 너 |
| (0714b4) | 예-식지 극진히 무로시미 感激 | 흥영이다 | .. 수이 가 브틀 써시니 그 저 |
| (0519b1) | 나 예-식지 오오니 이제야 安堵 | 흥영이다 | .. 對馬島主의 使 즉시 와셔 |
| (0717b4) | 기옵소. 그리 니르시니 감격- | 흥영이다 | .. 나도 日本말을 사름-마다 니 |
| (0710a1) | 二人이 三島식지 와 기도른다 | 흥오니 | 來日은 三島의 가실 써시니 즉 |
| (0827b2) | 듯고 거르기 귀히 너겨 깃제라 | 흥오니 | 일로써 兩國 安泰흥 陰德인가 |
| (0524a4) | 나-들 의 옷 옷술 흥여 니피려 | 흥오니 | 그리 아라시게 잘 주션-흥시소 |
| (0904b6) | 거니와 다만 노름 히로나 흥려 | 흥오니 | 닉일이라도 연고 업스시거든 사 |
| (0901b1) | 나탕으로도 회초 振舞를 흥고져 | 흥오니 | 엇더-흥울고? 어와 어와 마장 |
| (0306a4) | 다 먹습노이다. 술이 도토 아니 | 흥오니 | 권키 어렵습것마는 잔 잡는 양 |
| (0309a1) | 름은 肉食 데윗 거슬 먹디 아니 | 흥오니 | 그러흥온 디 본디 오래 서기 잘 |
| (0807a2) | 술설도 信使 스설의 디디 아니 | 흥오니 | 내 생각은 亭主흥는 대로 흥시 |
| (0117b4) | 근나면 아브의 히도 도티 아니 | 흥오니 | 브디 내옵소. 그리 흥옵새. 밤 |
| (0908b5) | 인스당도 아브 것토 습디 아니 | 흥오니 | 이리 술은 우회란 자네 흥 대로 |
| (0304a2) | 듯 흥옵건마는 채는 도티 아니 | 흥오니 | 이제라도 넘너-흥노이다. 그 |
| (0218b1) | 종용티 못 흥외. 看品은 無事히 | 흥오니 | 아롭답스외. 춘 날의 오래 안자 |
| (0219a5) | 나쇼셔. 덕분의 看品을 無事히 | 흥오니 | 우리도 깃비 너기옵디. 우리는 |
| (0816b4) | ..로켜 어렵소이 너기오와 廻引 | 흥오니 | 허를 마르시고 마장 먹음 편히 |
| (0103b1) | 니 各各 답답이 너기실가 氣遣 | 흥오니 | 萬事의 두로 쓰리시물 미들 썩 |
| (0901a4) | 語 第九 요스이는 館中도 徒然 | 흥오니 | 우음 바탕으로도 회초 振舞를 |
| (0401b3) | .. 니르시드시 처음으로 御對面 | 흥오니 | 아롭다와 흥옵디. 이 看品時 前 |
| (0720a5) | .. 바를 아춤의 奉行디-씩 議論 | 흥오니 | 御進物도 城에 오르시는 날 알 |
| (0517a6) | .. 窺브심도 게실 써시니 서의- | 흥오니 | 무턱 오르셔 홀리나 쉬시고 바 |
| (0406b4) | ..스이 빅 가는 디 보내려 생각- | 흥오니 | 公木 五十 束만 몬져 드러 주옵 |
| (0619b1) | 나 흥는 양으로 니르미 민망- | 흥오니 | 폐롭스오나 오르셔 내나 늑이 |
| (0301a5) | 흥선 디 오래되 서르 보옵디 몬 | 흥오니 | 섭섭흥옵더니 이리 보오니 귀 |
| (0818b5) | 를 자네 피신 사름의-게 네물을 | 흥오니 | 모로미 스양 마옵소. 전 브터 |
| (0823b3) | 吉日이오니 모로 하디 振舞를 | 흥오니 | 御案內 아뢰닝이다. 글로 흥야 |
| (0711b3) | 그저 니러 나미 마장 섭섭힐 뜻 | 흥오니 | 헛튼 안주로 디접-흥시미 도홀 |
| (0127a2) | 흥 양으로 흥오리. 茶禮는 明日 | 흥오니 | 미리 출혀 겨시다가 나실 양으 |
| (0318a5) | 나르시니 그러흥온 디 마장 취- | 흥오되 | 正根을 계요 출혀 안갓습노이다 |

| | | | |
|----------|--------------------|-------|----------------------|
| (0904a6) | 로송이다. 우리로서도 회례를 | 호오려 | 싱각거니와 朝鮮 料理면 자네- |
| (0323a2) | 는 서울로써 헤아려 오는 대로 | 호오려니와 | 公木은 束數 잇스오니 쇼인- |
| (0125a1) | 東萊 술와 보내야 드릴 양으로 | 호오려니와 | 주세히 더거 두읍소. 덩-호여 |
| (0116a3) | . 書契를 내셔든 보옵새. 그리 | 호오려니와 | 김피 드럿스오니 別호 일도 업- |
| (0126b6) | 거시니 二三日 內에 홀 양으로 | 호오리 | . 茶禮는 明日 호오니 미리 출- |
| (0326a3) | 事네과 代官들히 열현이 아니 | 호오리 | . 마즘 종용-호여 더렁 이렁 솟- |
| (0604a6) | 고 定홀 써시오니 열현티 아니 | 호오리 | . 아직 오늘은 祝願의 일이오니 |
| (0121b2) | 또 아니 니르셔도 열현이 아니 | 호오리 | . 東萊로써 앓가 도라 왔습니. |
| (0429b5) | 장-호믈 뉘-게 니르울고? 그리 | 호오리 | . 닉일은 막춤 니르시니 그지 |
| (0127b1) | 실 양으로 호쇼셔. 아옵게 그리 | 호오리 | . 다만 正官이 본디 병 든 사람- |
| (0133b1) | 나실 양으로 호여 보옵소. 그리 | 호오리 | . 案内는 先通之 意 서어탄 말- |
| (0409b2) | 호여 주세 더거 보내옵소. 그리 | 호오리 | . 公木 五十 束 드련스오니 나- |
| (0126a4) | 單字를 써 보내옵소. 글란 그리 | 호오리 | . 茶禮는 어니 띄 호울고? 수이 |
| (0322b4) | 까 너기옵닉. 그러커니와 催促 | 호오리 | . 封進 返禮는 서울로써 헤아려 |
| (0108a1) | 실 듯 아니 호건마는 모시기란 | 호오리 | . 先度 中歸船 便의 二 番 特送- |
| (0117a6) | 홈은 아피옵도쇠. 그리 호여 묻 | 호오리 | . 書契의 호 지라도 어근나면 - |
| (0131b3) | 니 자넹 그르다는 아니 호실 듯 | 호오리 | . 이는 내 스스로 솟는 말이어- |
| (0206b3) | 는 본디 못 먹습건마는 감격- | 호오매 | . 먹기를 과히 호엿스오니 그만 |
| (0722b5) | 제는 對面호옵고셔 서르 말슴- | 호오매 | . 아롭다오미 禮에 너머이다. 捷- |
| (0302a4) | 커술 병 드오와 던시 뵈옵디 몬 | 호오와 | . 本意를 背호도다 너기옵닉이다 |
| (0801b4) | 物 두실 적의 가지 가지 스양- | 호오완마는 | . 굿-호야 두시니 마디 못 호여 |
| (0214b2) | 이오니 몬져 보심이 올티 아니 | 호온가 | . ? 예는 호 번이나 뵈와시니 그- |
| (0319b2) | 모 먹습고 젓스온 말슴을 만히 | 호온가 | . 너기느이다. 이도 술이 솟는 일 |
| (0502a6) | 御仕습이옵도쇠. 府中도 無事 | 호온가 | . ? 올스외. 上下 대되 無事호고 |
| (0610b2) | 업시 終日 겨셔 도로켜 서의- | 호온가는 | . 너기옵거니와 祝願의 일이라 |
| (0611b2) | 만정 수이 호고져 호니 엇더- | 호온고 | . ? 니르시매 밋디 아녀 우리도 |
| (0902b4) | 술온 일이오니 닉일 브터 우리 | 호울 | . 써시니 자네-네도 그리 아옵소 |
| (0115a2) | 시고 닉일 부루 좃주쇼셔. 그리 | 호울 | . 거시니 막옵 편히 너기옵소. 正 |
| (0205b2) | 너기옵닝이다. 封進宴을 수이 | 호울 | . 써시니 그 저기 아니 보올까? |
| (0716a4) | 일이니 吉日을 골히노라 廻引 | 호울 | . 써시니 그 안히 路次의 괴로오- |
| (0819b4) | 도 업셔 이 二三日 內에 出船 | 호울 | . 거시니 그리 아르쇼셔. 어재도 |
| (0916a6) | 와셔 우음 바탕으로도 싱각- | 호울 | . 써시니 자네-네도 내 망발-홀 |
| (0705a3) | 디나실 적의 아므려나 되접- | 호울 | . 양으로 든든이 분부-호여 게시 |
| (0821b5) | 고티노라 호면 이도 二三日은 | 호울 | . 써시오 또는 멀리 되셔 예-스 |
| (0612b2) | 니 이제는 自由히 마옵디 못 | 호울 | . 써시니 그 날은 天氣에도 붓디 |
| (0821a6) | 內 出船이라 니르시니 그리 못 | 호울 | . 일은 험-호되 건너 온 비를 몬 |
| (0817a3) | 편히 쉬신 후의 祝願의 宴享도 | 호울가 | . 미덧닝이다. 또 이거슨 귀티 아 |
| (0619b6) | 호믈 프러 주쇼셔. 호면 그러곰 | 호울가 | . ? 그대-도록 싱각-호실 작시면 |
| (0307a6) | 다리 힘이 업스와 오래 서디 못 | 호울가 | . 엇줍습닉. 前例는 그러티 아니- |
| (0527b3) | 호 거시라도 장만-호여 드리려 | 호울고 | . ? 信使를 모셔 갈 작시면 사람- |
| (0126a5) | 나 그리 호오리. 茶禮는 어니 띄 | 호울고 | . ? 수이 홀 양으로 호옵소. 東萊 |
| (0428a1) | 과 두고 番홀 사람도 업고 엇디 | 호울고 | . ? 今夜 쯔 下人을 番을 호이시- |
| (0214a4) | 보셔도 차례로 보시면 뉘 雜言 | 호울고 | . ? 우리는 一番 特送이오니 몬 |
| (0806a6) | 셔 下人의-게나 주시미 엇더- | 호울고 | . 앓가 스쉴-호시믈 드르며 이리 |
| (0901b1) | 는 振舞를 호고져 호오니 엇더- | 호울고 | . ? 어와 어와 마장 도췌외. 이러 |
| (0620b3) | 官 以下란 올리디 말미 엇더- | 호울고 | . ? 이러나 더러다 자네-게 맞디 |
| (0408a6) | 려니와 홈의 三 隻-도록 엇더- | 호울고 | . ? 자넹-네 借船으란 미쳐 보나 |
| (0421b4) | 니일이라도 드릴 거시니 엇더- | 호울고 | . ? 자넹의 여러 말을 듯건대 아 |
| (0204b2) | 믈 듯줍고 언제 건너 가 말슴- | 호울고 | . 너기옵더니 호호 일은 多魔라 |
| (0712b3) | 도홀가 시프외. 그러면 冠帶도 | 호옵새 | . 술 낼 일도 소임의-게 그 스췌 |
| (0825b2) | 이러나 더러나 맛당-호실 대로 | 호옵새 | . 또 풍뉴-호는 사람은 엇디 상 |
| (0721a4) | 이러나 더러나 니르시는 대로 | 호옵새 | . 어제는 城에서 인스당이며 萬 |
| (0505b2) | 萊의 엇즈와 飛脚을 쉼 양으로 | 호옵새 | . 수이 書契를 내옵소. 어제는 |
| (0117b6) | 아니 호오니 브디 내옵소. 그리 | 호옵새 | . 밤이 드러시니 아직 御酒 호- |
| (0802a5) | 우리 그림이 되올까 하 민망- | 호와 | . 그 雜物에 小判 金子 百 枚를 |
| (0119a6) | 깃브옵거니와 고디 뉘든 아니 | 호와 | . 저기 아라 듯즈올쏜가? 마장 |
| (0414a5) | 다 니르시는 바 아므려도 不審 | 호와 | . 자넹-네 걸터 니르심과 우리 |
| (0301b2) | 섬섬호옵더니 이리 보오니 귀- | 호와 | . 쇼인이 몬져 술을 썬술 이리 |
| (0104a1) | 이어니와 말슴-젓치 들엄죽- | 호와 | . 우리-게 미드시는 일은 바늘 |
| (0213b6) | 로써는 호호디 못 호여 민망- | 호와 | . 送使를 보셔도 차례로 보시- |

| | | | | |
|----------|--------------------|--------|--|---------------------|
| (0218a4) | 이제 또 보올 거시니 종용티 못 | 하외 | | . 看品은 無事히 ㅎ오니 아릅답 |
| (0506a2) | 밤 들게야 도라 와 보옵도 못 | 하외 | | . 東萊 니르시든 “슈고로이 건 |
| (0917a5) | 계시과다 다 원-ㅎ몬 兩 國의 | 하옵이라 | | 니르논 이리옵도췌. 아프려나 |
| (0428a4) | 하올고? 今夜 ㄹ 下人을 番을 | 하이시면 | | 넉일란 못즈오리. 判事네는 代 |
| (0529b2) | 옷술 보디 슬티 아니케 장만- | 하이오려니와 | | 그 모단은 너모 ㄹ디 아닌 일이 |
| (0815a4) | 각-ㅎ얏든디 우리의 情이 던- | 하인 | | 디 이리 祝願히시니 아모의 果 |
| (0902a3) | ㄹ르시니 우리 心中이 서르 던- | 하인가 | | 더옥 아릅다왕이다. 그리 니르 |
| (0309a4) | ㄹ흔 디 본디 오래 셔기 잘 못 | 하와 | | 슬왓습셔니 自由히 너기옵신가 |
| (0910a5) | 드러시니 이 ㅎ 허물로 싱각- | 하옵거니와 | | 兩 國境의 소임을 ㅎ는 사름이 |
| (0617a4) | 주쇼셔. 니르시는 道理 맛당은 | 하옵거니와 | | 그리 니르실 듯 ㅎ 일을 알고 |
| (0820b5) | 시는 배 감격-하옵기는 받고져 | 하옵건마는 | | 스스 셔시 아니오니 아모리 ㅎ |
| (0709a4) | 시곰 극진히 行下히시니 민망- | 하옵건마는 | | 行下를 존녕이다. 信使 吉田 |
| (0318a1) | 이다. 우리-들도 술을 一切 못 | 하옵건마는 | | 하 먹과다 니르시니 그러흔 |
| (0303b6) | ㄹ빅 저기 그쳐 점점 ㅎ리는 듯 | 하옵건마는 | | 채논 도티 아니 ㅎ오니 이제라 |
| (0306a1) | ㄹ디 남기렁잇가? 본디 먹디 못 | 하옵것마는 | | 다 먹습는이다. 술이 도토 아니 |
| (0722b2) | 主로써 ㄹ는 일은 어제는 對面 | 하옵고셔 | | 셔르 말슴-ㅎ오매 아릅다오미 |
| (0820b5) | 거슬 주노라 ㅎ시는 배 감격- | 하옵기는 | | 받고져 ㅎ옵건마는 스스 셔시 |
| (0208a6) | 검즉이 장만-ㅎ엿스오니 깃거 | 하옵는이다 | | . 그리 니르시믈 고디 아니 듯 |
| (0526a6) | 당히 너기시디 아니실가 근심- | 하옵는이다 | | . 아직 가서 太守 니르시는 道 |
| (0132a4) | 客人이 와야 亭主 보디 아니 | 하옵는가 | | ? 그러커니와 게셔 힘 ㅼ어 이런 |
| (0830a1) | ㄹ셔 보내믈 위-하야 ㅼ를 내다 | 하옵닌 | | . ㅼ를 타 ㅼ워 信使 ㅼ에 몬져 |
| (0514a1) | 가셔 ㅼ를 기드려려 ㅎ신다 | 하옵닌 | | . 니르시드시 朝鮮 船頭들도 來 |
| (0123b5) | ㄹ가 사름을 보내오니 브르더라 | 하옵닌 | | . 그러커든 몬져 가옵소. 나도 |
| (0204a1) | ㅼ도하 ㄹ용히 말슴-ㅎ니 깃거 | 하옵닌 | | . 그러하외. 正官은 ㅼ으로써 ㅼ |
| (0304b1) | ㄹ ㅼ고 격게 보내고 ㅼ에 걸려 | 하옵닌 | | . 都船主도 요스이 ㅼ히 겨시던 |
| (0122b6) | 을 보내여 무르시니 감격-하여 | 하옵닌 | | . 이제 正官 보오라 가오니 다 |
| (0508a1) | ㄹ이 ㅎ시다 니르시니 安堵하여 | 하옵닌 | | . 며출만의나 返事 올고 짐작 |
| (0203b1) | ㄹ니 島中 無事히시니 아릅다와 | 하옵닌 | | . ㅼ스와. 대되 無事히닝이다. |
| (0401b3) | 음으로 御對面히오니 아릅다와 | 하옵닌 | | . 이 看品時 전 브터 저을 세니 |
| (0212b5) | 히시니 ㅼ장 ㅼ야하여 노흠스와 | 하옵닌 | | . 니르시미 그르든 아니 ㅎ거니 |
| (0403b5) | 로 우리도 열현이는 아디 아니 | 하옵닌 | | . 在前 브터 代官들의-게도 申 |
| (0514b2) | 行의 아릅다운 일이라 다 祝願 | 하옵닌 | | . 그러면 게셔도 日吉利 이실 |
| (0111a6) | ㅼ엿스오니 글로 하여 근심- | 하옵닌 | | . ㅼ슴 ㅼ어이 하여 ㅼ던습는 |
| (0113b6) | ㅼ ㅼ엿스오니 글로 하여 근심- | 하옵닌 | | . 이제 오는 법도 잇건마는 ㅼ |
| (0518a5) | 順風의 無事히 ㅼ즈오니 깃거 | 하옵닝이다 | | . 對馬島主 맛조이로 왓습니. ㅼ |
| (0518b5) | 너시니 아프 일-도곤 아릅다와 | 하옵닝이다 | | . 멀리 마즈심 滿足히양이다. ㅼ |
| (0613a5) | 島-ㅼ지는 브트실까 아릅다와 | 하옵닝이다 | | . ㅼ이 ㅼ디 아닌 전의 出船히 |
| (0302b3) | 드르니 병 드르시다 듯고 넘너- | 하옵더니 | | 어디를 알파 ㅎ시던고? ㅼ출 보 |
| (0610b4) | 하옵거니와 祝願의 일이라 싱각- | 하옵더니 | | 御慰勸히신 말슴-것티 도로혀 |
| (0208a1) | 전의는 격기엿 거시 이러티 못 | 하옵더니 | | 今度는 膳數器皿 以下 조출 |
| (0304b6) | 는 처음으로 보옵고 그지 업서 | 하옵테 | | . 御意 ㅼ티 처음으로 ㅼ오디 ㅎ |
| (0211a1) | 췌. 무려 보와 이제라도 드리라 | 하옵새 | | . 우리도 日記를 보고 ㄹ스오니 |
| (0206a6) | 하옵고 하 섭섭히오니 ㅼ ㅎ 츠레 | 하옵새 | | . 쇼인-네는 본디 못 먹습건마 |
| (0613b6) | 과 사름도 니르오니 ㅼ ㅼ出船 | 하옵새 | | . 마즈 ㅼ히 順風에 ㅼ-ㅼ지 ㅼ |
| (0307b6) | ㅼ 셔시니 안자셔 종용히 말슴- | 하옵새 | | . 御意 감격-하여이다. 立酌을 |
| (0218b4) | 의 오래 안자 게셔 언머 슈고- | 하옵셔노 | | ? 看品 後 연향-ㅎ실디 날도 |
| (0516a1) | 通事의-게 니르셔 거느려 가게 | 하옵소 | | . 오늘은 구름 가기도 도쿄 ㅼ |
| (0419b2) | ㅼ도 업스니 자네-네 ㅎ실 대로 | 하옵소 | | . 엿디 하야 우리 ㄹ는 일은 다 |
| (0624b4) | 아프리카나 자네 맛당-ㅎ 대로 | 하옵소 | | . 捷解新語 第六 終 捷解新語 |
| (0215b1) | ㅼ스오니 明日이라도 ㅎ 양으로 | 하옵소 | | . 나도 代官의 사름을 보내거니 |
| (0212a1) | ㅼ 하야-더시니 그도 ㅎ 양으로 | 하옵소 | | . 니르시는 대로 東萊의 ㅼ즈와 |
| (0516a6) | 부러시니 수이 ㅼ를 낼 양으로 | 하옵소 | | . 여긔 船頭도 그리 보와시니 |
| (0321a4) | 종용히 겨시다가 가실 양으로 | 하옵소 | | . 이리 감격-ㅎ 御意 시니 다 |
| (0132b3) | ㅼ ㅼ즈와 넉일 브디 ㅎ 양으로 | 하옵소 | | . 힘 ㅼ어 슬와 보오려니와 東萊 |
| (0126a6) | ㅼ ㅼ히 하올고? 수이 ㅎ 양으로 | 하옵소 | | . 東萊가 요스이 ㅼ티 아냐 ㅎ |
| (0121a3) | 란 入館하여 보옵새이다. 그리 | 하옵소 | | . 슈고-하옵시니. ㅼ가 ㄹ넉 ㅼ |
| (0409a3) | 아직 公木을 드려 주옵소. 그리 | 하옵소 | | . 註進히 거시니 ㅼ 갈 ㅼ에 아 |
| (0325a6) | 내올까 너기는이다. 글란 그리 | 하옵소 | | . 木綿은 내 친히 보와 ㅼ장 ㅼ |
| (0121a6) | 던 ㅼ딘 ㅼ를 御念入하셔 肝煎 | 하옵소 | | . ㅼ 아니 니르셔도 열현이 아 |
| (0106b1) | 無斗方하여 ㄹ는 일이오니 샤- | 하옵소 | | . 이대-도록 거르기 니르디 아 |

| | | | | | |
|----------|--------------------|---|------|--|-----------------------|
| (0303a3) | 병 빗치 거시니 모로매 도리- | 흥 | 흥소 | | . 니것따소이다. 病 中の 귀-흥 |
| (0403a5) | 도 분별 두서 氣味 도케 직간- | 흥 | 흥소 | | . 니르시느 마 判事-흥-씩로써 |
| (0329a5) | 品坐의셔 드토디 아니케 직간- | 흥 | 흥소 | | . 捷解新語 第三 終 捷解新語 |
| (0507b3) | 란 쓰실 써시나 잇거든 괴별- | 흥 | 흥소 | | . ” 흥시는 일이옵데. 어와 註 |
| (0429a2) | 홀 써시모로今夜란 브딕 番을 | 흥 | 흥소 | | . 萬事 막옵 대로 못 흥여 되츠 |
| (0802b5) | 사름-돌의-게나 주실 양으로 | 흥 | 흥쇼셔 | | . 委細之 儀는 對馬島主의 닐러 |
| (0305a4) | 흥으로 보오디 하 극진히 디접- | 흥 | 흥시니 | | 술을 양도 업서이다. 예서 보매 |
| (0520a3) | 서의-흥고 ㄱ 브트셔 ㄱ바도 | 흥 | 흥시느가 | | 아직 問安 알외닝이다. 녀-흥 |
| (0119b4) | 아라 듯즈울쏸가? ㄱ장 ㄱ흥히 通 | 흥 | 흥시닉 | | . 술란 흥마 마옵소. 하 마다 |
| (0121a3) | 옵새이다. 그리 흥옵소. 슈고- | 흥 | 흥시닉 | | . 앓가 숨던 빠딘 비를 御念入 |
| (0122a3) | 너시도다.” 녀-흥시고 問安 | 흥 | 흥시데 | | . 또 軍官도 보내시더니 왔습 |
| (0820a5) | 어셔. 어재도 가 보을 거술 ㄱ바 | 흥 | 흥실가 | | 問安만 술왔습더니 色色 御慰難 |
| (0805a5) | 어렵습써니와 奉行들의 스설- | 흥 | 흥씨느 | | 信使의셔 거스려 니르셔도 다 |
| (0310a1) | 를 삼습새. ㄱ장 ㄱ흥오니 그리 | 흥 | 흥싸이다 | | . 앓가는 서르 멀리 안자시니 술 |
| (0429a6) | 되츠디 못 흥는 마는 게나 예나 | 흥 | | | 가지옵도쇠. 우리도 그런 줄은 |
| (0323b4) | 스이만 주실 써시오니 이 나라 | 흥 | | | 페나 더울가 생각-흥-이다. 우 |
| (0718b2) | 양을 친히 가 괴별을 술오라.” | 흥 | | | 일이로소이다. 그러면 上下 대 |
| (0714a6) | 御對面의셔야 ㄱ셔히 술오려 | 흥 | | | 일이로소이다. 두 분을 예-스 |
| (0324a3) | 다. 우리 나라는 禮 ㄱ돈흥여 | 흥 | | | 번 덩-흥 후는 고티디 아니 흥 |
| (0903a3) | 도 그리 아옵소. 어제는 불의예 | 흥 | | | 振舞 ㄱ라 니르시니 고디 드렸 |
| (0606b2) | 습더니 게 가서 茶를 자옵시고 | 흥 | | | 때 수여 가옵시면 나 드린 저 |
| (0816a6) | 의 ㄱ브를 헤아리매 아므 디도 | 흥 | | | 가지오면 손을 디접-흥시미 도 |
| (0603a1) | 러트시 아롭다운 일 아므 디도 | 흥 | | | 가지옵도쇠. 우리의 슈고를 나 |
| (0102b3) | 도 同道흥야 오쇼셔. 代官들도 | 흥 | | | 고대 잇습니. 아롭답스와. 여 </td |
| (0206a6) | 으로 보옵고 하 섭섭흥오니 또 | 흥 | | | 차례 흥옵새. 쇼인-네는 본디 |
| (0704a6) | 바다도 비도 조브니 바든 이과 | 흥 | | | 가지니 使 ㄱ아라 御禮를 술오 |
| (0616b5) | 은 비예셔도 빗즈오면 오름과 | 흥 | | | 가지오니 자네 잘 아르셔 接待 |
| (0814a1) | 지 붓즈오니 對馬島에 브툼과 | 흥 | | | 가지로 깃거 흥는디 또 닉일 구 |
| (0117b1) | . 그리 흥여 몬 흥오리. 書契의 | 흥 | | | 직라도 어근나면 아므의 히도 |
| (0213b5) | 는 아니 온다 다 노흥여 흥시니 | 흥 | | | 몸으로서는 논호디 못 흥여 민 |
| (0127b5) | 본디 병 든 사름이옵더니 엇디 | 흥 | | | 디 오며셔 브터 또 병 드러 머 |
| (0208b6) | 머검즉이 잘 달호련마는 엇디 | 흥 | | | 디 예는 달호기를 잘 못 흥여 |
| (0216a6) | 큰 요스이 도히 계시던가? 엇디 | 흥 | | | 디 일이 만하 問安도 즈로 습 |
| (0308b4) | 이를 禮예 삼스오리잇가? 엇디 | 흥 | | | 디 日本 사름은 肉食 테위 거술 |
| (0527a1) | ㄱ불셔 겁-흥는 양이로직 엇디 | 흥 | | | 편만 생각-흥시느고? 他國에 |
| (0210a5) | 로논 것-들이 일덩 닛고 그리 | 흥 | | | 일이옵도쇠. 무려 보와 이제라 |
| (0328a4) | 고 正根 업서 도라 오니 아므리 | 흥 | | | 줄도 모로울쇠. 그는 그러커니 |
| (0910a5) | 소를 희이치더라 드러시니 이 | 흥 | | | 허물로 생각-흥옵거니와 兩國 |
| (0111a5) | 陰을 써 無事히 왔습거니와 비 | 흥 | | | 척이 떠뎡스오니 글로 흥여 근 |
| (0705b1) | 만는 식골 일이란디 아므란 貴 | 흥 | | | 일도 업스디 이러트시 극진히 |
| (0314a2) | 로 우다히 오로느리기 御大儀 | 흥 | | | 일이옵도쇠. 朝廷도 誠信으로 |
| (0624a5) | 이나 이시면 엇덜고 흥니 小小 | 흥 | | | 일이어든 中官 以下란 못히 올 |
| (0906b5) | 이다. 어제는 하 심심흥매 草草 | 흥 | | | 振舞에 各各 종용히 말습 달란 |
| (0708a3) | 바는 셔울 가서 筑前殿의 接待 | 흥 | | | 일과 이 차반 흥 줄을 부러 御禮 |
| (0827b4) | 케라 흥오니 일로써 兩國 安泰 | 흥 | | | 陰德인가 감격이 녀기옵닝이다 |
| (0312b6) | 事 ㄱ長老의 빠디디 아녀 奇特 | 흥 | | | 직간이라 니르니 우리도 듯고 |
| (0327b2) | 船네 樣體 ㄱ심샹티 아녀 奇特 | 흥 | | | 相指를 다 잘 흥더라 기리시니 |
| (0102a2) | 시드라.” 니르코 오라. 御念比 | 흥 | | | 御使 ㄱ옵도쇠. 어와 아롭다이 |
| (0116a6) | 호려니와 겁피 드렸스오니 別 | 흥 | | | 일도 업스오니 닉일 보옵소. 그 |
| (0507b1) | 오매 아직 기다리옵니. 不自由 | 흥 | | | 고디 아므란 쓰실 써시나 잇거 |
| (0828a2) | 녀기옵닝이다. 어와 어와 慰難 | 흥 | | | 宴席이옵도쇠. 진실로 닐르시 |
| (0905a3) | 이라도 연고 업스시거든 서어- | 흥 | | | 거술 가지여 오옵새. 모드신 디 |
| (0103a4) | 거니와 처음이옵고 쏘는 칭소- | 흥 | | | 거시오니 各各 답답이 녀기실 |
| (0828b1) | 시드시 兩國 誠信之 故로 귀- | 흥 | | | 곳을 구경-흥 분 아니라 이런 |
| (0303b1) | 소. 니것따소이다. 病 中の 귀- | 흥 | | | 약을 만히 주시매 덕분의 먹습 |
| (0103a5) | 中の 밋디 못 흥여 아므란 귀- | 흥 | | | 일도 업시 終日 겨서 도로켜 서 |
| (0608b1) | 하 극진-흥시매 멈쳐 또 귀- | 흥 | | | 집-괴지 경의 도홈이 땃을 펴 |
| (0827a5) | 노르셔 祝願흥시과다. 더 귀- | 흥 | | | 풍뉴-돌도 어미 듯고 거르기 |
| (0911a4) | 유여-호를 웃듬으로 흥니 귀- | 흥 | | | 禮物을 ㄱ춤이 웃듬으로 녀 |
| (0913a6) | 녀기농이다. 모다 언머 서의- | 흥 | | | 거시라 흥 보심을 생각-흥면 |

| | | | | |
|----------|----------------------|----|--|--------------------|
| (0106a1) | 로 극진-헝시를 미더 내 싱각- | 헝 | | 일을 점치디 아니코 이리 술오 |
| (0321a6) | 실 양으로 헝읍소. 이리 감격- | 헝 | | 御意 시니 다시 술을 양이 업 |
| (0605b2) | 하운 御雜談 듯죽고 죽못 거룩- | 헝 | | 술을 헝고 나그내 시름을 펴니 |
| (0108b2) | 하 닐러 와시니 오늘은 건넌죽- | 헝 | | 구름 가기도 잇고 보름도 도히 |
| (0622b2) | 쇼셔. 이 앓희 바르 디나 섬죽- | 헝 | | 곳으란 스양 아니 헝셔도 島主 |
| (0418a5) | 싱각-헝건마는 별로 헝염죽- | 헝 | | 묘리도 업고 출하리는 이 五十 |
| (0706a1) | 너기시올쇠. 쏘 이거슨 불관- | 헝 | | 거시언마는 下人을 위-헝야 德 |
| (0527b2) | 하도 小小헝면 므스 일로 불관- | 헝 | | 거시라도 장만-헝여 드리려 헝 |
| (0615b5) | 하-헝는 분-네-게로셔도 극진- | 헝 | | 일이읍도쇠. 船 中에도 별히 又 |
| (0919a3) | 하 업스니 일덩 너기시는 비밀- | 헝 | | 묘리도 이실 써시니 아쁘려나 |
| (0821b3) | 하시니 그리 못 헝을 일은 헝- | 헝 | | 디 건너 온 비를 묻과 밥도 고테 |
| (0812b5) | 하와 三使의 御果報에 往來 헝- | 헝 | | 海路의 헝로도 惡風을 만나다 |
| (0525a4) | 소. 나르시는 道理 一一 맛당- | 헝 | | 일이읍도쇠. 나도 日本 풍속을 |
| (0321a1) | 머러시니 요스이 머므시면 덩- | 헝 | | 연향-들도 다 맛고 종용히 겨서 |
| (0324a3) | 라는 禮 돈돈헝여 헝 번 덩- | 헝 | | 후는 고티디 아니 헝니 五日 藥 |
| (0324b2) | 무거 도라 가셔도 約條의 덩- | 헝 | | 限-삭지는 엇디 얼현이 출히울 |
| (0708a3) | 筑前殿의 接待 헝 일과 이 차반 | 헝 | | 줄을 부러 御禮을 술을 써시니 |
| (0405a4) | 우리도 公木을 고티여 자브면 | 헝 | | 가지읍도쇠. 오늘은 싱각 맛고 |
| (0830b3) | 문 아프리 멀리 보내여도 정은 | 헝 | | 가지니 그저 예셔 도라 가시미 |
| (0214b4) | 코심이 올티 아니 헝온가? 예는 | 헝 | | 변이나 뵈와시니 그러헝외. 너 |
| (0316a6) | 마장 일크르시느니이다. 술을 | 헝 | | 가지로 자선마는 御手前 面上의 |
| (0617a6) | 은 헝읍거니와 그리 나르실 듯 | 헝 | | 일을 알고 信使-의 습디 아닌 |
| (0423a3) | 도록 나르-도록 뒤호로 가는 듯 | 헝 | | 뜻 가지미 어와 어와 어히 업시 |
| (0908a6) | 시읍는고? 맛당히 스양-홀 듯 | 헝 | | 일이언마는 朝鮮 썩과 고티저울 |
| (0702b1) | 기 격기-헝신디 헝물며 이러툃 | 헝 | | 배 아프려도 밋디 못 홀 일이오 |
| (0911b5) | 하마는 館中도 심심헝매 이러툃 | 헝 | | 우음 바탕을 나르디 아니면 므 |
| (0619a6) | 하습고 우리도 스이예셔 이러툃 | 헝 | | 差別도 습디 아니 헝는 양으로 |
| (0903b4) | 하니코 기리 안자시니 무식히도 | 헝가 | | -헝여 밤-셋곳 뒤웃좁디. 언머 |
| (0210a2) | 하 헝나홀 더러시니 닛고 이리- | 헝가 | | ? 우리를 모로논가 녀겨 부러 |
| (0416a5) | 하 아니 잡고 나여 가라 헝는고? | 헝갓 | | 내히만 싱각-헝고 일을 그리 헝 |
| (0421a2) | 나 代官네 이러트시 므옴 대로 | 헝다 | | 만다 헝면 誠信의 희이침으로 |
| (0128b6) | 하 업스 양으로 술와 닛일로 덩- | 헝디 | | 이제야셔 正官의 병이라 나르자 |
| (0921a6) | 하 시작-호미 게오 五六年도 못 | 헝디 | | 그대-도록 므옴 멀리 싱각디 又 |
| (0402b5) | 하 이러트시 出入이 잇디 아닐 듯 | 헝디 | | 그 홀 시를 마장 未審히 녀기읍 |
| (0908b6) | 하 헝오니 이리 술은 우희란 자네 | 홀 | | 대로 헝쇼셔. 비록 내나 늙이나 |
| (0707b3) | 하 고 밋디 아니미 아니라 바다셔 | 홀 | | 테도 업스니 아프리커나 나 헝 |
| (0126b6) | 하 잠깐 헝려 겨시니 二三日 內에 | 홀 | | 양으로 헝오리. 茶禮는 明日 헝 |
| (0215b1) | 하 하는 연고 업스오니 明日이라도 | 홀 | | 양으로 헝읍소. 나도 代官의 사 |
| (0623a2) | 하 령이다. 나르시는 양이 그러도 | 홀 | | 듯 헝면 路次의 일란 자네-게 |
| (0418a2) | 하 셔도 이 公木을 바다 아프려도 | 홀 | | 테 업스오니 代官들도 가지 가 |
| (0618a4) | 하 고 참참이 못히 請헝여 振舞도 | 홀 | | 양으로 헝엿는디 비 우호로셔 |
| (0412b3) | 하 기 세치 고티다 헝고 공스 오로 | 홀 | | 제 안가-터로 나르시고 습디 又 |
| (0427a5) | 하 헝여 아뭇 도로나 도홀 양으로 | 홀 | | 거시니 아직 大廳의 드려 두읍 |
| (0403a1) | 하 하 出入이 잇디 아닐 듯 헝디 그 | 홀 | | 시를 마장 未審히 녀기읍디. 어 |
| (0426a4) | 하 하 큰 관겨티 아니커니와 전두의 | 홀 | | 시 一年二年은 아니오 엇디 |
| (0621a1) | 하 러나 더러다 자네-게 밋디오니 | 홀 | | 시 도케 헝쇼셔. 참-마다 비예 |
| (0530a5) | 하 하 술왔더니마는 이리 나르시니 | 홀 | | 일도 업기는 업거니와 그러나 |
| (0414b3) | 하 그 어긋미 天地 又거니와 이리 | 홀 | | 썩으로는 못디 못 홀 써시니 이 |
| (0126a6) | 하 . 茶禮는 어너 띄 헝울고? 수이 | 홀 | | 양으로 헝읍소. 東萊가 요스이 |
| (0132b3) | 하 理를 東萊의 엿죽와 닛일 브디 | 홀 | | 양으로 헝읍소. 힘 뼈 술와 보 |
| (0213a6) | 하 가 돈녀 와셔 代官房의셔 談合 | 홀 | | 일들이나 相談헝면 送使로셔 |
| (0117a1) | 하 名을 아라 釜山浦에 술와 注進 | 홀 | | 거시니 書契를 내읍소. 우리 일 |
| (0409a4) | 하 하려 주읍소. 그리 헝읍소. 註進 | 홀 | | 거시니 비 갈 때에 아쁘 비라 헝 |
| (0616a4) | 하 조홀까 시브다 헝니 새베 出船 | 홀 | | 작시면 못호로셔 트노라 출히 |
| (0416b6) | 하 아프려나 思合헝셔 저기 不足 | 홀 | | 쩌라도 분별 아니티 못 헝실 일 |
| (0604a5) | 하 吉日是 郡郡에 괴별을 듯고 定 | 홀 | | 써시오니 얼현티 아니 헝오리. |
| (0320b2) | 하 아프려나 덕분을 뼈 수이 歸島 | 홀 | | 양으로 브라느이다. 오션 디 오 |
| (0528a3) | 하 리의 面目도 이실디 헝혀 批判 | 홀 | | 적이면 슈괴 허일이 될가 이러 |
| (0427b6) | 하 팔을 일허시니 쏘 밋고 두고 番 | 홀 | | 사름도 업고 엇디 헝울고? 今晨 |
| (0215a1) | 하 하 연고 업스신 날의 封進 看品 | 홀 | | 써시니 그리 아쁘셔 나읍소. 우 |

(0825a1) 시니 아름다와 흥농이다. 振舞 | 홀
(0810a4) 大君씩셔 닐러 왔다 흥고 振舞 | 홀
(0709a6) 를 준닝이다. 信使 | 吉田에 留 | 홀
(0109b1) 기별을 니를 거시니 그는 油斷 | 홀
(0708b2) 일흥은 무어신고 싱각-흥야 禮 | 홀
(0718b4) :이다. 그러면 上下 대되 잔채- | 홀
(0803b2) 흥던 아래 사름-들희 별로 포- | 홀
(0906a5) 3굴과 놀래를 듯고 축슈만 위- | 홀
(0423b4) :는 되디 아니코 이 민망을 비- | 홀
(0610a2) 의 御馳走 | 오면 心中의는 비- | 홀
(0722a3) :이 ㅁ이 업습고 우리 늦치 비- | 홀
(0918b6) 너기옵닉. 이리 부러-호믈 비- | 홀
(0920b3) || 니르시는 바는 日本말을 비- | 홀
(0818a6) : 홀 일이로송이다. 별로 인스- | 홀
(0329a2) 그러면 모되 雨天 브터 시작- | 홀
(0522a1) ㅁ사리 니르옵시뇨고? 흥암죽- | 홀
(0317a5) : 흥여 主人의 도리를 출혀 권- | 홀
(0916b2) 을 써시니 자네-네도 내 망발- | 홀
(0806a1) : 쥘홀 홀릭 왔습는디 내 스설- | 홀
(0624b4) -홀고? 아프리커나 자네 맛당- | 홀
(0420a1) 슈지 사르시고 자닉-네 맛당- | 홀
(0908a6) :려 흥시옵는고? 맛당히 스양- | 홀
(0828b1) 誠信之 故로 귀-흥 곳을 구경- | 홀
(0523a6) || 이틀 사흘 길호로서도 구경- | 홀
(0415a6) } 못 흥면 飛船 즘음에 맞디 못 | 홀
(0428b6) 使의 주세히 니르디 아니티 못 | 홀
(0425b4) 걸터 니르니 나라토 부디티 못 | 홀
(0710a4) 가실 써시니 즉제 아니 보디 못 | 홀
(0821a2) 니오니 아모리 흥여도 좃디 못 | 홀
(0505a4) 는 말을 드르니 수이 아니티 못 | 홀
(0312a3) 老는 樣體 사름의 넘고 술도 잘 | 홀
(0712a2) ㅁ 使 | 信使를 위-흥야 冠帶를 | 홀
(0430a3) 시니 그지 업스매 내 친히 番을 | 홀
(0129a6) 아니면 우리의 그르른 발명 못 | 홀
(0411a4) 木은 아모만 드려도 잘 잡디 못 | 홀
(0427a2) 와 우리도 흥나 둘히셔 되디 못 | 홀
(0521a5) ㅁ옴새이다. 判事네-씩 마디 못 | 홀
(0307b4) 와 今度 안자도 禮에는 삼디 못 | 홀
(0414b4) 니와 이리 홀 썬으로는 못디 못 | 홀
(0825a6) ㅁ-흥야 거시니 祝願 아니튼 못 | 홀
(0424b1) 모로 東萊人 百姓도 건디디 못 | 홀
(0716a1) 가는 먼 뒷 使 | 시니 尋常히 못 | 홀
(0818a4) :의 슈고-흥신 樣子 말로 다 못 | 홀
(0107a2) 니 代官들히 모시디 아냐는 못 | 홀
(0621b2) 사름-들히 민만-홈은 그지 못 | 홀
(0702b2) 이러툃 흥 배 아프려도 맞디 못 | 홀
(0807b2) 로 더 使를 自由히 ㅁ옴아디 못 | 홀
(0328b2) ㅁ 二三日 디나거든 銅 鑑 看品 | 홀
(0308a5) 豹을 흥실 작시면 일뎡 禮를 背 | 홀가
(0530a1) :니 글란 마르쇼셔. 미리 이러- | 홀가
(0426b1) 年 二 年은 아니오 엇디 부디- | 홀가
(0128a4) 잘 못 먹고 누엇스오니 나디 못 | 홀가
(0319a4) 스오니 방의 도라 가기도 잘 못 | 홀가
(0710b4) 흥면 볼 작시면 그 거조는 엇디 | 홀고
(0624b2) | 울리기를 말고져 흥니 엇디- | 홀고
(0205a6) :믈 ㅁ장 설이 너겨 病이 더 重 | 홀까
(0614b4) :시니 이 얹흔 萬事 | ㅁ옴 편- | 홀까
(0920a3) 마 되야시되 진실로 이만 흥면 | 홀되
(0517b3) 시니 서의-흥오니 무턱 오로서 | 홀리나
(0321b3) 을 양이 업서이다. 그러커니와 | 홀리라도

| 바는 되-도록 스양코져 너겟드
| 양도 잇는가 시브오니 그리 아
| 제 島主과 昭長老 | 뵈으며셔
| 일은 업스오리. 代官네-씩 書翰
| 제 술오려 흥닉. 장쉬 돈돈이 흥
| 일로 깃터니 업시 모시게 흥라
| 일도 업서 마즘 雜物 나쁜 거시
| 썬름이오니 의심도 업술 양으로
| 디 업스외. 아직 代官들도 他國
| 디 업건마는 섬의 일이란디 흥
| 디 업시 아름다이 너기닝이다.
| 디 업스니 일뎡 니기시는 비밀
| 디 업슨 양으로 기리시니 일뎡
| 테도 업스니 江戸 奉行씩로셔
| 써시니 아프려나 看品坐의셔 흥
| 만흔 일이오면 엇디 열현이 흥
| 양으로 왔스오니 그러흔 디 술
| 디라도 샤-흥시믈 一入 미덧습
| 썬으로는 아프리 흥여도 가져
| 대로 흥옵소. 捷解新語 第六 終
| 썬 묻져 흥시뇨고? 네 브터 東
| 듯 흥 일어난마는 朝鮮 썬과 고
| 분 아니라 이런 接待의 만나 海
| 사름-들 모다셔 朝鮮 풍속은 흥
| 써시니 힘 쓰옵소. 아프리 시절
| 써시모로 今夜란 브디 番을 흥
| 일은 公木을 端端이 굴희자 니
| 일을 아르시게 흥야 案内 諭寧
| 일의로송이다. 또 二三日 內 出
| 일이오니 대테로이 아니 흥실
| 썬 아니라 글 잘 흥매 朝廷으로
| 작시면 信使도 冠帶를 흥셔야
| 디라도 밤-새믈 기도로올 써시
| 거시니 비록 正官이 병 드르실
| 거시니 수이 내여 가옵소. 어와
| 거시니 送使의 談合흥여 아못
| 미드려 흥는 일이 이셔 예-씩
| 써시니 안자셔 종용히 말습-흥
| 써시니 이 公木을 端端이 굴힐
| 양으로 전 브터 니르심으로 이
| 일은 五日 雜物 드리기에 스니
| 일이니 吉日을 굴희노라 廻引
| 일의로송이다. 별로 인스-홀 터
| 일이어니와 자네 혼자 가셔도
| 일이오니 이 알프란 곳-흥여 술
| 일이오니 太守는 엇디 싱각-흥
| 일이오니 이러투시 엇줍농이다
| 써시니 묻져 代官네-씩 출히라
| 너기옵더니 안즈라 니르시니 흥
| 너겨 그대-도록 술왔더니마는
| 너기시뇨고? 그져 헤아리실 얹
| 너기오니 우리 썬 나올쇠. 그러
| 너기닝이다. 이러투시 술을 너
| ? 잔이나 내는 일이나 이셔야 흥
| ? 아프리커나 자네 맛당-홀 디
| 너기옵닝이다. 封進宴을 수이
| 祝願흥닝이다. 接待에 겹기-흥
| 싱각-흥는 일 죠곰도 업서 常
| 쉬시고 ㅁ-들토 도로 시과다 흥
| 수이 도라 가게 흥쇼셔. 글란 二

| | | | | |
|----------|--------------------|------|--|--------------------|
| (0611b2) | ? 그 안해는吉日이 업스온가? | 홀릴 | | 만정 수이 흥고져 흥니 엇더-흥 |
| (0805b6) | 仔細호를 닐러 부러 사흘 쥘홀 | 홀릭 | | 왓습닌디 내 스설-홀 쏘으로는 |
| (0831b6) | 몸애 나마心底 대로는 퍼디 못 | 홀송이다 | | . 御渡海 아름다이 흥쇼셔. 今度 |
| (0720a2) | 을 뜻-흥니 덜고져 흥니 엇더- | 홀코 | | ? 니르시는 바를 아춤의奉行 |
| (0408a6) | 술와 두읍소. 그는 술오려니와 | 홀씩 | | 三隻-도록 엇더-흥올고? 자네 |
| (0719a6) | 來日이라도 출홀 디 보시는 날 | 홀씩 | | 豆豉을 디 자네 그 쫄을 드저오 |
| (0421a4) | 침으로 너기거니와 우리 싱각- | 홀은 | | 五十束을束으로 굴히여 반만 |
| (0721a1) | 흥면 도홀까 시프다 흥니 그리 | 홀을 | | 判事네-씩도 니르닝이다. 그리 |
| (0313b5) | 나 이실가 너겨 聞습을 위-흥여 | 히 | | -마다 올라 가느니라. 어와 |
| (0117b4) | 의 흥 지라도 어근나면 아므의 | 히도 | | 豆豉 아니 흥오니 브디 내읍소. |
| (0912b4) | 흥더니마는 常常 쓰디 아니모로 | 히로 | | 더곰 이러-흥니 心中에 슬고져 |
| (0904b6) | 닐까 의심-흥거니와 다만 노름 | 히로나 | | 흥려 흥오니 닉일이라도 연고 |
| (0606a1) | 기녕이다. 흥마 도라 가상이다. | 히온 | | 것도 업스온디 머므로음기도 |
| (0114a4) | 건마는 밤이 드러 보디 못 흥니 | 흥혀 | | 아모 디 붓터도 東萊釜山浦에 |
| (0905b6) | 히 연고 업기를 전위-흥엿습니. | 흥혀 | | 이리 술오물 식재와 너기실 디. |
| (0528a3) | 기려야 우리의面目도 이실디 | 흥혀 | | 批判홀 적이면 슈괴 허일이 될 |
| (0926b4) | 紀伊州는 七郡 淡路州는 二郡 | 阿波州 | | 는 九郡 讃岐州는 十一郡 伊豫 |
| (0601b1) | 숭-도록 아름다운 일은 兩國 | 安泰 | | 히 誠信之道를 서르 던-흥여 |
| (0827b4) | 겨 깃썰라 흥오니 일로써 兩國 | 安泰 | | 흥 陰德인가 감격이 너기읍닝 |
| (0519b1) | 나 아냐 예-씩지 오오니 이제야 | 安堵 | | 흥영이다. 對馬島主의 使 卒 |
| (0508a1) | 進을 극진이 흥시다 니르시니 | 安堵 | | 흥여 흥읍니. 며칠만의나 返事 |
| (0923a5) | 州는 八郡 武藏州는 二十一郡 | 安房州 | | 는 四郡 上總州는 十一郡 下總 |
| (0926a4) | 中州는 九郡 備後州는 十四郡 | 安藝州 | | 는 八郡 周防州는 六郡 長門州 |
| (0710a6) | 보디 못 홀 일을 아라시게 흥야 | 案内 | | 슬닝이다. 卒세 아음거이다. 흥 |
| (0622b6) | 양 아니 흥셔도 島主 아래서 | 案内 | | 술오령이다. 니르시는 양이 그 |
| (0101b6) | 왓습니. 안히 계시면 오려 흥여 | 案内 | | 술오시드라.” 니르고 오라. 御 |
| (0133b2) | 으로 흥여 보읍소. 그리 흥오리. | 案内 | | 는 先通之意 서어탄 말이라. 으 |
| (0620b3) | 出船의 뒤버므릴 작시면 中官 | 以下 | | 란 올리디 말미 엇더-흥올고? |
| (0624a5) | 고 흥니 小小 흥 일이어든 中官 | 以下 | | 란 못히 올리기를 말고져 흥니 |
| (0622a1) | 시미 웃듬이오닝이다. 쏘 中官 | 以下 | | 올리디 말 일을 니르신 대로 스 |
| (0208a2) | 못 흥읍더니 今度는 膳敷器皿 | 以下 | | 조출흥고 과즐과 건물과 마 |
| (0211b1) | 디 아니케 니르읍소. 圓座 帳枕 | 以下 | | 物을 催促흥여 수이 드리읍소. |
| (0411b6) | 흥려 아라시는고? 흥믈며 近年 | 以來 | | 년-흥여 木花 사오나와 公木의 |
| (0922a6) | 郡 攝津州는 十三郡 東海道는 | 伊賀州 | | 는 四郡 伊勢州는 十五郡 志摩 |
| (0922b1) | 三郡 東海道는 伊賀州는 四郡 | 伊勢州 | | 는 十五郡 志摩州는 二郡 尾張 |
| (0923a2) | 駿河州는 七郡 甲斐州는 四郡 | 伊豆州 | | 는 三郡 相模州는 八郡 武藏州 |
| (0926b6) | 皮州는 九郡 讃岐州는 十一郡 | 伊豫州 | | 는 十四郡 土佐州는 七郡 西海 |
| (0803a1) | 나-게나 주실 양으로 흥읍쇼셔. | 委細之 | | 儀는 對馬島主의 닐러 보내눔 |
| (0133b2) | 는. 그리 흥오리. 案内는 先通之 | 意 | | 서어탄 말이라. 의지 업단 말이 |
| (0523b4) | 흥고 압회 브리시는 아회-들의 | 衣裳 | | 이 사오나오면 그 불썰 사오나. |
| (0515b1) | 差定흥야 두어시니 느즉-흥야 | 一 | | 船 二 船 三 船-씩지는 三人- |
| (0504a1) | 그 返事 대로 우리 兩人 中에 | 一 | | 人이 飛船으로 도라 가올 거시 |
| (0410b2) | 잠깐 보와도 아올쇠. 그 안해도 | 一 | | 東에 자불 公木이 十 端 남죽이 |
| (0622a4) | 일을 니르신 대로 스설-흥여도 | 一 | | 人도 나쁘니 업시 請코져 흥여 |
| (0414a1) | 홀 씨라도 이 公木은 넷 公木의 | 一 | | 東도 마튼니 업스를 자네-네는 |
| (0426a6) | 겨티 아니커니와 전두의 홀 시 | 一 | | 年 二 年은 아니오 엇디 부디- |
| (0207a3) | 나의 스스스 정윳 잔이오니 이 | 一 | | 杯만 잡습소. 大切의 御意오니 |
| (0410b6) | 十 端 남죽이 드렸고 나쁘니는 | 一 | | 端도 자불 公木이 업스외. 이런 |
| (0214a6) | 보시면 뒤 雜言 흥올고? 우리는 | 一 | | 番 特送이오니 묻져 보심이 올 |
| (0418b2) | 도 업고 출하리는 이 五十束을 | 一 | | 束에 十 端-式 굴히여 내면 十 |
| (0407b6) | 中歸船 一隻 代官으로서 借船 | 一 | | 隻 합흥여 三 隻이읍도쇠. 미리 |
| (0407b2) | 이나 가읍는고? 一特送 中歸船 | 一 | | 隻 第一 船 中歸船 一隻 代官 |
| (0407b4) | 중歸船 一隻 第一 船 中歸船 | 一 | | 隻 代官으로서 借船 一隻 합 |
| (0525a4) | 나 지간-흥시소. 니르시는 道理 | 一一 | | 맛당-흥 일이읍도쇠. 나도 日 |
| (0927b6) | 隅州는 八郡 薩摩州는 十四郡 | 一岐島 | | 는 二郡 對馬島는 二郡 此 二 |
| (0318a1) | 격-흥여이다. 우리-들도 술을 | 一切 | | 못 흥읍건마는 하 먹과다 니르 |
| (0316b3) | 나선마는 御手前 面上의는 酒氣 | 一切 | | 업스오니 술과 거동이 久즈와 |
| (0909b3) | 연고될 웃듬으로 니르시니 이 | 一段 | | 되기 어려운 所望이읍도쇠. 昨 |
| (0814a5) | 닉일 구름 가기 도타 니르시니 | 一定 | | 그러면 더욱 더욱 아음답스외. |
| (0407b2) | 스름 비 몇 척이나 가읍는고? | 一特送 | | 中歸船 一隻 第一 船 中歸船 - |

| | | | |
|----------|--------------------|-----|--------------------|
| (0520b6) | 음 편히 쉬오니 근심 마르시고 | 一二 | 日이나 디나 종용커든 보옵새 |
| (0916b3) | 내 땅밭-홀 디라도 사-헝시물 | 一入 | 미덧습닌이다. 자네 나토 쟈르 |
| (0124b1) | 시 방새 파락-헝야 누추-헝니 | 一夜 | 를 계유 堪忍헝엿스오니 큰 대 |
| (0925a5) | 母後州는 五 郡 但馬州는 八 郡 | 因幡州 | 는 七 郡 伯耆州는 六 郡 出雲 |
| (0827b5) | 과 헝오니 일로써 兩 國 安泰호 | 陰德 | 인가 감격이 녀기옵닌이다. 어 |
| (0702b4) | 太守는 엇디 싱각-헝시논고? | 右之 | 道理 心得헝고 使를 여긔 보내 |
| (0403a2) | 未審히 녀기옵닌. 어와 오늘은 | 右之 | 道理를 正官도 분별 두셔 氣味 |
| (0924b6) | 能登州는 四 郡 越中州는 四 郡 | 越後州 | 는 七 郡 佐渡州는 三 郡 山陰 |
| (0924b2) | 郡 北陸道의는 若狹州는 三 郡 | 越前州 | 는 十二 郡 加賀州는 四 郡 能 |
| (0924b5) | 加賀州는 四 郡 能登州는 四 郡 | 越中州 | 는 四 郡 越後州는 七 郡 佐渡 |
| (0817a3) | 장 므음 편히 쉬신 후의 祝願의 | 宴享 | 도 헝올가 미덧닝이다. 쯔 이거 |
| (0828a2) | 기옵닌이다. 어와 어와 慰勸호 | 宴席 | 이옵도죄. 진실로 닐르시드시 |
| (0109a2) | 쿠러 보옵소. 어와 그러헝운가? | 遠見 | 의는 못디 아니 헝여도 뵈면 즉 |
| (0109b4) | 쿠네-의 書簡을 써 니름은 앓가 | 遠見 | 으므로 안 췌다히 日本 빅 윈디 |
| (0108b5) | 부러시니 多分 비가 올 거시니 | 遠見 | 의 무러 보옵소. 어와 그러헝운 |
| (0922b5) | 尾張州는 八 郡 三河州는 八 郡 | 遠江州 | 는 十四 郡 駿河州는 七 郡 甲 |
| (0826b1) | 오늘은 마즘 天氣 도하 진실로 | 遠路 | 에 나라 일을 못고 三使을 청- |
| (0819a6) | 음이오니 그리 아옵소. 쯔 海上 | 遠路 | 에 두로 쓰려 예-삭지 無事히 |
| (0118a4) | 러시니 아직 御酒 헝나 자옵소. | 下口 | 오니 마르쇼셔. 對馬島셔도 |
| (0310b1) | 술을 남기시물 아란마는 나는 | 下口 | 언마는 客人을 위-헝야 고디 |
| (0806a6) | 업스올 써시니 원컨대 바드셔 | 下人 | 의 -게나 주시미 엇다-헝올고 |
| (0701a6) | 無事히 오시다 헝셔 덕담으로 | 下人 | 을 주시게 헝야 차반을 가지고 |
| (0808b1) | 에 반 돌이나 무거 슈고-헝던 | 下人 | 의 -게 준 거슬 더러로써 아르 |
| (0428a3) | 도 업고 엇디 헝올고? 今夜 췌 | 下人 | 을 췌을 헝이시면 닉일란 못즈 |
| (0706a3) | 또 이거슨 불관-호 거시언마는 | 下人 | 을 위-헝야 德談엿 일이라 헝 |
| (0623b4) | 하 헝쇼셔. 이리 숲는 맛긔 일딩 | 下人 | 中 東西도 모로는 것-들이 못 |
| (0924a3) | 農州는 十 郡 上野州는 十四 郡 | 下野州 | 는 九 郡 奥州는 五十四 郡 出 |
| (0923b1) | 房州는 四 郡 上總州는 十一 郡 | 下總州 | 는 十二 郡 常陸州는 十一 郡 房 |
| (0924b3) | 夷州는 三 郡 越前州는 十二 郡 | 加賀州 | 는 四 郡 能登州는 四 郡 越中 |
| (0822b2) | 예 걸리신 일이나 인는 양으로 | 家中 | 견-들도 너길 작시면 옛-마지 |
| (0522a6) | 가? 마장 쉬온 일이언마는 朝鮮 | 家風 | 이 폐롭디 아닌 일을 폐로올 양 |
| (0815b1) | 인 디 이리 祝願헝시니 아모의 | 果報 | 라도 公儀 서르 못고 예-삭지 |
| (0814b5) | 오른 우리 일란 더디고 太守의 | 果報 | 셸 일인가? 이러로써 內內 |
| (0922a3) | 八 郡이오 大和州의는 十五 郡 | 河內州 | 의는 十五 郡 和泉州의는 三 郡 |
| (0921b4) | 음 델리 싱각디 마소. 日本 八 | 箇 | 道內 六十六 州를 分하디. 아직 |
| (0402a5) | 라 여긔 소임-헝는 官人 대되 | 過怠 | 예 밋는 바는 자넌-네도 아르 |
| (0705b4) | 히 行下헝시니 太守 드르셔도 | 過分 | 타 헝셔 感激히 녀기시올죄. 쯔 |
| (0711b2) | 이리 니르시미 맛당-헝여이다. | 回答 | 니르고 그져 니러 나미 마장 |
| (0716a4) | 못 홀 일이니 吉日을 굴히노라 | 廻引 | 헝올 써시니 그 안히 路次의 괴 |
| (0816b4) | 미 도로켜 어렵소이 녀기오와 | 廻引 | 헝오니 허물 마르시고 마장 |
| (0913a3) | 도 無道히 된 仕合 붓쓰러오미 | 海 | 山 마티 녀기농이다. 모다 언머 |
| (0828b4) | 홀 분 아니라 이런 接待의 만나 | 海上 | 의 시름도 퍼매 더욱 써 아롭다 |
| (0819a6) | 들 즘음이오니 그리 아옵소. 쯔 | 海上 | 遠路에 두로 쓰려 예-삭지 無 |
| (0814b2) | 옥 더욱 아롭답스외. 진실로 먼 | 海上 | 의 예-삭지 오른 우리 일란 더 |
| (0713b2) | 오른 우흐로써 니르시는 바는 | 海上 | 먼 길히 無事히 오신 괴별을 거 |
| (0812b5) | 하 三使의 御果報에 往來 험-호 | 海路 | 의 헝르도 惡風을 만나디 아니 |
| (0928a3) | 二 郡 此 二 島는 六十六 州之 | 外敷 | 捷解新語 第九 終 |
| (0907a1) | 는 하 심심헝매 草草호 振舞에 | 各各 | 종용히 말습 달란-헝시니 亭主 |
| (0103a6) | 이옵고 쯔는 싱소-호 거시오니 | 各各 | 답답이 녀기실가 氣違호오니 |
| (0420a6) | 순딕 즘뵈 앓가 숲드시 이 스이 | 各官 | 으므로 沙汰之 限도 업슨 때에 |
| (0412a5) | 자넌-네도 아릅심 겨시리. 즘뵈 | 各官 | 으므로 東萊 時分도 헤아리 |
| (0504a5) | 호른 上方의 註進도 헝고 路次 | 各官 | 의 接待의 괴걸-호를 위-호미 |
| (0117a1) | 히 보고 자넌-네 姓名을 아라 | 釜山浦 | 예 술와 注進호 거시니 書契를 |
| (0120a5) | 니르시니 아직 앓줍새. 내 이제 | 釜山浦 | 의 술와 注進호고 닉일 아춤은 |
| (0511b6) | 역올은 아르 들 아르 날 췌나서 | 釜山浦 | 의는 아르 들 아르 날 브트셔 |
| (0216a5) | 습거니와 다시 니르고 가오리. | 釜山浦 | 니르시든 요스이 도히 계시던 |
| (0109a4) | 는 못디 아니 헝여도 뵈면 즉시 | 釜山浦 | 로써 우리-게 괴별을 니를 거 |
| (0327a4) | 히 연향을 헝시니 깃브외. 東萊 | 釜山浦 | 로써 正官과 都船네 樣體 1 삼 |
| (0114a6) | 헝니 헝혀 아모 디 붓터도 東萊 | 釜山浦 | 예 술와 方方 彼此의 좃즈올 거 |
| (0213a3) | 아니 헝거니와 더러 날의 東萊 | 釜山浦 | 예 가 든녀 와셔 代官房의셔 談 |

| | | | |
|----------|---------------------|-----|----------------------|
| (0132b6) | 느. 힘 써 술와 보오려니와 東萊 | 釜山浦 | 오셔도 거르기 섭섭이 녀기실 |
| (0712a2) | 외. 쯔 더 使 信使를 위-하야 | 冠帶 | 를 흘 작시면 信使도 冠帶를 |
| (0712a5) | 하야 冠帶를 흘 작시면 信使도 | 冠帶 | 를 하셔야 도싸울 디 다만 冠帶 |
| (0712b1) | 冠帶를 하셔야 도싸울 디 다만 | 冠帶 | 하시미 도홀가 시프외. 그러면 |
| (0712b3) | 하시미 도홀가 시프외. 그러면 | 冠帶 | 도 하옵새. 술 낼 일도 소임의- |
| (0513b5) | 위-홈이니 寅時에 비에 트서 | 勘蠻夷 | -씩지 가서 브름을 기드러려 |
| (0124b1) | -하야 누추-하니 一夜를 계유 | 堪忍 | 하엿스오니 큰 대 열과 공석 五 |
| (0709b5) | 戶로써 信使의 問安의 어른의 | 官員 | 二人이 三島씩지 와 기도른다 |
| (0402a3) | 員 뿐 아니라 여귀 소임-하느 | 官人 | 대되 過怠에 밋는 바는 자닉-대 |
| (0705b6) | 니 太守 드르셔도 過分타 하셔 | 感激 | 히 녀기시올외. 쯔 이거슨 불관 |
| (0716b6) | 와 어와 즉시 慇懃히 무로시니 | 感激 | 하신 절츄를 술을 양도 업서이 |
| (0714b4) | 분을 예-씩지 극진히 무로시미 | 感激 | 하영이다. 수이 가 브름 써시니 |
| (0218a6) | 보을 거시니 종용티 못 하외. | 看品 | 은 無事히 하오니 아릅답스외. |
| (0218b6) | 자 계셔 언머 슈고-하옵셔뇨? | 看品 | 後 연향-하실디 날도 저물 써 |
| (0219a5) | 시니 수이 출혀 나쇼셔. 덕분의 | 看品 | 을 無事히 하오니 우리도 깃비 |
| (0401a3) | 第三 終 捷解新語 第四 오늘은 | 看品 | 에 브터 처음으로 보옵고 아릅 |
| (0215a1) | 모되나 연고 업스신 날의 封進 | 看品 | 흘 써시니 그리 아려셔 나옵소. |
| (0322a2) | 키 하려니와 당시 公貿易 銅 鐵 | 看品 | 도 못 하엿고 封進 雜物들도 올 |
| (0328b2) | 커니와 二三日 지나거든 銅 鐵 | 看品 | 흘 써시니 문져 代官네-의 출 |
| (0329a3) | 브터 시작-흘 써시니 아쁘려나 | 看品坐 | 의셔 드토디 아니케 직간-하옵 |
| (0401b4) | 面하오니 아릅다와 하옵닉. 이 | 看品時 | 전 브터 저울 세니 느리니 出入 |
| (0121a6) | 가 솟던 떠던 비를 御念入하셔 | 肝煎 | 하옵소. 쯔 아니 나르셔도 열현 |
| (0129b4) | 드르실 떠라도 茶禮는 卒度之 | 間 | 이오니 나셔 과연 견되디 못 하 |
| (0911b4) | 키 술움이 내 편을 텨 覓건마는 | 館中 | 도 심심하매 이러툃 혼 우음 바 |
| (0901a4) | 八 終 捷解新語 第九 요스이는 | 館中 | 도 徒然하오니 우음 바탕으로 |
| (0721b6) | 를 뿐이 아니라 大君도 거르기 | 喜悅 | 이 마이 업습고 우리 늦치 비- |
| (0921b5) | 六十六州를 분하다. 아직 五 | 畿內 | 는 山城州의 所領이 八 郡이오 |
| (0926b2) | 郡 長門州는 六 郡 南海道の는 | 紀伊州 | 는 七 郡 淡路州는 二 郡 阿波 |
| (0705b1) | 건만는 식골 일이란디 아쁘란 | 貴 | 혼 일도 업슨디 이러트시 극진 |
| (0803a1) | 주실 양으로 하옵쇼셔. 委細之 | 儀 | 는 對馬島主의 닐러 보내놓이 |
| (0720a5) | 르시는 바를 아춤의 奉行닉-의 | 議論 | 하오니 御進物도 城에 오르시 |
| (0709a6) | 마는 行下를 존닝이다. 信使 | 吉田 | 에 留할 제 島主과 昭長老 |
| (0513b2) | 닉일은 天氣예는 붓듯디 아나 | 吉田 | 의 위-홈이니 寅時에 비에 트 |
| (0716a3) | 使 시니 尋常히 못 흘 일이니 | 吉田 | 을 고히노라 廻引하을 써시니 |
| (0823a6) | 다. 御出船 日은 今 十五 日이 | 吉田 | 이오니 모되 하디 振舞를 하 </td |
| (0611a6) | 기 일덩 그러하온가? 그 안헤는 | 吉田 | 이 업스온가? 흘릴 만정 수이 |
| (0718a4) | 술와 주쇼셔. 우흐로써 “모되는 | 吉田 | 이오니 信使의 보을 양을 친히 |
| (0604a3) | 수이 나게 하쇼셔. 여귀 떠나실 | 吉田 | 은 郡郡에 괴별을 듯고 定할 써 |
| (0512b3) | 니르옵닉. 닉일은 信使 비 트실 | 吉田 | 이라 나르니 일덩 그러하온가? |
| (0512a4) | 기는 二十四五日만 하셔 出船 | 吉田 | 은 來月 十二三日의 덩-하얏 |
| (0503a3) | 갈 셔울을 떠나셔 어닉 의 出船 | 吉田 | 인고 하야 우리 兩人을 불의예 |
| (0132a2) | 와 자닉-네도 헤아려 보시소. | 客人 | 이 와야 亭主 보디 아니 하옵 |
| (0310b1) | 아란마는 나는 下口 언마는 | 客人 | 을 위-하야 고디시기 잔-마다 |
| (0322b1) | 엿고 封進 雜物들도 올려 가야 | 京 | 으로서 返禮의 返書 올 거시 |
| (0923b4) | 常陸州는 十一 郡 東山道の는 | 近江州 | 는 十三 郡 美濃州는 十八 郡 |
| (0411b6) | 엇디 하려 아려시논고? 하물며 | 近年 | 以來 年-하여 木花 사오나와 |
| (0804a3) | 정으로 두엇더니 쯔 칭각 반의 | 金子 | 를 예지이 보내노라 하여시니 |
| (0818b2) | 업스니 江戸 奉行의로써 보낸 | 金子 | 를 자네 되신 사름의-게 네물 |
| (0802b1) | 하 민망-하와 그 雜物에 小判 | 金子 | 百枚를 밧고와 보내오니 브 |
| (0325b4) | 소. 木綿은 내 친히 보와 마장 | 吟味 | 하여 드릴 거시니 代官네-의 |
| (0926a2) | 郡 備前州는 十一 郡 備中州는 | 九 | 郡 備後州는 十四 郡 安藝州는 |
| (0926b4) | 七 郡 淡路州는 二 郡 阿波州는 | 九 | 郡 讚岐州는 十一 郡 伊豫州는 |
| (0924a3) | 郡 上野州는 十四 郡 下野州는 | 九 | 郡 奥州는 五十四 郡 出羽州는 |
| (0509a2) | 이 닐러 거시니 그러하면 往來 | 九 | 日 十日이나 되려니와 쯔 셔울 |
| (0122a5) | 념녀-하시고 問安하옵시데. 쯔 | 軍官 | 도 보내시더니 왓습던가? 왓 |
| (0122b5) | 하? 왓가 만났습닉. 먼디 극진이 | 軍官 | 을 보내여 무르시니 감격-하 </td |
| (0925b4) | 郡 隱岐州는 四 郡 山陽道の는 | 郡 | 幡磨州는 十四 郡 美作州는 七 |
| (0926b5) | 阿波州는 九 郡 讚岐州는 十一 | 郡 | 伊豫州는 十四 郡 土佐州는 七 |
| (0923a6) | 安房州는 四 郡 上總州는 十一 | 郡 | 下總州는 十二 郡 常陸州는 十 |
| (0923b2) | 總州는 十二 郡 常陸州는 十一 | 郡 | 東山道の는 近江州는 十三 郡 |

| | | | | | | | | | |
|----------|------|------|-----|------|-----|-----|------|-----|------|
| (0927b1) | 豊後州 | 八郡 | 肥前州 | 十一郡 | 郡 | 肥後州 | 十四郡 | 日向州 | 五郡 |
| (0926a1) | 美作州 | 七郡 | 備前州 | 十一郡 | 郡 | 備中州 | 九郡 | 備後州 | 十四郡 |
| (0923a4) | 模州 | 八郡 | 武蔵州 | 二十一郡 | 郡 | 安房州 | 四郡 | 上總州 | 十一郡 |
| (0926a2) | 備前州 | 十一郡 | 備中州 | 九郡 | 郡 | 備後州 | 十四郡 | 安藝州 | 八郡 |
| (0924a3) | 上野州 | 十四郡 | 下野州 | 九郡 | 郡 | 奥州 | 五十四郡 | 出羽州 | 十一郡 |
| (0926b4) | 鄂淡路州 | 二郡 | 阿波州 | 九郡 | 郡 | 讃岐州 | 十一郡 | 伊豫州 | 十四郡 |
| (0927b3) | 肥後州 | 十四郡 | 日向州 | 五郡 | 郡 | 大隅州 | 八郡 | 薩摩州 | 十四郡 |
| (0925a4) | 丹波州 | 六郡 | 丹後州 | 五郡 | 郡 | 但馬州 | 八郡 | 因幡州 | 七郡 |
| (0922a2) | 大和州 | 十五郡 | 伊勢州 | 十五郡 | 郡 | 河内州 | 十五郡 | 和泉州 | 八郡 |
| (0922b2) | 伊賀州 | 四郡 | 伊勢州 | 十五郡 | 郡 | 志摩州 | 二郡 | 尾張州 | 八郡 |
| (0927a3) | 西海道 | 筑前州 | 十五郡 | 郡 | 筑後州 | 十郡 | 豊前州 | 八郡 | 豊後州 |
| (0922a3) | 河内州 | 十五郡 | 河内州 | 十五郡 | 郡 | 和泉州 | 三郡 | 攝津州 | 十三郡 |
| (0924b1) | 北陸道 | 若狹州 | 三郡 | 郡 | 越前州 | 十二郡 | 加賀州 | 四郡 | 山陰道 |
| (0925a1) | 越後州 | 七郡 | 佐渡州 | 三郡 | 郡 | 山陰道 | 丹波州 | 六郡 | 丹波州 |
| (0923a2) | 甲斐州 | 四郡 | 伊豆州 | 三郡 | 郡 | 相模州 | 八郡 | 武蔵州 | 二十一郡 |
| (0922a4) | 和泉州 | 三郡 | 和泉州 | 三郡 | 郡 | 攝津州 | 十三郡 | 東海道 | 伊賀州 |
| (0922a5) | 泉州 | 三郡 | 攝津州 | 十三郡 | 郡 | 東海道 | 伊賀州 | 四郡 | 伊勢州 |
| (0923b4) | 東山道 | 近江州 | 十三郡 | 郡 | 美濃州 | 十八郡 | 飛驒州 | 四郡 | 伊勢州 |
| (0922b1) | 東海道 | 伊賀州 | 四郡 | 郡 | 伊勢州 | 十五郡 | 志摩州 | 二郡 | 伊豆州 |
| (0923a1) | 駿河州 | 七郡 | 甲斐州 | 四郡 | 郡 | 伊豆州 | 三郡 | 相模州 | 八郡 |
| (0924b5) | 能登州 | 四郡 | 越中州 | 四郡 | 郡 | 越後州 | 七郡 | 佐渡州 | 三郡 |
| (0924b4) | 加賀州 | 四郡 | 能登州 | 四郡 | 郡 | 越中州 | 四郡 | 越後州 | 七郡 |
| (0925b3) | 石見州 | 六郡 | 隱岐州 | 四郡 | 郡 | 山陽道 | 丹波州 | 六郡 | 丹波州 |
| (0923a5) | 武蔵州 | 二十一郡 | 安房州 | 四郡 | 郡 | 上總州 | 十一郡 | 下總州 | 十一郡 |
| (0924a1) | 美濃州 | 十八郡 | 飛驒州 | 四郡 | 郡 | 信濃州 | 十八郡 | 上野州 | 十四郡 |
| (0924b3) | 越前州 | 十二郡 | 加賀州 | 四郡 | 郡 | 能登州 | 四郡 | 越中州 | 四郡 |
| (0926a3) | 備中州 | 九郡 | 備後州 | 十四郡 | 郡 | 安藝州 | 八郡 | 周防州 | 六郡 |
| (0927b5) | 大隅州 | 八郡 | 薩摩州 | 十四郡 | 郡 | 一岐島 | 二郡 | 對馬島 | 二郡 |
| (0924a3) | 信濃州 | 十八郡 | 上野州 | 十四郡 | 郡 | 下野州 | 九郡 | 奥州 | 五十四郡 |
| (0922b5) | 三河州 | 八郡 | 遠江州 | 十四郡 | 郡 | 駿河州 | 七郡 | 甲斐州 | 四郡 |
| (0926b6) | 岐州 | 十一郡 | 伊豫州 | 十四郡 | 郡 | 土佐州 | 七郡 | 西海道 | 筑前州 |
| (0927b2) | 前州 | 十一郡 | 肥後州 | 十四郡 | 郡 | 日向州 | 五郡 | 大隅州 | 八郡 |
| (0925b5) | 山陽道 | 丹波州 | 六郡 | 丹波州 | 六郡 | 美作州 | 七郡 | 備前州 | 十一郡 |
| (0924a5) | 下野州 | 九郡 | 奥州 | 五十四郡 | 郡 | 出羽州 | 十一郡 | 北陸道 | 若狹州 |
| (0922b6) | 遠江州 | 十四郡 | 駿河州 | 七郡 | 郡 | 甲斐州 | 四郡 | 伊豆州 | 三郡 |
| (0924b6) | 越中州 | 四郡 | 越後州 | 七郡 | 郡 | 佐渡州 | 三郡 | 山陰道 | 丹波州 |
| (0927a1) | 伊豫州 | 十四郡 | 土佐州 | 七郡 | 郡 | 西海道 | 筑前州 | 十五郡 | 筑後州 |
| (0926b2) | 六郡 | 南海道 | 紀伊州 | 七郡 | 郡 | 淡路州 | 二郡 | 阿波州 | 九郡 |
| (0925a5) | 但馬州 | 八郡 | 因幡州 | 七郡 | 郡 | 伯耆州 | 六郡 | 出雲州 | 十郡 |
| (0925b6) | 幡磨州 | 十四郡 | 美作州 | 七郡 | 郡 | 備前州 | 十一郡 | 備中州 | 九郡 |
| (0924a1) | 飛驒州 | 四郡 | 信濃州 | 十八郡 | 郡 | 上野州 | 十四郡 | 下野州 | 九郡 |
| (0925b1) | 伯耆州 | 六郡 | 出雲州 | 十郡 | 郡 | 石見州 | 六郡 | 隱岐州 | 四郡 |
| (0927a4) | 筑前州 | 十五郡 | 筑後州 | 十郡 | 郡 | 豊前州 | 八郡 | 豊後州 | 八郡 |
| (0926b3) | 紀伊州 | 七郡 | 淡路州 | 二郡 | 郡 | 阿波州 | 九郡 | 讃岐州 | 十一郡 |
| (0928a1) | 一岐島 | 二郡 | 對馬島 | 二郡 | 郡 | 此二島 | 六十六州 | 之外 | 尾張州 |
| (0922b2) | 伊勢州 | 十五郡 | 志摩州 | 二郡 | 郡 | 尾張州 | 八郡 | 三河州 | 八郡 |
| (0927b6) | 薩摩州 | 十四郡 | 一岐島 | 二郡 | 郡 | 對馬島 | 二郡 | 此二島 | 六十六州 |
| (0924b3) | 若狹州 | 三郡 | 越前州 | 十二郡 | 郡 | 加賀州 | 四郡 | 能登州 | 四郡 |
| (0923b1) | 總州 | 十一郡 | 下總州 | 十一郡 | 郡 | 常陸州 | 十一郡 | 東山道 | 若狹州 |
| (0924a6) | 州 | 五十四郡 | 出羽州 | 十一郡 | 郡 | 北陸道 | 若狹州 | 三郡 | 越前州 |
| (0921b6) | 畿内 | 山城州 | 所領 | 八郡 | 郡 | 越前州 | 十二郡 | 加賀州 | 四郡 |
| (0925a5) | 丹後州 | 五郡 | 但馬州 | 八郡 | 郡 | 因幡州 | 七郡 | 伯耆州 | 六郡 |
| (0922b4) | 尾張州 | 八郡 | 三河州 | 八郡 | 郡 | 遠江州 | 十四郡 | 駿河州 | 七郡 |
| (0927b4) | 日向州 | 五郡 | 大隅州 | 八郡 | 郡 | 薩摩州 | 十四郡 | 一岐島 | 二郡 |
| (0922b3) | 志摩州 | 二郡 | 尾張州 | 八郡 | 郡 | 三河州 | 八郡 | 遠江州 | 十四郡 |
| (0926a4) | 備後州 | 十四郡 | 安藝州 | 八郡 | 郡 | 周防州 | 六郡 | 長門州 | 六郡 |
| (0927a6) | 豊前州 | 八郡 | 相模州 | 八郡 | 郡 | 肥前州 | 十一郡 | 肥後州 | 八郡 |
| (0923a3) | 伊豆州 | 三郡 | 相模州 | 八郡 | 郡 | 武蔵州 | 二十一郡 | 安房州 | 四郡 |
| (0923b6) | 江州 | 十三郡 | 美濃州 | 十八郡 | 郡 | 飛驒州 | 四郡 | 信濃州 | 十八郡 |
| (0925a6) | 因幡州 | 七郡 | 伯耆州 | 六郡 | 郡 | 出雲州 | 十郡 | 石見州 | 六郡 |

| | | |
|----------|-------------------|--------------------------------------|
| (0925a3) | 三郡山陰道の丹波州는 六郡 | 丹後州는 五郡但馬州는 八郡 |
| (0926a5) | 郭安藝州는 八郡周防州는 六郡 | 長門州는 六郡南海道の紀伊州는 七郡淡路州는 四郡山陽道の豊前州는 四郡 |
| (0926a6) | 郭周防州는 六郡長門州는 六郡 | 隱岐州는 四郡山陽道の豊前州는 四郡 |
| (0925b2) | 郭出雲州는 十郡石見州는 六郡 | 에 弼別을 듯고 定例 써시오니 |
| (0604a5) | 게 ㅎ쇼셔. 여긔 떠나실 吉日은 | 도 계실 일인디 이대-도록 바호 |
| (0417a4) | 실 일은 서르 時分과 갑식 양도 | 도 머러시니 요스이 머므시면 |
| (0320b5) | 라느이다. 오선 디 오래디 아나 | -씩지는 엇디 열현이 출히올가 |
| (0324b2) | 거 도라 가셔도 約條의 疇-흔 | 도 업슨 때에 前例의 업슨 일을 |
| (0420b1) | 시 이 스이 各官으로써 沙汰之 | 로 太守 弼를 저어 나아 서르 |
| (0831a4) | 써슬 信使의 弼 구터여 팔리는 | 로 귀-흔 곳을 구경-홀 분 아나 |
| (0828a5) | 실로 兩國 誠信之 | 日雜物은 자넹-네 十日二十 |
| (0324a4) | 疇-흔 후는 고티디 아니 ㅎ니 | 畿内는 山城州의 所領이 八郡 |
| (0921b5) | 道内 六十六州를 分한다. 아직 | 日雜物은 묵는 스이만 주실 써 |
| (0323a6) | 니 쇼인-네 수이 도라 가오면 | 日雜物 드리기에 스나히는 지. |
| (0424b2) | 葉入 百姓도 견디디 못 홀 일은 | 郡但馬州는 八郡因幡州는 七 |
| (0925a4) | 의는 丹波州는 六郡丹後州는 | 郡大隅州는 八郡薩摩州는 十 |
| (0927b3) | 郡肥後州는 十四郡日向州는 | 東 드린 公木을 다 나쁘라고 엇 |
| (0411b2) | 와 어와 어히 업시 니르심이야. | 東 드린 公木을 半分도 아니 잡 |
| (0416a2) | 올히만 너기시는 일은 어딴서 | 束을 一束에 十端-式 곁히여 |
| (0418b1) | 능-흔 묘리도 업고 출하리는 이 | 束을 束으로 곁히여 반만 자브. |
| (0421a6) | 로 너기거니와 우리 싱각-흠은 | 束 드린스오니 나 가 보와 잡습 |
| (0409b4) | 보내옵소. 그리 ㅎ오리. 公木 | 束만 몬져 드러 주옵소. 弼일 兩 |
| (0406b5) | 디 보내려 싱각-ㅎ오니 公木 | 郡出羽州는 十二郡北陸道の |
| (0924a4) | 十四郡下野州는 九郡奥州는 | 年도 못 ㅎ되 그대-도록 弼을 |
| (0921a6) | 日本말 弼화 시작-호미 계오 | 枚만 몬져 드러 주옵소. 글란 이 |
| (0124b3) | 忍히엿스오니 큰 대 열과 공석 | 人만 계시과다 다 원-ㅎ몬 兩 |
| (0917a3) | 도쑈오니 자네-네 弼투신 분 | 연향-ㅎ실되 날도 저를 써시니 |
| (0218b6) | 이셔 언머 슈고-ㅎ옵셔뇨? 看品 | 아되닝이다. 글로 ㅎ야 늘근 어 |
| (0823b4) | 오니 모뢰 하디 振舞를 ㅎ오니 | 감격-ㅎ여이다. 우리-들도 술 |
| (0317b5) | 을 바다 그러흔가 너기느이다. | 감격-ㅎ여이다. 立酌을 ㅎ실 조 |
| (0308a3) | 안자셔 宗용히 말슴-ㅎ옵새. | 마티 처음으로 뵈오디 하 극진 |
| (0305a1) | 으로 보옵고 그지 업서 ㅎ옵데. | 맛당-ㅎ여이다. 나토 높고 본드 |
| (0202a6) | 몬 난다 ㅎ니 弼장 섭섭히. | 오니 예셔 죽스와도 먹스오리 |
| (0207a5) | 니 이 一杯만 잡습소. 大切의 | ㅎ시니 감격히 너기옵디이다. |
| (0301b6) | 쇼인이 몬져 술을 써슬 이리 | 감격-ㅎ여이다. 우리는 덕분을 |
| (0201b3) | ㅎ히시니 아릅답다 니르시옵디. | 예 걸리신 일이나 인는 양으로 |
| (0822a6) | 고 御渡海 ㅎ실 작시면 아쁘란 | 마티 다 먹스오리이다. 長老는 |
| (0311b5) | 고 正體 업습건마는 이 齣으란 | 이시니 다시 술을 양이 업서이 |
| (0321a6) | 양으로 ㅎ옵소. 이리 감격-흔 | 을 때 無事히 왓습거니와 弼 ㅎ |
| (0111a3) | 니 아릅다와 ㅎ닝이다. 우리는 | 에 往來 힘-흔 海路의 ㅎ르도 |
| (0812b3) | 使의 술오른 어와 어와 三使의 | 이나 ㅎ시게 齣닝이다. ㅎ면 그 |
| (0701b6) | 어렵습거니와 使者을 보시고 | 을 때 彼此 首尾 도히 못줍고 사 |
| (0832a4) | 渡海 아릅다이 ㅎ쇼셔. 今度는 | 이옵도쇠. 府中도 無事 ㅎ은가? |
| (0502a4) | 어와 아릅답스외. 도흔 天氣에 | 예-씩지 왓니이다. 여긔 드 |
| (0713a1) | 스정을 닐러 들리소. 江戸로셔 | 는 아피옵도쇠. 이리 드옵소. 오 |
| (0501b6) | 와 겨신고? 아직 弼에 트옵소. | 빅옵도쇠. 그러면 使者는 뉘 와 |
| (0501a6) | 므슴 弼온고? 信使 마즈라 온 | 이옵도쇠. 어와 아릅다이 오옵 |
| (0102a2) | 드라.” 니르고 오라. 御念比 | 面上의는 酒氣 一切 업스오니 |
| (0316b1) | 이다. 술을 ㅎ 가지로 자선마는 | 하나 자옵소. 下口 이오니 마르 |
| (0118a2) | 리 ㅎ옵새. 밤이 드러시니 아직 | 日은 今 十五日이 吉日이오니 |
| (0823a6) | 히 쉬시미 本望이옵도송이다. | 도 城에 오르시는 날 알피 가져 |
| (0720b1) | 아춤의 奉行-의 議論 ㅎ오니 | 흔 일이옵도쇠. 朝廷도 誠信으로 |
| (0314a2) | 어와 즈로 우다히 오로느리기 | 썩 아니라 즈못 큰 술에 正體 |
| (0903a5) | 니 고디 드렸습더니 싱각 밧의 | 이오면 心中의는 비-홀 디 업 |
| (0609b6) | 의 타시로송이다. 드문 信使의 | 아릅다이 ㅎ쇼셔. 今度는 御裁 |
| (0832a1) | 心底 대로는 퍼디 못 홀송이다. | ㅎ실 작시면 아쁘란 御意에 결 |
| (0822a4) | 신 祝願 振舞도 밧디 아니시고 | ㅎ선 디 오래되 서르 보옵디 몬 |
| (0301a4) | 新語 第三 東葉계셔 니르시 | ㅎ셔 肝煎 ㅎ옵소. 썩 아니 니르 |
| (0121a6) | ㅎ옵시디. 앓가 齣던 떠던 弼를 | 흔 御使 이옵도쇠. 어와 아릅다 |
| (0102a2) | 內 술오시드라.” 니르고 오라. | |

| | | | |
|----------|----------------------|-----|--------------------|
| (0315b2) | 그러호므로 長老의 덜의 朝鮮 | 御牌 | 를 두고 常常 節句 日마다 拜禮 |
| (0401b3) | 하느이다. 니르시드시 처음으로 | 御對面 | 호오니 아름다와 호옵니. 이 看 |
| (0714a3) | 안히는 江戸에 브트실 써시니 | 御對面 | 호셔야 즈셔히 술오려 호 일. |
| (0610b5) | 祝願의 일이라 생각-호옵더니 | 御慰懃 | 호신 말슴-갓티 도로혀 붓그럽 |
| (0605a4) | 라 가시게 브라넝이다. 今日은 | 御慰懃 | 호신 振舞 終日 아름다운 御雜 |
| (0820a6) | 실가 問安만 술왓습더니 色色 | 御慰懃 | 히 니르신 양 즈못 奉行의로서 |
| (0704b2) | 카든 이과 호 가지니 使 아라 | 御禮 | 를 술오시소. 젓습거니와 알외 |
| (0708a5) | 호 일과 이 차반 호 줄을 부러 | 御禮 | 을 술을 써시니 자네 일홈은 무 |
| (0722a5) | 이 너기닝이다. 三奉行이 어제 | 御禮 | 라 호야 對馬島主로써 술는 일 |
| (0916a2) | 호심 아프 일-도곤 감격-호여 | 御禮 | 몸에 나쁜 일이옵소셔. 이 우히 |
| (0718a2) | 다왕이다. 우히도 도홀 양으로 | 御禮 | 을 술와 주쇼셔. 우호로서 “모 |
| (0715a1) | 수이 가 브틀 써시니 그 저기 | 御禮 | 술을 줄을 잘 아라셔 도홀 양으 |
| (0813a5) | 예-식지 브트시니 아름다오미 | 御禮 | 의 너머습는디 쏘 닉일 날세 구 |
| (0703b4) | 未 이걸 더걸 慰懃히 호신 양이 | 御禮 | 예 너쁜 양이로소이다. 이를 밧 |
| (0831b4) | 니르-도록 니르-도록 아름다운 | 御禮 | 몸에 나마 心底 대로는 퍼디 못 |
| (0907b6) | 또 친히 와 겨셔 너모 慰懃호신 | 御禮 | 도로켜 붓그러온 次第읍넝디 소 |
| (0815a2) | 겔 켜 일인가? 이러로서 内内 | 御禮 | 를 술오려 생각-호얏든디 우리 |
| (0605a6) | 慰懃호신 振舞 終日 아름다운 | 御雜談 | 듯좁고 즈못 거룩-호 술을 호고 |
| (0815b2) | 祝願호시니 아모의 果報라도 | 公儀 | 서르 못고 예-식지 오온 바를 |
| (0423b2) | 답거니 날을 저므를 쏘으로논 | 公儀 | 는 되디 아니코 이 민망을 비- |
| (0402b3) | 르실 쏘 아니라 兩國 誠信으로 | 公貿易 | 이라 덩-호여시면 이러트시 出 |
| (0322a2) | 쇼셔. 글란 그리 호려니와 당시 | 公貿易 | 銅 鑑 看品도 못 호엿고 封進 藥 |
| (0405a2) | 스기는 대되 同前이오니 우리도 | 公木 | 을 곱히여 자브면 호 가지옵도 |
| (0412b2) | 葉 時分도 헤아리디 아니코 | 公木 | 을 거르기 세치 곱환다 호고 공 |
| (0413a3) | 아니커니와 자넌-네도 時分과 | 公木 | 갑시 상히로서 언머 더호연는고 |
| (0412a2) | 以來 年-호여 木花 사오나와 | 公木 | 의 大切히 되야시몬 자넌-네도 |
| (0323a3) | 헤아려 오논 대로 호오려니와 | 公木 | 은 束數 잇스오니 쇼인-네 고 |
| (0406b5) | 가는 디 보내려 생각-호오니 | 公木 | 五十 束만 몬져 드러 주옵소. 나 |
| (0409b4) | 더겨 보내옵소. 그리 호오리. | 公木 | 五十 束 드려스오니 나 가 보외 |
| (0413b4) | 시는 배 오로 그러홀 씨라도 이 | 公木 | 은 넷 公木의 一 束도 ㄱ트니 우 |
| (0414b6) | 쏘으로논 못디 못 홀 써시니 이 | 公木 | 을 端端이 곱힐까? 그를 마다 |
| (0418a1) | 시 잡습소. 아프리 니르셔도 이 | 公木 | 을 바다 아프려도 하 테 업스오 |
| (0409b6) | 스오니 나 가 보와 잡습소. 이 | 公木 | 이 었디 이러트시 사오납스온고 |
| (0325a3) | 시는 양으로 가오려니와 아직 | 公木 | 을 드러 주옵시면 몬져 가는 비 |
| (0409a2) | 와 다시 괴별을 솟스오리. 아직 | 公木 | 을 드러 주옵소. 그리 호옵소. |
| (0411a1) | 端도 자블 公木이 업스외. 이런 | 公木 | 은 아모만 드러도 잘 잡디 못 |
| (0425b6) | 르니 나라토 부디티 몬 홀 일은 | 公木 | 을 端端이 곱힐자 니르시미 前 |
| (0406a4) | 오니 아롬답스외. 버거 근심은 | 公木 | 善惡의 브터 判事네과 싸홀가 |
| (0411b2) | 겅시 니르십이야. 五十 束 드린 | 公木 | 을 다 나쁘라고 었디 호려 아 |
| (0416a2) | 시는 일은 어디셔 五十 束 드린 | 公木 | 을 半分도 아니 잡고 나여 가리 |
| (0424b5) | 겨집은 이고 날-마다 드리는 | 公木 | 들도 ㄱ쇼게 시러 호르 스이 두 |
| (0410b4) | 올외. 그 안헤도 一 束에 자블 | 公木 | 이 十 端 남죽이 드렸고 나쁘니 |
| (0410b6) | 드렸고 나쁘니는 一 束도 자블 | 公木 | 이 업스외. 이런 公木은 아모만 |
| (0413b5) | 로 그러홀 씨라도 이 公木은 넷 | 公木 | 의 一 束도 ㄱ트니 업스물 자넌 |
| (0416b2) | 각-호고 일을 그리 호는가? 넷 | 公木 | 이라 닐러도 여긔셔 영쫑홀 일 |
| (0506a5) | 로이 건너 오시도쇼. 자넌-네 | 口上 | 道理 즈셔히 註進호여시니 쉽 |
| (0713a1) | 의-게 그 스정을 닐려 들리쇼. | 江戸 | 로셔 御使 에-식지 왔넝이다 |
| (0808a5) | 道理를 잘 생각-호여 보시쇼. | 江戸 | 에 반 둘이나 무거 슈고-호던 |
| (0818b2) | 다. 별로 인스-홀 테도 업스니 | 江戸 | 奉行의로서 보낸 金子를 자네 |
| (0618b2) | 우호로서 바르디 나시디 호면 | 江戸 | 에 들려도 우리 그른 디 되기는 |
| (0709b4) | 長老 ㅅ ㅅㅅㅅ ㅅㅅㅅ ㅅㅅㅅ 술오몬 | 江戸 | 로셔 信使의 問安의 어룬의 官 |
| (0617b5) | 이 격기-호는 분-네 니르기는 | 江戸 | 로셔 信使 겨실 디도 극진이 호 |
| (0714a2) | 問安호시고 이 二三日 안히는 | 江戸 | 에 브트실 써시니 御對面호셔 |
| (0923a1) | 工州는 十四郡 駿河州는 七郡 | 甲斐州 | 는 四郡 伊豆州는 三郡 相模 |
| (0705b3) | 일도 업넝디 이러트시 극진히 | 行下 | 호시니 太守 드르셔도 過分타 |
| (0709a2) | 왔더니 다시곰 다시곰 극진히 | 行下 | 호시니 민망-호옵건마는 行下 |
| (0709a4) | 行下호시니 민망-호옵건마는 | 行下 | 를 존넝이다. 信使 吉田에 留 |
| (0526a2) | 는 사람의 불골도 쳐티고 상시 | 行儀 | 를 웃듬-호는 규귀오니 엿줍기 |
| (0408a1) | 一隻 代官으로써 借船 一隻 | 合 | 호여 三隻이옵도쇼. 미리 술와 |
| (0928a3) | 一岐島는 二郡 對馬島는 二郡 | 此 | 二島는 六十六州之外 敷捷解 |

| | | | |
|----------|--------------------|-----|--------------------|
| (0823a6) | 望이읍도송이다. 御出船 日은 | 今 | 十五 日이 吉日이오니 모되 하 |
| (0832a4) | 이다. 御渡海 아릅다이 흥쇼셔. | 今度 | 는 御裁判을 써 彼此 首尾 도히 |
| (0307b4) | 닉. 前例는 그러티 아니커니와 | 今度 | 안자도 禮예는 삼디 못 흥 써시 |
| (0832b3) | 락 하딕 아릅다왕이다. 太守 | 今度 | 슈고-흥신 양은 朝廷의도 주셔 |
| (0208a2) | 기엿 거시 이리티 못 흥옵더니 | 今度 | 는 膳敷器皿 以下 조출흥고 |
| (0605a4) | 흥여 도라 가시게 브라닝이다. | 今日 | 은 御慰勲흥신 振舞 終日 아릅 |
| (0510b1) | 니 깃브외. 大慶의 일이읍도쇠. | 今日 | 빅를 내올 써시니 그 返書를 수 |
| (0428a3) | 툼흥 사름도 업고 엇디 흥울고? | 今夜 | 썬 下人을 番을 흥이시면 니일 |
| (0429a2) | 니르디 아니티 못 흥 써시모로 | 今夜 | 란 브딕 番을 흥옵소. 萬事 막 |
| (0925a1) | 越中州는 四 郡 越後州는 七 郡 | 佐渡州 | 는 三 郡 山陰道의는 丹波州는 |
| (0402a2) | 브터 저울 세니 느리니 出入에 | 差使員 | 썬 아니라 여괴 소임-흥는 官ノ |
| (0515a4) | 船頭 마장 니근 사름 十五 人을 | 差定 | 흥야 두어시니 느죽-흥야 一 船 |
| (0804a5) | 흥여시니 차네 이 맞기 어려운 | 差別 | 을 잘 아르셔 奉行내-외 극진흥 |
| (0619a6) | 고 우리도 스이에서 이러툼 흥 | 差別 | 도 읍디 아니 흥는 양으로 니르 |
| (0420b1) | 가 읍디시 이 스이 各官으로서 | 沙汰之 | 限도 업슨 때에 前例의 업슨 일 |
| (0615b1) | 에 곳브심도 계실 써시니 이제 | 座船 | 을 투시고 오읍심을 밋증닐디 |
| (0322b4) | 더딜까 너기읍닉. 그러커니와 | 催促 | 흥오리. 封進 返禮는 서울로셔 |
| (0212a4) | 니르시는 대로 東萊의 엿즈와 | 催促 | 흥여 보내오리. 친히 보와 술을 |
| (0211b2) | 니르읍소. 圓座 帳枕 以下 物을 | 催促 | 흥여 수이 드리읍소. 또 大廳地 |
| (0404a1) | 도 열현이논 아디 아니 흥읍닉. | 在前 | 브터 代官들의-게도 申송흥여 |
| (0527a5) | 고? 他國에 볼골 사오나오면 그 | 作法 | 은 모로고 내 나라 편잔은 아니 |
| (0529a2) | 肅足흥여이다. 그러커니와 朝鮮 | 作法 | 은 굿긋티 그리 못 흥염죽-흥 |
| (0130b1) | 르시는 배 그러흥옵거니와 正官 | 昨晚 | 브터 병 드럿스오니 차닉-게 |
| (0909b5) | 段 되기 어려운 所望이읍도쇠. | 昨夜 | 는 우리도 술의 취-흥여 생각 |
| (0927b5) | 日向州는 五 郡 大隅州는 八 郡 | 薩摩州 | 는 十四 郡 一岐島는 二 郡 對馬 |
| (0408a1) | 代官으로서 借船 一隻 흥여 | 三 | 隻이읍도쇠. 미리 술와 두읍소. |
| (0408a6) | 두읍소. 그는 술오려니와 흥외 | 三 | 隻-도록 엇디-흥울고? 차닉- |
| (0922a4) | 內州의는 十五 郡 和泉州의는 | 三 | 郡 攝津州는 十三 郡 東海道는 |
| (0515b1) | 흥야 一 船 二 船 三 船-씩지는 | 三 | 人-씩 그 나쁜 빅예는 二 人-씩 |
| (0925a1) | 四 郡 越後州는 七 郡 佐渡州는 | 三 | 郡 山陰道의는 丹波州는 六 郡 |
| (0923a2) | 七 郡 甲斐州는 四 郡 伊豆州는 | 三 | 郡 相模州는 八 郡 武蔵州는 二 |
| (0924b1) | 十二 郡 北陸道의는 若狹州는 | 三 | 郡 越前州는 十二 郡 加賀州는 |
| (0515b1) | 어시니 느죽-흥야 一 船 二 船 | 三 | 船-씩지는 三 人-씩 그 나쁜 빅 |
| (0509a5) | 또 서울셔 返事 출히기에 二 日 | 三 | 日이나 흥면 더디여도 十二三 |
| (0922b4) | 志摩州는 二 郡 尾張州는 八 郡 | 三河州 | 는 八 郡 遠江州는 十四 郡 駿河 |
| (0826b1) | 진실로 遠路에 나라 일을 밋고 | 三使 | 을 청-흥야 하딕-흥는 양 아릅 |
| (0601b3) | 之道를 서르 던-흥여 이제 또 | 三使 | 멀리 渡海흥셔 내-게 請흥 |
| (0812b3) | 와셔 信使의 술오른 어와 어와 | 三使 | 의 御果報에 往來 힘-흥 海路의 |
| (0524a4) | 오니 마줌 모단을 두엿습더니 | 三使 | 아회-들의 옷 옷술 흥여 니피리 |
| (0528b4) | 子를 극진히 三使의 열즈오니 | 三使 | 니르시몬 극진히 넘너-흥심 滿 |
| (0528b3) | 시는 道理 前後 樣子를 극진히 | 三使 | 의 열즈오니 三使 니르시몬 극 |
| (0602a4) | 기 어려운 일인가 너기건마는 | 三使 | 는 엇디 너기실 디 아직 아직 |
| (0601a3) | 解新語 第五 終 捷解新語 第六 | 三使 | 를 請흥여 상접-흥이라. 읍-도 |
| (0710a1) | 의 問安의 어른의 官員 二 人이 | 三島 | 씩지 와 기도른다 흥오니 來日 |
| (0710a2) | 지 와 기도른다 흥오니 來日은 | 三島 | 의 가실 써시니 즉제 아니 보디 |
| (0722a5) | 딕 업시 아릅다이 너기닝이다. | 三奉行 | 이 어제 御禮라 흥야 對馬島主 |
| (0913a3) | 無道히 된 仕合 붓쓰러오미 海 | 山 | 마티 너기눔이다. 모다 언머 서 |
| (0925a2) | 越後州는 七 郡 佐渡州는 三 郡 | 山陰道 | 의는 丹波州는 六 郡 丹後州는 |
| (0921b6) | 州를 分흥다. 아직 五 畿內는 | 山城州 | 의 所領이 八 郡이오 大和州의 |
| (0925b4) | 石見州는 六 郡 隱岐州는 四 郡 | 山陽道 | 의는 郡 幡磨州는 十四 郡 美作 |
| (0913a2) | 읍디 못 흥고 알고도 無道히 된 | 仕合 | 붓쓰러오미 海山 마티 너기눔 |
| (0805b4) | 시곰 다시곰 아니 밋디 못 흥실 | 仔細 | 호믈 닐러 부러 사흘 썰흥 홀리 |
| (0712a1) | -흥시미 도홀까 시프외. 또 더 | 使 | 信使를 위-흥야 冠帶를 흥 |
| (0807b2) | 도 너기읍닉. 또 내 힘으로 더 | 使 | 를 自由히 마옵아디 못 흥 일이 |
| (0702b6) | 흥시논고? 右之 道理 心得흥고 | 使 | 를 여괴 보내소. 使를 불러 니르 |
| (0703a2) | 哩 心得흥고 使를 여괴 보내소. | 使 | 를 불러 니르시는 바는 넘너-흥 |
| (0713a6) | 니-씩지 왔닉이다. 여괴 드읍소. | 使 | 술오른 우흐로셔 니르시는 바는 |
| (0519b3) | 야 安堵 흥영이다. 對馬島主의 | 使 | 즉시 와셔 太守 읍는 바는 |
| (0704b2) | 도 조브니 바든 이과 흥 가지니 | 使 | 아라 御禮를 술오시소. 첫습 |
| (0520a6) | 의 問安 알외닝이다. 넘너-흥신 | 使 | 읍도쇠. 인는 딕도 넘너-흥 |

| | | | | |
|----------|---------------------|-----|--|----------------------|
| (0716a1) | 커니 너일도 보오련마는 먼 딘 | 使 | | ㅣ 시니 尋常히 못 홀 일이니 吉 |
| (0701b2) | 을 주시게 햏야 차반을 가지고 | 使者 | | ㅣ ㅅ 왓스오니 어럽습거니와 使 |
| (0701b4) | 吏者ㅣ 왓스오니 어럽습거니와 | 使者 | | ㅣ 을 보시고 御回答이나 햏시게 |
| (0518a2) | 과다 問安햏시덩이다. 예-ㅅ지 | 使者 | | ㅣ ㅅ 감격키 너기농이다. 우리는 |
| (0501b2) | 즈라 온 御使 빅읍도쇠. 그러면 | 使者 | | ㅣ 는 뒤 와 겨신고? 아직 빅예 트 |
| (0922b1) | 는 十三 郡 東海道는 伊賀州는 | 四 | | ㅣ 郡 伊勢州는 十五 郡 志摩州는 |
| (0924b3) | 郡 越前州는 十二 郡 加賀州는 | 四 | | ㅣ 郡 能登州는 四 郡 越中州는 匹 |
| (0925b3) | 十 郡 石見州는 六 郡 隱岐州는 | 四 | | ㅣ 郡 山陽道の는 郡 幡磨州는 十 |
| (0924b5) | 四 郡 能登州는 四 郡 越中州는 | 四 | | ㅣ 郡 越後州는 七 郡 佐渡州는 三 |
| (0924b4) | 二 郡 加賀州는 四 郡 能登州는 | 四 | | ㅣ 郡 越中州는 四 郡 越後州는 七 |
| (0923a1) | 四 郡 駿河州는 七 郡 甲斐州는 | 四 | | ㅣ 郡 伊豆州는 三 郡 相模州는 八 |
| (0923a5) | 武蔵州는 二十一 郡 安房州는 | 四 | | ㅣ 郡 上總州는 十一 郡 下總州는 |
| (0924a1) | 郡 美濃州는 十八 郡 飛驒州는 | 四 | | ㅣ 郡 信濃州는 十 郡 上野州는 十 |
| (0809b5) | 가히 아프가히 兩 人의셔 예셔 | 四五 | | ㅣ 日어나 무그셔 쉬여 出船햏실 |
| (0922b2) | 賀州는 四 郡 伊勢州는 十五 郡 | 志摩州 | | ㅣ 는 二 郡 尾張州는 八 郡 三河州 |
| (0416b5) | ㅅ췁홀 일은 업스오니 아프려나 | 思合 | | ㅣ 햏셔 저기 不足홀 씨라도 분별 |
| (0914a1) | 오니 아프려나 모다 내 様子를 | 思分 | | ㅣ 햏셔 萬事를 두로 쓰리시물 마 |
| (0912b1) | ㅣ전의도 내 여긔 와셔 자네-네 | 指南 | | ㅣ 을 어더 저기 말도 햏더니마는 |
| (0313a6) | ㅅ의셔도 그리 니르웁느니라. | 時節 | | ㅣ 이 네과 달라 上方의셔 아프란 |
| (0413a2) | 카 읍든 아니커니와 자넌-네도 | 時分 | | ㅣ 과 公木 감시 상히로서 언머 더 |
| (0417a3) | 분별 아니티 몬 햏실 일은 서르 | 時分 | | ㅣ 과 감식 양도 見습도 계실 일인 |
| (0412a6) | 시리. ぞ못 各官으로서 東萊ㅣ | 時分 | | ㅣ 도 헤아리디 아니코 公木을 거 |
| (0417b2) | 박드시 마르시고 이 번은 브딕 | 時分 | | ㅣ 을 헤아려 도홉 구즘을 군말 업 |
| (0908a1) | ㄹ躰햏신 御禮 도로켜 붓그러온 | 次第 | | ㅣ 읍션딕 췁 회례라 일홉 지어 브 |
| (0322b3) | 로셔 返禮의 返書ㅣ 을 거시니 | 自然 | | ㅣ 더될까 너기웁넌. 그러커니와 |
| (0309b1) | 셔기 잘 못 햏으와 술왓습져니 | 自由 | | ㅣ 히 너기웁신가 민망-햏여이다. |
| (0612b2) | ㅣ나실 양으로 닐러시니 이제는 | 自由 | | ㅣ 히 ㅅ음아디 못 햏을 써시니 그 |
| (0807b2) | ㅣ기웁넌. 췁 내 힘으로 더 使를 | 自由 | | ㅣ 히 ㅅ음아디 못 홀 일이오니 이 |
| (0418b3) | ㅅ 이 五十 束을 一 束에 十 端- | 式 | | ㅣ 굴히여 내면 十 束을 자블 써시 |
| (0926b2) | 는 六 郡 南海道の는 紀伊州는 | 七 | | ㅣ 郡 淡路州는 二 郡 阿波州는 九 |
| (0922b6) | 郡 遠江州는 十四 郡 駿河州는 | 七 | | ㅣ 郡 甲斐州는 四 郡 伊豆州는 三 |
| (0924b6) | 四 郡 越中州는 四 郡 越後州는 | 七 | | ㅣ 郡 佐渡州는 三 郡 山陰道の는 |
| (0927a1) | 郡 伊豫州는 十四 郡 土佐州는 | 七 | | ㅣ 郡 西海道の는 筑前州는 十五 |
| (0925b6) | 郡 幡磨州는 十四 郡 美作州는 | 七 | | ㅣ 郡 備前州는 十一 郡 備中州는 |
| (0925a5) | 五 郡 但馬州는 八 郡 因幡州는 | 七 | | ㅣ 郡 伯耆州는 六 郡 出雲州는 十 |
| (0408b1) | ㅅ-도록 엇더-햏을고? 자넌-네 | 借船 | | ㅣ 으란 미쳐 보내여도 도홉가 너 |
| (0407b6) | 一 船 中歸船 一隻 代官으로서 | 借船 | | ㅣ 一隻 습햏여 三 隻이웁도쇠. ㅅ |
| (0910a1) | ㅣ-햏여 싱각디 못 햏거니와 더 | 若衆 | | ㅣ 들의 -게 밤-새-도록 거륵이 |
| (0911a2) | 여 햏시게 읍는 일이언마는 이 | 若衆 | | ㅣ 들혼 유여-호믈 웃듬으로 햏니 |
| (0909b1) | 스오리. 다만 ㅅ음의 걸리기는 | 若衆 | | ㅣ 들의 연고를 웃듬으로 니르시 |
| (0905b1) | 주웁소. 기둥의도 놀래 브르든 | 若衆 | | ㅣ 들의 연고 업기를 전위-햏엿습 |
| (0924b1) | 出羽州는 十二 郡 北陸道の는 | 若狹州 | | ㅣ 는 三 郡 越前州는 十二 郡 加賀 |
| (0317a5) | ㅅ 햏고 오늘은 자넌-네로 햏여 | 主人 | | ㅣ 의 도리를 출혀 권-홀 양으로 |
| (0316b3) | ㅣ로 자선마는 御手前 面上의는 | 酒氣 | | ㅣ 一切 업스오니 술과 거동이 ㅅ |
| (0832a5) | 쇼셔. 今度는 御裁判을 ㅅ 彼此 | 首尾 | | ㅣ 도히 못줍고 서르 하딕 아름다 |
| (0926a5) | 後州는 十四 郡 安藝州는 八 郡 | 周防州 | | ㅣ 는 六 郡 長門州는 六 郡 南海道 |
| (0921b4) | 마소. 日本 八 箇 道內 六十六 | 州 | | ㅣ 를 分햏다. 아직 五 畿內는 山城 |
| (0928a3) | 島는 二 郡 此 二 島는 六十六 | 州之 | | ㅣ 外 倅 捷解新語 第九 終 |
| (0928b6) | 十六 州之 外 倅 捷解新語 第九 | 終 | | ㅣ |
| (0530b6) | 그리 아라시소. 捷解新語 第五 | 終 | | ㅣ 捷解新語 第六 三使를 請햏여 |
| (0133b9) | 이라. 던득단 말이라. 捷解新語 | 終 | | ㅣ 捷解新語 第二 東萊 니르심은 |
| (0329b6) | ㅅ 지간-햏웁소. 捷解新語 第三 | 終 | | ㅣ 捷解新語 第四 오늘은 看品에 |
| (0430b6) | 오로 미덧습넌. 捷解新語 第四 | 終 | | ㅣ 捷解新語 第五 이는 ㅅ슴 빅은 |
| (0722b6) | 禮예 너머이다. 捷解新語 第七 | 終 | | ㅣ 捷解新語 第八 信使 떠나셔 사 |
| (0219b6) | 수이 출히웁소. 捷解新語 第二 | 終 | | ㅣ 捷解新語 第三 東萊게셔 니르 |
| (0832b6) | 엇즈오렁이다. 捷解新語 第六 | 終 | | ㅣ 捷解新語 第九 요스이는 館中 |
| (0624b6) | 홀 대로 햏웁소. 捷解新語 第六 | 終 | | ㅣ 捷解新語 第七 筑前 太守로서 |
| (0604b3) | 아직 오늘은 祝願의 일이오니 | 終日 | | ㅣ 노르시고 내 집 지은 것도 두로 |
| (0610a6) | 햏여 아프란 귀-홀 일도 업시 | 終日 | | ㅣ 겨셔 도로켜 셔의-햏운가는 너 |
| (0605a6) | 이다. 今日은 御慰懃햏신 振舞 | 終日 | | ㅣ 아름다운 御雜談 듯줍고 ぞ못 |

| | | | |
|----------|---------------------|-----|--------------------|
| (0324a6) | 니 ㅎ니 五 日 雜物은 자넨-네 | 十 | 日 二十 日 무거 도라 가셔도 雜 |
| (0418b2) | 출하리는 이 五十 束을 一 束에 | 十 | 端-式 곶히여 내면 十 束을 자 |
| (0920a2) | 날을 니겨 시작-ㅎ여 이제 불셔 | 十 | 年나마 되야시되 진실로 이만 |
| (0410b4) | 그 안헤도 一 束에 자블 公木이 | 十 | 端 남죽이 드렸고 나쁘니는 一 |
| (0418b4) | 一 束에 十 端-式 곶히여 내면 | 十 | 束을 자블 써시니 判事네 었다 |
| (0925b1) | 七 郡 伯耆州는 六 郡 出雲州는 | 十 | 郡 石見州는 六 郡 隱岐州는 四 |
| (0927a4) | 는 筑前州는 十五 郡 筑後州는 | 十 | 郡 豊前州는 八 郡 豊後州는 八 |
| (0924a1) | 八 郡 飛驒州는 四 郡 信濃州는 | 十 | 郡 上野州는 十四 郡 下野州는 |
| (0509a2) | 러 거시니 그러 ㅎ면 往來 九 日 | 十 | 日이나 되려니와 쏘 셔울서 返 |
| (0926b5) | 二 郡 阿波州는 九 郡 讃岐州는 | 十一 | 郡 伊豫州는 十四 郡 土佐州는 |
| (0927b1) | 八 郡 豊後州는 八 郡 肥前州는 | 十一 | 郡 肥後州는 十四 郡 日向州는 |
| (0926a1) | 四 郡 美作州는 七 郡 備前州는 | 十一 | 郡 備中州는 九 郡 備後州는 十 |
| (0923b2) | 郡 下總州는 十二 郡 常陸州는 | 十一 | 郡 東山道の는 近江州는 十三 |
| (0923a6) | 一 郡 安房州는 四 郡 上總州는 | 十一 | 郡 下總州는 十二 郡 常陸州는 |
| (0922a2) | 所領이 八 郡이오 大和州의는 | 十五 | 郡 河内州의는 十五 郡 和泉州 |
| (0922a3) | 는 和州의는 十五 郡 河内州의는 | 十五 | 郡 和泉州의는 三 郡 攝津州는 |
| (0922b1) | 道는 伊賀州는 四 郡 伊勢州는 | 十五 | 郡 志摩州는 二 郡 尾張州는 八 |
| (0927a3) | 는 七 郡 西海道の는 筑前州는 | 十五 | 郡 筑後州는 十 郡 豊前州는 八 |
| (0611a3) | 그럽스왕이다. 爰元 出船 이 돌 | 十五 | 日이라 ㅎ니 일딩 그러 ㅎ온가? |
| (0515a4) | ㅎ면 日本 船頭 마장 니근 사름 | 十五 | 人을 差定 ㅎ야 두어시니 느죽- |
| (0823a6) | 이옵도송이다. 御出船 日은 今 | 十五 | 日이 吉日이오니 모되 하딕 振 |
| (0923b4) | 十一 郡 東山道の는 近江州는 | 十三 | 郡 美濃州는 十八 郡 飛驒州는 |
| (0922a5) | 郡 和泉州의는 三 郡 攝津州는 | 十三 | 郡 東海道の는 伊賀州는 四 郡 伊 |
| (0927b2) | 郡 肥前州는 十一 郡 肥後州는 | 十四 | 郡 日向州는 五 郡 大隅州는 八 |
| (0926a3) | 一 郡 備中州는 九 郡 備後州는 | 十四 | 郡 安藝州는 八 郡 周防州는 六 |
| (0922b5) | 八 郡 三河州는 八 郡 遠江州는 | 十四 | 郡 駿河州는 七 郡 甲斐州는 四 |
| (0927b5) | 五 郡 大隅州는 八 郡 薩摩州는 | 十四 | 郡 一岐島는 二 郡 對馬島는 二 |
| (0925b5) | 四 郡 山陽道の는 郡 幡磨州는 | 十四 | 郡 美作州는 七 郡 備前州는 十 |
| (0924a2) | 四 郡 信濃州는 十 郡 上野州는 | 十四 | 郡 下野州는 九 郡 奥州는 五十 |
| (0926b6) | 郡 讃岐州는 十一 郡 伊豫州는 | 十四 | 郡 土佐州는 七 郡 西海道の는 |
| (0924a6) | 郡 奥州는 五十四 郡 出羽州는 | 十二 | 郡 北陸道の는 若狹州는 三 郡 |
| (0924b2) | 의는 若狹州는 三 郡 越前州는 | 十二 | 郡 加賀州는 四 郡 能登州는 四 |
| (0923b1) | 郡 上總州는 十一 郡 下總州는 | 十二 | 郡 常陸州는 十一 郡 東山道の |
| (0509b1) | 二 日 三 日이나 ㅎ면 더디여도 | 十二三 | 日만의는 올가 다 헤아리옵데. |
| (0512a5) | 五 日만 ㅎ셔 出船 吉日은 來月 | 十二三 | 日의 덩-ㅎ얏다 니르옵네. 訃 |
| (0923b6) | 는 近江州는 十三 郡 美濃州는 | 十八 | 郡 飛驒州는 四 郡 信濃州는 十 |
| (0205a6) | 는 호물 마장 설이 너겨 病이 더 | 重 | ㅎ까 너기옵닝이다. 封進宴을 |
| (0812a6) | 쟈이면 자넨-게 맞디오리. 藍島 | 宿所 | 에 太守 보오라 와셔 信使의 |
| (0614b4) | 이 앓흔 萬事 므옵 편-ㅎ까 | 祝願 | ㅎ닝이다. 接待에 꺽기-ㅎ는 訃 |
| (0514b2) | 면 出行의 아름다운 일이라 다 | 祝願 | ㅎ옵네. 그러면 게셔도 日吉利 |
| (0827a4) | 는 스오니 오늘란 종용히 노르셔 | 祝願 | ㅎ시과다. 더 귀-ㅎ 풍뉴-돌도 |
| (0607a2) | 놀려 뵈옵고져 ㅎ닝이다. 이도 | 祝願 | 의 일이라 엇줍네이다. 色色의 |
| (0610b3) | 서의-ㅎ온가는 너기옵거니와 | 祝願 | 의 일이라 싱각-ㅎ옵더니 御慰 |
| (0817a3) | 시고 마장 므옵 편히 쉬신 후의 | 祝願 | 의 宴享도 ㅎ올가 미뎃닝이다. |
| (0825a6) | 자네도 멀리 슈고-ㅎ야 거시니 | 祝願 | 아니튼 못 ㅎ 양으로 전 브터 訃 |
| (0815a5) | 우리의 情이 年-ㅎ인 디 이리 | 祝願 | ㅎ시니 아모의 果報라도 公儀 |
| (0815b4) | 온 바를 말로는 다 ㅎ기 어려운 | 祝願 | 의 일이옵도죄. 어제는 술술이 |
| (0530b1) | 는 기는 업거니와 그러나 訃일은 | 祝願 | 의 연향이오니 信使의 對面 訃 |
| (0604b2) | 현티 아니 ㅎ오리. 아직 오늘은 | 祝願 | 의 일이오니 終日 노르시고 내 |
| (0822a3) | 되셔 예-식지 아름다이 건너신 | 祝願 | 振舞도 맞디 아니시고 御渡海 訃 |
| (0924a6) | 野州는 九 郡 奥州는 五十四 郡 | 出羽州 | 는 十二 郡 北陸道の는 若狹州 |
| (0925b1) | 은 幡磨州는 七 郡 伯耆州는 六 郡 | 出雲州 | 는 十 郡 石見州는 六 郡 隱岐州 |
| (0514b1) | 는 이실 듯 ㅎ다 니르니 그러면 | 出行 | 의 아름다운 일이라 다 祝願 訃 |
| (0823a1) | 는 되올가 너기오니 아프리커나 | 出船 | 日란 亭主의-게 맞디시고 아직 |
| (0612b5) | 니 그 날은 天氣예도 붓디 아너 | 出船 | ㅎ실 거시니 그리 아릅쇼셔. 訃 |
| (0512a4) | 셔 묵기는 二十四五 日만 ㅎ셔 | 出船 | 吉日은 來月 十二三 日의 덩-訃 |
| (0810a2) | 에서 四五 日이나 무고셔 쉬여 | 出船 | ㅎ실 양으로 大君의셔 닐러 왔 |
| (0616a4) | 天氣 조흘까 시브다 ㅎ니 새배 | 出船 | 訃 작시면 못호로셔 투노라 출 |
| (0616a6) | 는 먼 못호로셔 투노라 출히기에 | 出船 | 도 더딜 썬시니 온갓 接待에 訃 |
| (0819b4) | 는 먼 일도 업서 이 二三 日 內에 | 出船 | 訃 올 거시니 그리 아릅쇼셔. 어 |

| | | | |
|----------|--------------------|------|-----------------------|
| (0824b4) | 더 브르시게 밋쥬닝이다. 어와 | 出船 | 日을 定히시니 아롭다와 ㅎ눔 |
| (0503a3) | 거닐 날 셔울을 떠나셔 어닐 께 | 出船 | 吉日인고 ㅎ야 우리 兩人을 블 |
| (0613b1) | 읍닝이다. 밤이 붓다 아닌 전의 | 出船 | ㅎ실 양으로 ㅎ쇼셔. 기별-ㅎ쇼 |
| (0620b1) | 편히 싱각-ㅎ쇼셔. 다만 닉일 | 出船 | 의 뒤버므릴 작시면 中官 以下 |
| (0611a1) | 도로혀 붓그립스왕이다. 爰元 | 出船 | 이 들 十五日이라 ㅎ니 일딩 |
| (0613b6) | 다 여기 사름도 니르오니 ㅁㅁ | 出船 | ㅎ읍새. 마쥬 ㄷㅎ 順風에 옛- |
| (0821a5) | 일 이로송이다. ㅁ 二三日內 | 出船 | 이라 니르시니 그리 못 ㅎ을 일 |
| (0401b6) | ㅁ時 전 브터 저울 세니 ㄴㄹ니 | 出入 | 에 差使員 쏘 아니라 여기 소임 |
| (0402b5) | 易이라 덩-ㅎ여시면 이러트시 | 出入 | 이 잇디 아닐 듯 ㅎ디 그 ㅎ시 |
| (0922b6) | 可州는 八郡 遠江州는 十四郡 | 駿河州 | 는 七郡 甲斐州는 四郡 伊豆 |
| (0206a4) | 스울 썬시니 아니 ㅁ오렁잇가? | 巡杯 | 는 디낫습거니와 처음으로 보 |
| (0614a4) | 니 ㅁㅁ 出船ㅎ읍새. 마쥬 ㄷㅎ | 順風 | 에 옛-ㅁ지 브트시니 大慶이로 |
| (0518a4) | 궁키 너기눔이다. 우리는 마쥬 | 順風 | 의 無事히 붓즈오니 ㅁ거 ㅎ읍 |
| (0513a1) | 그러ㅎ온가? 天氣 樣子 ㅁ 일딩 | 順風 | 이 이실 듯 ㅎ다 ㅎ니 朝鮮 사 |
| (0909b4) | 니르시니 이 一段 되기 어려운 | 所望 | 이 읍도쇠. 昨夜는 우리도 술의 |
| (0921b6) | ㅎ다. 아직 五畿內는 山城州의 | 所領 | 이 八郡이오 大和州의는 十五 |
| (0109b3) | 新舊 일은 업스오리. 代官네-ㅁ | 書簡 | 을 ㅁ 니름은 앓가 遠見으로서 |
| (0203a5) | 누어 잇스오니 민망-ㅎ여이다. | 書契 | 를 보니 島中 無事히시니 아롭 |
| (0312a6) | 나라 글 잘 ㅎ매 朝廷으로서도 | 書契 | 마다 보시고 ㅁ장 기리시고 ㅁ |
| (0116b3) | 닉일 보옵소. 그는 그러커니와 | 書契 | 를 내 친히 보고 자닉-네 姓名 |
| (0117a2) | 釜山浦에 술와 注進홀 거시니 | 書契 | 를 내옵소. 우리 일홈은 아피읍 |
| (0117b1) | 이읍도쇠. 그리 ㅎ여 몬 ㅎ오리. | 書契 | 의 ㅎ 지라도 여근나면 아므의 |
| (0505b4) | 飛脚을 썬 양으로 ㅎ읍새. 수이 | 書契 | 를 내옵소. 어제는 東萊로서 밤 |
| (0116a2) | ㅎ여 인스 몰라 아릭 누어습닉. | 書契 | 를 내셔든 보옵새. 그리 ㅎ오려 |
| (0606a5) | 도 췌습건마는 이 구석의 다락 | 小園 | 을 두엇습더니 게 가서 茶를 지 |
| (0527a6) | 나라 ㅁ잔은 아니온가? 우리도 | 小小 | ㅎ면 ㅁ스 일로 불판-ㅎ 거시 </td |
| (0624a5) | 흔 일이나 이시면 엇덜고 ㅎ니 | 小小 | ㅎ 일이어든 中官 以下란 못히 |
| (0515b6) | 썬시니 이 道理 信使의 엇쥬고 | 小通事 | 의 -게 니르셔 거느려 가게 ㅎ |
| (0123b3) | 사름을 보내올 거시니 자닉도 | 小通事 | 를 몬져 보내여 보고 가옵소. 9 |
| (0802b1) | 이올까 하 민망-ㅎ와 그 雜物에 | 小判 | 金子 百枚를 ㅁ고와 보내오니 |
| (0722b6) | 매 아롭다오미 禮예 너머이다. | 捷解新語 | 第七 終 捷解新語 第八 信使 ㅁ |
| (0832b6) | 朝廷의도 ㅁ셔히 엇즈오렁이다. | 捷解新語 | 第八 終 捷解新語 第九 요스이 |
| (0133b9) | 거의란 말이라. ㄷㄷ단 말이라. | 捷解新語 | 終 捷解新語 第二 東萊 니르심 |
| (0530b6) | 술와 볼 거시니 그리 아르시소. | 捷解新語 | 第五 終 捷解新語 第六 三使 |
| (0219b6) | 썬시니 게 일을 수이 출히옵소. | 捷解新語 | 第二 終 捷解新語 第三 東萊 |
| (0624b6) | 나 자네 맛당-ㅎ 대로 ㅎ읍소. | 捷解新語 | 第六 終 捷解新語 第七 筑前 太 |
| (0329b6) | 이 ㅁ토디 아니케 직간-ㅎ읍소. | 捷解新語 | 第三 終 捷解新語 第四 오늘은 |
| (0430b6) | 일 힘 ㅁ시기는 오로 ㅁ뎛습닉. | 捷解新語 | 第四 終 捷解新語 第五 이는 ㅁ |
| (0901a1) | 즈오렁이다. 捷解新語 第八 終 | 捷解新語 | 第九 요스이는 館中도 徒然히 |
| (0501a1) | 로 ㅁ뎛습닉. 捷解新語 第四 終 | 捷解新語 | 第五 이는 ㅁ슴 ㅁ온고? 信使 |
| (0301a1) | 이 출히옵소. 捷解新語 第二 終 | 捷解新語 | 第三 東萊게서 니르시는 御渡 |
| (0401a1) | 직간-ㅎ읍소. 捷解新語 第三 終 | 捷解新語 | 第四 오늘은 看品에 브터 처음 |
| (0701a1) | 대로 ㅎ읍소. 捷解新語 第六 終 | 捷解新語 | 第七 筑前 太守로서 예-ㅁ지 |
| (0201a1) | ㅁ. ㄷㄷ단 말이라. 捷解新語 終 | 捷解新語 | 第二 東萊 니르심은 건너신 날 |
| (0801a1) | 예 너머이다. 捷解新語 第七 終 | 捷解新語 | 第八 信使 떠나셔 사흘 길 곳에 |
| (0601a1) | 리 아르시소. 捷解新語 第五 終 | 捷解新語 | 第六 三使를 請히여 상접-ㅎ이 |
| (0101a1) | | 捷解新語 | 第一 아쁘가히 이러 오라. 네 |
| (0928b6) | 此二島는 六十六州之外歟 | 捷解新語 | 第九 終 |
| (0709b2) | 信使 ㅁ 吉田에 留홀 제 島主과 | 昭長老 | ㅁ ㅁ오며셔 信使의 술오른 江 |
| (0603b5) | ㅁ오니 어닐 ㅁ 예를 떠나올고? | 上下 | 多人中 오래 묵기도 엇더-ㅎ |
| (0502b2) | ㅁ. 府中도 無事히온가? 올스외. | 上下 | 대되 無事히고 對馬島主 니르 |
| (0817b2) | ㅁ마는 보내눔이다. 니르시드시 | 上下 | 多人中 無事히 예-ㅁ지 브트 |
| (0718b3) | 라.” ㅎ 일 이로소이다. 그러면 | 上下 | 대되 잔채-ㅎ 일로 ㅁ티니 업 |
| (0118b1) | 마르쇼셔. 對馬島셔도 자닉 | 上口 | ㅁ 신 줄 聞及히엇스오니 斟酌 |
| (0313a6) | 읍 ㅁ니이다. 時節이 네과 달라 | 上方 | 의셔 아쁘란 雜說이나 이실가 |
| (0504a4) | 거시니 그리 아옵소. 이리 호른 | 上方 | 의 註進도 ㅎ고 路次 各官의 接 |
| (0924a2) | 飛驒州는 四郡 信濃州는 十郡 | 上野州 | 는 十四郡 下野州는 九郡 奥 |
| (0923a6) | 州는 二十一郡 安房州는 四郡 | 上總州 | 는 十一郡 下總州는 十二郡 |
| (0720b1) | 行닉-의 議論히오니 御進物도 | 城 | 에 오르시는 날 알궂 가져 버려 |
| (0810b3) | 르셔 쥬용히 ㅎ쇼셔. ㅁ 大坂의 | 城 | 도 거르기 장만-ㅎ엇스오니 이 |

| | | | | |
|----------|--------------------|-----|--|--------------------|
| (0721a6) | 니르시는 대로 흥음새. 어제는 | 城 | | 에서 인스당이며 萬事 되답-흥 |
| (0920a6) | 되 싱각-흥는 일 조곰도 업서 | 常常 | | 이를 뒤오출 만흥는 날을 자네 |
| (0315b4) | 長老의 덜의 朝鮮 御牌를 두고 | 常常 | | 節句 日마다 拜禮를 흥는닝이 |
| (0912b3) | 을 어더 저기 말도 흥더니마는 | 常常 | | 쁘디 아니모로 히로 더곰 이라 |
| (0923b2) | 州는 十一 郡 下總州는 十二 郡 | 常陸州 | | 는 十一 郡 東山道의는 近江州 |
| (0815a4) | 술오려 싱각-흥앗든디 우리의 | 情 | | 이 던-흥인 디 이리 祝願흥시 |
| (0607a4) | 도 祝願의 일이라 옛줍닉이다. | 色色 | | 의 慇懃을 꾸미시니 진실로 식 |
| (0617b3) | 알고 信使-씩 솟디 아닌 전의 | 色色 | | 이 스양-흥여도 이 격기-흥는 |
| (0820a6) | 하 흥음실가 問安만 술왓습더니 | 色色 | | 御慇懃히 니르신 양 즈못 奉行 |
| (0709a6) | -흥음건마는 行下를 존닝이다. | 信使 | | 吉田에 留할 제 島主과 昭長 |
| (0830a6) | 픽워 信使 빅에 묻저 저어 나매 | 信使 | | 씩로써 웨여 니르른 아쁘리 멀 |
| (0715a6) | 쇼셔. 關伯으로서 奉行으로써 | 信使 | | 씩 아모 일도 업시 예-씩지 브 |
| (0720b5) | 는 날 알피 가져 버려 쉼 후에 | 信使 | | 가시게 흥면 도홀까 시프다 |
| (0709b3) | 제 島主과 昭長老 뵈오며서 | 信使 | | 씩 술오른 江戸로서 信使의 問 |
| (0709b4) | 며서 信使의 술오른 江戸로서 | 信使 | | 씩 問安의 어룬의 官員 二人이 |
| (0618a1) | 흥는 분-네 니르기는 江戸로서 | 信使 | | 겨실 디도 극진이 흥고 참참이 |
| (0812b2) | 島 宿所에 太守 보오라 와서 | 信使 | | 씩 술오른 어와 어와 三使의 御 |
| (0523a2) | 쇠아기를 조지니 그리 아쁘서 | 信使 | | 씩 솟기란 對馬島主 술오디 信 |
| (0811a5) | 니르오니 이도 일덩 大君의서 | 信使 | | 씩 뵈고 노르실 양으로 敎令이 |
| (0501a5) | 解新語 第五 이는 므슴 빅온고? | 信使 | | 마즈라 온 御使 빅음도쇠. 그러 |
| (0617b3) | 하 그리 니르실 듯 흥 일을 알고 | 信使 | | -씩 솟디 아닌 전의 色色이 스 |
| (0527b5) | 하도 장만-흥여 드리려 흥울고? | 信使 | | 를 모셔 갈 작시면 사름-마다 |
| (0807a2) | 듯 흥거니와 奉行들의 술설도 | 信使 | | 스설의 디디 아니 흥오니 내 싱 |
| (0809a5) | 馬島 사름-들화-게나 주시쇼. | 信使 | | 大坂의 브트시매 對馬島主 술 |
| (0830a4) | 를 내다 흥음닉. 빅을 타 픽워 | 信使 | | 빅에 묻저 저어 나매 信使의로 |
| (0712a1) | 미 도홀까 시프외. 쏘 더 使 | 信使 | | 를 위-흥야 冠帶를 홀 작시면 |
| (0530b3) | 나 닉일은 祝願의 연향이오니 | 信使 | | 씩 對面흥여 쏘도 술와 불 거시 |
| (0718a6) | 우호로서 “모되는 吉日이오니 | 信使 | | 씩 뵈을 양을 친히 가 괴별을 술 |
| (0516b4) | 쇼. 여긔 船頭도 그리 보와시니 | 信使 | | 씩셔도 최촉-흥셔 이제 빅을 |
| (0523a4) | 信使의 솟기란 對馬島主 술오디 | 信使 | | 우다히 디나실 제 이틀 사흘 길 |
| (0712a5) | 를 위-흥야 冠帶를 홀 작시면 | 信使 | | 도 冠帶를 흥셔야 도쑈울 디 디 |
| (0804b5) | 미뎛습닉. 對馬島主 옛즈오른 | 信使 | | 씩셔 니르시디 아닌 전의 奉行 |
| (0801b2) | 셔 부러 사름을 보내야 술오른 | 信使 | | 씩셔 격기에 나른 雜物 두실 적 |
| (0609b6) | 이도 술의 타시로송이다. 드른 | 信使 | | 의 御馳走 오면 心中의는 비- |
| (0705a1) | 외녕이다. 筑前主 분부-흥시른 | 信使 | | 디나실 적의 아쁘려나 디접-흥 |
| (0512b3) | 의 덩-흥앗다 니르음닉. 닉일은 | 信使 | | 빅 트실 吉日이라 니르니 일덩 |
| (0502b6) | 흥고 對馬島主 니르시는 바는 | 信使 | | 건너실 양으로는 드럿거니와 |
| (0805b1) | 니와 奉行들의 스설-흥음끼는 | 信使 | | 씩셔 거스려 니르셔도 다시곰 |
| (0831a4) | 른 출하리 半程이나 모실 씨슬 | 信使 | | 씩셔 구티여 말리는 故로 太守 |
| (0801a3) | 解新語 第七 終 捷解新語 第八 | 信使 | | 떠나셔 사흘 길 곳에 격기 奉行 |
| (0515b5) | 二人-식 톱을 씨시니 이 道理 | 信使 | | 씩 옛줍고 小通事의-게 니르셔 |
| (0924a1) | 農州는 十八 郡 飛驒州는 四 郡 | 信濃州 | | 는 十 郡 上野州는 十四 郡 下野 |
| (0912b6) | 아니모로 히로 더곰 이라-흥니 | 心中 | | 에 솟고져 흥는 일도 잘 솟디 |
| (0902a3) | 뎛습더니 이리 니르시니 우리 | 心中 | | 이 서르 던-흥인가 더욱 아릅 |
| (0717b6) | 완마는 兩國 誠信之道 란디 | 心中 | | 의 친-흥야 아릅다왕이다. 우 |
| (0610a4) | 홀 디 업건마는 섬의 일이란디 | 心中 | | 의 밋디 못 흥여 아프란 귀-흥 |
| (0610a2) | 다. 드른 信使의 御馳走 오면 | 心中 | | 의는 비-홀 디 업건마는 섬의 |
| (0831b6) | 도록 아릅다운 御禮 몸애 나마 | 心底 | | 대로는 퍼디 못 홀송이다. 御渡 |
| (0702b5) | 디 싱각-흥시른고? 右之 道理 | 心得 | | 흥고 使를 여긔 보내쇼. 使를 |
| (0825a1) | 定흥시니 아릅다와 흥농이다. | 振舞 | | 홀 바는 되-도록 스양코져 너 |
| (0623b6) | 되도 모로는 것-들이 못히 느려 | 振舞 | | 적이나 萬事에 보디 슬흔 일이 |
| (0618a4) | 진이 흥고 참참이 못히 請흥여 | 振舞 | | 도 홀 양으로 흥옛는디 빅 우 |
| (0810a4) | 으로 大君의서 닐러 왔다 흥고 | 振舞 | | 홀 양도 잇는가 시브오니 그리 |
| (0909a4) | 내나 늬이나 연고 이실 씨라도 | 振舞 | | 에 어긔날 일은 업소오리. 다만 |
| (0901b1) | 흥오니 우음 바탕으로도 회츠 | 振舞 | | 를 흥고져 흥오니 엇더-흥울고 |
| (0823b3) | 五日이 吉日이오니 모되 하디 | 振舞 | | 를 흥오니 御案內 아피닝이다. |
| (0605a4) | 라닝이다. 今日은 御慇懃흥신 | 振舞 | | 終日 아릅다운 御雜談 듯습고 |
| (0903a3) | 그리 아읍쇼. 어제는 불의예 흥 | 振舞 | | 라 니르시니 고디 드럿습디 |
| (0906b5) | 다. 어제는 하 심심흥매 草草흥 | 振舞 | | 에 各各 중용히 말습 달란-흥 |
| (0822a3) | 예-씩지 아릅다이 건너신 祝願 | 振舞 | | 도 밋디 아니시고 御渡海흥실 |

| | | | |
|----------|---------------------|-----|--------------------|
| (0404a1) | 3년. 在前 브터 代官들의-게도 | 申舍 | 흥여 隨分 念入 흥여 잘 드라 권 |
| (0918b4) | 물 드르면 드러 아든 물 흥여도 | 神妙 | 히 너기옵닌. 이리 부러-호믈 |
| (0315a3) | 스오리. 長老와 島主는 이 나라 | 臣下 | 되엿스오니 프룻 일을 었디 |
| (0719a4) | 니 이런 줄을 숯덩이다. 그러면 | 進物 | 을 來日이라도 출홀 디 보시는 |
| (0622a4) | 늘 니르신 대로 스설-흥여도 | 人 | 도 나쁘니 업시 請코져 흥여 니 |
| (0504a1) | 返事 대로 우리 兩人 中에 | 人 | 이 飛船으로 도라 가올 거시니 |
| (0515a4) | 日本 船頭 7장 니근 사름 十五 | 人 | 을 差定 하야 두어시니 느즉-흥 |
| (0515b1) | 一 船 二 船 三 船-씩지는 三 | 人 | -식 그 나쁜 비에는 二人-식 |
| (0713b5) | 을 거르기 깃비 너기샤 우리 二 | 人 | 을 예-씩지 問安 하시고 이 二三 |
| (0709b5) | 信使의 問安의 어룬의 官員 二 | 人 | 이 三島씩지 와 기도른다 호 |
| (0515b3) | 는 三人-식 그 나쁜 비에는 二 | 人 | -식 틱을 써시니 이 道理 信使 |
| (0917a3) | 스오니 자네-네 7특신 분 五六 | 人 | 만 계시과다 다 원-흥몬 兩國 |
| (0809b3) | 坂 留守 아쁘가히 아쁘가히 兩 | 人 | 씩셔 예셔 四五 日어나 무그셔 |
| (0503a6) | 씩 出船 吉日이고 하야 우리 兩 | 人 | 을 불의예 막켜 건네여 거시니 |
| (0503b5) | 註進 하야 그 返事 대로 우리 兩 | 人 | 中에 一人이 飛船으로 도라 가 |
| (0716a1) | 도 보오련마는 먼 딛 使 1 시니 | 尋常 | 히 못 홀 일이니 吉日을 골히노 |
| (0915a2) | 척라 이리 니르시는 일이다. | 推量 | 흥거니와 붓그림으란 모로는 |
| (0111b4) | 스슴 비 어이 흥여 떠덜습는고? | 水木船 | 이 돛기 사오나와 떠덜습닌. 오 |
| (0116b5) | 書契를 내 친히 보고 자넌-네 | 姓名 | 을 아라 釜山浦에 술와 註進홀 |
| (0205a2) | 늘은 이러트시 딛점-흥시를 가 | 正官 | 씩 니르오면 뵈옵디 몬 호믈 7 |
| (0202a2) | 늘 뼈 아쁘 일도 업시 완넉이다. | 正官 | 을 반가이 보올가 녀겼습더니 |
| (0123b1) | 官 보오라 가오니 다시 보옵새. | 正官 | 씩 나도 사름을 보내올 거시니 |
| (0123a2) | 르시니 감격-흥여 흥옵닌. 이제 | 正官 | 보오라 가오니 다시 보옵새. 正 |
| (0129a3) | 술와 넉일로 덩-흥되 이제야셔 | 正官 | 의 병이라 니르시니 正官이 나 |
| (0327a6) | 시니 깃브외. 東萊 釜山浦로셔 | 正官 | 과 都船내 樣體 1 심상티 아냐 |
| (0128b4) | 일 흥실 양으로 니르옵시던고? | 正官 | 의 氣相도 아디 몬 흥고 送使의 |
| (0115b5) | 올도쇠. 正官은 어딴 거시온고? | 正官 | 은 비-멀미-흥여 인스 몰라 아 |
| (0115a4) | 올 거시니 므옵 편히 녀기옵소. | 正官 | 은 뉘시온고? 나는 都船 이논 |
| (0130b6) | 는 흥거니와 이 양병은 아니오. | 正官 | 氣色이 견디엄즉-흥면 나고져 |
| (0130b1) | 니르시는 배 그러흥옵거니와 | 正官 | 昨晚 브터 병 드럿스오니 자넌 |
| (0115b3) | 이는 二 船 더는 封進이옵도쇠. | 正官 | 은 어딴 거시온고? 正官은 비- |
| (0204a4) | 하넌 깃거 흥옵닌. 그러하외. | 正官 | 은 섬으로써 올 적 브터 東萊 |
| (0217b2) | 씩 니르고 잇습니다. 드르니 | 正官 | 이 도화파 흥니 오를은 보올가 |
| (0129a4) | 야셔 正官의 병이라 니르시니 | 正官 | 이 나디 아니면 우리의 그르문 |
| (0129b2) | 그르문 발명 못 홀 거시니 비록 | 正官 | 이 병 드르실 떠라도 茶禮는 卒 |
| (0127b3) | 노셔. 아옵게 그리 흥오리. 다만 | 正官 | 이 분딛 병 든 사름이옵더니 었 |
| (0403a3) | 옵닌. 여와 오늘은 右之 道理를 | 正官 | 도 분별 두셔 氣味 도케 직간- |
| (0328a3) | 브옵데. 어제는 술을 7장 먹고 | 正根 | 업서 도라 오니 아쁘리 흥 줄도 |
| (0318a6) | 그러흥온 디 7장 취-흥오되 | 正根 | 을 계요 출혀 안갯습는이다. 日 |
| (0903b1) | 御馳走 쏜 아니라 즈뭇 큰 술에 | 正體 | 1 업서 니러섬도 싱각 아니코 |
| (0609b1) | 물로 흥여 齏을 즐겨 어즐-흥여 | 正體 | 업스와 상을 서디 아니코 니러 |
| (0311b3) | 머그라 니르신 잔-마다 먹습고 | 正體 | 업습건마는 이 齏으란 御意 7 |
| (0927a2) | 象州는 十四 郡 土佐州는 七 郡 | 西海道 | 의는 筑前州는 十五 郡 筑後州 |
| (0314a4) | 御大儀 흥 일이옵도쇠. 朝廷도 | 誠信 | 으로 아르시니 아쁘 일에 브터 |
| (0602b4) | 로송이다. 진실로 兩國 靜謐히 | 誠信 | 을 닷가 이러트시 아릅다운 일 |
| (0421a3) | 트시 므옵 대로 흥다 만다 흥면 | 誠信 | 의 회이침으로 녀기거니와 우리 |
| (0402b2) | -네도 아릅실 쏜 아니라 兩國 | 誠信 | 으로 公貿易이라 덩-흥여시면 |
| (0601b1) | 룩 아릅다운 일은 兩國 安泰히 | 誠信之 | 道를 서르 던-흥여 이제 또 三 |
| (0828a5) | 도쇠. 진실로 닐르시드니 兩國 | 誠信之 | 故로 귀-흥 곳을 구경-홀 분 |
| (0717b4) | 도 처음으로 보오완마는 兩國 | 誠信之 | 道 1 란디 心中의 친-흥야 아릅 |
| (0601b5) | 드 三使 1 멀리 渡海 하셔 내-게 | 請 | 흥여 對坐 흥는 일 곰곰 싱각-흥 |
| (0622a5) | 클-흥여도 一人도 나쁘니 업시 | 請 | 코져 흥여 니르오니 그리 아릅 |
| (0618a2) | 딛도 극진이 흥고 참참이 못히 | 請 | 흥여 振舞도 홀 양으로 흥였는 |
| (0601a3) | 第五 終 捷解新語 第六 三使를 | 請 | 흥여 상점-홈이라. 숯-도록 숯 |
| (0407b6) | 歸船 一隻 代官으로서 借船 一 | 隻 | 합흥여 三 隻이옵도쇠. 미리 술 |
| (0407b4) | 歸船 一隻 第一 船 中歸船 一 | 隻 | 代官으로서 借船 一隻 합흥여 |
| (0407b2) | 가 가옵는고? 一特送 中歸船 一 | 隻 | 第一 船 中歸船 一隻 합흥으로 |
| (0408a1) | 官으로서 借船 一隻 합흥여 三 | 隻 | 이옵도쇠. 미리 술와 두옵소. 二 |
| (0408a6) | 옵소. 그는 술오려니와 홈의 三 | 隻 | -도록 었더-흥올고? 자넌-네 |
| (0925b2) | 伯耆州는 六 郡 出雲州는 十 郡 | 石見州 | 는 六 郡 隱岐州는 四 郡 山陽道 |

| | | | |
|----------|---------------------|------|--------------------|
| (0608a1) | 하-하여 스양을 아니 하닝이다. | 接待 | 의 馳走 심상티 아니시니 곳 |
| (0614b6) | ㅁ음 편-홀까 祝願하닝이다. | 接待 | 예 갓기-하느 낭반-돌히 방사 |
| (0617a2) | 라 하 가지오니 자네 잘 아려서 | 接待 | 하느 분-네-의 禮를 술와 주쇼 |
| (0708a3) | 하신 바는 서울 가서 筑前殿의 | 接待 | 하 일과 이 차반 하 줄을 부러 |
| (0504b1) | 方의 註進도 하고 路次 各官의 | 接待 | 의 기결-호믈 위-홈이니 심상 |
| (0828b2) | 곳을 구경-하 분 아니라 이런 | 接待 | 의 만나 海上의 시름도 펴매 더 |
| (0616b3) | 기에 出船도 더될 썬시니 온갖 | 接待 | 예 극진-하심은 비예셔도 밋즈 |
| (0203b5) | 외. 대되 無事하닝이다. 오늘은 | 折節 | 天氣도 도하 조용히 말슴-하니 |
| (0315b4) | 의 節의 朝鮮 御牌를 두고 常常 | 節句 | 日마다 拜禮를 하닝이다. 그 |
| (0133b2) | 하 보옵소. 그리 하오리. 案内는 | 先通之 | 意 서어탄 말이라. 의지 업단 |
| (0108a3) | 니 하건마는 모시기란 하오리. | 先度 | 中歸船 便의 二番 特送이 豊崎 |
| (0314b3) | 에 브터도 심상히 너기다 말고 | 千 | 年이나 가-도록 오래 볼 양으로 |
| (0616a2) | 게로셔도 극진-하 일이옵도쇼. | 船 | 中에도 별히 굿봄도 업고 닻일. |
| (0615a5) | 혀 오르시게 곳-하야 니르오니 | 船 | 中에 굿브심도 계실 썬시니 이 |
| (0515b1) | 定하야 두어시니 느즉-하야 | 船 | 二 船 三 船-각지는 三 人-식 |
| (0407b4) | 고? 一特送 中歸船 一隻 第一 | 船 | 中歸船 一隻 代官으로서 借船 |
| (0515b1) | 시니 느즉-하야 一 船 二 船 三 | 船 | -각지는 三 人-식 그 나쁜 비 |
| (0115b1) | 하 닻시온고? 나눈 都船 이는 二 | 船 | 더는 封進이옵도쇼. 正官은 어 |
| (0515b1) | 하 두어시니 느즉-하야 一 船 二 | 船 | 三 船-각지는 三 人-식 그 나쁜 |
| (0516b2) | 비를 낼 양으로 하옵소. 여긔 | 船頭 | 도 그리 보와시니 信使씨셔도 |
| (0514a3) | 신다 하옵니. 니르시디시 朝鮮 | 船頭 | 들도 來日은 日吉利 이실 듯 하 |
| (0515a2) | 려나 그러과다. 그러하면 日本 | 船頭 | ㅁ장 니근 사름 十五 人을 差定 |
| (0209a6) | 하르시쇼. 솟디 아닐 일이엇마는 | 前規 | 에 잇는 일이니 判事네 잘 드르 |
| (0426a1) | 하木을 端端이 굴회자 니르시미 | 前後 | 의 업슨 일이니 내 죄에 만나쁜 |
| (0528b3) | 시 구옵니. 太守 니르시는 道理 | 前後 | 樣子를 극진히 三使의 연조니 |
| (0420b2) | 오로셔 沙汰之 限도 업슨 때에 | 前例 | 의 업슨 일을 시작-하여 批判 |
| (0307b2) | 오래 셔디 못 하올가 엇줍습니. | 前例 | 는 그러티 아니커니와 今度 안 |
| (0406a4) | 아름답스외. 버거 근심은 公木 | 善惡 | 의 브터 判事네과 싸홀가 너기. |
| (0208a2) | 시 이러티 못 하옵더니 今度는 | 膳數器皿 | 以下 조출하고 과출과 건물 |
| (0503b3) | 하-네 이 뜻을 東萊의 엇즈와 | 早早 | 註進하야 그 返事 대로 우리 兩 |
| (0613b6) | 하 시브다 여긔 사름도 니르오니 | 早早 | 出船하옵새. 마즘 도하 順風에 |
| (0114b6) | 하옵소. 열현이 마르시고 닻일 | 早早 | 츠즈쇼셔. 그리 하올 거시니 |
| (0415a4) | 하시면 내여 가 마라 드리실까? | 早速 | 밋디 못 하면 飛船 즘음에 맞디 |
| (0329a2) | 하라 닻러 두옵소. 그러면 모되 | 早天 | 브터 시작-하 썬시니 아므려나 |
| (0327b2) | 네 樣體 심상티 아냐 奇特하 | 相指 | 를 다 잘 하더라 기리시니 우리 |
| (0213a6) | 하 代官房의셔 談合홀 일들이나 | 相談 | 하면 送使로셔 이러셔는 오라 |
| (0923a3) | 하 伊斐州는 四 郡 伊豆州는 三 郡 | 相模州 | 는 八 郡 武藏州는 二十一 郡 |
| (0906b5) | 하습닝이다. 어제는 하 심심하매 | 草草 | 하 振舞에 各各 조용히 말슴 달 |
| (0120b3) | 하고 닻일 아춤은 東萊 올라 가 | 送使 | 의 樣子를 솟고 올 거시니 조용 |
| (0105a5) | 하 디 ㅁ음의 걸리오니 자네-네 | 送使 | 의 드려 가서 萬事를 주선-하 |
| (0128b6) | 하!? 正官의 氣相도 아디 못 하고 | 送使 | 의 연고 업슨 양으로 술와 닻일 |
| (0428b5) | 하논가 너기시거니와 이 樣子도 | 送使 | 의 츠세히 니르디 아니티 몬 하 |
| (0105a1) | 하 이 니르시니 뜻을 펴거니와 쏘 | 送使 | 다히셔는 엇디 녀길 디 ㅁ음의 |
| (0424a3) | 하 말고 곱곰 생각-하여 보옵소. | 送使 | 는 텁텁-하여 이러티 되기 |
| (0214a3) | 하 는 논호디 못 하여 민망-하외. | 送使 | 를 보셔도 츠레로 보시면 닻 雜 |
| (0427a3) | 하나 돌히셔 되디 못 하 올 거시니 | 送使 | 의 談合하야 아뭇 도로나 도홀 |
| (0107a6) | 하셔도 인스당의 닻븐 디 업스니 | 送使 | 의 對面하면 奇特이 너기든 아 |
| (0213b1) | 하셔 談合홀 일들이나 相談하면 | 送使 | 로셔 이러셔는 오라 더려셔는 |
| (0420a3) | 하 홀 썬 문져 하시논고? 네 브터 | 東 | 을 풀고 굴회여 낸 일이 업슨디 |
| (0422b1) | 하도 ㅁ음알기 어려울 양이오니 | 東 | 의셔 굴회 썬시면 이대-도록 |
| (0421a6) | 하와 우리 생각-홈은 五十 束을 | 東 | 으로 굴회여 반만 자브시면 그 |
| (0414a1) | 하피라도 이 公木은 넷 公木의 | 東 | 도 ㅁ트니 업스믈 자네-네 눈 |
| (0410b2) | 하 보와도 아올쇼. 그 안해도 | 東 | 에 자블 公木이 十 端 남죽이 |
| (0418b2) | 하 겹고 출하리는 이 五十 束을 | 東 | 에 十 端-式 굴회여 내면 十 束 |
| (0418b4) | 하束에 十 端-式 굴회여 내면 | 東 | 을 자블 썬시니 判事네 엇더케 |
| (0406b6) | 하보내려 생각-하오니 公木 五十 | 東 | 만 문져 드려 주옵소. 닻일 東 |
| (0418b1) | 하료리도 업고 출하리는 이 五十 | 東 | 을 一 束에 十 端-式 굴회여 내 |
| (0421a6) | 하기거니와 우리 생각-홈은 五十 | 東 | 을 束으로 굴회여 반만 자브시 |
| (0409b4) | 하옵소. 그리 하오리. 公木 五十 | 東 | 드린스오니 나 가 보와 잡옵소. |
| (0411b2) | 하와 어히 업시 니르십이야. 五十 | 東 | 드린 公木을 다 나쁘라고 엇디 |

| | | | | |
|----------|--------------------|-----|--|--------------------|
| (0416a2) | 만 너기시는 일은 어딴서 五十 | 束 | | 드린 公木을 半分도 아니 잡고 |
| (0323a3) | 오논 대로 호오려니와 公木은 | 束數 | | 잇스오니 쇼인-네 수이 도려 |
| (0129b4) | 官이 병 드르실 띠라도 茶禮는 | 卒度之 | | 間이오니 나셔 과연 견디디 못 |
| (0527a3) | 엇디 혼 편만 생각-호시논고? | 他國 | | 에 불골 사오나오면 그 作法은 |
| (0423b6) | -홀 띠 업스와. 아직 代官들도 | 他國 | | 일이라 생각 말고 꼼꼼 생각-호 |
| (0813a3) | 호르도 惡風을 만나디 아니코 | 多人 | | 中 아므 일도 업시 예-식지 브 |
| (0704a3) | 거니와 고을로셔 두 참이-도록 | 多人 | | 中의 격기 날분 띠 업고 이 밧 |
| (0603b5) | 어니 띄 예를 떠나올고? 上下 | 多人 | | 中 오래 묵기도 엇더-호니 아 |
| (0817b2) | 보내놓이다. 니르시드시 上下 | 多人 | | 中 無事히 예-식지 브트니 아 |
| (0108b5) | 도 잇고 브름도 도히 부러시니 | 多分 | | 빅가 올 거시니 遠見의 무려 보 |
| (0204b3) | -호올고 너기옵더니 도흔 일은 | 多魔 | | 라 니르미 진실로이로소이다. |
| (0807b6) | 글이오니 이러트시 엇줍놓이다. | 太守 | | 니르시는 바는 브딧 밧과다 니 |
| (0832b3) | 줍고 서르 하딧 아롭다왕이다. | 太守 | | 今度 슈고-호신 양은 朝廷의 |
| (0812b1) | 카니-게 맞디오리. 藍島 宿所에 | 太守 | | 보오라 와셔 信使의 술오른 |
| (0526b2) | 나 근심-호옵는이다. 아직 가서 | 太守 | | 니르시는 道理 극진히 엇저와 |
| (0519b4) | 다. 對馬島主의 使 즉시 와셔 | 太守 | | 숯는 바는 보오물 술을 써술 계 |
| (0814b5) | 나-식지 오른 우리 일란 더디고 | 太守 | | 의 果報 센 일인가? 이러로서 |
| (0818a2) | 前히 깃븐 디로송이다. 진실로 | 太守 | | 路次 處處의 슈고-호신 樣子 밧 |
| (0831a5) | 信使의셔 구티여 말리는 故로 | 太守 | | 빅를 저어 나아 서르 장방 |
| (0702b3) | 아쁘려도 밧디 못 홀 일이오니 | 太守 | | 는 엇디 생각-호시논고? 右之 |
| (0705b4) | 이러트시 극진히 行下호시니 | 太守 | | 드르셔도 過分타 호셔 感激히 |
| (0831a2) | 라 가시미 도썩왕이다. 니르니 | 太守 | | 술오른 출하리 半程이나 모실 |
| (0528b1) | 허일이 될가 이러트시 구옵는. | 太守 | | 니르시는 道理 前後 樣子를 극 |
| (0701a2) | 語 第六 終 捷解新語 第七 筑前 | 太守 | | 로셔 예-식지 無事히 오시다 호 |
| (0420b6) | 은 소임의 죄는 관계티 아니나 | 代官 | | 네 이러트시 밧음 대로 혼다 밧 |
| (0404a1) | 는 아디 아니 호옵는. 在前 브터 | 代官 | | 들의 -게도 申訴호여 隨分 念 |
| (0101a4) | 는 第一 아쁘가히 이러 오라. 네 | 代官 | | 의 가 내 말로 “그적과 여과 는 |
| (0102b3) | 니 判事네도 同道호야 오쇼셔. | 代官 | | 들도 혼 고대 잇습는. 아롭답스 |
| (0328b3) | 는 銅 鑑 看品 홀 써시니 몬져 | 代官 | | 네 -의 출히라 닐러 두옵소. 그 |
| (0419a1) | 니 判事네 엇더케 너기시논고? | 代官 | | 들흔 자넌-네 하 다스리시고 호 |
| (0215b3) | 이라도 홀 양으로 호옵소. 나도 | 代官 | | 의 사름을 보내거니와 자넌-네 |
| (0415b4) | 리 시절의 樣子를 스설-호여도 | 代官 | | 네도 아라시건마는 종시 올히 |
| (0422a4) | 이라도 호고져 호건마는 우리도 | 代官 | | 의 구실이면 아쁘려도 古음알 |
| (0216a1) | -네도 나실 제 니르고 가옵소. | 代官 | | 들은 아랏습거니와 다시 니르 |
| (0326a2) | 말라 니르옵소. 그는 判事네과 | 代官 | | 들히 열현이 아니 호오리. 마 |
| (0418a4) | 바다 아쁘려도 홀 테 업스오니 | 代官 | | 들도 가지 가지 생각-호건마는 |
| (0325b6) | 와 又장 吟味호여 드릴 거시니 | 代官 | | 네 -의 하 굴히디 말라 니르옵 |
| (0106b6) | 셔도 자네 처엄 일이신 거시니 | 代官 | | 들히 모시디 아냐는 못 홀 일이 |
| (0109b3) | 니 그는 油斷홀 일은 업스오리. | 代官 | | 네 -의 書簡을 써 니름은 앓가 |
| (0423b5) | 민망을 비-홀 띠 업스와. 아직 | 代官 | | 들도 他國 일이라 생각 말고 곱 |
| (0428b1) | 면 너일란 못조오리. 判事네는 | 代官 | | 의 손에 인는 거슬 오늘 못디 |
| (0407b5) | 一隻 第一 船 中歸船 一隻 | 代官 | | 으로서 借船 一隻 合호여 三隻 |
| (0213a4) | 의 東萊 釜山浦에 가 든너 와셔 | 代官房 | | 의셔 談合홀 일들이나 相談호 |
| (0927b4) | 後州는 十四 郡 日向州는 五 郡 | 大隅州 | | 는 八 郡 薩摩州는 十四 郡 一 |
| (0721b6) | 바늘 대되 일궤를 쉰이 아니라 | 大君 | | 도 거르기 喜悅이 又이 업습고 |
| (0810a2) | 무그셔 쉬여 出船호실 양으로 | 大君 | | 띄셔 닐러 왔다 호고 振舞홀 양 |
| (0802a1) | 두시니 마디 못 호여 두엇더니 | 大君 | | 드르시면 우리 그름이 되올까 |
| (0811a3) | 카 권-호야 니르오니 이도 일당 | 大君 | | 띄셔 信使의 뵈고 노르실 양으 |
| (0510a6) | 업시 불기도 왓스오니 깃브와. | 大慶 | | 의 일이옵도쇠. 今日 빅를 내올 |
| (0614a4) | 도흔 順風에 옛-식지 브트시니 | 大慶 | | 이로송이다. 아직 출형의 이러 |
| (0405b2) | 늘은 생각 밧과 술술이 밧추니 | 大慶 | | 이옵도쇠. 전의는 그러티 아니 |
| (0813b3) | 는 도타 니르오니 아므 일-도곤 | 大慶 | | 이로송이다. 니르시드시 無事 |
| (0810b3) | 그리 아라셔 종용히 호쇼셔. 또 | 大坂 | | 의 城도 거르기 장만-호엿스오 |
| (0809b3) | 의 브트시매 對馬島主 술오른 | 大坂 | | 留守 아쁘가히 아쁘가히 兩 人 |
| (0809a5) | 사름-들회-게나 주시소. 信使 | 大坂 | | 의 브트시매 對馬島主 술오른 |
| (0511a1) | 카 오옵소. 생각 밧과 수이 오니 | 大守 | | 도 일당 깃비 너기시울쇠. 불 |
| (0207a5) | 는 잔이오니 이 一杯만 잡습소. | 大切 | | 의 御意오니 예셔 죽스와도 맥 |
| (0412a2) | 년-호여 木花 사오나와 公木의 | 大切 | | 히 되야시른 자넌-네도 아라 |
| (0922a1) | 는 山城州의 所領이 八 郡이오 | 大和州 | | 의는 十五 郡 河內州의는 十五 |
| (0427b3) | 직 大廳의 드려 두옵소. 전의도 | 大廳 | | 의 두어서 여러 필을 일하시니 |

| | | | |
|----------|--------------------|------|--------------------|
| (0427b1) | 가 도홀 양으로 홀 거시니 아직 | 大廳 | 의 드러 두옵소. 전의도 大廳의 |
| (0211b5) | 을催促하여 수이 드리옵소. 또 | 大廳地衣 | 도 놀가 다 하야-더시니 그도 |
| (0101a1) | 捷解新語 | 第一 | 아므가히 이려 오라. 네 代官의 |
| (0407b4) | 가옵는고? 一特送 中歸船 一隻 | 第一 | 船 中歸船 一隻 代官으로서 借 |
| (0901a1) | 다. 捷解新語 第八 終 捷解新語 | 第九 | 요스이는 館 中도 徒然호오니 終 |
| (0928b6) | 는 六十六 州之 外歟 捷解新語 | 第九 | 終 |
| (0501a1) | 넉. 捷解新語 第四 終 捷解新語 | 第五 | 이는 므슴 빅온고? 信使 마즈리 |
| (0530b6) | 시니 그리 아르시소. 捷解新語 | 第五 | 終 捷解新語 第六 三使를 請호 |
| (0329b6) | 아니케 직간-호옵소. 捷解新語 | 第三 | 終 捷解新語 第四 오늘은 看品 |
| (0301a1) | 소. 捷解新語 第二 終 捷解新語 | 第三 | 東萊계셔 니르시믄 御渡海호션 |
| (0401a1) | 소. 捷解新語 第三 終 捷解新語 | 第四 | 오늘은 看品에 브터 처음으로 |
| (0430b6) | 기느 오로 미덧습넉. 捷解新語 | 第四 | 終 捷解新語 第五 이는 므슴 빅 |
| (0722b6) | 오미 禮에 너머이다. 捷解新語 | 第七 | 終 捷解新語 第八 信使 떠나셔 |
| (0701a1) | 소. 捷解新語 第六 終 捷解新語 | 第七 | 筑前 太守로서 예-식지 無事히 |
| (0219b6) | 일을 수이 출히옵소. 捷解新語 | 第二 | 終 捷解新語 第三 東萊계셔 니 |
| (0201a1) | 말이라. 捷解新語 終 捷解新語 | 第二 | 東萊 니르심은 건너신 날은 마 |
| (0832b6) | 셔히 엇즈오랑이다. 捷解新語 | 第八 | 終 捷解新語 第九 요스이는 館 |
| (0801a1) | 다. 捷解新語 第七 終 捷解新語 | 第八 | 信使 떠나셔 사흘 길 곳에 격기 |
| (0601a1) | 소. 捷解新語 第五 終 捷解新語 | 第六 | 三使를 請호여 상접-홈이라. 終 |
| (0624b6) | 단당-홀 대로 호옵소. 捷解新語 | 第六 | 終 捷解新語 第七 筑前 太守로 |
| (0925a5) | 丹波州는 六 郡 丹後州는 五 郡 | 但馬州 | 는 八 郡 因幡州는 七 郡 伯耆州 |
| (0829a6) | 저 호닝이다. 빅에 토폴라 호야 | 辰時 | 예 判使네날 對馬島主게 보내이 |
| (0925a4) | 郡 山陰道の는 丹波州는 六 郡 | 丹後州 | 는 五 郡 但馬州는 八 郡 因幡州 |
| (0925a3) | 郡 佐渡州는 三 郡 山陰道の는 | 丹波州 | 는 六 郡 丹後州는 五 郡 但馬州 |
| (0926b3) | 郡 南海道の는 紀伊州는 七 郡 | 淡路州 | 는 二 郡 阿波州는 九 郡 讃岐州 |
| (0410b6) | 端 남죽이 드렸고 나므니는 一 | 端 | 도 자블 公木이 업스외. 이런 式 |
| (0418b3) | 리는 이 五十 束을 一 束에 十 | 端 | -式 굴히여 내면 十 束을 자블 |
| (0410b4) | 안해도 一 束에 자블 公木이 十 | 端 | 남죽이 드렸고 나므니는 一 端 |
| (0414b6) | 못디 못 홀 써시니 이 公木을 | 端端 | 이 굴힐까? 그를 마다 곳 너기 |
| (0425b6) | 카토 부디티 몬 홀 일은 公木을 | 端端 | 이 굴히자 니르시미 前後의 업 |
| (0213a6) | 浦에 가 돈너 와서 代官房의셔 | 談合 | 홀 일들이나 相談하면 送使로 |
| (0427a3) | 히셔 되디 못 홀 거시니 送使의 | 談合 | 호여 아뭇 도로나 도홀 양으로 |
| (0702a3) | 이다. 호면 그러호온가? 筑前殿 | 地界 | 두 참이-도록 거르기 격기-호 |
| (0608a1) | 스양을 아니 호닝이다. 接待의 | 馳走 | 심상티 아니시니 又뵈도 계 |
| (0927a4) | 西海道の는 筑前州는 十五 郡 | 筑後州 | 는 十 郡 豊前州는 八 郡 豊後州 |
| (0701a2) | 捷解新語 第六 終 捷解新語 第七 | 筑前 | 太守로서 예-식지 無事히 오시 |
| (0704b6) | 시소. 것습거니와 알외닝이다. | 筑前主 | 분부-호시믄 信使 디나실 적의 |
| (0927a3) | 郡 土佐州는 七 郡 西海道の는 | 筑前州 | 는 十五 郡 筑後州는 十 郡 豊前 |
| (0702a3) | 케 슴닝이다. 호면 그러호온가? | 筑前殿 | 地界 두 참이-도록 거르기 격기 |
| (0708a1) | 네 극진-호신 바는 서울 가서 | 筑前殿 | 썩 接待호 일과 이 차반 호 줄 |
| (0707a5) | 다. 자네 스설-호는 배 난난치 | 筑前殿 | 의 그지 업스신 道理로소이다. |
| (0606a6) | 락 小園을 두엇습더니 게 가서 | 茶 | 를 자옵시고 호 배 수여 가옵시 |
| (0217a2) | 가 므슴의 걸리옵넉. 싱심이나 | 茶禮 | 스 날 종용히 뵈옵고 니즌 스이 |
| (0129b4) | 비록 正官이 병 드르실 떠라도 | 茶禮 | 는 卒度之 間이오니 나셔 과연 |
| (0126a5) | 해 보내옵소. 글란 그리 호오리. | 茶禮 | 는 어넉 뵈 호올고? 수이 홀 양 |
| (0127a2) | 二三日 內에 홀 양으로 호오리. | 茶禮 | 는 明日 호오니 미리 출혀 거시 |
| (0503b5) | 호야 그 返事 대로 우리 兩人 | 中 | 에 一人이 飛船으로 도라 가올 |
| (0623b4) | 호셔. 이리 슴는 밧기 일덩 下人 | 中 | 東西도 모로는 것-들이 못히 |
| (0704a3) | 가 고을로셔 두 참이-도록 多人 | 中 | 의 격기 남분 되 업고 이 밧기는 |
| (0813a3) | 도 惡風을 만나디 아니코 多人 | 中 | 아므 일도 업시 예-식지 브트 |
| (0603b5) | 뵈 예를 떠나올고? 上下 多人 | 中 | 오래 묵기도 었더-호니 아므려 |
| (0817b2) | 농이다. 니르시드시 上下 多人 | 中 | 無事히 예-식지 브트니 아릅다 |
| (0615a5) | 오르시게 곳-호야 니르오니 船 | 中 | 에 곳브심도 계실 써시니 이제 |
| (0616a2) | 리셔도 극진-호 일이옵도쇠. 船 | 中 | 에도 별히 又뵈도 업고 넉일도 |
| (0303b1) | 도리-호옵소. 니젓따소이다. 病 | 中 | 의 귀-호 약을 만히 주시매 덕 |
| (0622a1) | 조촉시미 웃듬이오닝이다. 또 | 中官 | 以下 올리디 말 일을 니르신 대 |
| (0620b3) | 넉일 出船의 뒤버르릴 작시면 | 中官 | 以下란 올리디 말이 었더-호올 |
| (0624a5) | 엇덜고 호니 小小 일이어든 | 中官 | 以下란 못히 올리기를 말고져 |
| (0407b4) | ? 一特送 中歸船 一隻 第一 船 | 中歸船 | 一隻 代官으로서 借船 一隻 |
| (0407b2) | 뵈 몇 척이나 가옵는고? 一特送 | 中歸船 | 一隻 第一 船 中歸船 一隻 |

| | | | |
|----------|---------------------|-----|--------------------|
| (0108a3) | 건마는 모시기란 호오리. 先度 | 中歸船 | 便의 二 番 特送이 豊崎서 日吉 |
| (0120a6) | 갓줍새. 내 이제 釜山浦의 술와 | 注進 | 호고 닉일 아춤은 東萊 올라 가 |
| (0117a1) | 네 姓名을 아라 釜山浦에 술와 | 注進 | 홀 거시니 書契를 내옵소. 우리 |
| (0409a4) | 를 드려 주옵소. 그리 호옵소. | 註進 | 홀 거시니 빅 갈 때에 아므 비리 |
| (0507b6) | “옵소.” 호시는 일이옵데. 어와 | 註進 | 을 극진이 호시다 니르시니 安 |
| (0504a4) | 그리 아옵소. 이리 호몬 上方의 | 註進 | 도 호고 路次 各官의 接待의 기 |
| (0506b1) | 쇠. 자넌-네 口上 道理 즈셔히 | 註進 | 하여시니 쉽사리 返事 올 썸 |
| (0503b3) | 케 이 뜻을 東萊의 옛자와 부루 | 註進 | 하여 그 返事 대로 우리 兩人 |
| (0211b1) | 이러티 아니케 니르옵소. 圓座 | 帳枕 | 以下 物을 催促하여 수이 드리 |
| (0523b1) | 셔도 구경-홀 사름-들 모다셔 | 朝鮮 | 풍속은 아디 못 호고 압히 브리 |
| (0904b1) | 국도 회례를 호오려 싱각거니와 | 朝鮮 | 料理면 자네-네 뜻에 드디 아 |
| (0529a2) | 호심 滿足하여이다. 그러커니와 | 朝鮮 | 作法은 굿긋티 그리 몬 호염주 |
| (0315b2) | 잇가? 그러호므로 長老의 덜의 | 朝鮮 | 御牌를 두고 常常 節句 日마다 |
| (0824a3) | 하여 늘근 어미를 더브렀습더니 | 朝鮮 | 풍뉴를 브름 틈으로 듯고져 브 |
| (0513a2) | 일덩 順風이 이실 듯 호다 호니 | 朝鮮 | 사름-들호 브어시라 니르옵는 |
| (0514a3) | 려 호신다 호옵넌. 니르시디시 | 朝鮮 | 船頭들도 來日은 日吉利 이실 |
| (0525b4) | 가 엇디 얼현히 호링잇가? 다만 | 朝鮮 | 풍속의는 사름의 볼골도 저티고 |
| (0908b2) | 호히 스양-홀 듯 호 일어난마는 | 朝鮮 | 썸과 고물저은 안주의 珍味를 |
| (0522a6) | 링잇가? ㅁ장 쉬은 일어난마는 | 朝鮮 | 家風이 폐롭디 아닌 일을 폐로 |
| (0312a4) | 잘 홀 썸 아니라 글 잘 호매 | 朝廷 | 으로서도 書契마다 보시고 ㅁ장 |
| (0316a4) | ㅁ 보고 사름-마다 니름을 듯고 | 朝廷 | 도 ㅁ장 일ㅋ르시느니이다. 술- |
| (0314a4) | 르느리기 御大儀호 일이옵도쇠. | 朝廷 | 도 誠信으로 아르시니 아므 일 |
| (0832b3) | ㅁ. 太守 今度 슈고-호신 양은 | 朝廷 | 의도 즈셔히 옛즈오링이다. 捷 |
| (0507a2) | 한당히 수이 몸이 本意 언마는 | 朝廷 | 으로서 返事 온 후에 보와야 禮 |
| (0926a6) | 安藝州는 八 郡 周防州는 六 郡 | 長門州 | 는 六 郡 南海道の는 紀伊州는 |
| (0312a1) | 란 御意 ㅁ티 다 먹소오리이다. | 長老 | 는 樣體 사름의 넘고 술도 잘 |
| (0315b2) | 얼현이 호리잇가? 그러호므로 | 長老 | 의 덜의 朝鮮 御牌를 두고 常常 |
| (0312b4) | 鳥主도 나호 저므셔도 萬事 | 長老 | 의 떠디디 아녀 奇特호 직간이 |
| (0315a1) | 양으로 호세야 아롬답스오리. | 長老 | 와 鳥主는 이 나라 臣下 되엇 |
| (0908b3) | 는 朝鮮 썸과 고물저은 안주의 | 珍味 | 를 싱각-호매 인스당도 아므 ㅁ |
| (0119b4) | 기 아라 듯즈올쏜가? ㅁ장 참히 | 通 | 호옵시넌. 술란 호마 마옵소. 호 |
| (0119a2) | 말이 對馬島셔 聞及호드시 잘 | 通 | 하시니 아롬답스쇠. 내 말을 기 |
| (0132a4) | 도 헤아려 보시소. 客人이 와야 | 亭主 | 보디 아니 호옵는가? 그러커 |
| (0907a4) | 니 亭主의 깃뵤이 노외야 업서 | 亭主 | 의 도리의 술을 디내 먹고 아므 |
| (0907a2) | 各各 조용히 말슴 달란-호시니 | 亭主 | 의 깃뵤이 노외야 업서 亭主의 |
| (0823a1) | 키오니 아므리커나 出船 日란 | 亭主 | 의 -게 맞디시고 아직 아직 중- |
| (0807a4) | 의 디디 아니 호오니 내 싱각은 | 亭主 | 호는 대로 호시미 豆홀가도 너 |
| (0604a5) | 실 吉日은 郡郡에 기별을 듯고 | 定 | 홀 썸시오니 얼현티 아니 호오 |
| (0824b4) | 게 맞줍닝이다. 어와 出船 日을 | 定 | 호시니 아롬다와 호농이다. 振 |
| (0414b3) | 르심과 우리 싱각과 그 어기미 | 天地 | 굿거니와 이리 홀 썸으로는 못 |
| (0512b6) | 이라 니르니 일덩 그러호온가? | 天氣 | 樣子 일덩 順風이 이실 듯 호 |
| (0616a2) | 에도 별히 깃뵤도 업고 닉일도 | 天氣 | 죠홀까 시브다 호니 새베 出船 |
| (0519a5) | 즈심 滿足호양이다. 니르시디시 | 天氣 | 도 머호디 아냐 예-썸지 오오 |
| (0612b4) | 음아디 못 호을 썸시니 그 날은 | 天氣 | 예도 붓디 아녀 出船호실 거시 |
| (0513b1) | 즈음이옵도쇠. 올스쇠. 닉일은 | 天氣 | 예는 붓뵤디 아냐 吉日의 위-호 |
| (0613b4) | 호쇼셔. 기별-호심 ㅁ티 닉일은 | 天氣 | 豆홀가 시브다 여기 사름도 니 |
| (0517a3) | 對馬島主의로서 술오몬 豆호 | 天氣 | 예 예-썸지 브트시니 아롬다와 |
| (0502a4) | 는. 어와 어와 아롬답스쇠. 豆호 | 天氣 | 예 御仕合이옵도쇠. 府中도 無 |
| (0518b3) | 로 왓습넌. 마즘 년-호여 豆호 | 天氣 | 예 예-썸지 건너지니 아므 일- |
| (0826a4) | 다 더브러 가오리. 오늘은 마즘 | 天氣 | 豆하 진실로 遠路에 나라 일을 |
| (0203b5) | 되 無事호닝이다. 오늘은 折節 | 天氣 | 도 豆하 조용히 말슴-호니 깃 |
| (0901a4) | 徒然新語 第九 요스이는 館中도 | 徒然 | 호오니 우음 바탕으로도 회츠 |
| (0601b3) | 渡海-호여 이제 쏘 三使 멀리 | 渡海 | 호셔 내-게 請호여 對坐호는 일 |
| (0201b1) | 즘 사오나온 브람의 다 無事히 | 渡海 | 하시니 아롬답다 니르시옵넌. |
| (0327a6) | 브외. 東萊 釜山浦로셔 正官과 | 都船 | 네 樣體 심샹티 아냐 奇特 |
| (0115b1) | 기옵소. 正官은 뉘시온고? 나는 | 都船 | 이는 二 船 더는 封進이옵도쇠. |
| (0304b3) | 적게 보내고 뜻에 걸려 호옵넌. | 都船主 | 도 요스이 豆히 거시던가? 전의 |
| (0927a1) | 州는 十一 郡 伊豫州는 十四 郡 | 土佐州 | 는 七 郡 西海道의는 筑前州는 |
| (0928a3) | 二 郡 對馬島는 二 郡 此 二 | 島 | 는 六十六 州之 外歟 捷解新語 |
| (0320a5) | 오래 묵디 말고 수이 도라 오라 | 島主 | ㅁ장 분부-호엿소오니 아므 |

| | | | | |
|----------|--------------------|-----|--|--------------------|
| (0709b2) | 닝이다. 信使 吉田에 留홀 제 | 島主 | | 과 昭長老 뵈오며셔 信使의 |
| (0622b6) | 누-홀 곳으란 스양 아니 흥셔도 | 島主 | | 아라셔 案内 술오랑이다. 니 |
| (0312b2) | 마다 보시고 ㅁ장 기리시고 쏘 | 島主 | | 도 나홀 저므셔도 萬事 長老 |
| (0315a1) | . 흥세야 아릅답스오리. 長老와 | 島主 | | 는 이 나라 臣下 되엿스오니 |
| (0313a4) | 롭다와 흥닝이다. 올스와이다. | 島中 | | 의셔도 그리 니르옵느니라. |
| (0203a6) | ㅁ 민망-흥여이다. 書契를 보니 | 島中 | | 無事하시니 아롭다와 흥옵느. |
| (0315b6) | 拜禮를 흥느닝이다. 그리 홈을 | 島中 | | 왕닝에 보고 사름-마다 니름을 |
| (0922a6) | 州의는 三郡 攝津州는 十三郡 | 東海道 | | 는 伊賀州는 四郡 伊勢州는 十 |
| (0923b3) | 州는 十二郡 常陸州는 十一郡 | 東山道 | | 의는 近江州는 十三郡 美濃州 |
| (0623b4) | . 이리 읍는 밧기 일덩 下人 中 | 東西 | | 도 모로는 것-들이 못히 느려 |
| (0204a6) | ㅁ. 正官은 섬으로서 올 적 브터 | 東萊 | | 극진-흥시를 듯줍고 언제 건너 |
| (0508b1) | 꺼시니 니르옵소. 듯줍새. 어제 | 東萊 | | 니르시기는 ㅁ장 세춘 사름 둘 |
| (0124b6) | ㅁ 묻져 드려 주옵소. 글란 이제 | 東萊 | | 술와 보내야 드릴 양으로 흥오 |
| (0412a6) | ㅁ림 겨시리. ㅁ못 各官으로서 | 東萊 | | 時分도 헤아리디 아니코 公 |
| (0114a6) | ㅁ 묻 흥니 흥혀 아모 디 브터도 | 東萊 | | 釜山浦에 술와 方方 彼此的 ㅁ |
| (0212a3) | 양으로 흥옵소. 니르시는 대로 | 東萊 | | ㅁ 엿즈와 催促흥여 보내오리. |
| (0424a6) | 시 되기 어려워 폐로이 굴모로 | 東萊 | | ㅁ 百姓도 건디디 못 홀 일은 ㅁ |
| (0505b1) | 니 대테로이 아니 흥실 양으로 | 東萊 | | ㅁ 엿즈와 飛脚을 쉼 양으로 흥 |
| (0126b2) | ㅁ올고? 수이 홀 양으로 흥옵소. | 東萊 | | 가 요스이 편티 아냐 흥시더니 |
| (0132b6) | 흥옵소. 힘 빼 술와 보오려니와 | 東萊 | | 釜山浦 오셔도 거르기 섭섭이 |
| (0131a4) | 디엄죽-흥면 나고져 녀기오되 | 東萊 | | 드르셔도 양병이라는 녀기디 ㅁ |
| (0327a4) | 無事히 연향을 흥시니 깃브외. | 東萊 | | 釜山浦로셔 正官과 都船네 樣體 |
| (0506a3) | ㅁ게야 도라 와 보옵도 못 흥외. | 東萊 | | 니르시든 “슈고로이 건너 오시 |
| (0213a3) | 르든 아니 흥거니와 더룬 날의 | 東萊 | | 釜山浦에 가 둔너 와서 代官房 |
| (0121b4) | 니르셔도 열현이 아니 흥오리. | 東萊 | | 로셔 앓가 도라 왔습니. 東萊겨 |
| (0125b5) | 기 어들 일은 아니오니 내 친히 | 東萊 | | 가 극진이 술오려니와 자넬도 |
| (0121b6) | ㅁ. 東萊로셔 앓가 도라 왔습니. | 東萊 | | 겨셔도 “어제는 일기 사오나온 |
| (0120b1) | 의 술와 注進흥고 닉일 아춤은 | 東萊 | | 올라 가 送使의 樣子를 읍고 올 |
| (0505b5) | ㅁ. 수이 書契를 내옵소. 어제는 | 東萊 | | 로셔 밤 들게야 도라 와 보옵도 |
| (0503b2) | ㅁ네여 겨시니 자넬-네 이 ㅁ을 | 東萊 | | ㅁ 엿즈와 ㅁㅁ 註進흥야 그 返 |
| (0407a2) | ㅁ 東만 묻져 드려 주옵소. 닉일 | 東萊 | | 올라 가 모되-쓰음 드리려니와 |
| (0132b1) | 커니와 게셔 힘 빼 이런 道理를 | 東萊 | | ㅁ 엿즈와 닉일 브디 홀 양으로 |
| (0301a2) | 解新語 第二 終 捷解新語 第三 | 東萊 | | 게셔 니르시든 御渡海흥선 디 |
| (0201a2) | 라. 捷解新語 終 捷解新語 第二 | 東萊 | | 니르심은 건너신 날은 ㅁㅁ 사. |
| (0405a1) | ㅁ다. 나라 일을 힘 쓰기는 대되 | 同前 | | 이오니 우리도 公木을 굴히여 |
| (0817b6) | -ㅁ지 브트니 아롭다오미 서르 | 同前 | | 히 깃븐 디로송이다. 진실로 太 |
| (0102b1) | 도쇠. 안히 잇스오니 判事네도 | 同道 | | 흥야 오쇼셔. 代官들도 흥 고대 |
| (0717b4) | 으로 보오완마는 兩國 誠信之 | 道 | | 란디 心中의 친-흥야 아롭다 |
| (0601b1) | 다운 일은 兩國 安泰히 誠信之 | 道 | | 를 서르 던-흥여 이제 쏘 三使 |
| (0515b5) | 예는 二人-ㅁ식 틈을 꺼시니 이 | 道理 | | 信使의 엿줍고 小通事의-게 니 |
| (0808a2) | ㅁ 니르시거니와 문제 브터 읍던 | 道理 | | 를 잘 싱각-흥여 보시소. 江戶 |
| (0132b1) | ㅁ? 그러커니와 게셔 힘 빼 이런 | 道理 | | 를 東萊의 엿즈와 닉일 브디 홀 |
| (0707a5) | 날날치 筑前殿의 그지 업스신 | 道理 | | 로소이다. 묻져 읍드시 스양-흥 |
| (0528b1) | 러트시 구옵니. 太守 니르시는 | 道理 | | 前後 樣子를 극진히 三使의 연 |
| (0526b2) | 이다. 아직 가셔 太守 니르시는 | 道理 | | 극진히 엿즈와 보오리. 자넬-너 |
| (0617a4) | ㅁ禮를 술와 주쇼셔. 니르시는 | 道理 | | 맛당은 흥옵거니와 그리 니르옵 |
| (0525a4) | ㅁ 업게 지간-흥시소. 니르시는 | 道理 | | ㅁ 맛당-흥 일이옵도쇠. 나도 |
| (0506a6) | 건너 오시도쇠. 자넬-네 口上 | 道理 | | ㅁ ㅁㅁ 註進흥여시니 쉽사리 ㅁ |
| (0403a2) | 히 녀기옵니. 어와 오늘날은 右之 | 道理 | | 를 正官도 분별 두셔 氣味 도케 |
| (0702b4) | ㅁ는 엿디 싱각-흥시느고? 右之 | 道理 | | 心得흥고 使를 여긔 보내소. 使 |
| (0921b4) | ㅁ 멀리 싱각디 마소. 日本 八箇 | 道内 | | 六十六 州를 分흥다. 아직 五箇 |
| (0328b2) | 그러커니와 二三 日 디나거든 | 銅 | | 鑑 看品 홀 꺼시니 묻져 代官네 |
| (0322a2) | 란 그리 흥려니와 당시 公貿易 | 銅 | | 鑑 看品도 못 흥엿고 封進 雜物 |
| (0108a4) | 흥오리. 先度 中歸船 便의 二番 | 特送 | | 이 豐崎셔 日吉利를 기드리더 |
| (0110a2) | ㅁ本 ㅁㅁ 뵈다 니르니 일덩 二番 | 特送 | | 이 오는가 시브니 자넬-네도 ㅁ |
| (0214a6) | ㅁ ㅁ 雜言흥올고? 우리는 一 番 | 特送 | | 이오니 묻져 보심이 올터 아니 |
| (0110b2) | ㅁ는 ㅁ슴 빈고? 當年條 二 番 | 特送 | | 이옵도쇠. 어와 어와 거르기 ㅁ |
| (0513b5) | ㅁ듯디 아냐 吉日의 위-홈이니 | 寅時 | | 예 ㅁ에 ㅁ셔 勘蠻夷-ㅁ지 가 |
| (0926b1) | ㅁ防州는 六郡 長門州는 六郡 | 南海道 | | 의는 紀伊州는 七郡 淡路州는 |
| (0509a5) | 니와 쏘 셔울셔 返事 출히기에 | 二 | | 日 三 日이나 흥면 더디여도 十 |

| | | | |
|----------|--------------------|------|---------------------|
| (0108a4) | 기란 ㅎ오리. 先度 中歸船 便의 | 二 | 番 特送이 豊崎서 日吉利를 기 |
| (0713b5) | 별을 거르기 깃비 너기샤 우리 | 二 | 人을 예-삭지 問安ㅎ시고 이 二 |
| (0515b3) | 지는 三 人-식 그 나쁜 ㅅ예는 | 二 | 人-식 ㅅ을 ㅅ지니 이 道理 信 |
| (0115b1) | ㅎ은 ㅅ시온고? 나쁜 都船 이쁜 | 二 | 船 ㅅ는 封進이옴도쇠. 正官은 |
| (0922b2) | 郡 伊勢州는 十五 郡 志摩州는 | 二 | 郡 尾張州는 八 郡 三河州는 八 |
| (0926b3) | 의는 紀伊州는 七 郡 淡路州는 | 二 | 郡 阿波州는 九 郡 讃岐州는 十 |
| (0927b6) | 郡 薩摩州는 十四 郡 一岐島는 | 二 | 郡 對馬島는 二 郡 此 二 島는 |
| (0928a1) | 四 郡 一岐島는 二 郡 對馬島는 | 二 | 郡 此 二 島는 六十六 州之 外與 |
| (0110a2) | 카히 日本 ㅅ ㅅ다 니르니 일뎡 | 二 | 番 特送이 오는가 시브니 자네 |
| (0709b5) | 서 信使의 問安의 ㅅ의 官員 | 二 | 人이 三島ㅅ지 와 기도르다 ㅎ |
| (0928a3) | 島는 二 郡 對馬島는 二 郡 此 | 二 | 島는 六十六 州之 外歟 捷解新 |
| (0515b1) | ㅎ야 두어시니 ㄴ즈-ㅎ야 一 船 | 二 | 船 三 船-ㅅ지는 三 人-식 그 一 |
| (0426a6) | 카니커니와 ㅅ의 ㅎ 시 一 年 | 二 | 年은 아니오 엇디 부디-ㅎ가 ㄴ |
| (0110b2) | 소. 이 ㅅ는 ㅅ슴 ㅅ고? 當年條 | 二 | 番 特送이옴도쇠. ㅅ와 ㅅ와 거 |
| (0821b5) | ㅅ과 ㅅ도 고티노라 ㅎ면 이도 | 二三 | 日은 ㅎ을 ㅅ시오 ㅅ는 ㅅ리 ㅅ |
| (0821a5) | ㅅ ㅅ디 ㅅ ㅎ 일이로송이다. ㅅ | 二三 | 日 內 出船이라 니르시니 그리 |
| (0328a6) | 도 모로올쇠. 그는 그러커니와 | 二三 | 日 디나거든 銅 鑑 看品 ㅎ ㅅ지 |
| (0126b6) | 냐 ㅎ시더니 잠깐 ㅎ려 ㅅ지니 | 二三 | 日 內에 ㅎ 양으로 ㅎ오리. 茶禮 |
| (0714a1) | 二 人을 예-삭지 問安ㅎ시고 이 | 二三 | 日 안히는 江戶에 브트실 ㅅ지 |
| (0819b4) | ㅅ 온 우회는 나쁜 일도 업서 이 | 二三 | 日 內에 出船ㅎ을 ㅅ지니 그리 |
| (0324a6) | 니 五 日 雜物은 자넹-네 十 日 | 二十 | 日 무거 도라 가셔도 約條의 ㅅ |
| (0923a4) | 三 郡 相模州는 八 郡 武蔵州는 | 二十一 | 郡 安房州는 四 郡 上總州는 十 |
| (0512a2) | 아프 ㄴ ㅅ ㅅ ㅅ 브트셔 목기는 | 二十四五 | 日만 ㅎ셔 出船 吉日은 來月 十 |
| (0309a1) | ㅣ잇가? 엇디 ㅎ 디 日本 ㅅ름은 | 肉食 | ㅅ ㅅ 거술 먹디 아니 ㅎ오니 그 |
| (0509a2) | 닐러 ㅅ지니 그러ㅎ면 往來 九 | 日 | 十日이나 되려니와 ㅅ ㅅ을셔 |
| (0315b4) | 의 朝鮮 御牌를 두고 常常 節句 | 日 | ㅅ다 拜禮를 ㅎ느닝이다. 그리 |
| (0424b2) | ㅅ 百姓도 ㅅ디디 ㅅ ㅎ 일은 五 | 日 | 雜物 드리기예 ㅅ나히는 지고 |
| (0323a6) | 쇼인-네 수이 도라 가오면 五 | 日 | 雜物은 ㅅ는 ㅅ이만 주실 ㅅ지. |
| (0324a4) | -ㅎ 후는 고티디 아니 ㅎ니 五 | 日 | 雜物은 자넹-네 十 日 二十 日 |
| (0809b5) | 아프카히 兩 人의셔 예셔 四五 | 日 | ㅅ나 무그셔 ㅅ여 出船ㅎ실 양 |
| (0512a2) | ㅅ ㅅ 브트셔 목기는 二十四五 | 日 | 만 ㅎ셔 出船 吉日은 來月 十二 |
| (0823a6) | 도송이다. 御出船 日은 今 十五 | 日 | 이 吉日이오니 모되 하디 振舞 |
| (0611a3) | ㅅ왕이다. 爰元 出船 이 ㅅ 十五 | 日 | 이라 ㅎ니 일뎡 그러ㅎ온가? 二 |
| (0509a5) | ㅅ을셔 返事 출히기에 二 日 三 | 日 | 이나 ㅎ면 더디여도 十二三 日 |
| (0821b5) | ㅅ도 고티노라 ㅎ면 이도 二三 | 日 | 은 ㅎ을 ㅅ시오 ㅅ는 ㅅ리 ㅅ셔 |
| (0328a6) | 로올쇠. 그는 그러커니와 二三 | 日 | 디나거든 銅 鑑 看品 ㅎ ㅅ지니 |
| (0714a1) | 을 예-삭지 問安ㅎ시고 이 二三 | 日 | 안히는 江戶에 브트실 ㅅ지니 |
| (0821a5) | ㅅ ㅅ ㅎ 일이로송이다. ㅅ 二三 | 日 | 內 出船이라 니르시니 그리 ㅅ |
| (0126b6) | 시더니 잠깐 ㅎ려 ㅅ지니 二三 | 日 | 內에 ㅎ 양으로 ㅎ오리. 茶禮는 |
| (0819b4) | 우회는 나쁜 일도 업서 이 二三 | 日 | 內에 出船ㅎ을 ㅅ지니 그리 아 |
| (0509b1) | 日이나 ㅎ면 더디여도 十二三 | 日 | 만 의는 ㅅ가 다 ㅎ아리옴데. 그 |
| (0512a5) | ㅎ셔 出船 吉日은 來月 十二三 | 日 | 의 ㅅ-ㅎ얏다 니르옴네. ㅅ일 ㅅ |
| (0509a2) | ㅅ지니 그러ㅎ면 往來 九 日 十 | 日 | 이나 되려니와 ㅅ ㅅ을셔 返事 |
| (0324a6) | ㅎ니 五 日 雜物은 자넹-네 十 | 日 | 二十 日 무거 도라 가셔도 約條 |
| (0324a6) | 日 雜物은 자넹-네 十 日 二十 | 日 | 日 무거 도라 가셔도 約條의 ㅅ-ㅎ |
| (0823a1) | ㅅ가 너기오니 아프리커나 出船 | 日 | 란 亭主의-게 맞디시고 아직 ㅅ |
| (0824b4) | 르시게 ㅅ줍닝이다. ㅅ와 出船 | 日 | 을 定ㅎ시니 아릅다와 ㅎ흥이다 |
| (0823a6) | ㅅ미 本望이옴도송이다. 御出船 | 日 | 은 今 十五 日이 吉日이오니 모 |
| (0509a5) | 와 ㅅ ㅅ을셔 返事 출히기에 二 | 日 | 三 日이나 ㅎ면 더디여도 十二 |
| (0520b6) | 히 ㅅ오니 ㅅ심 마르시고 一二 | 日 | 이나 디나 ㅅ용커든 보옴새이다 |
| (0211a3) | 제라도 드리라 ㅎ옴새. 우리도 | 日記 | 를 보고 ㅅ스오니 이 후란 이려 |
| (0108a6) | 歸船 便의 二 番 特送이 豊崎서 | 日吉利 | 를 기도리더라 ㅅ러 와시니 오 |
| (0514b4) | 다 祝願ㅎ옴네. 그러면 게셔도 | 日吉利 | 이실 듯 ㅎ다 니르옴노쇠. 아프 |
| (0514a5) | ㅅ시드셔 朝鮮 船頭들도 來日은 | 日吉利 | 이실 듯 ㅎ다 니르니 그러면 出 |
| (0927b3) | ㅅ는 十一 郡 肥後州는 十四 郡 | 日向州 | 는 五 郡 大隅州는 八 郡 薩摩州 |
| (0318b3) | 根을 게요 출려 안갓습네이다. | 日本 | 도 ㅎ을 자시다가 이 ㅅ의 ㅅ |
| (0921a4) | 르기 ㅅ소는 일이옴도쇠. 자네 | 日本 | 말 ㅅ화 시작-ㅎ미 게요 五六 |
| (0918b1) | ㅅ호로 ㅅ는 듯 ㅎ여 자네-네 | 日本 | 말 ㅎ시믈 드르면 드러 아든 ㅅ |
| (0917b5) | 니르시니 감격-ㅎ영이다. 나도 | 日本 | 말을 ㅅ름-ㅅ다 니기기 ㅅ오니 |
| (0919b6) | ㅣ괴롱-ㅎ시느고? ㅅ실로 나도 | 日本 | 말을 니겨 시작-ㅎ여 이제 ㅅ |

| | | | |
|----------|--------------------|-----|---------------------|
| (0525a6) | 一一 맛당-흔 일이읍도쇠. 나도 | 日本 | 풍속을 아오니 이대-도록 세치 |
| (0904a4) | 카 우은 거시라 너기셔냐? 이도 | 日本 | 놀래에 흑흔 일리로송이다. 우 |
| (0914b2) | 스당 헉시는 말 거동이 진실로 | 日本 | 티오니 다곰다곰 괴특다코 일 |
| (0921b4) | -도록 막음 멀리 생각디 마소. | 日本 | 八箇道内 六十六州를 분히다 |
| (0308b5) | 豊예 삼스오리잇가? 엇디 흔 디 | 日本 | 사름은肉食 테윗 거슬 먹디 이 |
| (0208b4) | 리 니르시믈 고디 아니 듯줍닉. | 日本 | 이면 이를 가지고 ㅁ장 머검죽 |
| (0109b6) | 은 앓가 遠見으로서 안 싸다히 | 日本 | 빅 뵈다 니르니 일덩 二番 特 |
| (0515a2) | 아프려나 그러와다. 그러하면 | 日本 | 船頭 ㅁ장 니근 사름 十五人을 |
| (0920b3) | 흔 날을 자네 니르시는 바는 | 日本 | 말을 비-홀 덕 업슨 양으로 기 |
| (0524b2) | 게 잘 주선-헉시소. 자넌-네는 | 日本 | 풍속을 미리 아라시는 이리오 |
| (0120b6) | 니 좋용히 쉬읍소. 넉일 나죄란 | 入館 | 하여 보옵새이다. 그리 헉읍소. |
| (0426a6) | 키 아니커니와 전두의 홀 시 一 | 年 | 二 年은 아니오 엇디 부디-홀가 |
| (0920a2) | 니겨 시작-헉여 이제 볼쳐 十 | 年 | 나마 되야시되 진실로 이만 헉 |
| (0314b3) | 브터도 심상히 너기디 말고 千 | 年 | 이나 가-도록 오래 불 양으로 |
| (0426a6) | 키커니와 전두의 홀 시 一年 二 | 年 | 은 아니오 엇디 부디-홀가 너 |
| (0921a6) | 스말 비화 시작-호미 게오 五六 | 年 | 도 못 헉디 그대-도록 막음 달 |
| (0421b3) | 굴히여 반만 자브시면 그 밋근 | 念 | 을 드러 넉일이라도 드릴 거시 |
| (0404a2) | 代官들의-게도 申송헉여 隨分 | 念入 | 하여 잘 드라 건넌 양으로 닐렸 |
| (0924b4) | 前州는 十二 郡 加賀州는 四 郡 | 能登州 | 는 四 郡 越中州는 四 郡 越後 |
| (0207a3) | 의 스스스 정윳 잔이오니 이 一 | 杯 | 만 잡읍소. 大切의 御意오니 예 |
| (0302a6) | 던시 뵈읍디 몬 헉오와 本意를 | 背 | 헉도다 너기읍디이다. 전 브터 |
| (0308a5) | 立酌을 헉실 작시면 일덩 禮를 | 背 | 홀가 너기읍더니 안즈라 니르 |
| (0925a6) | 且馬州는 八 郡 因幡州는 七 郡 | 伯耆州 | 는 六 郡 出雲州는 十 郡 石見 |
| (0925b5) | 隱岐州는 四 郡 山陽道の는 郡 | 幡磨州 | 는 十四 郡 美作州는 七 郡 備前 |
| (0921b6) | 직 五 畿内는 山城州의 所領이 | 八 | 郡이오 大和州의는 十五 郡 河 |
| (0922b4) | 二 郡 尾張州는 八 郡 三河州는 | 八 | 郡 遠江州는 十四 郡 駿河州는 |
| (0927b4) | 四 郡 日向州는 五 郡 大隅州는 | 八 | 郡 薩摩州는 十四 郡 一岐島는 |
| (0927a6) | 十 郡 豊前州는 八 郡 豊後州는 | 八 | 郡 肥前州는 十一 郡 肥後州는 |
| (0927a5) | 五 郡 筑後州는 十 郡 豊前州는 | 八 | 八 郡 豊後州는 八 郡 肥前州는 十 |
| (0922b3) | 五 郡 志摩州는 二 郡 尾張州는 | 八 | 郡 三河州는 八 郡 遠江州는 十 |
| (0925a5) | 六 郡 丹後州는 五 郡 但馬州는 | 八 | 郡 因幡州는 七 郡 伯耆州는 六 |
| (0923a3) | 四 郡 伊豆州는 三 郡 相模州는 | 八 | 郡 武蔵州는 二十一 郡 安房州 |
| (0926a4) | 郡 備後州는 十四 郡 安藝州는 | 八 | 郡 周防州는 六 郡 長門州는 六 |
| (0921b4) | 후 막음 멀리 생각디 마소. 日本 | 八 | 箇道内 六十六州를 분히다. 오 |
| (0829a6) | 이다. 빅예 트노라 헉야 辰時예 | 判使 | 네를 對馬島主게 보내야 이제 |
| (0521a4) | 나 디나 좋용커든 보옵새이다. | 判事 | 네 -의 마디 못 홀 미드려 헉 |
| (0403b2) | 로케 직간-헉읍소. 니르시는 바 | 判事 | 닉 -의로서 가지 가지 다스림 |
| (0406a4) | 버거 근심은 公木 善惡의 브터 | 判事 | 네과 싸홀가 너기오니 ㅁ장 잘 |
| (0102b1) | -이 오읍시도쇠. 안히 잇스오니 | 判事 | 네도 同道헉야 오쇼셔. 代官들 |
| (0418b6) | 히여 내면 十 束을 자블 써시니 | 判事 | 네 엇더케 너기시뇨? 代官들 |
| (0209b1) | 일이엇마는 前規에 잇는 일이니 | 判事 | 네 잘 드르시소. 과줄도 늦게 |
| (0428b1) | 을 헉이시면 넉일란 못조오리. | 判事 | 네는 代官의 손에 인는 거슬 오 |
| (0326a2) | 하 굴히디 말라 니르읍소. 그는 | 判事 | 네과 代官들히 열현이 아니 헉 |
| (0721a1) | 도홀까 시프다 헉니 그리 홀을 | 判事 | 네 -의도 니르닝이다. 그러면 |
| (0831a2) | 다. 니르니 太守 솔오른 출하리 | 半程 | 이나 모실 써슬 信使의셔 구타 |
| (0416a3) | 은 어딴서 五十 束 드린 公木을 | 半分 | 도 아니 잡고 나여 가라 헉고 |
| (0427b6) | 커 필을 일히시니 쯔 밋괴 두고 | 番 | 홀 사름도 업고 엇디 헉울고? |
| (0430a3) | 니르시니 그지 업스매 내 친히 | 番 | 을 홀 디라도 밤-새를 기도로 |
| (0429a2) | 키 몬 홀 써시모로 今夜란 브딕 | 番 | 을 헉읍소. 萬事 막음 대로 못 |
| (0428a4) | ! 엇디 헉울고? 今夜 唄 下人을 | 番 | 을 헉이시면 넉일란 못조오리. |
| (0214a6) | 시면 뉘 雜言헉울고? 우리는 一 | 番 | 特送이오니 몬져 보심이 올티 |
| (0108a4) | 한 헉오리. 先度 中歸船 便의 二 | 番 | 特送이 豊崎셔 日吉利를 기다 |
| (0110a2) | 日本 빅 뵈다 니르니 일덩 二 | 番 | 特送이 오는가 시브니 자네-네 |
| (0110b2) | 이 비는 므슴 빈고? 當年條 二 | 番 | 特送이읍도쇠. 어와 어와 거르 |
| (0832a5) | 이 헉쇼셔. 今度는 御裁判을 써 | 彼此 | 首尾 도히 못줍고 서르 하딕 이 |
| (0114b1) | 터도 東萊 釜山浦예 술와 方方 | 彼此 | 의 좇츠을 거시니 근심 마읍소. |
| (0420b3) | 前例의 업슨 일을 시작-헉여 | 批判 | 이실 적은 소임의 죄는 관게티 |
| (0528a3) | 야 우리의 面目도 이실디 형혀 | 批判 | 홀 적이면 슈괴 허일이 될가 이 |
| (0927b2) | 後州는 八 郡 肥前州는 十一 郡 | 肥後州 | 는 十四 郡 日向州는 五 郡 大 |
| (0927b1) | 豊前州는 八 郡 豊後州는 八 郡 | 肥前州 | 는 十一 郡 肥後州는 十四 郡 |

| | | | |
|----------|--------------------|-----|--------------------|
| (0505b2) | 니 ㅎ실 양으로 東萊의 옛즈와 | 飛脚 | 을 셀 양으로 ㅎ음새. 수이 書步 |
| (0504a1) | 대로 우리 兩人 中에 一人이 | 飛船 | 으로 도라 가울 거시니 그리 아 |
| (0415a5) | 드리실까? 早速 못디 못 ㅎ면 | 飛船 | 즈음에 맞디 못 흘 찌시니 힘 브 |
| (0923b6) | 州는 十三 郡 美濃州는 十八 郡 | 飛驒州 | 는 四 郡 信濃州는 十 郡 上野州 |
| (0926a3) | 前州는 十一 郡 備中州는 九 郡 | 備後州 | 는 十四 郡 安藝州는 八 郡 周防 |
| (0926a1) | 齊州는 十四 郡 美作州는 七 郡 | 備前州 | 는 十一 郡 備中州는 九 郡 備後 |
| (0926a2) | 乍州는 七 郡 備前州는 十一 郡 | 備中州 | 는 九 郡 備後州는 十四 郡 安藝 |
| (0922b3) | 勢州는 十五 郡 志摩州는 二 郡 | 尾張州 | 는 八 郡 三河州는 八 郡 遠江州 |
| (0925b6) | 陽道の는 郡 幡磨州는 十四 郡 | 美作州 | 는 七 郡 備前州는 十一 郡 備後 |
| (0923b5) | 東山道の는 近江州는 十三 郡 | 美濃州 | 는 十八 郡 飛驒州는 四 郡 信濃 |
| (0802b2) | 1망-ㅎ와 그 雜物에 小判 金子 | 百 | 枚를 맞고와 보내오니 브딴 거 |
| (0424a6) | 어려이 폐로이 굴모로 東萊入 | 百姓 | 도 건딴디 못 흘 일은 五日 雜 |
| (0303b1) | 개 도리-ㅎ음소. 니젓따소이다. | 病 | 中의 귀-ㅎ 약을 만히 주시매 |
| (0205a6) | 뵈옵디 못 호믈 ㄱ장 설이 너겨 | 病 | 이 더 重홀까 너기옵녕이다. 封 |
| (0507b1) | 야 禮 오매 아직 기드리옵닉. | 不自由 | ㅎ 고딴 아프란 쓰실 찌시나 잇 |
| (0414a5) | 다 마다 니르시는 바 아므려도 | 不審 | ㅎ외. 자넌-네 길터 니르심과 |
| (0416b6) | 오니 아므려나 思合ㅎ서 저기 | 不足 | 흘 찌라도 분별 아니티 못 ㅎ실 |
| (0502a6) | 도 ㅎ 天氣에 御仕合이옵도쇠. | 府中 | 도 無事ㅎ온가? 올스외. 上下 |
| (0923a4) | 尹豆州는 三 郡 相模州는 八 郡 | 武蔵州 | 는 二十一 郡 安房州는 四 郡 |
| (0322a4) | 公貿易 銅 鑑 看品도 못 ㅎ엿고 | 封進 | 雜物들도 올러 가야 京으로서 |
| (0215a1) | 이나 모되나 연고 업스신 날의 | 封進 | 看品흘 찌시니 그리 아르셔 나 |
| (0322b5) | 옵닉. 그러커니와 催促ㅎ오리. | 封進 | 返禮는 서울로서 헤아려 오는 |
| (0115b1) | 고? 나는 都船 이는 二 船 더는 | 封進 | 이옵도쇠. 正官은 어딴 겨시온 |
| (0205b2) | 病이 더 重홀까 너기옵녕이다. | 封進宴 | 을 수이 ㅎ을 찌시니 그 저기 |
| (0603a4) | 의 슈고를 니르시거니와 이는 | 物 | 에 비-ㅎ면 바늘 굿티오 자네 |
| (0211b1) | 니케 니르옵소. 圓座 帳枕 以下 | 物 | 을 催促ㅎ여 수이 드리옵소. 쏘 |
| (0921b4) | 日本 八 箇 道內 六十六 州를 | 分 | ㅎ다. 아직 五 畿內는 山城州의 |
| (0119a1) | 먹스오리. 자넌 말이 對馬島서 | 聞及 | ㅎ드시 잘 通ㅎ시니 아릅답스 |
| (0118b1) | 對馬島서도 자넌는 上口 신 줄 | 聞及 | ㅎ엿스오니 斟酌 마옵소. 하 니 |
| (0313b3) | 아므란 雜說이나 이실가 너겨 | 聞合 | 을 위-ㅎ여 ㅎ-마다 올라 가는 |
| (0125b1) | 쳐 주는 거슬 슬은 거시 아니라 | 別 | 로 슬와 주실가 ㅎ여 슬왔습닉. |
| (0116a6) | ㅎ오려니와 집피 드렛스오니 | 別 | ㅎ 일도 업스오니 니일 보옵소. |
| (0508a3) | 安堵ㅎ여 ㅎ옵닉. 며칠만의나 | 返事 | 올고 짐작이 게실 찌시니 니 |
| (0507a3) | 봄이 本意 언마는 朝廷으로서 | 返事 | 온 후에 보와야 禮 오매 아직 |
| (0509a5) | 十日이나 되려니와 쏘 서울서 | 返事 | 출히기에 二 日 三 日이나 ㅎ면 |
| (0509b6) | 그리 아라 기드리옵소. 그 장계 | 返事 | 왔습닉. 구-ㅎ시는 대로 나 |
| (0503b4) | 萊의 옛즈와 早早 註進ㅎ야 그 | 返事 | 대로 우리 兩人 中에 一人이 |
| (0506b3) | ㅁ 주서히 註進ㅎ여시니 쉽사리 | 返事 | 올 찌시니 그리 아옵소.” ㅎ |
| (0510b3) | 쇠. 今日 帛를 내올 찌시니 그 | 返書 | 를 수이 가지여 오옵소. 생각 브 |
| (0322b1) | 도 올러 가야 京으로서 返禮의 | 返書 | 올 거시니 自然 더될까 너기 |
| (0322b1) | 雜物들도 올러 가야 京으로서 | 返禮 | 의 返書 올 거시니 自然 더될 |
| (0322b5) | 그러커니와 催促ㅎ오리. 封進 | 返禮 | 는 서울로서 헤아려 오는 대로 |
| (0108a3) | 모시기란 ㅎ오리. 先度 中歸船 | 便 | 의 二 番 特送이 豊崎서 日吉利 |
| (0715a6) | 으로 슬와 주쇼셔. 關伯으로서 | 奉行 | 으로써 信使의 아모 일도 업시 |
| (0804a6) | 맞기 어려운 差別을 잘 아르셔 | 奉行 | 네 -의 극진히 닐러 도로 보내 |
| (0806b6) | 는 양으로 너기실 듯 ㅎ거니와 | 奉行 | 들의 슬설도 信使 스설의 디디 |
| (0805a5) | 니르시니 슬기도 어릅습찌니와 | 奉行 | 들의 스설-ㅎ옵끼는 信使의셔 |
| (0805a1) | 信使의셔 니르시디 아닌 전의 | 奉行 | 의셔 이 様子를 슬오라코 닐러 |
| (0720a5) | -홀쵸? 니르시는 바를 아춤의 | 奉行 | 닉 -의 議論ㅎ오니 御進物도 |
| (0803a5) | 對馬島主의 니르시는 바는 격기 | 奉行 | 들 드리고 오래 슈고-ㅎ던 아리 |
| (0801a6) | 言使 떠나서 사흘 길 곳에 격기 | 奉行 | 의로서 부러 사름을 보내야 슬 |
| (0820b2) | 色色 御慰懃히 니르신 양 주못 | 奉行 | 의로서 온 거슬 주노라 ㅎ시는 |
| (0818b2) | 클로 인스-홀 테도 업스니 江戸 | 奉行 | 의로서 보낸 金子를 자네 피신 |
| (0114b1) | 디 붓터도 東萊 釜山浦에 슬와 | 方方 | 彼此的 춇즈울 거시니 근심 마 |
| (0927a6) | 宛後州는 十 郡 豊前州는 八 郡 | 豊後州 | 는 八 郡 肥前州는 十一 郡 肥後 |
| (0108a6) | 先度 中歸船 便의 二 番 特送이 | 豊崎 | 서 日吉利를 기드리더라 닐러 |
| (0927a5) | 前州는 十五 郡 筑後州는 十 郡 | 豊前州 | 는 八 郡 豊後州는 八 郡 肥前州 |
| (0924b1) | 는 五十四 郡 出羽州는 十二 郡 | 北陸道 | 의는 若狹州는 三 郡 越前州는 |
| (0302a6) | 드오와 딘시 뵈옵디 못 ㅎ오와 | 本意 | 를 背ㅎ도다 너기옵닉이다. 전 |
| (0816a3) | 아릅답스와 일일 와 問安호미 | 本意 | 옵건마는 나의 ㄱ브를 헤아리 |

| | | | |
|----------|-------------------|-----|-------------------|
| (0507a1) | 나르시기는 “맛당히 수이 봄이 | 本意 | 언마는 朝廷으로서 返事 온 |
| (0823a3) | 시고 아직 아직 좋용히 쉬시미 | 本望 | 이음도송이다. 御出船 日은 今 |
| (0802b2) | 하와 그 雜物에 小判 金子 百 | 枚 | 를 밧고와 보내오니 브딕 거스 |
| (0124b3) | 겻스오니 큰 대 열과 공석 五六 | 枚 | 만 묻져 드러 주옵소. 글란 이 |
| (0403a1) | 아닐 듯 혼딕 그 홀 시를 ㄱ장 | 未審 | 히 너기옵닌. 어와 오늘은 右之 |
| (0201b1) | 날은 마즘 사오나온 브람의 다 | 無事 | 히 渡海하시니 아릅답다 니르 |
| (0406a1) | 러나 더러나 니르신 대로 하야 | 無事 | 히 못즈오니 아릅답스외. 버거 |
| (0111a3) | 와 하닝이다. 우리는 御陰을 써 | 無事 | 히 왓습거니와 빅 혼 척이 떠뎃 |
| (0413a6) | 로써 언머 더하연논고 헤아려 | 無事 | 히 되게 분별-홈이 웃듬이옵도 |
| (0502a6) | 氣에 御仕습이옵도쇠. 府中도 | 無事 | 하온가? 올스외. 上下 대되 無 |
| (0502b2) | 無事하온가? 올스외. 上下 대되 | 無事 | 하고 對馬島主 니르시는 바는 |
| (0203b3) | 아름다와 하옵닌. 올스외. 대되 | 無事 | 하닝이다. 오늘은 折節 天氣도 |
| (0518a4) | 기눔이다. 우리는 마즘 順風의 | 無事 | 히 붓즈오니 깃거 하옵닝이다. |
| (0813b5) | 큰 大慶이로송이다. 니르시드시 | 無事 | 히 예-삭지 붓즈오니 對馬島에 |
| (0701a4) | 득 第七 筑前 太守로서 예-삭지 | 無事 | 히 오시다 하셔 덕담으로 下人 |
| (0819b1) | 海上 遠路에 두로 쓰려 예-삭지 | 無事 | 히 온 우회는 나쁜 일도 업서 |
| (0713b4) | 셔 니르시는 바는 海上 먼 길히 | 無事 | 히 오신 괴별을 거르기 깃비 너 |
| (0218a6) | 거시니 좋용티 못 하외. 看品은 | 無事 | 히 하오니 아릅답스외. 춘 날의 |
| (0327a1) | 우리도 깃거 하느이다. 어제는 | 無事 | 히 연향을 하시니 깃브외. 東萊 |
| (0219a5) | 이 출혀 나쇼셔. 덕분의 看品을 | 無事 | 히 하오니 우리도 깃비 너기옵 |
| (0817b5) | 이다. 니르시드시 上下 多人 中 | 無事 | 히 예-삭지 브트니 아릅다오미 |
| (0203a6) | 장-하여이다. 書契를 보니 島中 | 無事 | 하시니 아릅다와 하옵닌. 올스 |
| (0106a4) | 치디 아니코 이리 솔오니 언머 | 無調法 | 이 너기시를 알건마는 하 無斗 |
| (0106a6) | 無調法이 너기시를 알건마는 하 | 無斗方 | 하여 굵는 일이오니 샤-하옵소 |
| (0913a2) | 일도 잘 읍디 못 하고 알고도 | 無道 | 히 된 仕合 붓쓰러오미 海山 |
| (0215b1) | 나옵소. 우리는 연고 업스오니 | 明日 | 이라도 홀 양으로 하옵소. 나 |
| (0127a2) | 치에 홀 양으로 하오리. 茶禮는 | 明日 | 하오니 미리 출혀 거시다가 나 |
| (0130a2) | 하거든 묻져 니르실 디라도 내 | 迷惑 | 을 프르시과다. 니르시는 배 그 |
| (0316b1) | 을 혼 가지로 자선마는 御手前 | 面上 | 의는 酒氣 一切 업스오니 술과 |
| (0706b4) | 우리의 그림이라도 하고 장쉬 | 面目 | 업시 너길 꺼시니 아프려나 바 |
| (0528a2) | 시면 사름-마다 기려야 우리의 | 面目 | 도 이실딕 형혀 批判홀 적이면 |
| (0412a1) | 고? 하물며 近年 以來 년-하여 | 木花 | 사오나와 公木의 大切히 되야 |
| (0325b2) | 너기느이다. 글란 그리 하옵소. | 木綿 | 은 내 친히 보와 ㄱ장 吟味하 |
| (0703a5) | 예-삭지 부리실 쏘 아니라 쏘 | 目錄 | 을 보니 어와 여와 여러 가지 |
| (0820a5) | 도 가 뵈을 거슬 ㄱ바 하옵실가 | 問安 | 만 술왓습더니 色色 御慰勸히 |
| (0216b2) | 시던가? 엇디 혼 디 일이 만하 | 問安 | 도 즈로 읍디 못 하니 일등 정 |
| (0517b5) | 하 쉬시고 빅-들토 도로 시과다 | 問安 | 하시딩이다. 예-삭지 使者 ㄱ |
| (0122a3) | 이 건너시도다.” 넘너-하시고 | 問安 | 하옵시데. 쏘 軍官도 보내시 |
| (0816a3) | 브트시니 아릅답스와 일일 와 | 問安 | 호미 本意옵건마는 나의 ㄱ브 |
| (0709b4) | 信使의 솔오른 江戶로서 信使의 | 問安 | 의 어른의 官員 二人이 三島 |
| (0714a1) | 너기샤 우리 二人을 예-삭지 | 問安 | 하시고 이 二三日 안히는 江戶 |
| (0520a4) | 브트셔 ㄱ바도 하옵시는가 아직 | 問安 | 알외닝이다. 넘너-하신 使 ㄱ |
| (0101b3) | 을 거슬 路次의 ㄱ브매 이제야 | 門 | -삭지 왓습닌. 안히 계시면 오 |
| (0324b2) | 日 二十日 무거 도라 가서도 | 約條 | 의 덩-흔 限-삭지는 엇디 열현 |
| (0109b1) | ㄱ-게 괴별을 니를 거시니 그는 | 油斷 | 홀 일은 업스오리. 代官네-의 |
| (0133a4) | 실 거시니 아프리커나 밤의도 | 養性 | 하여 나실 양으로 하여 보옵소. |
| (0710a2) | 三島삭지 와 기도른다 하오니 | 來日 | 은 三島의 가실 썩시니 즉제 이 |
| (0719a5) | 줄을 읍닝이다. 그러면 進物을 | 來日 | 이라도 출홀 디 보시는 날 홀 |
| (0812a6) | 는 양이면 자넨-게 맞디오리. | 藍島 | 宿所에 太守 ㄱ 보오라 와셔 信 |
| (0308a3) | -하옵새. 御意 감격-하여이다. | 立酌 | 을 하실 작시면 일등 禮를 背 |
| (0306b5) | 도쇠. 잔수는 디낫스오나 일등 | 立酌 | 하실 썩시니 아옵시드시 오래 |
| (0709a6) | 下를 존닝이다. 信使 ㄱ 吉田에 | 留守 | 홀 제 島主과 昭長老 ㄱ 뵈오 |
| (0809b3) | 브트시매 對馬島主 솔오른 大坂 | 留守 | 아프가히 아프가히 兩人의셔 |
| (0904b1) | 례를 하오려 싱각거니와 朝鮮 | 料理 | 면 자네-네 뜻에 드디 아닐까 |
| (0504a5) | 이리 호른 上方의 註進도 하고 | 路次 | 各官의 接待의 괴결-호를 위 |
| (0716a5) | 노라 廻引호을 썩시니 그 안히 | 路次 | 의 괴로오미나 從容히 쉬과다 |
| (0623a4) | 르시는 양이 그러도 홀 듯 하면 | 路次 | 의 일란 자네-게 맞딜 거시니 |
| (0612a1) | 수이 하고져 하느 거시언마는 | 路次 | 處處의 일 출힐 뎃토 헤아려 이 |
| (0101b2) | 괴 느려 와 어제라도 오을 거슬 | 路次 | 의 ㄱ브매 이제야 門-삭지 왓 |
| (0818a2) | 깃븐 디로송이다. 진실로 太守 | 路次 | 處處의 슈고-하신 樣子 말로 |

| | | | |
|----------|--------------------|------|---------------------|
| (0925b2) | 六 郡 出雲州는 十 郡 石見州는 | 六 | 郡 隱岐州는 四 郡 山陽道の는 |
| (0925a3) | 는 三 郡 山陰道の는 丹波州는 | 六 | 郡 丹後州는 五 郡 但馬州는 八 |
| (0926a5) | 四 郡 安藝州는 八 郡 周防州는 | 六 | 郡 長門州는 六 郡 南海道の는 |
| (0926a6) | 八 郡 周防州는 六 郡 長門州는 | 六 | 郡 南海道の는 紀伊州는 七 郡 |
| (0925a6) | 八 郡 因幡州는 七 郡 伯耆州는 | 六 | 郡 出雲州는 十 郡 石見州는 六 |
| (0928a3) | 郡 對馬島는 二 郡 此 二 島는 | 六十六 | 州之 外歟 捷解新語 第九 終 |
| (0921b4) | 싱각디 마소. 日本 八 箇 道內 | 六十六 | 州를 分한다. 아직 五 畿內는 四 |
| (0922a4) | 는 十五 郡 河內州의는 十五 郡 | 和泉州 | 의는 三 郡 攝津州는 十三 郡 河 |
| (0512a5) | 十四五 日만 ㅎ셔 出船 吉日은 | 來月 | 十二三 日의 庭-ㅎ얏다 니르옵 |
| (0514a5) | 닌. 니르시드시 朝鮮 船頭들도 | 來日 | 은 日吉利 이실 듯 ㅎ다 니르니 |
| (0217a5) | 종용히 뵈옵고 니즌 스이 업시 | 僉官 | 들-씩 니르고 잇습니다. 드 |
| (0402b2) | 자닌-네도 아라실 쏘 아니라 | 兩 | 國 誠信으로 公貿易이라 庭-ㅎ |
| (0827b4) | 히 너겨 깃쎄라 ㅎ오니 일로써 | 兩 | 國 安泰호 陰德인가 감격이 너 |
| (0602b4) | 히 니르심이로송이다. 진실로 | 兩 | 國 靜謐히 誠信을 닷가 이러트 |
| (0910b1) | 이 ㅎ 허믈로 싱각-ㅎ옵거니와 | 兩 | 國境의 소임을 ㅎ는 사름이 너 |
| (0503b5) | 쿠 註進하야 그 返事 대로 우리 | 兩 | 人 中에 一 人이 飛船으로 도리 |
| (0503a6) | 닌 씩 出船 吉日이고 하야 우리 | 兩 | 人을 불의에 막켜 건네여 겨시 |
| (0828a5) | 함이옵도쇠. 진실로 니르시드시 | 兩 | 國 誠信之 故로 귀-ㅎ 곳을 구 |
| (0809b3) | 大坂 留守 아므가히 아므가히 | 兩 | 人의셔 예셔 四五 日어나 무그 |
| (0917a5) | 六 人만 계시과다 다 원-ㅎ몬 | 兩 | 國의 ㅎ음이라 니르는 이리옵도 |
| (0601b1) | -도록 솟-도록 아릅다운 일은 | 兩 | 國 安泰히 誠信之 道를 서르 던 |
| (0717b4) | 닌-네도 처음으로 보오완마는 | 兩 | 國 誠信之 道 ㄹ란디 心中의 친 |
| (0612a1) | ㅎ고져 ㅎ는 거시언마는 路次 | 處處 | 의 일 출힐 뎃도 헤아려 아므 들 |
| (0818a2) | 되로송이다. 진실로 太守 路次 | 處處 | 의 슈고-ㅎ신 樣子 말로 다 못 |
| (0126a2) | 가 극진이 술오려니와 자닌도 | 單字 | 를 썬 보내옵소. 글란 그리 ㅎ |
| (0917a5) | 六 人만 계시과다 다 원-ㅎ몬 兩 | 國 | 의 ㅎ음이라 니르는 이리옵도 |
| (0601b1) | 도록 솟-도록 아릅다운 일은 兩 | 國 | 安泰히 誠信之 道를 서르 던-ㅎ |
| (0827b4) | 너겨 깃쎄라 ㅎ오니 일로써 兩 | 國 | 安泰호 陰德인가 감격이 너기 |
| (0402b2) | 자닌-네도 아라실 쏘 아니라 兩 | 國 | 誠信으로 公貿易이라 庭-ㅎ여 |
| (0717b4) | -네도 처음으로 보오완마는 兩 | 國 | 誠信之 道 ㄹ란디 心中의 친-ㅎ |
| (0828a5) | 옵도쇠. 진실로 니르시드시 兩 | 國 | 誠信之 故로 귀-ㅎ 곳을 구경- |
| (0602b4) | 니르심이로송이다. 진실로 兩 | 國 | 靜謐히 誠信을 닷가 이러트시 |
| (0910b1) | ㅎ 허믈로 싱각-ㅎ옵거니와 兩 | 國境 | 의 소임을 ㅎ는 사름이 너비 ㄹ |
| (0211b1) | 후란 이러티 아니케 니르옵소. | 圓座 | 帳枕 以下 物을 催促하여 수이 |
| (0327b2) | 과 都船네 樣體 ㄹ 심상티 아나 | 奇特 | ㅎ 相指를 다 잘 ㅎ더라 기리시 |
| (0312b6) | 도 萬事 ㄹ 長老의 띠디디 아너 | 奇特 | ㅎ 직간이라 니르니 우리도 듯 |
| (0107b2) | 븐 되 업스니 送使의 對面 ㅎ면 | 奇特 | 이 너기믄 아는 앞피니 우리의 |
| (0924a4) | 野州는 十四 郡 下野州는 九 郡 | 奥州 | 는 五十四 郡 出羽州는 十二 郡 |
| (0601b5) | 멀리 渡海하셔 내-게 請하여 | 對坐 | ㅎ는 일 곱곱 싱각-ㅎ면 둥간테 |
| (0118b1) | 자옵소. 下口 ㄹ 오니 마르쇼셔. | 對馬島 | 셔도 자닌는 上口 ㄹ 신 줄 聞及 |
| (0612a5) | ㄹ 뎃도 헤아려 아므 둘 아므 ㅼ | 對馬島 | 를 떠나실 양으로 니르시니 이 |
| (0814a1) | 드시 無事히 예-씩지 붓즈오니 | 對馬島 | 에 브툼과 ㅎ 가지로 깃거 ㅎ는 |
| (0119a1) | 시니 ㅎ나 먹스오리. 자닌 말이 | 對馬島 | 셔 聞及하드시 잘 通하셔니 아 |
| (0809a3) | 출하리 자네 바다셔 슈고-ㅎ던 | 對馬島 | 사름-들회-게나 주시소. 信使 |
| (0928a1) | 摩州는 十四 郡 一岐島는 二 郡 | 對馬島 | 는 二 郡 此 二 島는 六十六 州 |
| (0519b3) | 오오니 이제야 安堵하영이다. | 對馬島主 | 의 使 ㄹ 즉시 와셔 太守 솟는 ㅼ |
| (0803a4) | 對馬島主의 니러 보내눔이다. | 對馬島主 | 의 니르시는 바는 격기 奉行들 |
| (0518b1) | 히 붓즈오니 깃거 ㅎ옵닝이다. | 對馬島主 | 맛조이로 왓습니. 마즘 년-ㅎ |
| (0830a1) | 의 가 하딕 술옴새 ㅎ고 보낸대 | 對馬島主 | 불셔 보내믈 위-ㅎ야 비를 내디 |
| (0809b1) | 주시소. 信使 大坂의 브르시매 | 對馬島主 | 술오른 大坂 留守 아므가히 아 |
| (0722b1) | 다. 三奉行이 어제 御禮라 하야 | 對馬島主 | 로써 솟는 일은 어제는 對面하 |
| (0502b4) | ㅼ? 올스와. 上下 대되 無事하고 | 對馬島主 | 니르시는 바는 信使 건너실 양 |
| (0808b6) | ㄹ러도 바들 인스는 아니어니와 | 對馬島主 | 의 힘으로도 도로 보낼 일이 못 |
| (0804b4) | 니러 도로 보내시믈 미뎃습니. | 對馬島主 | 엇즈오른 信使의셔 니르시디 |
| (0517a1) | . 최촉-하셔 이제 비를 내옵니. | 對馬島主 | 의셔로써 솔오른 도흔 天氣에 예 |
| (0523a2) | 니 그리 아르셔 信使의 솟기란 | 對馬島主 | 솔오디 信使 우다히 디나실 제 |
| (0803a1) | 양으로 ㅎ옵쇼셔. 委細之 儀는 | 對馬島主 | 의 니러 보내눔이다. 對馬島主 |
| (0829a6) | 트노라 하야 辰時에 判使네늘 | 對馬島主 | 게 보내야 이제야 비예 트오니 |
| (0530b3) | ㄹ은 祝願의 연향이오니 信使의 | 對面 | ㅎ여 쏘도 술와 불 거시니 그리 |
| (0107a6) | 스당의 낮븐 되 업스니 送使의 | 對面 | ㅎ면 奇特이 너기믄 아는 앞피 |

| | | | |
|----------|--------------------|-----|--------------------|
| (0022b2) | 馬島主로써 畚는 일은 어제는 | 對面 | 함고서 서러 말씀-호오매 아 |
| (0812b5) | 른 어와 어와 三使의 御果報에 | 往來 | 힘-호 海路의 항로도 惡風을 |
| (0509a2) | 돈돈이 닐러 겨시니 그러하면 | 往來 | 九日十日이나 되려니와 또 |
| (0716b1) | 니 그 안히 路次의 괴로오미나 | 從容 | 히 쉬과다 何야 畚는 일어로송 |
| (0113b3) | 커머서 떠디온가? 거의 다 와서 | 惡風 | 을 만나 큰 비에 격군도 적고 |
| (0812b6) | 에 往來 힘-호 海路의 항로도 | 惡風 | 을 만나디 아니코 多人中 아 |
| (0907b6) | 켓습더니 또 친히 와 겨서 너모 | 慇懃 | 호신 御禮 도로켜 붓그러온 次 |
| (0828a2) | 격이 너기옵닝이다. 어와 어와 | 慇懃 | 호 宴席이옵도쇠. 진실로 닐 |
| (0607a4) | 의 일이라 엇줍넉이다. 色色의 | 慇懃 | 을 꾸미시니 진실로 식양코져 |
| (0716b4) | 일이로송이다. 어와 어와 즉시 | 慇懃 | 히 무로시니 感激호신 절츠를 |
| (0703b2) | 어와 여러 가지 珍味 이걸 더걸 | 慇懃 | 히 호신 양이 御禮에 너른 양 |
| (0315b4) | 御牌를 두고 常常 節句 日마다 | 拜禮 | 를 호느닝이다. 그리 흠을 島中 |
| (0922a5) | 리는 十五郡 和泉州의는 三郡 | 攝津州 | 는 十三郡 東海道는 伊賀州는 |
| (0210a1) | 고 雞子도 호나히 업고 덤시도 | 數内 | 에 호나홀 더러시니 닛고 이 |
| (0118b2) | 上口신 줄 聞及호엿스오니 | 斟酌 | 마옵소. 하 니르시니 호나 먹 |
| (0914a1) | 되얏스오니 아프려나 모다 내 | 様子 | 를 思分호셔 萬事를 두로 쓰 |
| (0415b2) | 시니 힘 쓰옵소. 아프리 시절의 | 様子 | 를 스설-호여도 代官네도 아 |
| (0120b3) | 일 아춤은 東萊 올라 가 送使의 | 様子 | 를 畚고 올 겨시니 종용히 쉬 |
| (0428b4) | 디 아닌논가 너기시거니와 이 | 様子 | 도 送使의 주세히 니르디 아 |
| (0805a1) | 르시디 아닌 전의 奉行췌셔 이 | 様子 | 를 술오라코 닐러 왔던디 몬 |
| (0818a4) | 太守 路次 處處의 슈고-호신 | 様子 | 말로 다 못 홀 일어로송이다. 별 |
| (0528b3) | 옵넉. 太守 니르시는 道理 前後 | 様子 | 를 극진히 三使췌 열즈오니 三 |
| (0512b6) | 니르니 일덩 그러호은가? 天氣 | 様子 | 일덩 順風이 이실 듯 호다 |
| (0327a6) | 萊 釜山浦로서 正官과 都船네 | 樣體 | 심상티 아나 奇特호 相指를 |
| (0312a1) | 마티 다 먹스오리이다. 長老는 | 樣體 | 사람의 넘고 술도 잘 홀 썬 아 |
| (0320b2) | 오니 아프려나 덕분을 빼 수이 | 歸島 | 홀 양으로 바라느이다. 오선 디 |
| (0103b1) | 시오니 各各 답답이 너기실가 | 氣遣 | 호오니 萬事의 두로 쓰리시 |
| (0130b6) | 거니와 이 양병은 아니오. 正官 | 氣色 | 이 견디엄죽-하면 나고져 너 |
| (0128b4) | 양으로 니르옵시던고? 正官의 | 氣相 | 도 아디 몬 호고 送使의 연고 |
| (0403a5) | 右之 道理를 正官도 분별 두셔 | 氣味 | 도게 직간-호옵소. 니르시는 |
| (0519a2) | 다와 호옵닝이다. 멀리 마즈심 | 滿足 | 호양이다. 니르시드시 天氣도 |
| (0528b6) | 使 니르시몬 극진히 넘너-호심 | 滿足 | 호여이다. 그러커니와 朝鮮 作 |
| (0611a1) | -것티 도로혀 붓그럽스왕이다. | 爰元 | 出船 이 될 十五日이라 호니 |
| (0703b1) | 豫을 보니 어와 어와 여러 가지 | 珍味 | 이걸 더걸 慇懃히 호신 양이 御 |
| (0110b2) | 도 아옵소. 이 비는 므슴 빙고? | 當年條 | 二番 特送이옵도쇠. 어와 어와 |
| (0609a4) | 켜 즐겨오미 마 업서 글로 호여 | 蓋 | 을 즐겨 어즐-호여 正體 업소 |
| (0311b3) | 다 먹습고 正體 업습건마는 이 | 蓋 | 으란 御意 마티 다 먹스오리 |
| (0207b1) | 셔 죽스와도 먹스오리이다. 이 | 蓋 | 을 보쇼셔. 하 것소이 너기오 |
| (0507a4) | 延으로서 返事 온 후에 보와야 | 禮 | 오매 아직 기다리옵넉. 不自 |
| (0708b2) | 네 일흠은 무어신고 싱각-호야 | 禮 | 홀 제 술오려 호넉. 장췌 돈돈 |
| (0309b3) | 옵신가 민망-호여이다. 안자셔 | 禮 | 어려오니 당테로 잔 썬 들기 |
| (0307b4) | 러티 아니커니와 今度 안자도 | 禮 | 에는 삼디 못 홀 썬시니 안자 |
| (0617a2) | 잘 아려서 接待호는 분-네-췌 | 禮 | 를 술와 주쇼셔. 니르시는 道理 |
| (0722b5) | 서러 말씀-호오매 아롭다오미 | 禮 | 에 너머이다. 捷解新語 第七 終 |
| (0324a1) | 싱각-호느이다. 우리 나라는 | 禮 | 돈돈호여 호 번 덩-호 후 |
| (0309b5) | 어려오니 당테로 잔 썬 들기 | 禮 | 를 삼습새. 마장 도췌오니 그리 |
| (0308b3) | 술을 양이 업서이다. 우리 이 | 禮 | 에 삼스오리잇가? 엇디 호 디 |
| (0308a5) | 이다. 立酌을 호실 작시면 일 | 禮 | 를 背홀가 너기옵더니 안즈라 |
| (0911a4) | 여-호믈 웃듬으로 호니 귀-호 | 禮物 | 을 마춤이 웃듬으로 너기오니 |
| (0919b2) | 네는 우은 사름이로쇠. 홀리는 | 籠具 | 도 업시 사름을 홀리는 사름이 |
| (0613a4) | 넉일은 구름 브트미 도췌오니 | 籃鳥 | -췌지는 브트실까 아롭다와 |
| (0624a2) | 흔-들이 못히 느려 振舞 적이나 | 萬事 | 에 보디 슬흔 일이나 이시면 |
| (0721b1) | 새. 어제는 城에서 인스당이며 | 萬事 | 딛답-호는 양이 마장 올히 호 |
| (0105a6) | 니 자네-네 送使의 드려 가서 | 萬事 | 를 주췌-호야 나의 싱소를 나 |
| (0914a3) | 려나 모다 내 様子를 思分호셔 | 萬事 | 를 두로 쓰리시믈 미더습니 |
| (0312b4) | 시고 또 島主도 나흔 쳐뜨셔도 | 萬事 | 長老의 떠디디 아너 奇特 |
| (0429a3) | 모로 今夜란 브디 番을 호옵소. | 萬事 | 믹을 대로 못 호여 되즈디 못 |
| (0103b3) | 답답이 너기실가 氣遣호오니 | 萬事 | 의 두로 쓰리시믈 미들 췌름이 |
| (0614b3) | 시 도호 날을 만나시니 이 앓흔 | 萬事 | 므옵 편-호까 祝願호넉이다 |
| (0926b5) | 炎路州는 二郡 阿波州는 九郡 | 讚岐州 | 는 十一郡 伊豫州는 十四郡 |

| | | | |
|----------|-------------------------------|-----|---------------------------------|
| (0404a2) | 부터 代官들의-게도 申송 ^ㅎ 여 | 隨分 | 念入 ^ㅎ 여 잘 드라 건넬 양으로 |
| (0328b2) | 러커니와 二三 日 디나거든 銅 | 鑑 | 看品 흘 찌시니 몬져 代官네-스 |
| (0322a2) | 그리 ^ㅎ 려니와 당시 公貿易 銅 | 鑑 | 看品도 못 ^ㅎ 엿고 封進 雜物들 |
| (0715a6) | 라셔 도 ^ㅎ 양으로 술와 주쇼셔. | 關伯 | 으로서 奉行으로써 信使의 아 |
| (0925b3) | 出雲州는 十 郡 石見州는 六 郡 | 隱岐州 | 는 四 郡 山陽道の는 郡 幡磨州 |
| (0214a4) | 使를 보셔도 츠레로 보시면 뉘 | 雜言 | ^ㅎ 울고? 우리는 一番 特送이오 |
| (0802a5) | 름이 되올까 하 민망- ^ㅎ 와 그 | 雜物 | 에 小判 金子 百 枚를 맞고와 |
| (0801b2) | 술오든 信使의셔 격기에 나쁜 | 雜物 | 두실 적의 가지 가지 스양- ^ㅎ 도 |
| (0803b4) | 희 별로 포- ^ㅎ 일도 업서 마름 | 雜物 | 나쁜 거시 이시니 출하리 이나 |
| (0322a4) | 銅 鑑 看品도 못 ^ㅎ 엿고 封進 | 雜物 | 들도 올려 가야 京으로서 返禮 |
| (0323a6) | 인-네 수이 도라 가오면 五 日 | 雜物 | 은 묵는 스이만 주실 찌시오니 |
| (0324a4) | 후는 고티디 아니 ^ㅎ 니 五 日 | 雜物 | 은 자 ^ㅎ -네 十 日 二十 日 무거 |
| (0424b2) | 百姓도 견디디 못 ^ㅎ 일은 五 日 | 雜物 | 드리기에 스나히는 지고 겨집은 |
| (0313b2) | 이 네과 달라 上方의셔 아므란 | 雜說 | 이나 이실가 녀겨 聞음을 위- ^ㅎ |
| (0602b4) | 르심이로송이다. 진실로 兩 國 | 靜謐 | 히 誠信을 닷가 이러트시 아롬 |
| (0706a3) | 흔 거시언마는 下人을 위- ^ㅎ 야 | 德談 | 옛 일이라 ^ㅎ 셔 우리를 부러 보 |
| (0811a5) | 셔 信使의 뵈고 노르실 양으로 | 教令 | 이 이실 식야 이대-도록 니르 |
| (0126b6) | 커니 잠깐 ^ㅎ 려 거시니 二三 日 | 內 | 예 흘 양으로 ^ㅎ 오리. 茶禮는 마 |
| (0819b4) | 는 나쁜 일도 업서 이 二三 日 | 內 | 예 出船 ^ㅎ 을 거시니 그리 아름 |
| (0821a5) | 흘 일로송이다. 또 二三 日 | 內 | 出船이라 니르시니 그리 못 ^ㅎ |
| (0907b2) | 키 ^ㅎ 여 도라 가심도 츠세 몰라 | 內內 | 이러로서 술을 찌술 이도 술의 |
| (0815a2) | 키 果報 셴 일인가? 이러로서 | 內內 | 御禮를 술오려 싱각- ^ㅎ 얏든디 |
| (0209b5) | 게 괴왔고 건물도 두 가지 업고 | 雞子 | 도 ^ㅎ 나히 업고 덩시도 數內예 |